수원화성

수원시사편찬위원회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기획 방향과 구성

□ 수원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3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4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14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7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17	수원 화성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18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9	수원의 문화와 예술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 1960~1970년대 수원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20	수원 자료 목록집

□ 제1~10권은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 제11~15권은 수원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토박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였다.
□ 제16권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기의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제17권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다루었다.
□ 제18~20권은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문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8권에서는 수원 지역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를, 제19권에서는 1960~1970년대 사진 자료를 통해 수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20권에는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근현대 문서의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였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되,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로 주제 및 특성에 맞게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권별로 주제와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수원시사의 전체적인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원고에 대한 윤문과 첨삭이 이루어졌다.

저작권과 출처 표기

□ 이 책의 저작권은 수원시에 있다. 이 책에 사용된 도표와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와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 두었으며,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원시가 제작 · 소장하거나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이다.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 ·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별도의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수원 화성 제17권

Contents

임오화변과 현륭원 천봉

1

제1장 영조 대 정국동향과 임오화변 최봉영 15
1. 영조 대 정치체제와 탕평정국 15
2. 사도세자의 성장과 정신질환 17
1) 사도세자의 출생과 성장 17
2) 사도세자의 정신질환 22
3. 사도세자의 정치적 성향과 부왕과의 대립 24
1) 사도세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태도 24
2) 세자와 노·소론의 관계 27
4. 임오화변의 전개 30
1) 나경언의 고변 30
2) 영조의 대처분 32

제2장 사도세자의 신원과 영우원 승격 최성환 37
1. 사도세자의 위상과 영조의 국상 주도 37
2. 수은묘(垂恩墓) 조성과 수은묘(垂恩廟) 축소 이건 42
3. 정조의 즉위와 영우원(永祐園)·경모궁(景慕宮) 승격 51

제3장 정치적 상황과 현륭원 천봉 이달호 63
1. 정치적 상황 63
1) '임오의리(壬午義理)'의 공론화 63
2) 채제공의 중용과 남인의 등용 66
2. 현륭원 천봉 71
1) 천봉 배경 71
2) 현륭원 천봉 76



suwon hwaseong

수원 신읍치 조성과 활성화

2



제1장 수원 신읍치 조성 정해득 83
1. 『반계수록』의 수원 신읍치 풍수 83
2. 구읍치 이주민의 신읍치 이전 보상 86
3. 신읍치 이주민 대책과 정착 90

제2장 수원 신읍치 활성화 정책 정해득 95
1. 정조의 수원 신읍 활성화 구상 95
2. 수원민인 부역 면제 특혜 100
3. 수원 읍치 과거 정례화 102

제3장 시전의 설치와 운영 정승모 115
1. 영·정조 대 상업정책 115
2. 조심태의 수원 시전 조성과 읍세 확장 방안 122
3. 수원 시전의 설치와 운영 124

제4장 농업 기반의 조성과 운영 염정섭 133
1. 경세치용학파의 전제개혁론 133
2. 수리시설의 축조와 활용 137
3. 둔전의 설치와 운영 145

화성 축성

3

제1장 정약용의 화성 설계 조성을 155
1. 정약용과 정조 156
2. 정약용의 학문과 기술 발전론 162
3. 정약용의 화성 계획과 새로운 기구 설계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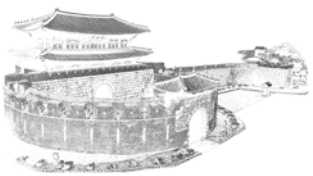
제2장 정조의 화성 건설 구상과 정치리더십 박현모 175
1. 수원 화성 건설과 그 의의 175
2. 노론의 화성 축조 반대론 178
3. 채제공의 화성 축조 강행론과 정조의 대응 179
4. 정치의 설 자리와 정조의 선택 181
5. 정조의 문무(文武) 양경(兩京) 구상과 화성 건설 프로젝트 183
6. 화성행차의 정치적 의미 186
7. 소강시대를 위하여 191

제3장 화성 축성 조직과 운영 이달호 197
1. 축성 조직과 인적 자원 197
1) 관리 분야 197
2) 기술자 201
3) 품팔이 204
2. 노임 지불 205
1) 노임 지불방식 205
2) 작업조건과 특별혜택 207
3. 물자 조달 208
1) 석재 208
2) 목재 210
3) 기와와 벽전 212
4) 철물 212
5) 기계와 도구 214
6) 각종 재료와 잡물 215
4. 가옥과 전답 보상 216
5. 화성 건설 비용 219



제4장 화성 축성의 전개와 완공 정정남 223
1. 조심태의 축성론과 석재 발굴 223
2. 석재와 전재(塼材)의 활용 230
3. 축성의 난관과 해결 238
1) 목재 수급과 운반에 관한 문제 239
2) 석수(石手) 수급과 관리의 문제 241
3) 석재 운반과 가공 문제 242
4. 화성의 성곽사적 의의 246

제5장 화성의 시설물 정정남 251
1. 성벽 251
2. 사대문 253
1) 장안문(長安門) 253
2) 팔달문(八達門) 256
3) 창룡문(蒼龍門) 256
4) 화서문(華西門) 257
3. 암문 258
1) 남암문(南暗門) 259
2) 동암문(東暗門) 260
3) 북암문(北暗門) 260
4) 서암문(西暗門) 260
5) 서남암문(西南暗門) 261
4. 수문(水門) 261
1) 북수문(北水門) 261
2) 남수문(南水門) 263
3) 남은구(南隱溝)와 북은구(北隱溝) 264
4) 남지(南池), 북지(北池), 동지(東池) 264
5. 장대(將臺) 265
1) 서장대(西將臺) 265
2) 동장대(東將臺) 266
6. 노대(弩臺) 267
1) 서노대(西弩臺) 268
2) 동북노대(東北弩臺) 268
7. 공심돈(空心墩) 269
1) 서북공심돈(西北空心墩) 269
2) 남공심돈(南空心墩) 271
3) 동북공심돈(東北空心墩) 271
8. 각루(角樓) 272
1) 동북각루(東北角樓) 272
2) 서북각루(西北角樓) 273
3) 서남각루(西南角樓) 274
4) 동남각루(東南角樓) 274
9. 치성(雉城) 275
1) 서일치(西一雉) 275
2) 서이치(西二雉) 275
3) 서삼치(西三雉) 275
4) 용도치(甬道雉) 276
5) 동일치(東一雉) 276
6) 동이치(東二雉) 276
7) 동삼치(東三雉) 277
8) 남치(南雉) 277





10. 적대(敵臺) 277
1) 북동적대(北東敵臺) 277
2) 북서적대(北西敵臺) 277
11. 포루(砲樓) 278
1) 동북포루(東北砲樓) 278
2) 동포루(東砲樓) 279
3) 북서포루(北西砲樓) 279
4) 서포루(西砲樓) 280
5) 남포루(南砲樓) 280
12. 포루(鋪樓) 280
1) 동북포루(東北鋪樓) 281
2) 북포루(北鋪樓) 282
3) 서포루(西鋪樓) 282
4) 동일포루(東一鋪樓) 282
5) 동이포루(東二鋪樓) 283
13. 봉돈(烽墩) 283
1) 화성 봉돈(烽墩) 283
2) 서봉산(棲鳳山) 사이 봉화 284
14. 포사(鋪舍) 284
15. 성신사(城神祠) 285

장용영 외영의 설치와 운영

4

제1장 장용영 창설과 군권 강화 김준혁 289
1. 장용영 창설의 추이 289
1) 숙위소 설치 289
2) 장용영 창설 291
2. 장용영 창설의 목적 295
1) 친위군 강화 295
2) 균역법 혁파를 통한 민생 안정 298

제2장 장용영의 직제 김준혁 305
1. 장용영의 개편과 직제의 성립 305
2. 장용영의 직제 구성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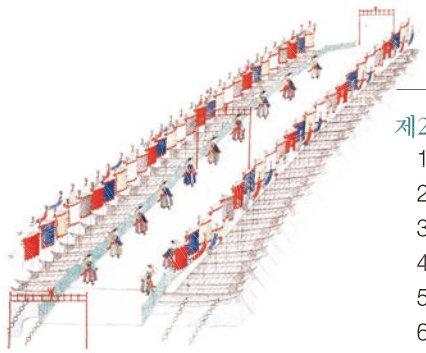
제3장 장용영 외영의 성립 김준혁 325
1. 장용영 외영의 설치 목적 325
2. 장용영 외영의 정비 331
3. 장용영 외영의 화성 방어와 수가(隨駕) 335

제4장 장용영 외영의 군제 운영 김준혁 343
1. 장용영 외영의 초기 군제 343
2. 장용영 외영의 화성 협수군제(協守軍制) 완비 347



1795년 8일간의 화성행차

5



제1장 1795년 왕실 행사와 화성행차 김문식 361
1. 1795년 다섯 가지 행사 362
1) 경모궁의 제사 362
2) 화성행차 364
3) 영흥본궁의 추향 제사 370
4) 혜경궁 탄신의 축하 372
5) 「영괴대비」의 건립 376
6)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간행 378
2. 화성행차의 목적 379
1) 사도세자의 복권 추진 380
2) 혜경궁에 대한 우대 382
3) 군사훈련을 통한 무력시위 383
4) 양반층과 노인을 위한 행사 384
5) 일반 백성을 위한 조치 385

제2장 8일간의 화성행차 허용호 389
1. 대성전 참배 390
2. 과거시험 394
3. 현륭원 참배 399
4. 주 · 야간 군사훈련 401
5. 봉수당 진찬 409
6. 사미(賜米) 행사 420
7. 양로연 행사 423
8. 득중정 어사(御射) 429

제3장 화성행차와 군사훈련 김준혁 435
1. 정조의 능행과 군사훈련 435
2. 1795년 윤2월 화성 행행의 군사훈련 438

제4장 을묘원행 재정의 마련과 운영 정숭교 451
1. 재원의 마련 452
1) 원행을 위한 재원의 마련 452
2) 비용 지출을 정리소로 일원화 454
3) 내탕금의 하사 455
4) 장용영을 통한 재정 운영 455
2. 을묘원행 시 사용된 비용 457
1) 가교 등 제작 비용 459
2) 정리소에서 쓰인 포목 값 460
3) 그릇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461
4) 행차 시 각 참에서 사용된 비용 461

5) 경기도에서 각 참에 공급한 잡물과 교량 보수 비용 462
6) 반전(盤纏), 내외빈 이하 각 관서에 지급한 노잣돈 463
7) 무예청과 사복시에 지급된 비용 465
8) 행사 모습을 그린 병풍 제작 466
3. 자금을 남겨 화성 경영에 투자하다 466
1) 제주 진휼 467
2) 수원 둔전 개발에 투자하다 468
3) 재무 결산 469
4) 을묘정리곡(乙卯整理穀)을 마련하다 470
5) 을묘정리곡, 수원에 모이다 472
6) 을묘원행 재정 운영의 특징 474

화성행궁

6

제1장 행궁제도와 화성행궁 신명호 479
1. 조선시대의 행궁제도 479
2. 화성행궁의 건립 491
3. 화성행궁 건설의 의의 498

제2장 화성행궁의 배치와 구조 이상해 507
1. 화성행궁 설치의 배경과 목적 507
1) 화성의 유수부 승격과 사도(四都)체제의 성립 507
2) 화성행궁의 규모 509
3) 화성 천도설 511
4) 상왕(上王)이 머물 곳, 화성행궁 512
2. 화성행궁 건립 과정 518
1) 성곽공사 전후 화성행궁의 구조와 건물 규모 518
2) 정조 대 이후의 화성행궁 구조 변화 519
3) 화성행궁 복원사업 521
3. 화성행궁의 입지와 배치 522
4. 화성행궁의 건축 특성 534

제3장 화성행궁의 주요 건물 이상해 537
1. 삼문(三門) 538
1) 신풍루(新豊樓) 538
2) 좌익문(左翊門) 539
3) 중양문(中陽門) 540
2. 행궁 중심 영역 541
1) 봉수당(奉壽堂) 541
2) 장락당(長樂堂) 545
3) 경룡관(景龍館) 546
4) 복내당(福內堂) 547
5) 유여택(維與宅) 549





3. 행사와 휴식을 위한 영역 551
1) 낙남헌(洛南軒) 551
2) 득중정(得中亭) 555
3) 노래당(老來堂) 557
4) 미로한정(未老閒亭) 558
4. 행정 및 군사 영역 559
1) 남·북군영(南北軍營) 559
2) 내포사(內舖舍) 559
3) 외정리소(外整理所) 559
4) 비장청(裨將廳) 561
5) 서리청(書吏廳) 562
6) 집사청(執事廳) 562
5. 미복원 시설 563
1) 강무당(講武堂) 563
2) 무고(武庫) 564
3) 수성고(修城庫) 564
4) 별주(別廚) 564
5) 우화관(于華館) 565
6) 우화관 중약문(重鑰門) 566
7) 분봉상시(分奉常寺) 567
8) 장춘각(藏春閣) 567
6. 화령전(華寧殿) 567
1) 운한각(雲漢閣) 569
2) 풍화당(風化堂) 571

제4장 시민과 관이 함께한 화성행궁 복원 김준혁 573
1. 화성행궁 복원 역사 쓰기 573
2. 일제강점기 이후 수원 시민의 화성 복원 노력 575
3. 수원 시민의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립 580
4. 수원시의 화성행궁 복원정책과 노력 583
5. 화성행궁 복원의 의미 590

참고자료 592
찾아보기 595
집필위원

조는 붕당이 의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이해에 바탕을 두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위 초부터 탕평을 주장하였다. 영조는 이해로 얽히 있는 당파를 제거하여 군신의 의리를
의 방법으로 조제보합을 도모하였다. 1741년(영조 17) 임인삼수옥을 무옥으로 규정한 신유대훈이 내려지자, 노론이 소론에 대해 확실하게 명분적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음으로써, 노론 주도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1755년(영조 31)을 전후로 하여 노론의 주도권을 놓고 노론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노론의 핵심은 김재로 가문, 민
, 외척으로 화상 서명균과 그의 아들 영상 서지수, 그리고 영상 한익모, 참상 이관명 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의척과 연관이 적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한편, 김재로,
대제학, 그의 아들 김양택은 영상, 외조카 이천보는 영상에 올랐다. 민진원도 숙종비 인현왕후 민씨의 형제로서 명의상 영조와는 외삼촌의 관계에 있었는데 민진원은 좌상, 그의 손
의 아버지로 영상에 올랐고, 그의 동생 신회도 영상에 올랐다.영조는 중반 이후부터 노론적 기반 속에서도 권력의 중심을 권신에게 두었다. 영조는 인척관계에 있는 정우량(1749년,
승진시켰다. 영조가 이들을 중용한 것은 이들을 이용하여 정치적 안정을 기하고자 함이었다. 반면에 척신과 관계가 없는 인물로서 의정으로 승진된 이는 이종성과 김상로(영조 28
중에서도 노론계 척신가문인 민진원 가문, 홍봉한 가문, 신만 가문을 중심에 두고, 소론계 척신가문인 조문명 가문과 정우량 가문을 이용하여상호견제토록 하였다. 그러나 영조
은 매우 정력적이고 활기에 넘친 노왕 붕조의 권위가 조정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영조는 나이 35세에 하나뿐인 아들 효장세자를 얻었다. 세자는 10세로 이미 세자빈까지 맞
을 날로 원자에, 1년 후(1730년) 세자에 책봉하였다. 영조는 세자의 생모인 영빈에게 "무겁게 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게 되니, 이번에 명호를 정하는 데에 의당히 규모를 크게 하여
서의 위의를 갖추게 하였다"이로써 세자는 저승궁에 격리된 채, 오로지 나인들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다. 영조가 이렇게 한 것은 지식에 대한 사사로운 사랑보다 300년 종사를 이어
로 생각하였다. 세자가 저승궁 나인들의 품에서 자라나게 됨에 따라, 세자와 부모의 관계가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세자를 보살피던 나인들은 대개가 과거에 경종과 경종비
자를 보살피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경종을 모시던 왕전 나인들이었기 때문에 점차로 세자의 생모인 영빈을 원망하기고, 영빈에게 "비록 세자를 낳았지만은 사친이기 때문
수가 자연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가는 신조차 멀리게 되었다. 영조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나인들이 보기 싫어 세자에게 가는 것을 억제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
도, 일이 경종에게 관계되는 것은 그 혐의가 매우 적고 삼종혈맥에 관계되는 것은 매우 큰데도 어찌 잠깐이라도 종사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울며 하소연하
나이 이미 7세로 성격의 기본적인 바탕이 형성되고 난 이후였다.

수원 SUWONHWASEONG 수원 SUWONHWASEO
화성 SUWONHWASEONG SUWONHWASEONG 화성 SUWON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수원화성 SUWON
SUWONHWASEONG SUWONHWASEONG

가 없었다. 왜냐하면 세자의 병이 근원적으로 부왕과 세자의 성격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왕과 세자의 성격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시작하였다. 세자의 반발은 부왕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저지름으로써 하나하나 구체화되어 갔다. 부왕은 본디부터 세자에게 주색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세자는 부왕의
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자는 부왕이 내린 금족령을 어기고 몰래 숨을 마셨다. 세자는 열아홉 살 때에 양제를 가까이 하여 아이를 낳음으로써 부왕을 크게 진노시켰다. 그리고
우물로 달려가 뛰어들었다. 우물에 빠진 세자를 건지기가 신경 내 쉽고나오나, 이러한 모습을 일시하고 있던 신하들이 모두 복격하게 되었다. 세자는 그 이후로 더욱 숨어 어지
갔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세자는 자신의 병을 기승지병, 화증 등으로 말하고 있다. 기승지병은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화증
중요한 원인은 부왕인 영조에게 있었다. 영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결함들, 즉 극도의 편중된 애증의 표현이나 의리에 대한 강박적 태도 등으로 세자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빈 이씨 이는 누구에게도 어린 아들을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들을 생모에게 맡김으로써 세자의 체모가 손상되는 것이 싫었고, 정순왕후에게 맡김으로써 세자와 생모가
어머니의 부재라는 이중적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영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자를 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영조 자신이 생모인 숙의 최씨에 의해
의 양육에 결핍으로 남아나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세자의 질병을 드러난 사실들을 좇아서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세자가 편안
한 반면에 놀이의 삼기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이 적발되고 지적당할까 봐 항상 불안한 심정으로 생활해야 하였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세자의 부왕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심해지자, 세자는 부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사물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세자는 18
다. 또한 23세 무렵에는 세자가 옷을 두려워하여 의복을 제대로 입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chapter 1

임오화변과 현륭원 천봉

01 영조 대 정국동향과 임오화변
02 사도세자의 신원과 영우원 승격
03 정치적 상황과 현륭원 천봉

최봉영 한국항공대학교 인문자연학부 교수

01
영조 대 정국동향과 임오화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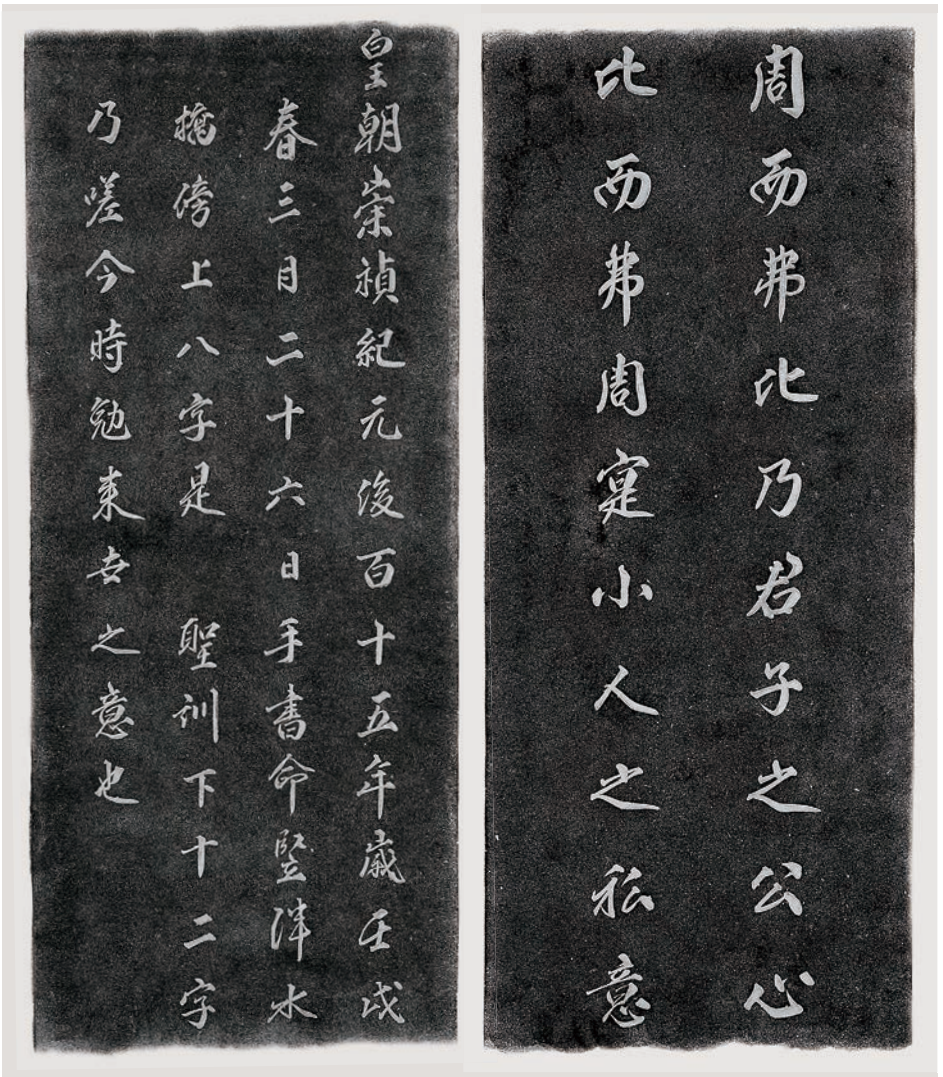
1. 영조 대 정치체제와 탕평정국

영조는 붕당이 의리義理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이해利害에 바탕을 두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위 초부터 탕평을 주장하였다.[1] 영조는 이해로 얽혀 있는 당파를 제거하여 군신의 의리를 확립함으로써 군왕의 권위를 드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금조차도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붕당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양치양해兩治兩解, 상호호대相擧互對 등의 방법으로 조제보합調劑保合을 도모하였다.

1741년(영조 17) 임인삼수옥壬寅三手獄을 무옥誣獄으로 규정한 신유대훈辛酉大訓이 이루어지자, 노론이 소론에 대해 확실하게 명분적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55년(영조 31) 나주괘서사건羅州掛書事件을 계기로 을해역옥乙亥逆獄이 일어나자 소론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노론이 『천의소감闡義昭鑑』을 편찬하여 신임사화辛壬士禍에 관계된 노론의 명분을 충의忠義로 확정지음으로써, 노론 주도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2]

1755년(영조 31)을 전후로 하여 노론의 주도권을 놓고 노론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노론의 핵심은 김재로 가문, 민진원 가문, 이관명 가문, 신만 가문, 홍봉한 가문 등이 있었다. 이들 중에서 김재로 가문이 가장 혁혁하였는데, 영조 대에 영상 김재로, 좌상 김약로, 영상 김상로, 영상 김치인을 배출했고, 외족으로 좌상 서명균과 그의 아들 영상 서지수, 그리고 영상 한익모, 좌상 이관명 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외척과 연관이 적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1_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추진」,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 246~247쪽.
2_ 성낙훈, 「한국당쟁사」, 『한국문화사대계』 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0, 367쪽.


周而弗比乃君子之公心
比而弗周寔小人之私意
皇朝崇禎紀元後百十五年歲壬戌
春三月二十六日手書命竪洋水
橋傍上八字是 聖訓下十二字
乃箴今時勉來者之意也

「탕평비」 탁본(한신대학교박물관 소장)
1742년(영조 18) 영조가 탕평책을 널리 알리고 편당(偏黨)을 막고자 성균관 입구 반수교 옆에 세운 비석이다.

한편, 김진규, 민진원, 조문명, 신만, 홍봉한은 모두 영조와 인척관계로 맺어져 있는 권신가문이었다. 김진규는 숙종비 인경왕후 김씨의 형제로서 명의상 영조와는 외삼촌의 관계에 있었는데 김진규는 대제학, 그의 아들 김양택은 영상, 외조카 이천보는 영상에 올랐다. 민진원도 숙종비 인현왕후 민씨의 형제로서 명의상 영조와는 외삼촌의 관계에 있었는데 민진원은 좌상, 그의 손자 민백상은 우상, 외손자 이은은 영상에 올랐다. 홍봉한은 사도세자의 장인으로 영상에 올랐고, 그의 동생 홍인한은 우상에 올랐다. 신만은 영조의 딸 화평옹주의 남편 영성위永城尉 신광수의 아버지로 영상에 올랐고, 그의 동생 신회도 영상에 올랐다.



「**집복헌유감시현판**」(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735년 1월 21일 창경궁 집복헌에서 사도세자가 탄생하자 영조는 그 기쁨을 시로 읊어 현판에 새겼다.

영조는 중반 이후부터 노론적 기반 속에서도 권력의 중심을 권신에게 두었다. 영조는 인척관계에 있는 정우량(1749년, 영조 25), 이천보(영조 28), 조재호(영조 30), 신만(영조 32), 민백상(영조 36), 홍봉한과 정휘량(영조 37), 김양택과 김상철(영조 42), 신회와 이은(영조 48), 홍인한(영조 50)을 각각 의정으로 승진시켰다. 영조가 이들을 중용한 것은 이들을 이용하여 정치적 안정을 기하고자 함이었다. 반면에 척신과 관계가 없는 인물로서 의정으로 승진된 이는 이종성과 김상로(영조 28), 이후(영조 32), 윤동도(영조 38), 김치인(영조 41), 서지수(영조 42), 이창의(영조 44), 이사관(영조 48)이었다. 영조는 이들을 척신세력에 대한 견제와 조종에 이용하였다.

영조는 척신가문 중에서도 노론계 척신가문인 민진원 가문, 홍봉한 가문, 신만 가문을 중심에 두고, 소론계 척신가문인 조문명 가문과 정우량 가문을 이용하여[3] 상호 견제토록 하였다. 그러나 영조의 척신 의존적인 태도가 계속 강화되면서 척신과 척신의 견제, 그리고 비척신과 척신의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영조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정력적이고 활기에 넘친 노왕老王의 권위가 조정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 사도세자의 성장과 정신질환

1) 사도세자의 출생과 성장

영조는 나이 35세에 하나뿐인 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를 잃었다. 세자는 10세로 이미 세자빈까지 맞아들인 상태였기 때문에 영조가 겪은 아픔은 더욱 컸다. 그러다가 7년 뒤에 영조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는데, 이가 바로 사도세자이다.

영조는 40세에 얻은 아들을 태어난 다음 날로 원자에, 1년 후(1736년) 세자에 책봉하였다. 영조는 세자의 생모인 영빈暎嬪에게 "무겁게 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게 되니, 이번에 명호名號를 정하는 때에 의당히 규모를 크게 하여 일시의 우러러 보는 바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여 세자의 체모에 유별나게 신경을 썼다.[4] 그는 세자가

3_ 조문명은 효장세자의 장인으로서 좌상에 올랐고, 그의 동생 현명은 영상에, 그의 아들 재호는 우상에 올랐다. 그리고 정우량은 영조의 딸 화완옹주의 남편 일성위 정치달의 아버지로서 우상에 올랐고, 그의 동생 휘량은 좌상, 사위 김상철은 영상에 올랐다.

4_ 『홍재전서』 권16, 「현륭원지」. "誕彌之初, 上敎暎嬪曰 不重則不威, 當此定號之初, 宜大其規模以尊一時瞻聆."



「장조왕세자책봉죽책(莊祖王世子冊封竹冊)」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736년 3월 15일 사도세자의 왕세자 책봉 때 반포한 글을 새긴 죽책이다.

태어나 백일이 지나자 세자를 생모의 품에서 떼어 저승궁儲承宮으로 보내어, 세자로서의 위의를 갖추게 하였다.[5] 이로써 세자는 저승궁에 격리된 채, 오로지 나인들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다. 영조가 이렇게 한 것은 자식에 대한 사사로운 사랑보다 300년 종사宗社를 이어 갈 세자로서의 체모를 더욱 중요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린 세자에게 300년 종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세자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따스한 보살핌과 책임 있는 가르침이었다.[6]

세자가 저승궁 나인들의 품에서 자라나게 됨에 따라, 세자와 부모의 관계가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세자를 보살피던 나인들은 대개가 과거에 경종과 경종비를 모시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경종과 경종비가 죽자 궁중에서 쫓겨났다가, 영조가 경종이 거처하던 곳을 저승전으로 삼아서 세자를 그곳에 거처하게 할 때,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 세자를 보살피도록 하였다.[7] 그런데 이들은 본래 경종을 모시던 윗전 나인들이었기 때문에 점차로 세자의 생모인 영빈을 업신여기고, 영빈에게 "비록 세자를 낳았지만은 사친私親이기 때문에 군신君臣의 의리가 있다. 따라서 빈번히 세자를 보게 해서는 안 되며, 볼 때에는 반드시 빈嬪이 정전正殿을 뵙는 예禮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요구하였다.[8] 이렇게 되자 영빈이 세자를 보러 가는 횟수가 자연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다. 영조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나인들이 보기 싫어 세자에게 가는 것을 억제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세자는 나인들의 품에서 놀이 등에 빠져들게 되었다.

세자의 양육문제가 심각해지자, 세자의 동복누이인 화평옹주가 영조에게 "나인들이 아무리 경종을 받들던 사람들이라 하여도, 일이 경종에게 관계되는 것은 그 혐의가 매우 적고 삼종혈맥三宗血脈에 관계되는 것은 매우 큰데도 어찌 잠깐이라도 종사宗社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울며 하소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9] 일이 이렇게 되자 영조는 영빈을 업신여긴 나인 몇 사람을 궁 밖으로 쫓아내고,

5_ 『홍재전서』 권16, 「현륭원지」. "過百日乃命小朝移御于景廟久御之殿, 殿名曰儲承也.";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97쪽.

6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99쪽. "손 밖에 내지 마오시고, 일을 때마다 지교(指敎)하셔 일변 엄의(嚴毅)하시고 일변 친애(親愛)하오샤."

7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01쪽.

8_ 『홍재전서』 권18, 「현륭원행장」, "嬪雖誕世子則私親也, 有君臣之義勿使頻見, 見必用嬪御謁正殿之禮."

9_ 『홍재전서』 권18, 「현륭원행장」, "時翁主泣諫曰, 事關景廟其嫌甚小, 三宗血脈所係甚大, 豈可以一時銷刻不念宗社之重乎."

자신의 거처도 집복헌集福軒에서 저승전이 가까운 경춘전景春殿으로 옮겼다. 그러나 세자의 나이 이미 7세로 성격의 기본적인 바탕이 형성되고 난 이후였다.

세자는 그 후로도 계속 저승전에서 나인들의 손에 길러졌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리고 이미 세자는 성격의 기본적인 바탕이 형성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부왕이나 생모가 간간이 세자를 만나서 훈계하고 타이르기도 하였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 특히 영조는 민첩하고 조급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말수가 적고 행동이 느린 세자를 상대로 느긋하고 꾸준하게 타이르고 가르칠 수가 없었다. 이와 함께 영조는 차츰 자신과는 판이하게 다른 세자의 성격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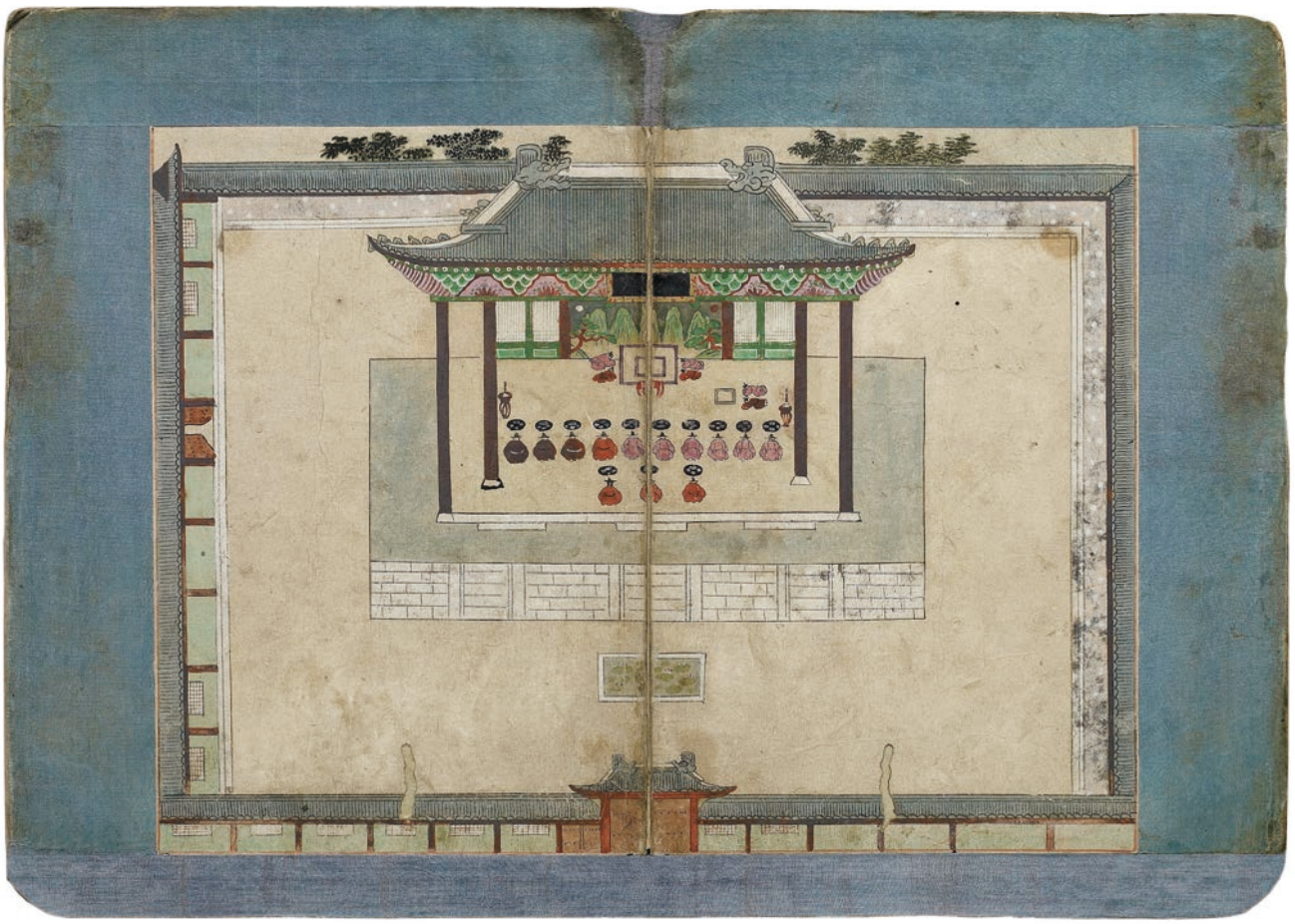
『경모궁보양청일기(景慕宮輔養廳日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사도세자 탄생 6개월 후인 1735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1일까지의 보양청일기를 기록한 책이다. 보양청은 사도세자의 보호와 양육을 맡았던 임시관청이다.

> 부자분 성품이 다르오셔 영묘英廟께오서는 영명인효英明仁孝하오시고 상찰민숙詳察敏熟하신 성품이시고, 경모궁景慕宮께서 언어침묵言語沈默하셔 행동지간에 날래지 못하오시고 민첩치 못하시니 덕기德器는 거룩하오시나 범사凡事에 부왕의 성품과는 다르오신지라. 상시에 물으오시는 말씀이라도 즉시 응대치 못하오셔 머뭇거려 대답하오시고, 문의하실 즈음이라도 당신 소견이 없사오신 것이 아니로되 이리 대답하여 어떠할꼬 저리 대답하여 어떠할꼬 하오셔 즉시 대답치 못하셔 매양 영묘께오서 갑갑하게 하시니, 이 일이 또 큰 마디가 되었는지라.[10]
>
> 갑갑하고 애닯을손 부왕을 모시옵곤 두렵고 어려워 응대를 민첩히 못 하오시니, 영묘英廟께오서 한 번 갑갑하오시고 두 번 갑갑하오셔, 인하여 격노激怒하오시고 근심도 하오시나 …… .[11]

세자의 성격이 급격히 이상으로 치닫게 된 것은 부왕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과 함께 부왕에 대한 불신이 싹트면서였다. 부왕은 세자에게 『대훈大訓』, 『상훈常訓』, 『자성편自省編』, 『심감心鑑』 등의 책을 저술하여 세자에게 주면서 훌륭한 군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것을 훈계하였다.[12] 그러나 이것은 체모體貌와 위의威儀를 좋아하는 영조의 형식적인 사랑일 뿐, 세자를 조용한 때에 친근히 앉혀 놓고 진정으로 가르치는 일은 없었다.[13] 그는 자기자랑 비슷한 얘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책들을 세자에게 지어 줌으로써 오히려 심적인 부담만 가중시켰다.

한편 세자는 활을 쏘고, 칼을 쓰며, 말을 타고, 그림을 그리고, 잡서를 읽는 등 놀이와 잡기에 몰두하여,[14] 부왕이 요구하는 세자의 모습과는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세자는 부왕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에 빠지는 동시에 부왕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

10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09쪽.
11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11쪽.
12_ 영조는 세자에게 여러 종류의 책을 지어 주었는데, 세자가 관례를 올릴 때 『상훈(常訓)』을 지어 준 것을 시작으로 『훈유(訓諭)』, 『자성편(自省編)』, 『심감(心鑑)』, 『정훈(政訓)』 등을 지어 주었다. 책의 내용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 입장과 처지가 다른 세자에게는 절실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많았다.
13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17쪽. "어찌하오신 성의(聖意)이신지 그 아드님을 조용한 때 친근히 앉히시고 진정 교훈(敎訓)하시는 일은 과연 없으시고 임타(任他)하게."
14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15쪽.





『경현당 어제어필 화재첩』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741년 영조가 경희궁 경현당에서 사도세자를 옆에 시좌시킨 가운데 승정원과 홍문관의 관원들을 불러 경연을 시행한 후 주안상을 베풀고 어제시를 내려 참석자들로 하여금 화답시를 짓게 한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전각의 중앙에 영조의 어좌를 표현하고 그 우측에 사도세자의 자리를 배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세자의 나이가 열서너 살이 될 때부터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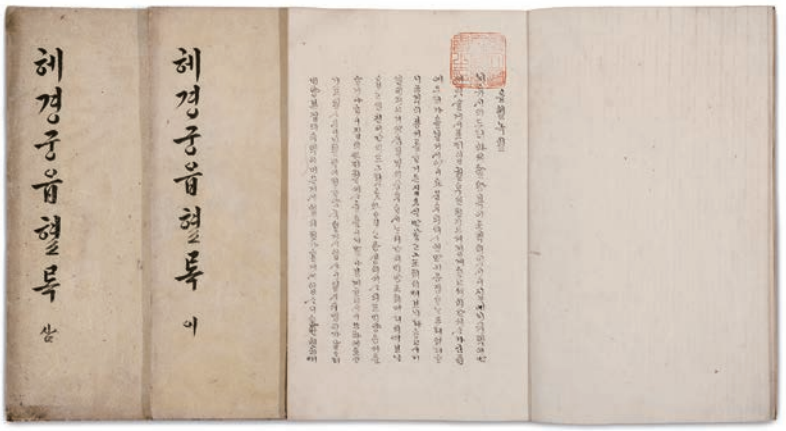
영조는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세자에 대한 실망이 차츰 미움으로 변하였다. 영조는 미워하기 시작하면 지극히 미워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세자에게 일반의 부모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미움을 표현하였다. 부왕은 세자를 신하들이 모여 있는 곳이나 친인척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꾸짖고 나무라는가 하면,[15] 자신이 당한 불결한 일이나 불길한 일들을 떠넘기기 위해 세자를 귀씻이의 대상으로 이용하고,[16] 좋지 못한 사건은 세자가 처리하도록 맡기며,[17]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것을 세자의 잘못으로 돌리는[18] 등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였다. 이렇게 되자 세자는 차츰 자신에 대한 부왕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었다.[19]

세자가 부왕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자 부왕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차츰 공포로 변하였고, 부왕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병으로 발전하여 세자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부왕도 세자의 공포증이 병이 되어 세자의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세자의 병이 근원적으로 부왕과 세자의 성격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왕과 세자의 성격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였다. 세자와 부왕은 누구도 자기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 또한 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세자는 성년에 가까워지자, 부왕에게 적극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세자의 반발은 부왕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저지름으로써 하나하나 구체화되어 갔다. 부왕은 본디부터 세자에게 주색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세자는 부왕의 훈계를 무시하고 여자와 놀이를 하고 술을 탐닉해 갔다. 영조는 흉년으로 나라살림이 어려워지자, 백성을 위하는 뜻에서 오랫동안 나라에 금주령을 내렸다. 그래서 종묘에서도 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자는 부왕이 내린 금주령을 어기고 몰래 술을 마셨다.

세자는 열아홉 살 때에 양재를 가까이 하여 아이를 낳음으로써 부왕을 크게 실망시켰다. 그리고 스물세 살 때에 인현왕후의 침방針房나인인 빙애를 데려다가 살림을 차림으로써 일대 소동을 일으켰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부왕 앞에 불려나가 심하게 질책을 당하자, 울분을 이기지 못해서 우물로 달려가 뛰어들었다. 우물에 빠진 세자를 방지기[房直]가 건져 내 업고 나오니, 이러한 모습을 입시入侍하고 있던 신하들이 모두 목격하게 되었다. 세자는 그 이후로 더욱 술과 여자를 탐닉하여 바깥의 기녀妓女와 승니僧尼를 궁중 안으로 불러들여 잔치를 벌이고 잠자리를 함께하는 일까지 벌였다.[20]

15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17쪽.
16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25쪽.
17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27쪽.
18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27쪽.
19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27쪽. "당신을 진정 교훈(敎訓)을 아니 하오시는 것을 격(激)하고, 노(怒)엽고, 두렵고, 저어(齟齬)하오서."
20_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윤5월 기묘;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245쪽.



『혜경궁읍혈록』(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795년 혜경궁 홍씨가 친정 조카 홍수영의 청으로 쓴 책이다. 『혜경궁읍혈록』은 『한중만록』 또는 『한중록』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전하고 있다. 사도세자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혜경궁은 세자의 병증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2) 사도세자의 정신질환

세자는 20세를 전후로 하여 정신질환이 심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세자는 자신의 병을 기승지병氣升之病, 화증火症 등으로 말하고 있다.[21] 기승지병은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화증이란 마음에 울화가 가득하여 언제나 가슴이 답답하다가 때때로 그것이 밖으로 치솟아 오르는 것을 말한다.

세자가 병이 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보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왕인 영조에게 있었다. 영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결함들, 즉 극도의 편중偏重된 애증愛憎의 표현이나 의리에 대한 강박적 태도 등으로 세자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과 세자의 체모를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지 백여 일 만에 세자를 생모의 품에서 떼어서 저승궁으로 보냈다. 영조가 이렇게 한 것은 적모嫡母인 정순왕후와 생모인 영빈 이씨暎嬪 李氏 어느 누구에게도 어린 아들을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들을 생모에게 맡김으로써 세자의 체모가 손상되는 것이 싫었고, 정순왕후에게 맡김으로써 세자와 생모가 소원해지는 것이 싫었다. 결국 세자는 적모와 생모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어머니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보모상궁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로써 세자는 부왕의 성격적 결함과 어머니의 부재라는 이중적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영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자를 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영조 자신이 생모인 숙의 최씨淑儀 崔氏에 의해 고립적으로 성장한 것보다도 크게 못한 상황이었다.[22] 세자는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부모의 사랑이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나인들에 의해서 버릇없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치명적인 성격적 결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세자의 질병을 드러난 사실들을 좇아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세자는 심한 불안증상不安症狀을 보였다. 세자는 부왕이나 주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심한 자괴감自愧感을 갖고 있었다. 그는 부왕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정당한 반면에 놀이와 잡기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21_ 『영조실록』 권91, 영조 38년 3월 임진. "令曰近來氣升之病有時加劇, 至有昨日之擧.";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5월 을묘, 「나경언복주(羅景彦伏誅)」. "世子對曰此果臣之本病火症也."

22_ 영조는 생모 최씨가 비록 비천한 출신일망정, 생모의 따뜻한 사랑과 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성격적 결함에도 자신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을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세자는 생모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사랑도 엄한 교육도 받을 수 없었다.

잘못이 적발되고 지적당할까 봐 항상 불안한 심정으로 생활해야 하였다.[23] 그리고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꾸짖고 질책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부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연히 부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부왕을 만나면 죄를 지은 사람과도 같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 놀기에 탐하셔 부왕이 오셔 보오시면 꾸중이나 하실까 염려가 나시니 아기네 마음에 사이 없이 부모 뵈옵던 마음이 다르오시고, 모빈母嬪도 아실까 염려하셔 그곳의 나인이 와도 기휘忌諱하시는 마음이 나오시니 …….[24]

> 갑갑하고 애닯을손 부왕을 모시옵곤 두렵고 어려워 응대를 민첩히 못 하오시니 영묘께오서 한 번 갑갑하오시고 두 번 갑갑하오셔, 인하여 격노 하오시고 …….[25]

세자의 부왕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심해지자, 세자는 부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사물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세자는 18세를 전후로 하여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즉 천둥과 번개 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발전하여 나중에는 우뢰 '뇌雷'와 벽력 '벽霹'과 같은 글자를 마주하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었다.[26] 또한 23세 무렵에는 세자가 옷을 두려워하여 의복을 제대로 입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한중록』에는 이것을 의대병衣帶病이란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

> 의대병환衣帶病患의 말씀이야 더욱 형용 없고 괴이한 괴질이시니, 대저 의대衣帶 한 가지나 입으려 하시면 열 벌이나 이삼십 벌이나 하여 놓으면, 귀신인지 무엇인지 위하여 놓고 혹 소화燒火도 하고, 한 벌을 순히 갈아입으시면 만행萬幸이요, 시종 드는 이가 조금 잘못하면 의대를 입지 못하셔 당신이 애쓰오시고, 사람이 다 상하니 이 아니 망극한 병환이냐.[27]

> 의대를 입지 못하여 애쓰오시다가 어찌어찌하여 좀 짓이 나아 한 벌 천행으로 입으시면 당신도 다행다행한 이같이 입으셔 더럽도록 입으시던 것이니, 그 무슨 병환이런고.[28]

세자는 의대병으로 말미암아 세자로서 위의威儀를 갖추기 어렵게 됨으로써, 생활이 근본으로부터 파괴되었다. 세자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것의 첫째가 예모인데 의대병은 세자로 하여금 예모를 갖출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29] 세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 보려고 많은 애를 썼다. 그러나 자신의 성격과 주위의 여건들에 눌려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고 더욱 심한 불안증으로 빠져들었다.

둘째, 세자는 심한 가학증상加虐症狀을 보였다. 이러한 증상은 세자의 나이 22세를 전후로 하여 나타났다. 세자의 가학증은 세자가 부왕이나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누

23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11쪽.
24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17쪽.
25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11쪽.
26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43쪽.
27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99쪽.
28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201쪽.
29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201쪽.

적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옮겨서 드러냄으로써 생겨나게 되었다.

> 당신(세자)이 부모님께 속으로 본디 정성은 거룩하오시건마는 민첩치 못하오시기로 있는 정성을 백분의 일도 드러내지 못하오시니 점점 두렵고 무서운 것이 병환이 되어 화 곧 나시면 푸실 데 없아오니 내관과 나인에게나 푸오시고 심지어 내게까지 푸심이 몇몇 번인 줄 알리오.[30]

세자의 가학증은 처음에는 사람을 매질하고 동물을 죽이다가, 나중에는 정도가 심해져 사람을 죽이는 데 이르게 되었다.[31] 그는 스스로 "심화가 나면 견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닭 짐승을 죽이거나 하여야 마음이 낫노라."라고 말하고 있다.[32] 그는 그에게 저항할 수 없는 내관, 나인, 액예掖隷, 역관들을 상하거나 죽이는 일까지 하였다. 특히 그는 자신의 아들을 두 명이나 낳은 후궁 빙애라는 여자가 그의 옷시중을 잘못 든다고 하여 때려서 죽게 함으로써, 후일 부왕이 세자를 죽이려고 결심하게 되는 한 원인을 만들었다.[33]

셋째, 세자는 심한 자학증상自虐症狀을 보였다. 그의 자학증은 가학증과 마찬가지로 누적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에게 옮겨서 드러냄으로써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자학증은 주로 세자가 벌이는 자포자기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는 세자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들, 즉 부왕이 꾸짖는다고 죽기 위해서 우물에 뛰어들고,[34] 마음이 답답하다고 궁성 밖으로 놀러 나가고,[35] 기녀나 승니를 궁중 내부로 끌어들이고,[36] 그의 침실에 내관을 불러다가 거짓으로 수응酬應하게 해 놓고 20여 일에 걸쳐 평양으로 놀러 가는[37] 따위의 일들을 저질렀다. 그는 이러한 자포자기적 행동이 자신의 처지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그만둘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학대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부왕의 처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무기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그의 뜻과는 다르게 효과적인 무기가 되지 못했고, 도리어 자신의 고립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사도세자의 정치적 성향과 부왕과의 대립

1) 사도세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태도

세자라는 위치는 고도의 정치적 처신이 요구되는 위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는 정치적 처신에 서툴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당시에 풍부

30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31쪽.
31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81쪽.
32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195쪽.
33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223쪽;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5월 을묘, 「나경언복주(羅景彦伏誅)」. "王孫之母, 余初甚愛, 以至溺井之境, 何乃意殺乎."
34_ 『영조실록』 권90, 영조 33년 11월 신축.
35_ 『영조실록』 권98, 영조 37년 9월 병진.
36_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5월 을묘.
37_ 『영조실록』 권98, 영조 37년 9월 을묘; 『영조실록』 권98, 영조 37년 9월 병진;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227쪽.



『능허관만고』(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사도세자의 유고집으로, 「예보육기연성십팔반설」은 사도세가가 평소 무예에 관심이 있었으며 한교가 만든 무예 6기에 12기를 더해 18기를 만들었음을 보여 준다.

한 정치적 경험과 교묘한 처신을 통해서 한껏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던 부왕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는데, 이러한 점이 부왕의 불만을 사는 한 원인이 되었다. 세자는 일찍부터 정치적인 것보다는 비정치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그가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38] 그가 주로 관심을 쏟은 것은 어릴 적에는 장난감 활이나 칼 등을 가지고 노는 놀이였고,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칼쓰기, 활쏘기, 말타기, 여자, 음주, 병술兵術, 의술醫術, 잡기雜技 등이었다.[39]

세자가 정치적 관심이 적은 인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특별한 이유나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왕과는 달리 그는 사대四代에 걸친 독자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의 위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도 그에게 정치적 처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정치적 긴장감을 일깨울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성장기는 대체로 정국이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 영조는 연륜이 쌓여 감에 따라서 노련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경신처분庚申處分을 끌어내고, 이로써 신임의리辛壬義理를 노론 측 명분 위에 재정립하는 동시에, 노론을 중심으로 한 안정된 탕평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세자가 20대 초반에 이를 때까지 지속된 이러한 정치적 안정은 정치적 관심을 일깨우고 정치적 수완을 기르게 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세자에게 정치적 부담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은 세자의 나이 15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맡겨진 대리청정의 직무였다. 영조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 미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위傳位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거론하였다. 영조가 처음으로 전위를 거론한 것은 세자의 나이가 불과 다섯 살 때인 1739년(영조 15) 정월이었다.[40] 영조는 신임사화辛壬士禍와 무신난戊申亂에 연관되어 있는 자신의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전위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조정에 일장풍파를 일으켰다. 그 이후로도 그는 자신의 입장이 난처할 때면 돌연 전위나 대리를 주장했고, 그때마다 조정에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41] 이때마다 세자

38_ 흔히 세자가 평소에 노론을 미워하고, 소론을 두둔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임오화변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자가 단순히 감정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였다면 세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자의 행동이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약점이 잡힐 일을 벌이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전혀 갖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일 세자가 결정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잠시 정치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시도했던 사실을 가지고 임오화변을 당파에서 비롯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리고 세자가 정치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시도했던 그것 자체도 얼마나 현실성이 약하고, 무모한 선택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9_ 『홍재전서』 권16, 「현륭원행장」. 행장에 따르면 세자는 "喜讀兵家之書, 奇正變化之妙無不默識精通 …… 又善射御執矢對鵠發必中心"이라고 되어 있고, 그는 또 『무기신식(武技新式)』이라는 병서를 저술했고, 새로운 병술을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0_ 『영조실록』 권48, 영조 15년 정월 무오.

41_ 박하원, 『대천록(待闡錄)』 상편(이이화, 『조선당쟁관계자료집』 12, 여강출판사, 1985, 86쪽). "自世子誕後未及十歲, 上有所激惱輒言當釋負, 如此者屢."





사도세자가 대리청정할 때 사용한 휘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휘지(徽旨)란 조선시대에 왕에게 대리청정을 위임받은 왕세자가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한 증표이다. 휘지에는 영조의 서명이 음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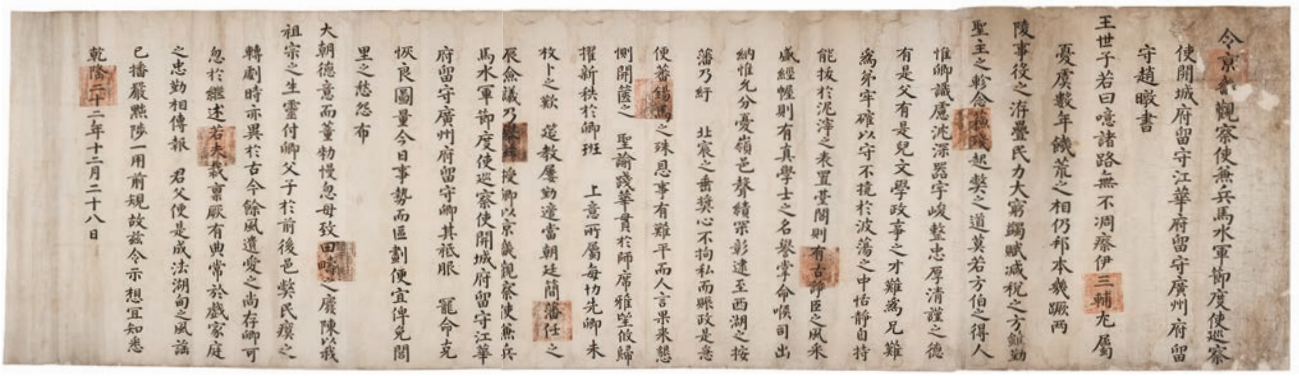
는 부왕이 그에게 내린 명령을 거두어들이도록 형식적으로라도 부왕에게 울고불고 매달리는 등 야단을 떨어야 하였다.

이런 가운데 1749년(영조 25) 1월에 부왕은 밤중에 갑자기 세자에게 전위하겠다는 봉서封書를 승정원에 내렸다.[42]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가 봉서를 환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영조는 "내가 삼종혈맥의 교시를 어길 수가 없어서 비록 왕위에 있지만 왕으로 노릇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지난 25년이 하루와 같아서, 날마다 세자가 나이가 드는 것만을 기다렸다. 지금 다행히 세자가 15세가 되었다. 오늘의 일은 하나는 내가 죽어 형의 얼굴을 대했을 때, 절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는 임금 노릇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마음을 이룰 수 있기 바라는 것이고, 하나는 갑자년 이후로 병이 더욱 심하여 하루아침에 낫는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에서 벗어나 조섭調攝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전선傳禪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다음 날 영조는 전선의 명을 거두어 달라고 매달리는 세자와 신하들의 만류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전위 대신에 대리청정을 제안했고, 신하들은 이것도 반대했으나 결국 영조의 강경한 주장에 눌려 세자의 대리가 결정되었다. 이로써 세자는 군국기무軍國機務에 관한 몇 가지의 중요한 일을 제외하고는 국사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지게 되었다.[43]

부왕이 세자에게 명한 대리는 세자의 정치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보다는 영조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에서 세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지운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주로 부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세자는 형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렇게 되니 신하들은 자연히 형식적인 대리권자인 세자와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부왕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44] 세자의 입장에서도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 항상 부왕의 눈치를 살펴야 했기 때문에 고충이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부왕이 정력적으로 열심히 정치력을 펼치고 있는 밑에서 세자가 꼭두각시와 같은 형식적인 대리를 장기간에 걸쳐 하게 되자, 세자는 점점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세자가 대리를 통해서 얻은 것은 잘못 처리한 일들에 대한 부왕의 꾸중밖에 없었다. 아직 정치에 대해서 미숙한 세자가 어설프게 처리해 놓는 일들이 노련한 부왕의 마음에 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신하들 또한 세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비중을 두지 않았다.

42_ 『영조실록』 권69, 영조 25년 정월 신미.
43_ 『영조실록』 권69, 영조 25년 정월 신미.
44_ 『영조실록』 권69, 영조 25년 6월 경진; 『영조실록』 권70, 영조 25년 9월 정사.



사도세자 대리청정 당시 조돈에게 내린 영서 **(令書)**(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세자가 대리하는 14년 동안에 부왕과 세자가 정치적 문제로 부딪치게 된 경우는 불과 서너 가지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는 누가 대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었다. 세자와 부왕이 정치적 견해 차이로 부딪친 대표적인 경우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 조진도삭과사건趙進道削科事件이었다. 1759년(영조 35)에 경상도 유생 조진도가 별시에 합격하였는데, 이듬해에 이것이 문제로 떠올랐다.[45] 대간들은 조진도가 갑진년에 신임의리와 관련된 상소를 올려 죄를 입은 조덕린趙德鱗의 손자라는 사실을 들어 삭과를 주장하고 나왔다. 그러나 세자는 대간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자 대간들은 이것이 장차 국시國是를 번복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영조는 세자의 처사에 화를 내면서 조진도의 삭과를 허락하였다.[46]

조진도삭과사건은 세자가 죽기 2년 전에 일어난 일로, 당시에 세자와 부왕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어 있던 때였다. 세자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부왕과 노론세력에 대해서 반발하던 시기였다. 그렇다고 세자가 조진도의 삭과에 대해서 자신의 반대 주장을 강력히 편 것도 아니었고, 다만 어정쩡한 자세로 있다가 강경파들의 비판에 입장이 난처해진 경우였다.

2) 세자와 노·소론의 관계

세자는 처음부터 정치에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당파나 당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세자는 부왕인 영조나 장인인 홍봉한의 입장으로 보아서도 노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세자는 노론이 정치적 배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배경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자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당시에 점점 정권으로부터 소외되어 가던 소론들이 간혹 세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는

45_ 『문과방목』에 따르면 조진도는 영조 35년(기묘년) 7월 22일에 별시에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합격한 뒤 한참 있다가 다음 해(경진년)에 문제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46_ 박하원, 『대천록』 상편, 「상상이유봉휘(上嘗以柳鳳輝)」(이이화,『조선당쟁관계자료집』12, 여강출판사, 1985, 86쪽).

이것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47]

세자가 노소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세자로서의 그의 위치에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였다. 1752년(영조 28) 영조의 나이 59세에 소의 문씨昭儀 文氏가 임신을 함으로써 조정 안팎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당시에 부왕은 세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세자에 대한 질책이 심했는데, 돌연 문씨가 임신을 하게 되니 자연히 세론이 분분해졌다. 세자도 그런 소문을 듣고 내심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당시 영의정으로 있던 소론대신 이종성은 적극적으로 세자의 보호를 주장하고 나왔다. 그런데 문씨가 끝내 왕자를 출산하지 못함으로써, 소론 측의 세자보호론은 절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뒤에도 이종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조에게 세자를 심하게 질책하지 말도록 당부하는 등 세자의 처지에 동정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세자는 이종성을 고마워하게 되었고, 후일 이종성이 죽자 소대素帶와 소선素膳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세자의 위치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게 된 것은 노론 내부에서 세자의 위치에 대한 이론異論이 생기면서였다. 1756년(영조 32)에 일어난 을해역옥乙亥逆獄을 기점으로 조정의 주도권은 노론의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이때부터 노론 내부에는 노론의 주도권을 놓고, 외척세력과 비외척세력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 비외척세력은 외척세력의 성장을 걱정하여 외척세력의 핵심인 홍봉한 세력을 비난하였고, 반면에 외척에 연관된 세력은 홍봉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홍봉한을 옹호하는 부홍파扶洪派와 홍봉한을 공격하는 공홍파攻洪派가 생겨나서 다투게 되었다.

그런데 1759년(영조 35)에 부왕과 세자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는 가운데, 왕비 김씨가 들어오고, 소론대신 이종성이 죽는 등 정국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의 공홍파에 왕비 김씨의 친정親庭세력이 가세함으로써 공홍파 세력이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홍봉한과 세자를 비난하고 공격함으로써, 세자의 위치를 어렵게 만들어 갔다. 이때부터 세자의 비행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상소가 올라왔는데, 부제학 김시찬, 지사 박치원, 용안현감 이정 등이 상소를 통해서 세자의 비행을 비난하였다. 이렇게 되자 세자는 공홍파를 미워하는 동시에 노론에 대해서도 반발하게 되었다.

1761년(영조 37) 4월에 세자가 오랫동안 부왕에게 진견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관학유생들이 세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것은 세자가 부왕 몰래 20여 일에 걸쳐 평양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바로 그날이었다. 유생들은 세자가 평양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상소를 올렸다. 세자는 황급히 궁궐로 돌아와 유생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때가 늦은 밤이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48] 관학유생에 이어 사학유

47_ 『홍재전서』 권18, 「현륭원행장」, 8쪽. "至是翁主忽有疾不起, 小朝痛悼 …… 豊原府院君 趙顯命, 靈城君 朴文秀, 右賓客 李鍾城 等 發臨機衛護之義."

48_ 박하원, 『대천록』 상편, 「東宮自西還止於」(이이화,『조선당쟁관계자료집』12, 여강출판사, 1985, 97쪽); 『영조실록』 권97, 영조 37년 5월 신묘.

생들도 세자의 부왕에 대한 진견을 권하는 상소를 올렸다.[49] 그리고 신하들도 부왕과 세자에게 계속 진견을 권하였다.[50] 그러나 세자는 부왕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질병을 핑계로 진견을 회피했고, 부왕도 세자를 만나는 것이 싫어서 진견을 허락하지 않아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영조는 4월에 있었던 세자의 평양행을 모르고 있다가, 9월에서야 알게 되었다. 부왕은 세자에게 올라온 지나간 상소문을 열람하는 가운데 서명응의 상소문을 통해서 세자의 서행西行 사실을 알았다.[51] 부왕은 서행의 책임을 물어 좌의정 홍봉한을 파직시키고, 서행문제를 거론한 상소문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당시의 승지와 춘방에 입직한 춘방관들을 파직시켰으며, 중관 서태항과 오윤항을 거제도에 정배하고, 서행에 수종했던 중관 박문홍과 김우장을 흑산도와 해남에 정배하는 등 세자의 비행에 동조했거나 자신의 직책에 태만했던 사람들을 처벌하였다.[52]

그러나 영조는 사건의 당사자인 세자에게 심한 질책을 하지 않았다. 영조는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단 사태를 수습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켰다. 영조는 세자의 서행사건이 확대됨으로써 자신의 체모나 위신에 미칠 영향을 생각했음인지 되도록이면 사건을 빨리 매듭지으려고 했고, 또 일단 사건을 매듭짓고 나서는 신하들이 사건에 대해서 재론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한편 세자의 입장에서는 서행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위치나 생명이 무사하지 못할 것을 짐작했음인지 빈궁嬪宮 홍씨洪氏에게 자신이 폐위되고 세손世孫이 효장세자의 양자가 되어 부왕의 대통을 이어 갈지도 모른다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였다.[53]

세자가 노론에게 등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소론에게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그의 장인 홍봉한마저 그를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54] 홍봉한을 중심으로 한 부홍파들은 세자의 비행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 세자의 비행을 감쌌다. 공홍파들이 세자의 비행을 들고 나와서 세자의 위치까지 변화시키려고 하자, 홍봉한은 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론에게 손을 뻗쳐 보기도 하고,[55] 정적政敵인 김상로와 홍계희 등에게도 손을 뻗쳤다.[56] 그러나 부왕과 세자의 관계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그들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나경언의 고변까지 있게 되자 그들은 세자를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세자의 아들인 세손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세자도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춘천에 은거하고 있는 소론대신 조재호에게 춘방관 조유진을 보내, 조재호가 달려와서 자신을 보호해 주도록 요청하였다.[57] 그러나 조재호는 "대신大臣은 거취를 가벼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달려오지 않았다.[58] 그러다가 그는 세자가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도성으로 달려왔지만 정치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세자에게 어

49_ 『영조실록』 권97, 영조 37년 4월 정유.
50_ 『영조실록』 권97, 영조 37년 6월 경인.
51_ 『영조실록』 권98, 영조 37년 9월 을묘.
52_ 『영조실록』 권98, 영조 37년 10월 정사.
53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231쪽.
54_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225쪽 및 227쪽.
55_ 박하원, 『대천록』 상편(이이화,『조선당쟁관계자료집』12, 여강출판사, 1985, 111쪽). "洪相鳳漢見東宮孤危送言于趙相."
56_ 영조 38년 5월 나경언의 고변이 있기 직전에 홍봉한은 영조에게 향리로 쫓겨난 김상로를 불러올려 국사를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5월 갑인), 영조 37년 4월 세자의 서행사건이 신하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홍봉한은 그가 겸대하고 있던 혜당(惠堂)의 직책을 홍계희에게 넘겨 줄 것을 영조에게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영조실록』 권97, 영조 37년 4월 기묘).
57_ 박하원, 『대천록』 상편, 임오 7월 27일, 禁都(이이화,『조선당쟁관계자료집』12, 여강출판사, 1985, 14쪽).
58_ 박하원, 『대천록』 상편, 임오 7월 27일, 禁都(이이화,『조선당쟁관계자료집』12, 여강출판사, 1985, 14쪽). "維進往致睿旨, 對曰大臣去就不可遽進而其謀危者徐當討正."

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세자가 보호를 요청한 사실 때문에 조재호 일파는 임오화변에 연루되어 역적의 이름으로 철저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4. 임오화변의 전개

1) 나경언의 고변

1757년(영조 33) 세자의 나이 스물세 살 때부터 당번내관當番內官을 죽이고, 내수사內需司의 재물을 부왕이 모르게 사용하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죽는다고 우물에 빠지고, 의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는 등 더 이상 세자로서의 생활을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신하들도 세자의 장래에 대해 강한 불안과 의문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당국자인 노론 사이에는 세자의 장래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들은 세자를 포기할 수도 세자를 옹호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세자가 스물일곱 살 때부터 궁궐 밖으로 미행微行을 시작하여 민간에 폐해를 끼치게 됨으로써, 세자의 비행非行이 궁궐을 넘어서 도성 안에 화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세자가 자기의 방에 내관을 거짓으로 앉혀 놓고, 20여 일에 걸쳐 평양으로 나들이를 함으로써 결정적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 세자의 비행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론 당국자들조차 세자가 부왕의 왕위를 계승하여 임금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왕인 영조는 이러한 사태의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였다. 누군가가 왕에게 세자의 비행에 대해서 알려 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부왕에게 세자의 비행을 알리는 경우에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알린 사람만 허물을 뒤집어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였다. 신하들은 70세에 가까운 노왕과 28세의 젊은 세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였다.[59] 이 때문에 부왕은 사태가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세자의 비행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주위에서 좀 더 일찍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과 질책을 했지만,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부왕에게 있었다. 영조는 평소에 자신의 사사로운 일을 다른 사람들이 거론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고, 사적 영역의 일에 대해서는 변덕과 애증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세자의 비행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62년(영조 38) 5월 22일에 액정서별감으로 있던 나상언의 동생

59_ 영조가 세자의 서행사건(西行事件)을 안 것은 일이 있고 나서 다섯 달이 지난 후였다. 도성 안팎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부왕만 모르고 있었다. 당시에 어느 누구도 세자의 비행을 부왕에게 그대로 말할 수 없었다.





권정침의 『서연일기(書筵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남인의 주장을 담은 책으로 세자시강원 권정침(1710~1767년)이 1762년 5월 22일부터 29일까지와 윤5월 1일부터 21일까지의 임오화변 관련 내용을 일기체로 기록한 것이다.

나경언이 형조에 고변서를 올렸다. 고변의 내용은 세자가 주위의 환시宦侍들과 결탁하여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내용이었다.[60] 당시에 형조참의로 있던 이해중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먼저 영의정인 홍봉한과 상의하였는데 결론은 영조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해중은 곧 영조 앞에 나아가 나경언의 고변을 알렸고, 이러한 사실에 접하자 영조는 친국을 명하였다. 왕은 즉시 태복시로 나아가 홍봉한, 윤동도, 신만 등과 함께 친국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나경언은 친국 도중에 옷 속에서 한 통의 글을 꺼내 왕에게 올렸다. 그 글에서 그는 처음에 고변서를 올린 것이 두 번째 글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밝혔다.

나경언이 친국 도중에 왕에게 올린 글에는 세자의 비행이 10여 조목에 걸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글의 내용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세자의 잦은 미행, 세자가 왕손모王孫母를 죽인 일, 세자의 낭비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영조는 나경언의 글을 통해서 세자가 저지른 비행의 전모를 알게 되었고, 따라서 대단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영조는 "지금 조정에서 벼슬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죄인의 죄인이다. 경언이 이 글을 올려 나로 하여금 세자의 과실을 알게 하였는데, 신하들은 이것을 나에게 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경언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나경언을 들어서 주위 사람들을 비난하였다.[61]

나경언의 고변에 대한 부왕의 친국이 있자, 세자는 부왕의 명령을 받기 위해 궐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승지의 전갈을 받고 부왕 앞에 나아가 엄한 질책을 들었다. 이때 세자는 눈물을 흘리며 나경언의 고변이 무함誣陷이라고 주장하면서, 나경언과 면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부왕은 세자가 면대를 요구하자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이것이 또한 나라를 망하게 할 말이다. 대리를 하는 세자가 어찌 죄인과 면질面質을 할 수

60_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5월 을묘, 「나경언복주」.
61_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5월 을묘.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더욱 화를 내었다.[62] 부왕은 세자를 대하는 것이 싫어서 세자의 퇴출을 명령하였고, 세자는 할 수 없이 시민당時敏堂에서 대죄待罪하였다.

세자가 시민당으로 돌아오자 나경언을 사주使嗾한 사람을 밝혀 내기 위해 포도청으로 하여금 나경언의 가족을 잡아다가 문초하게 하였다.[63] 그러나 끝내 사주자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영조에게 나경언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하도 있었다. 그러나 영조는 오늘의 일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기도 싫다고 하면서 사주자를 밝히자는 주장을 물리쳤다. 영조의 입장에서는 나경언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세자의 비행을 알게 된 충격이 훨씬 컸기 때문에 사주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당시의 당국자들은 나경언의 고변내용을 이미 대충 알고 있는 가운데 왕세자에 대한 고변사건을 빨리 매듭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경언의 사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신하들은 사태의 빠른 수습을 위해서 왕에게 나경언을 빨리 죽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64] 영조도 후일을 생각해 볼 때, 나경언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경언을 죽일 것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고변사건은 고변의 당사자인 나경언이 죽임을 당하고, 세자의 처사에 대한 부왕의 문책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2) 영조의 대처분

영조의 입장에서는 고변사건의 뒷처리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세자의 비행을 간언한 나경언이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영조가 비행의 장본인인 세자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그의 의리관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세자와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먼저 세자에게 피해를 본 시전상인들을 불러서 직접 사과를 하고, 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었다.[65] 이어서 그는 세자의 비행에 가담했던 박지성과 김인단 등을 죽이는 조처를 취하였다.[66] 그러나 영조는 세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가, 20여 일이 지난 윤5월 13일에 드디어 대처분을 내리게 되었다.[67] 그는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세자에게 자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세자가 자결을 하지 않자, 세자를 손수 뒤주에 가두어 아흐레에 걸쳐 굶겨서 죽였다. 그날 현장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이광현의 『임오일기壬午日記』, 권정침의 『모년일기某年日記』, 『영조실록』, 『한중록』, 박종겸의 『현고기玄皐記』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62_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5월 을묘. "此亦亡國之言, 代理儲君豈與罪人面質乎."
63_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5월 정사.
64_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5월 을묘.
65_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5월 정사.
66_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윤5월 병인.
67_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윤5월 을해.

- 진시에 영조가 창덕궁에 있는 선원전璿源殿으로 행차한다는 명령을 내림.
- 부왕이 창덕궁에 행차한다는 전갈을 받고도 세자는 병을 핑계로 부왕을 마중하지 않음.
- 영조는 선원전에 들러 전배殿拜하고, 이어서 창경궁에 있는 휘령전徽寧殿에 행차를 하면서 세자가 나와서 왕을 뵙는 예를 올리라고 명령함.
- 부왕의 명을 받은 세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지 빈궁 홍씨를 불러서 만나 보고 휘령전으로 나아감.
- 세자는 도착하자 뜰 아래 판板 위에서 전상에 앉아 있는 부왕을 향해 예를 행함.
- 왕이 휘령전의 정성왕후신위貞聖王后神位 앞에 부복하니 신하들도 일제히 부복함.
- 왕이 일어나 시위侍衛를 불러 입대케 하고 칼을 뽑으라고 명함. 시위들이 칼을 뽑지 않고 주저하자 손수 칼을 뽑아 들고 화를 내면서 재촉하자 일제히 칼을 뽑아 듦.
- 왕은 선전관을 불러 은밀히 하교함.
- 왕은 홀연히 손뼉을 치면서“여러 신하들도 신의 소리를 들었는가. 정성왕후의 신령神靈이 ‘나에게 변란이 호흡지간呼吸之間에 있다.’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함.
- 세자 관을 벗고 판 위에서 내려 땅에 부복함.
- 왕은 칼을 휘두르며 세자가 자결할 것을 요구함.
- 세자가 “부왕이 죽으라고 명한다면 죽겠다.”라고 대답하니 주위의 신하들이 모두 방성통곡함.
- 부왕은 신하들이 세자를 따라 울자 울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신하들의 퇴출을 명함.
- 부왕이 세자에게 자결할 것을 재촉하니 세자는 옷소매를 한 폭 찢어 목을 묶어 조였고, 이어 엎어짐. 강관講官들이 달려와서 세자를 부축하고 목에 묶은 것을 풀어 줌.
- 부왕이 다시 자결할 것을 재촉하니 세자는 다시 옷을 찢어 목에 맴. 강관이 달려와 다시 풀어 줌.
- 영의정 신만과 좌의정 홍봉한, 우의정 윤동도가 부왕과 세자가 있는 곳에 들어왔다가 왕의 명령에 의해 퇴출당함.
- 세자가 이젠 어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세손과 이별하고 싶으니 세손을 데리고 오라고 강관에게 요청함.
- 세손이 들어와서 할아버지인 영조에게 아버지를 살려 달라고 애원함.
- 부왕이 세손을 데리고 나가도록 명령함.
- 부왕이 자결할 것을 거듭 재촉함. 세자 다시 옷을 찢어 목을 매었고, 강관들이 다시 풀어 줌.
- 이때에 뒤주가 들어오자 부왕은 세자에게 뒤주 속에 들어갈 것을 명령함.
- 세자가 뒤주 속에 들어가려 하자 강관들이 세자를 말림.
- 부왕은 세자가 뒤주에 들어갈 것을 재촉함.
- 부왕이 세자 주위에서 시중을 들던 주서 이광현과 한림 임상덕을 쫓아내니 세자도 그들을 따라서 나감.
- 부왕은 세자를 불러오라고 엄명함.
- 세자가 다시 들어와서 부왕보고 살려 달라고 애원함.
- 부왕은 세자가 뒤주에 들어갈 것을 거듭 재촉함.
- 세자가 뒤주에 들어가니 부왕이 손수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잠근 뒤 장판長板을 가져오라 하여 큰 못을 박고 동아줄로 묶어 봉하도록 명함.

대리정청을 하던 세자가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어 뒤주에 갇히는 신세가 되자, 영조가 다시 모든 정사를 처리해야 하였다. 영조가 곧바로 복정復政을 선언하고 대리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자,[68] 조정은 안팎으로 더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14년간 대리를 하던 28세의 세자가 뒤주에 갇혀 울부짖고 있으니,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랐다.

68_『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윤5월 정축.


御製誌文
有明朝鮮國思悼世子墓誌
思悼世子諱愃字允寬睿御十一年歲
乙卯正月二十一日誕生即淸嬪所誕
也生而顙悟及其長也文理亦通其有
朝鮮庶孽之望嗚呼不學聖人及學太
甲總敗彝敗之事嗚呼訓誡自省編心
猶便作言教理睨章小將至國亡噫自
古無道之君何限而於世子時若此者
予所未聞其本生於豐祿不能攝心流
於狂也風夜所懲若太甲之悔悟終至
於稱古所無之事使自旨之父作萬古
所無之事乎嗚呼所悟者其資所歎者
述繼嗚呼是誰之咎即予不能教導之
致於爾何有嗚呼十三日之事豈予樂
爲宮予樂爲爾若早歸豈有此誤講書
院多日相守者何爲 宗社也爲斯民
也思之及此良欲無聞逮至九日聞不
諱之報爾何心使七十其父遭此境乎
至此不忍呼嗚呼玄戰敦牂月夏五閏
前即二十一日也乃復覽號特賜諡曰
思悼嗚呼近三十年爲父之恩義伸子
此矣此豈爲爾嗚呼辛丑血脉之 教
今只有世孫寔爲 宗國之意也七月
二十三日葬于楊州中浪渚負向原嗚
呼無他惟恩賜嬪號曰恩嬪於斯盡矣
此非詞臣代撰者故卧而呼嗚呼予三
十年之義嗚呼思悼將此文而藏諸子
予嗚呼成人學養女行冠禮甲子行嘉
禮娶豊山洪氏即領議政鳳漢之女永
安尉柱元五代孫嬪誕二男二女一懿
昭世孫二即世孫嘉禮子淸風金氏即
恭判時默女府院君五代孫也長女淸
衍郡主次女淸璿郡主側室亦有三男
一女矣
崇禎紀元後百三十五年壬午七月 日

사도세자 묘지문(墓誌文)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62년 7월 영조가 직접 지은 사도세자 묘지(墓誌)로, 사도세자의 탄생에서 서거까지 중요한 일들을 연대기 형식으로 요약정리하였다.

신하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오로지 영조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어느 누구도 영조의 행동에 제동을 걸거나 반기를 들지 못하였다. 주위의 신하들은 계속 영조의 면밀하고 정력적인 사건처리에 끌려가고 있었다.

영조는 세자가 뒤주에 갇혀 굶어 죽어 가는 동안 세자와 관계되어 일어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영조는 먼저 세자의 비행에 연루되었던 환시宦侍, 기녀, 승니 등을 죽이거나 벌주었다. 또한 세자의 보호를 거론했던 조재호 일당을 처벌하였다. 조재호사건은 효장세자빈의 동생이자 소론대신인 조재호가 평소에 "노론이 모두 동궁에게 불충하니 내가 동궁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것을 엄홍복이 듣고 이미에게 전했고, 이미가 다시 홍봉한에게 전하자, 홍봉한이 이것을 영조에게 고함으로써 일어나게 되었다. 영조는 엄홍복을 친국하여 그를 역률로 다스려 죽이고, 문초에서 거론된 조재호와 기타 연관된 사람들을 차례차례 다스려 나갔다. 결국 조재호는 죽임을 당하고, 조유진은 심문 도중에 입은 상처 때문에 옥에서 죽고, 기타 연루된 사람들도 죽거나 정배를 당하였다.

세자가 뒤주에 갇힌 지 아흐레가 되던 날 죽은 것으로 확인되자, 영조는 세자의 명칭을 본래대로 회복하는 동시에 세자의 시호를 사도思悼로 지었다.[69] 그리고 영조는 세자의 장례절차에 대해서도 손수 신하들에게 지시하였고, 세자의 묘지문墓誌文도 자신이 지었다. 영조는 세자의 장례 날에는 직접 묘에 나아가 곡을 하고, 이어 "13일의 일은 그 일이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아버지를 부르던 소리에 보답하고자 한다. 하나는 내가 20여 년에 걸친 부자간의 은恩을 완결 지우기 위해서 여기에 왔고, 하나는 내가 친히 신주神主를 쓰기 위해서 온 것인데 내가 친히 신주를 쓰면 다른 날에 신주를 땅에 묻자는 의론은 기필코 없을 것이다. 다른 날의 일은 비록 경卿들이라도 어찌 알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스스로 신주를 썼다.[70] 그리고 그는 세손을 동궁東宮이라 부르게 하고, 강서

69_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윤5월 기묘.
70_ 『영조실록』 권100, 영조 38년 8월 계미.

원講書院을 춘방春榜이라 부르게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은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조는 13일에 내린 처분을 "의義로써 은恩을 제어한 것이고,"[71] "나라를 위해서 의義로써 결단을 내린 것"[72]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세자가 죽고 나자, 의義와 은恩을 겸전兼全하기 위해 세자와 세자빈, 세손과 세손빈에 대해서 종전과 다름없는 예우와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73] 이로써 영조는 전대미문의 왕세자 아사사건餓死事件을 그의 의리관에 입각하여 치밀하게 진행시키고 마무리를 지었다. 어느 누구든지 세자의 아사사건을 입에 담거나 문제로 삼는 사람이 있으면, 역률로 다스리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아사사건을 재론할 수 없도록 막아 버렸다.



「**흥봉한 초상화**」(경기도박물관 소장)

한편 세자의 아사사건에서 영조 다음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홍봉한이었다. 그는 세자의 장인으로서, 조정의 대신으로서 아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 때문에 홍봉한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세자의 아사사건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74] 그래서 그는 영조에게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차자箚子를 올렸다.[75] 이 차자의 내용은 세자가 병이 심하여 부왕이 대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 때문에 부왕이 행한 대처분은 정당한 것이었음을 밝힌 뒤, 아사사건의 장본인은 영조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영조가 사건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동시에 은연중 자신의 처지를 변호하였다.

영조는 홍봉한이 올린 차자의 내용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아사사건의 부득이함을 설명하고 자신의 의리를 천명하였다. 이로써 왕세자 아사사건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며, 당시 정국의 주도 인물인 영조와 홍봉한의 주도로 사건의 성격이 정리되고 사후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한편 홍봉한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영조에게 올린 차자는 영조가 그 내용에 공감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일 두고두고 아사사건에 대한 홍봉한의 죄목으로 거론되었다.[76] 왜냐하면 영조는 군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정통성 자체가 부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비난이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대신에 왕이 저지른 잘못까지도 당시에 그를 보좌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정되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에 홍봉한에 대한 비난은 당연한 것이었다. 홍봉한이 영조에게 차자를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교적인 의리론에서 볼 때 그에 대한 반대파의 비난은 면할 길이 없었다.[77]

71_ 『영조실록』 권100, 영조 38년 8월 병진.
72_ 박하원, 『대천록』 상편(이이화,『조선당쟁관계자료집』12, 여강출판사, 1985, 138쪽). "傳曰往者之事爲宗國決斷於義."
73_ 박하원, 『대천록』 상편, 임오 윤5월 22일(이이화,『조선당쟁관계자료집』12, 여강출판사, 1985, 133쪽). "今番處分欲恩與義兩全, 下敎而 ……."
74_ 박종겸, 『현고기(玄皐記)』 권1, 원편하(이이화,『조선당쟁관계자료집』12, 여강출판사, 1985, 27쪽). "世子卒後洪相自解計進手箚."
75_ 『영조실록』 권100, 영조 38년 8월 병진.
76_ 박하원, 『대천록』 상편(이이화,『조선당쟁관계자료집』12, 여강출판사, 1985, 151쪽). "此箚亦非洪本意 …… 旣進箚則此旣洪相之斷案而更要批旨, 做出無限事端."
77_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 윤5월 경진, 「史臣曰十三日事」; 혜경궁 홍씨 저, 이병기·김동욱 역주, 『한중록』, 민중서관, 1971, 547쪽.

SUWON HWASEONG

최성환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02
사도세자의 신원과 영우원 승격

1. 사도세자의 위상과 영조의 국상 주도

임오화변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은 정파에 따라서 복잡다기하였다. 물론 기본 원인은 영조와 세자의 정치적·성격적 갈등이었지만, 여기에 궁중세력의 개입·이간 및 신하들의 쟁투 등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였다. 게다가 영조의 폐세자廢世子 처분을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변란變亂의 증거는 그다지 명백하지 않았다. 영조는 세자의 화증火症이라는 질병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발광發狂'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폐세자의 명분을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였다.[1] 결국 영조는 세자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병 때문만은 아니며, 병으로 인해 온전히 법도法度를 잃었고, 끝내 변란의 기미가 급박했기 때문에, 부득이 종사宗社를 위해 만고에 없던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유시하였다.[2]

영조는 화변에 얽힌 복잡한 책임 문제를 엄정히 추궁하기보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조는 세자와 자신 사이에서 영의정 김상로가 사태를 악화시켰음을 알게 되어 그를 파직하고 중도부처시키고,[3] 세자에게만 그 죄를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핵심 책임자를 형식상 처벌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조는 세자의 장례일에 묘소에 거둥하여 부자지은父子之恩을 펴고 신하들도 곡하는 예에 참여하도록 하고, 친히 신주神主에 제주題主하여 처분의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훗날 신하들이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였다.[4]

영조의 이러한 조치들은 사도세자를 죄인으로 보면서 세자 보호세력을 제거하려 했던 '세자 위해危害'세력의 시도나 사도세자의 과실을 지적한 신하들을 세자에게 불

1_ 『영조실록』, 영조 38년 5월 22일 을묘.
2_ 『영조실록』, 영조 38년 8월 26일 병진.
3_ 『영조실록』, 영조 38년 6월 6일 정유; 『영조실록』, 영조 38년 6월 11일 임인.
4_ 『영조실록』, 영조 38년 7월 23일 계미; 『영조실록』, 영조 38년 8월 26일 병진; 『영조실록』, 영조 40년 2월 20일 임인.



영조 어진(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충不忠한 자로 규정하려 했던 '세자 보호保護'세력의 시도를 모두 차단하려는 것이었다.[5] 영조에 의하면 사도세자는 보호론자가 주장하듯 질병을 앓다가 모함을 받아 죽은 것은 아니었고, 위해론자들이 주장하듯 신임의리에 불만을 품어 반역을 도모한 죄인도 아니었다. 영조가 세자를 처분한 공식 사유는 양자의 사이에 있었다.

영조는 세자가 질병으로 온전한 도리를 잃었고 이로써 변란의 기운이 급박하게 다가왔음을 느꼈기 때문에, 정에 이끌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삼종혈맥三宗血脈도 보존하지 못할 것이므로 종국宗國을 위해 사정私情을 끊고 미연未然에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6] 원인이야 질병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세자가 상도常度를 잃은 것은 사실이니, 변란을 일으켜 죄인이 되는 것을 막아야 그 후손인 세손이나마 온전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변란이 실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질병으로 실성失性하여 이미 많은 과실을 범했으므로, 종국을 위한 의리로 세손世孫을 위해 결단한 셈이다. 결국 임오년의 처분은 종사를 계승할 세손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조의 이러한 처분을 뒷받침한 것은 세자 보호세력의 수장 홍봉한이었다. 그는 영조가 말한 대로 10여 년 이래 세자의 질병과 이에 따른 실덕失德 및 변란의 위협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처분은 영빈暎嬪의 아룀에 따라 임금께서 종사를 위한 대의大義로써 단행한 것이고 자신이 임금의 뜻을 받들었던 것이며, 애통哀痛은 애통이고 의리는 의리이므로 사통私痛으로 공의公義를 가려서는 안 되기에 혹여 세자를 위한다는 사정私情으로 이를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수차袖箚를 올렸다. 이것이 곧 영조가 제시하고 홍봉한이 호응한, "의리는 의리이고 애통은 애통이니, 사적私的 애통으로 공적公的 의리를 가릴 수 없다."는 '영조의 임오의리'였다.[7] '영조의 임오의리'는 그 처분의 근거를 변란變亂–광패狂悖–실성失性–질병疾病 사이에 모호하게 해 둔 채, 더 이상 이 문제를 신하들 차원에서 언급

하지 못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영조의 임오의리'에 따른다면, 세자를 의리 죄인 취급하는 일부 '세자 위해'세력이나, 세자의 과실을 지적하는 자들을 역적 취급하는 '세자 보호'세력의 의리는 그대로 용인될 수는 없었다. 종사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세자 위해'세력의 의리를 기반으로 하되, 세자의 질병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호세력의 입지도 고려한 것이다. 이는 '세자 위해'세력의 종사론宗社論과 '세자 보호'세력의 충심忠心을 절충하되, 궁극에는 삼종혈맥인 세손을 보호하고자 취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영조에 의하면 사도세자는 의리 죄인도 아니요, 부왕의 뜻을 잘 이은 효자도 아닌 것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영조는 세손의 승계를 염두에 두며 임오화변을 차분히 정리하고, 명 태조가 의문태자의 아들을 황태손皇太孫으로 삼았던 전례에 따라 세손에게 동궁東宮의 위호位號를 정해 주어 세손 승통承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다.[8]

영조의 이러한 조치들을 감안할 때, 통상 알려진 바와 달리 사도세자는 영조 당대에도 의리죄인이 아니었다. 사도思悼라는 시호는 사망한 아들을 생각하고 애도한다는 일반적인 뜻이 아니다. 시법諡法에 따르면, 이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였고[思], 요절한[悼] 세자"라는 의미이다. 영조는 폐세자 처분을 취소하고 불미不美한 뜻이기는 하나 '사도'라는 시호를 내림으로써 세자를 의리죄인의 상태로 두지는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9] 영조는 이러한 시법상의 뜻을 담아서 사도세자의 신주에 제문題文을 친히 썼던 것이다. 이는 세자가 의리죄인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실제로 영조는 신하들이 사도세자에 대해 언급할 때 '죄罪'자를 쓰지 말라는 경고까지 내렸다.[10] 또한 영조는 사도세자의 장례일에 친히 참석해서 부자의 의리를 드러냈고, 관리들에게도 곡하는 예를 행하는 반열에 참여해서 군신君臣의 의리를 행하게 하였다.[11]

그러나 폐위한 세자에 대한 영조의 배려는 여기에서 그쳤다. 기왕에 영조는 장자인 효장세자孝章世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대하게, 그리고 의소세손懿昭世孫에 대해서는 등급은 낮추었지만 곡진한 슬픔을 드러내며 상장례를 치른 바 있었다.[12] 영조는 효장세자의 장례 때는 임금과 왕비 이하 제쇠齊衰 기년복朞年服을 기준으로 입게 한 바 있었다.[13]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변례變禮에 입각하여 간소한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영조는 관료들에게 세자를 위해 상복喪服이 아니라, 일상적 의례복儀禮服이나 제복祭服으로 통용되던 엷은 푸른빛의 길복吉服인 천담복淺淡服을 입게 하였다. 세손에게는 부자관계라는 천륜이 있었으므로 3년상을 치르도록 하되, 장례를 마친 후 진현할 때에는 역시 천담복을 입게 하였다.[14] 세손은 아버지의 입관에도 참여하지 못하였고 성복成服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곡哭할 수 있었으며,[15] 발인과 반우返虞 날에 아들로서 궐 밖까지 나가서 보내고 맞이하는 절차에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5_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君臣義理)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59~60쪽.

6_ 『영조실록』, 영조 38년 8월 26일 병진.

7_ 『영조실록』, 영조 38년 8월 26일 병진. '영조의 임오의리'에 대해서는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61~63쪽을 참조.

8_ 『영조실록』, 영조 38년 8월 1일 신묘.

9_ 「사도세자성복일치제문(思悼世子成服日致祭文)」에 따르면, 영조는 '여태자(戾太子)'에 비하면 '사도(思悼)'라는 시호는 그래도 미시(美諡)라고 하였다. 시호로서 '사(思)'자의 의미 가운데 영조가 택한 것은 '추회전과왈사(追悔前過曰思)'이며, 이것이 '불회전과왈려(不悔前過曰戾)'보다는 미시라는 의미이다(蘇洵, 『諡法』).

10_ 『영조실록』, 영조 38년 8월 10일 경자.

11_ 『영조실록』, 영조 38년 7월 23일 계미.

12_ 송지원, 「국왕 영조의 국장절차와 『국조상례보편』」, 『조선시대사학보』 51, 2009, 177~178쪽.

13_ 『영조실록』, 영조 4년 11월 17일 계해; 『영조실록』, 영조 4년 11월 18일 갑자.

14_ 『영조실록』, 영조 38년 윤5월 21일 계미; 『영조실록』, 영조 38년 8월 26일 병진. 사신(史臣)은 세자가 위호(位號)를 받았으므로 13개월의 기년복(朞年服)을 입어야 하나, 누구도 이를 간언하지 못하였다며 비판하였다.

15_ 『한중록』, 279쪽.



『효장세자연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이러한 조치는 영조가 효장세자의 장례 때에 친히 최복衰服을 입은 채 지극한 슬픔을 표시하고 신료들에게도 최복을 입고 곡하게 하였으며, 1년 뒤의 소상小祥이 끝난 후에야 천담복을 입게 한 것과는 명백히 대비되는 것이다.[16] 사도세자 사후 2년 뒤에 있었던 대상大祥 역시 간략하게 지나갔던 듯하다. 영조 대에는 요절한 의소세손은 물론이고 여타 왕실 인사들의 대상 때에도 신하들이 으레 추모의 뜻을 달래는 상소를 올렸지만, 사도세자의 대상일에는 이러한 의례 절차마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조는 사도세자의 3년상이 끝나기 전인 21개월 무렵에 세손의 종통을 변경하였다. 임오화변의 후속 조치인 갑신년甲申年(영조 40) 2월의 처분이다. 그것은 세손이 조부祖父를 직접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효장세자를 사속嗣續하는 방식으로 승통하게 한다는 내용을 『선원보첩璿源譜牒』에 써넣는 것이었다. 이것은 신하들에게 두루 물은 것도 아니요, 고례古例를 널리 상고한 것도 아닌, 영조의 독단이었다.[17] 영조는 갑신처분甲申處分을 통해 사도세자의 종통宗統을 차단함으로써 세자 보호세력의 대표 홍봉한이 훗날 왕부王父 추숭追崇으로 국구國舅가 되어 자신의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길도 함께 차단한 것이다. 자신의 '임오의리'도 보존하면서 세손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조치였다. 논의 과정에서 홍봉한은 조손祖孫 승통의 예의禮意 역시 선정의 정론正論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영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종통을 변경하여 부자父子 승통하도록 결정했으며, 홍봉한 역시 자신의 소견이 잘못되었다며 죄를 청해야 했다.[18]

갑신처분은 홍봉한과 혜경궁에게는 엄연한 자손子孫을 빼앗겨 국구와 대비大妃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의미였다.[19] 그러나 이들은 임오화변 이후 세손의 지위마저 위태롭던 불안했던 상황과 비교하여, 세손의 지위가 안정된 것에 만족해야 했다.[20] 갑신처분은 임오화변 이후 더욱 복잡해진 정국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혜경궁도 "애통은 애통이고, 의리는 의리"라며 내린 영조의 처분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임오년 못지않게 대단하였다.[21] 영조는 갑신처분으로 변경된 종통을 흔드는 자는 역신逆臣이므로 중률重律로 처단할 것이요, 사설邪說에 동요된다면 불효하는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신하와 세손에게 경고하였다. 대신 영조는 후사로서 세손궁世孫宮을 확정하면서, 이후 자신에게 아들이 생긴다고 해도 그 아들은 중자(仲子)가 된다며 세손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였다.[22]

갑신처분은 임오년의 대처분을 정당화하고 그에 따라 종통을 변경하여 세손의 지

16_ 『영조실록』, 영조 5년 1월 26일 신미; 『영조실록』, 영조 5년 9월 20일 신묘. 사도세자 상례에 한해 영조의 존왕적 예학 경향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경희, 「정조대 사도세자 관련 궁·원의 변천과 의의」, 『분류별 의궤해설집』, 2005, 109쪽 참조.

17_ 갑신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영조실록』, 영조 40년 2월 20일 임인; 『영조실록』, 영조 40년 2월 21일 계묘 참조. 영조는 본래 이러한 처분을 임오화변 얼마 후에 내리려고 하였지만, 시일을 끌어왔던 것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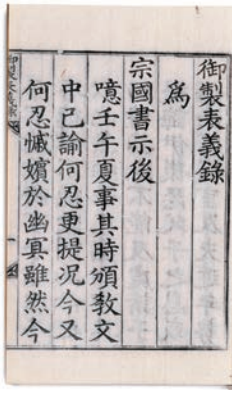
18_ 『영조실록』, 영조 40년 2월 20일 임인; 『영조실록』, 영조 40년 2월 26일 무신.

19_ 혜경궁은 갑신처분에 정처(鄭妻)의 작용이 있었다고 단정했으나, 영조의 복합적인 구상이 담긴 결정으로 판단된다.

20_ 『한중록』, 「읍혈록(泣血錄)」, 551~553쪽.

21_ 『한중록』, 『한중록(恨中錄)』, 289쪽; 『한중록』, 「한중만록(閑中漫錄)」, 301쪽.

22_ 『영조실록』, 영조 40년 2월 23일 을사.


御製表義錄
爲
宗國書示後
噫壬午夏事其時頒敎文
中已諭何忍更提況今又
何忍慊嬪於幽冥雖然今


御
筆
表義錄


表義錄

左『**표의록(表義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영조가 사도세자 사망 이후 아들을 따라 세상을 떠난 영빈 이씨의 대의를 찬양하여 지은 책이다. 영조는 종묘사직을 지킨 뒤 아들을 따라 세상을 떠난 영빈 이씨에 대하여 백성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어머니로서 의리를 지켰음을 천명하였다.

右 **영빈 이씨의 의열묘에 딸린 건물에 걸려 있던 현판**(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위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다. 이제 효장세자의 아들이 된 세손은 사도세자를 위해 끝내 3년상을 치르지 못하였고, 다만 생부에 대하여 심상心喪만 행할 수 있었다.[23] 당시 왕실에서 심상의 기한은 24~25개월로 한정한다는 통념이 있었으므로,[24] 결국 세손은 27개월의 온전한 3년상도 치르지 못한 것이었다. 영조는 갑신처분 후 사망한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暎嬪 李氏를 위하여 친히 『표의록表義錄』을 지었는데, 여기에 갑신처분의 대의大義가 잘 표현되어 있다.

> 만일 영빈暎嬪이 임오년 5월 13일 아침에 나에게 눈물 흘리며 고한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오늘이 있었겠는가? …… 영빈은 다만 종국宗國이 있음만 알고, 나를 위해서 그 사은私恩을 끊었으니,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면 나라가 망했을 것이다. …… 이 의거가 없었다면 수은垂恩의 복호復號를 시행할 수 없었으니, 혜빈惠嬪이 장차 어찌 혜빈이 되겠으며, 세손은 또 어찌 세손이 되겠는가? …… 진실로 의義가 바르고 은恩이 지극하다. …… 아! 종국을 위한 나의 고심과 과인을 위한 영빈의 대의大義를 혜빈이 알고 충자冲子도 안다. …… 수은묘垂恩廟라 써서 이 사당에 자은慈恩을 드리우고, 이제 영빈의 사당에 '수의보사守義保社' 네 글자를 써서 내린다.[25]

영조는 홍봉한에게 『표의록』을 보여 주었고, 홍봉한은 이것이 한결같이 천리天理의 공公에서 나왔다며 호응하였다.[26] 영조는 대신과 세손에게 유시하기를, 영빈 이씨가 사私를 잊고 대의를 잡아 종묘사직의 위기를 구했기 때문에 의열義烈로 일관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세자에게 수은묘垂恩廟를 베풀 수 있었고, 혜빈과 세손은 그 지위를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27]

영조는 영빈의 의열을 드러내고 그에 조응하여 세자의 위호가 회복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세자의 재기再朞가 끝난 후 그를 추모하는 공간에 '수은묘垂恩墓–수은묘垂恩廟'라는 칭호를 내렸던 것이다. 여기에는 사도세자를 의리죄인으로 두지 않겠지만, 성대한 애도의 뜻도 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영조는

23_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2월 20일 임인. "鳳漢曰, 今則世孫之孫字, 有歸屬矣. 上曰, 順承長統, 義理當然矣. 禮曹判書趙雲逵曰, 以東宮服色事, 敢達矣. 鳳漢曰, 於禮無之, 而似爲心制, 而見上之服, 則似當幾乎從吉矣. ……上曰, …… 從今以後, 東宮嬪宮, 當爲心制, 冒笹烏帽白袍, 燕居黑笠白袍, 而進見之服, 衮袍與燕服, 依前擧行."
24_ 『승정원일기』, 영조 7년 7월 17일 경인.
25_ 『표의록(表義錄)』(규 3470).
26_ 『영조실록』, 영조 40년 9월 3일 임자.
27_ 영조는 사도세자의 재기(再朞)가 끝난 후 수은묘(垂恩廟)를 세워 주었다(『영조실록』, 영조 40년 5월 19일 경오).

'표의表義–수은垂恩'의 대의에 입각하여 사도세자의 상장례喪葬禮를 주관하였고, 그 실무의 총책임을 홍봉한에게 맡겼던 것이다.

2. 수은묘垂恩墓 조성과 수은묘垂恩廟 축소 이건

영조가 사도세자를 위해서 조성하게 한 수은묘垂恩墓–수은묘垂恩廟는 조선왕실에서 세자와 세자빈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묘墓–묘廟의 일반 예법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조는 왕실의 위엄을 확보하고자 대단히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왕실 인사들의 추모 공간과 예제를 정비하는 데 주력하여 '존왕적' 예론의 확립자로 평가되는 군주이다. 영조는 왕(왕비)이 아니었던 혈연상의 선대인 사친私親에 대해서는 원園–궁宮의 체제를 만들어서, 세자와 세자빈에게 적용되는 묘–묘의 체제와 구별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궁원제宮園制는 왕조례와 주자가례의 원리를 절충하여 영조의 주도로 만든 것이다.[28] 물론 원제園制 자체는 중국에서 이미 시행되었고 조선에서도 인조의 생부와 생모를 위해 흥경원興慶園과 육경원毓慶園을 조성한 적이 있었으나, 제도로서 본격 정착된 것은 영조 대였다. 영조는 생모인 숙빈 최씨淑嬪 崔氏의 궁원으로 육상궁毓祥宮·소령원昭寧園을 조성하고, 『궁원식례宮園式例』와 『궁원식례보편宮園式例補編』으로 정식화해 두게 하였다.[29] 이러한 예제에 입각하여 영조는 사도세자에 대해 원–궁보다 한 등급 낮은 묘–묘의 체제를 적용하였다.

영조의 왕실 존중 성향에 입각한다면 대리청정까지 했던 사도세자의 묘와 사당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예우와 그에 따른 물력 동원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영조는 여타 왕실 인사들에 비하여 사도세자의 장례는 매우 박절하게 치렀다. 영조에게 사도세자에 대한 상장례는 슬픔의 지극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소원했던 부자관계를 회복하고 세자의 지위를 회복해 주는 은혜를 베풀며 임오년 처분의 의리를 확인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 영조의 박절한 상장례 방침은 사도세자의 묘소나 사당의 입지 선정 및 조성·영건에도 일관되게 관철되었다.

물론 묘墓 조성과 사당 영건을 주관했던 사람들은 홍봉한을 비롯하여 세자 보호론자들이거나 세손 측 인사들이었기에, 때로는 영조의 뜻에 어긋나서 제지를 받을 정도로 가능하면 성대하게 공정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임오화변 이후 세자 보호세력과 세손 측의 입지는 더욱 불안했기 때문에, 이들은 영조의 제지를 수용하며 그 뜻을 따라야 했다. 의리나 현실상 사도세자는 부왕에 의해 폐위된 세자에 불과하고, 세손 역시 이제는 혈연상의 아들에 불과한데다가 아직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지

28_ 영조의 예학이 '존왕적 예학'(정경희, 「영조의 예학」, 『규장각』 25, 2002)이라고 개념화할 만큼 체계적이지 않다는 임민혁의 반론이 있었으나, 체계성 여부와 상관없이 존왕적 경향은 인정되므로 일단 '존왕적' 예론이라 정리하였다.

29_ 정경희, 「조선후기 궁원제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 23, 2004, 169쪽; 임민혁, 「조선후기 영조의 효제(孝悌) 논리와 사친추숭(私親追崇)」, 『조선시대사학보』 39, 2009, 126쪽.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사도세자 묘墓·묘廟의 조성 및 영건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풍문이 나돌았던 것은 사도세자 및 세손의 불안했던 정치적 역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선 수은묘가 들어선 양주의 배봉산 구역은 왕릉이 조성되기에는 여러 모로 부적합한 곳이다. 당시 민간에서 통용되던 풍수설에 따르면, 이곳은 주산도 발달하지 못하고 여러 결함이 있어서 지관들이 꺼리는 곳이라며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30] 훗날의 일이지만, 배봉산에 조성되었던 수빈 박씨綏嬪 朴氏의 휘경원徽慶園을 철종 대에 천장했던 사유 역시 풍수상의 결함 때문이었다.[31] 다음 자료는 수은묘의 자리가 결정되기까지의 곡절을 전하여 준다.

> 처음에 원소園所를 영릉寧陵의 옛 자리로 정하였는데, 흉도들이 또 말을 퍼뜨려서 선왕릉先王陵의 구역 내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 임금의 뜻이 중도에 변하여 다른 곳으로 정하라고 하였기에, 감히 길지吉地를 널리 알아보지도 못한 채 중량포中梁浦로 정하였다.[32]

> 어버이의 원소를 처음에는 건원릉健元陵의 오른쪽 언덕인 영릉寧陵의 옛 자리에 정하였는데, 곧 지금의 원릉元陵이다. 그 얼마 후에 배봉산 아래의 기슭에 썼다.[33]

이에 따르면 처음에 사도세자의 묘소는 옛 영릉寧陵(효종의 능), 곧 지금의 영조 능 자리에 정해졌다가 흉도들의 반대로 결국 양주의 배봉산 자락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수은묘의 입지를 둘러싼 이러한 풍문은 사실 여부를 떠나 당대인들에게 수은묘의 미흡한 위상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수은묘는 애초부터 왕릉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풍수론상의 결함이 과도하게 부각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은묘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흉도들'의 영향을 강조한 '임오본말壬午本末'의 설명은 수은묘 조성 당시의 대결적 정치 환경을 과장한 준소계 토역론자의 설명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당시의 상장례 관련 결정은 사도세자 보호론자들의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영조가 재가한 사항임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이 조성한 수은묘의 풍수가 아주 길하지는 못하다고 해도 흉한 곳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훗날 정조의 설명 역시 영우원 천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론된 면이 있기 때문에, 천장이 결정될 무렵 수은묘 조성 당시의 풍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다. 정조를 비롯하여 천장을 주도한 박명원 등은 천장이 결정되기 전까지 영우원의 풍수를 문제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조는 영우원의 주봉까지 직접 답사한 후 용세龍勢의 형국이 사방을 둘러 하늘이

30_ 『홍재전서』 권57, 「천원사실(遷園事實)」, 15쪽. "臣嘗聞諸故老之論, …… 論以砂水之法, 則大爲地家之所忌云."; 『홍재전서』 권57, 「천원사실」, 16쪽. "奉朝賀趙暾曰, 舊園局勢砂水, 節節違格, 大爲地家所忌, 閭巷間殷憂積有年."

31_ 『철종실록』 부록, 「지문(誌文)」. "慮仁陵·綏陵·徽慶園風水不叶, 親相宅兆而安措焉."

32_ 『자교소장(紫橋小藏)』, 「임오본말(壬午本末)」, 1069쪽.

33_ 『홍재전서』 권57, 「천원사실」, 16쪽.

조성한 터라고 칭탄하기도 하였다.[34] 또한 한때는 어떤 언관이 영우원 주변의 물길에 변동이 심하므로 이를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영우원의 풍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민간의 설까지 동원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박명원 등과 함께 주변을 친히 답사하고 살핀 후에 이는 영우원 주변으로 물길이 모여드는 것이고 그 물도 평온하여 길격吉格이므로, 마을 사람들의 주장은 농경지 확장을 위한 협잡이라며 일축한 바 있었다.[35]

영조에게 수은묘垂恩墓는 자신과 갈등하다가 일찍 사망했으나 과오를 뉘우쳤다고 규정한 친아들, 더구나 후사를 이을 세손의 아비를 위해 조성된 곳이다. 이곳이 풍수론상 대길지大吉地에는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흉한 곳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조 역시 상대적으로 사도세자의 상장례에 소홀하였지만 그래도 친아들이고, 나아가 세손을 위해서라도 묘지문을 직접 쓰는 등 나름의 배려는 하고 있었다.[36] 또한 이와 같은 영조의 작은 배려가 반反세자 세력에 의해 차단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상장례의 기본 방향은 영조가 제시하였지만, 그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홍봉한 및 노·소론의 사도세자 보호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의 정치적 여건상, 이들이 사도세자를 위해서 풍수상 최상의 길지를 확보할 때까지 장례를 미룰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후술하듯 홍봉한 등 보호세력은 임오화변 직후 영조에 의해 조성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최대한 정성을 다하여 예법을 지키면서 장례를 치렀다고 판단된다.

풍수론상 수은묘의 불완전한 입지는 정치적 상황론과는 다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정조는 수은묘의 입지에 대해 풍수상의 형국보다는 왕래의 편리함을 취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한 바 있다. 다음의 기사는 정조 대에 통용되던 세자 묘의 선정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 임금이 판중추부사 김익金熤에게 묻기를, "여러 곳의 산을 보았는데, 강릉康陵 안 갑좌甲坐가 어떠하던가?" 하니, 김익이 말하기를, "평범한 안목으로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허전許㙫 등이 극구 칭찬하면서 "창릉昌陵의 갑좌나 율목동栗木洞보다 훨씬 낫다."고 하였으며, 금성위는 "전후로 밟아 보았던 산 중 제일가는 대지大地이다."고 하였다. …… 임금이 말하기를, "창릉의 갑좌와 강릉의 갑좌는, 첫째는 웅장한 것을 취할 필요가 없고 둘째는 막히고 멀어서 흠이 된다. 대체로 동쪽 교외의 능원陵園은 8, 9곳이기 때문에 거둥할 때마다 비록 새벽에 궁을 나서더라도 반드시 밤이 되어 돌아왔다. …… 만약 사세의 불편함을 헤아리지 않고 땅의 좋은 것만 취하여 이곳을 쓰기로 정한다면 10년 사이에 한 번도 가서 볼 수 없을 것이니, 또한 어찌 인정상 절박한 점이 아니겠는가? 영우원永祐園과 의소묘懿昭墓 자리를 쓰기로 정한 것은 그때 모두 사세상 편리하고 가까운 점을 취하여 그랬던 것이다. 지금 어떻게 하면 영우원과 의소묘처럼 편리하고 가까운 곳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도감 도제조 홍낙성洪樂性이 말하기를, "밝으신 하교가 정말 지당합니다. 웅장한 형국은 취할 필요가 없고 사세상 편리하고 가까운 곳을

34_ 『승정원일기』, 정조 9년 4월 17일 병신. "上乘輿, 向主峯至峻急處, 上舍輿而步, 及至上峯, 周覽良久. 上曰, 予雖不習於堪輿之說, 而以凡眼觀之, 龍勢形局, 四面環拱, 眞可謂天成之基也."

35_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9월 27일 정유. "明源曰, 水道變遷, 幾爲五十年許, 今則近拱主麓之後者, 以堪輿言之, 若有吉兆而然, 地師之所奏旣如此, 則其無欠於地理可知. 且水勢平坦, 異於激灘, 巖壁當流, 可無穿鑿之患, 恐不必改穿他道矣. …… 上曰, 此必守僕輩挾近處常漢, 造爲此言, 冀其改鑿水道之後, 起耕徼利者, 而年少名官, 誤信人言, 以至筵達, 民習可痛也."

36_ 영조가 지은 묘지문은 영우원 천장 때 묻혔다가, 1968년 서울위생병원의 뒷산에 간호학교 신축지를 닦다가 지하 5m 지점에서 발굴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구하고자 한다면 율목동보다 더 나은 곳이 없을 듯합니다. 또한 구애된다는 설은 본디 떳떳치 않은 것인데, 지금 또 의혹이 풀렸으니, 결단을 내리시어 즉시 결정하소서." 하였다.[37]

문효세자는 정조의 귀중한 맏아들로서 후사를 이어 갈 인물이었던 만큼, 이때의 논의를 토대로 세자 묘 조성의 원칙을 알 수 있다. 율목동(현 공덕동 효창공원)의 풍수 역시 지사에 따라서는 대지大地로 평가될 만큼 여러 장점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흠결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호조판서 조시준이 "용산龍山의 큰길이 묏자리에 너무 가까우며, 조그만 산기슭이 가린다고는 하지만 자연히 서로 보이므로 그 흠이 작지 않습니다."[38]고 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논의였다. 더불어 강릉 안 갑좌甲坐가 더 낫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율목동은 도성에서 가까운 용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었다.

묏자리를 정할 때 완전한 길지를 택할지 편근便近함을 택할지가 논란될 때에, 왕릉이라면 마땅히 전자 쪽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자 묘처럼 후대로 갈수록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부친으로서 자주 가 볼 수 있는 편근성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여건상 조선시대에는 국왕이라도 능행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묘까지 멀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듯하다. 도성 안 혹은 인근에서 자주 들를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피장자를 위한 배려라고 판단된다. 정조는 영조가 수은묘와 의소세손懿昭世孫 묘를 결정한 이유는 편근성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에는 왕릉과 달리 왕실 자손의 묘에 대해서는 풍수의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면, 편리함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원칙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과 같은 복합적 사정이 감안되어 수은묘의 위치가 배봉산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수은묘의 정혈正穴은 홍봉한이 이이장·홍상한·김시묵 등과 함께 지관들을 거느리고 반복해서 살펴본 후에 협의하여 찾은 것이다.[39] 이곳은 삼각산에서 뻗어 나온 산맥이 경종이 묻힌 의릉懿陵에서 기복하며 용龍의 기세氣勢를 더하고, 그중 우선右旋하는 정룡丁龍의 맥이 묘방卯方에서 입수入首하여 혈穴 자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비록 그 땅의 형국은 작지만 역량은 매우 커서 상등上等의 길지吉地 혹은 명승名勝 대길지大吉地로 평가받는 곳이었다.[40] 또한 묏자리의 주변에는 정방丁方에서 득수得水하고 임방壬方에서 파수破水하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 산수의 형국이 이러하였기에, 수은묘의 내안內案은 갑좌경향甲坐庚向으로 외안外案은 묘좌유향卯坐酉向으로 설정되었다. 지관들은 묘의 국세局勢와 세자의 승운乘運 등을 참작하여 입관 방향과 내안·외안까지 정밀하게 결정하였다.[41]

37_ 『정조실록』, 정조 10년 5월 26일 무진.
38_ 『정조실록』, 정조 10년 5월 23일 을축.
39_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思悼世子墓所都監儀軌)』, 「계사질(啓辭秩)」. "啓曰, 中洽浦新占甲坐庚向之原, 臣卽與都監提調李秉章·禮曹判書洪象漢 …… 率諸地官, 更加審察, 反覆商確, 載定正穴."
40_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 「계사질」. "(地官) 金鼎相以爲, …… 山川則, 自三角山行龍, 三番平地過峽, 而野中特起, 星峯脫龍, 就局廻龍, 顧祖之勢, 穴形端妙, 水神彎抱, 合度諸法, 而水蹤玄武之中, 朝對秀麗, 羅列于左右. 地雖小, 而勢則亦極大, 爲名勝大吉綿遠之地."
41_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 「계사질」. "今番墓所內案, 以甲坐庚向, 分金, 而諸地官以爲, 參以局勢承運, 外案則, 當以卯坐酉向排設爲宜."

이러한 입지 선정과 평가는 왕실의 묏자리 조성 과정에서 통상 행해지는 절차였고, 수은묘 자리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명당으로 결정된 것이다. 물론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강한 풍수론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는 어렵겠지만, 세자 보호세력은 지관들의 협력을 얻어서 최선의 정성을 다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풍수론의 길흉설과는 별개로, 수은묘는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의소묘懿昭墓·의열묘 등에 비해서 묘의 부지가 협소하고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영조가 사도세자 묘의 규모를 의소세손 묘보다는 약간 크게, 여타 세자들의 묘보다는 작게 만들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다.[42] 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묘의 부지 확정과 수목 조성 등에는 정치적 상황이나 실무 관료의 영향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듯하다. 훗날 의소묘·의열묘 등에는 호환虎患 때문에 수목을 베어 내야 했을 만큼 숲이 울창하고 묘역도 넓었던 반면,[43] 상대적으로 견제가 심하고 관리도 소홀하여 묘역까지 침식당했던 수은묘는 정조 대에 이르러 묘역을 넓히고 나무를 심는 노력이 꾸준히 기울여졌기 때문이다.[44]

영조는 사도세자 묘를 조성할 때 절용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거듭 지시하였다. 임오년 처분을 단행한 영조의 의지는 꾸준히 관철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석물은 인빈 김씨仁嬪 金氏의 순강원을 조성할 때 쓰다가 남은 의소묘 석물 가운데 남은 것을 다시 가져다 쓰게 한다든가, 묘관들의 입직소入直所와 행랑·마굿간 등을 만들 때에 이곳에 전부터 있었던 참판 김시묵金時默의 정자를 그대로 쓰거나 부속건물의 자재들을 활용하게 한 것 등이 그것이다. 제사를 위한 시탄柴炭 역시 세자궁에서 쓰던 것을 3분의 1로 축소하여 3년에 한해 설정하도록 하였는데, 이후에는 궁중에서 제사 지낼 일이 없으므로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45] 영조는 부장품인 사기砂器·목기木器·유의함遺衣函·유의궤遺衣櫃·명정구銘旌柩 등 작은 물품이라도 새로 만들지 말고 궁중에서 보관하던 것을 쓰게 하였고, 다만 세자의 명을 담아 두는 휘지궤徽旨櫃만 새로 만들도록 허락하였다.[46]

영조의 이러한 원칙 때문에 사도세자의 장례 물품을 새로 만들거나 정성껏 준비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저지되었다. 그러나 영조가 설정해 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세자 보호세력들은 상장례를 주관하며 정성을 다하였다. 혜경궁의 언급에 따르면 홍봉한은 상장례를 위해 일부는 직접 비용까지 조달하여 물품을 마련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47] 당시에 홍봉한을 도와서 상장례를 주관했던 주요 인사들은 이이장李彝章·정홍순鄭弘淳·김기대金器大·홍낙성洪樂性·김이주金頤柱 등이었다.[48] 이들은 대개 노·소론 가운데 세자 보호론자들이거나 왕실 인사 중 세자에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다. 특히 정홍

42_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 「계사질」. "上曰, 稍大於懿昭墓制樣, 而小於他制樣, 可也."

43_ 『정조실록』, 정조 3년 3월 24일 무신.

44_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4월 13일 갑인. "國榮曰, 永祐園, 承旨奉審, 今始初也, 故守護軍等, 以其難保之狀, 來訴於臣, …… 園內凡事, 全不成樣."; 『승정원일기』, 정조 8년 2월 16일 임신. "善復曰, 永祐園植木, 有待時爲之之敎矣. 方欲以今日植木, 故敢此仰達矣."

45_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 「계사질」.

46_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 「계사질」. "傳曰, 今番, 決不煩民, 予意深矣. …… 柴炭·氷丁, 今番無內祭, 亦爲節約. 柴炭, 前世子宮減下中三分之一, 限三年進排. …… 所謂砂器·木器, 雖造其時, 皆自內置之矣. 雖小亦浮費, 今番勿爲造作. 今則只造徽旨櫃, 而遺衣櫃·遺衣函, 亦勿造成. 銘旌柩·衣函, 以自內函取用, 亦勿新造."

47_ 『한중록』, 277쪽. "좌우(左右) 주선(周旋)하여 …… 빈궁(殯宮)은 시강원(侍講院)으로 하고 삼도감(三都監)은 법(法)대로 하시게 정하여 겨우 다 정하고, 당신(當身)이 도제조(都提調)를 하여, 몸소 동칙(董飭)하여 묘소(墓所) 범절(凡節)까지 조금도 흠절(欠節)함이 없게 하시니."

48_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 상, 「좌목」

49_ 『정조실록』, 정조 13년 10월 3일 을묘; 『정조실록』, 정조 13년 10월 9일 신유; 『속조야집요(續朝野輯要)』 권4, 「임오진절제신(壬午盡節諸臣)」, 167쪽.

50_ 『춘관통고(春官通考)』 권16-21, 길례 능침 제릉·제원;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규13607) 참조. 영조는 1758년(영조 34) 정성왕후 장례 때에 자신의 능 자리를 오른쪽에 비워 두도록[虛右] 한 바 있었는데, 이에 준하여 허좌(虛左)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이전에도 1728년(영조 4) 효장세자를 매장한 후 왼쪽 자리를 비워 두었다가 현빈을 부장한 바 있었다(『영조실록』, 영조 28년 1월 22일 갑신).

51_ 이상의 석물과 부속시설 등은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 『궁원의(宮園儀)』, 『춘관통고』 등을 참조.

52_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7월 6일 을해. "永祐園, 初無祭器庫, 藏置於公需間云, …… 祭器庫, 依他陵園例, 今番碑閣營建時, 一體營建, …… 何如."

53_ 『영조실록』, 영조 40년 9월 3일 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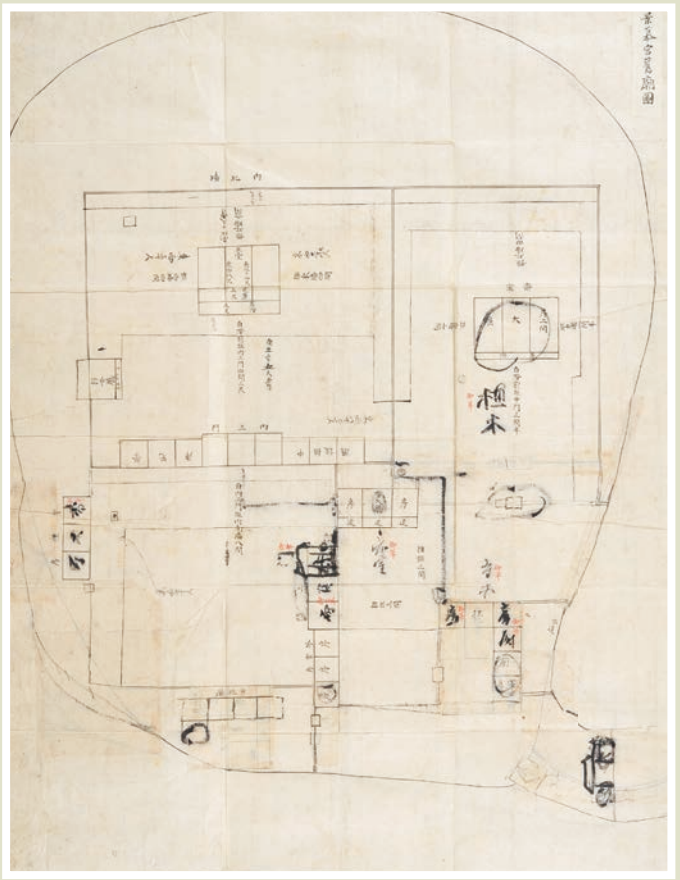
순은 관과 의복 등 제반 장례 물품을 성심껏 마련하고 그 샘플들까지 보관하였다가 훗날 정조에게 보여 주었고, 천장 과정에서 그 실체를 확인한 정조에게 찬탄을 들었던 인물이기도 하였다.[49] 이들의 협조로 사도세자의 장례는 영조가 나서서 제재를 가하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체모를 갖출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수은묘垂恩墓 조성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수은묘는 통상 세자 묘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들을 모두 구비하였다. 수은묘는 세자묘이므로 무인석武人石은 없고, 문인석文人石과 마석馬石·양석羊石·호석虎石 등을 한 쌍씩만 배치하였고, 난간석과 병풍석을 두지 않은 채 곡장·혼유석·장명등·망주석 등을 시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것으로 배우자의 묏자리를 비워 두어 십자석十字石으로 표시한 후 그에 맞추어 석물을 배치하는 허좌제虛左制의 시행을 들 수 있다.[50] 이상의 석물들 외에 재실齋室, 홍전문紅箭門, 향대청香大廳, 전사청典祀廳, 정자각丁字閣, 신주神廚, 원사직려園司直廬, 수복방守僕房 등 능묘에 통상 갖추어지는 부속시설들도 대략 갖추었다.[51] 다만 능원 규모에서는 갖추고 있었던 제기고祭器庫는 둘 수 없어서 다른 건물들에 제기를 보관해야 하는 형편이었다.[52]



『(사도세자)예장도감도청의궤』 반차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영조는 세자에게 적용되는 묘묘제墓廟制에 따라 사도세자의 재기再朞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사당[廟]도 건설하게 하였다. 명칭은 묘墓에 썼던 '수은垂恩'을 그대로 써서 수은묘垂恩廟라 하였으며, 여타 궁원의 예와 같이 수위관守衛官 2명을 두게 하였다.[53] 그만큼 의열義烈—수은垂恩에 입각한 '영조의 임오의리'가 강조된 것이다. 또한 수은묘垂恩廟 영건 때에도 묘소 조성 당시와 마찬가지 사정 때문에, 영건 담당 신하들의 정성과 영조의 절제 방침이 대립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었다. 더구나 수은묘垂恩廟는 영조의 갑신처분 이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세손의 종통 변경에 따른 사도세자의 위상 문제가 좀 더 분명히 부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은묘는 완공 → 철거 → 축소 이건이라는 곡절을 겪었다. 다음의 자료들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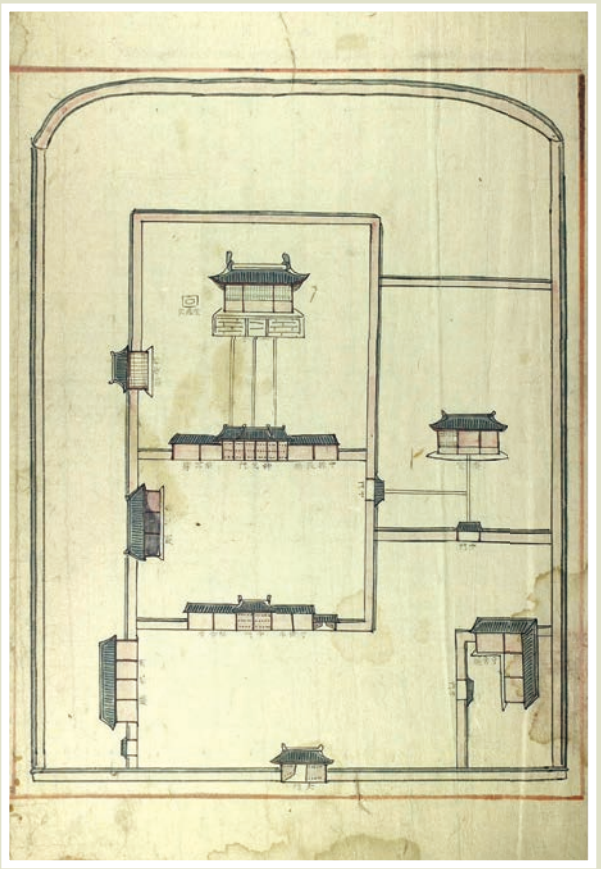
「경모궁구묘도(景慕宮舊廟圖)」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서울 순화방에 처음 세웠던 수은묘(경모궁구묘)를 1764년(영조 40) 여름 숭교방으로 이전할 때 영조가 친필로 수정한 건축도면이다.

갑신년 봄에 장동壯洞 세심대洗心臺의 영빈궁暎嬪宮 곁에 사도묘思悼廟를 건립하였다. 완성된 후 임금이 나아가 살펴보고 전교하기를, "새로 지은 건물이 굉장宏壯하고, 단청은 종묘의 재실齋室보다 지나치다. 어찌 이것을 세손에게 보여 주겠는가? …… 철거하여 향대청香大廳을 재실로 삼고, 기타 건물은 일체 건물 도형圖形에 의거하여 줄이라." …… 대신을 불러서 하교하기를, "사도묘가 동촌東村에 정해졌으니, 재목과 기와는 세심대에 세웠던 것을 이용하라."[54]

경모궁은 경성 동부 숭교방崇敎坊에 있다. 영조 갑신년 봄에 북부 순화방順化坊에 처음 세웠다가, 여름에 옮겨 건립하고는 수은묘垂恩廟라 호칭하였다.[55]

임금이 근신들과 함께 세심대에 올라 잠시 쉬면서 술과 음식을 내렸다. ……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임오년에 사당 지을 땅을 결정할 때 처음에는 이 누각 아래로 하려고 의논하였으나, 당시의 권흉權凶이 그 땅이 좋은 것을 꺼려서 동쪽 기슭으로 옮겨 지었으니, 지금의 경모궁이 그것이다. 경모궁의 땅이 좋기로는 도리어 이곳보다 나으니, 하늘이 한 일이다. 내가 선희궁을 배알할 때마다 문득 이 누대에 오르는데, 이는 아버지를 여읜 나의 애통한 마음을 담은 것이다." 하였다. 누대는 선희궁 북쪽 정원 뒤 100여 보가량 되는 곳에 있다.[56]

54_ 『임오일기(壬午日記)』(장서각 M35-318), 53쪽.
55_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9월 30일 무술.
56_ 『정조실록』, 정조 15년 3월 17일 신묘.



영건된 수은묘(『수은묘영건청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영조가 수은묘垂恩廟 영건을 지시한 것은 갑신년(영조 40) 1월이었고,[57] 갑신처분은 2월에 있었다. 『영조실록』에는 이해 5월에 처음 지시를 내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는 축소 이건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다.[58] 『임오일기』와 정조의 설명대로 최초의 수은묘는 봄인 1월에 당시 한양의 명승이던 세심대의 바로 아래에 조성되었다. 이곳은 조선시대 북부 순화방이었고, 현재는 선희궁宣禧宮(영조 대에는 의열궁義烈宮)이 있는 서울농학교 자리이다.[59] 처음 조성한 수은묘垂恩廟는 홍봉한 등 보호세력들이 도성 안의 좋은 터에 장대하고 화려하게 지어서 정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호조판서였던 구윤명具允明은 영조보다는 동궁과 혜경궁의 지시에 따라서 공정을 진행하였다고 한다.[60] 수은묘 완공 사실은 이해 5월에 영조에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너무 장려壯麗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영조의 철거 후 이건 지시에 따라 다시 공역을 서둘러, 한 달 만인 6월에 오늘날의 위치와 같이 동부 숭교방(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자리로 축소 이건하여 완공되었다.

57_ 『수은묘영건청의궤(垂恩廟營建廳儀軌)』의 첫머리에 영건 담당자들의 재직기간이 나오는데, 대개 갑신년 1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주요 건물의 공역은 2월과 3월에 걸쳐 시작되어 5월 21일에 영조에게 완공이 보고되었다.

58_ 『영조실록』, 영조 40년 5월 19일 경오. "사도세자의 재기(再朞)가 이미 끝났으므로, 홍화문(弘化門) 동쪽에 묘우(廟宇)를 세우라고 명하고, 묘호를 수은(垂恩)이라고 내렸다."

59_ 『임오일기』의 기록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의열궁은 수은묘 건립 후에 영건되었으므로, 수은묘 건립 당시 이 자리는 빈터이거나 다른 건물이 있었으며, 수은묘 이건 후의 빈터에 의열궁을 영건한 것이다.

60_ 『현고기(玄皐記)』 권2, 26쪽. "方戶判之承上敎也, 旣退, 而又自東宮及惠嬪宮授廟圖, 故有司顧慮他日, 初務宏大."

주목되는 것은 묘지 터를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권흉이 사당 터의 변경에 개입하였다고 정조가 설명한 점이다. 묘지 터 변경에 흉도들이 개입하였다는 민간의 풍문과는 차원이 다른, 정조 자신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설명 역시 임오화변 전후 어그러진 제반 사태의 원인을 영조가 아닌 불특정의 '권흉'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이긴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는 무엇보다 영조의 뜻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 영조는 냉엄하게 자신의 의리에 입각해 사도세자 관련 사안을 일관되게 결정하였다. 그것은 일찍 사망한 세자를 예우하는 예법을 지나치지 않게 하면서, 세손의 처지도 배려하는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배봉산의 수은묘垂恩墓 자리가 편근하여 좋은 점이 있었듯, 숭교방으로 이건된 수은묘垂恩廟 역시 도리어 터도 더 좋고 궁궐과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게 된 사정이 이해된다.

영조는 1차 완공된 수은묘垂恩廟에서 신삼문神三門의 장식이 너무 화려하고, 재실도 종묘의 재전齋殿보다도 '굉장宏壯'하며 게다가 단청까지 하였다면서 이들을 즉시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였다. 대신 향대청을 재실로 만들고 여타의 건물들도 애초 설계된 것보다 규모를 줄여서 지으라고 하였다.[61] 또한 영조는 정당正堂의 좌우에 익각翼閣을 화려하게 지은 것, 신삼문神三門의 좌우에 협실夾室을 지은 것, 수복방守僕房을 종묘에 있는 2칸보다 큰 4칸으로 지은 것 등 세부사항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결국 영조는 담당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조운규趙雲逵는 월봉越俸 2등, 구윤명具允明은 월봉 1등, 김이주金頤柱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송흠명宋欽明은 불응위공률不應爲公律 등으로 처벌하게 하였다.[62]

영조는 동부 숭교방으로 이건되는 수은묘垂恩廟에는 단청을 칠하지 말며 건물의 숫자와 규모도 대폭 축소하게 하였다. 건물들 역시 완전히 새로 짓지는 않고, 의열묘 옆에 만들었던 건축 자재들을 활용하여 축소 이전하게 하였다.[63]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은묘는 정당正堂, 이안청移安廳, 신삼문, 향대청, 재실 등이 완성되었다고 보고되어 영조의 승인을 얻었다.[64] 그 이후 최종 완성된 건물과 규모는 정당 9칸, 이안청 1칸, 신삼문 3칸, 중배설청中排設廳 2칸, 제기고祭器庫 2칸, 중대문中大門 2칸, 제관방祭官房 2칸, 수복방 2칸, 향대청 3칸, 전사청典祀廳 4칸, 재실 4칸, 수궁청守宮廳 4칸, 외대문外大門 1칸이었다.[65] 그 규모는 개축한 수은묘를 영조가 방문해 보고는 "너무 작게 지었다."고 아쉬워할 정도였는데,[66] 신위를 옮겨 모시기 위해 메고 갔던 가마[腰輦·彩輦]가 중문中門을 통과하지 못해 가로대[橫杠]를 잘라 내야 했던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67]

예법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도 망자와 상례 주관자의 관계는 묘와 사당의 입지를 선정하고 규모와 치장의 정도 등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앞서 보았듯 영조

61_ 『수은묘영건청의궤』, 「승전질(承傳秩)」, 갑신 5월 21일.
62_ 『수은묘영건청의궤』, 「승전질」, 금5월 22일.
63_ 『수은묘영건청의궤』, 「승전질」, 갑신 6월 19일. "思悼廟更定於東, 材瓦凡物, 將洗心所建者以建."
64_ 『수은묘영건청의궤』, 「승전질」, 갑신 7월 초6일.
65_ 건물 명칭과 칸수는 『수은묘영건청의궤』, 「별공작(別工作)」, 갑신 6월 일 별공작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66_ 『영조실록』, 영조 40년 7월 12일 임술.
67_ 『현고기』 권2, 26쪽. "方奉安神位也, 腰輦彩輦不能容中門, 去其橫杠而納之."

는 임오화변 직후 사도세자에게 세자의 지위를 회복시킨 것 자체를 큰 은혜로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상례 절차도 변례에 입각하여 치른 바 있었다. 이에 입각할 때 영조가 사도세자의 묘와 사당을 조성할 때 비교적 정성을 들이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제한된 조건 속에서 왕실과 신료들 중 세자 보호론계 인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은묘垂恩墓–수은묘垂恩廟를 조성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정조의 즉위와 영우원永祐園·경모궁景慕宮 승격

정조는 영조의 존왕적 예법을 계승하되, 성리학적 원리를 매우 존중하였다. 이미 영조는 생모인 숙빈 최씨에 대해서는 신료들의 반대를 존왕적 예법으로 제어하면서 궁원제를 관철시킨 바 있었다. 이제 정조가 즉위한 이상, 생부일 뿐만 아니라 세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도세자의 묘墓–묘廟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예법상 자손이 고귀해지면, 그에 걸맞게 부父(생부)도 추숭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영조가 정착시킨 궁원제의 정신이었다. 정조는 이 원리를 생부인 사도세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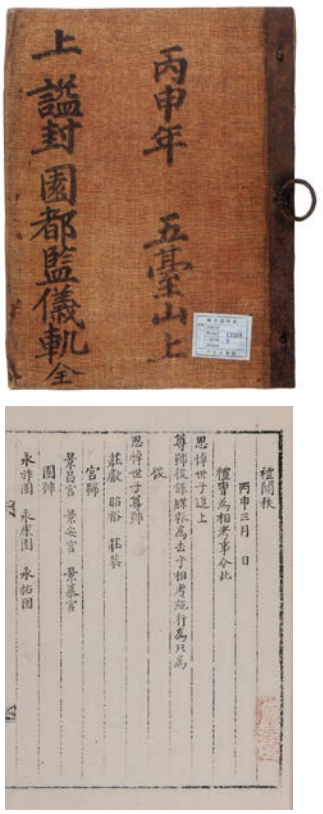
예제禮制의 정비를 위해서는 계통의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조는 즉위 직후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종통 문제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하였다. 그것은 국왕의 사친私親을 존중하는 인정人情과 종통 원리에 엄격한 주자학의 예법禮法을 조화시키는 조선왕실의 전통에 입각한 방향이었다.

> 윤음을 내리기를, "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선대왕께서 종통宗統의 중요함 때문에 나에게 효장세자를 계승하도록 명하였다. 아! 전일에 선대왕께 올린 글에서 '근본을 둘로 하지 않는다[不貳本].'는 나의 뜻을 크게 드러낼 수 있었다. 예禮는 비록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인정人情도 또한 펴지 않을 수 없으니, 향사饗祀하는 절차는 마땅히 대부大夫로서 제사하는 예법을 따라야 하며, 태묘太廟와 같게 할 수는 없다."[68]

> 하교하기를, "태묘에 버금한다는 뜻으로 묘서廟署를 설치하지 않고 수봉관守奉官의 명칭까지도 순강원順康園·소령원昭寧園 등의 제도를 따르기는 하였으나, …… 궁에 원의 예例를 쓰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듯하다. …… 도제조는 영의정이 예겸例兼하고 제조는 호조 판서·예조판서가 예겸하고 낭관郎官은 직장直長·봉사奉事라 칭하여 …… 체모를 무겁게 하고 아울러 내가 태묘보다 한 등급을 낮추고 다른 궁에 비해 융숭함을 더한다는 뜻을 붙이라. …… 영우원 원관의 명칭은 별검別檢·참봉參奉이라 칭하라."[69]

정조는 영조가 생모에게 그러하였듯, 생부인 사도세자에 대해 예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추숭하였다. 그러나 정조의 추숭은 "근본을 둘로 하지 않는다[不貳本]."

68_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3월 10일 신사.
69_ 『정조실록』, 정조 3년 8월 30일 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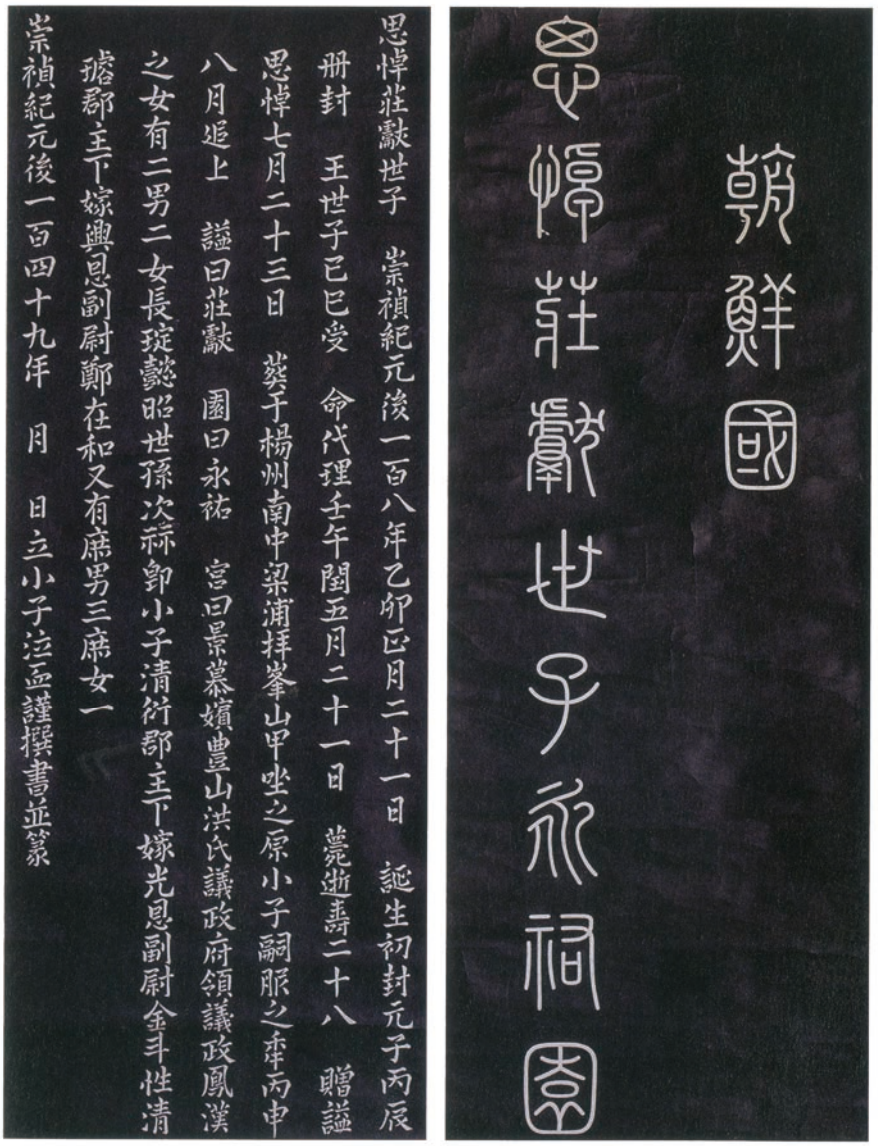
『장조상시봉원도감의궤(莊祖上謚封園都監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莊獻)으로 추존한 후 수은묘의 봉호를 영우원으로, 사당을 경모궁으로 존봉한 일체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는 종법의 원리를 철저히 준수한 것이므로, 예법상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정조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하였지만, 이는 사도세자를 생부生父로 두었다는 천륜을 새삼 거론한 것이다. 정조는 종통상 백부인 효장세자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생부와의 관계를 거듭 밝힐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조는 종통상의 부친인 효장세자를 진종眞宗으로 추왕追王하고 종묘에 올림으로써 계승관계를 명백히 하였고, 생부에 대해서는 혈연상의 아들이 국왕으로 현달하였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추숭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영우원과 경모궁의 위상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 즉위 초기에는 경모궁이 다른 궁원과 같은 위상이기에 지나치게 아름답게 하려는 뜻을 경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으나, 3년부터는 "종묘보다 낮되 다른 궁원보다는 높은" 위상이라는 점이 새롭게 강조되었다.[70] 생부는 세자였으므로 묘墓-원園-능陵의 체제에서 묘의 위상이었지만, 아들의 지위가 바뀜에 따라 원으로 위상이 변화한다는 것은 영조가 정착시킨 궁원제의 정신을 따른 것이다. 이에 입각하여 정조는 수은묘垂恩墓를 영우원永祐園으로, 수은묘垂恩廟를 경모궁景慕宮으로 격상시켰다.[71] 그런데 정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생부를 더 높이고자 하였다. 여타의 궁원들이 생전에 왕자군王子君이나 빈궁嬪宮 등이었던 것과 달리 생부는 세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궁원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상을 지녔다고 해석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정조는 세자였던 생부의 위상에 걸맞은 관리체계, 규모 등을 갖추려고 하였던 것이다. 정조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정리하고 그 정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재위 4년에 이복원李福源에게 『궁원의宮園儀』를 편찬하게 하고, 이에 근거해서 영우원과 경모궁을 관리하게 하였다. 『궁원의』는 정조가 피눈물을 흘리며 인정에 따라 예법을 만든 것이라서 조금도 가감加減할 수 없다고 했을 만큼,[72] 영우원과 경모궁 제도 이해의 준거가 된다고 하겠다.

정조는 수은묘垂恩墓의 명칭을 영우원으로 격상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몇몇 부속시설들을 새로 세운 이외에, 그 규모나 석물 등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영우원을 정성껏 보살피기 위하여 제사 및 관리에 소용되는 향탄산香炭山을 새로 설정하고, 수위관守衛官에서 수봉관守奉官으로 관원의 격을 높였으며, 정조가 직접 쓴 「영우원비永祐園碑」 보호를 위하여 비각碑閣도 새로 세웠다.[73] 또한 즉위 직전부터 영우원의 구역 정비와 주변 도로의 보토補土, 제사 때 하인들의 입접처入接處, 국왕 행차 수행원들의 숙직을 위한 행각行閣 신축 등 다양한 차원의 시설 보강이 꾸준히 있었다.[74] 정조는 격상된 영우원에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행차하여 전배하면서 주변을 정성껏 살폈으며 원역園域을 확장하고 정비하거나 소나무를 심어 보강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



「영우원비(永祐園碑)」 탁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思悼莊獻世子 崇禎紀元後一百八年乙卯四月二十一日 誕生初封元子丙辰
冊封 王世子已巳受 命代理壬午閏五月二十一日 薨逝壽二十八 贈諡
思悼七月二十三日 葬于楊州南中梁浦拜峯山甲坐之原小子嗣服之辛丙申
八月追上 諡曰莊獻 園曰永祐 宮曰景慕嬪豊山洪氏議政府領議政鳳漢
之女有二男二女長琔懿昭世孫次禄卿小子清衍鄂主下嫁光恩副尉金斗性清
璐鄂主下嫁興恩副尉鄭在和又有庶男三庶女一
崇禎紀元後一百四十九年 月 日立小子泣血謹撰書並篆

끼지 않았다.

정조가 즉위 직후부터 좀 더 치중한 것은 사당인 경모궁이었다. 정조는 즉위 직후 수은묘垂恩廟를 경모궁으로 격상하면서 그 규모와 외관을 화려하고 장대하게 개건하고, 그 이후 별도의 관리 기구를 신설하고 인원 증설과 격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정조는 영조 대에 이미 한 차례 이건하여 숭교방에 자리 잡았던 수은묘垂恩廟 자리에 경모궁을 개건하면서 그 규모를 대폭 확장하였다. 개건의 역사는 1776년(정조 즉위) 4월에 시작하여 8월에 완공되었다.[75]

70_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3월 20일 신묘; 『정조실록』, 정조 3년 8월 30일 신사.
71_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3월 20일 신묘.
72_ 『정조실록』, 정조 6년 5월 6일 임인.
73_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3월 19일 경인;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4월 13일 갑인;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5월 13일 계미. 수봉관이 수위관보다 격이 높았음은 『고종실록』, 고종 7년 12월 13일 갑술 기사에서 확인하였다.
74_ 『승정원일기』, 영조 52년 2월 22일 갑자;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4월 13일 갑인;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3월 27일 신미.
75_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9월 30일 무술.

<표 1> 경모궁(景慕宮)의 주요 건물과 규모[76]

시설	신·구	시설	신·구	시설	신·구
정당(正堂) 20칸		망묘루(望廟樓)		수복방(守僕房) 4칸	*
이안당(移安堂) 6칸	구 정당	목욕청(沐浴廳) 3칸		제집사방(諸執事房) 10칸	
좌익각(左翼閣) 5칸		수자청(水刺廳) 4칸		금루청(禁漏廳) 2칸	
우익각(右翼閣) 5칸		재전대문(齋殿大門) 4칸		중신문(中神門) 3칸	*
제기고(祭器庫) 3칸	*	향대청(香大廳) 8칸	*	악기고(樂器庫) 6칸	
월대(月臺)		찬만대(饌幔臺)		악공청(樂工廳) 10칸	
내판위(內版位)		망료위(望燎位)	잉구(仍舊)	궁사직려(宮司直廬) 16칸	잉구
내신문(內神門) 3칸	*	제정(祭井)		전설사고(典設司庫) 4칸	
문좌우(門左右) 월랑(月廊)		구 제정(祭井)	불용	수문장청(守門將廳) 3칸	
외판위(外版位)		전사청(典祀廳) 6칸	*	외대문(外大門) 3칸	*
성생단(省牲壇)		재살청(宰殺廳) 6칸			
재전(齋殿) 15칸	*	제관방(祭官房) 3칸	*		

이때 새로 짓거나 화려하게 만든 건축물은 애초에 영조가 그 책임자들을 문책했을 때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철거되었던 것들이었다. 일례로 정조는 정당正堂 좌우의 익각翼閣, 삼신문 좌우의 협실, 종묘의 2칸짜리보다 큰 4칸의 수복방 등 영조가 문제로 삼아 철거하게 했던 명목의 건물들을 원래의 규모 혹은 그 이상으로 복구하여 화려 장대하게 경모궁을 개건하였다. 경모궁의 여러 건물 규모를 수은묘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대략 3배 정도로 커졌으며, 여타의 신축 건물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진 것이라 하겠다.

정조는 경모궁 개건에 이어서 경모궁 주변 경관의 정비에도 힘을 쏟았다. 경모궁의 안팎에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거나 수직방守直房을 신축하기도 하였고, 상업적 특권까지 부여하며 모민募民하여 경모궁 방계를 형성하게 한 것 등은 그 대표적인 예였다.[77] 정조는 이렇게 확장 개건된 경모궁에 매달 1회, 영우원에 매년 1회 이상 전배하고, 그 기록을 『궁원전성록宮園展省錄』으로 남겼다.[78] 정조 대 초반 경모궁과 영우원의 규모가 확정된 이후에 더 이상의 대규모 정비는 없었지만, 관리 기구와 관원의 위상 격상은 꾸준히 수반되었다. 〈표 2〉는 경모궁과 영우원에 대한 정조의 각 시기별 조치들을 정리한 것이다.



정조어필 경모궁 현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정조가 직접 써서 경모궁에 걸었던 현판이다.

<표 2> 경모궁·영우원 관원의 위상 변천[79]

정조 즉위년	관품·인원	정조 3년	관품·인원	정조 6년, 8년, 13년	관품·인원	비고 (종묘서, 제릉)
경모궁	관리 부서 없음	경모궁	도제거 1원	경모궁(정조 6년, 정조 8년)	(8년) 도제조 1원	도제조 1원
			제거 1원		(8년) 제조 1원	제조 1원
			없음.		(6년) 영(종5품) 1원	영(종5품) 2원
			직장(종7품) 1원 봉사(종8품) 1원		직장(종7품) 1원 봉사(종8품) 1원	직장(종7품) 1원 부봉사(종9품) 1원
영우원	수봉관 2원	영우원	별검(종8품) 1원	현륭원(정조 13년)	영(종5품) 1원	영(종5품) 1원
			참봉(종9품) 1원		참봉(종9품) 1원	참봉(종9품) 1원

즉위 초에 정조는 경모궁과 영우원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체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1779년(정조 3)부터는 꾸준히 관리기구의 격을 높여 나갔다. 이때의 큰 원칙은 "종묘宗廟보다는 한 등급 낮고, 다른 궁宮·원園보다는 높인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경모궁과 영우원의 관리체계는 종묘나 여타의 능보다 약간 못 미치지만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꾸준히 격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1780년(정조 4)에 편찬된 『궁원의』와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증수궁원의增修宮園儀』로 정리되었는데, 이는 정조 즉위 후 단계별로 높여진 위상 강화 조치를 정리한 것이다.[80]

정조는 즉위 초에 개건된 경모궁에 관리부서를 두지 않고 다만 영우원은 수위관守衛官보다 높은 수봉관守奉官을 두어 관리하게 하다가, 3년 후에 경모궁에는 도제거·제거와 직장·봉사를 두고 영우원에는 별검·참봉을 신설하여 관리하게 하였다.[81] 그 이후 1782년(정조 6)과 1784년(정조 8)에는 경모궁에 영令을 신설하거나, 영의정과 판서가 예겸例兼하던 (도)제거 체제에서 전임 (도)제조를 별도로 임명하는 체제로 격상하는 조치가 있었다. 제례와 음악의 형식에도 변화가 있었으니, 대향大享→대제大祭로 격상, 경모궁 존호 가상加上 시 종묘의 악樂 사용 등이 그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조는 여타 능침陵寢의 예에 따라 영우원에 1결 50부의 복호復戶를 획정하여 지급해 주기도 하였다.[82] 이제 경모궁의 담당 관원은 종묘서宗廟署의 위상과 같아졌으며, 영우원은 여타 능침에 비해 관원의 위상이 약간 떨어질 뿐이었다.

유의할 점은 궁·원의 위상 강화가 경모궁과 영우원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정조가 그 위상을 약화시킨 경우도 있었으니, 영빈 이씨와 관련된 경우가 그것이다. 이는 영조의 '존왕적' 예론 경향에 따라 다소 자의적으로 운영되었던 궁원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영조는 후대의 사왕嗣王에게 유명遺命을

76_ 『궁원의』와 「경모궁도설(景慕宮圖說)」에 근거하였고, *표는 수은묘(垂恩廟)에 있었던 동일 혹은 유사 건물명과 비교를 위해 필자가 표시한 것이다.

77_ 김동철, 「18세기말 경모궁 모민(募民)과 그들의 상업활동」, 『지역과 역사』 8, 2001, 8~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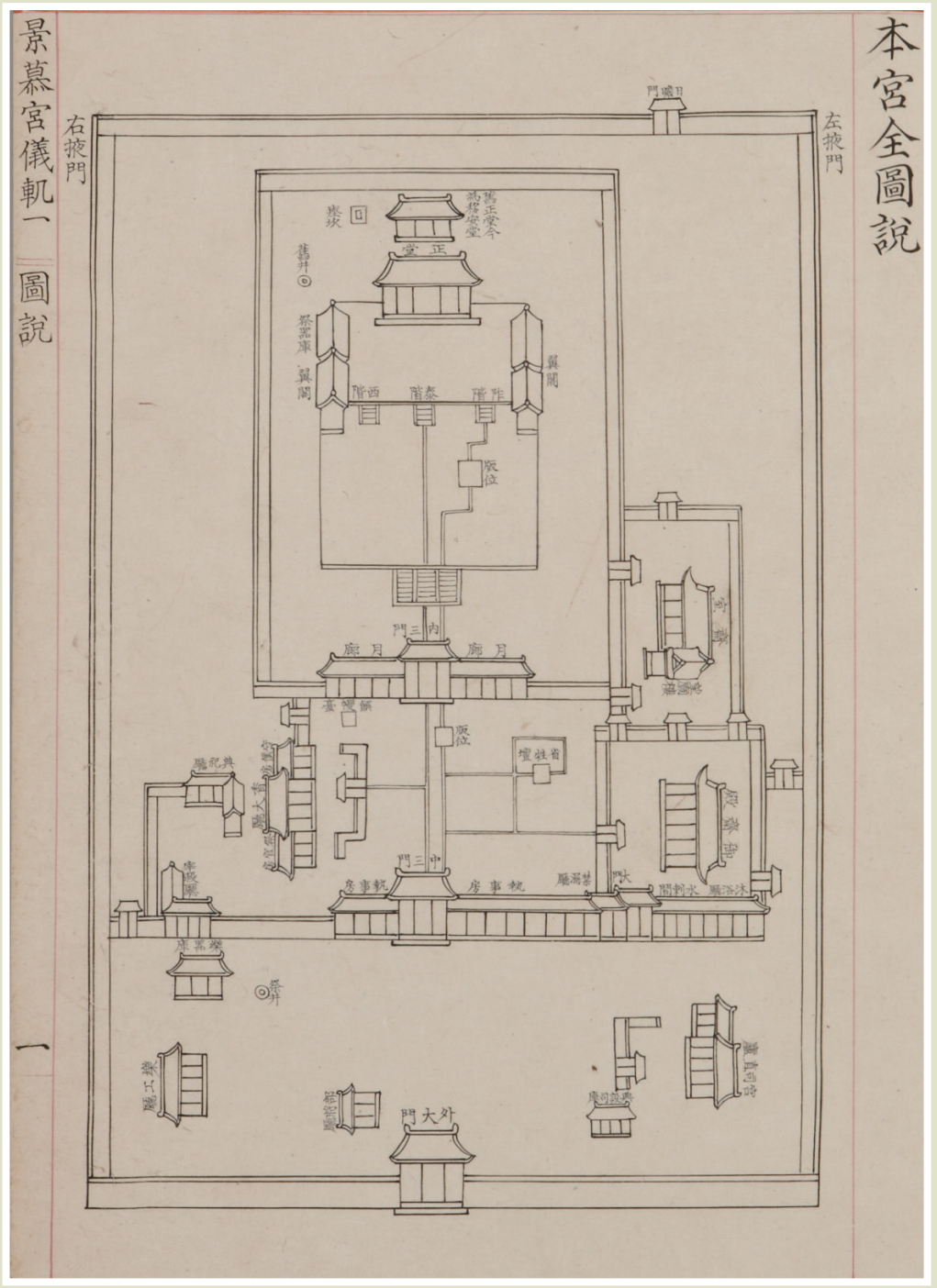
78_ 「궁원전성록(宮園展省錄)」(규 3755).

79_ 『정조실록』, 정조 3년 8월 30일 신사; 『증수궁원의(增修宮園儀)』, 「부록」; 『대전회통』 권1, 이전(吏典), 경모궁 및 현륭원 참조.

80_ 『정조실록』, 정조 9년 8월 9일 병술. 정조는 『증수궁원의(增修宮園儀)』를 『경국대전』, 『오례의(五禮儀)』와 다름없다며 중시하였다. 『궁원의』의 여러 판본 가운데 〈규 2039〉는 『궁원의』의 「부록」 부분이 증수된 『증수궁원의』이다.

81_ 『정조실록』, 정조 3년 8월 30일 신사.

82_ 『정조실록』, 정조 9년 4월 17일 병신. "本園事體, 亞於陵寢, 復戶結數, 幷依他陵寢例, 以一結五十負劃定." 이는 영조릉 등 여타 왕릉에는 90부의 복호가 주어진 것에 비하여(『춘관통고』 권20, 「능침」 원릉), 액수는 더 많다.



「경모궁전도(景慕宮全圖)」(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783년(정조 7)에 간행된 『경모궁의궤』에 실린 것으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사당인 경모궁에 관한 기록과 의식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내려 장차 자신이 부묘될 시기에 정빈靖嬪과 영빈暎嬪에 대해 봉원封園하라고 한 바 있었다.[83]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궁원제는 본래 국왕의 사친에게만 적용되어야 하였다. 정빈은 추숭된 진종의 생모이므로 예법에 맞지만, 영빈은 선세자의 생모에 불과하므로 봉원될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정조는 의열묘를 봉원하라는 유명을 놓고 논의를 거치게 한 결과, "죽을죄를 무릅쓴" 김종수의 의견에 따라 영빈은 승통承統의 빈嬪이 아니므로 의열원으로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84] 다만 의열궁은 그대로 두었다. 원래는 의열묘가 격에 맞겠지만, 영조가 이미 의열궁으로 명명했던 예외적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영빈 이씨에 대해 영조의 뜻을 일부 거스르고 궁·원제 본래의 정신에 입각한 수정을 가하여 궁·묘제를 적용한 것이다. 정조는 예학적 근거가 있는 주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경모궁-영우원의 위상을 강화시켰던 것이라고 하겠다.

이어서 의열궁의 호칭을 바꾼 것 역시 영조의 예법을 수정한 사례에 해당한다. 정조는 생부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영조의 조치를 수정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일찍이 선세자 보호에 힘썼던 박명원의 건의에 따라 영빈 이씨를 모신 의열궁의 궁호를 선희궁으로 개정하였다.[85] 의열궁-의열묘는 영조가 직접 명명한 것이므로, 궁호 개정은 '영조의 임오의리'와 그 예법에 대한 정조의 수정 방향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영조가 일찍이 종묘사직 보존의 공로로 영빈에게 의열의 묘호를 내렸다고 설명한 후, 훗날 아첨하는 신하로 인해 이를 고친다면 윤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까지 단언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86] 정조는 신하들의 의논을 모아 의열궁-의열묘를 선희궁-의열묘로 수정하게 하였다.[87] 박명원은 의열묘의 칭호는 그대로 둔 채 의열궁만 개호하자고 했는데, 대신들 역시 모두 궁·원에 각각 칭호를 달리하는 것이 전례라며 찬성하였다.[88]

이상과 같은 정조의 조치는 영조의 의리를 존중하되, 전례상 무리했던 부분을 수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하겠다. 정조는 영조가 확립한 궁원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관리체계와 제향의 격식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경모궁-영우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조는 단지 경모궁-영우원의 위상 강화에 만족하지는 않았다. 정조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훗날 있게 될 사도세자의 추왕追王,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영우원을 왕릉 급으로 조성해 두는 것이었다. 1789년(정조 13) 영우원 천장과 현륭원 조성은 이때를 대비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조가 영우원을 천봉하기로 결정할 무렵부터 영우원의 풍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갑자기 부각되었다. 비공식적으로 회자되던 민간의 속설이 정조에 의해 공식화하는 양상이었다. 정조는 성년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성묘를 한 후에 생부

83_ 『영조실록』, 영조 40년 11월 5일 임자. "上以一紙親書之, 使禮曹判書南泰齊, 藏之該曹. 蓋以靖嬪墓·義烈宮, 日後將次第封園之聖意."

84_ 『정조실록』, 정조 2년 1월 30일 신묘; 『정조실록』, 정조 2년 2월 3일 갑오. 김종수의 의견은 영조의 유명은 본래 의열묘→의열원이지만, 영빈은 승통의 빈이 아니므로 의열묘로 두는 것이 맞다는 것이었다. 정조 역시 의열원으로 봉원하는 것은 꺼렸으므로 김종수의 의견을 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85_ 『정조실록』, 정조 12년 12월 26일 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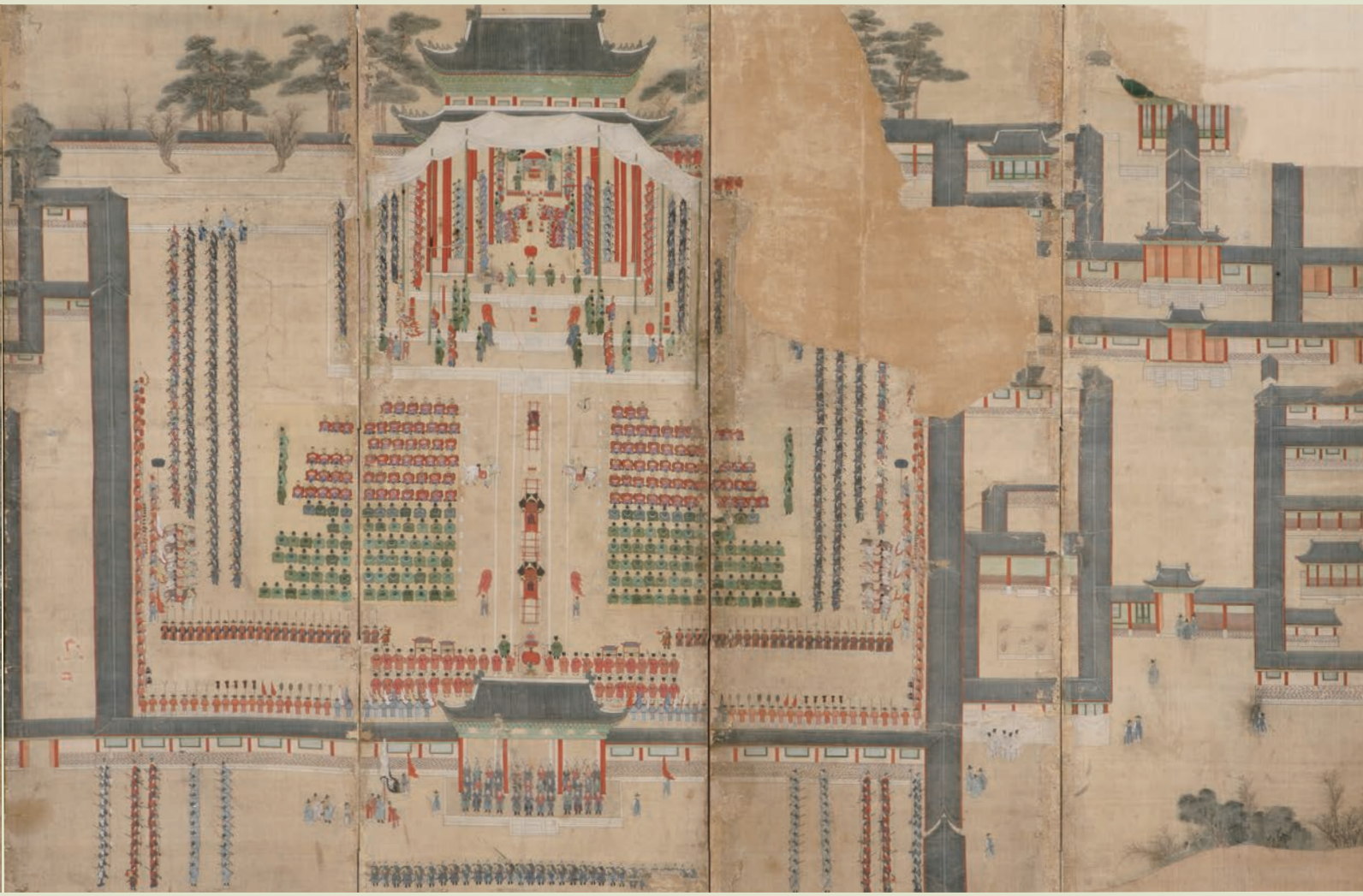
86_ 『영조실록』, 영조 40년 9월 26일 을해.

87_ 의열묘는 1900년(광무 3) 장헌세자가 장조(莊祖)로 추존됨에 따라, 비로소 수경원(綏慶園)으로 승격되었다(정경희, 「조선 후기 원소도감의궤(園所都監儀軌)의 특징」, 『분류별 의궤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88쪽).

88_ 의열궁호 개정 관련 논의는 『정조실록』, 정조 12년 12월 26일 계축 참조.



「진하도(陳賀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83년 정조가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에게 존호를 올린 행사를 기념하고자 제작한 8폭 병풍이다. 이때 사도세자에게는 '수덕돈경(綏德敦慶)'이라는 존호를, 혜경궁 홍씨에게는 '자희(慈禧)'라는 존호를 올렸다.



의 묏자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놀라고 뉘우치는 뜻"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89] 이는 자신의 직감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평소부터 생부의 묏자리 선정에 얽힌 사정을 익히 들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정조는 이러한 직감을 기반으로 하여 풍수론을 학습하였고, 이에 근거해 재차 묏자리를 살펴본 결과 역시 흠결만 보일 뿐 길격吉格은 하나도 없었다고 결론을 지었다.

> 수십 년 동안 지극한 슬픔이 가슴속에 맺혀 있는데, 만약 "흙이 어버이의 살에 가까이 닿아 있다[土親膚]."고 말한다면 나의 망극한 마음이 다시 어떠하겠는가. 지하의 혼백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오렴五廉 운운하는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판가름된다. …… 앞에는 관산官山이 없고 뒤로는 귀산鬼山이 격식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조산朝山과 조수朝水의 좋고 나쁨을 논할 겨를도 없다. …… 감여가堪輿家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설로 말하면, 패철의 내반內盤으로는 갑좌甲坐가 되고 외반外盤으로는 묘좌卯坐가 되며, 신술방辛戌方에서 득수得水하고 해방亥方에서 득파得破하니, 갑·묘·해가 모두 목木이다. 신술방의 물은 바로 이른바 황천득수黃泉得水로서 내명당內明堂에 물이 없는 것이니, 다만 한쪽에 치우친 물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더구나 을방乙方에서 입수入首하는데 용의 세력이 논할 만한 것이 없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90]

조선의 풍수론에 입각해서 묏자리를 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형국의 아름다움과 산수山水의 격格이다. 그런데 영우원의 근본문제는 묏자리의 격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정조는 영우원의 안산案山 너머에 있는 산인 관산官山이 없고 묘 바로 뒤에 있는 귀산鬼山도 격식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조산祖山과 조수朝水의 좋고 나쁨을 따질 것도 없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영우원이 본래부터 왕릉 급으로는 격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봉이 낮고 사산과 명당수가 분명하지 않아서 능묘의 국세局勢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던 곳에 영우원을 조성한 것이다. 영조 당시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는 정조가 설명하였듯 국세보다는 편근함을 취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조는 국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우원의 좌향 설정도 잘못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정조는 수은묘를 조성할 때 측정했던 좌향을 수정하였다. 조선왕실 풍수론의 전통에 따라서 정조가 중시했던 사대국포태법四大局胞胎法에 입각한 풍수 좌향론에서는, 산세山勢의 방향인 입수처入首處, 주변의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인 득수처得水處, 보이지 않는 지점인 파수처破水處의 방위가 좌향 설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91] 처음 수은묘의 좌향을 정할 때 이들 산과 물의 드나드는 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길한 좌향을 얻고자 했음은 물론이다. 그 결과 홍봉한 등이 통솔하는 지관들은 의릉懿陵(경종 능)의 주산主山에서 뻗어 나온 산맥 가운데, 우선右旋하는 정룡丁龍이 묘입수卯入首하고, 정방丁方에서 득수得水하고 임방壬方에서 파수破水로

89_ 『홍재전서』 권57, 「천원사실」, 8쪽.
90_ 『정조실록』, 정조 13년 7월 11일 을미.
91_ 『홍재전서』 권57, 「천원사실」, 9쪽. "胞胎法有左右逆順之別. …… 左右旋, 以山水來去定局. …… 卯坐亥破, 果無差爽, 則水法亦不利云. 予自是決意遷奉." 정조는 좌향에 대한 여러 지사들의 견해를 두루 살핀 후에, 포태법(胞胎法)에 입각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

판단하여, 내안內案은 갑좌경향甲坐庚向, 외안外案은 묘좌유향卯坐酉向으로 하여 좌향을 정하였던 것이다.[92]

정조는 영우원 자리가 흉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수은묘 조성 당시의 방위 측정 가운데 주요 요소들을 모두 부정하는 견해를 받아들였다. 입수룡入首龍은 정방丁方이 아니라 을방乙方이라 보았고, 득수처는 정방이 아니라 신술방辛戌方이라 보았으며, 파수처는 임방이 아니라 해방亥方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정조의 최종 판단에 따르면 이러한 산수의 방향은 모두 길하지 않거나 매우 흉하다고 한다. 즉 건술방乾戌方과 신술방辛戌方과 을진방乙辰方의 용맥龍脈은 모두 귀하지 않은데 영우원의 입수룡은 을방乙方이며, 목木에 해당하는 을방의 입수룡에 대해 상극인 금金에 해당하는 신술방에서 득수하는 물은 지극히 흉한 황천살黃泉殺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내반의 갑좌甲坐와 외반의 묘좌卯坐 모두에 대하여, 해방亥方에서 파수하는 물은 생기生氣를 꺼리기 때문에 온당치 않거나 불리하다는 것이다.[93]

결국 정조는 세손 시절 성묘한 이후 느꼈던 "놀라고 뉘우치는" 뜻대로, 영우원 묏자리의 국세局勢나 좌향坐向에 모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정조는 스스로 밝혔듯이 영우원의 형국이 옅고 좁다고 여겨 즉위 초부터 간절한 일념으로 천장을 원하여 자금 동원 등 구체적 방안까지 모색해 보았고,[94] 그 후 어느 시점에는 연운年運·산운山運·명운命運을 따져 기유년己酉年(정조 13)의 천장 시기는 물론 수원의 길지까지 봉표封標해 두었다고 한다.[95] 정조의 주도면밀한 성격상 천장을 위한 경비와 민가 철거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진작부터 마련해 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96]

정조는 즉위 초에 국정을 장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국왕으로서 겪게 될 명운命運을 헤쳐 나가다가, 제반 여건이 갖추어질 무렵에 천장을 단행하고자 계획하였고, 문효세자 상이 끝난 후에 박명원을 통해 계기를 만들어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화산의 풍수에 대해서도 이미 정조가 상세히 조사해 둔 것은 물론이다. 결국 정조는 자신의 뜻대로 결정된 현륭원에 나아가, 이전에 행하지 못한 삼년복을 뒤늦게 입는다는 뜻[追服]을 담아 시복緦服을 갖춰 입고 곡哭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광壙 안의 흙 빛깔과 사방의 국세를 살피며 천장을 마무리하였다.[97] 천장 이후 영우원은 예전대로 금양禁養 조치가 유지되었고 원소園所 근처에서는 밭을 일구지 못하게 하였으며, 옛 원소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배봉拜峰 별장別將 1인을 임명하여 두었다. 다만 영우원에 소속되었던 향탄산과 위전 등은 현륭원으로 옮겨서 새로운 원소 경영에 기여하게 하였다.[98]

92_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 「啓辭秩」. "右旋丁龍, 卯入首, 甲坐庚向, 分金, 丁得水, 壬破."
93_ 『홍재전서』 권57, 「천원사실」, 8~9쪽.
94_ 『동래정씨가록(東萊鄭氏家錄)』 권12, 「동재공동준유적(同齋公東浚遺蹟)」, 22쪽.
95_ 『홍재전서』 권57, 「천원사실」, 17쪽.
96_ 천원 논의와 작업의 구체적 추이에 관해서는 김지영, 「1789년 현륭원 천원과 현륭원원소도감의궤」, 『역주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경기도박물관, 2006 참조.
97_ 『정조실록』, 정조 13년 10월 7일 기미.
98_ 정해득, 『정조시대 현륭원 조성과 수원』, 2009, 56쪽 및 90~98쪽.

이달호 전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03
정치적 상황과 현륭원 천봉

1. 정치적 상황

1) '임오의리壬午義理'의 공론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다양하지만 당시에도 정가는 물론이고 항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으며 당파에 따라 그 평가도 달랐다. 정약용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임오년에 사도세자가 죽으니 세상에는 두 설이 있었다. 하나는 그 당시 투서한 것을 '간쟁諫爭'이라 하는 설이고 또 하나는 터무니없는 말을 꾸며 남을 해쳤다는 '주장譸張'의 설인데,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말이 바로 임오년의 의리라고 하였다. 정종正宗 때에는 집에 있는 자나 벼슬에 나온 자를 막론하고 이상 두 설 중 반드시 한 설을 주장 …….[1]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1776년 즉위하면서 '임오의리'에 대한 문제가 정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정국의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윤음을 내렸다.

> 아! 과인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아들이다. 선대왕께서 종통宗統의 중요함을 위하여 나에게 효장세자孝章世子를 이어받도록 명하셨거니와, …… 예禮는 비록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인정人情도 또한 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향사饗祀하는 절차는 마땅히 대부大夫로서 제사하는 예법에 따라야 하고, 태묘太廟에서와 같이 할 수는 없다. …… 불령한 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추숭追崇하자는 의논을 한다

1_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시문집」, 복암 이기양 묘지명. "莊獻世子 薨於壬午 世有二議. 其一議當時投書者 爲諫爭 其一議爲譸張 皆謂之某年義理. 凡在正宗之朝者 其居家立朝 必有一所主 ……."





장조 옥인(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776년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이라 추숭하고 제작한 어보이다.

면 선대왕께서 유언하신 분부가 있으니, 마땅히 형률로써 논죄하고 선왕의 영령英靈께도 고하겠다. ……[2]

이것은 영조에 의해 효장세자의 후사로 왕위를 이은 정조의 솔직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선대왕인 영조가 절대로 다시 언급하지 말 것을 유언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생부生父 사도세자에 대한 '인정人情' 차원에서 향사 절차를 예법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즉위 초기에는 노골적으로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면서 본심을 드러내었다. 아버지 장헌세자의 원침을 천봉한 후인 1792년(정조 16)에 정조는 대신과 각신들을 모아 놓고 자신의 본심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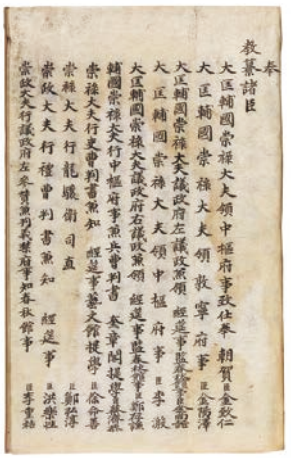
>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원통함을 삼키면서 30년을 하루처럼 지낸 사람이 있는가. …… 내가 등극한 이후에 모년某年의 의리에 대해 감히 한 번도 분명한 말로 유시하지 못했고, 그들을 주륙誅戮한 것도 다른 일을 인해서였으며, 그들을 성토한 것도 다른 조항에 의탁해서 하였다. 화가 났지만 감히 말을 하지 않았고 말을 하고자 했으나 …… 이는 다름이 아니다. 선대왕께서 숱하게 내리신 정녕한 유시와 엄격한 하교는 …… 중요한 것은 갑신년 2월 20일에 대신과 여러 신하를 진전眞殿 문 밖에 불러 놓고 어필御筆로 손수 쓴 글과 구주口奏한 긴 문자文字를 반시頒示한 일이다. …… 또 더구나 성교聖敎 가운데 있는 '통석'이란 두 글자는 바로 후회하신 성의聖意여서 ……. 그러나 억제할 수 없는 것은 지극한 통분이며 막을 수 없는 것은 지극한 정情이다. …… 지금 비록 100번 책을 편찬하고 1만 번 선양宣揚하려 해도 어찌 선대왕의 갑신년 하교와 병신년 세초하라는 명보다 더하겠는가. 이것이 선조의 본의本意의 대략이다.[3]

이러한 정조의 통석의 회한을 들은 채제공은 자신이 정조에게 윤음을 내릴 것을 간한 이유가 정조의 하교를 얻기 위해서였으며 영남 유생 또한 같다고 하여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련된 인물에 대한 응징과 사도세자의 복권을 주청하였다.

임오년의 의리문제는 정조의 본심으로 선대왕인 영조와 직접 관련된 문제로서 명분은 선대왕先代王의 처분에 저촉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써 조정은 정조가 정국 운영의 기본틀이며 화두인 '임오의리' 문제를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에 집중되었다.[4] 그리하여 임오년의 의리문제는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莊獻'이라 하고 '수은묘'를 '영우원永祐園'으로, 묘호를 '경모궁景慕宮'[5]으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사도세자 죽음에 관련되었던 인물들에 대한 치죄가 시작되었다.

2_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3월 10일 신사. "嗚呼 寡人 思悼世子之子也. 先代王爲宗統之重 命予嗣孝章世子, …… 禮雖不可不嚴 情亦不可不伸 饗祀之節 宜從祭以大夫之禮 而不可與太廟同. …… 怪鬼不逞之徒 藉此而有追崇之論則先代王遺敎在焉 當以當律論 以告先王之靈 ……."

3_ 『정조실록』 권35, 정조 16년 5월 22일 기미. "而當爲不爲含恤茹寃三十年如一日乎 …… 自予御極以後 於某年義理 不敢一番明言洞諭 而其誅之也 因他事 其討之也托他條. 敢怒而不敢言 慾言而不敢 …… 此無他. 先大王許多丁寧之諭 嚴截之敎 …… 最是甲申二月二十日 召大臣諸臣於眞殿門外 有御筆手書 口奏萬言文字 頒示之擧. …… 且況聖敎中慟惜二字 卽追悔之聖意 ……. 然不可抑者至慟也 不可遏者至情也. …… 今雖慾百番編書 萬番揄揚 豈有過於 先大王甲申之敎及 丙申洗草之命乎. 此其先朝本意之大略也."


奉
敎纂諸臣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政丞奉 朝賀 臣金致仁
大匡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 臣金陽澤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臣徐命善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 臣李 敏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臣趙
輔國崇祿大夫行中樞府事兼判義禁府事 臣趙
崇祿大夫行吏曹判書兼知 經筵事藝文館提學 臣俞彦
崇祿大夫行龍驤衛司直 臣鄭存謙
崇政大夫行禮曹判書兼知 經筵事 臣洪樂性
崇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判義禁府事知春秋館事 臣李東


奉事 柳 湊 士敬 豐山 安東河限
令 李世胤 君成 慶安宣仁
前持平成彦樞 用汝 昌寧 慈山東浦
副司果李宗儒 景吳 公兩 驪江 苔山中坪
知學 李鼎寅 公亮 慶州良洞
姜世晉 初道 晉山 尚州鳳臺
前掌令南必錫 光乎 宜寧 尚州銀城
李鎮宅 養平 慶州 慶州鎮亭
知學 李 瑀 已叔 永川 安東鳳溪
監察 權 訪 永甲 安東 安東谷洞
陸續
陸訖

左『**명의록**』(김종수 후손 소장)

右『**소청제명록(疎廳題名錄)**』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전주 류씨 정재고택 기탁)
1792년 영남만인소에 참여한 인물의 명단이 기록된 필사본 책이다.

김상로의 관작 추탈, 숙의 문씨의 작호를 삭탈[6]하는 한편 홍인한과 정후겸을 사사[7]하였다. 홍계희의 관작을 추탈하고 그의 후손들인 홍술해, 홍지해, 홍지해의 삼촌 홍찬해, 홍상범 등을 귀양 보내고[8]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를 흑산도로 귀양을 보냈다.[9] 그렇지만 사도세자 죽임에 대해 수수방관 또는 방조한 것으로 알려진 홍봉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응징의 성격은 척리를 배척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에 저해가 된 세력을 응징한 것이다. 척리인 박명원을 등용하여 장헌세자의 원침園寢을 천봉遷奉하는 데 활용한 것이 그 일례다. 이후 정조는 『명의록明義錄』으로 충忠과 불충不忠을 정리하였다. "의를 밝힌다."는 뜻의 『명의록』은 정조 통치행위의 기본 전범이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임오의리'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영남 유생 이응원의 상소[10]가 이어졌다. 따라서 정조 대 전 기간에 걸쳐 '임오의리'의 재론문제는 정치적 쟁점이 되었으며, 각 당파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같은 '친위세력' 중에서도 정조의 통치행위에만 동의하고 사안에 따라 특히 '임오의리'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사뭇 달랐다. '청명당' 계열의 김종수[11]나 남인들의 입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영남 남인들은 1694년 갑술환국(숙종 20) 이후 재야세력으로 전락했고 영남의 일부 세력이 1728년(영조 4) 무신란戊申亂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이후 정치적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12]

1788년(정조 12) 11월 영남 유생들은 무신란 때 영남에서 창의倡義한 사실을 기록한 『무신창의록戊申倡義錄』을 작성하여 정조에게 올린 바 있으며,[13] 뒤이어 정조는 영남인 조덕린·황익재를 복권하였다.[14] 이후 사도세자의 서거 30주년에 즈음하여 1792년 윤4

4_ 정조 대 기존의 연구 초점은 '탕평'이었다. 그러나 '탕평'은 정국 운영 논리일 뿐 '정국 운영의 목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은 '탕평'을 마치 최종의 목표로 본 것이다. 왜 탕평의 논리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천착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조 재위 24년간의 정치 운영 논리를 분석하는 데서 정조 자신에 의해서 언급되고 표방한 '언어'를 그대로 정국 운영 논리로 적용하는 오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_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3월 20일 신묘.

6_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3월 30일 신축.

7_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7월 5일 갑술

8_ 『정조실록』 권3, 정조 1년 8월 23일 병진.

9_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9월 9일 정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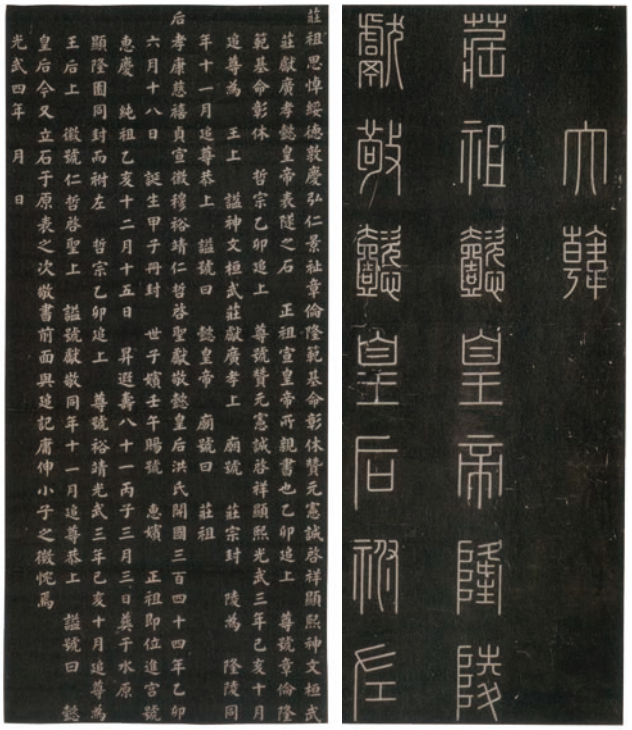
10_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8월 6일 을사.

11_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84쪽.

12_ 김문식, 「『교남빈흥록』을 통해 본 정조의 대영남정책」, 『퇴계학보』 제110집, 퇴계학연구원, 2001.

13_ 『정조실록』 권26, 정조 12년 11월 8일 병인.

14_ 『정조실록』 권26, 정조 12년 11월 10일 무진.



「장조의황제융륭비(莊祖懿皇帝隆隆碑)」 탁본(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762년 사도세자가 서거한 지 137년 뒤인 1899년 고종황제는 사도세자를 황제로 추존하고 이듬해에 친히 글을 짓고 융륭비를 세워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월, 1만 57인의 선비들이 연명한 만언소를 올리고 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세력에 대해 처벌을 분명히 하여 의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5] 이러한 정조의 처사는 영남 남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영의정 김치인과 좌의정 이성원이 복권에 반대하고 윤시동, 이민채, 김조순 등 노론계 인사들도 반발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복권은 영남 남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오고 채제공을 영수로 하는 경남계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론계 내부에서 시時·벽僻의 대결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16]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서 화성을 건설한 정조는 10년이 지난 뒤 거기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화성에 노래당老來堂을 지었다고 하였다. 화성행궁 후원에 있는 미로한정未老閒亭 등의 명칭도 이러한 은밀한 뜻을 의도한 것이다.[17] 이러한 모든 정조의 행위는 1804년 왕위를 물려주고 노후를 보내기 위한 기지 건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천도遷都[18]라기보다는 정계 은퇴 후 순조에 의해 사도세자를 추숭하고 상왕上王으로 화성에 머물며 정치적 막후조정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화성 건설의 배경이 되는 '임오의리'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인물로서 채제공이 선택되었다.

그렇지만 정조는 1800년(정조 24) 사망함으로써 이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정조가 이루고자 했던 사도세자의 추숭은 약 100년이 지난 고종 대에 와서나 이루어졌다. 고종은 1899년 9월 1일(양력) 장헌세자를 장종莊宗으로, 능호陵號를 융릉隆陵으로 추숭하였으며, 이후 11월 17일(음력)에 장종을 장조莊祖로, 정종正宗을 정조正祖로 높이면서 황제 칭호로 고쳤다.[19]

2) 채제공의 중용과 남인의 등용

1789년(정조 13) 7월 수원부 구읍치로 장헌세자의 원침을 천봉하기로 결정할 때의 정황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병오년 5월과 9월의 변고", 즉 왕세자와 의빈 성씨의 갑작스런 죽음을 거론하며 천봉을 주장한 박명원의 상소에 대해 감히 반대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는 남인인 채제공이 우의정으로, 소론인 이성원이 좌의정으로 있었고, 천봉을 결정한 그날 노론 벽파인 김익을 영의정으로 임명하는 한편, 총호사 천원도감·원소도감 도제조를 겸하게[20] 하여 천봉을 위한 과업을 진행시키는 데 3개 정파를 모두 참여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당시 채제공은 남인으로서는 유일하게 1788년(정조 12) 2월 11일에 우의정에 제수된 이후 좌의정과 영의정을 차례로 거쳤고, 그 후 다시 1795년(정조 19)부터 우의정에 제수된 이래 좌의정을 거쳐 1798년(정조 22) 6월 좌의정에서 해면되면서 관직생활을 마감하였다. 1793년부터 1794년 사이에도 화성 축성 총리사摠理使로 중책을 맡고 있었다. 그렇다면 채제공의 중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조 재위 24년간 정승급 이상의 인물들을 표로 작성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 1> 정조 대 우·좌의정 명단[21]

성명 (생몰년)	재직기간	직위	당색	비고(본관 및 친인척 관계)
정홍순 (1720~1784)	1778. 6.~1779. 1.	우의정	소론 시파	동래, 참판 석산의 자, 태화의 후손, 사도세자의 장의 주관
홍낙순 (1723~?)	1778. 9.~1779. 1.	우→좌의정	노론 시파	풍산, 관찰사 창한의 자, 홍국영의 숙부
이은 (1722~1781)	1780. 1.~1780. 5.	좌의정	소론 시파	덕수, 판서 주진의 아들, 좌의정 이집의 손자, 서명선 지지
이휘지 (1715~1785)	1780. 2.~1782. 1.	우의정	노론 시파	전주, 좌의정 관명의 자, 규장각 제학
이복원 (1719~1792)	1782. 1.~1786. 2.	좌의정	소론 시파	연안, 이정귀의 6대손, 철보의 자, 규장각 제학
조경 (1727~1789)	1787. 2.~1789.11.	우의정	노론 시파	풍양, 목사 상기의 자
유언호 (1730~1796)	1787. 2.~1788. 2. 1795. 1.~1795.12.	우→좌의정	노론 벽파	기계, 유척기의 족질, 춘궁관
이성원 (1725~1790)	1788. 2.~1789. 7.	우→좌의정	소론 시파	연안, 득보의 자, 이복원 종제, 규장각 직제학
김종수 (1728~1799)	1789. 9.~1793. 6.	우→좌의정	노론 벽파	청풍, 김구의 증손, 세자시강원필선
박종악 (1735~1795)	1792. 1.~1792. 5.	우의정	노론 시파	반남, 진사 흥원의 자, 척신 박명원의 조카
김이소 (1735~1798)	1792.10.~1795. 1.	우→좌의정	노론 시파	안동, 김창집의 증손, 홍국영 관작 삭탈 주청
김희 (1729~1800)	1793. 6.~1794. 2.	우의정	노론 시파	광산, 김장생의 후손, 규장각 직각
윤시동 (1729~1797)	1795.12.~1797. 2.	우의정	노론 벽파	해평, 윤급의 종손, 척신 규탄
심환지 (1730~1802)	1798. 8.~1800. 6.	좌의정	노론 벽파	청송, 심강의 후손, 규장각 제학
이시수 (1745~1821)	1799. 4.~1800. 6.	우의정	소론 시파	연안, 복원의 자, 이만수의 형

15_ 김문식, 「「교남빈흥록」을 통해 본 정조의 대영남정책」, 『퇴계학보』 제110집, 퇴계학연구원, 2001, 430·453쪽.

16_ 김문식, 「「교남빈흥록」을 통해 본 정조의 대영남정책」, 『퇴계학보』 제110집, 퇴계학연구원, 2001, 431·454쪽.

17_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시문집」 권15, 정헌 묘지명; 『정조실록』 부록.

18_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996, 70쪽. 그동안 화성 건설이 천도를 위한 것이었다는 천도설은 "수원성의 북문이 장안문이요, 남문이 팔달문인 점, '화성은 노래(老來)의 당(堂)'이라고 한 점"을 근거로 하여 정석종에 의해 주장되었다(정석종, 「정약용과 정·순조연간의 정국」,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1994, 333~334쪽). 초기에 천도설을 주장하였던 김성윤은 "처음 천도설은 오히려 그것에 큰 위기를 느낀 노론 벽파 쪽에서 상정한 하나의 가설이고, 화성에 관한 정조 자신의 직접적인 언급(풍패지향·노래당)은 오히려 배후거점설에 가깝다."고 수정하였다(김성윤,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7, 252쪽).

19_ 『고종실록』 권39, 고종 36년 9월 1일; 『고종실록』 권39, 고종 36년 12월 23일.

20_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11일을미.

21_ 직위는 최종 직위이고, 짧은 기간 파직되었다가 복직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였다.

<표 2> 정조 대 영의정 명단[22]

성명(생몰년)	재직기간	직위	당색	비고(본관 및 친인척 관계)
김양택 (1712~1777)	1776. 3.~1776. 8.	영의정	노론 벽파	광산, 김장생의 5세손, 예판 진규의 자, 아들 김하재가 대역부도인으로 몰려 장살
김상철 (1712~1791)	1776. 3.~1781. 1.	좌→영의정	소론 시파	강릉, 판돈령부사 시혁의 자, 아들 김우진, 홍국영 사건과 연루
정존겸 (1722~1794)	1776. 3.~1778. 6.	우→좌→영의정	노론 벽파	동래, 정유길의 8대손, 홍인한 탄핵
서명선 (1728~1791)	1777. 5.~1783. 1.	우→좌→영의정	소론 시파	달성, 이판 종옥의 자, 서명응의 아우, 홍인한 탄핵
홍낙성 (1718~1798)	1782. 1.~1786. 2. 1783. 6.~1797. 5.	좌→영의정	노론 시파	풍산, 예판 상한의 자, 홍주원의 현손
김익 (1723~1790)	1784. 1.~1784. 7. 1786. 7.~1787. 1. 1789. 7.~1790. 3.	우→우→영의정	노론 벽파	연안, 김제남의 5대손, 세자시강원 겸 필선
김치인 (1716~1790)	1786.10.~1789. 1.	좌→영의정	노론 벽파	청풍, 김재로의 아들, 『명의록』 작성
이재협 (1731~1789)	1787. 2.~1789.11.	좌→영의정	소론 시파	용인, 병판 경호의 자, 세자시강원 필선
채제공 (1720~1799)	1788. 2.~1793. 6. 1795. 2.~1798. 6.	우→좌→영의정	남인 시파	평강, 오광운의 제자
이병모 (1742~1806)	1794. 4.~1800. 6.	우→좌→영의정	노론 벽파	덕수, 이식의 후손, 김상로 죄 탄핵

〈표 1〉과 〈표 2〉는 정조 재위 24년간 정승급 인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당색으로는 총 25명 중 노론 16명, 소론 8명, 남인 1명이다. 시파時派와 벽파辟派로 나눈다면 16 대 9로 압도적으로 시파가 우세하다. 그러나 당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어 보인다. 대부분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동정적인 입장에 있거나 규장각 또는 세자시강원 출신으로 정조와 개인적 인연이 돈독한 인물들이었으며 누대에 걸친 고가故家의 집안인 것이다.[23]

정조 대 전 기간을 통해서 보면 즉위부터 화성 건설을 위한 원침 천봉 이전까지, 즉 1776년부터 1789년 7월 이전까지의 시기는 노론과 소론이 대등하게 등용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1789년 7월부터는 소론인 이재협과 이성원 그리고 남인 채제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론이었다. 이들은 당색을 뛰어넘는 정조의 '친위세력'[24]으로 정조 대 정국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탕평'은 노론 주도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최고통치권자인 '왕'의 주장이었을 뿐 '탕평'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자, 왕의 통치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들의 등용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정조 연간에 등용된 '친위세력' 내에서도 역사에 대한 인식에서는 커다란

22_ 직위는 최종 직위이다.

23_ 박광용은 이러한 정국 운영을 정조가 척신정치로 흘러갔던 탕평정국을 개혁하기 위하여, 영조 말년부터 척신당과 대항했던 김종수·유언호·홍국영 등 노론 청명당(淸明黨)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즉위 즉후부터 과감한 정치세력의 재편성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았다. 정조 연간에 상신으로 기용된 김치인·정존겸·김종수·홍낙성·김익·조경·유언호·윤시동·이병모·심환지·이휘지와 정조의 측근으로 중용된 정민시·이명식·서유린 등 노론 출신은 모두 '청명류', '청명당'이라고 불렸던 1722년(영조 48) 드러난 정치결사에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고 보았다(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84쪽).

24_ 동덕회(同德會)의 소론계 서명선, 노론계 김종수, 정민시, 홍국영 등과 척신인 박명원과 그의 조카인 박종악, 남인계의 채제공 등이었다(『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9월 13일 을유).

차별성이 있었다. 그것은 60여 년 전에 일어난 '무신난戊申亂'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다. 이는 바로 현재의 자신들과 각 당색을 규정하는 사안이었으며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역시 자신을 규정하는 기본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각 당색 간의 뿌리 깊은 알력과 불신의 뿌리는 이미 영조 대 그 이전의 시기에 태동되었던 것이다. 영조 재위 52년 전 기간에 노론 집권당은 1728년(영조 4)의 이른바 이인좌의 난과 관련지어 남인·소론 등 반대 당색을 철저히 제거하였다. 정조 연간도 그 같은 영조 연간의 정치적 성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노론의 경우에도 시·벽 두 파로 나뉘었고, 남인의 경우에도 1790년(정조 14)경 두 파로 나뉘었다.[25] 주목할 것은 특히 노론과 남인은 모자의 모양에서도 다를 정도였다.

> 한 조정에 있으면서 건복巾服이 다른 것은 큰 잘못이다. 채 좌상, 이가환, 이기양, 정약용 네 사람이 복건을 쓰면 모든 남인들이 다 복건을 쓸 것이다. …… 그리하여 노론의 홑복건을 쓰니 노론들이 매우 좋아하였다.[26]

이는 정약용의 문집에 기술된 내용으로 정조가 남인의 지도자 네 명을 회유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채제공에 대한 정조의 총애는 남다른 것이었다. 정조가 왕세손이었을 때 채제공에게 마음에 기대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며 신임하고 있음을 토로하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27]

채제공에 대한 노론의 정치적 공격은 1781년(정조 5) 김문순의 상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28] 1786년(정조 10)까지 계속되었다. 그 주요 핵심 내용을 보면 첫째는 국초鞫招로, 병신년(1776년, 정조 즉위년) 봄 옥사와 관련된 것으로 환관의 공초와 흉적들의 공초에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흉언凶言으로, "임금을 두고 흉악한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인家人의 설로, 역적으로 죽은 홍국영과 친하였다는 것이었다.[29] 여기에는 사간 이현영, 영의정 서명선, 우의정 이휘지, 대사헌 이갑, 이조판서 김종수, 대사헌 이명식, 좌의정 홍낙성 등이 참여하여 삭직은 물론 찬배와 유배를 주장하였다.[30] 채제공을 비호한 것은 사간원 정언 이익운에 불과하였다.[31] 이는 당시 조정의 대다수는 노론을 중심으로 하는 반채제공파에 의해 장악된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소론의 영수인 서명선마저 반채제공파인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채제공에 대한 반채제공파의 공격은 계속되었는데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정조의 탕평책에 찬성하는 부류를 '시의時宜'를 좇는 무리라고 강력 비판하는 홍문관 응교 이노춘의 상소가 이어졌고 1784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영의정 정존겸, 좌의정 이복원, 우의정 김익, 비국 당상 김화진金華鎭·서유린徐有隣·서유경徐有慶·엄주嚴璹·

25_ 정석종,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1994, 321~322쪽 및 324쪽.

26_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일집, 「시문집」, 李基讓墓誌銘. "同在一廷 巾服殊制 大非也. 蔡左相 李家煥李基讓丁若鏞四人著之 則南人必皆著之 明日四人 適皆入闕 竝令著幅巾 到金虎門外 乃脫之 於是 四家罔夜買皂緞."

27_ 『영조실록』 권127, 영조 52년 1월 11일 계미.

28_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7월 20일 경신.

29_ 『정조실록』 권22, 정조 10년 9월 12일 임오; 『정조실록』 권25, 정조 12년 2월 15일 무신. "…… 第一件事 卽丙申春獄于連事 …… 至於第二件事 卽所謂凶言一節也 …… 至於第三件事 卽國榮家人之說也."

30_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7월 21일 신유;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7월 25일 을축; 『정조실록』 권13, 정조 6년 1월 5일 임인; 『정조실록』 권13, 정조 6년 1월 7일 갑진; 『정조실록』 권13, 정조 6년 1월 9일 병오; 『정조실록』 권13, 정조 6년 1월 30일 정묘.

31_ 『정조실록』 권13, 정조 6년 3월 19일 병진.

「채제공(蔡濟恭) 초상화」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이재간李在簡·김이소金履素·서유녕徐有寧·이주국李株國·이창운李昌運·서유대徐有大·서유방徐有防·심풍지沈豊之 등이 연명으로 채제공의 죄를 성토하였다.[32]

이러한 논의들은 제도의 개선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니라 대부분 서로 당색을 달리하는 상대편에 대한 인신공격성 주장이거나 풍문으로 떠도는 내용을 바탕

으로 공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서학西學에 대한 사학邪學 시비도 채제공이 1790년 이후 좌의정으로 정치를 독점할 때 반대파가 의도적으로 벌인 정치적 공격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1791년(정조 15)부터 권상연과 윤지충의 일로 채제공과 서학의 연계성을 주장하면서 대두되었다.[33]

그렇지만 1786년 채제공은 비록 외직이었지만 평안도 병마절도사에 제수되었으며 정조는 채제공과 관련된 세 가지 혐의를 모두 벗겨 주고 1788년에는 정식으로 윤음을 내려 백관에게 반포하라고 명하였다.[34] 그 후 채제공은 1788년(정조 12) 2월에 우의정에 임명되었고,[35] 1728년에 일어난 '무신난' 60년을 맞이하여 영남 지역에서 창의해 의병을 일으킨 인물들에 대한 포상과 녹공을 청하였다.[36] 이는 자파세력에 대한 등용과 영남 출신 인물 천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영남 유생들이 올린 『무신창의록』의 간행에 대해 논의하였다.[37] 1790년(정조 14)에는 좌의정에 임명되어 독상을 3년간 지낸 뒤 1793년에는 영의정에 임명되어,[38] 화성 축성의 총리대신으로 정조 최대의 숙원사업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채제공의 중용과 아울러 남인들도 등용되었다. 화성 건설과 신읍치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팔달산 아래에 살고 있던 여주 이씨 이고의 후손들 분묘 5기가 한꺼번에 옮겨짐에 따라 그에 대한 보답의 형식으로 이운행을 비롯하여 이석조(1713~1796년)와 이헌조(1760~1820년)를 등용하고, 윤선도尹善道(1587~1671년)의 후손인 윤지눌을 등용한 예[39]에서 그 일단을 알 수 있다. 특히 윤선도의 집안인 해남 윤씨에 대한 총애는 대단하였다. 윤지운·윤지섬·윤지홍·윤지익·윤지식·윤지상·윤지민 등 시권試券에 등록된 자 외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찾아내어 윤선도의 직계 후손은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또한 식목조植木條로 따로 등록한 돈 1,000냥을 특별히 떼어 주어 수원에 집을 사 주거나 물건을 사 주도록 특별 조치를 취하였다.[40]

2. 현륭원 천봉

1) 천봉 배경

정조는 1789년 양주 배봉산(현 서울시립대 뒷산)에 있던 장헌세자 원침 영우원을 당시 수원부 읍치로 옮기는 천봉을 단행하고 영우원의 명칭을 현륭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장헌세자 원침을 옛 수원부 읍치로 옮기고 읍치를 팔달산 동쪽으로 선정한 것은 정조 대에 이르러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원침은 이미 1608년 선조의

32_ 『정조실록』 권17, 정조 8년 6월 6일 기축; 『정조실록』 권17, 정조 8년 6월 20일 계묘.
33_ 『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0월 20일 신유.
34_ 『정조실록』 권22, 정조 10년 9월 7일 정축; 『정조실록』 권22, 정조 10년 9월 12일 임오; 『정조실록』 권25, 정조 12년 2월 15일 무신.
35_ 『정조실록』 권25, 정조 12년 2월 11일 갑진.
36_ 『정조실록』 권25, 정조 12년 4월 5일 정유.
37_ 『정조실록』 권26, 정조 12년 11월 8일 병인.
38_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3월 10일 계묘.
39_ 『정조실록』 권28, 정조 13년 8월 7일 경신;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2월 26일 정축.
40_ 『정조실록』 권31, 정조 14년 12월 8일 갑인.

능침 선정 과정에서 기자헌奇自獻(1562~1624년)이 길지로 지목한 일이 있었다. 그 후 1659년에 효종의 능침 선정 과정에서는 남인 윤선도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길지로 지목하였으나 송시열宋時烈을 중심으로 한 서인의 반대로 찬반 논쟁을 벌인 대상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이곳을 1789년에 장헌세자 원침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기자헌과 윤선도가 제기한 음택풍수陰宅風水 논리는 당시 논쟁 과정에서 패배하였으나 17세기 중반에 유형원이 저술한 『반계수록磻溪隨錄』에서 수원부 읍치를 개활지開豁地로 옮겨야 한다는 실용적이고 근대적인 제안을 하였다. 그 후 정조는 윤선도의 음택풍수 논리를 수용하여 장헌세자의 원침을 옛 수원부 읍치로 옮기고 유형원의 양택풍수陽宅風水 논리에 따라 수원부 신읍치를 당시 팔달산 동쪽으로 이전케 하였다.

먼저 선조 능침 선정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자. 선조가 1608년 2월 1일 훙서薨逝하자 총호사[41] 허욱許頊은 선조의 능침으로 지금의 동구릉東九陵(지금의 구리시 소재) 안의 건원릉 제오강第五崗을 추천하였다.[42] 그러나 기자헌은 2월 14일 건원릉 제오강에 선조의 능침을 쓰는 데 반대하였는데 그가 전거로 제시한 것은 『청오경靑烏經』이다. 『청오경』에 조상의 분묘 가까이에 장사를 지내면 그 재앙이 아손兒孫에게 미치게 된다는 구절이 바로 그 근거였다.[43] 그러나 이러한 이의 제기는 2월 22일 예조에서 건원릉 제오강을 건의한 데 대해 왕이 윤허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하였지만 당시 좌의정으로 있던 기자헌은 15일 산릉 선정문제를 다시 거론하여 그의 논리대로 수원부 읍치로 능침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때 첨지 최철견崔鐵堅이 반대 상소를 낸 것을 계기로 이 문제는 조정에서 대신들 간에 논쟁이 재현되었다. 대신들 간에 상반된 주장과 수원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나뉜 의견으로 광해군은 선조의 능침 선정문제를 원점으로 돌렸다. 수원이 길지라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이곳에 능침을 정할 경우 산성 철거와 민호 이전의 문제점을 들어 건원릉 안의 제오강이나 임영대군 묘 중에서 정할 것을 명하였다.[44] 그 결과 선조의 능침은 건원릉 제오강으로 결정되었다.

다음은 효종의 능침 선정 과정을 살펴보자. 효종이 1659년 5월 4일 사망하자, 효종의 사돈인 심지원沈之源(1593~1662년)이 총호사에 임명되었다. 심지원은 풍수에 해박한 윤선도, 이원진李元鎭(1594~?)을 산릉 선정에 대동할 것을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45]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열다섯 곳을 살펴보고 6월 15일 예조판서 윤강과 관상감제조 이응시가 그동안 살펴본 곳을 현종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은 수원 산이 가장 진선진미盡善盡美하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길지吉地라고 하였고 기타 교하, 남양, 광주, 한강 북쪽의 산도 함께 보고하였다.[46] 그러나 다음 날 16일에 심지원과 윤강은 국릉으로 적

41_ 나라에서 벌이는 장사 때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아치로 국장도감도제조(國葬都監都提調)를 총호사(摠護使)라 하여 상장(喪葬)의 모든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세종실록』 권9, 세종 2년 9월 9일 갑술).

42_ 『광해군일기』 권1, 광해군 즉위년 2월 9일 병인.

43_ 『광해군일기』 권1, 광해군 즉위년 2월 14일 신미. "嘗聞靑烏經乃地理之祖而有葬近祖墳殃及兒孫之言."

44_ 『광해군 일기』 권2, 광해군 즉위년 3월 29일 병진.

45_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16일 병자. 윤선도·이원진은 같은 남인으로, 반계 유형원은 이원진의 생질이었다. 윤선도는 경사·백가를 읽었으며 의약·복서·음양·지리에 있어서도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한다(허목, 『국역미수기언』 4, 민족문화추진회 편, 145쪽).

46_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15일 갑진. "水原戶長家後山 龍穴砂水 盡善盡美 此實千載一遇之地 斷不可比論於他山…… 交河尹山最勝 南陽次之 廣州鄭山又次之 漢北山居第四云."



윤선도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길지로 지목했던 옛 수원부 읍치와 신읍치 자리
(『여지대전도』, 「수원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당한 곳은 여주의 홍제동과 수원의 산 두 곳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때 현종은 홍제동이 길지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홍제동보다 수원 쪽에 의중이 있었다.[47]

그렇지만 송시열宋時烈(1607~1689년)이 처음으로 수원에 능침을 선정하는 논의에서 반대의견을 제기하였다. 송시열은 수원에 능침을 선정했을 경우 수원 주민 철거에 따른 폐단 세 가지를 들었다. 아울러 수원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후세에 관방이 되었을 경우 능침이 전쟁의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과거 선조의 능침 선정 과정에서 수원이 선정되었으나 폐기했던 이유를 들었다. 정태화鄭太和는 민가를 이전하는 계획을 미리 강구할 것을 제의하여 수원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심지원도 수원에는 본래 성곽이 없다며 수원을 능침으로 선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끝에 현종은 수원이 가깝고 흉해가 없다며 효종의 능침을 수원으로 결정하였다.[48] 조정에서는 곧이어 500여 채의 가옥을 헐

47_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16일 을사.
48_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16일 을사. "水原便近 且無凶害 定用可也."



수원 옛 읍치 자리
(현 융릉, 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고 경작을 못 하게 될 밭 700결의 문제와 읍치를 이전하는 일까지 논의하였는데, 심지원은 읍치를 북쪽 고등촌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9]

그러나 송시열은 수원이 '오환五患[50]의 땅'임을 상기시키고 건원릉을 새로 천거하였다. 이 외에도 이시백, 원두표, 장준, 송준길, 이후원 등이 상소하여 수원의 능침 선정이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51]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종은 6월 30일 송시열을 만나 산릉의 일을 다시 논의하면서 26일에 산역을 그대로 계속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현종은 송준길의 주장에 주의를 기울여 산릉 역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52] 송시열은 '오환의 염려' 논리를 근거로 수원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건원릉 좌측 산등성이를 추천하였다.[53] 정태화와 송준길도 풍수논리를 동원하여 능침을 건원릉으로 정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정태화는 건원릉 안 건좌乾坐 언덕이 매우 아름답다고 주장하였으며,[54] 송준길도 건원릉 건좌의 산을 찾았고 중론도 모두 수원보다 좋다고 하는데 억지로 수원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건원릉으로 정할 것을 거듭 주장하였다.[55] 수원의 읍치를 이전하는 등의 문제로 생기는 폐단보다는 새로 찾은 건원릉이 길지라는 풍수의 논리로 집요하게 현종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요지부동이었다. 이후원은 특히 윤선도만이 수원산을 '천재일우'라고 하였다고 하여 그를 비방하였다.[56] 이는 서인 측이 논쟁의 핵심 대상을 윤선도로

49_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16일 을사. 고등촌은 지금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으로 팔달산 서쪽 기슭이다. 이곳에 새로운 읍치가 선정되었으면 정조 대 수원부 읍치가 팔달산 동쪽에 세워져 발전한 지금의 수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50_ 풍(風), 수(水), 화(火), 충(蟲), 목(木)의 피해를 말하는데, 송시열은 특히 후일에 싸움터로 변할 것을 염려하였다.
51_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4일 계축;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6일 을묘.
52_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6일 을묘;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8일 정사.

상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던 중 7월 11일 효종의 능지가 수원산에서 건원릉으로 바뀌면서 국면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조판서 송준길이 입시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현종을 설득한 데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여러 신하들이 반드시 수원을 쓰지 않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는데, 소장이나 차자로 번거롭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비기秘記에 "나라에서 일이 있으면 수원에서 변이 일어나고 기보畿輔와 나라 안이 어지럽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때문에 모두 걱정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57]

이 같은 내용은 『산수비기山水秘記』를 전거로 한 것인데, 이는 인간의 약점을 가장 잘 파고든 논리였다. 이를 접한 현종은 같은 날 양지당에 나아가 대신들과 산릉 문제를 논의하고 효종의 능침을 건원릉 건좌의 산으로 정하였다. 건원릉으로 효종의 능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이미 수원에서는 능침 조성 역사가 벌어져 읍치 근처의 집을 철거한 곳도 있었고 이곳으로 돌을 운반하기도 하는 등 산역山役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 이로써 수원부 구읍치를 능침으로 선정하려 한 논의는 광해군과 현종 때 두 번이나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현종은 수원의 산이 국릉의 장부에 편입되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산세의 보존을 명하였다.

> 수원은 지금 비록 쓰지 않더라도 이미 원릉園陵의 장부에 편입시켰으니 혈도穴道 근처에 나무를 많이 심고, 또 개간하여 경작하는 것을 금하라. 그리고 관에서 다른 전답을 주어 산맥을 해치지 못하게 하라.[58]

당시 사용치 않더라도 후대를 위해서 수원 일대의 산야를 보존하도록 당부하였던 것이다. 이후 남인南人인 반계 유형원은 1670년에 완성한 그의 저서 『반계수록』「보유補遺」에서 수원의 읍치를 북평北坪으로 옮기고 성지城池를 건축할 것을 주장하였다.[59] 이는 능침 선정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조의 능침 선정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선조의 능침이 수원부 구읍치로 선정되었을 경우 읍치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라는 광해군의 물음에 본부의 북쪽 고등촌으로 옮길 수 있다는 심지원의 답변이 바로 그것이었다.[60] 이는 정조 대 수원부 신읍치가 팔달산 동쪽 기슭에 건설된 것과 비교하면 팔달산 서쪽을 주장한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팔달산 서쪽도 넓은 평야가 펼쳐지는 광활한 개활지였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정조는 일찍부터 『반계수록』을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조가 1778년(정조 2)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제 개편을 논하면서 처사 유형원의 논리를 따랐던 것으

53_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30일 기미.

54_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30일 기미. "健元陵內 乾坐之岡 論其地理 則衆口稱美叅之人事 則萬分便當 雖以前面爲言者亦謂之無害."

55_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30일 기미. "水原山雖云人事不便無他可合之地 則固不得不用而 今得乾坐之山 衆論皆以爲 大勝於水原 何必 舍十全便宜之地 而强取水原也."

56_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30일 기미. "千載一遇之言 只出於尹善道."

57_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11일 경오. "諸臣之必欲勿用水原 別有深意 而不敢煩於章箚間矣. …… 我國秘記 有國家有事水原變起 畿輔邦內不安之語 以此皆懷憂慮矣."

58_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원년 7월 11일 경오. "水原今雖不用 旣入於園陵之籍 穴道近處多種樹木 且禁耕墾 自官劃給他田. 勿令傷害山脈也."

59_ 유형원, 『반계수록』, 명문당, 1994, 542쪽.

60_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원년 6월 19일 무신.

로 확인할 수 있다.[61] 그러한 사례는 이후 점차 실행에 옮겼던 시책에서 드러난다. 실제로 1789년에 장헌세자의 원園을 수원부 구읍치로 옮기고 신읍치를 유형원의 주장대로 수원부 북쪽 팔달산 동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1794년부터 신읍치에 성곽을 축조하였으며 당시 화성 성제城制를 논의하면서 수원 읍치의 북평 이전을 제안한 혜안에 다음과 같이 찬탄을 보냈다.

> 유형원의 『반계수록』 「보유」편에 수원의 읍치를 북평으로 옮기고 성지를 건축해야 한다는 논설이 있다. 100년 전에 마치 오늘의 이 역사를 본 것처럼 미리 이런 논설을 한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62]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대한 정조의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하여 1795년(정조 17)에는 유형원에게 이조참판 겸 성균관 제주祭酒를 증직하였다. 이는 수원부 구읍치로 장헌세자의 원을 옮기면서 거기에 있던 읍치와 읍민의 이전과 이주에 관한 계획을 130여 년 전인 1660년경에 발간한 『반계수록』이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었다.[63]

2) 현륭원 천봉

정조는 재위 13년 만에 왕권이 어느 정도 확립되자 척신인 박명원朴明源의 상소를 계기로 당시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영우원을 옮기기로 하였다. 박명원이 상소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감히 스스로 숨길 수 없기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신은 본래 감여堪輿에 어두워 귀머거리나 소경과 일반이므로 다만 사람마다 쉽게 알고 쉽게 볼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논하겠습니다. 첫째는 띠가 말라 죽는 것이고, 둘째는 청룡靑龍이 뚫린 것이고, 셋째는 뒤를 받치고 있는 곳에 물결이 심하게 부딪치는 것이고, 넷째는 뒤쪽 낭떠러지의 석축石築이 천작天作이 아닌 것입니다. 이로써 볼 때 풍기風氣가 순하지 못하고 토성土性이 온전하지 못하고 지세가 좋지 않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신민臣民들의 지극한 애통스러움이 되는데, 더구나 뱀 등속이 국局 내 가까운 곳에 또아리를 틀고 무리를 이루고 있으며 심지어 정자각丁字閣 기와에까지 그 틈새마다 서려 있는데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 지극히 존엄한 곳까지 침범하지 않았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 우리 성상께서 …… 깊은 궁중에서 눈물을 뿌리신 것이 얼마인지 모르며 …… 조회에 임해서도 자주 탄식하셨다는 것을 신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 아, 병오년 5월과 9월의 변고를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상께서 외로이 홀로 위에 계시며 해는 점점 서산으로 기울어 가는데 아직까지 뒤를 이을 자손이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 바라건대 조정에 있는 신하들에게 널리 물으시고 지사地師들을 널리 불러 모아 길흉을 물으시어 신도神道를 편안하게 하시고 성상의 효성을 펴시어 천추만대의 원대한 계책이 되게 하소서.[64]

61_ 『정조실록』 권5, 정조 2년 6월 13일 신미.

62_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12월 8일 정묘. "柳馨遠磻溪隨錄補遺 有移水原邑治于北坪 建築城池之論. 百年之前 預爲此論 若覩今日事者 誠亦異矣."

63_ 유형원의 외삼촌은 이원진으로 효종 능침 선정과 관련하여 논쟁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이원진은 이익의 당숙이다. 화성 성역에서 핵심 또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채제공, 정약용 등은 바로 이익의 제자이다.

64_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11일 을미. "玆敢冒死仰陳崇聽 臣素昧堪輿 便同聾瞽 只以人人易見者論之 一 莎草枯損也 二 靑龍穿鑿也 三 後托水勢之衝激也 四 後節築石之非天作也. 以此觀之 則風氣之不順 土性之不全 地勢之汚下 推可知也. 有一於此 尙爲臣民之至慟 而況蛇鳧之屬 局內近處 蟠結成羣 至於丁字閣瓦子. …… 局內旣多有之 則安知其不犯於至敬至重之地乎. …… 我聖上 …… 幾灑深宮之淚 …… 頻發中朝之歎 臣之承聆屢矣. …… 嗚呼丙午五九月之變 尙何言哉. 我聖躬惸惸獨立於上海籌漸向晩晩瓜迭尙遲綿蔓. …… 伏願博詢在廷 廣招地師 諮諏休咎 以安神道 以伸聖孝 俾爲千萬代遠猷."

65_ 『정조실록』 권21, 정조 10년 5월 11일 계축; 『정조실록』 권22, 정조 10년 9월 14일 갑신.



『영우원천봉등록(永祐園遷奉謄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789년(정조 13) 양주 배봉산에 위치한 사도세자의 묘소 영우원의 천봉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이 같은 박명원의 상소는 현재의 영우원이 초라하고 퇴락하였다는 것과 형국이 풍수 논리로 보아 길지가 아님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병오년 5월과 9월의 변고變故"라는 대목이다. 이는 1786년(정조 10) 5월 다섯 살 난 왕세자가 병으로 사망하고, 9월 왕세자의 어머니이기도 한 의빈 성씨宜嬪 成氏도 임신 중에 사망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65] 이 사건은 35세였던 정조를 이을 후계자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조는 아버지의 원침인 영우원의 지세와 전국의 산을 조사하여 길지吉地를 찾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이러한 상소에 즈음하여 대신과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 결정하겠다고 비답하였다.[66] 이어 대신, 각신閣臣, 예조 당상과 종친부·의빈부·삼사의 2품 이상을 희정당으로 불러 접견하고 박명원의 주장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신과 예조 당상들이 한목소리로 찬성하였다.[67] 그리하여 정조는 영우원의 풍수지리상 문제점을 논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옮길 의지가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 만약 화복禍福의 설에 현혹되어 갑자기 오래된 묘를 옮기는 것이라면 비록 여항閭巷의 서인의 집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물며 국가의 막중하고 막대한 일이겠는가. …… 내반內盤으로는 갑좌甲坐가 되고 외반外盤으로는 묘좌卯坐가 되며 신술방辛戌方 득수得水이고 해방亥方 득파得破이니, 갑·묘·해가 모두 목木이다. 신술방의 물은 바로 이른바 황천득수黃泉得水로서 내명당內明堂에 물이 없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물만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더구나 을입수乙入首로서 용세龍勢가 더욱 논할 만한 것이 없는 데이겠는가. 갑오년(1774년)에 성묘省墓하고 나서부터 옮겨 모셔야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새로 정하는 자리가 지금의 자리보다 천만 배 나은 뒤에야 거의 여한이 없을 수 있을 것인데, 오늘날 행용行用하는 지사地師로서 누가 땅속의 일을 분명히 알 수 있겠는가. …… 숙원宿願을 이룰 수 있겠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68]

정조는 어느 풍수가보다도 풍수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영우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천봉의 일은 전국 여러 지역을 알아보고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였다.[69] 정조는 그중에서 유일하게 수원산을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있다.

> 오직 수원 읍내에 봉표해 둔 세 곳 중에서 관가官家 뒤에 있는 한 곳만이 전인前人들의 명확하고 적실한 증언이 많았을뿐더러 옥룡자玉龍子가 이른바 반룡롱주盤龍弄珠의 형국이다.[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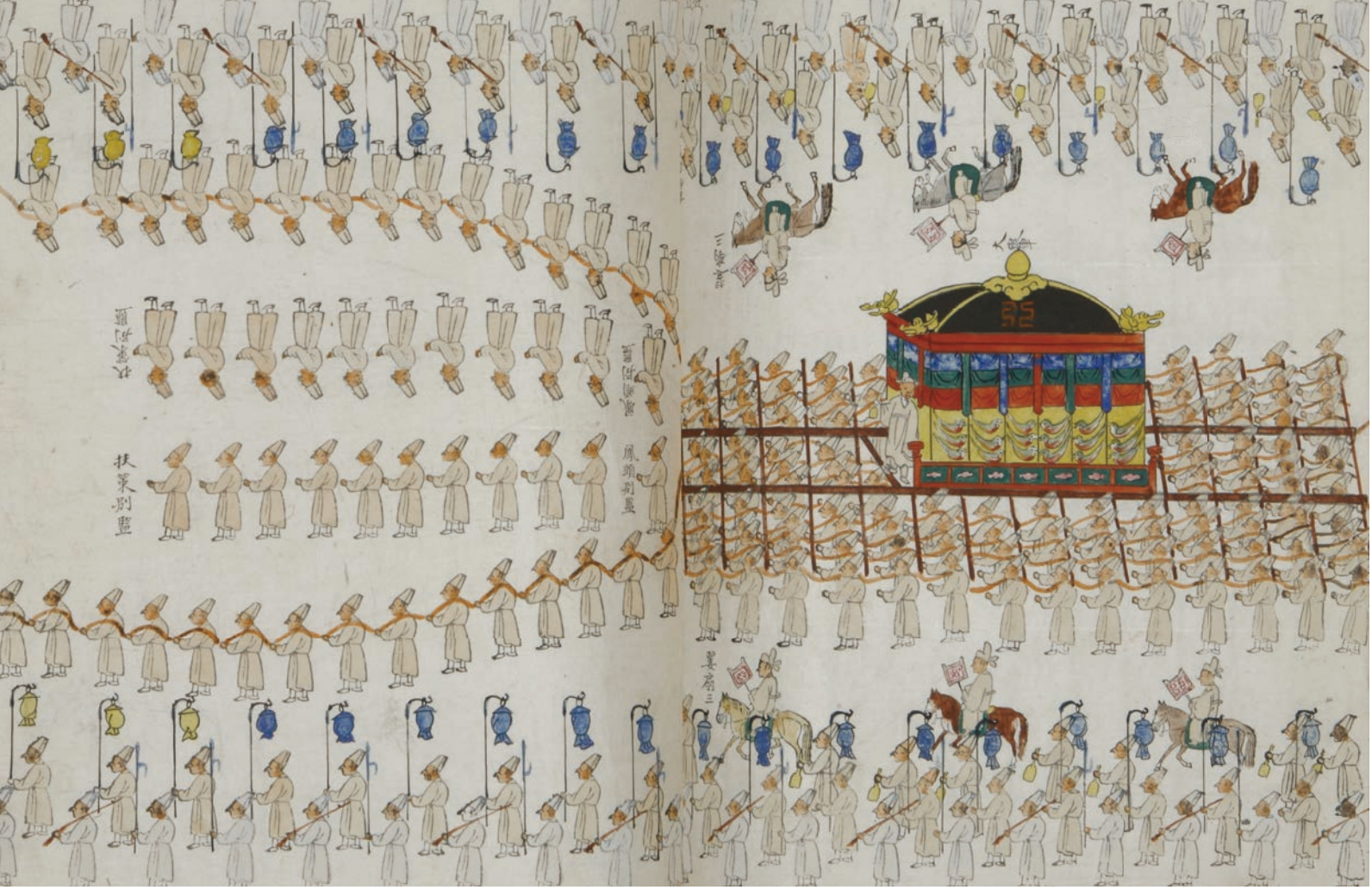
66_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11일 을미. "冥頑至今 夙宵結轖于中 卿請際至 當問于大臣諸臣決之."

67_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11일 을미.

68_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11일 을미. "若惑信禍福之說 遽移久遠之塋域 則雖閭巷匹庶之家 尙云不可 況國家莫重莫大之邃乎. …… 內作甲坐 外作卯坐 辛戌得水 亥破 甲卯亥俱木也. 辛戌水卽所謂黃泉得水 內堂無水. 不可但以偏水言. 又況乙入水而龍勢尤無可論. 自甲午展省經營移奉 而新卜之地 千勝萬勝於今日以前然後庶可無憾以行用地 師孰能明見之中之事乎. …… 言宿志可遂 豈非天意耶."

69_ 정조가 그동안 점검해 본 자리만 해도 문의(文義) 양성산(兩星山) 해좌(亥坐)의 언덕, 장단(長湍) 백학산(白鶴山) 아래의 세 곳, 광릉(光陵) 좌우 산등성이 중의 한 곳, 용인(龍仁), 헌릉(獻陵) 국내의 이수동(梨樹洞), 후릉(厚陵) 국내의 두 곳, 강릉(康陵) 백호(白虎) 쪽, 가평(加平) 등 여러 곳이었다(『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11일 을미).

70_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11일 을미. "水原邑內封標三處 官家後一處 多前人明的之證 況玉龍子 所謂盤龍弄珠之形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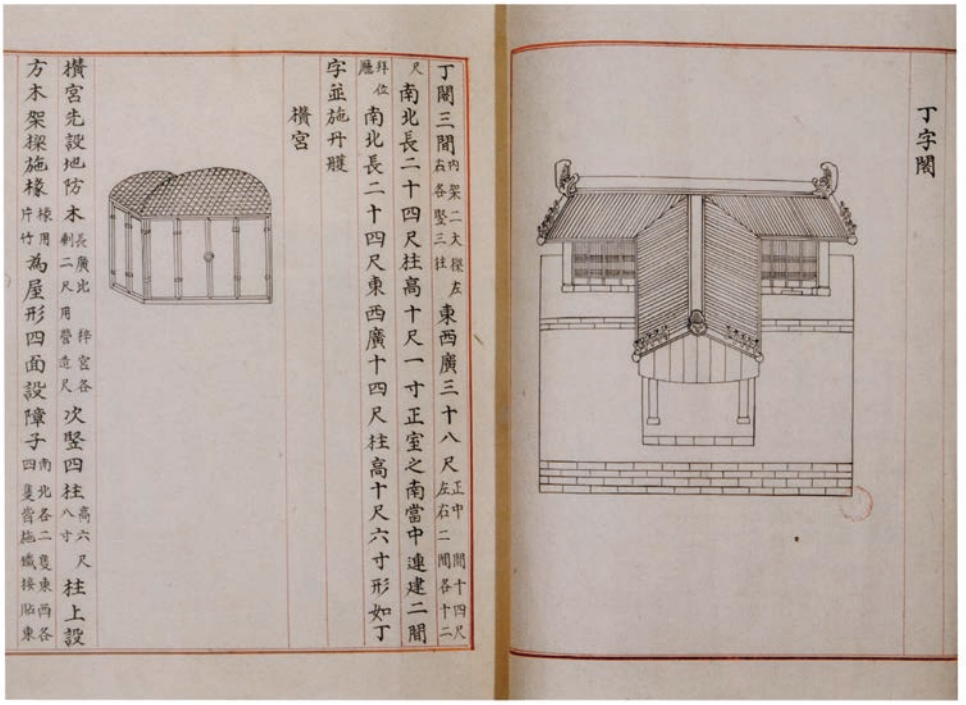
현륭원으로 향해 가는 발인 반차도
(『영우원천봉도감의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조는 이미 수원의 산 중에서도 혈처穴處까지 지정하여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천하명당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아 왔던 책들을 열거하면서 천봉할 곳은 수원부 읍치라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수원의 묏자리에 대한 논의는 기해년 『영릉의궤寧陵儀軌』에 실려 있는 윤강尹絳·유계兪棨·윤선도尹善道 등 여러 사람과 홍여박洪汝博·반호의潘好義 등 술사術士들의 말에서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말로 말하면 윤강의 장계狀啓와 윤선도의 문집 중에 실려 있는 「산릉의山陵議」 및 「여총호사서與摠護使書」보다 자세한 것이 없다. 내가 수원에 뜻을 둔 것이 이미 오래여서 널리 상고하고 자세히 살핀 것이 몇 년인지 모른다. …… 나의 뜻은 이미 수원으로 결정하였다. 지금 경 등을 대하여 속에 쌓아 두었던 말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 음으로 돕고 신명神明이 묵묵히 도운 것이 아니겠는가.[71]

71_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11일 을미. "水原山地之論 觀於己亥 寧陵儀軌 如尹絳兪棨尹善道諸人 及洪汝博潘好義等術士之言可以知之. 其始末則莫詳於尹絳狀啓尹善道文集中 山陵議與摠護使書. 而予於水原 留意已久 博考而詳察 不知爲幾年. …… 予意已定水原. 今對卿等 喩以蘊中之說 此非天意之所陰騭 神明之所默佑乎."

이는 효종의 능침을 둘러싸고 벌인 논쟁 중에서 초기에 남인인 윤선도가 '천재일우'의 길지라고 한 주장과 윤강의 찬성론을 언급한 것이었다. 정조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반대한 신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정조의 왕권은 재위 13년이 된 이 시점에서는 확고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조는 고을을 옮길 계획을 의논하고 경기관찰사와 수원


丁字閣

丁閣三間內架二大樑左右各豎三柱東西廣三十八尺左右二間各十二尺南北長二十四尺柱高十尺一寸正室之南當中連建二間拜位南北長二十四尺東西廣十四尺柱高十尺六寸形如丁字並施丹雘

攢宮

攢宮先設地仗木長廣比梓宮各減二尺用磨造尺次竪四柱高六尺柱上設方木架椽施椽椽用片竹為屋形四面設障子南北各二隻東西各四隻皆施織接貼東



『현륭원원소도감의궤』와 「현륭원비(顯隆園碑)」 탁본(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부사를 조정진과 김노영에서 서유방徐有防과 조심태趙心泰로 교체하였다.[72] 조심태는 뒤에 있을 화성 성역에서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수원부 읍치는 박명원의 상소에 따른 군신간의 논의를 거쳐 불과 4일 만인 1789년(정조 13) 7월 15일 팔달산 동쪽 기슭으로 옮겨졌다.[73] 그리고 10월 7일 양주 배봉산(현 서울시립대 뒷산)에 있던 영우원의 천봉을 완료하고 그 명칭을 현륭원이라 지칭하였다.[74]

정조는 남인계 윤선도의 음택풍수설과 같은 남인계 유형원의 근대적이고 실학적인 양택풍수설을 결합하여 치밀하게 정치적 구상을 펼쳤던 것이다. 수원부 읍치를 옮긴 5년 후인 1794년에 남인의 영수領袖인 채제공이 화성 건설의 총책總責을 맡게 되는 일이나 화성의 기본설계를 남인인 정약용이 맡게 되는 일들은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남인 계통의 의견을 채택하고 그들을 주로 활용하였음을 보여 준다.

72_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11일 을미.
73_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15일 기해.
74_ 『정조실록』 권28, 정조 13년 10월 7일 기미.

수원 SUWONHWASEONG 수원 SUWONHWASEONG
화성 SUWONHWASEONG SUWONHWASEONG 화성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수원화성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chapter 2

수원 신읍치 조성과 활성화

01 수원 신읍치 조성
02 수원 신읍치 활성화 정책
03 시전의 설치와 운영
04 농업 기반의 조성과 운영

SUWON HWASEONG

정해득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외래교수

01
수원 신읍치 조성

1. 『반계수록』의 수원 신읍치 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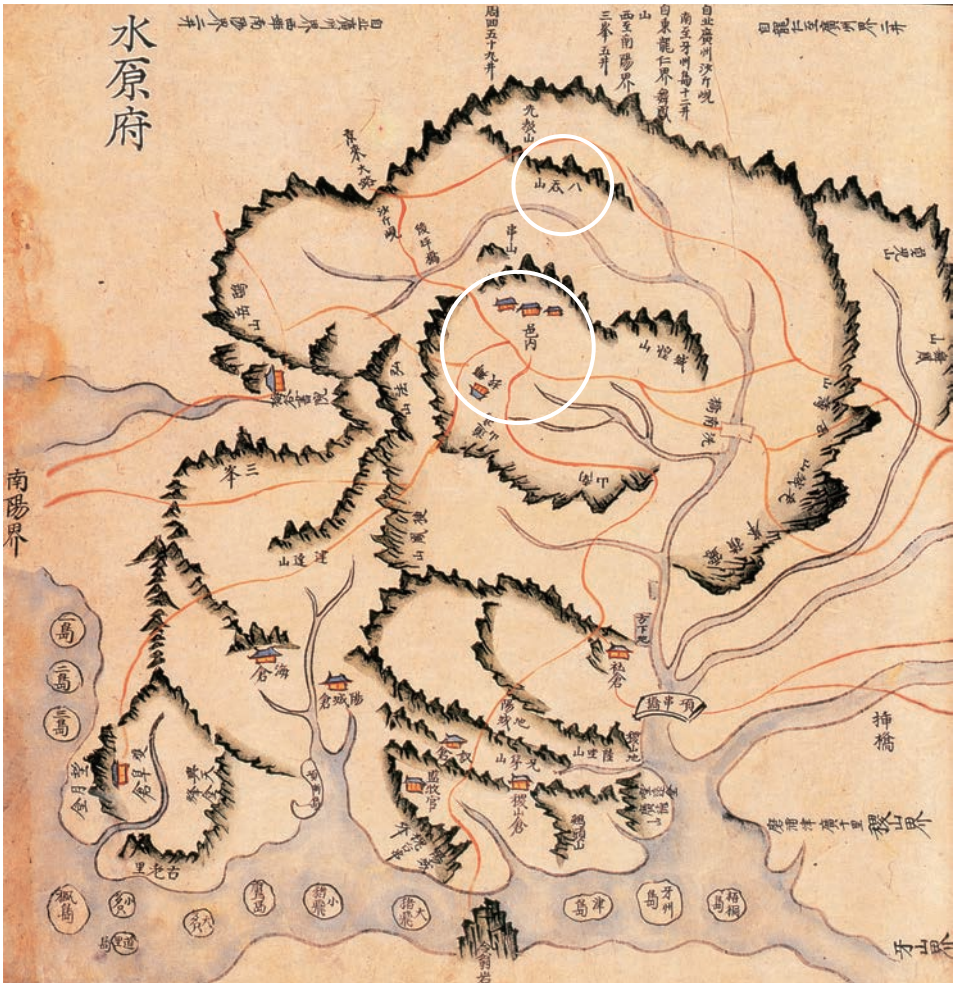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은 정조가 수원의 읍치를 옮기기 120여 년 전에 새로운 읍치의 건설을 주장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정조가 1793년 12월 8일 "유형원의 『반계수록』 보유補遺[1]에 수원의 읍치邑治를 북쪽 평야[北坪]로 옮기고 성지城池를 건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100년 전에 마치 오늘의 이 역사를 본 것처럼 미리 이런 논설을 한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고 한 데 이어, 12월 10일 유형원에게 이조참판 성균관좨주를 증직하였기 때문이다.

정조는 유형원이 『반계수록』 보유에서 군현제도의 정비를 제시하면서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는 광주廣州의 남쪽 지역인 일용면一用面 등지를 떼어 보태고 읍치를 평야로 옮기면 내를 끼고 지세를 따라 읍성邑城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였고, "읍치의 규모와 평야가 매우 훌륭하여 참으로 큰 번진藩鎭의 기상이 있는 지역으로서 안팎으로 만호萬戶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수원의 지형을 논하면서는 읍치를 옮기는 데 대한 계책과 성을 쌓는 데 대한 방략을 100년 전 사람으로서 오늘날의 일을 환히 알았고, 면面을 합치고 번을 드는 대신 돈을 내게 하는 등의 세세한 절목에서도 모두 마치 병부兵符를 맞추듯이 착착 들어맞았다며 유형원의 구상과 자신의 사업이 이심전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여겼다.[2]

유형원이 『반계수록』 보유에서 읍치 이전을 제안했던 것은 국방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큰 충격을 받은 조선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군현의 규모를 확대하여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

1_ 『반계수록보유』에는 「군현제」가 수록되어 있다. 보유(補遺)의 사전적 의미는 "빠진 것을 보태어 채움"으로, 「군현제」는 『반계수록』과 별도로 작성된 작품이지만 유형원의 개혁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반계수록보유』로 편집한 것이다(양보경, 「반계 유형원의 지리사상」, 『문화 역사 지리』 4, 1992).

2_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12월 10일.



수원부의 구읍치와 신읍치가 조성된 팔탄산
(『해동여지도』의 「수원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유형원은 기존의 읍치가 각 군현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읍치를 옮겨 새로운 행정구역의 중심부에 두고자 했으며, 기존의 읍치 자리가 좋지 못하거나 훨씬 나은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형원이 볼 때 수원부는 기존의 읍치보다 훨씬 나은 자리가 '북평'에 있었는데, 읍치를 옮길 경우 중심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원부 북쪽에 있는 광주와 안산의 일부를 수원으로 병합시키는 구상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조정은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당시 각 군현은 거의 동일한 부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토지와 인구수가 적을수록 백성에게 돌아가는 부역이 증가하는 구조였다. 이로써 농민의 유리와 토지의 황폐화가 초래되었다.

유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현을 광역화하여 전국적으로는 군현수를 기존의 3

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3] 유형원은 「군현제」에서 읍치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읍을 설치함에는 산천의 형세와 전야田野, 인민人民과 수비守備상의 관방關防·성지城池, 교통상 도로道路, 군사軍事상의 요해要害를 모두 마땅히 하나하나 참작하고 힘써 그 마땅함을 얻게 한다.[4]

이것은 지형적 조건과 생활의 편리함을 기본으로 하고, 전란 발생 시 수비의 문제와 교통의 요충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인데 유형원이 설파한 읍성론을 보면 무엇보다도 군사적 요인을 우선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읍邑은 반드시 산성에다 두어야 한다."고 한 것은 그렇게 실시하기는 곤란한 일이다. "성은 반드시 읍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경험에서 얻은 깊은 의견이라고 할 만하니 응당 지방의 정황을 참작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산성으로서 읍을 설치할 만한 곳이 있다면 읍을 옮기어 행정 소재지로 만들고 성으로 두고 방어할 만한 성이 있다면 더 확충하고 개수하여 방어를 위주로 하는 성으로 결정하되 반드시 일정한 규정의 치雉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기타 산성으로서 읍을 설치할 수도 없고 지형상 중요하지도 않은 성은 다 폐지할 것이며 여러 고을 중에서 쇠퇴 몰락하여 형편이 없는 것은 떼어다 옆 고을에 소속시킬 것이다. 만일 산성으로서 읍을 설치할 만한 데가 있다면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읍을 설치할 수가 없는 산성이라면 평지에 성을 쌓고 거기에 읍을 설치하여 방어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지형 조건과 인사人事관계를 잘 타산하여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5]

유형원에게 이상적인 읍치공간은 산성을 쌓고 마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지킬 수 있는 견고한 성이 있는 곳이다. 그러한 곳을 행정의 중심지로 삼아 지역 거점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수비상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함이다.

따라서 유형원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도시 형태는 성읍城邑(walled city)이라 할 수 있다.[6] 개국 이후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던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산성으로 피난해서 수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어 형태였는데, 이럴 경우 혼란으로 수비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산성을 지켜 낸다고 해도 주거지나 농경지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7] 그래서 유형원은 군사상의 요충지에 평상시 살아가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 성을 쌓아 지키는 병농일치적인 읍치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형적 조건으로 볼 때 산성마을을 만들 만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 성을 쌓고 적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적

3_ 양보경, 「반계 유형원의 지리사상」, 『문화 역사 지리』 4, 1992, 43~45쪽.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현의 병합은 토착 향리들의 반발과 읍치의 편중 등 민생의 불편을 초래했으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이상태, 『한국 고지도 발달사』, 혜안, 1999, 137~156쪽).

4_ 『반계수록보유』, 「군현제」, 각읍.

5_ 『반계수록』, 「군사제도후록」, 성지.

6_ 성읍(城邑)은 성(城)으로 위요된 읍(邑 : walled city)이고, 읍성(邑城)은 읍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城郭 : city wall)이다. 읍성과 성읍은 '읍'과 '성'을 모아 쓴 용어이나, 읍성에서는 읍이 성을 수식하는 것이고 성읍에서는 반대로 성이 읍을 수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읍성은 읍을 위요하는 성, 즉 city wall로서 성곽을 칭하는 것으로 성곽의 한 분류이다. 읍은 그 정치적, 군사적 중요도와 읍 자체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읍의 중심을 성곽으로 둘러쌓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성곽을 읍성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읍성이란 명칭은 성곽의 분류상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읍성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성곽 또는 성벽을 지칭하는 것이며, 성곽으로 위요된 도읍 그 자체는 성읍이라고 부른다(이창무, 「조선후기 성읍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7_ 『반계수록』, 「군사제도후록」, 성지. "산성을 고수하였다 하더라도 읍이나 부락은 물론 창고와 주민과 가축들을 전부 적에게 빼앗겨 버린다면 사수하였다는 그까짓 산봉우리 하나가 결국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것이 반드시 망할 데로 가는 길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은 일본이나 여진 사람들처럼 전쟁만을 일삼고 항상 집이 없는 군인을 거느리고 활쏘기와 사냥을 직업으로 하며 가는 곳마다 산채를 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절한 조치였다. 그렇다고 중국과 같이 넓은 평야가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주성金州城과 같은 평지성도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형원은 대안으로 평산성平山城(평지와 산을 이어 쌓은 성) 형태를 제안하였다.

> 혹은 산을 기대어 성城을 만들어서 한 면이 평지平地로 뻗고 혹은 동구洞口의 낮은 데에 당하고, 한 곳은 안팎에 못과 호수를 파서 지극히 깊고 넓게 한다(원주 : 극히 깊고 넓게 하여 사시四時로 물을 채우고 겸하여 고기를 기르고 연蓮을 심게 할 것이니 이는 물의 험함이 산의 험함과 다름이 없고 겸하여 이익利益이 있는 것이다.).[8]

유형원이 제시한 평산성은 수원과 같은 지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산성 부분과 해자垓字를 판 평지성 부분이 결합되는 형태가 된다. 성 안에는 계곡이 있어 하천으로 흐르게 되어 농성籠城에 들어갔을 때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형원은 병농일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넓은 평야지대를 갖출 수 있는 곳에 진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결국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서울은 복심腹心이고 사방四方은 울타리로서 울타리가 완전하고 튼튼한 연후에야 복심이 믿는 바가 있어 편안한 것이라고 한 유형원은 서울을 견실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서울 주위에 건실한 고을을 기르는 것이 우선임을 명백히 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을 읍치로 육성하자는 유형원의 주장은 큰 반향을 일으켜서 조정에서 검토되었다. 특히 1741년(영조 17) 국가 경영을 위해 『주자어류』 대신 『반계수록』을 경연에서 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9] 1750년 대리청정 중이던 사도세자에게 좌참찬 권적은 『반계수록』을 "삼대三代 이후에 제일가는 경국책經國策"이라며 간행하여 반포하기를 청하였던 것이다.[10] 마침내 1769년(영조 45) 영조는 『반계수록』 3건의 간행을 명하며 1건을 남한산성에 보내어 판본板本을 새기게 하고 사고史庫에 보낼 것도 남한산성에서 만들게 하였다.[11] 군사 방어체계를 비롯한 국토 전체에 대한 유형원의 개혁안이 조정과 왕실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2. 구읍치 이주민의 신읍치 이전 보상

구읍치에 거주하던 호구의 규모는 1785년 작성된 『수원부읍지』 「방리」조의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구읍치를 지칭한 부내府內는 "문수당文殊堂 1수·3수·5수·6수"로 나뉘어 각 수별授別로 호구戶口수를 기록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구읍치는 문수당이라는 4개의 수授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수는 동리洞里

8_ 『반계수록』, 「군현제」, 각읍.
9_ 『영조실록』 권53, 영조 17년 2월 무오.
10_ 『영조실록』 권71, 영조 26년 6월 경인.
11_ 『영조실록』 권113, 영조 45년 11월 기축.

에 해당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부내의 문수당의 호수는 885호, 인구는 남자 1,543명, 여자 1,346명으로 합이 2,88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숫자는 수원부 46개 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숫자이다. 각 수별 호구와 인구는 〈표 1〉과 같다.[12]

<표 1> 1785년 수원부 문수당 호구수

구분	호수	구수		
		남	여	계
문수당 1수	266	455	363	818
문수당 3수	234	435	328	763
문수당 5수	170	312	343	655
문수당 6수	215	341	312	653
계	885	1,543	1,346	2,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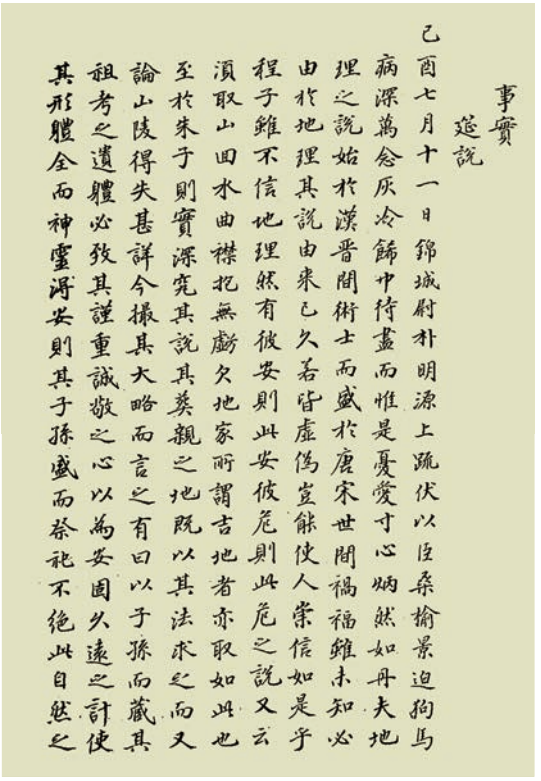
『호구총수』에는 부내 문수당이 문수당면으로 바뀌어 670호에 남자 1,088명, 여자 1,034명, 합이 2,12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이읍移邑 후에 215호가 줄고, 남자 455명, 여자 312명, 합이 767명이 줄어들었다. 거처를 옮긴 호구수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많은 수가 구읍치를 떠난 것만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정조는 조심태를 1789년 7월 11일 수원부사로 임명하여 수원부에 도착하는 즉시 백성들에게 조정의 뜻을 선유하라며 '유지有旨'를 내려주었다. 이어 7월 12일 봉표해 둔 곳을 살펴보러 내려간 동부승지 김이성金履成(1739~?)에게도 수원부의 부로와 이교吏校 등에게 효유曉諭하라 하여, 김이성은 350여 인을 수원부 어목헌에 모아 낱낱이 효유하였다.[13] 그리고 같은 날 급히 수원에 내려간 영의정 김익, 좌의정 이성원, 우의정 채제공이 다시 수원 부민을 불러서 하교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조정에서 특별히 우대해 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듣게 설명하였다.

정조는 7월 13일 수원의 이읍과 이민移民 물력에 대하여 의논을 하는데, 그 비용을 공가公家에서 도와줄 뜻을 비치면서 균역청의 돈 10만 냥을 획급해 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본읍의 환곡에 보태 주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정민시는 당장 옮겨 가야 하는 민가는 200여 호가 되고 차차 옮길 가호는 300~400호가 되어 최대 600여 호를 옮겨야 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14]

정조는 "수원의 새 고을 터가 수성현隋城縣의 옛터라고 하니 또한 우연이 아니다."고 하였으나 근거는 없다.[15] 수성현의 옛터라는 주장에 이어 7월 16일에는 태종太宗께서 직접 임어臨御하여 '팔달동八達洞'이란 동명을 붙여 주었다는 이야기를 김익이 정조에게

12_ 『수원부읍지』, 「방리」(『여지도서』 보유편).
13_ 『현륭원원소도감의궤(顯隆園園所都監儀軌)』 권1, 승전(承傳) 주계(奏啓), 기유년 7월 12일.
14_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1, 사실(事實) 연설(筵說), 기유년 7월 13일.
15_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1, 사실 승전(承傳), 기유년 7월 15일.


事實
筵說
乙酉七月十一日錦城尉朴明源上疏伏以臣桑榆景迫狗馬
病深萬念灰冷餘中待盡而惟是憂愛寸心炳然如丹夫地
理之說始於漢晉間術士而盛於唐宋世間禍福雖未知必
由於地理其說由來已久若皆虛僞豈能使人崇信如是乎
程子雖不信地理然有彼安則此安彼危則此危之說又云
須取山田水曲襟抱無虧久地家所謂吉地者亦取如此也
至於朱子則實深究其說其葬親之地既以其法求之而又
論山陵得失甚詳今撿其大略而言之有曰以子孫而藏其
祖考之遺體必致其謹重誠敬之心以為安固久遠之計使
其形體全而神靈得安則其子孫盛而祭祀不絶此自然之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1, 사실(事實) 연설(筵說)

보고하였다. 당시의 문적은 없지만 사통팔달四通八達의 뜻을 취한 것으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억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수원부의 입지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큰 도회지가 될 것이라는 암시이며, 이를 통해 이주문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언급이었다.

정조는 1789년 7월 15일 구읍치에서 신읍으로 옮긴 백성들의 민심이 어떤지 궁금해 하였다. 서명선徐命善(1728~1791년)은 "새로 정한 곳은 삼남의 큰 길이어서 생리生利가 치우친 곳보다 좋아 백성들이 새로 정한 곳으로 옮기기를 원한다."고 답하였다. 다음 날 정조는 광주의 2개 면을 수원에 이속하면 수원은 땅을 더 얻지만 광주는 땅이 줄어드는 탄식이 있다며, 경기감사에게 영을 내려 요리料理하여 보고하라고 명하였다.[16]

신속한 이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7월 16일 고을을 옮겨 간 백성들의 정황을 묻는 정조에게 정창순은 "200호를 철거 대상으로 정하였는데 여기에 들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긴다고 하였으며, 또한 수원부사에게 들으니 옮겨 가야 하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역사役事를 시작할 때는 농사일이 이미 끝나서 모두 모군募軍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17] 수원부에서 옮겨 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륭원 역사에 모군으로 참여하여 생활자금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는 봉표처封標處 혈자리 앞[穴前]의 민호民戶를 철거하여 거주를 옮기는 사람의 성명과 집 칸수를 별도로 기록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였다. 그 나머지 철거하여 옮긴 민호도 최근에 행했던 사례에 따라 기록하고 아울러 값을 지급한 액수와 전토의 값을 지급한 액수도 보고할 것을 경기감사와 수원부사에게 지시하였다.[18] 이와 관련하여 『수원하지초록』 1789년 7월 17일자에는 봉표처, 즉 현륭원의 원침으로 사용할 공간에 있던 민호로서 이주할 집 주인의 성명과 집의 칸수가 〈표 2〉와 같이 보고되어 있다.

이주 대상 가주의 성명과 집의 칸수 보고를 접한 정조는 혈전에서 원근을 따져 본가本價를 지급한 외에 50냥을 더 지급하되 본가도 다른 백성에게 견주어 특별히 넉넉하게 지급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10칸 안팎의 가옥은 등급을 나누어 2~4배를 더 지급하게 하였으며, 집이 혈전 가운데에 있었던 홍윤주의 경우는 상당한 역에 이름을 올려 임명하라고까지 하였다.[19]

7월 19일에는 이주할 백성 244호(봉표처 20호 포함)를 모두 객사 앞뜰에 소집시켜,

16_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1, 사실 연설, 기유년 7월 16일.
17_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1, 사실 연설, 기유년 7월 16일.
18_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1, 사실 승전, 기유년 7월 16일.
19_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1, 사실 승전, 기유년 7월 18일.

<표 2> 봉표처 거주 민호 중 이주 대상 가주와 민가 칸수

가주(家主)	칸수
한량(閑良) 안윤무(安允武)	4
한량 안윤문(安允文)	6
양인(良人) 진오장(陳五壯)	3
한량 형만식(邢萬植)	3
한량 이익상(李益相)	3
기패관(旗牌官) 이익제(李翊濟)	8
하리(下吏) 안윤협(安允協)	2.5
방영군관(防營軍官) 안윤집(安允楫)	11
한량 안숙(安塾)	19
속오군(束伍軍) 인잉복(印芿卜)	4

가주(家主)	칸수
한량 홍윤주(洪允舟)	18
한량 안사흠(安思欽)	8
교련관(敎鍊官) 홍윤우(洪允祐)	11
한량 박세주(朴世柱)	5
한량 안양성(安陽城)	6
한량 형만하(邢萬夏)	3.5
유학(幼學) 김양직(金養直)	15
유학 김약채(金若采)	4.5
양인 황준이(黃俊伊)	4
한량 김검정(金儉丁)	6
20가구	144.5

'정해진 금액'과 '추가 지급 금액[加給價]'을 호주마다 나누어 지급토록 하였더니, 뜰에 가득 모인 민인들이 모두 기뻐하며 은택[恩澤]에 대해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하였다.[20] 조심태는 전후에 있었던 전교[傳敎]에 따라 잘 이사하여 생업을 즐거워하며 편안히 살라는 뜻으로 거듭 잘 타일렀으며, 민가 칸수의 본래 금액 외에 더 지급된 금액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여기에 기록된 호수는 부내에서 1차 이주대상에 올랐던 숫자로 판단된다. 이주 대상 민가[民家]는 244호, 옮길 가사[家舍]의 규모는 1,789.5칸이었다. 원래의 가격은 3,457냥이고, 추가로 지급한 돈이 4,112냥으로 모두 7,569냥을 집 주인들에게 지급하였다.[21] 1호당 집의 규모는 약 7.3칸이었고, 집값으로 1호당 31냥 정도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총호사 김익은 철거하는 집값을 조정에서 특별히 나누어 준 것이 시가의 3~4배가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22] 이렇게 후하게 대가를 지급하였는데도 정조는 1,000여 호가 옮겨 살게 하는데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걱정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이재협과 채제공은 시가를 후하게 쳐 주고 별도로 돈을 더 주어 옮겨 가는 비용으로 하게 한 것은 옛날을 들추어 보아도 없었던 혜택이라며 시름하며 원망하는 단서[端緖]는 없다고 정조를 안심시켰다.[23] 다음 날에도 정조는 옮겨 간 민호의 사정에 대해 묻는데 원소도감제조 이문원이 옮겨 간 300여 호의 민심에 대해 더 이상 조정에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도리어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24]

구읍치에서 신읍으로의 이주는 1789년 9월 28일에 마무리되었다. 이때까지 이사한 민호의 칸수[家舍間數] 및 지급된 금액을 기록하였는데 민호가 319호, 가사 2,417칸으로 원가[元價] 4,818냥, 가급[加給] 4,394냥으로 모두 9,212냥이 지급되었다. 또한, 집값을 받

20_ 『일성록(日省錄)』, 정조 13년 7월 20일. "水原府使 趙心泰以封標穴前搬移民戶給價啓." 이에 대한 자료적 분석은 수원박물관, 『화성안 마을지』, 2010, 286~301쪽 참조.

21_ 『수원하지초록(水原下旨抄錄)』, 기유 7월 19일. "民家間數本價加價數爻."

22_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1, 사실 연설, 기유년 7월 19일.

23_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1, 사실 연설, 기유년 8월 6일.

24_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1, 사실 연설, 기유년 8월 7일.



구읍에서 신읍으로 이전 경로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지 못하여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자는 16호이고, 집값을 받은 다음 아직 집을 철거하지 않아 그대로 머무는 자가 119호로 모두 135호가 남아 있었다. 따라서 1789년 신읍치로 이주한 가호는 총 698호에 달하였다.

한편, 1789년 9월 25일 성첩한 유지에서 정조는 "수원의 관속官屬은 교校·이吏·예隷·노奴를 막론하고, 반드시 모든 역役마다 몸을 빼낼 방법이 없으니, 어느 겨를에 집안일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보아 하니 지금 서리 내릴 계절[霜令]이 점점 긴박하여 추위가 다가오니, 그 거처를 편히 하는 방법은 잠시도 늦출 수 없다. 이 전교로 지방관이 효유토록 하여, 지탱하고 접제接濟하는 대책을 한결같이 소민小民과 같게 하여, 겨울에 보금자리가 없어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잘 타이르고 거행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보고하라."[25]고 하였다.

조심태는 관속 가운데 이사할 자가 242호인데, 이미 집을 지어 옮겨 거주한 자가 90호이고 아직 미처 옮기지 못한 자가 150호라 보고하면서, 관속이 몸을 빼낼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옛 읍치 근처에 농사를 짓는 자가 거의 반이나 되므로, 처음 대가를 받은 다음 밭머리에 장막을 치고 살면서 수확을 기다리는 자도 있고 잠시 옛집에 살면서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자도 있다고 하였다. 조심태는 이들에 대한 이주방법으로 윤번제로 휴가를 주어 추위가 심해지기 전에 거처할 집을 지어 살게 하겠다고 하였다.

3. 신읍치 이주민 대책과 정착

새로운 읍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아시설의 위치가 결정되어야 했다. 조선시대는 관아를 중심으로 가로망이 만들어지고, 시전과 민가 등이 배치되기 때문이다. 7월 11일 임명된 신임 경기감사 서유방은 이읍에 필요한 체목體木을 안면도에서 수송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어 윤허를 받았다.[26]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안면도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되자 관아의 조성은 신속하게 이루어져 9월 26일 수원 신읍의 행궁과 객사, 향교를 먼저 조성하였다는 보고를 올리게 되었다. 정조가 현륭원 재궁

25_ 『수원하지초록』, 기유 9월 26일.
26_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1, 사실 주계(奏啓), 기유년 7월 13일.

의 하현궁下玄宮 시간에 맞춰 수원에 행차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수원 신읍치 조성은 현륭원 공역보다 일찍 끝마쳐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2개월여 만에 행궁을 비롯하여 내아, 객사 등 정조와 수행할 신료들의 숙소를 먼저 건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만들어진 건물은 행궁 27칸과 삼문 5칸, 좌변익랑 9칸, 우변익랑 6칸, 서변 행각 5칸, 누상고 10칸에 중문 5곳, 내아 34칸과 중문 4곳, 객사 20칸과 중문 2곳, 향교 51칸과 중문 1곳, 군수고 19.5칸, 공수 7칸, 관청 5칸, 창사 60칸 등 258.5칸의 각종 건물과 중문 12곳, 각처의 담장 278칸이 세워졌다.[27] 향교 이하의 건물은 행궁과 거리를 두고 건축되었기에 행궁 주변에는 116칸의 건물이 먼저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차로 완공된 수원 신읍치 관아 영건에 대한 시상이 9월 29일에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수원 신읍치의 관아 건설에 참여한 인원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부사 조심태는 예빈봉사禮賓奉事 조윤식의 근로가 가장 뚜렷하다고 상신하였고, 정조는 6품 외직에 자리를 기다려 조용調用하라고 하였다.

<표 3> 수원 이읍 시 공역 담당자

직책	출신	성명	시상내용
순영동칙(巡營董飭)	비장 예빈봉사(禮賓奉事)	조윤식(曺允植)	6품 외직 대과(待窠) 조용(調用)
이읍(移邑) 도청(都廳)	전 부사(府使) 절충(折衷)	조명집(曺命楫)	방어사(防禦使) 대과 승천(陞遷)
이읍 내책응(內策應)	전 무겸(武兼)	이광진(李光進)	오위장 작과(作窠) 금일중구전의입(今日中口傳擬入)
행궁 내아(內衙) 감동(監董)	전 우후(虞侯)	김보명(金輔明)	
부석(浮石) 감동	전 주부(主簿)	이태협(李泰協)	
객사(客舍) 감동	전 군수(郡守)	조한진(曺翰振)	본 지방 거주, 오위장 작과 금일중구전의입
향교 감동	전 영장(營將)	신 섬(申 暹)	본 지방 변지(邊地), 대과 제수(除授)
이읍 외책응(外策應)	전 찰방	이문환(李文煥)	가자(加資), 차차수용(次次收用)
행궁 내아 외감(外監)	출신	서정우(徐正祐)	
번와(燔瓦)	전 무겸	서택수(徐宅修)	
행궁 내아 간역(看役) 패장(牌將)	부사과 한량	박창흥(朴昌興) 안도형(安道亨)	시상
객사 간역 패장	부사과	임준창(林俊昌)	
향교 간역 패장	향소(鄕所) 출신	이종범(李宗範) 이근욱(李根郁)	
부석 간역 패장	부사과	홍윤우(洪允祐) 문세준(文世俊)	
번와 패장	부사과	박치관(朴致寬) 황인욱(黃仁郁)	
노야(爐冶) 패장	전 만호(萬戶) 절충(折衷)	이 위(李 渭) 김인철(金仁哲)	
군기고(軍器庫) 간역 패장	가선(嘉善)	박진황(朴震晃)	

27_『일성록』, 정조 13년 9월 26일 기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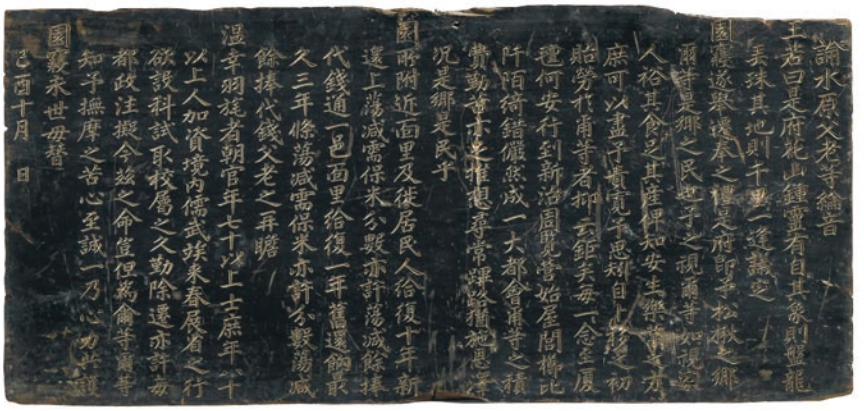
신읍치에 건설된 화성행궁(「원행정리의궤도」, 「화성행궁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표 3〉에 나타난 인원은 주로 관아 건물의 공역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표 3〉에 나타난 직책을 보면 '이읍 도청'과 '이읍 외책응'이 있어 이읍 당시 대민지원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읍 도청은 이읍과 관련된 실무 총책임자이고, 이읍 외책응은 수원부 이외의 관청과 협조창구이기 때문이다.

이읍 초기 일반인들의 가옥을 짓기 위한 목재의 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조심태는 수원부 서쪽 10리 지점에 위치한 오산장烏山場에서 가옥의 재료를 사 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조달하고 있다고 하였다.[28] 오산장의 방향을 서쪽이라 하여 현재의 오산시 지역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필요한 목재를 비롯한 건축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수원 인근에 장시가 열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륭원 조성 공역이 어느 정도 끝나 가는 시점과 맞물려서 수원부 관속을 포함한 옛 읍치 거주자의 이주가 마무리되었다. 하현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수원에 온 정조는 10월 8일 경기감사 서유방과 수원부사 조심태에게 명하여 수원부로 이주한

28_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정조 15년 1월 25일.



「유수원부로등윤음」 편액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옮긴 후 1789년 10월 11일에 내린 윤음으로 수원 백성들에게 10년간의 세금을 면제하고 환곡을 탕감해 주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인민들을 거느리고 입시케 하였다. 정조는 앞으로 이주민에 대하여 급복給復, 정환停還, 과시科試, 시사試射 등의 각종 혜택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소회所懷를 밝히라 하였다. 이때 수원의 백성들은 "현륭원 원소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건 간에 군인들에게는 품삯을 후하게 주시었고, 점막店幕에는 세금 징수를 금하여 모든 사람이 하늘의 은혜를 입었으며, 옮겨 이사하는 백성에 있어서도 갑절이 넘는 혜택을 주었으니 지금 모두 집을 짓고 창호를 만들어 거처를 편안케 하고 생업에 전념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근심걱정 없이 모두가 새로운 삶에 즐거운 마음을 가졌으니 어찌 아뢸 폐단과 억울함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29]

이에 정조는 10월 11일 수원 부로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윤음을 내려 각종 혜택을 발표하였다. 수원부 민인에게 정조가 내린 혜택은 경제적인 것과 시취 등을 통한 우대책이었다. 정조는 원소 부근의 면리面里 및 이주한 백성들에 대해 10년간 급복給復[30]하고, 새로운 환자곡의 상환을 탕감한다고 하였다. 또 수보미需保米는 수를 나누어 탕감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대신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원부 전체 면리에 대해서는 1년간 급복하고, 묵은 환곡 가운데 가장 오래된 3년치를 탕감하며, 수보미도 수를 나누어 탕감하고 나머지는 대전代錢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정조는 차등을 두어 옛 읍치에서 신읍으로 이주하게 된 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베푼 것이었다.

그리고 신분상의 혜택으로는 조관朝官으로 70세 이상인 자와 사서인으로 80세 이상의 인물로서 사도세자의 온천 행차를 맞이하였던 자에 대한 가자加資와 경내의 유생과 무사에 대한 시취試取(선발시험), 오랫동안 근무한 교속校屬들에게 관직을 제수하거나 천전遷轉[31]시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32] 사실상 노비를 제외한 모든 수원부 백성들에게 혜택이 고루 미치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조치들이었다.

정조는 이러한 조치들로 수원부의 이주민이 빠른 시간에 정착하여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수원에서 문무과 시취를 계속 베풀겠다는 것은 구읍에서의 이주민뿐만 아니라 타처에서 이주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서 수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일종의 유인책이기도 하였다. 신분적으로도 과시科試와 시사試射를 통해 관직 진출의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9_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1, 사실 연설, 기유년 10월 17일.
30_ 급복은 조선시대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이나 각 능의 수호군(守護軍), 열녀(烈女), 효자(孝子) 등에게 부역이나 조세, 대동미(大同米) 따위의 부담을 면제하는 특권을 주는 것이다.
31_ 천전은 근무일수를 채운 관리를 타직(他職)으로 전임(轉任)시키는 것이다.
32_ 『현륭원원소도감의궤』 권1, 사실 승전, 기유년 10월 11일; 『홍재전서(弘齋全書)』 권28, 윤음(綸音) 유수원민음(諭水原民音)-기유.

SUWON HWASEONG

정해득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외래교수

02
수원 신읍치 활성화 정책

1. 정조의 수원 신읍 활성화 구상

18세기 이후 조선사회는 장시 시장권과 포구 시장권이 결합되면서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도성 외곽에는 누원점과 송파장 같은 새로운 유통거점이 나타났다. 또한 도성 주변의 수원, 안성, 개성 같은 도시가 서울의 배후도시로 성장하고 있었다.[1] 그 이유는 17세기 후반 이후 서울로 몰려드는 유민들이 도성 가까이 정착할 수 없으면 도성 외곽의 송파나 누원점 등지에 거주하게 되고, 이런 곳이 상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구를 증가시킨 한 요인이 되었다.[2] 이는 18세기 중엽 이후 서울이 4대문을 경계로 한 성곽 중심도시에서 벗어나 광역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영역 확대 과정에서 18세기 말에는 서울과 강화, 개성, 광주, 수원의 4도都 체제로 정비되어 수도권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도 가운데 강화와 광주는 자족적 도시라기보다는 지리상의 이점을 갖춘 국방상의 보장처堡障處로서 오늘날의 군사도시에 가까운 형태였기 때문에 물류 유통과 상업의 성장에 많은 문제점을 가진 곳이었다. 이에 비해 수원과 개성은 서울의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중요 교통로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중시한 정조와 신하들은 수원 신읍에 시전을 개설하여 상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1790년 2월 좌의정 채제공은 수원 신읍에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일에 대해 비변사로 하여금 방안을 강구하라는 정조의 하명에 대해 전방廛房들을 따로 짓고 5일장을 개설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우선 서울의 부자

1_ 국사편찬위원회 편,『거상, 전국 상권을 장악하다』, 두산동아, 2005, 120쪽.
2_ 국사편찬위원회 편,『거상, 전국 상권을 장악하다』, 두산동아, 2005, 158쪽.

20~30호를 모집하여 무이자로 1,000냥을 빌려 주어 신읍에 집을 지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는 재미가 있게 한 다음 3년의 기한을 주어 차차 나누어 갚게 하면 조정에는 별로 손해가 없고, 신읍은 마을을 이루고 도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신읍의 근방에 한 달에 여섯 번 시장을 열어 장사하게 하되 한 푼의 세금도 거두지 않으면, 사방의 장사치들이 소문을 듣고 구름떼처럼 모여들어서 전주全州나 안성安城 못지않은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저절로 살림에 재미를 붙일 것이고, 다른 고을의 백성들까지 제 발로 찾아올 것이라고 하였다.[3]

이때 사직 서유린徐有隣은 전방을 따로 짓는 것은 누원樓院 등의 실례로 미루어 보면 서울 시장의 전방과 서로 방해가 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시전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다. 사직 정창순鄭昌順도 수원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고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이익이 있다면 전방을 따로 세우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여러 가게들을 벌여 놓고 번화한 거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경기관찰사 서유방徐有防 역시 전방에 대한 문제는 서울과 지방이 서로 지장을 줄 폐단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채제공이 시전의 설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정조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다른 신하들의 의견이 다수 나오자 정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5월 수원부사 조심태는 어떤 관청을 막론하고 무이자無利子로 6만 냥을 떼어 내 고을 안의 부자 가운데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해마다 그 이익을 거두게 하되, 3년을 기한으로 정하고 본전과 함께 거두어들이면 백성들을 모집하고 산업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때에 가서 응모하는 사람들과 구획하게 되면 점포의 설립이 필요 없을 것이고 물건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서 시기에 따라 꾸려 가게 하면 새 읍치의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4] 즉 매점매석을 허용하여 이익을 보장해 주자는 방안이었다.

조심태의 방안에 대해 채제공은 균역청과 금위영·어영청 두 군영에 소속된 관서별향고關西別鄕庫에서 적당히 분배해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었다. 우의정 김종수도 체제공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균역청의 돈을 각 관청에서 차용하여 10년을 기한으로 보상하는 전례가 있다고 하자 정조는 균역청의 돈으로 떼어 주도록 명하였다. 조심태는 균역청의 돈 6만 5,000냥을 받아 그 가운데 1만 5,000냥을 읍중에 재산이 있고 상업을 이해하는 자에게 빌려 주고, 그로 하여금 전방을 세워 이곳에 물자가 돌면 사람과 물산이 폭주하여 시전이 번성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일대 도회를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다.[5]

3_『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2월 경오.
4_『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5월 정유.
5_『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시전(市廛)」.



화성의 각 시설물과 행궁, 도로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된 「화성도」
(19세기 초반, 수원박물관 소장)

그리하여 1790년 수원부 관아 앞에 상설시전이 설립되었다. 시전의 점포들은 비단을 파는 입색전立色廛, 생선과 과일을 파는 어물전魚物廛, 무명·베·목화 등을 취급하는 목포전木布廛, 소금과 상을 파는 전방인 염급상전鹽及床廛,[6] 잡곡·백미·담배·국수 등을 파는 미곡전米穀廛, 유기와 철물을 파는 유철전鍮鐵廛, 관곽을 취급하는 관곽전棺槨廛이 들어섰다. 그리고 1791년에는 지혜전紙鞋廛이 설립되었다. 수원부의 각 시전은 관문(진남루) 바깥길 북쪽에 입색전과 어물전이 들어서고 남쪽에 목포전과 염상전이 마주하였으며, 미곡전과 관곽전·지혜전이 대로(지금의 팔달로) 동쪽에 위치하여 십자대로의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유철전이 북리점중北里店中(장안문 부근)에 자리하고 있었다.[7]

시전이 하루아침에 자리를 잡기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관청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1790년 12월 14일 좌의정 채제공은 평안감영에서 무명 300동을 조달하여 수원의 시전에 발매권을 주려 하였으나, 가지고 있는 300동 가운데 100여 동이 썩고 상한 것이라 가져다 팔더라도 이문이 없을 것이 명백하였다. 이에 채제공은 필단疋緞 2,140

6_ 『수원부읍지』, 「시전」의 기록은 굵은 글씨로 각 시전의 명칭을 쓰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취급물품을 기록하였는데, 목포전의 경우는 "在官門外路南 儲白木苧布木花鹽及床廛."이라고 하여 염급상전(鹽及床廛)이 목포점의 설명에 붙어 있다. 이 경우는 목포점에서 소금과 상을 판매하였다기보다는 굵은 글씨로 써야 될 염급상전을 작은 글씨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_ 김동욱은 각 전방의 건축 규모에 대해 기와집 5칸 정도로 보았다.

필 가운데 500필을 절가折價하여 출급해 주고, 문단紋緞 500필도 입색전에서 팔게 하여 이문을 보장해 주는 매점매석의 방안을 제시하였다.[8] 입색전의 경우가 확인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시전은 관청의 지원을 받아 거래에 필요한 물목을 확보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미곡전을 개설한 상인들은 장시에 나온 쌀을 모두 낮은 가격에 선매先買하여 전방에 쌓아 두고 높은 값에 판매하여 소민들이 이익을 잃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여 민원이 들끓었다.[9] 결국 조정의 수원 시전 육성책으로 시전상인들이 수원 주변의 장시를 장악하여 직접 도매행위를 하는 동시에 행상을 그들의 유통체계 아래에 둠으로써 소상인들이 장시유통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10]

정조 때 수원부사 조심태의 주도로 세워진 수원의 시전은 상인과 물산을 모아들이는 역할을 하였고, 수원에 모여 든 사람들의 소비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시전의 구성 자체가 식료품과 의류직물·주거용품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종이와 신발 등 문화용품을 취급하게 함으로써 서울에서 이주해 온 양반들의 소비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곽전과 같이 도시에서나 필요한 점포도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수원 신읍의 도시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조심태는 용주사 승려들의 생활을 위해 균역청의 돈을 나누어 주고 지혜紙鞋를 만들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1] 시전 가운데 1791년 지혜전이 개설되는 것과 관련해서 볼 때 용주사에서 만든 종이와 신발을 지혜전에서 취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제향을 위한 목적에서 창건하였기에 소음이 발생하는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조는 몇 년 뒤 지장승들이 거처할 수 있도록 광교동光敎洞 입구에 작은 사찰도 세웠다.

그러나 시전을 세워서 도회지를 세우려는 방안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다. 1791년 1월 정조의 원행 때 채제공은 도로의 좌우에 각사의 조방朝房을 차례로 세우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조심태는 전방 앞에 조방을 세우면 한층 장관壯觀이 될 것이라 하였다. 이에 채제공이 10칸 정도로 세우면 비용도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 하자 정조는 조방을 만들고자 하면 마땅히 영문에서 먼저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병조판서 김문순이 병조에서 먼저 시작하겠다고 답하여, 수원의 시전은 관영官營 조방의 설치가 검토되었다.

1792년 5월 정조는 신읍의 교리들의 자활이 걱정된다며 전방과 장호匠戶들이 번성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교리들이 산업을 억누르기 때문이라며 이들에게 비록 집집마다 먹을 것과 토지를 주지 못하더라도 먼저 급료를 주게 하였다.[12] 수원 신읍의 시

8_『비변사등록』, 정조 14년 12월 14일.
9_『승정원일기』, 정조 15년 1월 21일 병신.
10_ 변광석, 『조선후기 시전상인 연구』, 혜안, 2001, 121·192쪽.
11_『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5월 정유.
12_『승정원일기』, 정조 16년 5월 25일.

전과 공장들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을 수원부의 교리들에게서 찾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정조는 1792년 7월 수원 신읍에 전방을 연 사람들의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장호 또한 주객主客이 함께 곤란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수령이 진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엄히 문책하였던 것은 그와 같은 정황을 보여 주는 사례였다.[13]

정조는 수원 신읍의 활성화를 위해 시전의 설치와 함께 수공업의 유치를 계획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종이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1791년 5월 정조는 안성의 공장工匠이 스스로 와서 집을 지은 연유를 물어보았다. 정창순은 안성보다 생리生理가 나아서 스스로 옮겨 온 것이라고 대답하자 정조는 스스로 온 백성일지라도 새로 이사 온 처음에는 생활이 어려울 염려가 있을 것이니 관심을 가지라고 하였다.[14] 이때 정조가 언급한 안성의 공장들은 지장紙匠들로 추정된다. 1792년 정조는 비변사에 명하여 안성의 지장이 자원하여 수원으로 옮겨 왔으니 공화公貨로 4,000냥을 대급해 주는 방법을 초기하라고 하였다. 비변사에서는 총융청의 봉부동전封不動錢 가운데 4,000냥을 수원부사에게 주어 대급해 주고 3년간 홍리 자생한 후에 1795년부터 해마다 10분의 1을 수원부에 납부하면 수원부가 다시 총융청에 보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15]

정조가 수원에 지장을 모아 종이산업을 일으키려 하였다는 것은 종이산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선의 종이산업을 관장하던 조지서는 임진왜란 이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지장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16] 18세기 후반까지 조지서 소속 지장의 유망이 빈번하였고, 관사 또한 폐허를 방불할 지경에 처해 있었다. 급기야 조지서를 아예 폐지하든가 다른 관서에 이속시키자는 주장까지 제기되던 상황이었다.[17] 이렇게 조지서가 부실하게 운영되던 상황에서 정조는 유명무실한 조지서 대신 서울 근교에 지소를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1785년(정조 9) 6월에는 아예 서울 안에 지소의 설치를 논의하기도 하였다.[18] 이때는 닥나무의 품질이 남쪽만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조는 각 읍에 분정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동년 7월에도 종이값의 등귀騰貴로 종이의 품질이 떨어지고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다시 지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19] 이때 경기도 내에 지소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는데, 지장들에게서 수원水源이 풍부하고 닥나무의 공급이 끊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조는 계획된 서적 간행사업이 종이의 수급불안으로 차질을 빚을까 염려해서 지소의 설치문제를 거듭 제기한 것인데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보류하게 되었다. 대신 "관아의 이름만 있고, 관원이 없는 곳"[20]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조지서를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1788년 조지서 제조가 임

13_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7월 4일.
14_ 『일성록』, 정조 15년 5월 23일 정유.
15_ 『일성록』, 정조 16년 3월 8일 정축.
16_ 『승정원일기』, 인조 4년 8월 4일 계묘.
17_ 『비변사등록』, 영조 41년 3월 7일.
18_ 『승정원일기』, 정조 9년 6월 28일 을사.
19_ 『승정원일기』, 정조 9년 7월 20일.
20_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 7월 기미.

명되고,[21] 1795년 음관 6품직의 별제가 증설되는 것[22]은 조지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고육책이었다.

그 후로도 종이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는 계속하여 지적되었고, 사대문서를 작성하는 종이의 색깔과 품질이 전보다 열악하다는 이유로 제조와 낭청이 파직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23] 이러한 문제는 조지서가 관아로서 응당 가져야 할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조지서 재정을 튼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러나 정조 때에도 조지서의 운영자금을 여러 부서를 돌아가며 한시적으로 1,000냥 정도를 대하貸下받아 그 이자로 운영하는 폐단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었다.[24]

그러한 상황에서 균역청의 돈 4,000냥을 구획하여 수원에 지소를 설립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지방의 대표적인 지소가 있었던 남원의 경우도 제일 큰 민원으로 지소를 지탱하기 어려운 점을 들 정도로 운영하기 힘든 것이 지소였다.[25] 서울의 조지서를 대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경비를 화성유수부에 지소를 만들어 그 역할을 대신하려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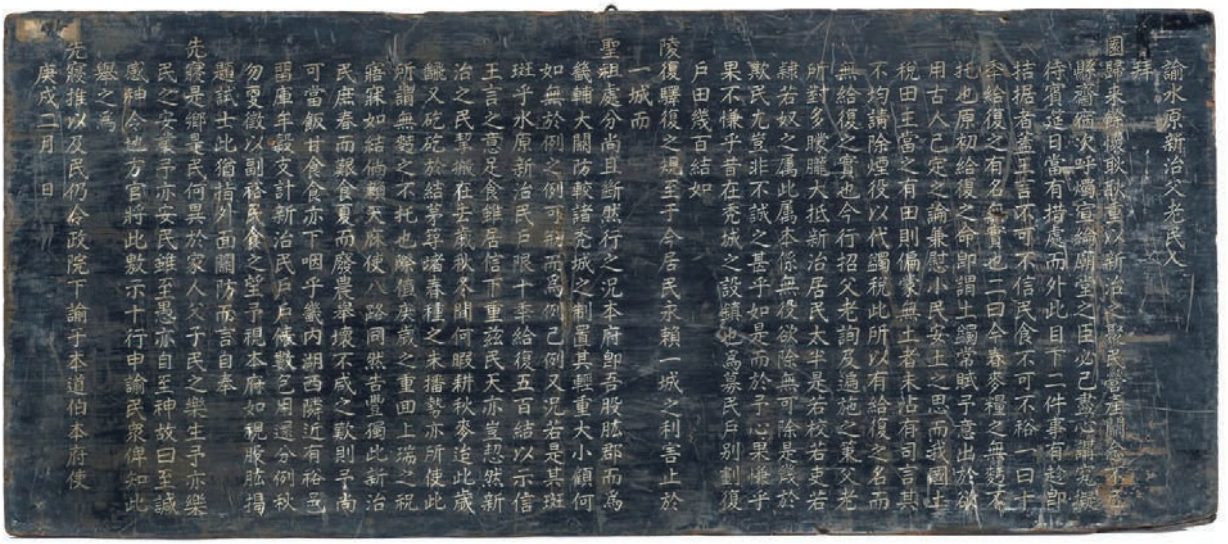
1796년에는 화성행궁에 설치한 외정리소의 수리재력 3,000냥 가운데 1,000냥을 떼어 내 지소의 재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장들이 안정적으로 입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하였다.[26] 그리고 전라도 보성의 봉갑사를 외탕고에 소속시켜 지가전紙價錢 150냥을 지소에 납부하게 하였고, 지소는 각 색지色紙 권수를 정해서 외탕고에 납부하도록 하였다.[27] 수원에 지소를 설치한 것은 화성행궁에서 소요되는 종이는 물론 공사公事 간에 필요한 지지紙地를 화성유수부에서 직접 생산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2. 수원민인 부역 면제 특혜

수원 신읍은 원주민이 많지 않았던 곳이었기에 개간된 토지가 많지 않아 농사지을 토지를 새로 개간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조는 1790년 2월 12일 내린 전교에서 원소의 국局 내외에 새로 흡수한 토지지가土地地價를 지나치게 절약해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수원부사가 별도로 조사해서 넉넉히 더 지급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것은 비용 부족으로 신읍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농지를 만드는 것은 집을 짓는 것에 비해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게다가 신읍으로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는 옛 읍치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자가 많았

21_ 『정조실록』 권25, 정조 12년 2월 정사.
22_ 『정조실록』 권43, 정조 19년 12월 을사.
23_ 『일성록』, 정조 20년 10월 15일 정해.
24_ 『일성록』, 정조 22년 8월 21일 임자.
25_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2월 26일 경자.
26_ 『일성록』, 정조 20년 3월 25일 신미.
27_ 『일성록』, 정조 20년 3월 25일 신미.



신읍치 지역의 민호에게 조세를 면제하도록 한 「유수원신치부로민인」
(1790년 2월 15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다. 이 때문에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에도 이미 봄에 심어 놓은 곡식의 수확을 위해 옛 읍치지역의 농사를 살피는 한편 새로운 농지를 확보하면서 다음 해 농사도 준비해야 했으므로 일손의 부족은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그래서 수원 부민은 1789년 10월에 내린 혜택이 부역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신들의 농토를 개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를 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정조는 신읍치 지역의 민호에게 토지 500결에 대한 조세를 제1등급의 규례대로 면제하도록 결정하였다.[28] 정조의 하교를 보면,

> 봄에 현륭원을 참배하고 숙소에 돌아와 머물면서 새 고을의 민호에 대해 그 살림살이와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하려는 정사에 마음이 간절하여 윤음을 불러 쓰게 하느라 촛불을 여러 번 갈아대는 것도 모르고 앉아서 밤을 새웠다. 또 환궁한 뒤에도 특별히 윤음을 내렸는데, 그중 한 조목은 바로 면제해 주는 것은 조세이고 부역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새 고을 백성들의 살림에 크게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근래에 호조에서 아뢰는 말을 들으니 제1등급으로 희망하는 수원 백성들의 마음에 실망하는 한탄이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대체로 결세를 면제하는 규례는 일정하지 않다. 왕릉 토지의 면세도 있고, 역참토지의 면세도 있고, 아전들 토지의 면세도 있고, 효자 열녀 토지의 면세도 있고, 기타 잡다한 면세도 있다. 결세·대동세·마초·쌀 등 땅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 세라고 불리는 것을 전부 면제해 주는 것이 1등급이 된다. 그다음은 혹 세만 면제하고 공물은 면제하지 않으며, 또 혹 공물만 면제하고 잡비는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단계가 매우 많다. 지금 수원의 백성들에게 중등中等이나 하등下等의 규례를 적용한다면 이것이 어찌 내가 처음부터 돌보아 주려고 애쓴 본의이겠는가. 수원부 새 고을의 민호에게 500결에 대한 세를 면제해 주되, 특별히 제1등급의 규례에 의하여 거행하라.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해당 부사에게 공문을 보내 이 전교를 민중에게 반포하여 토지에서 바치는 것은 없고 혜택은 고루 미치게 하였다는 뜻을 환히 알게 하라.

28_ 『정조실록』 권31, 정조 14년 12월 갑인.

고 하였다. 정조의 이 조치는 실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다음 해 2월 부사직 홍수보洪秀輔는 수원 신읍의 활성화 정책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백성들을 모아들이고 풍족하게 하는 근본은 부역을 가볍게 하고 조세를 적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사의 이익이 생기는 바탕을 마련하여 쏠려들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500결結에 대해 급복給復해 주어 고을 백성들로 하여금 10년 동안 조세가 없는 토지를 지어 먹게 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유례가 없는 큰 혜택입니다. 다만 받아야 할 사람과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서로 엇갈릴 염려가 있으니, 본읍本邑에 신칙하여 무릇 분표分俵할 때는 충분히 조사하여 고르고 자세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한다면, 백성들의 살림을 유족하게 하는 데에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이고, 모아들이는 방법도 자연 이 속에 있을 것입니다.[29]

정조의 조치는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91년 1월 원행에서 정조는 신읍이 큰 도회가 되어 다행이라면서 혹시 집을 짓는 게 급하여 그 산업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걱정하였다. 이에 채제공이 집을 지을 때 스스로의 힘을 헤아렸으니 처음부터 본업(농업)에 손해되는 염려는 없다고 대답하는 데서 유추되는 상황이다.[30] 체제공의 대답은 이주민들이 집을 짓는 가운데서도 신읍 주변에 농지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짐작된다.

3. 수원 읍치 과거 정례화

정조는 1789년 10월 사도세자의 영여靈輿를 옮길 때 수고한 각 읍의 비장과 장교, 서리, 관예官隷, 군졸, 척후, 복병, 호위, 포성 등의 장졸들을 대상으로 시취하였다. 정조는 수원의 문무과 시취에 대한 윤음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수원부에서 열게 될 시취에서는 정례定例보다 후하게 시상하라고 하였다. 유엽전과 조총을 시험보아 수원의 무사들도 다수가 입격入格하였다. 이때의 시취는 왕실 행사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정조 대 수원 지역에서 처음 치러진 시취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정조는 1790년 1월에 있을 원행에서 행차가 지나갈 수원·광주·과천 3읍의 유생과 무사에 대한 시취를 수원부 관아에서 직접 참관하여 실시할 것이라며 3읍의 응시자 명단을 새해 초에 거둬들이게 하였다.[31] 응시자 명단은 곧 보고되었고, 무과는 1월 10일 시험을 치르는데 3일부터 단자를 거두고 개장일까지 매일 수봉한 수효를 경기 순영에 보고하게 하였다. 시관은 장신將臣을 거친 수원부사가 상시관上試官, 광주부윤

29_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2월 경오.
30_ 『일성록』, 정조 15년 1월 17일 임진.
31_ 『일성록』, 정조 13년 12월 26일 정축.



「낙남헌방방도(落南軒放榜圖)」
(『화성능행도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조가 낙남헌에서 과거를 실시한 뒤 합격자를 발표하는 그림이다.

이 부시관副試官, 도내 찰방 가운데서 1원을 참시관參試官으로 삼았다.[32] 정조는 현륭원 공역과 관계없이 수원 신읍에서 처음 치러지는 과거인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790년 1월 1일에도 다시 하교를 내려 19일 현륭원 제향을 마친 후 수원 신읍에 돌아와 수원 등 3읍의 유생과 무사에 대해 매년 원행 때마다 과거를 베풀 것이니 강정한 정례에 따라 거행하여 조금의 폐단도 생기지 않도록 경외에 신칙하라고 하였다.[33]

무사에 대한 시험은 15일 실시하여 19인이 직부회시直赴會試에 입격하였고, 이들 가운데 김인후·범임순·송석이 등 3인이 소포 1순을 쏘아 2중 이상을 맞혔다. 정조는 3인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하고, 나머지 16인 가운데 2분分 입격인은 초시의 예로 다음번 전시에 부치고 원방목에도 써서 올려 보내게 하였다. 또 이 초시방목에 60~70세인 자가 여러 명인데, 이런 사람을 다시 전시를 보이느냐며 60세 이상의 초시입격인은 먼저 급제를 내리니 원방목 가운데도 '사제賜第'라 주를 달아 수정하여 올려 보내라고 하였다.[34]

정조가 수원에서 과거를 베푼 것은 옛 읍치 원주민으로서 신읍으로 이주해 오게 된 사람들에 대한 위무慰撫의 차원 외에 타지에서 수원 신읍으로 이주해 오도록 하는 유인誘引의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특히, 서울의 양반들이 다수 이주해 오기를 기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처음 치른 시취에서 이주자의 수는 적었고, 성적도 정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수원 유생들의 경우 시권試券이 38장張에 불과하고 재주 또한 월등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으며, 무사의 경우는 수원이 평소 무술을 숭상하는 고을로 일컬어져 왔는데 이 시취에서 합격한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이다. 정조는 다음번 시취 때부터 현륭원 원소園所 동구洞口 근처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응시하게 하였다. 또한 유생이건 무사이건 매월 새로 이주한 사람의 거주지·성명·나이·부조父祖의 직함職啣 및 명가名家인지 반벌班閥인지 또는 중인·서인·공천公賤·사천私賤 출신인지 등 가문의 내력과 근파根派를 자세히 적어 책을 만들어서 매번 그다음 달에 입계入啓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수원부사에게 새로 이사하여 사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게 하였으니 안심하고 공부하라는 하교를 내렸다.[35]

수원에서의 시취는 유생의 경우 부賦·표表·사詞·율律·경經·의義·잠箴·명銘·송頌 가운데 제비뽑기하여 시제를 정하였고, 무사의 경우는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芻·편추鞭芻·소포小布·철전鐵箭·후전帿箭·관혁貫革 가운데 한 가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36]그 이후 정조가 의도한 대로 수원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였고, 입격하는 유생의 수도 매달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790년 3월 시취에서는 심수진沈綏鎭 등 14인의 유생이 입격하였고, 4월 시취에서는 심수진 등 20인을 선발하였다. 5월에는 표

32_『일성록』, 정조 13년 12월 30일 신사.
33_『일성록』, 정조 14년 1월 1일 임오.
34_『일성록』, 정조 14년 1월 15일 병신.
35_『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3월 경인.
36_『일성록』, 정조 14년 3월 10일 경인.

表에서 31인, 고시古詩에서 26인이 입격하였다.

이에 고무된 정조는 수원부사 조심태에게 전령을 내려 유생의 표문表文을 저술한 시권이 예전에 비해 조금 나아졌으니, 권장하는 뜻으로 5월삭은 전체적으로 방방放榜하면 모두 합격시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였으며, 대과에서 장원壯元을 배출할 수 있도록 권면하게 하였다. 그리고 시사試射의 입격기준을 수정하여 일중一中 이상이 아니면 모두 초록抄錄(명단)에서 제외하도록 명하고, 유엽전은 관변 이상, 후혁帿革과 소포는 변3중 이상, 기추는 2중 이상, 편추는 5중 이상, 편전은 관1중 이상, 철전은 110보 이상만 정리하여 보고하게 하였다.[37] 무사의 시취에서 입격자가 41인으로 늘어나자 입격기준을 상향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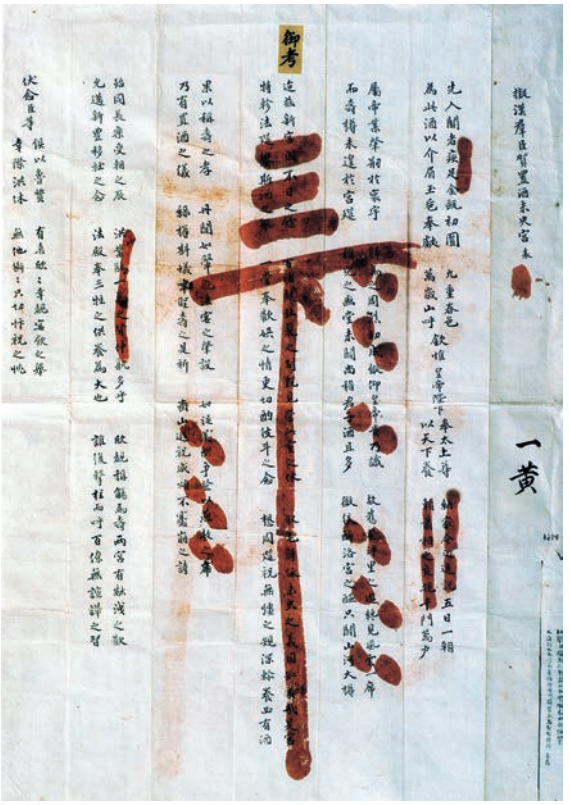
수원에서의 시취는 수원부사가 주관하였으나 모든 것은 정조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수원부사 조심태는 정조의 지시에 따라 시제를 받아 과장을 연 뒤 시권을 거두어 정조에게 보내면, 정조가 직접 고권考券을 검토하여 입격자 명부와 시상품을 다시 내려 보내는 식이었다. 1790년 6월의 경우를 보면, 5일 조심태는 정조의 시제를 담은 봉서[御題封]를 받아 시제를 반포하고 표表 37장, 시詩 38장의 시권과 「무사득중시기武士得中試記」 1통과 함께 입격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5월 이후에 「신축실인등내력근파성책新築室人等來歷根派成冊」 1통, 이미 완공한 「신축실와가초옥간수구별성책新築室瓦家草屋間數區別成冊」 1통, 「응제유생록명성책應製儒生錄名成冊」 1통을 정리 작성하고, 장교를 지정하여 서울로 올려 보냈다.[38]

정조는 직접 채점하여 표에서 김최원金最遠 등 11인, 시에서 정숙鄭塾 등 8인을 선발하고 『정음통석正音通釋』, 대장지大壯紙, 장지壯紙, 부채 등을 시상하였다.[39] 이때 정조는 고시古詩에서 득의자得意者가 모두 위격違格으로 처리되었다며 점수가 '삼하三下' 이상인 자에게 '수성도호가'를 시제로 삼아 다시 시권을 받아 권의權倚, 이회겸李會謙, 조륜趙崙, 이홍덕李弘德을 선발하여 향유산, 첩선, 별선을 시상하기도 하였다.[40] 그리고 정조는 조심태가 보고한 「신접인성책新接人成冊」의 모양이 너무 크고 범례凡例가 번잡하니 범례와 원거인原居人을 수정하여 올려 보내고, 가사家舍 칸수와 지은 과문科文의 문체文體를 이름 아래에 기록하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조는 수원에 이주하여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파악하고자 하였고, 그들을 대상으로 매달 응제시를 치러 유생을 양성하고 문풍을 진작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정조는 직접 시권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한편, 정조는 6월 18일 원자(순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7월과 8월의 시취를 8월 10일에 합설하고 우등 1인에게 급료를 주고, 증광대과 회시에 직부直赴시키고자 한

37_ 『일성록』, 정조 14년 5월 6일 병술.
38_ 『수원하지초록』, 경술 6월 5일.
39_ 『일성록』, 정조 14년 6월 7일 병진.
40_ 『수원하지초록』, 경술 6월 7일.



1790년 5월 조만원의 수원 응제시 시권
(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시험과목은 표(表)이고, 시제는 '擬漢群臣賀置酒未央宮(한나라 군신이 미앙궁에 술을 두는 것을 축하한다면)'이다. 조만원은 수원 북리에 거주하였으며, 부상으로 붓 3자루, 먹 1개, 부채 2자루를 받았다.

다며 사관史官이 내려가길 기다려 과장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매달의 순제旬製와 다르다며 예전과 같이 뒤섞이지 않도록 거주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만 참가하게 하고 장남헌壯南軒을 과장科場으로 지정하였다. 무사는 7월 유엽전 1순, 8월 소포 1순인데 유엽전은 3중, 소포는 4~5중으로 시기試記를 수정하였다.[41]

정조의 전령을 받은 조심태는 수원부 읍내의 옛 거주자와 새로 이주한 유생의 합설 응시제술[舊居新接儒生合設應製]에서 표表 42장, 부賦 66장 및 집을 새로 지은 유생·한량들의 집안 내력과 가옥 칸수, 관아에서의 거리, 과거의 문체文體를 일일이 주註를 단 「도성책都成冊」 1건과 「입문록명성책入門錄名成冊」 1건을 작성하여 서울로 올려 보냈다. 무사의 시사는 하교대로 8월 초9일 거행하였다. 관혁貫革 및 소포小布는 합격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시험기록을 올려 보내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42]

이때 표에서는 권의權倚 등 7인, 부에서는 이회검李會儉 등 16인이 선발되어 거수居首는 회시에 직부하고 지차之次는 이분二分(2점)을 주고, 나머지는 장지 1권, 붓 2자루, 먹 1개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활쏘기에서 두 가지 기예에 1명도 합격한 사람이 없어 성적이 극히 부진하자 정조는 소포에서 '삼중三中'과 유엽전에서 '변이중邊二中'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은 별단을 작성하여 속히 올려 보내게 하여 유엽전에서 이재춘李再春, 최서룡崔瑞龍, 이득홍李得弘, 차석록車碩祿 등과 소포에서 임만욱林萬郁을 뽑았다.

정조는 1790년 10월 7일 조심태에게 내린 전령에서 공고되는 '영'을 듣고 와서 시험을 보고 곧바로 돌아가는 폐단을 지적하였다. 서울이나 수원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달 시취 공고를 보고 수원에 잠깐 와서 시험을 치른 후에 곧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조는 시험문제가 도착한 이후부터는 축실원거인築室原居人과 신접시재가자新接時在家者의 응시應試가 실효가 있게 하라고 지시하였다.[43] 이에 조심태는 12월 시취에서 새로 이주해 온 경우 호주가 가족을 인솔하고 온 61호戶만 응시케 하여 가족명단을 시험지에 기록하여 시권을 작성하게 하였다.[44]

정조는 12월 새로 들어온 민호가 61호로서 전달에 비해 조금 많아져 다행스럽다며 61호 중 조관朝官 4인에게 각각 황장력黃粧曆 1건, 유생 144인에게 각각 중력中曆 1건

41_ 『일성록』, 정조 14년 8월 9일 정사.
42_ 『수원하지초록』, 경술 8월 9일.
43_ 『수원하지초록』, 경술 10월 7일.
44_ 『수원하지초록』, 경술 12월 7일.

을 일일이 나누어 지급하고, 새로 이주한 자 중 누락된 자가 있거든 다시 곧 지목해서 아뢰라고 하였다. 1790년 12월 표문에서는 정수구鄭遂龜 등 29인을 입격시켰고, 부에서는 민영원閔榮元 등 98인이 입격하여 세찬歲饌으로 쌀을 지급하였다. 소포 1중인은 초관哨官 이득홍李得弘 등 41인으로 역시 쌀을 시상하였다.

1790년에 진행된 수원의 시취는 다른 지역에서는 접할 수 없는 혜택이었기 때문에 수원으로 이주해 오는 가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시자 가운데 시험만 보고 돌아가는 타지他地인을 적발하기 위해 정조는 일일이 명단과 거주지를 확인하게 하였고, 새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출신내력을 일일이 파악하였다. 1790년 문과 시취에서 입격한 사람들의 시험성적은 이하일二下一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으며, 시상은 차상次上까지 시상품을 주었다. 정조가 1790년 수원의 시취에서 유생들에게 내린 시제는 〈표 1〉과 같다.

<표 1> 1790년 수원 시취 시제

월별	구분	시제	
2월	부제(賦題)	股肱郡	중요한 신하들이 사는 고을
3월	부제	置酒洛陽南宮	낙양성 남궁에 주연을 베풀다.
4월	전제(箋題)	觀察使以下 皆於門外下馬以爲式	관찰사 이하는 모두 문밖에서 하마하는 것으로 식을 삼다.
	부제	對此欣登歲	풍년이 든 해의 기쁨에 대해 노래하라.
5월	표제(表題)	擬漢群臣賀 置酒未央宮	한나라 군신이 미앙궁에 술을 두는 것을 축하한다면
	고시(古詩)	及自稱臣 是酒中仙	스스로 신하를 칭하니 이는 주중의 신선이라.
6월	표제	擬漢群臣賀 立枌楡社	한나라 군신이 분유사 세우는 것을 축하한다면
	고시제(古詩題)	枌楡社	분유사
	갱시제(更詩題)	隋城都護歌	수성도호부의 노래
8월	표제	擬漢群臣賀 移新豊	한나라 군신이 신풍으로 옮기는 것을 축하한다면
	부제	上皇來遊	하늘에서 상황이 내려와 노닐다.
9월	부제	猗與漆沮 潛有多魚 有鱣有鮪 鰷鱨鰋鯉 以享以祀 以介景福	아! 저 칠저에 물고기가 놀고 있도다. 철갑상어도 있고 다랑어도 있다. 피라미, 자가사리, 매기, 잉어로 제사상에 올려 큰 복을 크게 하리라.
10월	전제	擬本朝朝官年七十以上 士庶年八十以上人等 謝於臨殿受賀之日 各加一階 諭以惠養 所以祈永	본조 조관 70세 이상 서사 80세 이상이 대궐에 임하여 활을 쏘고 하례를 받던 날 각각 한 품계를 올려 주고 은혜와 진휼로 효유한 것은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11월	시제	扶桑大繭歌	큰 누에고치가 해가 돋는 동쪽에서 노래 부르다.
	의제(義題)	黃流在中	황하의 누런 강물 가운데에 있다.
12월	표제	擬漢周西王母進三千年 結子桃五枚	한나라가 주나라 서왕모에게 3,000년 된 복숭아 씨 5개를 바쳤다면
	부제	安得廣厦千萬間大庇 天下寒士俱歡顔	어떻게 천만 칸 큰 집을 얻어 천하의 뜻을 펼치지 못한 선비들의 얼굴을 모두 기쁘게 할까.

정조가 출제한 문제를 보면, 수원을 자신의 팔다리와 낙양남궁에 비유하고, 한고조漢高祖가 처음 봉기할 때 기원祈願한 분유사枌楡社를 시제로 내는가 하면 신풍新豊으로 옮기는 것을 축하하는 시제도 있어 수원에 대해 정조가 품고 있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8월 이후의 시제에는 수원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조는 수원의 무사가 소문에 비해 실력이 뒤지는 것으로 드러나자 합격자를 내지 않거나 소수만 선발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으며, 시취규정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규정이 강화된 시취에서 입격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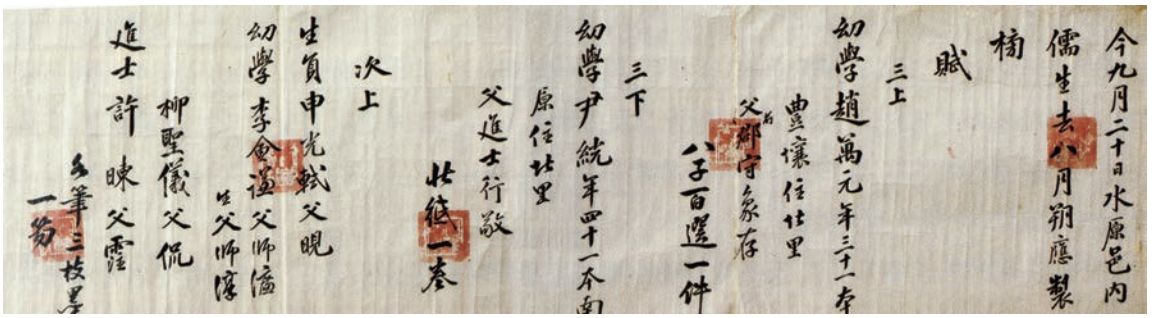
한편, 정조는 1791년 원행에서 과거 설행을 준비시키며 지난해에 집을 지어 가족을 데리고 살고 있는 설권자挈眷者를 위주로 하였는데, 이미 설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시험지 첫머리에 쓰게 하였고 시험지는 대호지大好紙를 사용하게 하였다. 무사의 시취는 한량의 수가 거의 500명에 달하여 하루 안에 끝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조는 이틀에 걸친 시취에서 설권자는 유엽전 2중 이상과 소포 4중 이상으로 하고, 미설권자는 유엽전 3중 이상으로 시기試記를 수정하여 차등을 두게 하였다. 유생의 시관은 홍문관과 예문관제학이 과차科次를 매기게 하고, 무사는 정조를 수행한 장신將臣 1원을 시관으로 삼았다.[45]

1년간 시취에 응시하는 무사의 수가 500명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늘어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정조는 수원 신읍을 두루 살펴보면서 새로 이사 온 집들을 돌아본 후 마음을 다해 집짓는 것을 도와준 전 중군 김기승金箕昇을 발탁하게 하였다.[46] 새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위해 수원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791년 응제시 자료는 2월, 4월, 5월, 12월에 시취하여 6개월 정도의 자료가 확인되었는데[47] 1790년처럼 정조가 문과의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1791년 자료에는 입격자와 시상한 내용을 기록하였을 뿐 시제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험과목은 시詩, 부賦, 상량문上樑文, 의義, 초草 등 다양하였으며 입격자의 수도 1790년에 비해 증가하여 문무과 시취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판단된다.

입격자에 대한 시상품은 『대전통편』·『팔자백선』·『정음통석』 등의 서책, 종이·붓·먹·장지·별장지·초장지·부채 등 문방구와 민어民魚젓갈·수어秀魚젓갈·소어蘇魚젓갈·소어·쌀 등 음식물이 지급되었다. 무과의 경우도 입격자는 증가하고 있었으며, 유엽전이나 소포로 시험을 치르고 우수한 자는 변장에 제수하거나 직부전시·직부회시의 자격을 주고 가자加資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격자에 대한 시상품은 부채·달력·모자 등

45_ 『일성록』, 정조 15년 1월 16일 신묘.
46_ 『일성록』, 정조 15년 1월 17일 임진.
47_ 『일성록』, 정조 15년 2월 25일 경오.



「조만원의 응제방」
(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1792년 수원 읍내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응제시의 시험성적을 기록한 응제방이다.

일용품과 쌀·소어젓갈·수어젓갈·소어 등의 음식물, 통개筒介·전죽箭竹 등 무구武具가 지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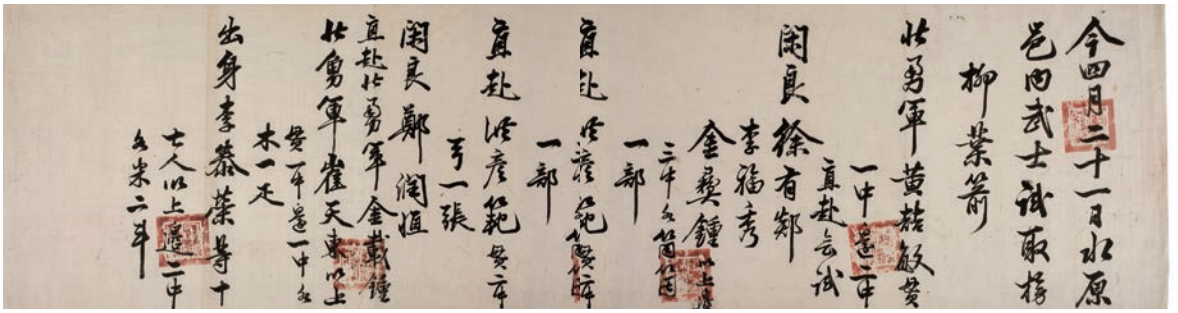
1792년 원행을 앞둔 정조는 수원부에 옮겨가 집을 짓고 설권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미리 성책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48] 당시 수원에는 과거 때 잠깐 와서 집을 빌리거나 세를 얻어 과거를 본 후 본가로 돌아가는 부류가 증가하고 있었다. 정조의 명에 따라 1792년에 성책한 설권자의 수가 100인이 넘어 작년의 2배가 된 것은 그 같은 일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49]

정조는 유생들의 행위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음번에 신칙하여 법령을 준수하게 하고 이번 성책에 오른 부류는 빼내는데 시취는 함께 보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수원에 거주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시험지 서두에 '방외方外'라 쓰게 하였다. 정조는 과차科次를 매긴 후 환궁한 뒤에 시상할 것이니 기다리라 하였다. 그리고 수원부사를 신칙하여 수원에 살지 않는 자는 속히 본토로 돌려보내라고 경기감영에 분부하였다.[50]

1792년 1월 24일 화성행궁에 도착한 정조는 유생과 무사의 시취를 명하였다. 유생이 뜰에 들어와 예를 행하자 정조는 "제왕이 그 산을 돌아보았다."로 부제賦題를 내었다.[51] 그리고 무사의 시사에서 '삼중三中' 이상의 점수는 직부전시, '이중二中'은 직부회시의 자격을 주었다.[52] 시취를 끝내고 환궁한 정조는 신헌조申獻朝(1752~?)를 암행어사로 파견하여 수원부의 민심을 은밀히 조사하게 하였다.

그런데 복명한 신헌조는 유생들이 한가로이 날을 보내며 공부를 게을리하다가 응제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논술을 시켜 시권을 제출하는 폐단이 있다며 개탄스럽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53] 이러한 폐단을 짐작하고 있었던 정조는 수원에서의 시취를 즉시 중단하였다. 5월삭 시취를 앞두고도 정조는 5월 9일 전교를 내려 유생의 폐습이 고쳐지지 않으면 유생의 시취는 없고, 잠깐 사이에 왔다 가는 부류는 과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뜻을 경기감사와 수원부사에게 효유曉諭하라고 하였다. 실제 5월 12일

48_ 『일성록』, 정조 16년 1월 16일 병술.
49_ 『일성록』, 정조 16년 1월 20일 경인.
50_ 『일성록』, 정조 16년 1월 20일 경인.
51_ 『일성록』, 정조 16년 1월 24일 갑오.
52_ 『일성록』, 정조 16년 1월 25일 을미.
53_ 『일성록』, 정조 16년 2월 11일 경술.



「무사시취방(武士試取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1793년 4월 21일 수원부 읍내 무사들에게 활쏘기 시험을 시행하고 포상한 기록이다.

에 무사에 대한 시취를 진행한 반면, 유생들에 대한 시취는 설행하지 않았다.[54]

수원 시취에서의 응시자격과 응시자의 태도 문제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정조는 5월 11일 수원 유생들이 정조의 뜻을 알아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취하라는 전교를 수원부사에게 내렸다. 이때 정조는 수원을 경영京營과 매한가지로 보고 있다고 수원부사를 위로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유생들을 잘 회유하라고 하였다.[55] 그러나 9월 1일 전교에서 2월부터 5월에 치러야 했던 시취를 다시 거행하라고 명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문제가 이때까지 고쳐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정조는 엄중히 신칙하여 전과 같이 섞이지 못하게 하는 한편, 9월 응제는 단지 원점으로 생진과生進科에 응시하게 하였다.[56]

그 후 정조는 1792년 12월삭 시취를 거행하였는데 80세 노인인 이석조李奭祚(1713~?)가 응시하여 '삼상三上'에 올랐다며 특별히 장원을 주라고 하였다.[57] 그리고 1793년 1월 원행에서 정조는 81세의 이석조에게 특별히 어비御批 일체를 내리고 직부전시의 자격을 주게 하였는가 하면 정력이 강건한 서물瑞物(기린이나 봉황)이라 이를 만하다며 수원부에서 쌀과 고기를 넉넉히 지급하게 하였다.[58]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인 이석조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 것이었다.

정조는 1793년 1월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키면서 전례에 따라 시취를 진행하였다. 시제를 직접 출제하는 한편, 수원에 함께 내려온 여러 신하들을 문시관과 무시관으로 삼아 보다 엄격하게 시험지 채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59] 정조는 "인정人情이란 것은 성왕聖王의 터전이다."를 부제로 내고, "수원부 사민士民 등이 부를 높여 분사分司가 거류하는 것을 사례한다면"을 전문箋文의 제목으로 출제하였다.

수원부의 문무과 시취는 수원부가 유수부로 승격됨에 따라 규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승보陞補한 뒤 시험을 보이되 온 고을을 통틀어 응시하도록 하였고, 강경과講經窠는 개성유수부의 전례에 따라 제술製述로 넘겼다. 또 무장武將이 수원유수가 되었을 때에는 시험을 치르지 말고 문반文班 유수가 올 때를 기다려서 합쳐서 설행할 것이며, 만

54_ 『일성록』, 정조 16년 5월 9일 병오.
55_ 『일성록』, 정조 16년 5월 14일 신해.
56_ 『일성록』, 정조 16년 9월 1일 정유.
57_ 『일성록』, 정조 16년 12월 13일 정축.
58_ 『일성록』, 정조 17년 1월 13일 정미.
59_ 『일성록』, 정조 17년 1월 13일 정미.

일 식년시를 치르는 해를 만나게 되면[60] 별도로 알리도록 하였다.[61] 유수 채제공의 품지로 이 명이 내려진 것인데, 이후 수원의 문무과 시취는 유수부의 예에 따라 공도회公都會로 전환되었다. 1790년부터 1792년까지 수원부에 치러진 시취를 통해 생진과와 문과에 급제한 사람은 〈표 2〉와 같다.[62]

<표 2> 수원 시취 출신 대·소과 급제자

번호	성명	본관	생년	이주 전 거주지	입격 연월	대·소 문과
1	이이희(李履熙)	덕수	1763	광주(廣州)	1790년 2월	1790년 별시
2	이서조(李瑞朝)	전주	1730	수원	1790년 2월	1790년 별시
3	이운행(李運行)	여주	1736	수원	1790년 2월	1774년 진사 1790년 문과
4	조만원(趙萬元)	풍양	1762	수원	1790년 4월	1794년 문과
5	권 의(權 倚)	안동	1760	수원	1790년 5월	1792년 문과
6	임희계(任希季)[63]	풍천	1763	서울	1790년 8월	1790년 진사
7	안 박(安 樸)	죽산	1740	서울	1790년 8월	1773년 생원
8	조수민(趙秀民)[64]	한양	1742	수원	1790년 8월	1790년 문과
9	권 우(權 佑)	안동	1763	수원	1790년 8월	1798년 진사
10	이득조(李得祚)	여주	1738	광주	1790년 10월	1777년 진사
11	이사순(李師淳)	전주	1733	수원	1790년 10월	1795년 진사
12	이득양(李得養)	전주	1760	수원	1790년 11월	1790년 생원
13	임정상(任鼎常)[65]	풍천	1765	수원	1790년 11월	1807년 문과
14	정수구(鄭遂龜)	하동	1750	부여	1790년 11월	1777년 생원
15	임희존(任希存)[66]	풍천	1748	수원	1790년 11월	1794년 문과
16	심의진(沈毅鎭)	청송	1768	서울	1790년 12월	1801년 진사
17	한용집(韓用鏶)[67]	청주	1764	서울	1790년 12월	1804년 문과
18	신 욱(申 勗)	평산	1730	공주	1790년 12월	1795년 진사
19	박 간(朴 暕)	반남	1738	수원	1790년 12월	1771년 진사
20	최지성(崔之聖)	강화	1756	연기 수원	1790년 12월	1789년 생원 1795년 문과 장원
21	정술주(鄭述周)	해주	1758	은률	1790년 12월	1795년 생원
22	박사묵(朴師默)	밀양	1736	원주	1790년 12월	1778년 문과
23	김낙연(金樂淵)	연안	1740	서울	1790년 12월	1778년 진사
24	이영석(李永錫)	경주	1758	서울	1790년 12월	1773년 진사 1807년 문과
25	조만대(趙萬大)	풍양	1770	수원	1790년 12월	1790년 생원
26	김성익(金聖翼)	광주	1733	예안	1790년 12월	1756년 생원
27	유백환(兪伯煥)	기계	1767	수원	1790년 12월	1798년 진사
28	이운영(李運永)	한산	1722	한산	1790년 12월	1759년 진사
29	윤 서(尹 惰)	해남	1742	보성	1791년 4월	1777년 진사

60_ 주(周) 때 3년에 한 번씩 민중(民衆)의 많고 적은 것을 조사하던 것인데, 여기서는 식년시를 의미한다.

61_ 『일성록』, 정조 17년 3월 10일 계묘.

62_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정보통합시스템'에 등재된 『문과방목(文科榜目)』과 『사마방목(司馬榜目)』, 『일성록』의 수원 시취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여 작성하였다.

63_ 임성(任珹)의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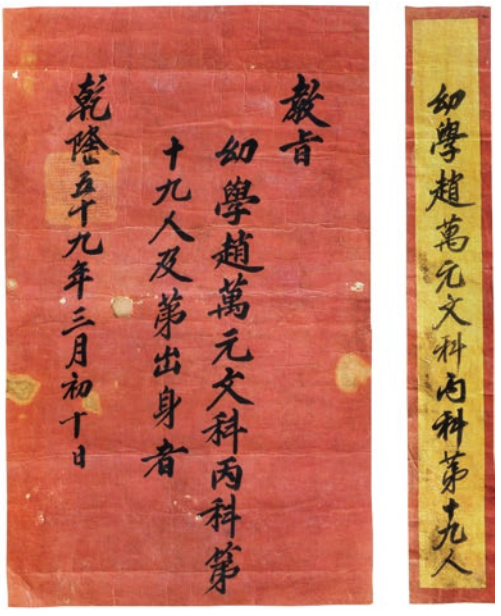
64_ 『정조실록』 권32, 정조 15년 1월 경자. 조수민(趙秀民)은 급제 후 분관(分館)할 때 할아버지 조선(趙銑)이 일찍이 송시열을 문묘의 배향에서 내쫓자는 상소에 참여한 것을 구실로 가주서 의망에서 제척되었는데, 정조는 수민의 아버지 조종렴(趙宗濂)이 적신(賊臣) 홍인한(洪麟漢)이 한창 세도를 부릴 때 절개를 지켰다 하여 특별히 수민의 억울함을 신설하여 주었다.

65_ 임성의 손자이며, 정언 임희효의 아들로 생부는 목사 임희후이다.

66_ 임성의 아들로, 임선(任琁)에게 입양되었다.

67_ 한광조의 조카인 한대유의 아들이다.

번호	성명	본관	생년	이주 전 거주지	입격 연월	대·소 문과
30	조학진(曺學振)	창녕	1755	수원	1791년 5월	음관
31	김낙수(金樂洙)	선산	1721	수원	1791년 5월	1756년 문과
32	박사묵(朴師默)	밀양	1736	원주	1791년 5월	1778년 춘당대
33	허 간(許 暕)	양천	1751	양주 수원	1791년 5월	1790년 진사 1794년 정시
34	임우상(任禹常)	풍천	1767	수원	1791년 10월	1810년 진사
35	조만대(趙萬大)	풍양	1770	수원	1791년 10월	1790년 생원
36	이득양(李得養)	전주	1760	수원	1791년 10월	1790년 생원
37	이 택(李 澤)	덕수	1764	수원	1791년 10월	1790년 진사
38	이연태(李延泰)	연안	1740	양지	1791년 11월	1774년 생원
39	심후진(沈厚鎭)	청송	1754	수원	1791년 12월	1795년 문과
40	박정원(朴晸源)	반남	1760	수원	1791년 12월	1803년 진사
41	유현부(兪鉉復)	창원	1767	수원	1791년 12월	1798년 생원
42	김도원(金圖遠)	경주	1765	수원	1791년 12월	1803년 문과
43	신광식(申光軾)	평산	1748	서울	1792년 12월	1786년 생원 1800년 문과
44	황명한(黃明漢)	장수	1771	수원 죽산	1792년 12월	1795년 생원 1802년 문과 장원
45	홍시형(洪始瀅)	남양	1762	수원	1792년 12월	1816년 진사
46	이석조(李奭祚)	여주	1713	수원	1792년 12월	1794년 문과
47	이정환(李精煥)	여주	1768	수원	1792년 12월	1798년 진사



1794년(정조 18) 조만원의 홍패
(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총 47명의 입격자 가운데 문과에 급제한 사람은 19명이고, 장원에 오른 사람도 최지성과 황명한 등 2명이 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서울·광주廣州·양주·양지 등 수원 인근의 군현은 물론 부여·공주·한산·연기 등 충청도, 황해도 은률, 강원도 원주, 경상도 예안, 전라도 보성 등 전국 각지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이주해 온 사람 가운데 이미 문과에 급제한 경우는 김낙수·박사묵 2명에 불과하고, 소과에 합격한 경우도 안박·이득조·정수구·최지성·김낙연·이영석·김성익·이운영·윤서·허간·이연태·신광식 등 12명이다. 수원으로 이주한 후에 소과에 급제한 이는 신욱, 정술주가 있다.

임희계·임희존·임정상 등 임성任珹(1713~?)의 아들과 손자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수원에 정착한 경우도 확인되며, 한광조韓光肇(1715~1768년)의 후손 가운데는 한용집이 수원의 시취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1800년 이후 문과에 급제한 한용집과 이영석은 서

울로, 황명한은 죽산으로, 소과에 급제한 심의진은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 확인된다. 정조 서거 후에 타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 가운데 서울에서 온 사람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일성록』에서 1790~1792년 수원의 시사試射를 통해 무과에 급제한 인물은 20명의 명단이 확인되었는데 〈표 3〉과 같다.

<표 3> 수원 시취 출신 무과 급제자

번호	성명	본관	생년	거주지	입격 연월	무과
1	이득홍(李得弘)	전주	1762	수원	1790년 3월	1784년 정시
2	표창문(表昌文)				1790년 11월	1792년 무과
3	권 평(權 評)	안동	1767	수원	1790년 11월	1792년 무과
4	송국인(宋國仁)	문경	1762	수원	1790년 11월	1792년 무과
5	박보경(朴普慶)	밀양	1767	수원	1790년 11월	1792년 무과
6	홍명룡(洪命龍)	남양	1760	수원	1790년 12월	1792년 무과
7	이춘득(李春得)	경주	1750	서울	1790년 12월	1784년 무과
8	이한흥(李漢弘)	전주	1769	수원	1790년 12월	1792년 무과
9	임만태(林萬泰)	평택	1747	수원	1791년 2월	1784년 무과
10	안문흠(安文欽)	순흥	1771	수원	1791년 5월	1801년 정시
11	윤치장(尹致章)	해평	1758	수원	1791년 5월	1784년 정시
12	김광일(金光一)	김해	1770	수원	1791년 10월	1792년 무과
13	박보경(朴普慶)	밀양	1767	수원	1791년 10월	1792년 무과
14	권 평(權 評)	안동	1767	수원	1791년 11월	1792년 무과
15	박필국(朴弼國)	밀양	1741	수원	1792년 4월	1784년 무과
16	김낙풍(金樂豐)	김해	1768	서울	1792년 12월	1794년 무과
17	백광신(白光信)	수원	1743	수원	1792년 12월	1790년 무과
18	홍명룡(洪命龍)	남양	1760	수원	1792년 12월	1792년 무과
19	김광욱(金光郁)	김해	1738	서울	1792년 12월	1773년 무과
20	신대건(申大健)	평산	1760	서울	1792년 12월	1784년 무과

수원 시사 이전에 무과에 급제하였던 인물은 7명이고 그중 이춘득, 김광욱, 신대건 등 3인은 무과급제 당시 거주지가 서울이었는데 수원으로 이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출신자는 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사에 대한 시사가 수원 지역 무사들의 무과급제를 위한 발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알려진 명단이 너무 적어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다만 입격자의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무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수원에서의 시취에 합격한 뒤, 무과에 급제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SUWON HWASEONG

정승모 전 지역문화연구소 이사장

03
시전의 설치와 운영

1. 영·정조 대 상업정책

시전 상업과 관련한 우리나라 경제는 18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질적인 변화를 시작한다. 이미 그 이전부터 대동법 시행 등에 따른 유통의 활성화로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유통의 종점인 서울 시전 또한 상인층의 확대와 비상인층의 개입으로 점포수가 늘어나는 등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신흥 상인의 등장과 도고都庫 및 계방契房 등과 관련된 현상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포구를 중심으로 하는 상거래 활성화와 장시의 확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18세기 이후 해상교통은 서해안과 경강, 그리고 낙동강, 금강, 영산강, 대동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운체계 안에서 발달하였다. 해상교통이 발전함에 따라 17세기까지 세곡 운송이나 군사방어 기능에 그쳤던 외방포구들이 점차 상업 중심지로 변모해 간 것이다.

상업 중심지로 발전한 포구는 대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즉 조수가 올라올 수 있는 지점에 있었다. 서울의 경강포구를 비롯하여 낙동강 하구의 김해 칠성포, 남해안의 마산포, 나주의 영산포와 영산강 하구의 법성포, 금강의 강경포, 그리고 강을 끼지는 않았지만 북어 집산지인 동해안의 원산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포구는 주위의 장시와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발전하였으며 그 자체로 부정기적인 장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서해안의 아산만이나 남양만 일대의 포구들도 이때 이후로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수원의 상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대포구 주위의 소포구들도 점차 주위의 장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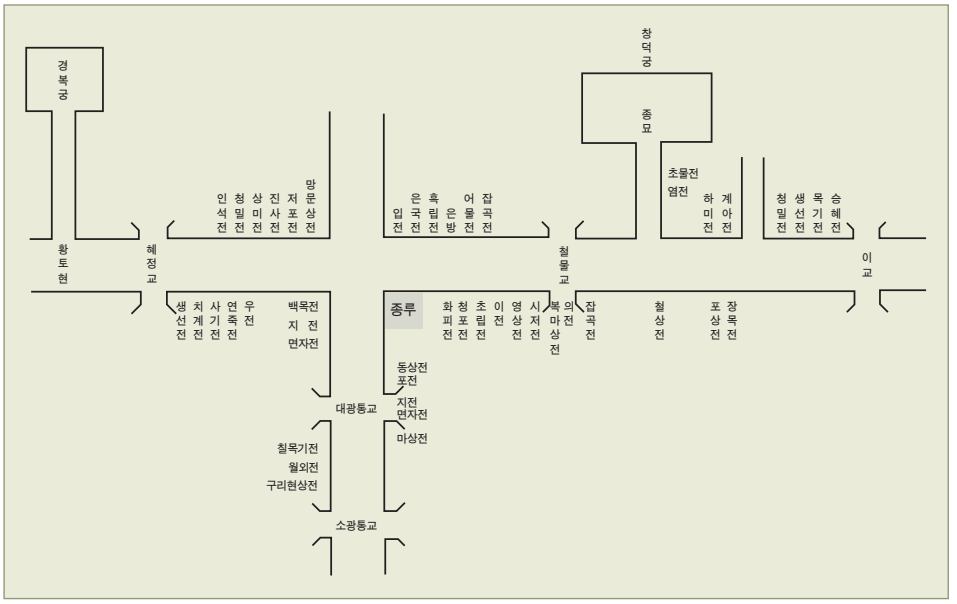
「경강부임진도(京江附臨津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 후기 한강의 포구는 상업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경강상인들이 그곳을 장악하였다.

연결되면서 포구들은 지역 내에서 유통의 입지를 넓혀 나갔다. 이러한 발전의 중심에 있으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강상교통의 종착지라고도 할 수 있는 한강변의 포구들이고, 그곳을 장악한 경강상인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기존의 시전상인들이 누리던 독점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였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새로 설치한 점포의 명칭을 경조京兆로 하여금 대소를 구별하여 큰 것은 엄중히 금지하고 소소한 것은 금지하지 말도록 하며, 전인廛人은 착고捉告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절목節目을 만들어 시행하소서. 비록 응당 금지시켜야 할 물건일지라도 경성 금표禁標 밖은 출금出禁하지 말도록 하며, 전인이 비록 착고는 하더라도 죄를 다스리는 일은 못하게 하도록 청컨대 정식定式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1]

1_『영조실록』, 영조 17년 9월 19일 신사.



조선 후기 한양 종로시전 분포
(고동환,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 변동」, 『서울상업사 연구』, 1998)

이와 같이 한강변에서 신흥 상인들의 도고 행위가 있었지만, 1741년 당시까지만 해도 경성 금표 밖으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여 무허가 점포와 노점을 다스리는 권한인 난전권亂廛權 행사가 한성부 밖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등 제재와 금지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지나친 난전법 적용이 백성들의 소요를 일으키는 등 물의를 빚고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법을 고수하려는 정부의 입장도 유지되었다.

난전권이 한성부 외곽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영조는 한성부 당상과 의논하여 난전법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1762년(영조 38) 5월에 임금은 영의정 홍봉한洪鳳漢과 한성부 당상 남태제南泰齊의 청에 의해 난전법을 심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명하였다.[2] 1764년에는 임금이 재난대책을 물었을 때 영의정 홍봉한은 난전법의 고질적인 폐단 때문에 지방 상인들이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고 서울 시민들도 꼼짝 못하여 날로 생활이 어렵고 근심이 가득하므로 한성부 판윤과 평시서 제조에게 명하여 소상히 아뢰고 절목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청하였다.[3]

또한 그해 10월에 한성부 주부 이복영李復永이 한성부에서 강민江民들의 도거리[都庫] 행위를 난전법으로 다스리는 폐단과 관련하여 주청하자 임금은 평민들의 이익을 빼앗아 이서들의 배를 채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폐단을 두절하고 변통책을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영의정 홍봉한은 이에 대해 난전법의 폐단은 법사의 이예吏隷들이 급료가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즉 난전법이 문제가 된 또 다른 원인으로서 난전권을 행사한 결과로 얻어지는 속공물이 그 법을 집행하는 이예들에게 급

2_ 『영조실록』, 영조 38년 5월 13일 병오. "命弛亂廛法, 因領議政洪鳳漢及京兆堂上南泰齊請也."

3_ 『영조실록』, 영조 40년 10월 23일 신축. "上 …… 又問弭災之策, 領議政洪鳳漢以禁亂廛爲痼弊 鄕商未得任意買賣 京民無以措其手足 生理日艱 景色愁沮 令京兆尹平市提調 消詳講定以成節目好矣."

료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관행이 지적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전을 다스리는 권한인 난전권에 대한 입장이나 이해관계도 한성부나 평시서 등 이를 감독하는 부서, 시전 운영을 빌미로 난전권을 행사한 군문과 아문의 군졸들, 특권과 독점권을 누려 왔던 주비전 등의 대시전상인, 소시전상인, 신설 시전상인, 영세상인, 서울에 거주하는 도성민, 그리고 서울 안팎의 도고상인들 모두가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정조 때 나온 『대전통편大典通編』 세주細註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시전인 가운데 난전권을 빙자하여 지방에서 온 자들에게 폐를 주는 자는 해당 도신이 엄형을 내리고, 심하게 구박한 자는 매를 내리고 난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난전권을 행사하여 빼앗은 물건은 속공하지 않는다. 호위청 소속 군사들이 난전을 벌이면 법사에서는 바로 이를 급료로 합치고 그 조치하는 까닭을 소속 관아에 통지하지 않는다.[4]

새로운 법전이 등장한 영·정조시기에 들어오면 전을 다스리는 난전권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 폐단은 특히 한발 등의 재난으로 기근이 만연하여 일반 백성들의 생존이 어려울 때 더욱 자주 지적되었다. 난전권이 문제가 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영세한 상거래에까지 미친 무차별한 권한 행사 때문이었다.

한성부에서 시전인들에게 부여한 난전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그 단속 범위가 도성 밖은 물론이고 외방, 즉 금표禁標와 성저십리城底十里를 기준으로 하는 한성부 바깥에까지 적용된 데에 있었다. 당시 새로운 점포는 대부분이 시전인들의 단속을 피해 서울 밖 경강변京江邊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시전도 내·외전으로 분화되어 도성 밖으로 진출하였다. 미전米廛을 예로 들면 상미전, 하미전, 문외門外 미전, 서강西江 미전, 마포麻浦 미전 등으로 분화되었다.

정해진 품목에 대한 거래독점권을 가지고 있던 서울 시전상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울 외곽에서 상거래 활동을 벌이는 상인 집단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들이었다. 그중에서도 강상 물류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경강상인들, 육상 물류의 중심지에서 활동했던 송파상인들, 원산장에 진출하여 포상鋪商 물건을 매점했던 개성상인들, 충청도 저산苧産 7읍의 모시 매점에 관여했던 상인들과 그 배후세력들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1782년에 비변사에서 어물전민들에게 그 실태를 물어본 것에 대한 다음의 답변에서 위의 실상을 볼 수 있다.

> 양주의 누원 점막은 어상魚商이 왕래하는 요충지인데, 서울 어물전으로 들어올 어물을 이곳 점막 놈들이 모두 쓸어 모으며 가게 이름을 건방乾房이라 칭한다.[5]

4_ 『대전통편』, 「형전(刑典)」, 금제조(禁制條), 세주. "增 廛民之稱以亂廛貽弊外方者 道臣隨現嚴刑 驅迫亂廛人者 決杖 亂廛勿施. 亂廛物件勿爲屬公, 違者施以制書有違律. 扈衛廳所屬亂廛者 法司直爲料治 勿用進來之規."

5_ 『비변사등록』, 정조 6년 8월 7일. "備邊司啓言 招問新入魚物廛民等 則以爲樓院店卽魚商往來之要害處也. 本廛入來魚物 店漢一竝都執 名曰乾房 ……."

당시 누원이 상원上院과 하원下院 또는 상계와 하계로 구성되어 있던 것도 점막의 번성을 반영한 현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원에 관한 많은 기사를 보면 이곳은 그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거래 공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다음은 1787년(정조 11)에 정조가 공시인貢市人이 겪는 폐단을 하문한 것에 대해 비변사에서 회계回啓한 내용인데, 저포전苧布廛 시민들의 입장을 알 수 있다.

> 모시가 생산되는 7개 고을은 사대부 농장이 아닌 곳이 없는데, 시골의 억세고 사나운 무리들이 아무 개 댁이라고 거짓 칭탁하고는 모시를 마구 사들여 집안에 두고 마음대로 판매하므로 장차 시전을 닫아야 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보존해 주는 은택을 입게 해 주소서.[6]

비변사에서는 토산물을 산매散賣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상품을 독점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폐단은 엄히 금해야 할 사항이므로 경외京外에 신칙하여 예전처럼 난잡한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임금의 윤허를 받았다. 다시 말해 17세기와는 달리 이때는 시전상인들의 전을 다스리는 권한인 난전권 남용에 따른 폐막과 시전상인들의 독점권을 위협하는 비시전상인들의 침해 행위가 병존했으며, 정부 또한 두 가지 다른 이해관계에서 어느 한쪽만을 편들지 못하고 개개의 사항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현상들은 꾸준히 늘어난 상거래의 규모와 물량이 일으킨 현상이었다. 다시 말해 소위 '부당' 이득의 원천이 새로 만들어지고 추가되었지만 그 귀속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배분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원칙과 변화된 현실이 불가피하게 충돌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이다.

개별적으로는 이 시기에 특권상인의 위축 현상과는 상반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즉 시전상인들 중 상당수가 기존의 특권적 지위와 수익에 안주하지 않고 도고매점에 적극 개입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부의 원천은 시전상인들 간의 갈등도 고조시켰다. 이와 병행하여 일물일전一物一廛의 원칙이 무너지고 같은 물품을 파는 시전이 늘어나면서 시전 사이에는 영업 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다.

난전 행위에 제재가 가해지면서 기존 시전들은 난전금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분세分稅를 받고 판매를 허용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그 이후로 징세의 범위에 들어 있는 점포에 대한 자내字內 수세권은 기존 시전의 중요한 경제기반이 되었으므로 자내 확보를 둘러싸고 시전상인끼리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양상도 벌어졌다.

6_ 『비변사등록』, 정조 11년 1월 2일. "苧布廛市民以爲 苧產七邑無非士夫農庄 而鄕曲頑悍輩假托某宅 貿易狼藉都執輸置廊底恣意亂賣 將至罷市之境. 各別嚴飭 俾蒙保存之澤云."

그동안 한성부를 통해 시전상인에게 부여되었던 난전권이 18세기 중반 이후로 소상인과 소생산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물가를 등귀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는 등 그 폐단이 자주 지적되자 정부는 시전상인들의 독점권과 난전권을 제한하거나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는데, 이를 통공通共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1791년(정조 15)에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품에 대해 통공화매通共和賣를 허가하는 신해통공辛亥通共으로 이어졌다. 그 핵심은 육주비전 외에는 어느 시전이나 난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좌의정 채제공蔡濟恭(1720~1799년)은 다음과 같이 계품啓稟하였다.

> 근년에 놀고먹는 무뢰배들이 삼삼오오 어울려 전호廛號를 만들고는 민생의 일용 물종을 모두 자신들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큰 것은 말 짐이나 배로 실어 온 산물부터 작게는 머리에 이고 손에 든 것까지 싼 가격에 억지로 사들이며, 혹 물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난전이라고 칭하면서 결박하여 형조와 한성부에 끌고 갑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본전도 되지 않는 값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팔아 버리게 됩니다. 이에 제각기 가게를 벌여 놓고 배나 되는 값을 받는데, 평민들은 사지 않으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부득이 사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게 말고는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값이 나날이 올라 신이 소싯적에 비해 3배에서 5배나 올랐습니다. …… 마땅히 평시서로 하여금 수삼십 년 이래 자질구레하게 새로 설치한 전호를 찾아 모두 혁파하고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육전六廛 외에는 난전하여 잡아 오는 일을 못 하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전권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반좌법反坐法을 적용한다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매매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백성들도 곤궁함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원망은 신이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7]

한편 18세기 중엽 이후 경강 일대 상업의 발전으로 국왕의 순막巡幕 범위는 한강 일대에서 활동하는 경강상인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정부는 경강상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하나가 경강상인이 미곡 등을 매점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1775년부터는 경강에 어사를 파견하여 주민들의 폐막을 시정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공시인 순막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정조는 나아가 이들을 육성하는 상업정책을 취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만큼 도시민의 생활안정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자의 원활한 수급에 경강상업의 비중이 커가는 데 따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7_ 『정조실록』, 정조 15년 1월 25일 경자. "近來遊手無賴之輩 三三五五 自作廛號 凡係人生日用物種 無不各自主張. 大以馬駄船載之産 小而頭戴手提之物 伏人要路 廉價勒買 而物主如或不聽 輒稱亂廛 結縛毆納於秋曹京兆. 故所持者 雖或落本 不得不垂涕泣賣去. 於是乎各列其肆 以取倍價 平民輩不買則已 若係不得不買者 則捨其廛 更不可從他求得. 以故 其價日增 凡物之貴 較覩於臣之年少時 不啻爲三五倍. …… 宜使平市署考出數三十年以來零瑣新設之廛號 一併革罷 分付秋曹京兆 六廛外以亂廛捉納者 非徒勿施 施以反坐 則商賈有和賣之利 民生無艱窘之患 其怨則臣可自當之矣."

2. 조심태의 수원 시전 조성과 읍세 확장 방안

새로 이전한 수원에 시전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는 새 읍치의 취약한 경제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 정확히 말하면 궁여지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그간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변수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시전설치안에 대한 수용 또한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즉 여전히 수원 자체의 소비력은 약하고 유통은 서울로 집중되고 편중된 구조이기는 하나 호서와 호남에서 올라오는 물산들 중 이 일대를 거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서울로 오기 전의 중간 기점으로서 경강변이나 누원처럼 교통의 요지인 수원에서도 어느 정도 상거래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도 고려한 것 같다.

앞서 『영조실록』(1764년, 10월)에 언급된 바대로 영의정 홍봉한은 난전법은 지방상인들이 임의로 매매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난전법을 금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는 임금이 재난대책을 물었을 때 나온 답변으로 향상, 즉 지방의 상인들은 서울 시전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를 풀어 주면 자유로운 상행위를 통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화성 축조 당시도 이어졌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서울 아래 지근거리에 있는 수원에다 서울 시전과 같은 공인화되고 특권화된 점포를 설치하게 되면 지방상인 중 일부에게만 특혜를 주게 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다.

수원 화성은 채제공의 총괄 아래 조심태趙心泰(1740~1799년)의 지휘로 1794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가 1796년 9월에 완공되었다. 이미 1791년의 신해통공 조치가 있은 직후의 일이어서 서울 외곽에 상설시전을 허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진 셈이다. 이읍 초기인 1790년(정조 14) 2월에 좌의정 채제공이 수원 묘당에 관한 방안을 아뢰는 내용을 통해 이와 같은 시전 설치의 계획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전에 수원의 새 고을에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일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방안을 강구하여 아뢰도록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본부本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원래 가난하게 살아오던 터이어서, 옛 고을의 1,000여 호에 가까운 집들이 달팽이집처럼 생긴 오두막뿐입니다. 이번에 고을을 옮기고 나서도 만약 또 예전과 같다면, 거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을 강제로 내몰아 큰 집을 억지로 지으라고 한다면, 비록 을러대고 권고해도 결코 해내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
>
> 길거리를 정연하고 빽빽하게 만드는 방법은 전방廛房들을 따로 짓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선 서울의 부자 20~30호를 모집하여 무이자로 1,000냥을 주어서 새 고을에다가 집을 마주보도록 지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는 재미가 있게 한 다음, 몇 해를 기한으로 차차 나누어 갚게 한다면 조정에도 별로 손해가 없고 새 고을에는 부락을 이루고 도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8]

8_ 『정조실록』, 정조 14년 2월 2월 계축.

화성 축조의 일등공신인 조심태는 무신으로 본관은 평양平壤이고, 자는 집중執仲이며 통제사 경儆의 아들이다. 1768년(영조 44)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여러 무관직을 거친 다음 1785년(정조 9)에 충청도병마절도사가 되었으며, 같은 해 3도 수군통제사로 승진한 후 좌포도대장·총융사에 이어 1789년 7월 11일에 수원부사로 임명되었다. 이때 현륭원顯隆園을 옮겨 오는 일, 도시 규모를 확대하는 일 등 여러 어려운 임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였다. 1790년에 그는 부사로서 새 고을 시정(市井)에 점포를 설치하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본부의 새 고을 시정에 점포를 설치하는 일에 대하여 이미 대신들과 여러 재상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신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물어보았더니, 본부는 삼남으로 통하는 요로이기는 하나 물산이 본디 적어서 비록 부호富戶를 많이 모으고 점포를 설치하려 하더라도 갑자기 생각대로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반드시 본고장 백성들 중 살림밑천이 있고 장사물정을 아는 사람을 골라 읍 부근에 자리 잡고 살게 하면서 그 형편에 따라 관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이익을 남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좋은 대책이 될 것이라고 하니, 이 의견이야말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어떤 관청을 막론하고 이자가 없는 돈 6만 냥을 떼어 내 고을 안에서 부자라고 이름난 사람 중에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 해마다 그 이익 나는 것을 거두게 하되, 3년을 기한으로 정하고 본전과 함께 거두어들인다면 백성들을 모집하고 산업을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 아마 하나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 가서 응모하는 사람들과 구획하게 되면 점포란 명칭의 설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면서 시기에 따라 꾸려 가게 한다면 새 읍치도 완전히 형성될 가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포사造泡寺 중들의 생활이 빈약합니다. 그들에게도 다 같이 참작해 나누어 주고 지혜紙鞋를 만드는 본전으로 삼게 한다면 반드시 혜택을 입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9]

정조는 이미 이읍을 위해 10만 금을 획급劃給하고 조심태의 장계에 따라 국세局勢가 대개大開한 팔달산 아래로 읍치를 정한 후 광주부의 일용一用 양 면, 즉 일용일면一用一面과 일용이면一用二面을 수원부에 획속劃屬시키는 등 읍세를 키우기 위한 조처를 단행하였다.[10]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1622~1673년)은 『반계수록』 유보에서 이미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는 광주廣州 아래 지역인 일용면一用面 등지를 떼어 보태고 읍치邑治를 평야로 옮기면 내를 끼고 지세를 따라 읍성邑城을 쌓을 수 있다."고 하고 "읍치의 규모와 평야가 매우 훌륭하여 큰 번진藩鎭의 기상이 있는 지역으로서 안팎으로 만호萬戶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심태는 1794년에는 승격된 수원부유수로 다시 등용되어 1796년에 봉수대烽燧臺 설치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1796년 1월 22일자 『일성록』에 의하면 그는 수원부가 한남漢南의 요충지여서 관방시설인 봉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올렸으며, 송정松政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건의하여 화성 해변 쪽으로 30리까지를 송산분계松山分界의 거리로 정하고 표지를 세워 금양禁養하라는 임금의 명을 받았다.

9_ 『정조실록』, 정조 14년 5월 17일 정유.
10_ 『일성록』, 정조 13년 7월 15일.





화성행궁 앞 시전과 장시
(「화성도」, 수원박물관 소장, 19세기 초반)

3. 수원 시전의 설치와 운영

화성이 축조되고 화성 안에서 주민들이 생활을 꾸려 간 역사는 200여 년에 불과하다. 즉, 18세기 말의 정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의 상황은 정조의 신도시 건설로 읍치의 이전 등 모든 기존의 것들이 새롭게 바뀌는 시점이었다.

읍치 이전을 전후한 시점에 작성된 『수원부읍지』(1792년)의 기사에 따르면 화성시를 건설하기 위해 "장사를 좀 아는 수원 사람들[邑中 有食根稍解商業者]에게 1만 5,000냥을 대여하여 시전을 개설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입색전·어물전·목포전·미곡전·유철전·관곽전·지혜전 등의 시전이 관문 밖의 대로 주변에 개설되어 인물이 폭주하고 시전이 번성하여 완연히 '대도회'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였다. 1만 5,000냥은 앞서 언급한 대로 1790년 5월에 수원부사 조심태가 건의하여 균역청 관할 진휼청[賑恤廳]에서 대부받은 돈 6만 5,000냥의 일부다. 각 전의 위치와 취급물품은 다음과 같다.

입색전立色廛 : 관문 밖 도로 북쪽, 비단류 취급
어물전魚物廛 : 입색전과 방으로 통하는 곳에 위치, 생선 취급
목포전木布廛 : 관문 밖 도로 남쪽, 백목·모시 등 취급
미곡전米穀廛 : 관문 밖 도로 동쪽, 백미·남초·누룩 등 취급
유철전鍮鐵廛 : 북리北里 부근, 유기류 취급
관곽전棺槨廛 : 미곡전과 통하는 곳에 위치, 관곽 취급
지혜전紙鞋廛 : 관곽전 아래 위치, 종이와 신 취급

여기서 목포전에 대한 세주細註에 보이는 염급상전鹽及床廛, 즉 소금과 상을 취급하는 점포를 포함시키면 수원 시전은 모두 8개의 전으로 구성되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홍재전서』에는 1790년에 정조가 수원 신읍新邑으로 이주한 백성들에게 유시하는 하교가 실려 있는데, 읍지의 내용과는 달리 이읍 후 수원부의 불안정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 이번 행차에 본부를 둘러보니 새 고을의 관사는 비록 틀이 잡혔으나 민가는 아직 두서가 없었다. 그 가운데 이른바 약간 지어 놓은 집이라는 것은 땅굴도 아니고 움막도 아니니 달팽이 껍데기 같기도 하고 게딱지 같기도 하다. 지금 헤아리는 바로는 가옥들이 즐비하고 거리가 번창하여 엄연히 경기 지역의 큰 도회지가 되기란 실로 짧은 시일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만약 별도로 흥기시키고 권면하여 모아들일 방도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내 어찌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늦출 수 있겠는가. 어가를 돌려 돌아오는 날 가마를 멈추고 부로父老들을 불러 물어보았는데 백성들이 어리석어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새 고을이 예전 고을보다 낫게 되는 것은 오직 조정에서 조처하는 바에 달려 있다. 아, 너희 묘당의 신하들은 충분히 협의하여 빈대賓對 때 아뢰도록 하라.
>
> 대개 사람들을 모집하여 들이려 한다면 먼저 생업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생업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기쁘게 해 주고 그 생활을 즐겁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계를 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교역하도록 하는 것이니,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원소園所 국내局內와 국외局外의 토지 지가地價를 너무 빠듯하게 정해서 백성들이 억울해 함이 없지 않다고 한다. 이것은 지방관이 별도로 조사해 내어 넉넉하게 운영하여 완전히 모여서 자리를 잡게 되기를 조금 기다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힘써 농사를 짓도록 해 주는 이외에 다시 직접 장사하여 이익을 볼 수 있게 한다면 장차 집집마다 면모가 달라지는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숙소에 나아가 있으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잊히지 않기에 또 촛불을 가져오라 하여 거듭 유시하는 것이다. 지방관은 부로들을 불러 모아 일일이 분명하게 알려 주도록 하라.[11]

일단 시전 건축물은 1790년 이후로는 제 모습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1791년(정조 15) 1월 10일자 『일성록』에 의하면 정조는 교시를 내려 새로 지은 수원 신읍의 공해公廨와 각 청廳 및 시전市廛 기둥머리에 각기 이름을 쓴 소판小板을 걸어 원행 때 편하게 주람周覽할 수 있도록 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전이 설치된 초창기 상황을 보면 정조의 유시 내용처럼 정부의 지원을 필

11_ 『홍재전서』 제33권, 교4.

요로 하는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1790년 10월 24일자 『비변사등록』 기사에 의하면 비변사에서 식목植木에 수고한 수원 전민廛民의 노고를 갚아 주는 방편으로 기영箕營, 즉 평양감영에서 보관하고 있는 묵은 목면을 허급許給해 줄 것을 청하는 계를 올렸다. 사연인즉, 이들이 1만 그루에 이르는 나무를 자원해서 심은 것은 전방을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자생지도資生之道여서 정부에서 이들의 노고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던 차에 기영에 오래 쌓아 두어 부패하고 상해 가는 목면 1,000여 동 중에 300동에 대한 판매권을 이들에게 준다면 이로써 얻는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해 12월 14일에는 채제공이 한 걸음 더 나가 기영에서 나온 필단疋緞 중 500필을 수원의 입전立廛에 허매許賣하도록 건의하였다.

이와 같이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된 새 시전은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행해 온 민간의 관행적인 상거래를 위축시키는 역기능도 보여 주었다. 채제공은 수원 시전이 저지른 도고의 폐해가 없는 물자가 없어서 심지어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미곡에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새 읍에 이사한 백성들이 통공무취通共貿取의 혜택을 보지 못해 그 고충이 막심하다고 하였다.[12] 암행어사 조진택趙鎭宅도 미곡이 장에 나와도 전인廛人이 먼저 도집都執하여 소민小民이 실리失利하는 바가 심하다고 하였다. 당년 1월 15일자로 통공조치가 내려졌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곧 사라졌을 것으로 보이나 수원 시전 역시 초창기부터 지나친 난전권 행사로 원성을 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전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종목은 소금과 쌀이었다. 화성은 서쪽으로 해안이 가깝고 화성 자체와 부근 동쪽과 남쪽으로 쌀 생산지가 있어 소금과 쌀 거래량이 클 수밖에 없다. 『천일록千一錄』의 저자 우하영禹夏永은 다음과 같이 화성의 남북에 개설된 장시에서 소금 판매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 지금 화성부의 남북 장시를 보면 염리鹽利가 가장 크다. 남시장에서는 평시에 장마다 매매되는 양이 항상 100여 바리[駄]가 되며, 3·4월 간장을 담글 때나 8·9월 김장을 할 때면 하루 팔리는 양이 수백여 바리에 이른다. 화성부의 민인으로 염상鹽商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모으되, 말을 장만하여 행상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의 힘에 맡기고, 스스로의 힘이 없는 자에게는 각각 25냥을 주어 본전으로 삼아 말을 장만하고 소금을 구해 행상을 하게 도와야 한다.[13]

앞에서 언급된 『수원부읍지』를 보면 수원 인구는 전체 인구보다는 원호元戶에 대한 기록만 있는데, 이는 그만큼 수치로서 파악되지 않는 유동인구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 『일성록』에 나오는 조심태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중에는 유생이 많았는데, 이들은 취식就食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 응시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화성 시전과 시장의 번창은 화성 건설을 전후로 외부로부터 유입된 농

12_ 『일성록』, 정조 15년 1월 21일.
13_ 「관수만록(觀水漫錄)」 권하, 「십이왈모민흥판지책(十二曰募民興販之策)」.

업노동자의 증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조건 등 농업 생산에서의 이들의 존재방식은 고공雇工이거나 그와 유사한 형태로서 화성 건설 이후 형성된 전통으로 보인다. 즉 1795년 만석거 축조, 1798년 만년제 축조, 1799년에 축만제와 서둔西屯 설치, 그리고 1825년에 남제南堤 축조 등에서 보이듯이 수원의 농업조건의 향상과 경작지 면적의 증가는 국가의 정책사업에 힘입은 것으로 인구의 자연증가로 채워질 수 있는 노동력 규모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또한 새로운 수원에 의해 수리水利를 얻게 된 개간지의 대부분은 둔전屯田으로서 일 년을 단위로 하는 자유로운 고공임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농토여서 지주와 농민 간의 기존의 사사로운 소작관행을 벗어나 있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유동적인 농업인구가 외지로부터 흘러들어 오고, 또 나가는 양상을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조건과 고용구조가 안정되면서부터는 쌀 생산의 잉여가 생김으로써 화성의 재정도 흑자운영을 하였던 것 같다. 수원이 소금은 물론 쌀 유통의 중심지가 된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조의 을묘년(1795) 원행이 남긴 다음과 같은 정리곡整理穀에 대한 운영방침을 보면 화성 경영에서 비롯된 잉여 곡물이 전국에 고루 분배될 정도였다.

「3도三都 및 8도八道의 을묘정리곡 설치에 관한 절목」

一. 정리소 구획전區劃錢 10만 3,061냥 중에 행행行幸 때 각 항목으로 쓴 것이 6만 3,061냥이고 화성 설비에 쓴 비용이 1만 냥, 제주도 진휼로 나간 돈이 1만 냥이어서 지금 2만 냥이 남아 임금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를 전국 8도와 화성, 개성, 강화 등에 분배하여 각 읍이 이를 작물로 바꾸어 을묘정리곡乙卯整理穀이라고 칭하여 부르게 한다. 경기도는 2,000냥, 호서·호남·관서는 각 3,200냥, 영남은 4,000냥, 화성·관동·해서·관북은 각 1,000냥, 송도와 심도沁都, 즉 강화 양 도에 각 200냥을 본소에서 정한 교리가 차례로 역을 잡아 보내실 것.

一. 각 도에서는 도신道臣, 즉 관찰사가 읍의 대소를 비교하여 곡식을 고루 분배한 다음 읍 이름과 분배한 섬의 수를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되 이를 관리하는 일은 비변사 유사와 당상이 한다. 해마다 조적糶糴과 아울러 회록會錄하고 매년 연말에는 실제 수를 보고한다. 화성, 개성, 강화 3개 도 역시 이 영에 따라 거행하실 것.

一. 이 곡식을 300개의 주현에 나누어 두는 것은 임금의 성은이 넓게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오래도록 이를 잘 전하여 그 뜻이 유구하도록 해야 할 것인즉 그 소중함은 저치향환儲置餉還 등에 쓰이는 곡물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를 거두고 배포할 때에 혹 간악한 향리가 흉년에 어지럽게 놓아두어 줄어드는 일이 있다면 그 고을의 수령에게 환곡휴흠률還穀虧欠律(즉 환곡의 결손 부분을 추궁하는 법률)을 가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지를 따지고 도신道臣에게도 역시 죄를 논할 것이다. 비변사에서는 낭청을 파견하여 잘못을 적간摘奸하여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어지는 폐가 없도록 하실 것.

一. 정리소 곡식은 매우 소중하므로 조적모糶糴耗, 상생모上生耗를 해마다 늘리되 폐단이 일어날까 염려되므로 7년 기준으로 한정하여 4만 섬을 원곡原穀으로 만든 다음 매년 이식으로 늘어나는 곡식은 정리

사를 겸하고 있는 화성유수가 행궁의 정리 사업에 쓰도록 지급하실 것.

一. 정리곡은 각 아문의 곡식과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시되 1개의 창 내에 별도로 창고 하나를 두고 표지를 걸어 두어 곡식을 주고받을 때에 다른 것과 구분됨을 알리어 아녀자나 어린 아이도 그 양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모두 임금의 자은慈恩에서 나온 것으로 경작을 하거나 추수를 할 때도 또한 이것이 다른 곡식과 다름을 알게 하실 것.

一.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하실 것.

이상과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기 조선사회는 화폐경제의 확대와 도시화의 진전이 이루어져 시장을 상대로 한 쌀 생산은 물론 면화·담배·인삼·채소 등 특용작물의 재배도 활발하였다. 화성부 주변 지역 장시에서는 쌀·어염·소·채소·담배 등의 집산과 교역량이 많았다. 수원장에는 남양만에서 생산되는 어염과 수원 및 주변 농촌지역에서 수확된 쌀이 모여 거래되면서 염상鹽商과 미상米商의 거래가 더욱 활기를 띠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역 중심지로서의 이러한 상황은 일제시기에도 이어졌다.

1797년(정조 21)에는 화성 시전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 부유한 자 20인으로 작계作契하고 화성으로 이주시켜 집을 짓고 살아가게 한다는 방침을 세워 두고 이에 따른 절목 14조를 제시하였다.[14] 구체적으로는 이주 가호들에게 대로변 남북으로 기와집을 짓게 하고 이를 위해 목재 구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이들에게 5~6인 혹은 3인 정도의 차인差人을 붙인다고 하였다. 본부 교리청에는 매년 1,000냥씩 반분하여 획급劃給하는 등 재정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 당시 시전이 안정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러 조치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원 시전의 발전은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도 있겠지만 실은 신읍치가 구읍치보다 좀 더 북쪽에 자리하였고, 새로운 능행로陵幸路도 개설됨으로써 호서와 호남으로 가는 새로운 대로大路가 생기게 되었다는 점에 힘입은 바가 더 크다. 화성 건설 이후 충청도와 전라우도는 금천과 수원의 통로, 즉 시흥길을 경유하고, 충청도과 경상좌도는 광주廣州·이천의 통로를 경유하며, 전라좌도와 경상우도는 과천果川의 통로를 경유하게 되었는데, 이 중 시흥길이 열린 것은 정조의 잦은 원행이 낳은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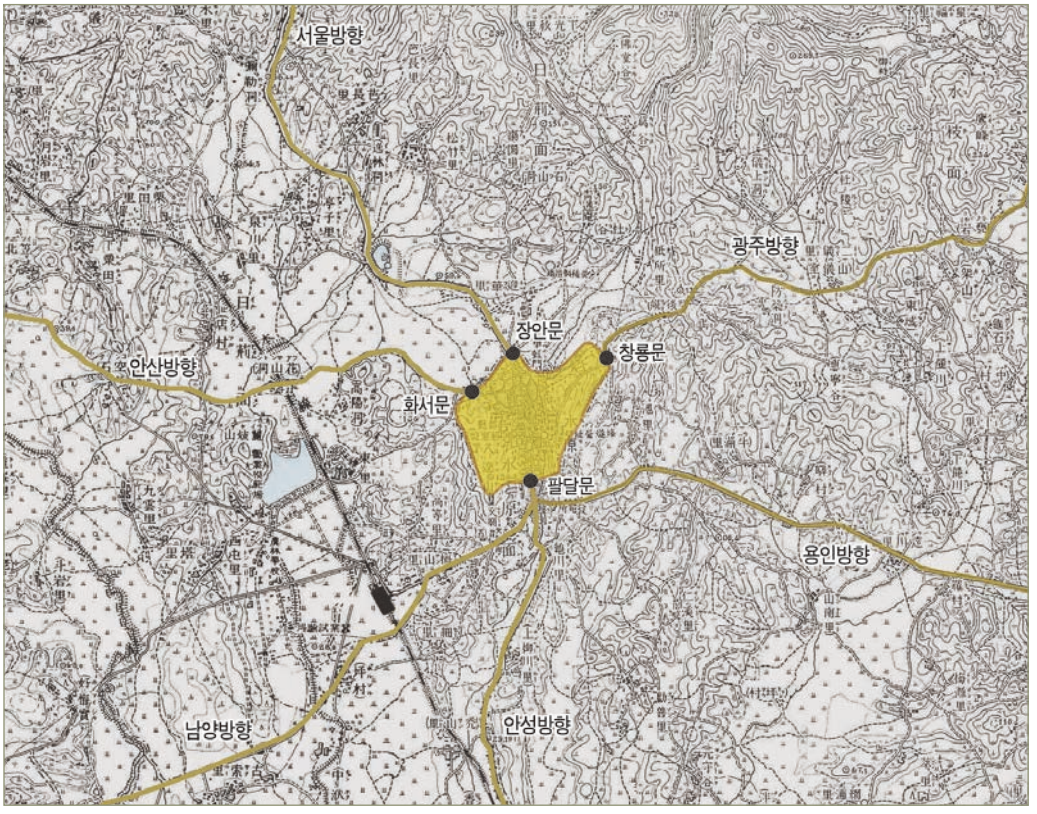
십자가十字街나 십자로十字路는 화성의 장안문과 팔달문을 잇는 남북도로와 창룡문과 화성행궁에 이르는 동서도로를 말한다.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직교한 형태의 '열 십자'를 닮았다 하여 '십자가'라는 이름이 붙었다. 『화성성역의궤』에는 '십자로'라고 나와 있다.

18세기 말에 새로 조성된 읍치에서 시작된 수원은 여러 점에서 종래의 도시들과는 달랐다. 그러나 흔히 이야기되듯 상업이 활발한 도시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짧지 않

14_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2월, 「화성부내신접부실호삼모구획절목(華城府內新接富實戶蔘帽區劃節目)」.



화성 내 도로체계



도로망과 유통로의 발달

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지방도시는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동서남북이 교차하는 도로는 쉽게 볼 수 없다. 화성 도로의 중심부를 십자로라고 명명한 것은 사통팔달의 이념이 담겨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이는 다른 읍성과는 달리 동서남북 네 방향에 문을 내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서쪽에 주산인 팔달산이 있고 또 서쪽 방향 도로의 정점에 관아와 행궁을 두었기 때문에 십자로는 완전한 직로는 되지 못하고 화서문으로 연결되기 위해 우회하게 되는 점은 있다.

기존의 삼남으로 가는 제주로의 방향이 군포에서 동화역을 거쳐 수원 구읍성의 서쪽을 지나 세람교를 건넌 후 독산성 방향으로 내려가는 곡선 남행이라면 정조의 능행은 수원 신읍新邑, 즉 화성을 들른 이후여서 구읍성의 동쪽을 지나는 직선 남행이 된다. 그뿐만 아니다. 구포鳩浦와 유포柳浦 그리고 빈정포濱汀浦는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에 속한 주요 포구인데, 여기서 수원으로 가는 길은 현 수원시 오목천동–고색동–세류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 길은 옛 수원 시절에는 물자의 이동이 드물었던 곳인데, 시흥길에 힘입어 남양장을 좀 더 북쪽에 위치한 수원 시전과 시장으로 연결시키는 주요 유통로가 된 것이다. 즉 십자로가 상징하듯 신읍치를 중심으로 남북과 동서로 이어지는 길들이 새로 열리면서부터 수원의 시전은 안정기를 맞이하기 시작한 것이다.

SUWON HWASEONG

염정섭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04
농업 기반의 조성과 운영

1. 경세치용학파의 전제개혁론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쳐 제출된 관료층과 재야 유학자의 사회개혁론은 그동안 대체로 '실학實學'이라고 불려 왔다. 18세기를 중심으로 당시 조선사회의 각 방면의 병폐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개혁론을 실학이라 하고, 이를 주장한 사람들을 실학자라고 하였다. 1950년대 천관우는 실학을 근대 지향적이고 민족지향적인 조선 후기의 학풍으로 파악하였다.[1] 그리고 1970년대에 이우성은 실학을 경세치용經世致用, 이용후생利用厚生,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세 분야로 나누어 파악할 것을 제안하였다.[2] 여기에서 경세치용은 제도개혁을 주창한 유형원柳馨遠(1622~1673년)과 이익李瀷 등 초기 실학자들의 학풍을 가리키고, 이용후생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상업의 중요성을 주창한 18세기 후반기의 북학파北學派의 사상을 가리키며, 실사구시는 청대 고증학考證學을 받아들인 김정희金正喜 등 19세기 이후의 실학을 가리킨다.

경세치용학파는 대체로 성호星湖 이익을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이른바 성호학파星湖學派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호학파에 속하는 실학자로 사학의 안정복安鼎福, 지리의 이중환李重煥·윤동규尹東奎·정상기鄭尙驥, 산학算學의 신후담愼後聃 등이 지목되고 있다. 그리고 정약용丁若鏞과 우하영禹夏永 등도 이익의 실학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익 자신이 앞 시대 인물인 유형원의 개혁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형원을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성호학파에서 강조한 경세치용의 가장 커다란 관심 분야는 농업 중심의 제도개혁론이었다. 중농주의重農主義의 입장에서 토지 소유, 농업 경영 등과 관련된 제도를 개

1_ 천관우, 「반계 유형원 연구」 상, 『역사학보』 2, 역사학회, 1952.
2_ 이우성, 「실학연구서설」, 『실학연구입문』, 일조각, 1973.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隨錄)』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혁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이용후생의 입장에서 상업을 중시하는 북학론北學論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경세치용을 강조한 유형원과 이익은 우선 농촌경제, 농업 경영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은 토지소유관계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전제田制개혁론을 제기하였다. 전제개혁론이란 당시의 토지 소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었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토지와 관련해서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토지 소유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급진적인 방책이 전제개혁론이었다.

17세기 중반 조선사회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론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반계磻溪 유형원이었다. 유형원은 조선 국가의 생산력 기반을 평가하고 이를 크게 신장시키기 위한 모색을 가장 체계적으로 수행한 인물이었다. 그는 『반계수록磻溪隨錄』 등 여러 저술을 지어 국가체제의 전반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반계수록』은 가장 체계적인 국가개혁론을 담고 있는 저술로 주목받아 왔다.[3]

유형원의 국가개혁론은 17세기의 국가체제 전반을 개혁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4] 그의 개혁론은 정통 주자학자와 관인층의 체제 유지방식과 다른 것이었다.[5] 그의 개혁 구상은 주자학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정치제도 및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것으로서 방대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6] 그는 특히 국가개혁론의 중점을 농정農政에 놓고 특히 전제田制, 즉 토지 소유문제에 대한 개혁론을 주요하게 제시하였다.

유형원이 제시한 토지 소유 개혁안은 정전법井田法에 입각한 공전제公田制였다.[7] 그는 정전법에 의해 경계經界가 바로 서면 민民이 항업恒業을 갖게 되고 병兵을 별도로 수괄하는 폐단도 없어지며, 귀천과 상하가 모두 본분에 맞게 "각각 자기 할 일[其職]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분수分數가 절로 정해지면서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정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전법이 무너지게 된 것은 후대 대토지사유제의 발달에 따라 전제가 무너지고 사점私占이 횡행한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정전제의 이념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당대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첫째는 지형이 넓지 않더라도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고, 둘째는 공전公田을 두지 않더라도 10분의 1세를 시행할 수 있으며, 셋째는 채지采地를 꼭 두지 않더라도 관리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즉 정자井字 형태로 구획하지 않더라도 정전井田의 실제를 모두 그 안에 갖추어지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8]

유형원은 정전법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공전제를 주장하였다. 공전제의 첫째 특

3_ 유형원의 사회개혁론에 대해서는 천관우의 연구(천관우, 「반계 유형원 연구-실학 발생에서 본 이조사회의 일단면」, 『역사학보』 2·3, 1952~1953; 천관우, 「반계 유형원 연구 疑補」, 『역사학보』 10, 1958)와 정구복의 연구(정구복, 「반계 유형원의 사회개혁사상」, 『역사학보』 45, 1970) 참조.

4_ 천관우, 「반계 유형원 연구」 상, 『역사학보』 2, 역사학회, 1952.

5_ 김용섭, 「주자의 토지론과 조선후기 유자」, 『연세논총』 21, 연세대, 1985; 김준석, 「유형원의 공전제 이념과 유통경제 육성론」, 『인문과학연세대』 74집, 연세대, 1996.

6_ 김준석, 「유형원의 변법관과 실리론」, 『동방학지』 75,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2; 김준석, 「유형원의 정치·국방체제 개혁론」, 『동방학지』 77·78·79 합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3.

7_ 이헌창, 「반계 유형원의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10, 조선시대사학회, 1999; 최윤오, 「반계 유형원의 정전법과 공전제」, 『역사와 현실』 42, 한국역사연구회, 2001.

8_ 『반계수록』 권1, 「전제(田制)」 상, 분전정세절목(分田定稅節目).

징은 공전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공전이란 사적 소유지로서의 사전私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유지 또는 국유지라고 불리는 국가적 소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전제는 개인의 사적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환원하려는 것이다. 사전을 혁파하는 것은 곧 토지세습제를 혁파한다는 뜻으로,[9] 사전이 세습되면서 나타나는 토지겸병과 농민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공전제를 통해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10]

대개 공전이나 사전은 별개가 아니라 모두 이 땅에 함께 설치된 것이지만 단지 공전은 공평하고 균등하며 사전은 사사롭고 편벽된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전 대신 공전을 통해 제반 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공전은 백성의 산업이 항구하고 인심이 안정되며 교화를 이룰 수 있고 풍속을 넉넉하게 할 수 있어서 만사가 각기 그 분수分數를 얻게 되지만, 사전은 이와 반대여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11]

유형원은 병작竝作의 관행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즉 모든 토지에서 스스로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맡겨 병작하게 하는 법령을 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는 사대부같이 귀한 자가 갑자기 농사일을 할 수는 없고 맹자가 말한 것처럼 노심자勞心者가 노력자勞力者에게 경작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제도화시키려는 것이었다. 다만 경작자는 5분의 4를 취하게 하고 전주田主는 5분의 1만을 취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관에 고발하여 전주의 몫인 5분의 1도 모두 몰수하여 나누어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 역농자力農者는 그 노력만큼 취하게 될 것이며 스스로 경작하지 않는 자도 남는 땅에 이익이 없어, 겸병의 폐단은 저절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12] 그러면서 이와 같은 병작 관행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공전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형원은 공전을 행하려면 결부結負법을 고쳐 경묘頃畝법으로 해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우리나라의 결부에 관한 규정은 본本을 놓고 말末을 취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결부법의 결부는 전답의 비옥도에 따라 절대면적에 차이가 있지만, 경묘법의 경묘는 어느 지역이나 절대면적이 동일하였다. 그는 공전제를 시행하려 한다면 이 결부법을 고쳐서 경묘법을 써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운데 균부균세均賦均稅를 통한 균민평정均民平政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고치는 일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다.[13]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통해 국가체제의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가 표방한 경자유전耕者有田과 균전제均田制의 논리는 토지는 국가가 공유하고 농민들에게 일정량의 경지만을 나누어 주는 균전제를 실시하

9_ 정구복, 「반계 유형원의 사회개혁사상」, 『역사학보』 45, 역사학회, 1970.
10_ 김준석, 「유형원의 변법관과 실리론」, 『동방학지』 75,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2.
11_ 『반계수록』 권2, 「전제」 하, 전제잡의부(田制雜議附).
12_ 『반계수록』 권2, 「전제」 하, 전제잡의부.
13_ 『반계수록』 권1, 「전제」 상, 분전정세절목.

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균전제는 토지국유제를 바탕으로 하여 당시의 신분질서를 인정하고 모든 농민에게 균일하게 토지 배분을 하려는 것이었다.[14]

성호학파의 종장인 이익은 조선의 농업현실에 근거한 전제개혁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토지 소유 규모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한전론限田論을 제시하였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 규모에 제한을 두고 그 이상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었다. 이익의 전제개혁론은 균전을 최종 목표로 설정한 한전론이었다.[15] 이익의 전제개혁론은 일정 규모 이상 농토를 한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익은 나라 안의 토지가 대부분 호세豪勢 계층이 차지하고 있고 백성들은 송곳 꽂을 땅도 없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전제개혁론을 제안하였다.[16] 먼저 나라에서 1호戶에 배당하는 기준 면적을 정해서 제한하고 이를 1호의 영업전永業田으로 삼게 하였다. 그는 제한하려는 영업전의 면적을 대체로 100묘畝로 정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현재 그 영업전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에게 넘치는 부분을 빼앗지도 않고, 영업전 면적에 미치지 못한 자에게 더 많은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었다. 이익은 어떻게 균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진 영업전 이외의 전지田地 매매賣買를 자유롭게 허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한된 영업전 이외의 전지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자유 매매를 허락하는 것은 곧 제한된 영업전은 매매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토지 매매의 허가 여부는 영업전인지 여부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매매원칙은 부귀자富貴者의 현실적 세력을 무시하고는 토지 소유체제를 개편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영업전을 농민들이 확보하고 있으면 겸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지가 많은 부호일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아들에게로의 분점分占과 불초자不肖子의 파락破落 등으로 말미암아 평민과 균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익의 생각이었다.[17]

영업전의 매매를 불허하고, 어길 경우 크게 처벌하도록 방침을 세워 두고 있었다. 대개 전지를 파는 자는 반드시 빈민貧民이므로 빈민으로 하여금 전지를 팔지 못하게 하면 매자賣者가 드물어져서 겸병兼倂이 덜해질 것이고, 빈민이 혹 재력이 있어 전지를 얻을 수 있으면 촌척寸尺의 전지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빈민의 토지 매매가 없어지면 전지의 균점상태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당연히 전토의 매매는 관에 보고하여 허락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즉 모든 토지매매는 관에 보고하여 관에서 전안田案에 기록한 후 문권文券을 만들어 준 뒤에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관의 인문印文이 없는 것은 토지 매매의 법적 보증이 되지 못하게 하며 소송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8]

이익은 농본農本 국가에서 전제의 개혁을 통한 자급자족적인 농업사회를 이상으로

14_ 홍덕기,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사상 연구-여전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5_ 김용섭, 「조선후기 토지개혁론의 추이」, 『증보판 조선후기농업사연구』 II, 일조각, 1990.

16_ 『성호사설』 권7, 인사문(人事門) 결부지법(結負之法).

17_ 『성호속집』 권15, 「잡저(雜著)」, 논전제(論田制).

18_ 『성호선생전집』 권30, 「잡저」, 균전론(均田論).

삼고, 농업에 방해가 되는 수공업이나 화폐의 유통을 금지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극심한 사회 변동 과정에서 몰락하는 소토지농민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한전제를 주장하였다. 모든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한 유형원의 공전제와 이익의 한전제를 비교하면, 일정한 생활근거를 보장하면서 남은 토지의 자유 매매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당시의 현실에 근거한 방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수리시설의 축조와 활용

정조의 주도로 화성 성역이 착수되던 당시 화성부 경내는 인가人家가 그리 많지 않은 곳이었다.[19] 화성부에 축성築城 작업이 시작되면서 도회지都會地로 점차 변모하게 되었다. 앞선 시기에 허허벌판이던 고을 터의 경우 5~6호 정도의 민가만 모여 있던 곳이 성역이 진행된 몇 년 사이에 1,000여 호나 되는 민가가 들어설 정도로 바뀌었다.

화성 성역의 주요한 부분은 축성공사와 여러 건물의 건축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시 기반시설과 농업 관계 시설도 축조되었다. 특히 치수책治水策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수리水利 관계 시설의 축조가 진행되었다. 정조 대 후반 화성 성역은 전반기의 규장각과 장용영 설치에 뒤이어 정조 대 정치적·경제적 제반 시책을 대표하는 사업이었다.[20] 화성 성역이 진행되면서 1794년 이후 화성부에 농업 기반을 제공하는 수리시설로서 제언堤堰이 축조되었다.

화성 성역을 한창 진행하던 1794년(정조 18) 전국적인 극심한 한재旱災가 발생하였다. 삼남 지방을 비롯한 전국적인 가뭄으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 도래하자 정조는 화성 성역의 진행 여부를 놓고 10월 19일 제신諸臣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조는 성역을 계속 진행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화성 지역에서 재원을 마련할 방도[生財之道]를 강구해야 한다고 논의를 정리하였다. 정조는 "화성 북쪽 평평하고 비어 있는 땅을 여러 척尺에 한정하여 부토浮土를 척거拓去하고, 인수引水하여 관개灌溉하며, 백성으로 하여금 기간起墾하게 하면 10년이 지나지 않아 옥야沃野가 될 것이다."라고 정역停役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분명하게 내비쳤다.[21] 정조가 성역을 중단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화성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재원을 둔전屯田의 설치를 통해서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둔전의 원활한 농업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수리시설을 축조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하였다.

19_ 『천일록』 1집, 건도(建都) 부산천풍토관액(附山川風土關扼), 화성부(華城府).
20_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996, 122쪽.
21_ 『화성성역의궤』 권1, 연설(筵說), 갑인 10월 19일.

정조는 제신과 논의한 10월 19일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1일 「유화성성역동공제신윤음諭華城城役董工諸臣綸音」을 통해 화성의 축성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왕명을 내렸다. 같은 날 정조는 수원유수에게 착실하게 수리시설과 둔전을 조성하도록 당부하였다.[22] 이에 따라 장안문 북쪽 지역에서 황무지를 개간해 둔전을 조성하고 안정된 둔전의 경영을 위해 거대한 수리사업이 진행되었다.

정조가 내려준 내하전內下錢 2만 냥으로 둔전을 개발하고, 남은 여전餘錢 가운데 5,960냥으로 1795년(정조 19) 봄에 만석거萬石渠를 축조하였다. 만석거는 1795년 3월 1일 공사가 시작되어 5월 18일 완성을 보게 되었다.[23] 완성된 만석거의 크기를 살펴보면 둘레가 1,022보(1보=주척 6척(20.8㎝×6)=1.25m, 1,275.5m), 상심上深이 7척(포백척布帛尺이므로 3.27m), 하심下深이 11척(5.14m), 제장堤長이 725척(338.6m), 하후下厚가 52척(24.3m), 상수광上收廣이 17척(약 8m)이었다. 둑은 남쪽 토안土岸에서 시작하여 북으로 석애石崖로 이어졌다.

만석거에 모인 관개수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형태의 수문水門이 설치되었다.[24] 하나는 북쪽 바위층[北崖]을 파서 만든 수구水口로 만석거 내부의 수위水位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위가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수월처 또는 무너미라고 부를 수 있는 시설이었다. 다른 하나는 만석거의 남단 수로水路 입구에 설치한 수갑水閘이었다. 수갑은 중국의 강남 지역에서 널리 보급되었던 수문水門으로 판목板木을 이용하여 쉽사리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였다.[25] 이 만석거의 수갑은 사실 수두水竇라는 구조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된 것이었다.[26] 만석거 아래의 수리의 혜택을 입는 곳은 고등촌古等村 북평北坪에 해당하는 지역이었고, 장안문 바깥의 신간처로부터 모두 대유평大有坪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화성 장안문 밖의 넓고 척박했던 대유평은 만석거라는 수리시설에 의해서 수전 지역으로 바뀌어 둔전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27]

만석거는 장안문을 나와서 북으로 5리 정도 떨어진 지하동芝荷洞의 입구에 있는 진목정眞木亭의 아래에 위치하였다.[28] 이곳에서 개천을 가로질러 제언을 쌓아 만석거를 만든 것이었다. 1795년 가을 저수를 마치고 남쪽 제방에 영화정迎華亭이라는 정자를 세웠다. 만석거에서 특이한 것은 이곳의 제방이 필로蹕路, 즉 국왕의 어로御路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29] 만석거의 제방을 어로로 확보한 것은 정조의 농업강화책을 비유적으로 잘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화성부에 만석거를 축조한 농업상의 효과는 1797년(정조 21)과 1798년(정조 22)에 연달아 발생한 가뭄을 겪으면서 뚜렷하게 정조와 화성 주민에게 인식되었다. 2년 연속 일어난 한재旱災로 많은 재해지가 발생하였다. 삼남 지역 전부가 가뭄의 커다란 피

22_ 『화성성역의궤』 권1, 연설, 갑인 11월 1일; 『정조실록』 권41, 정조 18년 11월 1일 을유.

23_ 『화성성역의궤』 권수, 각항일자(各項日字).

24_ '거(渠)'는 본래 "引川水爲渠 以資沃灌"(王毓瑚 校, 『王禎農書』 農器圖譜 集之十三, 農業出版社, 341쪽)이라고 하여 물을 끌어들이는 수도(水道)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였다. 그런데 만석거는 물길을 만들면서 저수하기 위해 축제(築堤)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거'를 갖춘 '제(堤)'라고 할 것이다(『화성지』 권2,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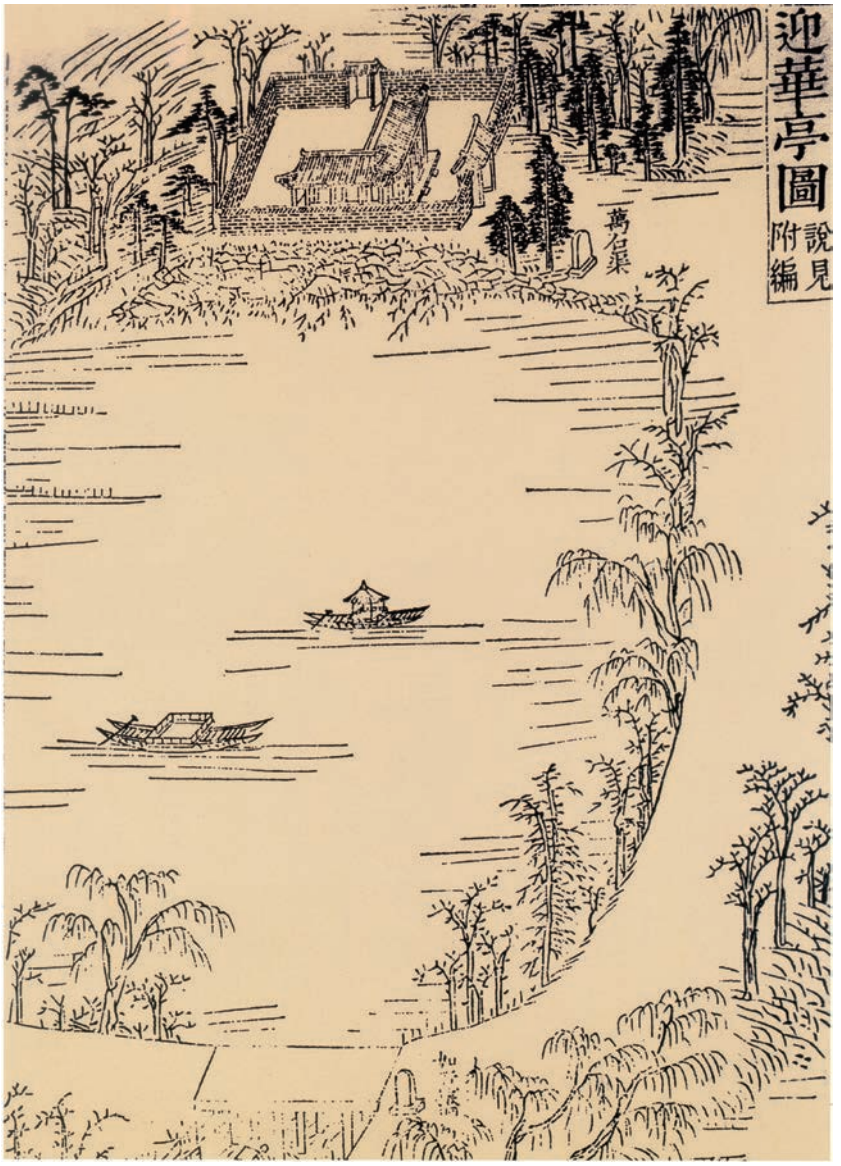
25_ 수갑은 개폐할 수 있는 수문으로 가뭄을 만났을 때 철폐하여 관전(灌田)하여 백성이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실로 수리의 총규(總揆)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서광계, 『농정전서』 권17, 수리, 관개도보 수갑).

26_ 『화성성역의궤』 부편1, 정거(亭渠), 만석거.

27_ 『화성지』, 제언; 『화성성역의궤』 부편2, 대유둔설치절목.

28_ 『화성성역의궤』 부편1, 정거, 영화정(迎華亭).

29_ 『화성성역의궤』 권5, 재용(財用) 상, 실입(實入)2, 신작로.



1795년(정조 9) 가을에 완공된 만석거
(『화성성역의궤』, 「영화정도(迎華亭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만석거 남쪽 제방에 영화정을 세웠다.

해를 피할 수 없었는데, 화성 지역의 대유둔전大有屯田은 만석거에 힘입어 극심했던 한재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다. 1798년 정조는 제언(만석거)이 아직 축조되기 이전에는 황전荒田 폐답廢畓으로 쑥만 울창하게 자라는 데 불과하였던 땅이 제언이 축조된 이후에는 물줄기가 호탕하게 되어 버려진 땅이 비옥한 전지田地로 변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4·5월의 가뭄 속에서도 제언 아래에 있는 수백 석의 큰 평야는 한결같이 곡식이 잘 자라고 있어 재해를 재해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였다.[30]

30_ 『홍재전서』 권170, 일득록 서용보 무오록.



연꽃 가득한 만석거(수원박물관 소장)

만석거가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난 1797년 6월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는 만석거의 효용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거론하면서 경내境內에 있는 제언 가운데 인색堙塞되어 있는 것의 소준疏濬, 즉 보수·개축을 건의하였다. 또한 조심태는 호미질, 즉 제초가 끝난 뒤에 현륭원顯隆園 동구洞口에 자리하고 있던 만년제萬年堤 등의 소준을 민정民丁에게 매일 양미糧米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심태가 건의하여 정조의 응낙을 받은 작업은 실제로는 새로운 제언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언을 보수·개축하는 것이었다.

1798년에도 만년제의 소준작업이 수행되었다. 그런데 이때의 공사는 만년제를 거의 새로 축조하는 수준의 것이었다. 2월 13일 만년제 소준공사가 시작되었는데,[31] 이에 앞서 2월 11일 정조는 만년제 소준을 시역始役하는 날에 고후토제告后土祭를 지낼 때 헌관獻官을 내려 보내도록 명하였다.[32] 내하전 6,000냥을 자금으로 하여 2개월여가 지난 4월 15일 공사를 마쳤다.[33] 정조에 따르면 만석거의 축조와 대유둔의 건설을 실행할 때에는 백성들이 머리를 흔들며 즐겨 나서지 않아 여러 차례 권유하고 신칙하고서

31_ 『일성록』, 정조 22년 2월 15일 기유(26-185나). "召見 壯勇提調 鄭民始 壯勇大將 趙心泰 于重熙堂."

32_ 『일성록』, 정조 22년 2월 11일 을사(26-173다). "命華城萬年堤 始役日 告后土祭時 獻官下送."

33_ 『일성록』, 정조 22년 4월 28일 임술(26-440가). "萬年堤役 告成 命監董差使員 趙允植 等 施賞有差."



만년제 위치(『건릉지(健陵誌)』 권1, 「능원침내금양전도(陵園寢內禁養全圖)」,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야 일을 마쳤는데, 만년제의 소준공사는 백성들이 자신의 노심초사함을 알아서 즐겨 고역에 나섰다고 한다. 만년제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동垌을 만들고 제堤를 쌓은 다음, 둑 위에 버드나무와 떼를 입히거나 은구隱溝를 만들거나 소나무를 심는 형태로 만들어졌다.[34] 1798년의 공사는 명목적으로 신축공사가 아니라 개축하기 위한 공사이거나 보수공사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조가 백성들의 성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의 규모에 비해서 훨씬 증대된 규모의 제언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신축공사와 맞먹는 공사비가 투하되었다. 즉 만년제 축조의 실질적인 완성은 정조의 명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진 1798년이었고, 이 축조공사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제언의 개축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1797년과 1798년에 만년제에서 수행된 공사는 『일성록』 기사를 근거로 살필 때 소

34_ 『일성록』, 정조 22년 4월 28일 임술(26-440가). "萬年堤役 告成 命監董差使員 趙允植 等 施賞有差."



「만년제비」(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준공사, 즉 보수·개축 공사임이 확실하다. 그런데 1831년에 만들어진 『화성지華城志』는 만년제를 소개하면서 "정종정사축正宗丁巳築"이라고 하여 1797년에 축조된 것으로 기록하였다. 읍지의 기록은 만년제의 축조 연대를 1797년으로 비정하는 것이지만 다른 기록을 통해서 만년제 자리에 이전부터 제언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방축수防築藪라는 이름의 제언이 있었는데 1795년에 만년제로 개칭하였던 것이다.[35] 이로써 1797년 등의 기록에서 만년제라는 명칭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797년에 만년제가 축조되었다는 읍지의 기록은 1797년과 1798년에 걸친 대대적인 소준 작업의 결과 만년제의 면목이 크게 일신된 데에서 연유하는 전승의 착오가 기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만년제도 만석거와 마찬가지로 저수를 적당하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수갑이 설치되어 있었다. 대대적인 개축이 이루어진 지 1년 정도 지난 1799년 5월 별군직 조계가 보고한 견문을 보면, 만년제 아래에 있는 논에서 이앙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1층 수갑을 8층까지 무너뜨려 차차로 물을 내보내고 있었다.[36] 이때 제언에서 공급하는 물의 혜택을 입고 있는 논은 거의 30여 석락이라고 추산되었다.[37] 이러한 사정 속에서 조계는 제언 안에 담겨 있는 저수貯水로 충분히 이달까지 관개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면서 통감관筒監官에게 물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었다.[38]

1799년에 이르면 새로운 제언인 축만제祝萬堤가 화성부 서쪽 5리에 축조되었다. 1799년 2월 20일 이전 아마도 2월 초순경에 제언 축조공사를 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799년 2월 2일 당시 수원유수였던 서유린徐有隣은 정조와 소견하는 자리에서 화성에 폐기된 제언이 24곳 있는데 미두米豆를 받아 생계를 꾸려 나가려고 소망하고 있는 백성을 고가雇價로 고용하여 소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서 정조의 동의를 받았다.[39] 이후 축만제 축조에 연관된 언급이 보이지 않다가 2월 20일과 23일에 서둔西屯의 동역垌役, 즉 서둔에 제언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월 20일 서유린은 별단을 올려 서둔의 동역을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물력으로 본부本府에서 내놓을 것이 없으니 먼저 균역청에서 빌려서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40] 정조는 균역청에서 이 사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하였다. 그에 따라 2월 23일 균역 당상 정민시가 우선 균역청의 전錢 1만 냥을 획급하고 이로써 완성하게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받아들여졌다.[41] 결국 서둔에 축만제를 축조하는 공사는 균역청에서 빌린 1만 냥을 재원으로 삼아 수행되었다.

1799년 2월 초순에 시작된 축만제 축조공사는 5월 9일 이전에 완료되었을 것으로

35_ 『화성지』, 필로(蹕路).
36_ 『서계등록(書啓謄錄)』(규 13018), 기미 5월 15일.
37_ 『서계등록』, 기미 5월 15일.
38_ 『서계등록』, 기미 5월 15일.
39_ 『승정원일기』 1804책, 정조 23년 2월 2일 경인(95-667가); 『일성록』, 정조 23년 2월 2일 경인(22-358다).
40_ 『일성록』, 정조 23년 2월 20일 무신(22-422다).
41_ 『일성록』, 정조 23년 2월 23일 신해(22-430나).



축만제(서호)와 항미정(수원박물관 소장)

생각된다. 호서湖西 암행어사 신현申絢이 5월 9일 복명復命하면서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을 올렸는데, 별단 가운데 화성에 관련된 폐단 몇 가지를 지적하였다.[42] 신현은 자신이 화성을 지나는 길에 서동西垌을 살펴보았을 때 거대한 역사가 막 끝난 때였다고 보고하고 있다.[43] 이에 따르면 5월 9일 이전의 어느 시점이 축만제와 둔전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라고 할 수 있다.

축만제 제언의 높이高는 5장丈인데 상면에 말라 있는 부분이 3파把 반으로, 이미 높고 두터웠다. 그리고 제언의 서쪽 머리 부분에 2칸여 정도의 돌을 파서 제언 높이에 비해서 1장 정도 낮게 하여 물이 넘어가는 곳[水越處]으로 삼았다. 수갑 또한 지극히 견고하고 치밀하며, 정교하고 교묘하여 비록 내년에 봄물이 제언에 가득 차도 물이 흘러내리는 걱정이 없어 보이며, 다만 수갑이 약간 높게 설치되어서 저수된 것이 1장 반에 미치지 않으면 수갑로부터 물을 내보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양어養魚하기 위하여 약간 높게 수갑을 설치하였기 때문이다.[44]

축만제는 만석거에 비하여 상당히 규모가 큰 제언이었다. 조계의 견문에 따르면 높이가 5장에 달할 정도였다. 그리고 아직 물을 담지 못한 부분이 5장의 높이에서 3파 반에 이르러 있었다. 장은 10척을 가리키는 것인데, 주척을 기준으로 하여 10척을 1

42_ 『일성록』, 정조 23년 5월 9일 병인(22-784가). "湖西暗行御史 申絢 復命 進書啓別單."

43_ 『일성록』, 정조 23년 5월 9일 병인(22-792라). "湖西暗行御史 申絢 復命 進書啓別單."

44_ 『서계등록』, 기미 5월 15일.



「축만제비」

장으로 파악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르면 조계가 살펴본 5월 중순경의 축만제는 높이가 10.4m이고, 물이 담겨져 있는 수심이 4.9m 정도인 갓 완성된 제언이었다.

축만제는 길이 1,246척, 너비 720척, 높이 8척, 두께 7척 5푼, 깊이 7척이며, 2개의 수문이 설치되었고 몽리답이 232석락이나 되는 굉장히 커다란 제언이었다.[45] 축만제에도 만석거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담당할 인원으로 감관 1명, 감고 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46] 〈표 1〉은 1795년 이후 화성에 신축된 제언을 『화성지』에 의거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 1795년 이후 화성에 신축된 제언의 크기

명칭	위치	감관 및 감고	길이(長)	너비(廣)	높이(高)	너비(厚)	깊이(深)	수문	몽리답
만석거	부 북 5리 일용면	감관1, 감고1	875척	850척	12척 5촌	10척 5푼	8척 7푼	2처	66석락
축만제	부 서 5리 북부	감관1, 감고1	1,246척	720척	8척	7척 5푼	7척	2처	232석락
만년제	원소 남 3리	감관1, 감고1	460척	370척	7척	34푼	5척	1처	62석락

정조는 화성의 수리시설 축조 경험을 통하여 농업기술과 농업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수리水利에 있음을 절감하였다. 특히 만석거를 통한 수리시설의 실제 효과를 직접 견문하면서 이와 같은 인식을 보다 공고하게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리의 진흥振興에 대한 정조의 적극적인 관심은 결국 1798년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농정을 권면하고 농서를 구하는 윤음)」에서 일층 강화되어 표출되었다.

「권농정구농서윤음」에서 정조는 농사짓기의 근본은 결국 농사일에 근실하고 수고를 다할 뿐만 아니라 '흥수공興水功', '상토의相土宜', '이농기利農器' 라는 세 가지 방안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기하였다. 정조는 이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흥수공', 즉 수리기술의 진흥을 가장 중시하고 있었다. 정조는 현재 제언을 관장하는 정사政事가 오랫동안 내버려 둔 채여서 모경冒耕이 연달아 이어진 결과 호남의 벽골碧骨, 호서의 합덕合德, 영남의 공검恭儉, 관북의 칠리七里, 관동의 순지蓴池, 해서의 남지南池, 관서의 황지黃池 등 나라 안의 대제大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 먼저 이들을 수리하고 제도諸道에서 각각 관내를 관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47] 그리고 제언의 성패는 풍흉豊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며 나라의 실제의 정사에서 제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았다.[48]

45_ 『화성지』 권2, 제언, 축만제.
46_ 화성둔전을 살피는 뒷부분의 서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축만제에 의거한 둔전이 축만제둔 또는 서둔(西屯)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47_ 『홍재전서』 권29,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
48_ 『홍재전서』 권170, 일득록(日得錄) 서용보(徐龍輔) 무오록(戊午錄).

3. 둔전의 설치와 운영

정조는 화성 성역 과정에서 화성부에 둔전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실행하였다. 먼저 설치된 둔전을 대유둔전大有屯田이라 이름 붙였다. 대유둔전의 설치는 1794년(정조 18) 11월 1일 화성 성역을 중단하도록 명령한 「유화성성역동공제신윤음」에서 비롯되었다.[49] 앞서 검토한 바대로 이 윤음에서 정조는 화성 성역을 중단하면서까지 둔전을 설치하려는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었다. 정조는 윤음에서 둔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같은 날 열린 윤대輪對에서 '후탁後托'을 강조하며 한漢의 조충국趙充國이 둔전을 통해 금성金城을 지킨 고사를 인용하였다.[50] 정조는 성역을 중단하려고 하는 배경으로 가뭄이 극심하여 삼남三南과 기전畿甸에 모두 흉년이 들었고 연이어 서북변의 군현들도 먹을 것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극심한 흉년에 대한 구황救荒 방책으로 둔전 설치공사를 제시하였다.

정조는 다음 해 봄 지맥地脈이 풀릴 때에 역사役事를 시작하도록 명하면서, 북성北城 바깥의 척박한 땅에서 높낮이를 살펴서 1장이나 반 장을 파서 100곡斛(1곡=10두)을 뿌릴 수 있는 경계를 정하도록 지시하고, 다섯 말과 양궤兩軌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도 함께 건설하도록 명하였다.[51] 1795년 만석거를 축조하면서 함께 이루어진 대유둔전 설치 공사는 11월에 완성되었다.[52] 대유둔전은 화성부의 북쪽 장안문 바깥 일용면日用面 일대에 자리하였다. 이 대유둔전은 화성둔전이라고 불렸다. 정조는 그해 윤2월 14일 화성에 행행하였을 때 장안문에 이르러 화성유수 조심태와 더불어 둔전을 설치할 곳을 눈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다.[53]

대유둔전을 설치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다. 대유둔전은 일반 백성에게 매입한 토지와 새로 개간하여 확보한 토지로 구성되어 있었다.[54] 본래 둔전을 설치하려고 토지를 매입하는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두 가지 경로로 확보하려고 하였다. 하나는 원행園幸을 위해 마련된 정리소整理所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동곡關東穀 가운데 여러 읍에서 작전作錢한 것이었다. 두 가지를 구획區劃하여 총 2만 냥을 마련하도록 결정되어 있었다.[55] 화성둔전의 총예산으로 마련된 2만 냥 가운데 1만 2,660여 냥은 답의 매입과 미개간지를 개간하여 작답作畓하는 자본으로 사용되었다.[56] 그 결과 둔전답으로 총 109석 14두락이 마련되었다.[57] 둔전이 완성된 1795년 가을에 타작을 한 결과 전석全石으로 766석을 거두어 다음 해 종자분, 감관·색리 등의 요조料條로 사용하였고, 11월 당시에 총 596석 1두 5승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58]

화성둔전의 경영은 화성부가 둔전의 소유권을 가진 지주地主, 즉 전주田主가 되고 성내의 민인民人을 작자作者로 하는 이른바 병작제竝作制로 이루어졌다.[59] 대유둔전의 운영

49_ 『화성성역의궤』 권1, 윤음(綸音), 유화성성역동공제신윤음(諭華城城役董工諸臣綸音) 갑인 11월 1일.
50_ 『정조실록』 권41, 정조 18년 11월 을유삭.
51_ 『화성성역의궤』 권1, 윤음, 유화성성역동공제신윤음 갑인 11월 1일.
52_ 『정조실록』 권43, 정조 19년 11월 갑인.
53_ 『화성성역의궤』 권1, 연설(筵說), 을묘년 윤이월 14일.
54_ 『일성록』 23책, 정조 19년 2월 7일.
55_ 정승교, 「정조대 을묘원행의 재정운영과 정리곡 마련」, 『한국학보』 82, 1996 참고.
56_ 『화성성역의궤』 부편2, 이문(移文), 을묘 12월 20일.
57_ 『화성성역의궤』 부편2, 대유둔설치절목(大有屯設置節目).
58_ 『일성록』 23책, 정조 19년 11월 7일 화성둔전성(華城屯田成).
59_ 『화성성역의궤』 부편2, 대유둔설치절목.





1960년대 측만제둔과 측만제(수원박물관 소장)

을 민인에게 분급分給하고 경작하게 하여 그 수확의 절반을 수성고에서 가져가는 형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즉 화성부는 소작인에게 종자와 소를 대어 주고, 절반의 수확을 획득하는 형태인 것이다. 화성부가 병작제를 운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둔답의 소유권을 화성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내하전으로 논을 매입하거나 비용을 들여 토지를 논으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한 주체가 바로 화성부였던 것이다.[60] 그 결과 병작지주로서의 화성부는 둔전을 갈아먹는 민인에게서 지대地代로 수확의 절반을 수취한 것이었다. 이렇게 수취한 절반은 수성고에 붙여 수성修城의 자금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수성고를 설치하였을 때의 절목에도 대유둔에서 거둔 수익을 수성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하였다.[61]

화성부는 둔전답屯田畓의 크기와 소작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따로 양안量案을 만들어 둔소屯所에 비치해 두었고, 작인이 바뀔 때에는 표를 붙여서 변동사항을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 양안의 기재양식은 중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양안에 둔답의 자호字號와 제차第次와 결부수結負數와 작인作人의 성명姓名과 더불어 두락수斗落數, 즉 몇 두락인지 여부를 밝혀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62]

화성둔전에는 둔전 작인의 원활한 재생산 조건을 갖추어 주기 위하여 소를 분급分給하였다. 200냥을 내하內下하여 10마리의 소를 구매하고 무세無稅로 작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경작하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그 대신 3년에 새끼 한 마리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성역소城役所에서 부리다가 물러난 소 32마리도 둔전의 작인에게 20두씩을 받는 조건으로 내어 주었다. 이때에도 10마리 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년에 새끼 한 마리를 내도록 규정하였다.[63] 주목되는 것은 소가 기경起耕과 김매기 등의 농작업에 필수적인 축력을 제공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소를 이용한 비료 제작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동서東西 양우소養牛所에서 나오는 우분牛糞과 부초腐草를 북둔北屯의 새로이 경작하는 사람에게 헤아려 싣고 가도록 도청都廳에서 품의하고 있었다.[64]

화성둔전의 작인에게 부가적인 혜택이 환곡還穀의 측면에도 부여되어 있었다. 둔전의 작인에게 각 창倉의 원환元還을 분급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수성고의 둔환屯還만 받게 하였다.[65] 환곡은 점차 본래의 진휼곡으로서의 의미가 흐려지고 대신 부세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환곡을 많이 받게 될수록 환곡을 받은 민民의 입장에서는 불리하였다.

화성둔전을 경영하고 관리할 직임을 맡는 여러 사람이 임명되어 있었다. 이들은 이른바 둔속屯屬이 위에서 지적한 이른바 둔유사屯有司에 해당하는 둔전의 중간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둔속에는 양반으로 임명한 둔도감屯都監 1원, 장교 가운데 차출한 둔감관 1원, 둔전 색리色吏 2인, 근착인根着人으로 임명한 사음舍音 1인, 사령使令 2인, 권농

60_ 『화성성역의궤』 부편2, 대유둔설치절목.
61_ 『화성성역의궤』 권2, 절목, 수성고설시절목(修城庫設施節目).
62_ 『화성성역의궤』 부편2, 대유둔설치절목.
63_ 『화성성역의궤』 부편2, 대유둔설치절목.
64_ 『화성성역의궤』 권4, 품목(稟目) 병진 3월 13일.
65_ 『화성성역의궤』 부편2, 대유둔설치절목.

勸農 1인이 있었다.[66] 둔도감과 둔감관이 여타 아문과의 문서 교환과 협조관계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문서거래에 색리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음과 사령, 권농은 세부적인 둔전 경영의 실제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음은 궁방전宮房田이나 기타 아문둔전의 수취관계를 담당하는 직임의 명칭이었다. 위와 같은 둔소의 직임들, 즉 둔속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소로 설치된 것이 대유둔사大有屯舍였다. 대유둔사는 고등촌 아래의 고양동高陽洞에 있었는데, 1797년 봄에 건축된 7칸 반짜리의 와사瓦舍였다.[67]

화성둔전의 경영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이들 직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삭료朔料라는 급료가 지불되었다는 점이다. 매달 둔도감에게는 미 10두, 감관에게는 미 8두, 색리에게는 미 7두, 사음·권농·사령에게는 각각 조 1석(平石=15斗)을 지불하였고, 색리 2인은 번갈아 가며 한 달씩 급료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둔사에는 창고가 마련되었는데 권농 중에 근실한 자를 택하여 고직으로 삼아 창고를 관리하는 책무를 부여하였다.

화성둔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 둔도감 이하의 중간관리인에게 매달 지불하는 삭료와는 별도로 생계生計와 의자衣資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토지를 분급하였다는 점이다. 그 내역을 보면 둔도감에게는 논 8두락, 감관에게는 7두락, 사음·권농·사령에게는 5두락을 사경私耕이라는 형식으로 나누어 주었다.[68]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들 경지를 사경이라는 형식으로 주었다는 점이다. 사경이란 토지를 분급받은 사람에게 경작권耕作權을 양도하여 갈아먹게 하고 동시에 면세免稅의 혜택을 주는 내용의 토지 주인과 경작인 사이의 토지소유관계였다. 이 방식은 일반적인 대토지 소유자인 전주가 자신을 대신하여 농업생산을 감독하는 간사노幹事奴에게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전주의 직영지直營地를 경작하는 대가로 노비奴婢에게 일정한 소규모의 토지를 내려주어 갈아먹게 하는 대상지를 사경이라고 칭하였다.

결국 화성둔전의 중간관리인인 둔속에게 5두락에서 8두락에 걸친 사경을 내려주고 면세를 부여해 준 것은 사음 등의 직역을 맡은 사람이 둔전을 경작하는 작인을 침탈할 근거를 없애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수행할 바탕을 충실히 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실제로 궁방전 등의 수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관리인인 사음·도장導掌 등의 중간 착취문제였고, 정조의 의도로 만들어진 이 화성둔전에는 이러한 중간착취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 것이었다. 정조는 궁방전과 아문둔전에 대한 절수의 제한과 중간관리인의 착취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화성둔전에서의 둔전 경영을 보다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만들

66_『화성성역의궤』 부편2, 대유둔설치절목.
67_『화성성역의궤』 부편1, 정거(亭渠), 만석거(萬石渠) 대유둔사(大有屯舍).
68_『화성성역의궤』 부편2, 대유둔설치절목.

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화성둔전의 설치와 경영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화성둔전 설치는 구휼救恤대책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구휼의 성격은 화성 성역의 전 과정에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히 둔전을 건설하는 공사과정에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둔전을 건설하는 과정을 통하여 화성뿐만 아니라 부근의 백성들이 몰려들어 교역이 이루어져 구황救荒하는 방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69]

둘째, 장용영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화성둔전이 설치되었다. 정조는 화성둔전을 건설하여 이를 민인들, 구체적으로는 교리校吏, 군졸軍卒, 관예官隷에게 분급하고 농사를 짓게 하여 이를 통해 둔전을 개설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즉, 성 내외를 단속하는 일부 군軍에게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은 영하營下에 분번分番하여 근무하면서 둔전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경운耕耘하는 틈에 군사훈련을 익히게 하였다.[70] 다시 말해서 정조는 장용영 외영外營을 화성에 두면서 병농兵農이 서로 일치하는 법제에 가장 가까운 둔전법屯田法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민전民田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개간開墾에 나서서 북문北門 밖에 둔전을 설치한 것이었다. 둔전을 설치하여 한편으로는 축성을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곡播穀을 하게 하였다.[71]

셋째, 둔전의 설치는 화성에 거주하는 민에 대한 특혜의 하나였다. 화성민華城民에게 환곡의 모곡耗穀을 면제해 주려고 하였고, 정리곡整理穀이라는 재원을 마련하여 성곽의 보수·관리 비용을 조달하면서 화성민에 대한 수탈을 사전에 막으려 하였다. 나아가 대유둔전과 만석거를 설치하고 축조한 것도 결국은 화성민을 아우르기 위한 방책이었다.[72] 정조는 화성민을 왕기王畿에서 표준이 되는 민으로 생각하였으며, 1798년 대파代播의 명命을 내리면서 화성부의 백성들이 먼저 이 명령을 따르도록 하유下諭하고 있었다.[73] 이렇듯 화성민을 특별하게 대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둔전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화성 수성의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었다.[74] 화성의 수성을 위해 「행궁정리수성곡조적수용절목行宮整理修城穀糶糴需用節目」이 마련되기도 하였다.[75]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성의 물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유둔전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화성의 성곽을 보수·관리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된 수성고의 운영 규정인 「수성고설시절목修城庫設施節目」에서 "대유둔은 곧 수성修城의 물력物力으로 삼으려고 설치한 것이니, 본고本庫에서 관장하는데 둔전 절목을 참고하여 거행하되 매년 가을 수확 후에 (세금을) 받아서 창고에 넣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다.[76]

정조는 둔전 경영을 통해서 수성의 효과와 백성의 정착定着을 기대하고 있었다.[77] 그

69_ 『화성성역의궤』 권1, 윤음, 유화성성역동공제신윤음 갑인 11월 1일.

70_ 『화성성역의궤』 권2, 부근오읍군병합속절목(附近五邑軍兵合屬節目).

71_ 『홍재전서』 권169, 일득록(日得錄) 이만수(李晩秀) 정사록(丁巳錄).

72_ 『홍재전서』 권29, 화성조적지곡제모개칭정리곡잉축만년제윤음(華城糶糴之穀除耗改稱整理穀仍築萬年堤綸音) 무오.

73_ 『정조실록』 권48, 정조 22년 6월 5일 정유.

74_ 1820년대에 서유구(徐有榘)가 제시한 둔전론의 핵심도 국가적인 시범농장의 설치를 통한 지방 재정의 확보라는 점에 있었다(유봉학,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75_ 『화성성역의궤』 부편2, 절목, 행궁정리수성곡조적수용절목(行宮整理修城穀糶糴需用節目).

76_ 『화성성역의궤』 권2, 수성고설시절목(修城庫設施節目).

리고 둔전에서 받은 정조正租를 작인作人 가운데 근실한 자를 뽑아서 조租 1두를 미米 4승으로 환산하는 예에 따라 출급出給해 주고 이들로 하여금 작미作米하여 납입納入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었다.[78] 이렇게 조를 미로 바꾸는 이유는 화성의 성곽을 보수하는 실제적인 작업을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해결하였으므로 조보다 환금성이 강한 미로 바꾸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해서 둔전 경영을 통해서 확보한 곡물을 환곡 운용으로 안정적인 운영자금을 확보하려는 방안도 모색하였다.[79]

<표 2> 대유둔과 축만제둔의 내역[80]

명칭	위치	인원	답 두락수	도조
대유둔	부 북 5리 일용면	감관(監官) 1 둔색(屯色) 1 고직(庫直) 1 군사(軍士) 1	답 12석 12두 4승락	764석 6두 5승
축만제둔	부 서 5리	도감관(都監官) 1 감관 1 농감(農監) 2 동감(垌監) 2 색리(色吏) 1 사령(使令) 2 권농(勸農) 2	답 83석 15두 4승락	556석 14두 4승

대유둔전의 설치가 수성 물력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축만제의 부근에 설치한 서둔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축만제에 의거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축만제둔祝萬堤屯이라고도 불린 서둔전西屯田은 답 83석 15두 4승락의 면적에 도조賭租로 556석 14두 4승이 설정되어 있었다. 서둔전의 관리를 위해서 도감관都監官 1인, 감관監官 1인, 농감農監·동감垌監 각 2인, 색리 1인, 사령 2인, 권농 2인이 임명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축만제둔과 대유둔전에서 나오는 수입은 수성고에 이속되었다.[81] 이러한 대유둔전과 축만제둔은 '전좌수택前左水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만석거(前=北)와 축만제(左=西)라는 수리시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고, 이 두 둔전의 수입을 수성修城의 물력으로 충당하여 이용하고 있었다.[82]

77_『화성성역의궤』 권2, 수성고설시절목.
78_『화성성역의궤』 권2, 수성고설시절목.
79_『화성성역의궤』 권2, 수성고설시절목.
80_『화성지』.
81_『화성지』 권1, 재용(財用), 각둔세조(各屯稅租); 『화성지』 권2, 둔전.
82_『화성성역의궤』 권2, 부근오읍군병합속절목.

조 대 화성 건설을 위한 설계의 기본 구상은 정약용에 의해 이루어졌다. 1792년 4월 부친을 여읜 그는 상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왕 정조의 명령으로 그해 겨울 화성 건설을 위한 업을 매우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비용을 많이 절감하게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정약용의 실용적 지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그는 기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기술 발전 수 있다. 정약용은 자신의 기술 발전론을 화성 건설의 설계와 신기기 도입에 실제로 이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정조가 정약용의 사상 형성에 미친 영향과 정약용의 기술 발전론의 성 역사상의 발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정약용이 정조를 처음 만난 것은 그가 22세 되던 해인 1783년(정조 7) 이해 4월 그는 생원시 회시에 합격하여 신 격으로 성균관에 들어가게 된 정약용은 1784년(정조 8, 정약용 23세) 이듬 성균관의 유생으로서 정조의 이제 중용조문에 대하여 답을 올린 것을 계기로 정조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에 대한 것이었다. 기호 남인들은 영남 남인과 같이 이황의 학설을 따르므로 기호 남인에 속하는 정약용으로서는 당색의 관점에서 의당 이황의 학설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정약용 용은 당색의 편견을 벗어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정조는 정약용이 아직 성균관 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갖고 여러 차례 상을 내렸다. 1785년 당대에 식당을 차려 주었다. 이해 12월에는 정약용에게 상으로 대진통편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조는 정약용이 강수의 재질도 겸하여 갖고 있음을 알고 강수의 재목으로 소 늦은 시기였다. 이러한 정약용의 처지에 대하여 정조는 깊이 동정하며, 1789년(정조 13, 정약용 28세) 1월에 정약용에게 초시를 몇 번 통과하였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약용이 4번 전시로 나아갔고, 1789년(정조 13) 3월 대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관직에 오르자마자 정조가 신진 관료를 개혁 정치의 친위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한 규 1790년(정조 14, 정약용 29세) 3월 정약용은 비록 열흘 만에 풀려 서울에 되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정조의 엄명으로 충청도 해미로 유배를 갔다 오기도 하였다. 이것은 이해 2월 말 추천한 사람은 채제공이었는데, 이 추천에 대해 한 대간이 법식을 위배하였다고 하자 후보자들이 모두 임용시험에 나아가지 않았다. 임금의 엄명으로 모두 억지로 임용시험을 치렀 금제 올리는 글에 의할 것 없이 정조가 진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에 대한 정조의 총애는 변함이 없었다. 위의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1790년(정조 14) 5월 정 이해 12월에는 규장각 각과의 신시로 3차례 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때의 시험 중에는 삼삼경에 대한 책문이 있었는데, 이는 정약용이 새로운 경학을 연구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 남 지방에서 윤지충과 권상연 등이 관련된 천주교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빌미로 목만중과 이기경은 정약용 등이 천주교에 연루되어 있다고 공격하였으나 정조는 오히려 이기경을 유 고, 이를 위해 관련되는 도서를 내려주었다. 정조는 부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을 화성 축조라는 국가 중요 사업의 기본계획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정약용에 대한 정조의 신임

수원 SUWONHWASEONG 수원 SUWONHWASEONG
화성 SUWONHWASEONG SUWONHWASEONG 화성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수원화성 SUWONHWASEONG

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절제의 대독관이 되었는데, 이때 정조는 정약용에게 주필을 잡게 하면서 결국은 제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 부사에 임명하여 외직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때 정조는 한두 해 외직에 나가 있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위로의 말을 하였다. 곡산부사 임명 역시 반대파의 예봉 맡았으며, 3월에는 황해도 수령의 잘잘못을 살피라는 밀지를 받기도 하였다. 정조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이때 관내의 의옥을 잘 처리하자 정조는 서둘러 정 안히 지내라고 하였다. 형조에서의 경험은 나중에 흠흠신서를 저술하도록 자극을 주었고, 아 사직을 허락하였다. 이후에도 모함은 계속되어 이해 10월 정약용이 여기저기 서교를 받들어 불레를 도모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런 모함이 계속되자 정약용은 이듬해인 1800 불러들이고 춘방사정처소가 된 규장각에 소속시킬 것이라는 뜻을 승지를 통해 전하였다. 이해 봄에 정조는 다음 대의 임금이 되는 순조를 세자에 책봉하고, 세자를 교육·보좌하는 을 연결시켜 주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조의 이런 배려는 모두 허사가 되었다. 바로 정조 자신이 서거하였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에 실성할 정도로 몹시 슬퍼하였다. 이 의 인사들과 더불어 정치적으로 제거되고 거우 목숨만을 유지한 채 18년에 걸친 유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정조의 지우를 받으며 관직 생활을 한 정약용은 정조를 만 의 죽고 정의 연구 기술에 관련해 적힌 문헌들 중에 순원, 대한, 시경에 관한 연구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약용 에 그는 1801년 강진에 유배된 뒤 18년간 중요 저술에 대하여 다시 수정·보완 작업을 가하여 모두 6권으로 완성하였다. 이때 정약용은 정조에게 질정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깝 차한 것도 정조에 의해서였다. 정약용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1789년(정조 13) 3월에 대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되고 규장각에 임명되었다. 이때 규장각 초계문신으로서 차임 번도 기록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답변은 그 당시의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겠지만 정약용 자신의 답변은 수정을 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경연구도 정조에 의하여 촉발되

chapter 3

화성 축성

01 정약용의 화성 설계
02 정조의 화성 건설 구상과 정치리더십
03 화성 축성 조직과 운영
04 화성 축성의 전개와 완공
05 화성의 시설물

SUWON HWASEONG

조성을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01
정약용의 화성 설계

정조 대 화성 건설을 위한 설계의 기본 구상은 정약용丁若鏞에 의해 이루어졌다. 1792년 4월 부친을 여읜 그는 상중喪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왕 정조의 명령으로 그해 겨울 화성 건설을 위한 전체적 계획을 입안하여 올렸다. 정조는 화성 건설 과정에서 정약용의 계획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또 정약용은 기중기 등 새로운 기기를 설계하고 화성 건설에 사용하게 하여 작업을 매우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비용을 많이 절감하게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정약용의 실용적 지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그는 기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기술 발전론을 체계화한 「기예론」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정약용의 학문에서 이런 요소가 전개된 것은 박제가의 영향이 컸지만 정약용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왕 정조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정약용은 자신의 기술 발전론을 화성 건설의 설계와 신기기 도입에 실제로 이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정조가 정약용의 사상 형성에 미친 영향과 정약용의 기술 발전론의 전개 과정, 화성 건설을 위한 계획 과정에서 그의 역할, 즉 화성 건설에 대한 정약용의 전체 계획과 그가 개발한 새로운 기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끝으로 화성 건설이 이후 정약용 개혁사상의 발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1]

1_ 이 글은 조성을의 연구(조성을, 「정약용과 화성건설」, 『정조시대 화성 신도시의 건설』, 백산서당, 2001)를 토대로 하여 수정한 것이다.

1. 정약용과 정조

정약용이 정조를 처음 만난 것은 그가 22세 되던 해인 1783년(정조 7)이다. 이해 4월 그는 생원시 회시에 합격하여 선정전宣政殿에서 임금인 정조에게 사은謝恩의 예를 올리게 되었다. 이때 정조가 특별히 명을 내려 정약용으로 하여금 얼굴을 들어보게 하고 나이를 물어 본 것이 최초의 만남이다.[2]

생원시 회시의 합격으로 성균관에 들어가게 된 정약용은 1784년(정조 8, 정약용 23세) 여름 성균관의 유생으로서 정조의 「어제御製 중용조문中庸條問」에 대하여 답을 올린 것을 계기로 정조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당색으로 보면 정약용은 기호 남인으로, 기호 남인은 영남 남인과 마찬가지로 퇴계 이황의 학문을 숭상하였다. 정조가 80여 개 조의 질문 가운데 처음으로 물은 것이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에 대한 것이었다. 기호 남인들은 영남 남인과 같이 이황의 학설을 따르므로 기호 남인에 속하는 정약용으로서는 당색의 관점에서 의당 이황의 학설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문제에 대하여 율곡 이이의 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것을 본 정조는 매우 만족스럽게 여겼다. 당시 선비들은 당색에 따라 무조건 자기 당색의 학설만을 지지하였는데 정약용은 당색의 편견을 벗어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3]

그 이후 정조는 정약용이 아직 성균관 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갖고 여러 차례 상을 내렸다. 1785년(정조 9, 정약용 24세) 2월 25일과 27일 연이어 성균관 유생을 위한 시험이 있었는데, 이때 정조는 정약용의 답안에 어비御批를 내려 선발하고 지필을 상으로 주는 동시에 궁궐 내에 있는 춘당대에 식당을 차려 주었다.[4] 이해 12월에는 정약용에게 상으로 『대전통편大典通編』을 하사하기도 하였다.[5] 또한 정조는 정약용이 장수의 재질도 겸하여 갖고 있음을 알고 장수의 재목으로 키울 생각으로 1787년(정조 11) 당시 26세의 성균관 유생이던 그에게 병서인 『병학통兵學通』을 하사하였다.[6]

이렇게 정조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이 대과에 급제하여 출사한 것은 다소 늦은 시기였다. 이러한 정약용의 처지에 대하여 정조는 깊이 동정하며, 1789년(정조 13, 정약용 28세) 1월에 정약용에게 초시를 몇 번 통과하였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약용이 4번이라고 대답하자 정조는 반드시 대과에 급제할 것이라고 위로하고 정약용의 출사가 늦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7] 이해 1월 26일 성균관에서 있었던 시험에서 1등을 한 정약용은 바로 전시殿試로 나아갔고,[8] 1789년(정조 13) 3월 대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관직에 오르자마자 정조가 신진 관료를 개혁 정치의 친위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설치한 규장각에 소속되어 정조의 관심과 지

2_ 『사암선생연보(俟菴先生年譜)』(정조 7년, 정약용 22세), 8쪽. 『사암선생연보』는 정약용의 현손 정규영(丁奎英)이 1921년 편한 것으로 자세하고 비교적 정확한 연보이다. 『사암선생연보』가 「자찬묘지명」 이외의 다른 선행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정약용 자신이 찬한 「자찬묘지명」과 비교할 때 중복되는 내용이 많지만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다. 이에 『사암선생연보』에는 정조 재위 연도와 함께 필요할 경우 정약용의 나이도 표시하였다. 쪽수는 1984년 정문사에서 간행한 영인본을 따른다.

3_ 『사암선생연보』(정조 8년, 정약용 23세), 8~9쪽. 『중용강의보』 서두에도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다(『여유당전서』 2, 『중용강의보』 권1, 61쪽). 이하 모두 경인문화사의 영인본 쪽수를 따른다. 언급 내용은 『사암선생연보』의 것과 대략 같다. 다만 여기에서 보면 정약용이 중용조문에 대하여 답안을 작성할 때 이벽(李檗)과 토론했으며, 이벽은 이황의 학설을 지지하였다는 사실이 더 수록되어 있다.

4_ 『사암선생연보』(정조 9년 2월 25·27일, 정약용 24세),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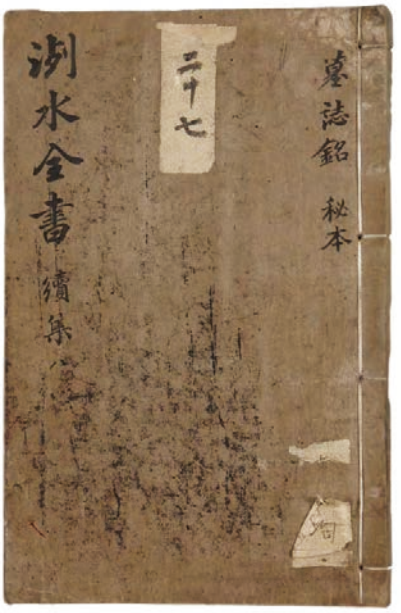
5_ 『사암선생연보』(정조 9년 12월 초1일), 12쪽.

6_ 『사암선생연보』(정조 11년 8월 23일), 14~15쪽.

7_ 『사암선생연보』(정조 13년 정월 초7일, 정약용 28세), 17쪽.

8_ 『사암선생연보』(정조 13년 정월 26일), 17쪽.





정약용과 『열수전집』의 묘지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도 아래 학문을 연마하였다.[9] 아울러 1789년 겨울 정약용은 주교사舟橋司에 배치되어 한강에 주교를 건설하는 임무를 맡았다.[10]

한편 관직에 나아간 둘째 해인 1790년(정조 14, 정약용 29세) 3월 정약용은 비록 열흘 만에 풀려 서울에 되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정조의 엄명으로 충청도 해미로 유배를 갔다 오기도 하였다.[11] 이것은 이해 2월 말 정약용이 예문관 검열에 임명된 일과 관련이 있는데,[12] 정약용은 예문관 검열에 임명된 후 임금이 부르는데도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그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예문관 검열의 후보자로 추천한 사람은 채제공蔡濟恭이었는데, 이 추천에 대해 한 대간이 법식을 위배하였다고 하자 후보자들이 모두 임용시험에 나아가지 않았다. 임금의 엄명으로 모두 억지로 임용시험을 치렀고 정약용과 김이교金履喬가 합격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이 상소문을 제출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자 정조는 그를 일시 해미로 유배를 보냈다.[13] 10일 만에 유배에서 풀려 관직에 나간 뒤에도 임금께 올리는 글에 직함을 써 넣지 않아 정조가 진노하기도 하였다.[14]

그러나 정약용에 대한 정조의 총애는 변함이 없었다. 위의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1790년(정조 14) 5월 정조는 정약용을 예문관 검열檢閱에 임명하고 용양위 부사과副司果로 승진시켰으며,[15] 이해 7월에는 다시 사간원 정언正言에 임명하였고[16] 9월에는 사헌부 지평持平에 제수하여 무과 시험을 감독하게 하였다.[17] 또 이해 12월에는 규장각 각과閣課의 친시親試로 3차례 상을 받기도 하였다.[18] 이때의 시험 중에는 십삼경十三經에

9_ 『사암선생연보』(정조 13년 3월). 「자찬묘지명」에도 같은 언급이 있다(『여유당전서』 1, 『자찬묘지명』, 330쪽).
10_ 『사암선생연보』(정조 13년 겨울), 20쪽.
11_ 『사암선생연보』(정조 14년 3월 초8일), 21쪽.
12_ 『사암선생연보』(정조 14년 2월 26일); 『사암선생연보』(정조 14년 2월 29일), 21쪽.
13_ 『사암선생연보』(정조 14년), 21~22쪽.
14_ 『사암선생연보』(정조 14년 3월), 22쪽.
15_ 『사암선생연보』(정조 14년 5월 초3일); 『사암선생연보』(정조 14년 5월 초5일), 24쪽.
16_ 『사암선생연보』(정조 14년 7월 초4일); 『사암선생연보』(정조 14년 7월 11일); 『사암선생연보』(정조 14년 7월 19일), 24쪽.
17_ 『사암선생연보』(정조 14년 9월 초10일), 24쪽.
18_ 『사암선생연보』(정조 14년 12월), 27쪽.



「**노량주교도섭도(露梁舟橋渡涉圖)**」(『화성능행도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약용은 1789년 주교사에 배치되어 한강 주교 건설임무를 맡았다.

대한 책문이 있었는데, 이는 정약용이 새로운 경학을 연구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19]

다음 해 1791년(정조 15) 겨울 정약용은 『시경詩經』에 대한 800여 조의 글을 올려 정조에게 크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는 『홍재전서』에 200여 조나 수록되기도 하였다.[20] 또 이때 호남 지방에서 윤지충과 권상연 등이 관련된 천주교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빌미로 목만중과 이기경은 정약용 등이 천주교에 연루되어 있다고 공격하였으나 정조는 오히려 이기경을 유배 보내는 것으로 일을 처리하였다.[21]

1792년(정조 16) 4월에 부친이 돌아가시어 관직을 떠나게 되지만 이해 겨울 정조는 명을 내려 수원 화성 축조를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고,[22] 이를 위해 관련되는 도서를 내려주었다.[23] 정조는 복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을 화성 축조라는 국가 중요 사업의 기본기획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정약용에 대한 정조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주교사의 일에 정약용이 참여한 경험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였다.[24]

1794년(정조 18, 정약용 33세) 탈상을 한 정약용은 7월 성균관 직강直講에 제수되고 10월에 다시 홍문관 수찬修撰에 임명되었다.[25] 이 역시 정조의 배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문관 수찬에 임명된 다음 날 정약용은 바로 암행어사에 임명되어 경기 지역에서 한 달 보름 이상 암행어사의 임무를 수행하였다.[26] 또 12월에는 경모궁景慕宮(사도세자)을 추상追上하여 존호尊號하는 도감의 도청都廳에 임명되었다.[27] 이것은 정약용이 예문관에서 바로 규장각 각신으로 임명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배려이며 앞으로 규장각 제학提學에 임명하기 위한 사전포석이었다고 여겨진다.[28]

이듬해인 1795년(정조 19, 정약용 34세) 1월에는 사간원의 사간司諫이 되었다가 2월에는 병조참의가 되어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수원에서 기념하기 위한 이른바 을묘원행乙卯園行에 정조를 호종하였다.[29] 이어 정조는 1795년 3월 정약용에게 수원의 화성과 관련하여 『화성정리통고華城整理通攷』 편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30] 추후 화성과 관련해 전개할 정치활동에 정약용을 참여시킬 것을 고려하면서 이런 사업에 종사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어서 정약용은 3월 20일에 우부승지에 제수되었다.[31] 이제 정약용의 앞날은 정조의 총애 아래 순탄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해 1795년 여름에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국내에 잠입하여 선교활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정약용은 다시 모함을 받아 7월 금정金井 찰방察訪이라는 외직으로 나가게 되었다.[32] 이것은 정약용 등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당시 천주교도라는 비난이 거세므로 일단 그 비난의 예봉을 피하게 하자는 정조의 생각에 따른 것이

19_ 『여유당전서』 1, 157쪽.
20_ 『사암선생연보』(정조 15년 겨울), 27~28쪽. 또 「시경강의」에도 같은 관련 기록이 있다(『여유당전서』 2, 「시경강의」 권1, 381쪽).
21_ 「사암선생연보」, 28~31쪽. 그러나 「자찬묘지명」에 따르면 정약용은 이때의 처리가 바로 1801년 신유사옥과 같은 비극을 낳을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였다고 하였다(『여유당전서』 1, 「자찬묘지명」, 330쪽).
22_ 『사암선생연보』(정조 16년), 33쪽.
23_ 『여유당전서』 1, 「자찬묘지명」, 330쪽.
24_ 『사암선생연보』(정조 16년), 33쪽.
25_ 『사암선생연보』(정조 18년 7월 23일); 『사암선생연보』(정조 18년 10월 28일), 40쪽.
26_ 『사암선생연보』(정조 18년 10월 29일); 『사암선생연보』(정조 18년 11월 15일), 40~41쪽.
27_ 『사암선생연보』(정조 18년 12월 초7일), 45쪽.
28_ 『사암선생연보』(정조 18년 12월 초7일), 45쪽.
29_ 『사암선생연보』(정조 19년 정월 17일); 『사암선생연보』(정조 19년 2월 17일), 48~49쪽.
30_ 『사암선생연보』(정조 19년 3월 초3일), 52쪽; 『여유당전서』 1, 「자찬묘지명」, 331쪽.
31_ 『사암선생연보』(정조 19년 3월 20일), 60쪽.
32_ 『사암선생연보』(정조 19년 4월); 『사암선생연보』(정조 19년 7월 24일), 60쪽.

다. 정조는 정약용 등이 과거에 서학 서적을 읽은 사실에 대하여 비난하기보다는 단지 앞으로 육경六經 등의 학문만 하여 쓸데없이 남들의 비난을 사지 말라는 식으로 충고를 하였다.[33] 이런 정조의 배려로 정약용은 이해 12월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34]

금정에서의 청렴한 업무와 천주교도 회유의 사실이 보고되자 정조는 정약용에게 1796년(정조 20) 봄 2월 6일 중화척中和尺과 어시御詩를 내리고 이에 화답하게 하였다.[35] 이윽고 이해 10월에는 규장각에서 서적을 교정하게 하였고 규장각 각신과 마찬가지로 궁중에 비장된 도서를 보게 하는 특별한 은전을 내렸으며, 함께 도서의 이름을 정하기도 하였다.[36] 12월에는 병조참지와 우부승지를 거쳐 좌부승지에 임명되었으며,[37] 이듬해 1797년(정조 21, 정약용 36세) 3월에는 정조의 명으로 『춘추』 경전을 교정하였다.[38] 이때 두보의 시를 교정하게 하였는데 이는 정약용의 시가 두보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39] 이어서 절제節製의 대독관對讀官이 되었는데, 이때 정조는 정약용에게 주필朱筆을 잡게 하면서 결국은 제학提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였다.[40]

1797년(정조 21) 6월 20일에는 다시 동부승지에 제수되었으나 천주교 문제로 시비가 일자 사직상소를 올렸다. 이 문제의 처리를 놓고 고심하던 정조는 윤6월 초2일 정약용을 곡산부사에 임명하여 외직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때 정조는 한두 해 외직에 나가 있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위로의 말을 하였다. 곡산부사 임명 역시 반대파의 예봉을 피하게 하려는 정조의 배려임을 알 수 있다.[41]

곡산부사 시절에도 정조의 배려는 계속되어 정약용은 1799년(정조 23, 정약용 38세) 2월 중국 황제의 칙사를 맞이하는 영위사迎慰使의 임무를 맡았으며,[42] 3월에는 황해도 수령의 잘잘못을 살피라는 밀지를 받기도 하였다.[43] 정조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이때 관내의 의옥疑獄을 잘 처리하자 정조는 서둘러 정약용을 내직에 불러들여 형조참의에 제수하였다. 직책은 형조참의였으나 형조의 전권을 맡긴 것과 다름없었다. 정조는 당시 형조판서이던 조상진에게 모든 일을 형조참의에게 맡기고 편안히 지내라고 하였다.[44] 형조에서의 경험은 나중에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저술하도록 자극을 주었고, 저술 작업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정약용에 대한 정조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그에 대한 모함과 비난도 커졌다. 이리하여 정약용은 1799년(정조 23) 6월 다시 사직상소를 올렸다. 이에 대하여 정조는 역시 무척 고심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달 이상이 지나서야 사직을 허락하였다.[45] 이후에도 모함은 계속되어 이해 10월 정약용이 이가환과 서교를 받들어 불궤를 도모한다는 무고가 있었다.[46] 이런 모함이 계속되자 정약용은 이듬해인 1800년(정조

33_ 『사암선생연보』, 63~65쪽.
34_ 『사암선생연보』(정조 19년 12월 20일), 67쪽; 『여유당전서』 1, 39쪽.
35_ 『여유당전서』 1, 「자찬묘지명」, 332쪽.
36_ 『사암선생연보』(정조 20년 10월), 70~71쪽.
37_ 『사암선생연보』(정조 20년 12월 초1일); 『사암선생연보』(정조 20년 12월 초3일); 『사암선생연보』(정조 20년 12월 초4일), 72쪽.
38_ 『사암선생연보』(정조 21년 3월, 정약용 36세), 72~74쪽.
39_ 『사암선생연보』, 73쪽.
40_ 『사암선생연보』(정조 21년 봄), 74~75쪽; 『여유당전서』 1, 「자찬묘지명」, 332쪽.
41_ 『사암선생연보』(정조 21년 6월 22일), 75쪽; 『사암선생연보』(정조 21년 윤6월 초2일), 84쪽.
42_ 『사암선생연보』(정조 23년 2월, 정약용 38세), 102쪽.
43_ 『사암선생연보』(정조 23년 3월), 104쪽.
44_ 『사암선생연보』(정조 23년 5월 초5일), 105쪽.
45_ 『사암선생연보』(정조 23년 6월 22일), 112쪽. 『여유당전서』 1, 「사형조참의소(辭刑曹參議疏)」, 193쪽을 보면 정조 23년 6월 22일에 상소를 올렸으나 7월 26일에야 허락한 것으로 되어 있다.
46_ 『사암선생연보』(정조 23년 10월), 117~118쪽.



「규장각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규장각은 정조가 즉위한 1776년 역대 국왕의 시문, 친필 서화, 고명, 유교, 선보, 보감 등을 보관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24, 39세) 봄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갈 결정을 하고 이를 시행하였다.[47]

하지만 정조는 다시 정약용을 중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 지 며칠 만에 서울로 불러들이고 춘방사정처소春坊俟定處所가 된 규장각에 소속시킬 것이라는 뜻을 승지를 통해 전하였다.[48] 이해 봄에 정조는 다음 대의 임금이 되는 순조를 세자에 책봉하고, 세자를 교육·보좌하는 임무를 규장각에 맡겼다. 정약용으로 하여금 이 임무에 참여하도록 생각한 것은 정조의 장기적 정계 구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정조는 다음 대를 이어 갈 세자에게 정약용을 연결시켜 주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조의 이런 배려는 모두 허사가 되었다. 바로 정조 자신이 서거하였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에 실성할 정도로 몹시 슬퍼하였다.[49] 이제 정약용을 위한 정치적 보호막은 사라져 버렸다. 정약용은 정조의 졸곡을 마치고 다시 향리로 돌아갔다.[50] 그러나 곧이어 일어난 1801년(순조 원년)의 이른바 신유사옥으로 다른 청남淸南의 인사들과 더불어 정치적으로 제거되고 겨우 목숨만을 유지한 채 18년에 걸친 유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정약용의 학문과 기술 발전론

이와 같이 정조의 지우를 받으며 관직 생활을 한 정약용은 정조를 만남으로써 많은 학문적인 자극을 받았다.[51] 이제 정약용의 학문 발전에 미친 정조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교 경전 연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정약용의 유교 경전 연구 가운데 정조에 의해 직접 촉발된 것은 『중용』, 『대학』, 『시경』에 관한 연구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약용이 정조에게 인정받게 된 것은 1784년(정조 8) 「어제 중용조문」에 대하여 답안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서였다. 정약용은 이때의 답안을 보완하여 9년 뒤 32세 때(정조 17, 1793년) 서울의 명례방에서 『중용강의』를 탈고하였다.[52] 이에 그치지 않고 40세 때(순조 원년, 1801) 강진에 유배간 뒤 1813년 『중용강의』에 대하여 다시 수정·보완 작업을 가하여 모두 6권으로 완성하였다. 이때 정약용은 정조에게 질정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워하였다.[53] 즉 정약용의 『중용강의』 저술이 정조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강진에서 수정본을 저술할 때까지도 정조를 강하게 의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이 『대학』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정조에 의해서였다. 정약용은

47_ 『사암선생연보』(정조 24년 봄), 118쪽. 대개 4월 무렵으로 추정된다.
48_ 『사암선생연보』(정조 24), 119쪽.
49_ 『사암선생연보』(정조 24년 6월 28일), 119~121쪽. 한편 정조는 승하하기 직전 『한서선(漢書選)』 10권을 정약용에게 전해 주었다. 이것은 정약용을 잊지 않았다는 일종의 정표였다. 이것으로 정조가 서거 직전까지도 정약용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사암선생연보』, 120~121쪽). 이때 정약용은 성균관에 들어간 이래 18년간 정조가 자신을 가르쳐 준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다.
50_ 『사암선생연보』(정조 24년 겨울), 122쪽.
51_ 『여유당전서』 1, 「변방사동부승지소(辨謗辭同副承旨疏)」, 191쪽.
52_ 『여유당전서』 2, 『중용강의보』 권1, 61쪽.
53_ 『여유당전서』 2, 『중용강의보』 권1, 61쪽.

앞서 언급하였듯이 1789년(정조 13) 3월에 대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되고 규장각에 임명되었다. 이때 규장각 초계문신으로서 처음 한 일이 이해 4월 『대학』에 대한 정조의 물음과 초계문신들의 답변에 참여한 것이었다.[54] 이것을 기록한 것이 정약용의 『대학강의』이다. 이 『대학강의』에는 정약용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답변도 기록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답변은 그 당시의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겠지만 정약용 자신의 답변은 수정을 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경』 연구도 정조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1791년(정조 15) 9월 그가 30세였을 때 정조가 『시경』에 대하여 800여 조의 질문을 내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40일 이내에 작성해 오라고 하자 20일 기한을 연장받아 두 달 만에 완성한 것이 『시경강의』이며, 이에 대하여 정조는 크게 칭찬하였다.[55] 이 『시경강의』 저술에 대하여 정약용은 1809년(순조 9) 48세 때 유배지 강진에서 깊은 감회를 갖고 회고하였다.[56] 『시경강의』의 경우 『대학강의』와 마찬가지로 정조의 물음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정약용 자신만의 답변을 기록한 점에서 『대학강의』와는 다르다. 또 책의 서두에 48세 때 유배지에서의 깊은 감회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 원래의 답변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조는 정약용으로 하여금 「십삼경책」을 짓게 하였는데 이 역시 정약용이 새롭게 경학을 공부하게 하는 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정조는 유교 경전에 관한 문제 외에도 정약용에게 정치·경제의 여러 문제와 조선의 역사·지리 등에 대하여도 질문을 내림으로써 이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개혁안과 새로운 인식을 마련·정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정약용은 1789년(정조 13) 3월 28세 때 관직에 나아가자마자 규장각 초계문신이 되었는데, 이해 윤5월에 정조의 명에 의하여 「지리책」을 지어 올렸다.[57] 여기에서 정약용은 삼한 등 우리 역사·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여기에서 촉발된 우리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관심은 후일 『문헌비고간오』에서의 『대전통편』 오류 시정 작업을 거쳐 강진시절 『아방강역고』에서 우리 역사·지리와 관련된 문제를 총정리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 역시 정조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농업문제에 대한 정약용의 최초의 글인 「농책農策」 역시 정조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농책」의 경우 연대 기록이 없으나 『홍재전서』와 대조해 보면 1790년(정조 14) 정약용이 29세 때의 저술임이 확인된다.[58] 「농책」에 의해 농업문제에 대한 정약용의 관심이 시작되었다. 농업문제에 대한 이런 관심과 그 해결책 구상은 1798년(정조 22) 정조가 농업문제에 대한 구언교를 내리고, 이에 대하여 정약용이 「응지진농정소應旨進農政疏」를 올리는 것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였다.[59] 「농책」, 「응지진농정소」에서의 생각은 1799년(정조 23) 정약

54_ 『여유당전서』 2, 『대학강의』, 24~28쪽.
55_ 『여유당전서』 2, 『시경강의』 권1, 381쪽. 「자찬묘지명」에도 같은 언급이 있다(『여유당전서』 1, 『자찬묘지명』, 330쪽).
56_ 『여유당전서』 2, 『시경강의』 권1, 381쪽.
57_ 『여유당전서』 1, 『시문집』, 150쪽.
58_ 『홍재전서』 권51, 농(農)이라는 제목 아래 '경술(庚戌)'(1790)이라고 되어 있으며 『여유당전서』에 실린 정조의 물음과 이 『홍재전서』 농(農)의 기록이 같다.
59_ 「응지진농정소」는 제목 아래에 '무오(戊午)'라고 원래 주석이 있어서 1798년 곡산에서 지었음이 확인된다. 보다 정확하게는 12월이다.

용이 38세 때에 「전론田論」을 저술하는 토대가 되었다.[60]

정조는 『경세유표』의 구상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조는 성균관 학생 시절의 정약용(당시 24세)에게 상으로 『대전통편』을 하사하였다. 정약용의 『경세유표』는 당시 조선정부의 여러 기구를 개혁의 대상으로 놓고 자신의 개혁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개혁의 대상이 된 정부의 여러 기구는 바로 『경국대전』의 것 그대로가 아니라 이를 몇 차례 수정하여 정리된 『대전통편』의 것이다. 정약용은 정조가 하사한 『대전통편』을 통해 당시 조선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경세유표』 저술을 위한 기초 지식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정조는 정약용을 곡산부사로 외직에 내보냈는데 이는 『목민심서』를 저술할 수 있는 경험과 목민서 저술을 위한 자극제가 되었으며, 형조참의로 근무하게 됨으로써 『흠흠신서』와 같은 형법서를 저술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정약용의 기술 발전론에서 가장 먼저 구상된 것은 농업 생산력 발전론이다. 정약용이 농업문제와 관련해 처음 쓴 글은 1790년(정조 14) 29세 때 정조의 책문에 대한 답변으로 올린 「농책」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수리기구의 이용과 파종에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일반적 관점에서 언급하였을 뿐,[61] 조선의 농업 실정과 관련된 농업 생산력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농책」에서는 중국 서광계徐光啓의 『농정전서農政全書』를 농서 가운데 으뜸으로 보고, 구체적인 농업기술을 이에 의존하려고 하였다.[62]



『대전통편』(수원박물관 소장)

60_ 이것은 규장각 소장 『여유당집』 제28책에 수록된 「전론(田論)」에 "기미간 소작(己未間 所作)"이라고 되어 있다.

61_ 『여유당전서』 1, 175~176쪽.

62_ 『여유당전서』 1, 177쪽. 『농정전서』는 명나라 말에 저술된 것으로 서두에 「농본」 항목을 두어 경전과 역사서의 전고 및 여러 사람의 논의를 언급한 다음 바로 전제(田制) 항목을 두어 「정전고(井田考)」라는 글을 수록하였다(「농정전서총목」, 『농정전서』 1, 신문풍(新文豊)출판공사, 1975, 69~70쪽). 즉 서광계의 농학은 기본적으로 토지 개혁론을 전제로 한 농업기술 발전론이다. 정약용은 「농책」을 쓸 때에는 아직 토지개혁을 언급하지 못하였지만 이미 그의 농업론이 토지 개혁론을 추구하는 농학 쪽에 속하여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이 잡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목민심서』(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당시 농업기술과 관련하여 농업 생산력 발전을 구체적으로 논한 것은 1798년(정조 22) 37세 때 올린 「응지진농정소」이다. 여기서는 고랑과 이랑의 개선, 우수한 종자의 선정, 농기구의 개량, 수리 개선 등이 언급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수차의 도입을 반대하고 당시 호남 지방에서 통용되던 목멱木覓을 사용하자고 주장한 점이다. 수차는 책을 보고 만드는데, 그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많은 비용을 낭비하고 비가 오면 곧 무너지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하였다.[63] 목멱은 상류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물을 두 개의 대홈통 교차 지점에 나뭇가지 3개를 연결해 물속에서 당기는 것이다. 이것은 수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어 소농민이 당장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신기술을 갑자기 제대로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농민의 실정에 맞도록 농업기술을 발전시킨 것이다.

한편 정약용은 「기예론」(1·2·3)에서 기술 발전과 인간 역사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비교적 조리정연하게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64] 「기예론」(1)을 보면 우선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인간이 기예(기술)를 갖춘 점에 있으며, 이런 까닭에 동물에 비해 취약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65] 또 기술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힘이 성인聖人 한 사람의 힘보다 나으므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기술이 보다 정밀해지며 시대가 내려올수록 점차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고, 이것을 필연적인 형세라고 하였다.[66] 이런 인식은 당시 중국의 기술이 우리보다 발달되어 있고, 따라서 중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결되었다.[67]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북학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예론」은 북학파 이후 이용후생학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였다.[68]

정약용이 북학론을 전개시키게 된 데에는 박제가의 영향이 크다. 1796년(정조 20) 10월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에서 서적을 교정하게 된 정약용은 박제가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69] 정약용은 박제가를 통해 『북학의』라든가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 북학파의 저서를 차람하고 북학론을 접하게 되었다. 「기예론」은 이 영향 아래 집필되

63_ 『여유당전서』 1, 195쪽.
64_ 「기예론」 1·2·3의 저술 시기는 대체로 1799년에서 1800년 무렵으로 비정된다(조성을,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2004, 259~260쪽).
65_ 『여유당전서』 1, 「기예론」 1, 226쪽.
66_ 『여유당전서』 1, 「기예론」 1, 226쪽.
67_ 『여유당전서』 1, 「기예론」 1, 226쪽.
68_ 「기예론」 3에서는 '이용후생'을 위해 필요한 여러 기술은 후대에 나온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고루함을 벗어나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여, 직접 이용후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여유당전서』 1, 227쪽).
69_ 『사암선생연보』, 71쪽.



「박제가 초상화」(과천시추사박물관 소장)

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 후기 강진 시절 저술된 『목민심서』에는 『열하일기』에 대한 언급이 있다.[70]

정약용이 기술 발전론을 전개하는 데에 정조의 영향은 상당히 컸다. 화성 건설을 제대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지식, 토목기술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한데, 정조는 정약용이 이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정조는 정약용을 장수의 재목으로 기를 생각으로 1787년(정조 11) 성균관 유생이던 정약용에게 병서인 『병학통』을 하사하였다.[71] 화성 축조의 기본 계획안인 정약용의 「성설城說」 및 기타 군사 관계 저술을 보면 그가 군사적 지식에 매우 통달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는 바로 『병학통』에서 병학의 기초 지식을 얻었을 것이다. 한편 1789년(정조 13) 정약용은 28세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간 바로 그해 겨울 주교사舟橋司에 배치되어 한강에 주교를 건설하는 임무를 맡는다.[72] 이를 통해 정약용은 토목기술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정조가 정약용에게 화성 건설의 전체 계획을 입안하고 화성 건설을 위해 새로운 기계를 설계하게 한 것 역시 정약용이 기술 발전론을 전개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70_ 『여유당전서』 6, 12쪽.
71_ 『사암선생연보』(정조 11년 8월 23일), 14~15쪽.
72_ 『사암선생연보』(정조 13년 겨울), 20쪽.

기술 발전에 대한 정약용의 중요한 기여는 그가 기술 발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데에 있다. 즉, 화성 건설과 관련하여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 성곽 및 그 부속시설들의 건설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구를 설계한 일이다. 다음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정약용의 화성 계획과 새로운 기구 설계

정조 대의 화성 건설은 1789년(정조 13) 10월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永祐園을 당시 수원부 소재지인 화산花山으로 이장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1762년(영조 38) 비명으로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는 경기도 양주 배봉산에 묻혔으며, 이 묘소를 수은묘垂恩墓라고 하였다. 1776년 영조가 서거하자 왕위에 오른 정조는 생부인 사도세자를 장헌세자莊獻世子로 높이고, 묘소인 수은묘를 영우원으로 높였다.[73] 정조는 즉위 초 수은묘라는 명칭을 영우원으로 고칠 때부터 길지를 택하여 이장할 뜻을 품고 있다가 1786년(정조 10) 박명원 등으로 하여금 지세를 살피게 하였다. 이에 묘소의 지세가 좁고 불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리하여 1789년(정조 13) 7월 이장문제가 공론화되었고 수원 화산으로 이장이 결정되어 이장과 산역이 이해 10월에 완료되었으며, 새 묘소의 명칭을 현륭원顯隆園이라고 하였다.[74]

그러나 새 이장지로 결정된 곳은 수원부 읍치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곳으로 이장하기 위해서는 수원부 읍치의 이전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1789년 7월 영우원 이전 결정과 더불어 수원부를 팔달산 아래로 옮길 것이 결정되었다. 신읍치로 결정된 팔달산 아래로의 읍민 이주와 관아의 이전 작업은 이해 7월 하순부터 본격화되었는데, 9월 말까지 행궁, 군수 창고 등의 관아와 민가들이 서둘러 건축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도 건설되었다.[75]

신읍치로 수원부를 이전하면서 정조는 수원을 대도회로 육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런 대도회 육성과 더불어 화성 건설이 계획되었다.[76] 화성 건설계획이 공표되기 전인 1792년(정조 16) 겨울 정약용은 정조의 명령에 따라 화성 건설계획안을 올렸다. 1789년 겨울 주교사의 일을 잘 수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특별히 정약용에게 이 일을 맡겼다.[77] 이 계획안은 「성설城說」이라는 제목으로 『여유당전서』에 수록되어 있다.[78] 「성설」은 화성 건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계획한 것이다. 「성설」에 이어 정약용은 「옹성도설甕城圖說」, 「포루도설砲樓圖說」, 「현안도설懸眼圖說」, 「누조도설漏槽圖說」, 「기중도설起重圖說」, 「총설總說」에서 화성 건설의 구체적인 계획을 차

73_ 최홍규, 「정조의 현륭원 천봉과 이읍대책」, 『정조사상연구』 1, 1998, 81쪽.
74_ 최홍규, 「정조의 현륭원 천봉과 이읍대책」, 『정조사상연구』 1, 1998, 83~87쪽.
75_ 최홍규, 「정조의 현륭원 천봉과 이읍대책」, 『정조사상연구』 1, 1998, 95~96쪽.
76_ 이에 대하여는 최홍규의 연구(최홍규, 「정조대 화성성역의 경과」, 『정조사상연구』 1, 1998)가 참고된다.
77_ 『사암선생연보』(정조 16년), 33쪽.
78_ 『여유당전서』 1, 2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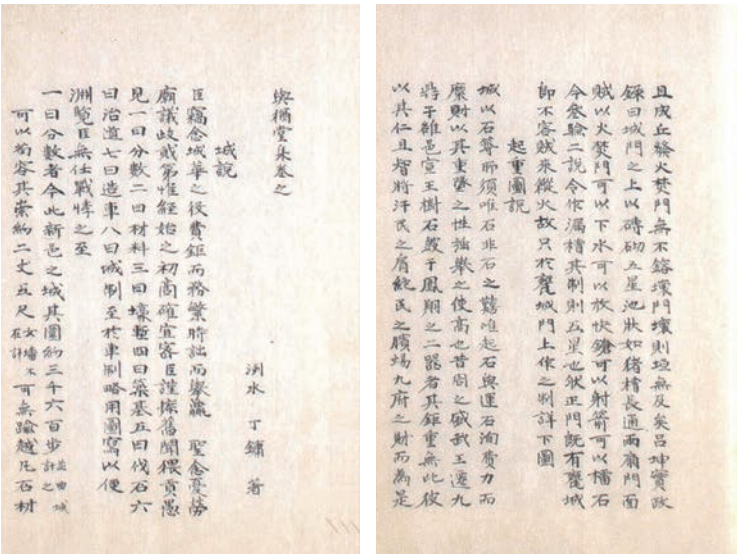


『북학의』(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북학의』는 정약용의 기술발전론에 영향을 끼친 주요 저서이다.

례로 언급하였다.[79]

「성설」에서 정약용은 화성 건설 전체와 관련되는 문제를 ① 분수分數, ② 재료材料, ③ 호참壕塹, ④ 축기築基, ⑤ 벌석伐石, ⑥ 치도治道, ⑦ 조거造車, ⑧ 성제城制의 8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째, 분수는 당시 화성 성곽의 길이를 대략 3,600보, 높이를 2장 5척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모든 석재와 기술자, 인부, 비용을 산출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재료에서는 성벽을 토성으로 하느냐, 돌로 하느냐, 벽돌로 하느냐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조선의 실정은 벽돌을 굽는 데 익숙하지 못하며 회와 흙은 잘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정약용이 아직 북학파의 견해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이전 단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호참과 관련해서는 성곽은 안과 밖에서 동시에 쌓는 것이 좋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안쪽에서 산을 의지해 쌓도록 하되 호참을 성과 너무 가깝지 않게 하고 거기서 파낸 흙을 성을 쌓는 데 이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축기와 관련해서는 성지에 구덩이를 파고 자갈로 기초를 다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벌석에 대하여는 석재를 캐 오는 자리에 석공을 파견하여 이동 무게를 감소시키고 돌의 크기도 용도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누며 한 수레에 싣는 숫자를 일정하게 하여 전체 수요량에 미리 맞추어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치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사를 위해 수레가 다니는 길을 먼저 잘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곱째, 조거에서는 공사를 위해 수레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수레 제조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여덟째, 성제는 성을 쌓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성이 잘 무너지지 않고 적이 잘 기어오를 수 없도록 성의 높이를 3등

79_ 『여유당전서』 1, 210쪽.



『여유당집』의 「성설」과 「기중도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분하여, 1등분 단계에서는 조금씩 들여서 쌓고 3등분 단계에서는 조금씩 내어 쌓아서 가운데가 들어간 형세로 축성하도록 하였다.

「성설」에서는 옹성이나 망루, 누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고 유성룡과 명나라의 모원의茅元儀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만 하였다. 그러나 이 「성설」을 올리자 정조는 다시 옹성·포루·현안·누조·기중기에 대한 설명을 빨리 강구하도록 명을 내리고, 참고서로 『기기도설奇器圖說』을 내려 주었다. 이리하여 정약용은 「옹성도설」, 「포루도설」, 「현안도설」, 「누조도설」, 「기중도설」, 「총설」 등을 지어 올리게 되었다.[80]

「옹성도설」에서 정약용은 성문을 방비하기 위해 옹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성문의 다락은 화공을 당하기 쉬우며 성문은 평지에 있으므로 함락되면 적이 바로 쳐들어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수원 화성의 건설 시 성문에는 모두 옹성을 두었다.[81] 원래 옹성에는 문을 두 개로 만들지만, 이는 큰 성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보약堡約』을 참조하여 문을 한 개만 만들게 하였다.[82]

「포루도설」에서는 포루砲樓와 같은 여러 누樓나 대臺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부속물로서 치雉를 만드는 점에서 이들이 모두 같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유성룡의 『전수기의戰守機宜』에 근거하여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치와 포루砲樓를 만드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 밖에 중국의 모원의와 곽자장郭子章의 설을 인용하여 포루 외에 적루, 적대, 포루舖樓, 노대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포루는 북문 좌우에 각각 하나씩, 남문 좌우에 각각 하나씩, 장대 남쪽에 두 군데, 서문 남쪽에 하나로 하여 도합 7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적루는 북문 좌우에 하나씩, 남문의 좌우에 하나씩 도합 4곳에

80_ 『여유당전서』 1, 210쪽. 「옹설도설」은 『여유당전서』 1, 210~211쪽, 「포루도설」은 211쪽(「적루」, 「적대」, 「포루」, 「노대」 포함), 「현안도설」은 211~212쪽, 「누조도설」은 212쪽, 「기중도설」은 212~214쪽, 「총설」은 214쪽에 각기 실려 있다.

81_ 현재 복원된 화성의 각 성문에 모두 옹성이 있다. 다만 「옹성도설」의 말미에서 아래에 그림이 있다고 하였으나 현 『여유당전서』에는 설명만 있고 그림이 없다. 이것은 다른 도설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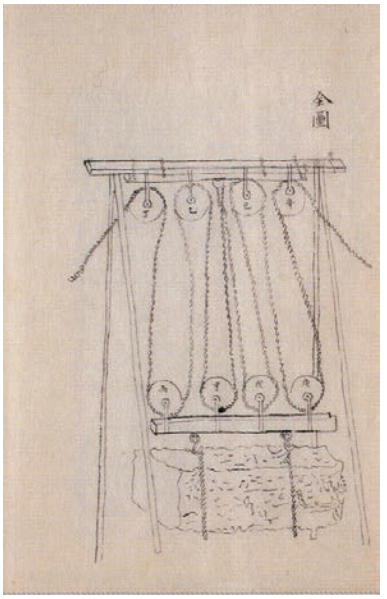
82_ 『여유당전서』 1, 「옹성도설」, 2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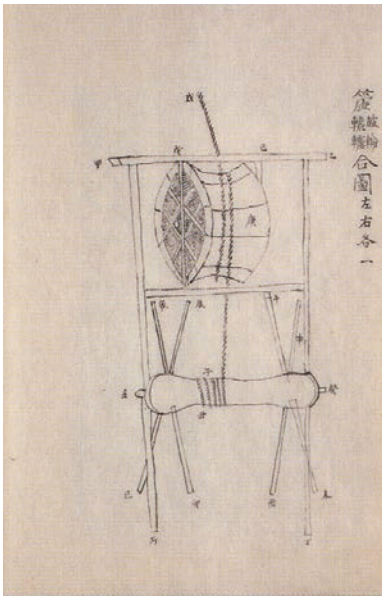
두도록 하였다. 적대는 남문과 북문 좌우에 각각 하나씩, 동문과 서문 좌우에 각각 하나씩, 동곽문의 북쪽에 하나로 하여 도합 9곳에 두도록 하였다. 포루舖樓는 북문의 서쪽에 하나, 동문의 북쪽에 하나 도합 2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노대는 장대의 북쪽에 하나를 세우도록 하였다. 끝으로 각성角城을 동암문 북쪽에 둘, 동곽문의 남쪽에 둘, 동문의 남쪽에 둘, 서문의 북쪽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현안도설」에서는 현안懸眼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현안은 적을 감시하기 위해 성벽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을 말한다. 종래에도 타안이라 하여 이런 장치가 있었으나 전면만을 작은 구멍으로 보는 것이어서 성벽 아래 가까이 접근한 적을 살피기는 어려웠다. 치에 현안을 설치하여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적의 접근을 막고 성벽 아래의 적을 감시할 수 있는 구멍도 두도록 하였다. 이렇게 밑을 감시하도록 둔 구멍은 평소에 배수구로 활용되지만 전시에 이를 통해서 적을 창으로 공격할 수도 있으며 적이 성벽을 넘어왔을 때에는 함정의 구실을 하기도 한다. 「현안도설」의 말미에서 현안 설치에 대하여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그림이 남아 있지 않다.

「누조도설」에서는 적병들이 성문을 불태우는 것을 막는 누조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정약용은 성문이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 종래에는 쇠붙이로 감쌌으나 너무 얇아서 쇠가 뜨거워지면 속의 나무가 쉽게 불탄다고 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누조를 설치하여 물을 뿌려야 한다고 하고, 여곤呂坤의 『실정록實政錄』에 의거해 오성지五星池를 만들어 누조로 하도록 하였다. 오성지는 모양이 돼지 구유와 같이 생긴 것으로, 길게 성문의 길이와 맞게 설치하여 적병이 성문을 태우려고 하면 불을 내리쏟고 창, 화살, 돌쇠뇌 등으로 밑을 공격할 수도 있게 한 시설이다. 다만 화성의 성문에는 옹성을 설치하여 정문으로 적이 접근할 수 없으므로 오성지는 옹성의 문 위에만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누조도설」 말미에 그 제도가 아래 그림에 자세하다고 하였으나 역시 그림이 남아 있지 않다.

다음으로 새로운 기구 혹은 기기의 설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정약용은 「기중도설起重圖說」에서 석재는 구하기보다 운반하기가 더 어렵다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중국에서는 이미 전한前漢시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리하여 정조가 하사한 『기기도설』의 기중起重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림이 정밀한 제8조, 제10조, 제11조 중 당시 우리의 기술로는 만들기 어려운 제10조의 것은 빼고 제8조와 제11조를 참조하여 가架, 횡량橫梁, 활차滑車, 녹로轆轤, 거簨 등에 대해 그림을 그려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전체 모습인 전도全圖를 그려 넣었다. 그림이 있는 점에서 다른 도설들과 다르다. 가架는 A자형으로 다리를 4개 만들고 그 위에 들보인 가로대를 설치한 것이다. 횡량은 가架의 바로 밑에 설치되어 도르래인 활차를 걸 수 있게 고안되었다.





『여유당집』, 「기중도설」의 기중가 전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여유당집』, 「기중도설」의 거(簴) 합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도르래인 활차는 바퀴와 축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바퀴의 재질은 나무이지만 축의 재질은 강철로서 모가 지게 하여 바퀴와 꽉 물리게 하였다. 녹로는 거簴의 하부에 가로로 설치되어 상부의 고륜鼓輪에서 감겨져 오는 밧줄을 감도록 하였다. 즉 거簴는 상부의 고륜과 하부의 녹로로 구성되었다. 녹로의 축 양쪽 끝에 십자형의 손잡이가 달려 돌리도록 고안하였다. 전도의 그림과 설명에 따르면 거簴를 가架의 양쪽에 하나씩 설치하고 가架의 가로대 밑에 횡량을 단 뒤 횡량에 활차 4개를 달고서 아래쪽에 다시 횡량과 활차 4개를 설치하여 위의 활차와 연결되게 하였다. 다음으로 아래의 횡량에 무거운 물건을 매달며 위의 양 끝 두 활차에 걸린 줄이 양쪽의 고륜으로 연결되고 고륜에 감겨 돌아 다시 녹로에 연결되는데 양쪽 녹로의 십자형 손잡이를 돌리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총설」에서는 활차를 사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이점으로 사람의 힘이 덜 들며 무거운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와 같이 하여 이루어진 기구를 기중가起重架라 부르고, 이것은 여러 기중가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즉 아이의 힘으로 수만 근을 들어올릴 수 있는 기중가도 만들 수 있으나 화성 건설에 사용되는 석재는 그다지 크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니 굳이 그런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새로운 기계 설계와 기술 개발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이 이와 같이 화성 건설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좋은 기구를 설계할 수 있었



조선 후기 군사 교련서인 『병학통』
(수원박물관 소장, 1785년)

던 것은 사전에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폈듯이 정약용은 새롭게 자신의 이용후생학을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화성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화성 건설에는 토목기술에 대한 지식 및 군사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정약용은 1787년(정조 11) 성균관 유생 시절 정조로부터 『병학통』이라는 병서를 하사받아 군사문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화성 건설계획안의 수립 외에도 정약용은 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였다. 1789년(정조 13)에는 한강에 주교舟橋를 설치하는 일을 맡음으로써 토목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었다. 즉 이해 10월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을 수원 화산에 옮길 때에 정조가 직접 거둥하였는데 이때 한강에 주교가 설치되었다. 10월 7일 정조의 지휘 아래 주교를 건너 수원으로의 이장이 진행되었다. 정약용은 이때 주교 설치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화성 건설계획을 할 때에 당시의 경험 역시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정약용과 정조의 관계, 정약용의 학문과 기술 발전론, 정약용의 화성 건설계획과 새로운 기기 설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맺음말에 갈음하여 화성 건설이 이후 정약용의 사상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화성 건설계획 참여

는 정약용에게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더욱 높이고 아울러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이것은 나중에 그가 강진 시절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을 저술할 때 기술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쏟고 기술 발전론을 전개하는 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적 장치의 측면에서는 『경세유표』에서 외국으로부터 체계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기구로서 이용감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역시 화성 건설계획에 참여한 것과 관련이 있다. 아울러 그는 『경세유표』 속에 수도의 도시계획으로서 「장인영국도」를 작성해 넣었는데, 이는 화성 건설계획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83]

83_ 이것을 그의 정전제 토지개혁론과 아울러 생각하면 상공업지구를 도성 내부에 배치하고 주변 지역은 농업 전업 지역으로 만들어 상공업과 농업을 사회적, 지역적으로 분리시키고 전업화하려는 것이다.

SUWON HWASEONG

박현모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리더십연구소 연구실장

02
정조의 화성 건설 구상과 정치리더십

1. 수원 화성 건설과 그 의의

"세종에게 훈민정음이 있다면, 정조에겐 수원 화성華城이 있다." 오늘날 정조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훌륭한 임금으로 기억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수원 화성이라는 가시적인 개혁의 성과물이 있기 때문이다. 한글이 누구나 인정하는 탁월한 세종의 업적인 것처럼,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건설한 정조의 리더십은 비단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한글 창제는 비밀리에 추진되어 그 과정을 알 수 없는 것과 달리, 수원 화성 건설 과정은 『정조실록』과 『화성성역의궤』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점에서 화성 건설 과정은 개혁 사례로서 좋은 대상이 된다.

기득세력들이 도성都城 안의 이권을 놓고 다툴 때 정조는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이른바 '블루오션 전략'의 차원에서 수원이라는 신도시를 개척한 것도 인상적이다. "아름다운 것이 강한 것이다."라면서 성곽의 외형적 미학까지 중시하는 정조의 안목과 레토릭(rhetoric)도 감탄을 자아낸다. 그런데 사실 수원 화성 건설은 정조와 그의 개혁을 지지하는 시파가 선택한 그야말로 '정권의 명운을 건' 대사업이었다. 그것은 채제공·조심태 등 시파의 관료들이 주도하였으며, 유형원·정약용 등의 '실용지학'과 청나라에서 배워 온 '북학의 기술'까지도 총동원된 사업이었다. 정조가 즉위 초에 개혁 청사진을 그린 모든 방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수원 화성이었다.

화성은 1794년(정조 18) 정월에 시작되어 31개월 만인 1796년 9월에 완성되었다. 『화



개성, 강화, 광주와 함께 도성 방위를 위한 4도(都) 체제를 이룬 수원
(『동국여도』, 「기전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성성역의궤』에 따르면, 성역 축성에 동원된 인력은 1만 1,820명이고, 경비가 87만 3,520냥에 곡식 1,500석이 소요되었다.[1] 성곽의 둘레가 3,963보 8척이나 되는데, 문루와 포루 등을 다 합치면 4,600보로 약 5.743㎞의 규모이다.

400년 전의 한양 정도定都(1394년)를 의식하여 이루어진 화성 건설에는 왕조 중흥의 역사적 사명의식, 사도세자에 대한 국왕의 효심, 채제공·조심태·정약용·김홍도 등 여러 정파의 관료학자·예술가들의 능력과 과학기술의 성과가 총동원되었다. 특히 화성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에 따라서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과학기술이 종합되었다. 임진왜란 이래 숙종·영조 대의 전국적 축성경험이나 유성룡·유형원이 제안하였던 축성방식 등 전통적인 것을 광범위하게 수용하면서, 옹성甕城과 벽돌 등 중국으로부터 배워 온 '북학北學'의 성과도 적극 활용되었다.[2] 측우기를 이용한 강수자료가 적극 활용되고, 국영농장屯田에서는 수차水車를 실험하고, 축성작업에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擧重機 등 여러 기계를 제작·이용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 화성은 군사도시와 상업도시로서도 의미가 크다. 즉 도성의 남쪽에 자리한 수원은 동남쪽에 위치한 광주廣州(숙종 말 완성)와 함께 유수부留守府(군사 요충지에 임금의 행궁을 지어 놓은 직할도시)로 승격됨으로써(각각 1793년과 1795년), 도성 외곽의 개성開城(북北) 및 강화江華(서西)와 함께 동서남북의 외곽방어체제를 완성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수원 화성은 정조가 지적한 대로 "삼남대로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금성탕지金城湯池"이자 "나라 안의 첫째가는 관방關防"으로 이해되었다.[3] 또한 화성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전국적 규모의 시장과 상점을 개설하고 인삼·모자帽子 등에 대한 무역독점권을 주어 한양의 부호와 상인들을 유치하려 한 인공적 상업도시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화성은 정조 대 이후 전국적인 상업도시로 성장하였다.

1_ 최근 한 전문가가 수원 화성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당시의 물가와 인구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25조 원가량이라고 밝혔다(박영민, "Finding the Future of Project Management from Hwaseong Fortress Project",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Master of Science, 2008). 이는 경부고속철도(KTX)를 건설하는 데 들어갔던 18조 원보다 많다. 참고로 2008년 현재 한국의 국민총생산(GDP)은 500조 원이다.

2_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996, 95쪽.

3_ 『홍재전서』 168권, 일득록 8, 16~380쪽.



화성 성역에 비판적이었던 김종수
(「김종수 초상화」, 일본 천리대학교 부속 천리도서관 소장)

2. 노론의 화성 축조 반대론

화성 축성공사가 모든 신하들의 지지 속에서 원활하게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성역의 제안과 진행의 실무가 채제공·정민시 등 정조 측근의 소수 관료에 의해 추진되는 동안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1795년의 화성행차를 앞둔 가운데 노론의 권유權裕는 "형벌을 받아 복주伏誅되는 것"을 무릅쓰고 다음과 같이 "한 말씀"을 올렸다.

> 뇌물을 바치는 문을 크게 열어 놓자 하루살이[靑蚨](돈)가 밤에 날아오고 간사한 구멍을 일찌감치 뚫어 놓자 쉬파리 떼가 날마다 윙윙거리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거만스레 천위天威를 희롱하고 사사건건 조정의 명령을 가차假借하면서 은혜가 융숭해질수록 보답할 방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위치가 근밀近密해질수록 감히 배타적으로 도모할 생각만 품고 있습니다. …… 여정閭井의 일반 서민들까지도 …… "경상비를 축냈는데도 감히 말하지 못한다." 하고, "정령政令이 전도顚倒되었는데도 감히 이야기하지 못한다." 하고, "장영壯營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하고, "화성華城을 경영하는 일에 대해 감히 입을 놀리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4]

말하자면 국왕의 측근 신하[貴近]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화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빼돌리고 있으며, 장용영과 같은 신설 군영이 국왕의 총애를 믿고 정령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시파계열의 신하들에 대한 비판이자 국왕의 장용영 설치와 화성 성역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정조는 당시 측근의 한 명이었던 정동준鄭東浚을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임금의 위세와 권력을 훔쳐 농단한 죄"로 자결하게 하였다.[5]

1796년 3월에 이명연李明淵과 오정원吳鼎源 등이 경기·충청[畿湖] 지방의 흉년을 이유로 화성 성역의 정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나, 같은 해 7월의 노론 벽파의 영수 김종수가 화성 성역을 비난하는 호남·호서의 여론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낸 것[6] 역시 화성 성역을 반대하는 움직임의 또 다른 예에 해당한다. 이 편지[長書]에서 김종수는 화성 성역을 "진秦의 축성築城, 한漢의 매관賣官"으로 빗대어 비난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축성 공사 도중에 태풍이 불고,[7] 전국적인 흉년이 들어 화성 축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자, 국왕은 신하들에게 화성 공사의 계속 여부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다.

4_ 『정조실록』, 정조 19년 1월 11일 갑오.
5_ 『정조실록』, 정조 19년 2월 22일 을사; 『정조실록』, 정조 19년 2월 28일 경진.
6_ 『정조실록』, 정조 20년 7월 2일 을사.
7_ 『정조실록』, 정조 18년 8월 28일.

3. 채제공의 화성 축조 강행론과 정조의 대응



화성 축조 강행을 주장했던 채제공
(「채제공 초상화」, 일본 천리대학교 부속 천리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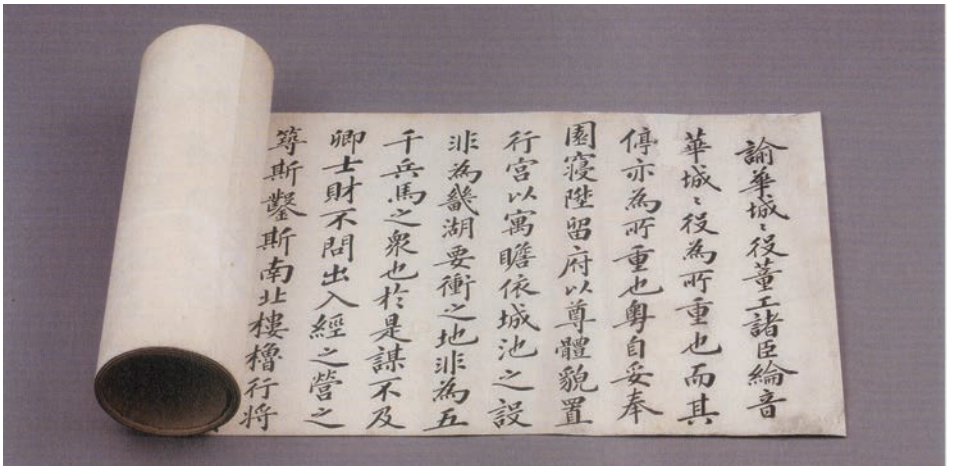
채제공을 비롯하여 당시 대부분의 대신들은 토목공사를 계속하여 구휼의 효과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뜻밖에도 "나는 성 쌓는 공사를 정지하는 것이 황정荒政의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한다."[8]라고 하여 화성 공사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조에 따르면 겨울철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무리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전국적인 구휼책과 대규모 공사의 병행은 재정적 파탄을 가져올 것으로 "결국 행해질 수 없는 정사"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 영중추부사 채제공은 "이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의 공장工匠과 모집한 일꾼들은 팔도에서 모은 사람들인데, 지금 만약 이들을 돌려보낸다면 몇 년 후에 다시 모으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또 자원하여 공사에 나와 입에 풀칠하고 몸이나 겨우 가리던 자들에게 명줄이 관계된 것인데, 공사를 중지하고 돌려보낸다면 그 낭패함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화성 공사의 강행을 주장하였다.

정조는 "사람들이 모두 성 쌓는 공사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수원유수도 큰 공사를 이미 시작하였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그만두면 사람들이 듣고 좋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국가나 개인이나 모두 재력財力이 결핍된 시기를 당하여 급하지 않은 일에 관계된 것으로 그만둘 수 있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의 정지에 관한 윤음을 내렸다.

> 화성의 공사가 중요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정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 지금 삼남과 경기 지역은 가을이 되어서도 백성들이 잇따라 굶주림에 쓰러지고 있으며 서북 지역의 변방 고을들도 양곡을 대기가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 "성 쌓는 공사에 드는 비용은 없으면 만들어 내면 되고 황정荒政에 필요한 것은 창고를 열어 곡식을 진휼해 주면 되니, 판연히 다른 두 가지 일로 각기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한 나라의 재화는 일정한 수가 있어서 위에 있지 않으면 아래에 있고 밖에 있지 않으면 안에 있는 법이다. 따라서 이는 농민들이 한 해를 꾸려 나갈 양식이 아니면 백성들에게 입에 풀칠이라도 하도록 진휼해 주어야 할 밑천이다. 밭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수확할 수 있겠으며, 백성들을 진휼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말하기를 "우선 너희들의 농사짓는 것과 진휼하는 일은 놔두고 나의 성 쌓는 일에 종사하라." 한다면 어떻겠는가. 인화人和와 지리地利의 면에서 보더라도 그 경중의 구분이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9]

8_ 『정조실록』, 정조 18년 10월 19일.
9_ 『정조실록』, 정조 18년 11월 1일 을유.


諭華城、役董工諸臣綸音
華城、役爲所重也而其
傳亦爲所重也粤自妥奉
園寢陞留府以尊體貌置
行宮以寓瞻依城池之設
非爲畿湖要衝之地非爲五
千兵馬之衆也於是謀不及
卿士財不問出入經之營之
築斯鑿斯南北樓櫓行將

「**윤음**」(수원화성박물관 소장)
1794년 11월 1일 화성 성역을 감독하는 신하들에게 화성의 성 쌓는 일을 정지하라고 내린 윤음이다.

한 마디로 국가의 재정을 공사에 다 사용해 버리면 진휼의 정사를 어떻게 펼 수 있겠느냐는 게 정조의 생각이었다. 특히 정조는 자신이 암행어사나 수령들의 보고를 통해 파악한 민심을 중시하였다. 즉 "우리 임금은 어찌하여 성 쌓는 데 쓰는 마음을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베풀지 않으며, 성 쌓는 데 드는 재물을 백성들을 살리는 데로 옮겨 쓰지 않는가." 또는 "구중궁궐의 광명한 불빛이 헐벗은 백성들은 비추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가퀴만 비추는구나." "성은 올해도 쌓을 수 있고 내년에도 쌓게 할 수가 있으며 10년까지 끌 수도 있지만 백성들은 하루 굶기고 이틀 굶기어 한 달까지 참게 할 수는 없다."는 등의 백성의 소리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정조는 화성 공사 강행문제를 재정적 차원에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민심의 획득이라는 정치적 차원에서도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전하였다.

> 의논하는 자들은 "흉년에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실제로 구휼을 겸하는 것이니, 주자朱子가 남강南康에서 행한 고사[10]와 범중엄范仲淹이 절서浙西 지역을 다스린 행적[11]에서 살펴서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다만 일개 수령이나 장수로서 한 고을, 한 진을 구제할 수 있는 정사였을 뿐이다. 지금 나는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가까이는 도성과 경기 지역으로부터 멀리는 아득한 바다와 변방 지대에 이르기까지 노약자나 부녀자·절름발이·귀머거리·벙어리 할 것 없이 다 나의 적자赤子(어린애와 같은 보호·사랑의 대상–인용자)가 아닌 이가 없다. 이미 저 목을 빼고 바라는 천만이나 되는 무리들로 하여금 농사도 못 짓고 장사도 못 하게 하고는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일개 성 쌓는 노역에서 품팔이하는 대가나 받아먹고 살게 한다면 그곳에 이르러서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큰 흉년이 들었을 때는 토목공사를 일으키지 않고 제사에도 하등의 희생을 쓴다는 것을 『예기』에서 읽었고, 흉년에는 대사臺射에 장식을 하지 않고 도로를 닦지 않는다는 것을 『춘추전』에서 들었다. 크고 작은 일이나 권도權道든 상도常道든 간에 처지에 따라 방도를 달리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12]

10_ 송의 주희(주熹)가 남강군에 제수되었을 때 그 고을이 크게 가물었다. 주희는 여러 가지 흉년 구제책을 강구하여 많은 인명을 살렸다(『송사』 권429, 도학삼 주희전).

11_ 송의 범중엄이 항주를 맡아 다스릴 때 큰 흉년이 들자, 부자의 곡식을 풀어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 날마다 호상(湖上)에서 잔치를 벌이는 한편, 절과 창고 등을 새로 수리하거나 짓게 하여 하루에 1,000명의 인부를 먹을 수 있게 하였다. 이 덕분에 절강성 일대에는 유민(流民)이 없었다 한다(『송사』 권340, 범중엄전).

12_ 『정조실록』, 정조 18년 11월 1일 을유.

요컨대 군왕의 정치와 수령의 정치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수령의 정치에서 좋은 것일지라도 규모가 다르고 전체적인 재정을 고려해야 되는 군왕의 정치에서는 좋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조는 민심을 잃으면[民不信] 정치가 설 자리가 없다[政不立]는 점을 유의해 화성 공사를 정지시켰다. 정조의 이 같은 언행은 유교정치에서 공론의 힘과 민심의 의미, 그리고 국왕의 정치력으로서 포용성과 융통성 등을 보여 주는 적절한 사례라고 하겠다.

4. 정치의 설 자리와 정조의 선택

"정치의 설 자리"와 관련하여 정조는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라고 말하곤 하였다. "물은 배를 떠가게 할 수도 있고, 물속으로 전복시킬 수도 있다[水能載舟亦能覆舟]."는 말처럼(『정관정요』), 백성의 지지와 신뢰를 못 받는 군주는 아무리 명분이 바른 일을 하고 지지세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정치의 조건'을 정조는 극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실 역대 임금 중에서 정조만큼 백성의 지지와 신뢰를 중시한 임금도 드물었다. 궁궐에는 온통 믿을 수 없는 사람들뿐이었다. 어머니 혜경궁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게 만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며, 할머니뻘인 정순왕후는 사도세자 사건은 물론이고 정조 자신의 즉위 방해공작에도 개입된 혐의가 있었다. 그나마 남인의 일부와 노론과 소론 내부의 시파 쪽 신하들만이 국왕의 지지세력이라 할 수 있었지만, 그들도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조정의 요직은 노론 벽파, 즉 자신의 생부 사도세자를 죽인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기까지 하다는 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천지간에 극악무도한 자들의 지친至親(부자·형제)과 인척들이 모두 벼슬아치의 대장臺帳을 꽉 메우고 있다."[13]는 채제공의 상소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왕이 정치적으로 의지하고 또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은 그야말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이 정조의 생각이었다. 그는 왕세손으로서 영조를 따라다니면서부터(1765년, 영조 41) 백성들을 직접 만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신료들의 보고서에 나타난 백성들은 어리석고 눈앞의 욕심에 급급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막상 궁궐 문을 나서서 만나 본 백성들의 모습은 달랐다. 그들은 임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마치 부모를 대하듯 따랐고, 정치가 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귀신처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시비를 따지고 국왕을 가르치려 드는 신하들과도 달랐다. 그들은 입이 아니라 몸으로 자신의 일을 묵

13_ 『정조실록』, 정조 17년 5월 28일.



『초계문신제명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정조는 정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어책으로서 규장각을 세우고 초계문신을 양성하였다.

묵히 수행했으며, 유생들과 달리 당파적 태도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들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쓰러지듯 드러눕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서는 신령스런 존재들이었다. 정조가 '화성 가는 길'에 백성들의 각종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을 허용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는 민초의 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백성들의 지지를 높이고 국왕의 재량권을 넓히려 하였다.

그런데 백성들이 늘 '신령스런' 존재였던 것만은 아니다.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들으려는 국왕의 노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도 있었다. 이 기회에 개인적인 분풀이를 하려는 자도 많았다. "아주 작은 문제에도 함부로 상언하고 격쟁하는 풍조가 참월하다."는 형조판서 김노진의 지적이 그것이다. 더군다나 정치세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쉽게 세력화되지 않는 힘이었으며, 포졸과 군관의 창칼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파편화된 힘이었다. 오직 특별한 정치적 계기에만 그 흩어져 있고 버려져 있던 힘들이 무섭게 결집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을 뿐이다.

정조가 본격적인 개혁과 대대적인 정적 제거를 조만간 단행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곤 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을 적극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규합을 원하였다. 번번이 국왕의 개혁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국가보다 당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벽파들에 맞설 수 있는 시파의 정치적 댐을 만들고자 하였다. 규장각을 세우고 초계문신을 양성한 일이나 장용영이라는 친위부대를 창설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정조는 노론과 소론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는 한편, 국왕 동조세력에게는 파격적인 대우를 베풀었고 반대세력에게는 "움츠리고 두려워 떨게" 만들곤 하였다.

'위협'을 통해 정적들을 위축시키는 국왕의 "비상한 거조"는 사도세자 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곤 하였다. 예컨대 화성 성역이 시작되기 직전인 1794년 1월의 현륭원 행차 시에 정조는 "슬픔을 더욱 억제하지 못하여 옥체를 땅바닥에 던지고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손으로 잔디와 흙을 움켜잡아 뜯다가 손톱이 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기운과 정신을 잃기까지"[14] 하는 등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슬퍼하곤 하였다. 국왕의 '효심'과 '애통함'에 대한 비상한 표출은 사도세자 사건에 대한 '정치적 원죄'를 진 노론 벽파들의 위기감을 자극하곤 하였다.

능행 과정과 화성의 군사훈련에서 국왕이 "천승千乘의 지존至尊으로서 몸소 갑옷을 입고 직접 주장主將의 일"을 행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노론 벽파세력은 불안에 떨었다. 1797년(정조 21) 8월에 노론계 우의정 이병모가 "망령된 헤아림과 억측의 요량도 매양 혹 불행히도 맞는 적이 있으니, 오늘날 전하의 조정에 북향하여 섬기는 자가 깜짝 놀라며 움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참으로 다른 일은 없고 다

14_ 『정조실록』, 정조 18년 1월 20일.



정조의 친위부대였던 장용영의 편액 탁본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만 보장保障의 군용軍容을 보고자 하실 뿐이라 하더라도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전하의 지나친 거조가 이미 적지 않다고 여깁니다."[15]라는 말이 그것이다.

궁극적으로 정조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기는 싸움"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늘에서 학이 울 때 그 새끼가 화답하는 것처럼" 국왕의 하교를 듣고 "의기가 북받쳐 올라 그 의리를 천명할 길을 생각하는 자"나 "걱정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는 방도를 생각할 자"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하려고 하는 정치를 도와주었으면 하는"[16]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화성 공사를 둘러싼 논쟁에서 그가 반대파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이나 – 결국 공사는 6개월 후에 재개되어 예정된 공기인 10년보다 훨씬 단축된 기간인 2년 7개월 만에 끝마쳤다. – 개혁 반대세력에 대한 심리적 위협을 통해서 벽파 자체의 분열과 붕괴를 노렸던 것은 이런 국왕의 의도와 "깊은 뜻"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포용과 위협을 통해서 노론과 소론 안에도 국왕 동조세력이 형성되고 장차 지지세력으로 전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치가' 정조가 추구했던 목표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수원 화성이라는 정치적 댐이 놓여 있었다.

5. 정조의 문무文武 양경兩京 구상과 화성 건설 프로젝트

수원 화성이라는 정치적 댐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조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그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잘 마치는 일이었다.

우선, 사분오열된 여론을 모아 수원 화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이다. 정조에 따르면, 도읍을 옮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읍에서 살 수 없는 이유와 새로운 도읍에서 꼭 살아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시켜야 하는데,[17] 이 두 가지를 동시에

15_ 『정조실록』, 정조 21년 8월 7일.
16_ 『정조실록』, 정조 24년 5월 30일.
17_ 『홍재전서』 93권, 경사강의(서경) 30.

충족시키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에게 현재 사는 곳에 어린 추억이나 이로운 점들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데 반해 새로운 곳에서 경험하게 될 이점들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정조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일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백성들의 공감대를 넓혀 가는 것이었다. "한 시대의 이목耳目을 새롭게 하여 10년 동안 누적되어 온 풍습을 변화시켜 가겠다[必欲新一代耳目 變十年風習也]."[18]고 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원 화성 건설은 한양의 특정기관이나 상가를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장용영이라는 국왕 친위부대를 '만들어서' 한양의 내영內營 외에 외영外營을 수원 화성에 머물게 하는 일이며, 전주 등 각지의 상인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해 신도시에 '투자'를 하게 하는 방식의 혁신적인 '분산'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정조의 '분산' 전략은 조선시대 이전까지 전통이었던 국토균형정책을 복원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라 중고기(514~654년)의 3소경 제도(경북 상주의 이시촌소경, 충북 충주의 국원소경, 강원 강릉의 북소경)나 통일신라 이후의 5소경 제도(강원 원주의 북원소경, 경남 김해의 금관소경, 충북 충주의 중원소경, 충북 청주의 서원소경, 전북 남원의 남원소경)가 그 예이다. 신라는 경주의 수도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어 내는 동시에 지방에 파견된 도사道使 내지 진골귀족을 거주케 하여 지방민과 긴밀해지게 하는 '현지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였다.[19] 이러한 '작은 서울들'의 전통은 고려시대까지도 이어졌다. 특히 고려시대는 유수관留守官의 상주 및 국왕의 순수巡狩에서 보듯이 삼국시대보다 격이 한결 높아졌다. 수도인 개경의 개경부開京府, 옛 신라의 도읍지였던 경주의 동경東京, 고구려의 옛 도읍지인 평양의 서경西京이라는 삼경체제는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제로 변형되기 이전의 국토균형정책의 모습을 보여 준다.

고려 말의 사회적 혼란을 겪은 조선의 건국자들은 정부구조뿐만 아니라 국토의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상하였다. 고려시대의 귀족연합체제 대신 국왕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 관료제체계를 수립한 것이다.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약 350개의 군현을 두었으며,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해 백성들을 일원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전국의 도로와 바다 및 강의 길로 구성되는 조운로에서 봉수대에 이르기까지 전 국토가 서울을 향해 집중 개발되었다.[20] 이것은 종래의 '작은 서울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지역적으로 안배해 오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정조의 수원 화성 건설은 이러한 서울 중심의 '일원적 체제'가 한계를 노정할 무렵 제시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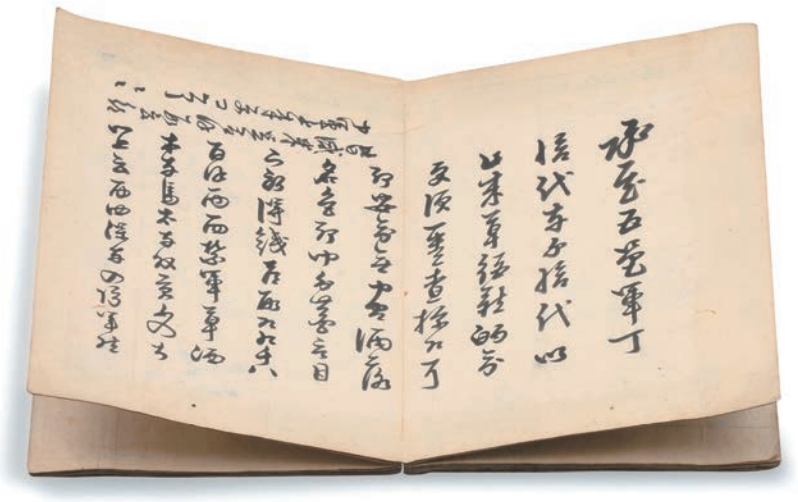
서울 중심의 일원적 체제는 이미 18세기 들어 그 한계를 노정했는데, 이는 ① 이앙법과 광작으로 불리는 토지 겸병과 경작지 확대 현상에 따른 농촌사회의 붕괴,[21] ②

18_ 『정조실록』, 정조 19년 2월 2일.

19_ 박희택, 「신라의 불교수용과 정치발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10~111쪽.

20_ 오종록, 「조선 초엽 한양 정도 과정과 수도방위」, 『한국사연구』 127, 한국사연구회, 2004.

21_ 농촌을 떠난 이들 '실업민'들은 적게는 7~8명, 많게는 십수 명씩 무리를 지어 서울이나 경기도 일대로 몰려들었다. "관동(關東) 지방의 유민들이 서울에까지 올라"온 경우도 있었고, "서북처럼 더 먼 곳"에서도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애를 이끌고 모여" 들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들은 서울의 청계천 등에 집단 거주하거나 "회양(淮陽)이나 금화(金化)처럼 서울에 가까운 지역에서 일정한 거처가 없이" 살아갔다(『정조실록』, 정조 14년 2월 3일 갑인).



조심태에게 보낸 정조의 편지
(『정조어찰첩』,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정조어찰첩』은 모두 15통으로, 정조가 축성을 책임지고 있는 화성유수 조심태에게 보낸 일괄 편지이다. 어찰을 보낸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시일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화성을 축성하는 기간에 보낸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어 비밀리에 보낸 편지임을 알 수 있다. 이 편지들에는 화성 건설과 관련하여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정조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어 건설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에 따른 서울 인구의 급증과 '난전亂廛'이라 불리는 무허가 상인의 급증, ③ 과도한 서울 집중 현상 등이 그것이다. 정조는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서울 남쪽에 무武를 상징하는 '작은 서울'을 구상하였다. '문文의 수도'인 한양에 비견되는 '무武의 수도'로서 수원 화성의 위상이 그것이다. 문과 무는 수레의 바퀴 내지 새의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한쪽을 버릴 수 없다는 인식[22]과 문치文治와 무략武略을 겸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23] 등이 그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조가 수원 화성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화원畵員들을 보내 새로 만들어질 도시를 그려 오게 한 점이다. "형세를 그리되 성터뿐만 아니라 부치府治 내의 마을, 거리, 산과 들 등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그려 오라."[24]고 하여 그 비전을 가시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조가 신민들을 설득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원 화성을 완성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많은 인력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시간'이라는 요소는 왕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가늠대였다. 그렇다면 정조가 수원 화성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일을 맡은 신료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왕의 위임이다. 채제공과 조심태 등 화성의 축성 책임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주를 꺼리는 상황에서 자기 가족을 먼저 이사시키는 등 모범을 보였다. 그들로 하여금 일이 끝날 때까지 장기간 안정되게 책임을 맡긴 정조의 리더십도 일을 성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부역 대신 임금을 지불하는 '성과급' 방식 역시 일의 효율을 높였다. 정조는 애초 승려를 동원하거나 백성을 부역시켜서 축성을 진행시키려는 의견에 대해 "공사에 투입된 품값은 날품으로 하지 말고 짐수로 주되, 짐수의 멀고 가까운 데 따라 차

22_ 『정조실록』, 정조 5년 2월 18일.
23_ 『정조실록』, 정조 2년 6월 4일.
24_ 『화성성역의궤』 상권, 192쪽.

등을 두게 하면 힘센 사람은 100냥 돈을 넉넉히 벌 수 있을 것이고, 약한 사람이라도 저 먹을 벌이는 될 것"[25]이라고 하여 성과급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을 택하였다.

셋째, 성곽의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공정중첩 단축법(fast tracking)' 방식은 공기를 단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화성 건설 담당자들은 네 군데 큰 대문인 팔달문·장안문·화홍문·남수문을 동시에 착공하는 공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프로젝트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26] 이는 정조의 국가 경영방식, 즉 "모든 일은 규모를 먼저 정하는 것만한 것이 없고, 규모는 미리 경영하는 것만한 일이 없으며, 그 경영하는 것은 적격자를 얻는 것만한 일이 없다."[27]는 방식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공사실명제를 도입해 우수한 품질을 확보(quality assurance)하였다. 화성 건설 책임자들은 공사담당자의 실명을 각석에 새겨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가 하면, 업무에 따른 하루 품삯, 사용한 종이의 숫자, 심지어 가마솥 보수비용으로 16냥 2전 6푼의 비용이 들어간 것까지 기록하였다. 사업 전체가 투명하고 체계적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28]

6. 화성행차의 정치적 의미

정조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완성한 후에 수원 화성을 여러 차례(13차례) 방문하였다. 비전을 세우고 장애물을 극복해 성역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수원 화성의 가치를 높이는 일도 열심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의 독특한 정치력이 발휘되었다.

1) 국왕 정조의 정치적 시위

1795년의 행차에서 정조는 먼저 현륭원을 방문한 다음에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열었다. 이 행차는 표면적으로 혜경궁의 회갑을 경축하기 위한 나들이였지만, 동시에 33년 전에 '정치적인 이유'로 희생된 국왕의 생부 사도세자의 구갑舊甲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조가 8일간의 화성행차에서 벌인 일련의 행사들은 단순한 회갑잔치가 아니라, 작게 보면 어머니에 대한 효성의 표현이었고, 크게 보면 자신이 20여 년간 쌓아 놓은 위업을 과시하고 내외 신민들의 충성을 결집하려는 거대한 정치적 시위였다.[29]

정조가 겨냥한 시위의 대상으로는 우선 노론 벽파辟派세력을 들 수 있다. 노론 벽

25_ 『화성성역의궤』 상권, 177쪽.
26_ 박영민, "Finding the Future of Project Management from Hwaseong Fortress Project",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Master of Science, 2008.
27_ 『수원화성의궤』 상권, 191쪽.
28_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수원 화성 건설은 현대의 프로젝트 관리의 표준기법 56개 프로세스 중 약 68%에 해당하는 38개의 프로세스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박영민, "Finding the Future of Project Management from Hwaseong Fortress Project",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Master of Science, 2008; 이지은, 「역사문화환경 보전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관리 적용 평가 연구」,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29_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28일』, 효형출판, 1999, 106~10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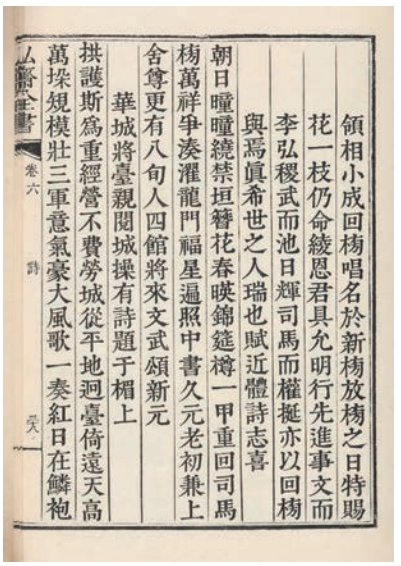


정조 어진(수원화성박물관 소장)

파, 즉 사도세자를 죽인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까지 하는 그들은 일차적으로 세손 정조의 등극을 저지·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즉위 초에는 국왕 시해사건을 꾸미기도 하였다. 물론 정조 중반에 이르러 시파時派는 국왕의 개혁 정책에 대한 지지세력으로, 그리고 벽파는 이에 대한 견제와 비판세력으로 분류되었지만, 여전히 벽파는 정조에게 두렵고도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이들 노론 벽파는 사도세자의 능을 방문할 때마다 정조가 보인 격렬한 감정표출로 불안감을 느끼곤 하였다. 즉 1789년(정조 13) 7월에 금성위 박명원의 건의로 영우원(현재의 서울시립대학교 자리)에 있던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정조는 "사초沙草를 부여잡고 지나치게 울부짖으면서 가슴" 치기를 오랫동안 하여 "격기膈氣와 구토의 증세"까지 보이는 등 "슬픔을 한없이 터뜨려 마지않았다."[30] 또한 1794년(정조 18) 1월에도 현륭원(사도세자의 능) 행차 시 "슬픔을 더욱 억제하지 못하여 옥체를 땅바닥에 던지고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손으로 잔디와 흙을 움켜잡아 뜯다가 손톱이 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기운과 정신을 잃기까지"[31] 하는 등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슬퍼하곤 하였다. 이처럼 사도세자 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보인 국왕의 '효심'과 '애통함'으로 벽파들은 '정치적 원죄'에 따른 위기감을 느끼곤 하였다.

이러한 위기감은 다른 군영을 약화·폐지하고 국왕의 친위부대 장용영이 강화되면서 더욱 커졌다. 특히 능행 과정과 화성의 군사훈련에서 국왕이 "천승千乘의 지존至尊으로서 몸소 갑옷을 입고 직접 주장主將의 일"을 행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자, 노론 벽파세력은 그때마다 불안에 떨었다.


領相小成回楊唱名於新楊放楊之日特賜
花一枝仍命綾恩君具允明行先進事文而
李弘稷武而池日輝司馬而權擬亦以回楊
與焉眞希世之人瑞也賦近體詩志喜
朝日曈曈繞禁垣簪花春暎錦筵褌一甲重回司馬
楊萬祥爭湊灌龍門福星遍照中書久元老初兼上
舍尊更有八旬人四館將來文武頌新元
華城將臺親閱城操有詩題于楣上
拱護斯爲重經營不費勞城從平地迴臺倚遠天高
萬垛規模壯三軍意氣豪大風歌一奏紅日在鱗袍
人臣至此可謂榮矣

『홍재전서』 권6, 「화성장대친열성조유시」
1795년 윤2월 화성원행 기간 중 장용외영 군사들의 훈련 모습을 화성장대에서 지켜본 정조가 자신의 소회를 읊은 시로, 정조는 장용영 군사들에 대한 만족감과 스스로의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국왕에 의해 "우리나라에도 또한 군사의 규율이 있다고 할 만하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군령의 통일·신속성을 보여 준 장용영의 위상 역시 노론의 '의구심'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밤 3경에 전교를 받은 선전관과 장영壯營·훈영訓營의 지구관을 은밀히 불러 전교하기를, "오늘 밤에 야간 군영의 훈련을 실시하려 한다. …… 군이란 일정한 형식이 없고 중요한 것은 때에 따라 변통하는 데 있다."…… 선전관이 긴 영전을 전하여 쌍등雙燈으로 점멸 신호를 하여 명령이 끝나자 장막 안팎의 등불과 횃불이 일제히 없어졌으며 강변의 마을 집까지 새까맣고 한 점의 불빛도 없었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도 또한 군사의

30_ 『정조실록』, 정조 13년 8월 12일 을축; 『정조실록』, 정조 13년 8월 20일 계유.
31_ 『정조실록』, 정조 18년 1월 20일 무신.

> 규율이 있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 조금 뒤에 또 암호를 전하여 연함문延艦門을 열어 놓으니 이인(은언군)이 탄 휘장을 드리운 교자가 맞은편 마을에 숨어서 명령이 내릴 때를 기다리다가 이때에 그를 썰매[雪馬]에 태워 북안문北岸門 앞으로 끌고 가는데 날아가는 것처럼 빨랐다.[32]

말하자면 재위 중반기에 이미 장용영과 훈련도감은 탁월한 기동력과 조직력을 갖춘 군사조직으로 발전한 것이다. 특히 장용영은 많은 신하들의 반대 속에서도 국왕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친위부대로 성장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왕이 이처럼 합법적으로 조직된 폭력집단인 친위부대를 직접 거느린 것은 태종 등 건국 초기의 몇몇 국왕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서[33] 여차하면 정치적 반대세력을 완전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노론의 "두려워함"은 정조가 "장용영을 신설한 것은 본래 깊은 뜻이 있어서"라든가 "내 뜻은 장차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 장차 내 뜻이 성취되는 날이 있을 것"[34]이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확대되었다.

2) 국왕의 재정적 후원도시로서 화성 건설

정조는 화성 건설을 통해서 개혁 추진과 관련해 소요되는 각종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노론의 정치 자금줄인 도성의 금난전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업도시를 건설하려 하였다. 실제로 채제공을 비롯한 국왕 지지세력은 사상의 경제적 실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대신, 이들을 새로운 조세원으로 포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35] 경강상인에게 세곡운송권 등 특권을 부여하며 한강 배다리[舟橋]의 가설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36]이나, 경기의 각 고을에서 사들여 보관 중인 곡식 2만 4,000석을 상인들에게 대여하고 그 이자를 이용하여 현륭원 행차 비용을 충당하도록 한 것[37] 등이 그 예이다. 실제로 성장한 상업세력 중에는 "1만여 냥을 관에 바치고 화성의 역사를 돕겠다고 자원하는 자가 하나 둘이 아닐"[38] 정도로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재정 부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고 관작을 매매하는 등 폐단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뇌물이 은밀히 행해져 관작官爵이 사적으로 제수되고" 있다는 정동준鄭東浚의 비판[39]이 그것이다.

실제로 정조는 화성 건설에 지대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인들의 유치를 위해 모자와 인삼에 대한 독점적 거래권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40] 그런데 이들 신흥 상업세력이 수원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데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

32_ 『정조실록』, 정조 14년 11월 18일 갑오.
33_ 조선 초기의 군권(軍權)은 '왕자의 난' 이후 이방원에 의해 사병이 혁파되고 병조를 중심으로 군령체계가 재편성되면서 국왕에게 귀일되는 특징을 보였다(조선 초기의 군령·군정기관의 정비과정에 대해서는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전기편』, 1968, 172~197쪽 참조).
34_ 『정조실록』, 정조 15년 6월 5일 무신.
35_ 1777년에 시행된 세모법(稅帽法)은 그 좋은 예이다. 18세기 중반에 중국산 모자가 민간에 유행하자, 정부는 세모법을 시행하여 사상들로 하여금 직접 100척의 한도에서 모자를 수입해 오게 하되, 모자 1척당 40냥씩 세전(稅錢)을 바치게 하였다. 정부는 이렇게 거둔 세전을 의주부로 하여금 상인들에게 주어 은(銀)을 사 오도록 하여 사행(使行) 경비를 비롯한 각종 공용에 쓰게 하였다(이태진, 「국제무역의 성행」, 『한국사시민강좌』 제9집, 일조각, 1991, 84쪽).
36_ 최완기, 『조선후기 선운업사 연구』, 일조각, 1989, 136~160쪽; 김성윤,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8.
37_ 『정조실록』, 정조 15년 9월 24일 병신.
38_ 『정조실록』, 정조 21년 2월 29일 경자.
39_ 당시 정동준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임금의 위세와 권력을 훔쳐 농단한 죄로 권유(權裕)에 의해 비판되자, 음독자살하였다. 그러나 그의 '와언(訛言)'은 전후 맥락을 볼 때 상당히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정조실록』, 정조 19년 2월 22일 을사; 『정조실록』, 정조 19년 2월 28일 경진).
40_ 당시 정부는 이주한 부상(富商) 20인에게 가삼(家蔘) 매매권과 모자(帽子) 수입 및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노론의 이병모 등의 반대에 부딪쳐 실시되지 못하였다(『비변사등록』 권185, 「화성부구획절목」, 정조 21년 2월 22일).

은 바로 노론과 구 상업세력이 휘두르는 금난전권의 문제였다. 금난전권이 계속될 경우 서울에서 90여 리 거리에 있는 수원의 상업적 발전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금난전권의 법제상 범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난전 착납권捉納權이 서울 금표를 넘어서 인근의 장시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실정이었으므로, 수원은 현실적으로 금난전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금난전권의 대폭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신해통공은 정조와 그 측근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1791년(신해통공)과 1794년(갑인통공) 두 차례에 걸쳐 정조와 채제공은 금난전권을 혁파하는 조치를 내렸다.

3) 민의상달의 정치

정조는 1795년 윤2월의 화성행차에서 상언上言 127건을 판하하였다. 그는 이전에도 영우원을 비롯하여 경기도 일대의 왕릉을 참배할 때마다 백성들의 각종 상언과 격쟁擊錚[41]을 허용하여 억울함을 청원할 수 있게 하였다. 민의상달[通下情]의 정치를 구현하려는 정조의 이 같은 전향적前向的인 자세로 상언과 격쟁은 양과 질의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우선 양적으로 볼 때에 정조는 재위 24년간 총 4,427건의 상언과 격쟁을 접수·처리하여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42] 질적인 측면에서도 정조 대의 상언과 격쟁은 새로운 면모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위외격쟁衛外擊錚'의 허용과 백성의 고통[民隱]에 대한 상언·격쟁의 허용, 각종 윤음에 언해본을 첨부하는 것 등을 통해 나타났다.

우선 정조는 영조 대까지 '상언·격쟁이 남발'된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온 위외격쟁을 허용하였다. 위외격쟁이란 능행과 같이 국왕이 교외로 이동할 때[動駕時] 징을 쳐 억울함을 알리는 행위로, 군졸이 시위하고 있는 의장儀仗 안인 위내衛內에까지 돌입하여 감행하는 격내격쟁과 대조를 이룬다. 정조는 즉위 직후 지금까지 금기되었던 위외격쟁을 허용하라는 교서를 반포하였다. 즉 1776년(정조 원년)에 정조는 "선조先朝(영조)가 궐내에서 격쟁하는 것만 금하였는데, 이후 교외에서도 격쟁하는 것이 아울러 금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잡아 가두어 형벌을 가하기까지 하니 이 또한 괴이하다. 국왕이 대궐에 있을 때는 차비문에서 격쟁하며, 동가 시에는 위외에서 격쟁하는 것이 고제古制"[43]라고 하여, 위외격쟁의 허용을 명하였다.

이 같은 국왕의 조치에 대해 신하들은 "아주 작은 문제에도 함부로 상언하고 격쟁하는 풍조가 참월하다."고 하면서 상언과 격쟁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1781년(정조 5)의 차대次對에서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은 "근래 기강이 해이해

41_ 일반적으로 일반 민인(民人)들이 올리는 상언(上言)은 어가가 쉬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올리는 것을 말하고, 격쟁(擊錚)은 행차 중에 징을 쳐 소원의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 국왕의 행차를 일단 방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호소를 받아들이기는 하되 약간의 벌을 주고 접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일조각, 1996, 19~28쪽).

42_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일조각, 1996, 341쪽. 정조의 현륭원 행차가 모두 13회이고, 이때 처리한 상언이 1,100여 건에 달했는데, 매번 행차에 대략 85건의 민원을 처리한 셈이다. 실록은 당시의 정경을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손잡고 나와 길가에 운집한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자비로운 부모 앞에 나온 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 정조는 백성들의 상언·격쟁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했음을 알 수 있다(『정조실록』, 정조 3년 8월 5일 병진).

43_ 『일성록』, 정조 1년 2월 20일 병진.

져 백성들의 풍습이 완악한 탓으로 가전駕前에서 격쟁하는 것을 예사로 여기고" 있다고 하면서, 4건件 이외의 문제를 가지고 격쟁한 사람에 대해서 충군율充軍律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44] 이에 대해 정조는 영조 대에 격쟁이 폐지된 것은 신문고를 이용하라는 취지였음을 상기시키면서 "하정下情을 통달"하게 하기 위하여 격쟁을 다시 허용할 것을 지시하였다.[45] 1791년(정조 15)에도 병조판서 김문순이 상언·격쟁이 날로 외람스러워지고 있으며, 특히 통구대로通衢大路(통운교·혜정교·파자교 등 상언·격쟁할 수 있는 지정 장소)에서 상언·격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그것을 통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마땅히 하나의 통로를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니 통구마저 막아 버린다면 이 또한 민의를 상달[通下情]하게 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하며 윤허하지 않았다.[46]

정조는 특히 화성행차 등 각종 능행을 이용하여 백성의 말을 듣고, 민폐를 적극 해결하려 하였다. 정조 대는 유난히 국왕의 행차가 잦았는데, 정조는 재위 24년간 70여 회나 경기도 일원에 산재한 왕릉을 찾아 나섰다. 국왕이 민정을 살피고 민의를 알기 위해 궁성 밖을 나오기 시작한 것은 영조 때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47] 영조는 '시민市民'과 '향민鄕民'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자주 궁성문이나 도성문에 임하였다. 영조가 이처럼 도성 안 또는 도성문에서 백성과 만난 데 비해, 정조는 주로 도성 밖으로 나와서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또한 즉위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대민 접촉을 시도한 영조와 달리 정조는 즉위 초반부터 대민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정조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민 접촉을 시도한 것은 왕세손으로서 영조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면서 일찍이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조는 왕세손으로서 1765년(영조 41) 명릉明陵 배알 때부터 영조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관료들의 중간 왜곡 없이 직접 백성들의 말을 들으려 하였다.[48] 이는 임금과 백성 사이에서 국왕의 덕의를 왜곡하고 "중간에서 소멸시켜 버리는" "탐오하고 교활한 관리들"[49]을 제거해야만 성왕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조의 정치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7. 소강시대를 위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의 화성 건설과 능행에는 복합적인 동기와 다양한 의도가 내재해 있었다. 생부 사도세자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국왕 자신의 정당성 제고, 정적[辟派]에 대한 위협을 통해 국왕 지지세력[時派]으로의 전향 유도, 수도권 방

44_ 『정조실록』, 정조 5년 7월 16일 병진.
45_ 『정조실록』, 정조 5년 7월 16일 병진.
46_ 『일성록』, 정조 15년 2월 29일 갑술.
47_ 이태진, 「정조 : 유학적 계몽절대군주」, 『한국사 시민강좌』 제13집, 1993, 63쪽.
48_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일조각, 1996, 51쪽.
49_ 『정조실록』, 정조 2년 5월 4일 계유.

위체제의 점검과 군사훈련의 기회 마련, 국왕의 재정적 후원도시로서 건설, 백성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과 민심 획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천하가 한집안처럼 된" 소강小康시대의 실현 등이 그것이다. 정조는 즉위 초반의 '경장대고'에서 비록 삼대의 제도를 금방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고치고 잘 바꿔 나간다면 "소강의 정치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다.[50] 당시 조선의 형편으로는 유교의 이상사회인 대동의 정치는커녕 소강시대를 회복하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도 공자가 존경했던 주공의 정치, 즉 주나라 '소강의 정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정조의 생각이었다. 그는 종종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동포"라고 말하면서 "다 같은 동포끼리 서로 돌보는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곤 하였다.[51] 다시 말해서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하나의 집안으로 보고, 백성들을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식들로, 그리고 왕 자신을 부모로 여겼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화시켜 한 집안 식구처럼 어우러져 살아가게"[52] 하는 데 자신의 사명이 있다고 밝혔다. 수원 화성 건설은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조가 수원 화성 건설에서 취한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조는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民生]. 정조에 따르면 "무릇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넉넉해진 다음에야 마음이 착해지는데" 당시 농민들은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세금이 너무 무거워 힘이 고갈된 상태였다. 따라서 세금을 가볍게 하고, '신해통공'(1791년)과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자유화조치를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수원에 대규모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둔전을 경영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둘째, 강한 군대를 길러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는 일이다[戎政]. 아무리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백성들이 착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웃나라에서 갑자기 침략해 들어온다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임진왜란·병자호란과 같은 외침을 당한 조선 백성에게 튼튼한 국방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 사람들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졌고, 무엇보다 군대가 여러 붕당과 연결되어 있어서 사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조의 판단이었다. 중앙의 오군영 군 지휘관들이 국왕이나 병조판서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소속 붕당 영수의 지휘를 따르는 폐단이 그것이다. 정조는 이것을 "군대의 가병화家兵化"와 "명령체계의 혼란[多門]"이라고 지적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수어청 등을 대폭 축소시키고(1795년, 정조

50_ 『정조실록』, 정조 2년 6월 4일.
51_ 『정조실록』, 정조 7년 10월 20일.
52_ 『정조실록』, 정조 15년 1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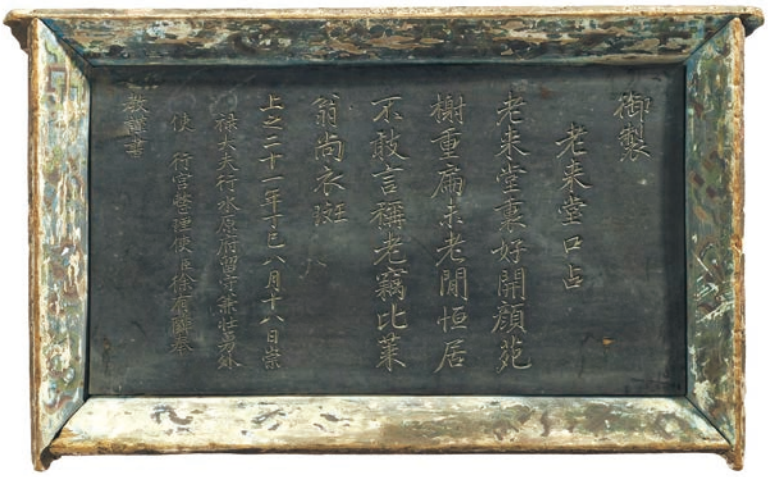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798년(정조 22) 12월 3일 정조가 자호를 만천명월주인옹으로 짓고 그 뜻과 내력을 적은 편액이다. 이 글에서 정조는 자신은 달에, 만인은 시내에 비유하고, 하늘에 뜬 밝은 달이 지상의 모든 시내를 비추듯 세상의 이치인 태극을 이해한 국왕인 나 역시 모든 백성들에게 은덕이 고루 퍼져 나가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19) 장용영을 창설하는 등 군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셋째, 출신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였다[人材]. 예나 지금이나 우리 나라가 가진 최고의 자원은 인재인데, 정조에 따르면 적재適材를 적소에 잘 배치했을 때 국운이 융성했다고 한다. 즉 세종 대의 경우 언관은 언관대로, 재상은 재상대로, 장군은 장군대로, 그리고 지방 수령은 수령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나라가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정조는 인재 등용의 요체는 인재를 잘 기르고 가르치는 데 있다고 보았다. 평소에 인재를 기르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위기 시에 뛰어난 인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흔히 "난세에 영웅 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다. 평시에 인재를 길렀기 때문에 난시에 그 덕을 보는 것이지, 평시에 기르지 않은 인재가 난시에 갑자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조가 수원 화성에서 과거시험을 설치해 인재를 뽑고, 정약용 등 많은 인재를 이곳에 모이게 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규장각에 박제가 등 서얼 출신 인재를 검서관으로 임명하고, 소론과 남인 등 오랫동안 조정에서 밀려나 있던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다. 18세기 후반에 분출되었던 돌연한 정신적 활기는 그러한 인재 쓰기의 결과였다. 외직으로 돌고 처벌당하는 별 볼일 없는 무신 출신 조심태(1740~1799년)를 수원유수로 기용해 화성 성역을 끝낼 때까지 전임시켜서 일의 성과를 거두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인재 쓰기의 예가 된다.[53] 조심태는 화성 건축과 둔전 설치 등 수원에 관한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으며, 모두들 이주를 꺼리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먼저 수원에 이사시키는 등 모범을 보였다.

수원 화성 건설 과정에서 보인 정조의 정치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정조는 훌륭한 정치가의 모습을 나약한 문치주의 정치가가 아닌 적극적 무예관을 가진 군

53_ 『정조실록』, 정조 20년 1월 3일.



「노래당구점(老來堂口占)」 편액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김포, 안산 등을 거쳐 전날 현륭원을 참배하고 화성행궁에서 하루를 머문 정조가 1797년(정조 21) 8월 18일 화성을 떠나 서울로 돌아갈 때 지은 시이다. 화성행궁의 노래당(老來堂)에서 연회를 베풀고 중수한 미로한정(未老閒亭)에 편액을 단 일과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읊었다. 정조는 당시 화성유수였던 서유린(徐有隣 : 1738~1802)에게 이 시를 쓰게 하였는데, 후일 이를 편액으로 만들어 걸어 두었다.

주의 모습에서 찾았다. 그는 쇠락한 문·무 사대부들의 기풍을 혁신하고 이들을 국왕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여 경장의 기틀로 삼고, 나아가 삼대의 정치를 구현하려 하였다. 특히 화성 건설 과정에서 벽파 등 정치적 반대세력을 위협하여 그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시파로 돌아설 수 있기를 의도하였는데, 장용영은 그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실제로 무신武臣 이주국 같은 인물은 정조의 위협으로 벽파에서 시파세력으로 전향하여 장용영의 강화와 화성 성역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54] 말하자면 등극 과정에서 정치세력들의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적을 제거했던 정조는 등극한 이후에도 노·소론의 벽파세력에게 위협과 회유의 방법을 구사하여 국왕 지지세력으로 전향해 오도록 유도하는 등 노련한 현실정치가로서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정조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추구하는 정치가라기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때에 따라 변통"할 줄 알았던 지략가일 뿐만 아니라, 친위부대까지 장악한 "무장한 예언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위군주有爲君主'이자 '무장한 예언가'였던 정조가 개혁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미완의 개혁가'로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탓[55]과 과감하지 못했던 정조의 성격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정조는 자신이 십여 년을 더 살 것으로 생각하고 개혁의 비전을 구상한 듯하다. "10년이 지나면 나도 장차 늙을 것이니 화성에 노래당老來堂이 있어야겠다."[56]는 말이나, 혜경궁에게 화성에서 칠순잔치를 약속한 것[57] 등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건극의 치화'는 이룩되지 못하고, 정국은 수구적 조치와 반대당에 대한 철저한 보복의 정치로 접어들게 되었다.[58] 우리 역사의 비극이자 정조 리더십의 한계라 할 수 있다.

54_ 정조에 따르면 많은 신하들이 '상계군 사건' 때 "역적 구선복의 종형제"인 이주국을 구선복과 함께 처벌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왕 자신은 이러한 요구를 물리치고 "죽을 것을 살려 주고 마른 뼈에 살을 붙여 주었다." 그런데 지금 이주국이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벽파들과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반드시 두려워하는 생각을 갖고 고치도록 하라."고 위협적인 지시를 내리면서 특별히 총융사에 임명하였다(『정조실록』, 정조 15년 6월 5일 무신).

55_ 16세기 이탈리아의 정치상황을 고찰하면서 체사레 보르지아를 '무장한 예언가'로 평가한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보르지아는 자신의 아버지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죽음까지도 예측하고 대비를 해 두었지만, 아버지의 죽음과 거의 동시에 자신의 질병이 닥쳐 그의 정치적 구상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N. Machiavelli, The Prince, p.60).

56_ 정약용 저, 박석무 역, 「정헌 이가환 묘지명」, 『다산산문선』, 창작과 비평사, 1993, 94쪽.

57_ 『정조실록』, 정조 19년 3월 7일 무오.

58_ 정조 사후의 대대적 숙청과정을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높으신 임금 홀연히 떠나 버리자 / 요원의 불길처럼 화란이 타올라서 / 붉은 옷 죄수들이 길을 메울 지경에 / 목과 손과 발에 씌운 형틀에서 목숨을 잃었다오."(정약용 저, 박석무 역, 「정헌 이가환 묘지명」, 『다산산문선』, 창작과 비평사, 1993, 124쪽).

SUWON HWASEONG

이달호 전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03
화성 축성 조직과 운영

1. 축성 조직과 인적 자원

1) 관리 분야

정조는 1793년 12월 6일에 영의정을 역임한 채제공蔡濟恭[1]을 총리대신으로, 훈련대장을 역임한 조심태趙心泰[2]를 감동당상으로 임명하면서 화성 건설을 본격화하였다. 이어 12월 8일에 화성성역소를 설치하고 낭관郎官의 우두머리인 도청에 이유경李儒敬[3]을 임명하였다. 그 하위 단위는 작업관리 및 현장감독 분야와 사무관리 및 지원부서로 나누었다.

먼저 작업관리 및 현장감독 분야는 별감동 10명, 감동 12명, 별간역 2명, 간역 4명, 경패장 40명, 부패장 122명 등이 편제되었다. 사무관리 및 지원 부서에는 책응도청 1명, 경감관 7명, 부감관 5명 등이 배치되었다.[4] 그 하부조직은 문서기록과 수발을 담당하는 경서리 5명, 부서리 50명, 글씨를 쓰는 부서사 3명, 창고를 지키는 경고직 1명, 심부름하는 경사령 4명, 기로 신호하는 부기수 54명, 문서를 처리하는 경문서직 2명, 부문서직 2명, 부사환군 4명, 경포졸 5명, 부포졸 18명 등을 편제하였다. 이를 작성하면 〈표 1〉과 같다.

1_ 채제공은 1788년 2월 12일 우의정에 임명되었고 이후 1789년 9월 27일 좌의정으로 승진되면서 사도세자의 천봉 총책임자인 총호사에 임명되었다. 정조는 1793년 1월 12일 수원부를 수원유수부로 승격시키는 한편, 좌의정을 역임한 채제공을 수원유수로 임명하였다. 채제공은 이때부터 화성 건설을 치밀하게 조사 준비하고 5월 25일 영의정에 임명되면서부터 화성 축성 방략에 대해 정조에게 보고하였다.

2_ 조심태는 1789년 7월 11일 금성위 박명원의 상소로 사도세자 영우원 천장(遷葬)이 결정되자 수원부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1791년 1월까지 수원의 신도시 진흥정책을 수행하였다.

3_ 이유경은 이미 1791년 1월 종2품 금위(禁衛) 중군으로 한강 주교를 건설한 경험이 있었다. 한편 그의 고향은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이다.

4_ 『화성성역의궤』에는 조직된 관료와 상·하 관리직 그리고 기술자들의 동원된 숫자 '명칭'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는 봉건적 신분 질서가 의연히 남아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징표이다. 기술 및 현장 감독 경(京)·부(府) 패장과 관리 및 지원 부서의 부감관까지는 원(員)으로, 경·부서리는 인(人)으로, 그 이하 기술자 및 짐꾼, 허드레꾼은 명(名)으로 호칭하고 있다.

<표 1> 관리 분야 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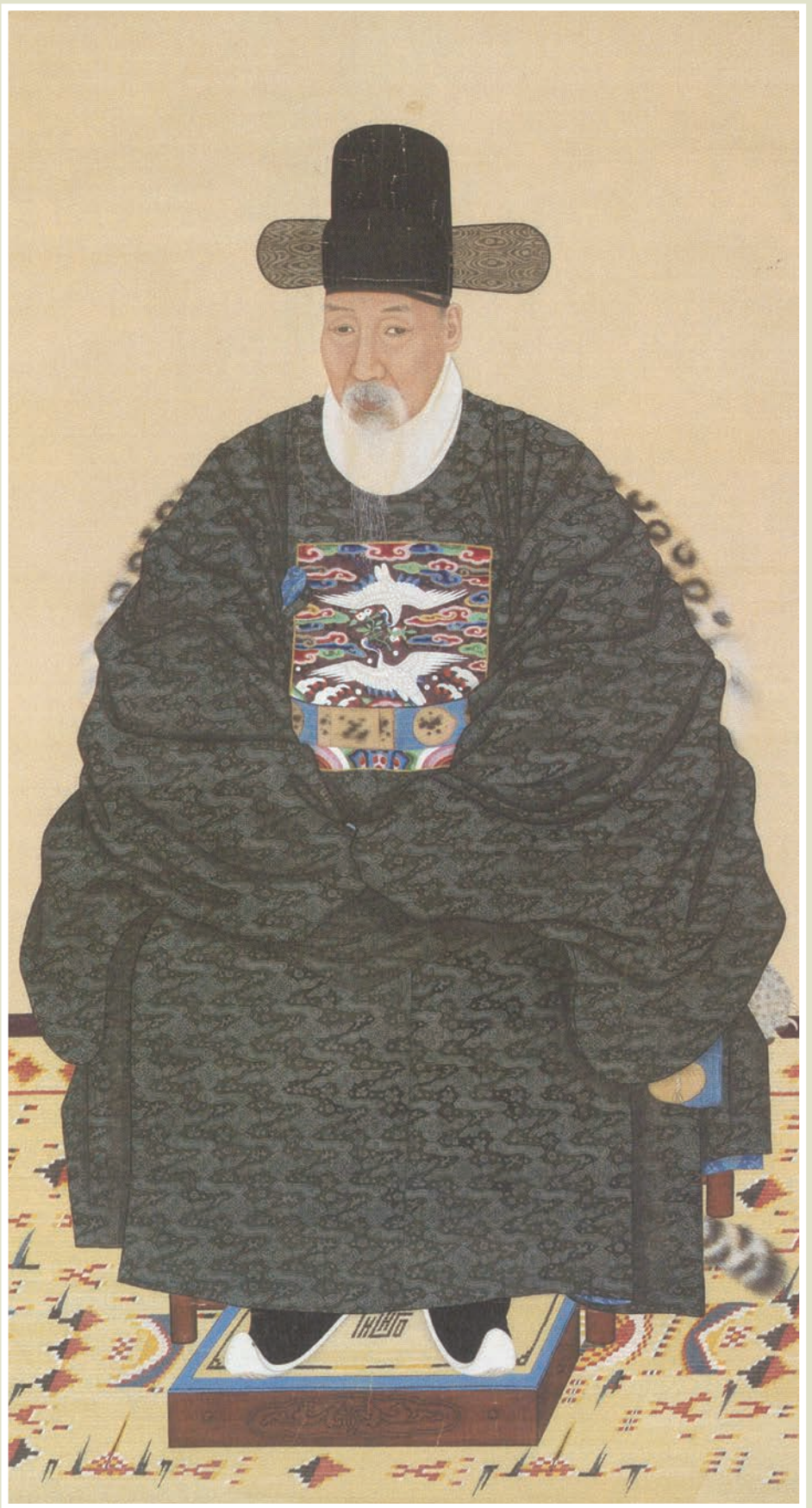
직책	성명	기간
총리대신(摠理大臣)	채제공	1793.12.06.~
감동당상(監董堂上)	조심태(화성유수)	1793.12.06.~
도청(都廳)	이유경	1793.12.08.~

작업관리·감독		
직책	성명	비고
별감동(別監董)	전 부사 양훈 등 10명	경기 중군 김후 886일 실사
감동(監董)	전 목사 이백연 등 12명	참봉 황정언 530일 실사
별간역(別看役)	전 현감 정우태 등 2명	한량 김계중 795일 실사
간역(看役)	전 오위장 이종범 등 4명	
경패장(京牌將)	가선 이도문 등 40명	박충수 889일
부패장(府牌將)	가의 박진황 등 122명	

사무관리·지원		
직책	성명	비고
책응도청	수원부 판관 김노성→정동협→홍원섭	홍원섭은 1795년 윤2월 2일부터
경감관	전 동지 김명우 등 7명	김명우 930일 실사
부감관	전 별장 이원영 등 5명	가의 이위 918일실사
경서리	임치우 등 5명	
부서리	이완수 등 50명	
부서사	박인수 등 3명	
경고직	조원진 1명	
경사령	김봉문 등 4명	
부기수	민춘득 등 54명	
경문서직	손성득 등 2명	
부문서직	윤한동 등 2명	
부사환군	진칠용 등 4명	
경포졸	황기린쇠 등 5명	
부포졸	조만성 등 18명	

〈표 1〉의 작업관리 및 감독 분야 편제를 살펴보면, 별감동은 전체 공사기간에 10명이 배치되었으나 300일 이상 일한 별감동은 김후(886일), 김처한(585일), 이방운(356일), 조한진(345일), 최명건(323일), 조운상(313일)으로 6명이다. 이들은 부석소, 각 지역의 벌목, 제재소, 성벽 쌓기 등에 집중 투입되었다. 그러나 별감동들에게 탈이 많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들 모두가 전체 공사기간 중에 원만하게 직무에 충실한 것 같지는 않다.[5] 감동의 경우는 총 12명으로 300일 이상 감독한 인물은 황정언(530일), 윤예기(476일), 정호남(453일), 이백연(416일), 서유건(379일) 등 5명으로 각 시설물별로 하나의 공사가 끝나면 다른 시설물로 이동하여 감독하고 양우소, 성벽 쌓기 등에 집중 투입되었다. 별간역 2명 중 김계중은 795일을 일하면서 주로 화성행궁 증축에

5_ 별감동 중에 탈이 있는 자들이 많아 북쪽 성 쌓는 일을 삼화부사 별감동 김처한에게 더 하도록 지시한 대목에서 그 탈이 무엇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문제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7월 초8일).



총리대신으로서 성역공사의 총책임을 맡았던 채제공(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성역공사에서 886일 동안 별감동을 맡았던
김후(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집중 투입되었다.

경패장은 40명이 배치되었는데 박충수가 889일 동안 일하였고, 300일 이상 일한 사람은 11명뿐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장 2~3군데에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채석장, 돌 다듬기, 돌 운반, 개울 파기, 벌목, 숯 조달, 석회 조달, 소 조달, 재목 운송은 물론 각 시설물에 배치되어 작업관리 및 감독을 맡았다.

부패장은 총 122명이 동원되었는데, 주목되는 인물로는 박진황이 있다. 그는 대장간에서만 939일을 종사하였다. 이정은 구포제재소와 잡물소에서 826일, 최호빈은 왕륜와벽소에서 739일, 박종간은 왕륜의 벌목 및 와벽소에서 838일, 이경배는 장안문·

북성·북서적대·본부 벌목·왕륜 벌목 및 와벽소에서 791일, 홍명룡은 채석장과 화서문에서 708일, 이광현은 돌 운반·북성·동북성·동북노대·서포루·봉돈 등에서 773일, 유광춘은 단청일에 676일 동안 종사하였다. 이들은 돌운반, 석회 제조, 흙 조달, 개울 파내기 등에 집중 투입되어 작업관리 및 감독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으로 부패장은 현장감독으로서 곤장棍杖으로 임부를 다스리기도 하고 노동의 성과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무관리 및 지원 부서에는 수원부 판관이 책응도청을 겸하여 김노성, 정동협, 홍원섭[6]이 역임하였다. 경감관은 총 7명으로, 김명우는 930일, 구석하는 354일, 정영은 552일 동안 일했고, 이해승은 회계소에서 200일, 나동욱은 도소에서 354일, 심이진은 책응소에서 354일, 한명철은 경책응소에서 419일을 일했다. 부감관은 5명이 종사했는데 이원영은 도소에서 434일, 권치명은 책응소에서 434일, 최윤익은 잡물소에서 434일, 이위는 구포제재소와 잡물소 등지에서 918일, 황치욱은 북동포루와 책응소에서 609일을 일하였다.

부서리府書吏 50명은 도소都所, 책응소, 양우소, 채석장, 잡물소, 대장간, 와벽소 및 화성 각 시설물에 분산 배치되었다. 바로 이 50명이 현장의 패장들과 함께 자재의 수발과 기술자 모군들에게 품삯을 주는 등 실무적인 일을 처리했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부기수府旗手 54명인데, 이들은 현장과 현장을 깃발을 이용해 각종 연락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포졸 5명과 부포졸 18명은 돌 도난, 기율 세우기 등과 같은 범법자를 체포, 응징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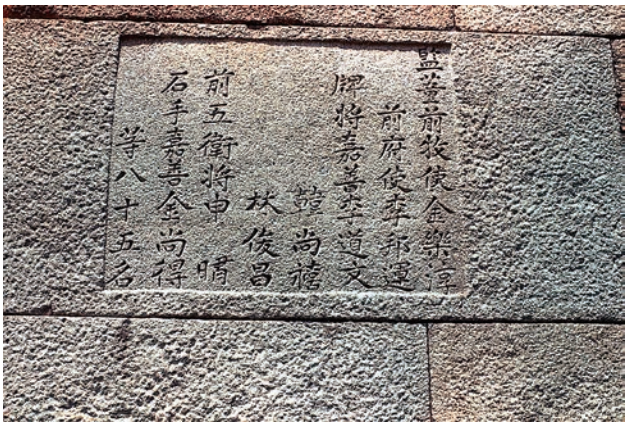
이 외에도 비변사, 호조, 예조, 공조, 병조, 한성부 등 중앙부서와 경기관찰사를 비롯하여 각 병영, 부·현 등에서 화성 건설의 인원 및 자재 동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조는 선전관을 파견하여 자재 수급 과정에서 각종 폐단과 민정을 시찰하였다.

2) 기술자[工匠]

화성 성역에 동원된 기술자는 석수, 목수, 미장이, 와벽장이, 대장장이, 개와장이, 수레장이, 화공, 가칠장이, 큰끌톱장이, 작은끌톱장이, 기거장이, 걸톱장이, 조각장이, 마조장이, 선장, 나막신장이, 안자장이, 병풍장이, 박배장이, 부계장이, 회장이 등이었다.

기술자 동원 과정을 보면, 먼저 1793년 12월 6일 각 지역에 거주하는 기술자의 이름과 거주지를 책자로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공문으로 발송하고,[7] 다음은 훈련도감, 수어청, 총융청, 용호영, 내수사, 선공감 등의 석수·목수·대장장이들의 본래 일을 면

6_ 1801년(순조 1) 『화성성역의궤』의 간인(刊印) 감독과 찬집하는 데 종사하였다(『순조실록』 권3, 순조 1년 9월 18일 임진).
7_ 『화성성역의궤』 부편2, 감결, 계축년 12월 6일.



팔달문 축성에 참여한 감동과 석수

제하고 화성성역소로 올려 보낼 것을 지시하는 것이었다.[8] 이것으로 보아 기술자는 부역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숙련된 기술자들의 경우 화성 성역에 부역 동원되는 것이 불이익이 될 때에는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화성 성역이 7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1794년 7월에 화성성역소로 숙련된 기술자를 차출하도록 각 지역 관청에 당부하면서 이름을 바꾸어서 대신 세우는 폐단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린 공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9] 숙련된 기술자들을 제때에 동원하고자 각 지역 관청에서는 노잣돈을 주어 평안도 지역에서 수원까지 5일 안에 도착하도록 격려하였다.

(1) 석수

석수는 돌을 떼내는 일, 다듬는 일, 조각하는 일을 맡았다. 이들은 일을 보조해 주는 조역 1명과 함께 2명이 1패가 되었다. 조역에는 어린 아이까지 동원되었다. 석수를 공장工匠의 제1순위로 꼽고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된 성곽의 대부분이 돌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으며, 성곽 축조를 위해 돌 뜨는 일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경아문의 석수만으로는 모자라 우선 급한 대로 도편수 2명을 1793년 12월 23일까지 올려 보내도록 개성과 강화부에 지시하였다.[10] 더 나아가 도내 각 읍 소재 공公·사私 석공을 1794년 1월 10일까지 올려 보낼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11]

그러나 석수도 부역에 쉽게 응하지 않았다. 각 도의 읍에서 올린 사람들은 주로 늙은이나 초보자가 다수였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꿔 보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성역이 시작되어 7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1794년 7월에 전국에 공문을 보내 제대로 된 석수를 탐문하여 석수의 성명, 나이, 얼굴모양, 흉터, 거주지를 책자로 재작성하여 보낼 것을 지시하고 있다.[12] 이는 국가에서 처음 의도한 대로 뛰어난 기술자들이 동원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화성 건설 시 임금 지불에서 특별대우를 해 주어 노동력 동원이 비교적 쉬웠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와 같은 예를 보면 장인등록제는 명목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외적 지배'에서 '경제적 지배'로 바뀌어 가는 현상들을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석수들은 부석소에 가장 많이 파견되었고, 다음은 동성, 남성, 서성, 북성, 남수문, 장안문 순이었다. 부석소에서 돌을 떠내고 그 돌을 다듬는 일과 특히 돌이 가장 많이

8_ 『화성성역의궤』 부편2, 감결, 갑인년 1월 7일. 이러한 정황은 1759년(영조 35)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인 의식을 기록한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의 「도감사목」 중 "부역에 응해야 할 장인(匠人)이 회피하거나 각사의 하인으로서 영(令)을 어기는 자는 즉시 잡아 가두고 태형(笞刑)으로 벌한다."는 조목과 같은 조건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봉건적 관행인 태형의 형태는 일제시기를 거쳐 1960~1970년대에도 잔존하고 있었다.

9_ 『화성성역의궤』 부편2, 내관, 갑인년 7월 21일.

10_ 『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계축년 12월 17일.

11_ 『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계축년 12월 22일.

12_ 『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갑인년 7월 초2일.

소요되는 동서남북의 체성과 남수문, 장안문의 돌 쌓기에 석수들이 집중 투입되었다.

(2) 목수

목수는 총 335명이 투입되었다. 목수도 석수와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각 읍에 소재한 목수 중에서 공장이건 사장이건 승과 속을 막론하고 솜씨가 뛰어난 자를 택하여 거주지와 성명을 상세하게 책자로 정리 보고하고, 보고된 뒤로는 제멋대로 떠날 수 없다는 뜻을 엄하게 당부하도록 하였다.[13] 1794년 1월 30일 화성 문루공사를 위하여 급히 공문을 발송하여 경상도 영천 은해사의 승 쾌성快性과 강원도 양양 명주사의 승 진련震蓮을 급히 올려 보낼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14] 그러나 이들 기술자 중에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나는 자도 있었다. 파주에서 온 3등 목수 김여백은 몇 달을 부역하다가 다른 지방으로 사라졌다.[15]

대표적 목수 편수는 내수사 소속의 정복룡, 양세득, 권성문, 김성인이다. 정복룡, 김치한은 치목소에서 총괄 편수로 활약하고 4대문과 주요 시설물 대부분을 담당하였다. 특히 정복룡은 북서포루와 북동포루 모두 관여한 것으로 보아 두 건물의 우진각 지붕을 반토막 낸 장본인으로 추정된다.[16] 권성문과 김성인도 팔달문과 창룡문 등 주요 시설물 건설에 관여하였다. 장용영의 한천석은 장안문·화홍문·방화수류정, 금위영의 이귀재는 장안문·서장대, 지방편수로는 회양의 윤사범이 팔달문·남암문·서장대, 금화의 스님 굉흡은 장안문·방화수류정·북서포루 등에 관여하였다. 서울편수로 무소속[私匠]의 손동현·이광록·민백록이 있고, 지방편수인 수원부의 한진욱은 장안문·화홍문·방화수류정 그리고 같은 수원부의 김치한은 장락당 등 화성행궁의 주요 시설을 담당하였다.[17] 이 외에도 서울의 무소속 편수로는 손삼득, 박쾌득, 송상득 등이 활약하였다. 특히 화성 시설물 중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방화수류정과 화홍문 건설에 관여한 한천석과 한진욱 그리고 강원도 스님 굉흡은 당대 최고의 건축 예술가로 판단된다.

(3) 미장이

미장이는 총 295명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1794년 12월에 미장이 50명 정도를 급히 올려 보낼 것을 촉구하는 공문[18]을 개성부에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장이도 원활하게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성벽 여장과 옹성, 적대, 공심돈, 노대, 포루, 봉돈 등의 벽돌 쌓기에 주로 투입되었다.

미장이로는 서울편수 장용영의 권옥, 무소속의 김명철·박도성·윤동주, 지방편수인 수원부의 김상득, 개성부의 이삼이 등이 크게 활약하였다.[19] 권옥은 주요 시설물과

13_『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갑인년 정월 초2일.
14_『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갑인년 정월 30일. 그러나 『화성성역의궤』에 명단이 보이지 않으므로, 화성 건설에 참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15_『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을묘년 3월 초8일.
16_ 반토막 지붕은 부석사의 범고각 지붕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2개소뿐인 지붕형태이다.
17_『화성성역의궤』 권2, 상전.
18_『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갑인년 12월 22일.
19_『화성성역의궤』 권2, 상전.

벽돌이 주로 사용된 포루·노대·적대·옹성 등에서 활약했으며, 김명철·박도성 등도 4대문과 옹성·공심돈·봉돈·암문 등에 집중 투입되었다.

(4) 기타 기술자

석수, 목수, 미장이 외에도 와벽장이(벽돌장이)는 150명, 대장장이 83명, 개와장이 34명, 수레장이 10명, 화공 46명, 가칠장이 48명, 큰끌톱장이 30명, 작은끌톱장이 20명, 기거장이 27명, 걸톱장이 12명, 조각장이 38명, 마조장이 2명, 선장 8명, 나막신장이 34명, 안자장이 4명, 병풍장이 1명, 박배장이 1명, 부계장이 1명, 회장이 1명 등이 동원되었다.

벽돌장이는 훈련도감의 황윤구·오태운·황윤창·강희대, 금위영의 서봉세·서봉천, 서울의 무소속 서득세·김광손·조중남·심세득·이용해·우유득·이홍손·황상신·서도희 등이, 지방편수로 함흥의 최삼득·이득실·천창룡 등이 활약하였다. 벽돌 만드는 일에는 150명이 종사하였는데, 지금의 의왕시 백운산의 왕륜벽소와 영화동으로 추정되는 북성벽소에서 벽돌을 구웠다. 벽돌장이는 함경도에서 특별히 차출하여 충당하였다.[20]

대장장이는 83명이 동원되었는데 서울편수로 어영청 소속의 이만석, 지방편수로는 수원의 최장천이 활약하였다. 그들은 대장간과 부석소에 배속되어 일하였다. 이들은 야장 1명에 연마장鍊磨匠, 취로군吹爐軍, 타조군打造軍 등 조역 3명과 1패가 되어 모두 4명이 작업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화성을 떠난 자들도 있었다.[21]

화공은 46명이 참여하였는데 훈련도감의 엄치욱이 큰 활약을 하였다. 46명 중 40명이 승려 신분이었다. 그렇지만 남북문루 단청 일을 위한 화승畵僧도 부족하여 1794년 9월 11일에 양주의 덕사德寺 화승을 도都화승으로 임명하여 15일까지 공사장에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22] 기와장이의 경우는 서울 총융청의 이홍득, 수레장이는 서울편수 이중백, 나막신장이는 서울 장용영의 최태기 등이 뛰어난 활약을 하였다.[23]

3) 품팔이[募軍]

기술자를 제외한 모군은 화성 성역 현장에서는 자재를 운반하는 담군과 허드렛일을 하는 모군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기초공사, 성벽 쌓기, 석회번조, 흙짐지기, 돌 운반하기, 치도治道와 신작로 닦기, 준천 및 연못 파기 등에 고용되었다. 이 외에도 각 지역에서는 벌목, 나무운반, 남양부 구포나루까지의 운반 뱃사공 등이 고용되었다.

정조는 모군 동원방식에 대해 신하들과 화성 건설 이전과 건설 과정에도 여러 차

20_ 『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계축년 12월 17일.
21_ 3등 야장 전주인 김만손은 부역에 응하다가 서울로 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을묘년 3월 초8일).
22_ 『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갑인년 9월 11일.
23_ 『화성성역의궤』 권2, 상전.

례 토론을 거치고 있다. 왜냐하면 1789년 수원부 읍치를 팔달산 동쪽으로 옮길 때에도 각 도의 백성이 구름같이 몰려든 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군들이 팔방에서 몰려들 것을 우려하여 8도와 3도에 화성 성역은 10년을 기한으로 하니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전국에 시행문으로 공지하고 백성들에게 일일이 알리도록 하였다.[24] 이러한 현상은 당시 농촌을 떠난 유이민遊離民과 날품을 팔기 위한 예비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25]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은 모두 강제 부역을 주장하거나 승군 조발을 건의하였다.

화성 건설의 날품팔이 동원은 첫째, 신역이 없는 사람들을 모군하거나 둘째, 수원 인근의 자원 부역자로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자원 부역자도 품삯을 계산하여 신역에서 감해 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첫 번째 부류는 토지에서 쫓겨난 '유이민'들로 규정할 수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역役을 지는 양인良人 농민들로 이들의 처지도 '일용日傭 농민'과 다르지 않아 건설현장에 고용되어 품삯을 받아 생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화성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화성 건설에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된 시점은 1794년 9월까지이다. 화성 건설 초기인 이 시기에 약 4,000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터다지기, 개울치기 등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 이후 1795년과 1796년에는 2,000명 내외의 인원들이 투입되어 화성 건설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26]

2. 노임 지불

1) 노임 지불방식

화성 건설의 노임 지불방식에 대하여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관리직, 기술자, 모군의 구별 없이 급가모군, 급가고립제, 고가, 일당제, 임금노동, 일당제가 아닌 짐수, 즉 일한 만큼의 실고가實雇價 지급 등으로 표현하였다.

먼저 모군의 고가 지불방식은 정약용의 「성설」과 정조가 화성 둔전을 조성하면서 지시한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 한 걸음마다 표목表木을 세워 3,600단段으로 나누고, 그다음 인부를 모집하여 개울의 자갈을 지고 와 일단一段을 채우는 데 따라 품삯을 얼마씩 준다면, 그들은 자신이 계산하여 많이 져 나를수록 이익이

24_ 『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계축년 12월 20일.

25_ 모군들은 성역이 시작되자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와 천막을 짓고 눌러앉아 있었는데, 그중 3분의 2 정도는 돌아가고자 하는 자가 매우 적고 새로운 일거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7월 초8일).

26_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건설』, 혜안, 2008, 114~117쪽.

> 많으므로 힘껏 일을 하여 며칠 안 되어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날품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이 절약되고 공정도 빠를 것입니다.[27]

> 품삯을 날짜로 계산해서 주지 않고 짐을 단위로 해서 거리의 원근을 헤아려 차등을 둔다면 강한 자는 넉넉히 백전을 취할 것이요 약한 자도 제 한 몸 가리기에는 족할 것이다.[28]

위 글을 보면 화성 건설에서 모군들의 노임 지불방식은 날품이나 날짜로 계산하여 주는 소위 '일당제'가 아니고 정량을 많이 져 나르고 원근을 헤아려 차등을 두는 도급제적 성과급제로 보인다. 그렇지만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 담기로 운반하는 담기군은 1일 6번, 큰 돌은 1덩어리, 작은 것은 2덩이를 운반하도록 정식화하였다. 이를 어기는 담기군은 패장이 곤장으로 다스리고 품삯도 삭감하도록 하였다.[29]

이러한 임금 지불방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한 양과 거리에 따라 노임을 지급하는 성과급제가 아니라 1일에 해야 할 노동량을 지정한 것이다. 이는 모군의 경우 일당 2전 5푼으로 정하고 노동량을 지정해 준 것이다. 그렇지만 짐꾼의 경우 잡석 1짐당 2푼 5리를 지급하였다. 이는 성과급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의 글만 보아서는 당시 노동조건으로 성과급제가 시행되었는지 아니었는지의 판단근거는 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은 정해진 노동량을 못 지켰을 경우의 단서조항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성 건설 당시 노동조건은 정부에서 직접 고용한 도급제에 기초한 성과급제로 추정된다.[30]

이와 같이 임금 지불방식이 월급에서 일당 지급으로 변화된 것은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이는 조선 중기까지의 강제부역보다는 진전된 노임 지불방식이지만 노동조건과 노동강도가 더욱 가혹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임 지불방식에서 봉건적 유제도 남아 있다. 즉 하루 정식화되어 있는 노동량을 어기는 담가군擔架軍을 곤장으로 다스리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경제외적 강제'의 봉건적 관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지만 책임자와 감독들 그리고 기술자들은 일당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책임자는 삭하식례朔下式例로 보아 월급제로 보인다. 책임자와 감독은 월급 액수를 정하였고, 도청을 제외한 감독 이하는 일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불하였다. 결국은 일당제였던 것이다.

한편 관리·감독자 및 하위직인 별감동, 경감관, 부감관, 경·부패장, 경책응감관까지

27_ 『어유당전서』 1집, 시문집, 「성설」.
28_ 『정조실록』 권42, 정조 18년 11월 1일을유.
29_ 『화성성역의궤』 권4, 감결, 갑인년 2월 5일.
30_ 이러한 임금 지불방식은 인격적, 신분적, 법률적으로 구속하면서 강제 부역시킨 한양성 축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자유로운' 노동력 동원이었다. 한양성 축조의 경우 봉건적 강제력을 가지면서 노임지불이 없었다. 봉건적 '경제외적 강제'의 시대가 지난 후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노동량과 노동시간을 늘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제고시키는 방법은 '돈'에 기초한 '성과급제'의 시행이 유효하게 사용된다. 도급지불제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더욱 높여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짜내기 위한 수단이다. 일제시기를 거쳐 현재 한국사회는 '하청다단계 일당제'가 일반적이다.

는 11일부터 886일까지 그 근무일수가 다양하였다. 따라서 월급으로 정식을 삼았지만 임금은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월급을 일당으로 환산하여 보니 기술자 모군의 일당 2.5~4.2전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하 경포교부터 서리, 서사, 부포졸까지는 화성 건설 전 기간에 걸쳐 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일당은 경사령, 경·부문서직, 사환군 등을 제외하고 일반 모군 2.5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기술자·모군의 일당은 모군과 소지기가 기본 2.5전으로 고정되고, 담군 3전, 차부 3.2전, 기와장이·조각장이·나막신장이·수레장이 등이 3전, 목수와 미장이가 4.2전이었다. 석수의 일당은 3.45전이나 1패에 지급한 총액 6.9전에서 조역에게 2.5전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보면 4전이 넘는 돈이 석수장이의 차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장장이 역시 4명에게 8.9전이 지급되었으므로, 야장과 마련장, 취로군, 타조군 4명이 차등 있게 지급되었을 것이다.[31]

2) 작업조건과 특별혜택

각처에서 동원 및 고용된 관리와 노동자들을 위해 각종 임시건물도 세워졌다. 임시건물은 각 부석소의 감동을 위한 2칸짜리 임시가옥, 석수들을 위한 흙방이 49칸, 화부들의 막사 74칸, 대장장이의 임시가옥 30칸 등이 지어졌으며, 담부를 위해서는 40칸의 임시가옥, 모군들을 위해 남·북문과 남·북수문 각각 4곳에 130칸의 임시가옥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대방축서탕, 우황육일산, 진사익원산, 청심운, 광제환, 제중단 등은 고급 도청에 별도로 지급하고[32] 척서단은 허드레꾼부터 공사 현장에 있던 관원까지 전원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부채는 원員들 이상에게만, 제중단·달력·모자는 기술자까지만, 각종 어물은 각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33] 한편 병이 든 기술자와 막일꾼들에게는 1일 쌀 2승과 돈 1전씩이 지급되었다.[34] 비가 오거나 몸이 아프면 밥값 마련을 위해 목수·조각장이·나막신장이는 1일 1.6전, 선장·큰끌톱장이·걸톱장이·기톱장이는 1.4전씩 지급하였다.[35]

또한 공사를 시작해서 첫 번째 맞이한 설에는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기술자들에게 모두 휴가를 주어 1월 10일까지 돌아오도록 하였다. 기술자들에게는 그 거리의 원근을 계산하여 노자를 마련하여 지급하였고, 남아 있는 자들에겐 연말 음식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36] 더위도 문제였지만 추위도 만만치 않았다. 추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함흥 벽돌장이에게는 특별 방한용 저고리 유의襦衣를 지급하고, 석수·목수·수레장이·벽돌장이·대장장이 등 293명에게는 추위에 대비하여 옷감으로 베와 모자를 특별

31_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건설』, 혜안, 2008, 120~124쪽.
32_ 『화성성역의궤』 권2, 반사, 병진년 6월 24일.
33_ 『화성성역의궤』 권2, 반사.
34_ 『화성성역의궤』 권3, 감결, 갑인년 2월 초6일.
35_ 『화성성역의궤』 권4, 감결, 갑인년 4월 27일.
36_ 『화성성역의궤』 권4, 품목, 갑인년 12월 초8일; 『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갑인년 12월 22일.

지급하였다.[37]

상금과 시상도 하였는데 각색 기술자에게는 0.5전, 담기군·수레꾼·모군들에게는 0.3전이 지급되었고, 공장들에게는 등급을 나누어 1등 1석 5두, 2등 쌀 1석, 3등 쌀 9두씩 시상하였다.[38] 이 외에도 지방기술자들에게는 환곡 미상환분, 그리고 군역이나 잡역을 탕감하거나 승군의 경우 부역을 면제하였다.[39]

한편 석수들이 돌아갈 때에는 가까운 진위와 용인의 경우 별하전 2냥, 쌀 3두, 노잣돈 2전씩을, 그리고 기타 원거리는 경상도 양산의 경우 노잣돈을 4냥 5전까지 추가로 지급하였다.[40] 또한 성역이 모두 끝나고 600석의 물력으로 기술자들에게 회식과 3등급으로 나누어 시상하였다. 또한 이미 일을 마치고 떠난 자들에게도 시상토록 하였다.[41]

특히 품계를 올려 주는 특혜를 부여하였는데 원 이상은 패장의 경우 변장으로, 기타 품계를 올리거나 활쏘기와 총 쏘기는 재주를 시험하여 화살·화살통·활·무명·모자 등을 하사하기도 하였으며, 석수 김중일의 경우 직접 전시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채제공에게는 호랑이 가죽, 화성유수 조심태와 다른 관료들에게는 품계를 올려 주어 사기를 진작시켰다.

3. 물자 조달

1) 석재

돌은 숙지산과 여기산에 각각 2곳, 권동에 1곳 등 모두 다섯 군데에서 채취하였다. 그러나 공사 중 팔달산에서도 석맥을 발견하여 서성은 제자리에서 캔 돌을 사용하여 돌을 캐낸 곳은 모두 6곳이 된 셈이다. 그중에서 숙지산 돌은 8만 1,100덩이, 여기산 돌은 6만 2,400여 덩이, 권동의 돌은 3만 200여 덩이, 팔달산 돌은 1만 3,900여 덩어리[42] 등 모두 28만 7,600여 덩어리가 축성에 소요되었다.

석맥이 있는 논과 밭은 국가에서 매입하고 이곳에 석수를 투입하여 돌을 떠내었다. 석맥을 잘 골라 결을 살펴 정으로 구멍을 파고 밤나무나 물푸레나무를 박고 물을 부어 나무가 팽창하는 힘으로 돌을 떠내었다. 돌 값과 노임은 어떻게 책정하고 지불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43]

돌 뜨는 일은 석수 1명과 조역 1명이 1패가 되어 진행되었다. 돌 뜨는 데는 정철과 강철 그리고 숯, 쇠가죽, 생칡, 청태목이 필요하였다.[44] 돌을 뜬 다음에는 이를 다듬어

37_ 『화성성역의궤』 권3, 별단, 을묘년 11월 11일.
38_ 『화성성역의궤』 권4, 내관, 을묘년 윤2월 28일; 감결, 갑인년 6월 10일.
39_ 『화성성역의궤』 권4, 내관, 을묘년 윤2월 28일.
40_ 『화성성역의궤』 권2, 호궤, 병진년 8월 19일.
41_ 『화성성역의궤』 권4, 내관, 병진년 9월 초10일.
42_ 숙지산 돌은 강하면서 결이 가늘고, 여기산 돌은 부드러우면서 결은 거칠고, 권동의 돌은 부드러우면서 결이 좀 더 가늘었다. 팔달산 돌은 숙지산 돌보다 더 강하고 여기산 돌보다 더 거칠었다(『화성성역의궤』 권수, 도설).
43_ 『화성성역의궤』 권6, 재용 하, 실입2.
44_ 『화성성역의궤』 권6, 재용 하, 실입2.



화성에 조성된 석재 채취 장소와 운반로

그 크기를 줄여 운반하였다. 돌을 운반하는 데는 여러 운반도구가 활용되었는데 유형거 11량, 대거 8량, 평거 76량, 동거 192량, 발차 2량, 썰매, 굴림판 등이 사용되었다.

수레의 원활한 운반을 위하여 숫돌같이 판판한 도로[治道]가 필요하였다.[45] 운반된 돌은 어느 수레 몇 채가 몇 덩어리를 운반했는지, 담기로 운반한 것은 몇 담기가 몇 덩이를 운반했는지에 대해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46] 돌 표면에 각각 길이와 넓이, 부석소 이름, 편수와 석수의 성명을 써 넣어 이를 기준으로 건별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돌 값을 지불하였다.[47] 돌 크기 기준은 대석 앞면 2척과 뒷길이 3척, 중석 앞면 1척과 뒷길이 2척 5촌, 소석 앞면 1척과 뒷길이 2척 이상, 잡석은 뒷길이 2척 미만으로 정하였다.[48] 돌 값은 대선단석이 15냥, 이두석 6냥, 이주석 4냥, 도로표석이 2.5냥이었다.

부석소의 돌을 주워 팔아먹는 행위, 어두운 밤을 틈타 사들인 돌을 훔쳐 내어 다른 곳에 파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방비하기 위해 경비를 특별히 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49] 수원 이외의 지역에서도 석재를 조달하였는데 개비석 쑥돌 1좌는 원주에, 온돌석 800장 중 300장은 호조에, 500장은 강화부에 책정하여 조달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쑥돌과 온돌석을 제외한 모든 석재는 화성성역소 현지에서 조달하였으며, 석맥과 산지는 국가에서 매입하여 제공하고 돌의 크기에 따라 차등 지불하였다.

45_ 『화성성역의궤』 권4, 감결, 계축년 12월 22일.
46_ 『화성성역의궤』 권4, 감결, 갑인년 2월 20일.
47_ 『화성성역의궤』 권4, 감결, 갑인년 4월 30일.
48_ 『화성성역의궤』 권4, 감결, 갑인년 7월 3일.
49_ 『화성성역의궤』 권4, 감결, 갑인년 4월 18일.



석재를 채취하기 위해 정으로 구멍을 낸 쇄기 자국(팔달산)

2) 목재

목재는 국가에서 관리하던 재목을 베어 오거나 사 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조달하였다. 먼저 국가에서 관리하던 안면도·장산곶·강원도 지역에서의 조달방식을 알아보자. 『화성성역의궤』에서는 베어 온 것을 작래斫來·작취斫取라고 기술하였다. 안면도에서는 방풍림을 베어 내었는데 치수대로 베어 내 포구로 끌어내고 충청수사가 관할하는 수영의 방·병선은 물론 각 읍진의 방·병선 총 30척에 나누어 1,000주를 발송하였다.[50]

그뿐만 아니라 사선私船의 선주들도 역사에 나가기를 원하여 양미와 선가를 넉넉히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사선은 여러 섬에서 처음 20척이 동원되었으며 이후 모두 47척이 동원되었다.[51] 그 이후 누재樓材 996주, 말단목 407개를 실은 병·방선과 사선 84척이 동원되었다.[52] 안면도에서 수원부의 구포까지 운반하는 기일은 2일이 걸렸으며, 30척에 달하는 배의 재목은 2월 9일부터 시작하여 3월 3일까지 1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모두 실어 날랐다.[53] 품삯은 벨 때의 품삯과 적재할 때의 모군 품삯이 매주에 1전, 끌어내릴 때의 품삯은 6전씩 지급하였고, 재목을 정리한 후 잡목들은 땔나무감으로 만들어 팔아 품삯에 보태었다.[54]

황해도에서는 장산곶의 재목을 오차포五叉浦 앞바다에서 취합하여 구포로 수송하

50_ 『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2월 12일.
51_ 『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4월 1일; 『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5월 28일.
52_ 『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6월 6일.
53_ 『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3월 4일.
54_ 『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4월 19일.

였다. 재목과 서까래감을 운송한 방·병선 22척에 승선한 감색과 사격 등은 모두 324명이었다. 따라서 1척에 약 15명의 인원이 재목을 운반한 셈이다.[55]

관동(강원도)의 경우 금성(현 금화)에서 밴 재목은 낱개로 금성천에 떠내려 보내면 북한강을 거쳐 낭천현 방현포芳峴浦(지금의 화천군 화천읍 아리)로, 양구에서 밴 재목들도 강을 따라 낭천현으로 집산되었다. 여기서 대개 55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 뗏목으로 춘천을 거쳐 가평·청평·양수리로 띄워 보냈다.[56] 이 목재들은 경강에 집결되었다. 경강부터는 조운선으로 수원부까지 운반하게 되는데, 경강 → 인천 팔미도 앞바다 → 안산 옥구도 앞바다 → 화성유수부 쌍서도 → 우음도 구포로 운반하였다. 조운선은 팔미도 바깥 바다로 왕래하는 데 익숙하여 팔미도 앞바다로 나오는 분기점에서 안산 옥구도 앞바다까지 군사가 인수인계한다. 원활하고 신속한 운반을 위하여 감색을 정하여 배를 타고 멀리까지 바라보다가 재목을 실은 배가 경계에 도착하기를 기다려 착실히 호송하여 시각이 지체되는 폐가 없도록 하였다.[57]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안면도, 관동(강원도), 장산곶의 국가 금양처에서 조달된 것과 전라 좌·우수영에 책정된 나무 값은 계산되지 않았다. 다만 베고 끌어내리는 값과 운반비만이 공곡에서 회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안면도에서는 방풍림을 말하는 풍락송을 베어 왔는데 기둥, 보, 추녀 등에 사용하는 부등목 중 가장 크고 굵은 목재인 대부등과 그다음의 중부등, 그리고 그 자투리인 말단목이 조달되었다. 장산곶에서는 봉산封山이 아닌 표외송標外松을 베어 왔는데 큰서까래나무 500개와 중서까래나무 700개 그리고 재절목 500개가 조달되었다. 관동에서는 중부등, 소부등, 회목, 다락기둥, 장혀, 익공, 행공 등에 쓰이는 궁재가 조달되었다. 전라 좌·우수영에서는 주요 건물의 평주 재목으로 사용되는 괴잡목이 조달되었다.[58]

돈을 주고 산 재목은 사 온 것 무래貿來·무취貿取, 사서 베어 온 것 무작貿斫 두 종류였다. 사 온 것은 경기강 상류 또는 광주 지역, 경강 등지였다. 경기강 상류와 경강 등의 지역에는 장송판, 큰서까래나무 등을 매매하는 목재상들이 존재하였다. 이들은 경강에 근거를 두고 중간상인의 위치를 확보해 가는 비시전계 상인들로 추정된다.[59] 산지에서 쓸 만한 나무들을 살펴보고 필요한 나무를 사서 베어 왔다. 이는 주로 수원부, 광교산, 남양, 광주, 서봉동, 용인, 경기강 상류 등지로, 수원 인근 지역과 경기강 상류에서 필요한 나무들을 조달하였다.

이러한 재목 조달에서 너무 남벌하여 산기슭을 민둥민둥하게 하는 일과 포구로 나와 부역하는 백성이 혹시 농경에 방해가 되는 일에 각별히 유의할 것 등을 지시하였으며[60] 조선漕船을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도 하였다.[61] 하지만 현실은 그렇

55_ 『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4월 26일.
56_ 『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6월 14일.
57_ 『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갑인년 6월 22일.
58_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건설」, 혜안, 2008, 128~131쪽.
59_ 강만길, 『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출판부, 1973, 81~82쪽.
60_ 『화성성역의궤』 권1, 전교, 갑인년 4월 26일.
61_ 『화성성역의궤』 권1, 전교, 갑인년 3월 11일.

게 되지 못하였다. 채제공의 계사에 "재목은 한강 상류에서 사서 하루도 안 걸려 경강에 도착"되는데 "배가 작고 좁아서 바다에 띄울 수 없으니 영남 우조창의 조선이 도착하면 돌아가는 길에 구포에 내려놓을 것"을 건의하여 허락받기도 하였다.[62] 더 나아가 세곡선까지 이용되었다.[63] 영남의 경우에는 괴목과 잡목이 목질이 굳어서 물에 뜨지 않는 폐단이 있어 실어 오지 못하기도 했다.[64] 관청배는 식량과 노자를 지급하고, 사선은 임금을 주어 실어 나르게 한 것이다.[65]

이렇게 하여 구포나루에 도착하는 즉시 수령증을 작성하고 날짜를 기입하여 뱃사람들이 운반 기일을 어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달된 목재는 각 치목소治木所에서 다듬거나 성역소에서 각 시설물에 필요한 대로 재단, 절단하여 활용하였다.

3) 기와[瓦孑]와 벽전甓甎

화성 성역에서 기와와 벽전은 왕륜면 백운동 땔나무 산에 성역소를 마련하여 조달하였다. 왕륜면과 사근평 두 곳에 기와는 6개소, 벽돌은 3개소에 나누어 설치하고 장교 2명, 색리 2명을 정하여 감찰·독려할 것을 품의[66]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붕에 올라가는 모든 건축 재료는 '와자瓦子'로 표현되고, 이는 암키와, 암·수막새, 용두, 취두, 토수, 절병통, 잡상, 연가 등이다. 기와가마는 왕륜과 서봉동에 설치하였다. 와자로 멋을 낸 대표적 시설물은 영롱담이다.

전甎으로 표현된 재료는 대방전大方甎, 소小방전, 반半방전이고, 벽甓으로 표현된 재료는 종벽宗甓, 귀벽이[耳甓], 개벽蓋甓, 홍예벽 등이다. 이것으로 보아 방전은 벽체를 쌓거나 바닥에 까는 데 사용되었고, 벽은 벽체를 쌓고 시설물의 섬세한 부분을 처리할 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벽전은 왕륜과 서봉동, 그리고 북성 밖 등 3곳에서 조달되었다. 벽돌가마는 모두 20좌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1좌당 1일 62.5장을 구워 총 1,250장의 벽돌을 생산하였다.[67]

4) 철물

화성 성역에서 철물은 용도가 다양하였다. 철물은 그 가공 단계별로 철광석, 생철, 수철(무쇠), 작철斫鐵, 정철正鐵, 강철, 추조철물, 정조精造철물, 정정조철물로 나뉘는데[68] 해서(황해도), 호서(전라도), 관동(강원도), 서울, 수원부 등 각처에서 사 왔다.

무쇠를 불려서 만든 정철은 타 지역에서 사 오거나[貿來] 사상한테 사 왔다. 또한 사온 작철로 정철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는 철물이 광범위하게 상품화되어 있음을 보여

62_ 『화성성역의궤』 권1, 계사, 갑인년 5월 22일.
63_ 『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갑인년 2월 2일.
64_ 『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갑인년 3월 10일.
65_ 『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갑인년 4월 4일.
66_ 『화성성역의궤』 권4, 품목, 갑인년 2월 26일. 『화성성역의궤』에서 기와는 '와자(瓦子)'로, 벽돌은 '벽(甓)'으로, 전돌은 '전(甎)'으로 표현하고 있다.
67_ 『화성성역의궤』 권3, 별단, 병진년 8월 29일.
68_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2007, 290쪽.



방화수류정의 벽돌

준다. 정철이나 강철을 일정한 규격으로 만든 중방철의 경우는 서울에서 살 길이 없어 단양·영춘·청풍·충주·제천 등지와 강원도의 영월·삼척·평창·정선 등지에 내려 보내서 이를 사 오게 하고, 그 값은 서울로 오는 상납전으로 획급하고 하역비와 선가는 각 감영의 공곡에서 회계 차감토록 하였다.[69] 또한 해서海西의 풍천에서 조달된 정철과 강철은 초도의 토선 1척에 적재하여 운반 납부하였다.[70]

그렇지만 지정한 철이 제때에 오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상인들이 소문을 듣고 팔기를 원하는 자도 있고, 쇠를 싣고 경계를 지나는 자도 있어 품질을 잘 가려 사기도 하였다.[71] 한편 영월에서 사 모은 중방철 2만 근의 경우 영월의 각동진角洞津에서 물이 불기를 기다렸다가 한강 하류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름철에 물이 불지 않으면 험한 여울과 암초가 많아 운송을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삯을 주고 작은 배를 내려 보낼 뜻을 공문으로 발송하기도 하였다.[72] 영월의 또 다른 3만 근의 각종 철은 물길이 좁고 여울이 얕아 새로 만든 배로는 실어 나를 수 없어 작은 토박이 거룻배로 적당한 양으로 나누어 싣고 차례로 갈아 실어서 충청도 경계로 운반하였다.[73]

이 철물은 10월 28일에 여주 초입에서 겨우 떠내려 보냈는데 여주 경계인 월계강과 상심진上沁津이 모두 얼어 배가 다닐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얼음이 풀리는 봄까지 기다려 수송할 뜻을 양근군수가 경기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있다.[74] 더하여 여주 근처 강이 얼어서 수송에 지장을 주어 다음 해 봄에 철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75]

추조철물로는 몽둥이·지레·부석정·비김쇠 등을 만들고, 정조철물로는 작두·도끼 등

69_ 『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을묘년 2월 5일.
70_ 『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6월 29일.
71_ 『화성성역의궤』 권4, 품목, 갑인년 7월 10일.
72_ 『화성성역의궤』 권4, 내관, 을묘년 8월 27일.
73_ 『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을묘년 9월 25일.
74_ 『화성성역의궤』 권4, 내관, 을묘년 11월 4일.
75_ 『화성성역의궤』 권4, 내관, 을묘년 11월 초2일.

을 만들었다. 특히 돌 뜨는 데 사용되는 철정鐵釘은 추조철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성문 등에 쓰이는 철판인 철엽은 전라도감영과 성주목에서 조달되었다. 전라도감영에서 만든 철엽은 덕적진으로부터 배삯 40냥과 양식을 별도로 지급하여 운반하였다. 성주목은 철 생산지로 2만 근의 생철을 349냥 8전에 사서 이를 연마장이 10명과 풀무꾼 8명, 타조군 38명이 각각 47일간 일하고 일일 품삯은 1전 5푼으로 모두 451냥 2전이 지불되었다. 짐은 한 바리에 13냥씩 모두 25바리에 325냥이 운반비로 지급되었다. 품삯이 가장 많이 소요되었는데 원재료비와 운반비가 비슷하게 들었음을 알 수 있다.[76] 한편 쇠못은 황해도에서 정철 1만 근으로 2,500개를 만들어 2척의 배에 실어 운반하였다.[77]

대장장이들은 대부분 산성 지역의 병졸 출신으로 해당 별장을 감독관으로 제련하고, 정조·타조 즉시 색리를 정하여 죽령고개 밑[嶺底]까지 배로 운반하고, 배로 운반할 수 있는 단양이나 충주까지 육지로 운반하여 배가 통하는 곳부터는 노량진에 정박토록 하였다.[78]

나머지 자물쇠·돌촉에 쓰우는 신쇠[靴金]·문지도리의 장부를 받는 구멍이 있는 확쇠·문짝의 지도리에 쓰우는 장부쇠는 서울에서 전부 사 왔으며, 특히 남·북문의 용모양의 자물쇠[龍鎖金], 수철확쇠[水鐵確金], 장부쇠[丈夫金] 등은 수원 대장간에서 만들 수 없어 서울 기술자로 하여금 도성문에 들어간 모양대로 만들어 오게 하였다.[79] 절병통 2좌만 화성성역소에서 주조하였다.

5) 기계와 도구

거중기는 왕실에서 1부를 내려주었다. 거중기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화성성역의궤』에 명백히 얼마를 절약하였다는 구절이 있고, 실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약용의 발명품인 유형거는 왕실에서 1량을 내려주고 10량을 새로 만들었다. 유형거는 저울과 같이 좌우로 움직이는 독특한 수레로 끝부분이 뾰족하여 이를 돌 밑에 찔러 일정하게 돌을 수레로 이동하고 손잡이를 누르면 별 힘을 안 들이고 들어 올릴 수 있는 특수 수레였다. 이 수레 만드는 방법이 『화성성역의궤』에 자세히 실린 것으로 보아 성역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녹로 2좌는 역소에서 새로 만든 것인데, 이는 돌을 묶어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기계로 이전 시기에도 활용되었으며, 특히 화성 성역에서 돌을 쌓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거 중 30량은 황해도 장연·풍천에서 사서 배로 운반하였다. 황주목에서는 가래,

76_ 『화성성역의궤』 권4, 내관, 갑인년 9월 4일.
77_ 『화성성역의궤』 권4, 내관, 병진년 2월 8일.
78_ 『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갑인년 2월 12일.
79_ 『화성성역의궤』 권4, 품목, 갑인년 11월 18일.





거중기 모형과 녹로 모형

곡괭이, 넙적괭이 등을 스스로 납부하였다. 기타 도구는 수원부에서 사들이거나 서울, 해서, 호서 등지에서 대부분 사서 조달하였다. 초기에 수레의 조달이 어려워 호조와 한성부의 한차漢車 7개를 빌려 사용한 예도 있다.[80]

수레는 풍천부에서 1량당 10냥씩 10량을, 장연부에서 8냥씩 20량을 구입하고 이는 전세田稅로 대체하였으며, 이를 배로 수원으로 운반하였다.[81] 수레소는 총 608척이 조달되었는데 경기도에서 309척, 호서에서 50척, 관동에서 82척, 해서에서 167척을 총 2만 5,710냥 4전 1푼을 주고 사 왔다. 이 외에도 소는 척당 30냥에 80척, 말은 필당 40냥에 252필을 모집하였다.[82]

6) 각종 재료와 잡물

이 외에도 화성 성역에는 각종 재료와 잡물이 조달되었다. 숯은 경기도의 지평·광주·용인에서 사 오고, 석회는 금천·풍덕·평신 등지에서 사서 배로 운반하였으며, 수원부에서 사들였다. 황해도 금천에서 조달된 석회는 제1차 3,024석을 실은 선박 11척, 2차 600석을 실은 3척의 토선이 수송하였으며, 3차 4,085석 10척, 4차 3,005석 10척, 5차 1,369석 7척, 6차 2,200석 4척, 7차 5,580석 10척 등으로 인근 읍과 벽란포에 있는

80_ 『화성성역의궤』 권4, 감결, 갑인년 정월 17일.

81_ 『화성성역의궤』 권4, 내관, 갑인년 3월 8일.

82_ 『화성성역의궤』 권5, 재용 상, 조비. 황해도 신계·토산·곡산·봉산 등지의 소가 견실하고 거센 소가 많아서 이를 시가대로 사 왔다(『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을묘년 10월 25일).

송영(개성부) 소속 배 수십 척과 강화, 경강(서강, 용산) 선적으로 책정 수송하였다.[83]

이러한 석회는 수원부 어랑천에서 구워 사용하였다.[84] 석회를 굽는 데 필요한 잡목과 나뭇가지들은 왕륜면에서 벌목하였으며, 구운 회는 30두를 1석으로 가격은 1냥으로 계산하였다. 단확은 뇌록만 장기에서, 나머지는 전부 서울에서 사 왔다. 종이, 붓, 먹, 벼룻돌은 전부 서울에서 사 왔다.

숙마는 강원도에서 3,500근을 사 왔는데 1794년 1월에 1,000근, 7월에 1,000근, 1795년 5월에 다시 1,500근으로 나누어 사들였다.[85] 황해도에서 1794년 1월에 1,000근, 7월에 1,000근 등을 사들였다. 생칡은 경기 각 지역과 수원부에서 사 오거나 사들였다. 생칡과 숙마를 섞어서 꼰 밧줄은 돌을 나르는 데 사용되었다. 느릅나무 껍질인 유피는 살 곳이 없어 경기 도내 산골 읍에 1,500근을 한도로 배정 채취하여 수송토록 하였다.[86] 쇠가죽도 서울에서 사기가 힘들어 개성부에서 사서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87] 빈 가마니는 주로 수원부에서 취용하였고, 충청도 각 지역과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 나누어 거두어들였다. 나머지 잡물은 주로 수원부에서 사들이거나 서울이나 경강에서 사들였다. 숫돌의 경우는 주산지인 연일과 단성에 책정하여 조달하였다.

이러한 물품 중에서 서울에서 운반한 품삯은 도합 4,671냥 6전 8푼이 들었는데 재목, 쇠, 회, 호조의 방구들, 경강의 가죽, 겨 등은 배로 723냥 7전 6푼이, 여러 잡물은 말과 소로 3,888냥 9전 2푼이, 수레운임은 모두 59냥이 소비되었다.[88] 이것으로 보아 서울에서 사 온 잡물들은 주로 말과 소를 이용해 육로로 운반되었고, 그다음으로 배를 이용하였으며 수레의 이용은 극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4. 가옥과 전답 보상

1) 가옥 보상

화성 축성 시 보상 가옥은 점포와 일반 주거시설 두 종류였다. 점포는 남리 구역의 십자로에 있던 신발을 파는 혜전, 장작을 파는 유문전 2채, 쌀을 팔던 미전 등 4채이다. 가옥은 남성을 쌓기 위해 남리南里에서 20채와 십자로 정리 및 확장을 위해서 초가 3채와 흙방[土室] 1채 등 모두 4채, 북성을 쌓기 위해 북리北里에서 초가 24채, 흙방 3채 등 모두 27채, 개울을 준천하기 위해 북리에서 흙방 11채가 수용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1789년 신읍치가 만들어지던 당시 도시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계획적으로 신도시가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십자로 정비를 위

83_『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갑인년 3월 11일; 『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10월 25일; 『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11월 19일.
84_『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갑인년 3월 23일.
85_『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4월 30일; 『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6월 5일.
86_『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을묘년 10월 25일.
87_『화성성역의궤』 권3, 이문, 병진년 1월 4일.
88_『화성성역의궤』 권6, 재용 하, 실입2.

해 부근의 점포 4채와 초가 3채 그리고 흙방 1채 등을 매입한 것은 불과 5년 전 신읍치 이전 시에 치밀하게 예상한 도로계획이라고 보기 힘들다. 계획적인 도시 건설을 준비한 것은 1789년 사도세자의 원침을 천봉한 다음 해인 1790년 순조의 탄생[89] 이후라고 생각된다.

가옥형태는 대부분 초가였고, 주민들은 개울 주변의 흙방에 기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될 때 여러 가지 특혜조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같이 몰려든 유이민들이 그대로 정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상은 기와 점포가 1칸당 15냥으로 가장 비싸게 보상되었다. 점포의 경우 기와 유문전은 1칸당 15냥, 초가 유문전은 1칸당 3냥으로 5배나 차이가 났다. 그렇지만 1813년 서울 장통방의 와가 포전은 16.5칸이 450냥에 매매되어 1칸당 27.3냥, 1819년 묵전墨廛의 경우 17.5칸이 500냥에 매매되어 1칸당 28.6냥에 매매된 예들로 보아 서울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90] 보상 점포가 4채에 지나지 않았지만 당시 십자가(지금의 종로) 주변 상설점포들의 규모는 5칸 정도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초가집은 389칸이 보상되었는데, 칸당 6.04냥으로 총 2,413냥 4전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보상은 1789년 옛 수원부 가옥 보상 시 초가집 평균 1.73냥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91] 이는 옛 수원과 신도시 수원의 부동산 가격 차이로 볼 수도 있다. 30칸 이상의 집도 2채나 되었고 10칸 이상도 남성 쪽의 10채, 북성 쪽의 2채 등 총 12채였다. 이것으로 보아 남성 쪽에 규모가 큰 집들이 밀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흙방(토실)은 총 24.5칸이 보상되었는데, 1칸당 평균 1.457냥으로 보상되었다. 그러나 그 규모는 3칸 미만이어서 보상 액수는 4냥을 넘지 않았고, 2칸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북리 쪽 개울가에는 흙방이 밀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장대 앞길에도 움집 20호가 철거된 것으로 보아 흙방은 북리 쪽 개울가와 동장대 주변에 산재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흙방 한 채 값은 3냥 정도로 당시 5냥 정도이던 쌀 1석石 값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2) 전답 보상

화성 축성을 위한 전답 보상은 제1차로 1794년 3월에 이루어졌다. 이는 주로 북성과 남성 그리고 준천을 위한 전답 보상이었다. 1795년 9월에는 제2차 전답 보상이 있었는데, 이는 동장대 건설과 고등촌 부석소를 위한 토지 매입이었다.

제1차로 전답이 보상된 지역에서 북성은 화홍문 서쪽으로부터 화서문 옹성까지를 말한다. 이곳 행정구역은 화홍문 서쪽으로부터 북동치까지는 광교면에, 북동적대부

89_ 『순조실록』 권34, 순조대왕 비문.
90_ 「가경(嘉慶) 18년 명문(明文)」(수원시 소장); 「가경 24년 명문」(수원시 소장).
91_ 임학성, 「200년전 신도시로 이주한 화성사람들」, 『화성안 마을지』, 수원박물관, 2010, 293쪽.

터 화서문 옹성까지는 일용면과 고등촌면에 속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광교면 지역, 즉 지금의 영화동 지역은 주로 밭이었고 고등촌면은 주로 논이었다. 수용된 토지의 대부분은 고등촌면의 논으로 296.8부였다. 고등촌면의 논은 부당負當 2.34냥, 광교면은 부당 3.14냥으로 보상되었으며, 광교면의 밭은 부당 0.75냥, 고등촌면은 부당 0.79냥이었다. 가장 높은 값은 고등촌면 윤노 갑금의 논으로 부당 4.96냥으로 보상되었다. 일용면의 토지 수용은 미미한 것이었고, 총보상액은 830.26냥이었다. 남성은 팔달문 서쪽 남은구로부터 동남각루 아래까지인데, 보상 토지는 전부 광교면에 속한 지역이었다. 보상가는 논이 부당 4.11냥, 밭이 0.99냥으로 북성 지역보다 높은 가격이었다. 준천 지역은 화홍문부터 남수문까지로 추정되는데 전답 보상은 논이 부당 3.41냥, 밭이 0.82냥이었다.[92]

1795년 9월에 이루어진 제2차 토지 보상에서 동장대를 건설하기 위해 수용된 토지는 주로 논이었다. 고등촌면의 부석소에 편입된 토지는 그 용도가 돌을 뜨기 위한 것인지 도로 확장을 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제2차 토지 보상에서 동장대 지역은 논이 부당 6.29냥, 밭이 1.03냥이었다. 고등촌면은 필지가 3개밖에 안 되어 통계처리하지 않았지만 총보상가의 평균 부당 단가는 논의 경우 6.11냥, 밭은 1.64냥이었다.[93]

한편 화성 건설에 필요한 기와를 굽는 곳과 땔감장, 부석소와 구포나루에서 화성 성역 현장까지 돌과 각종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수레 길 그리고 신작로 개설 등을 위한 토지 보상이 1794년 초부터 1796년 말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기와와 벽돌을 굽기 위한 땔감 마련은 광주 왕륜면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지금의 광교산과 한자락에 있는 백운산으로 추정되는데, 화성 건설 초기인 1794년 3월과 1795년 4월 두 번에 걸쳐 매입하였다. 1차에 40냥과 2차에 57냥 등 도합 97냥이 지급되었다. 다음은 가마를 설치하기 위한 가마터를 왕륜면에서 매입하였다. 이는 1794년 12월부터 1796년 12월까지 계속되었는데, 총 362.44냥이 소요되었다. 1794년부터 1795년까지는 수확량 벼 1두당 2전, 보리 1두에 1.5전씩 보상하였으며, 1796년에는 벼 1두당 1전, 보리 1두당 0.8전으로 보상하였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건축 자재가 집산하는 구포나루에서 화성 축성 현장까지의 수레 길을 만들기 위해 논과 밭에 대한 매입이 진행되었다. 이 또한 1794년 12월부터 1796년 12월까지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구포 지역이었으며, 호매절면의 일부가 포함되었다. 총비용은 773냥 7전 9푼이 들어갔다. 돌 뜨는 장소에서 축성 현장까지를 숫돌같이 치도治道하였는데, 이는 돌 운반이 성역에서 가장 힘들고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석소가 있는 여기산과 숙지산 지역에서 화서문 방향이 치도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911.37냥이 지출되었다. 수레 길과 치도를 만들기 위한 총비용은

92_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건설』, 혜안, 2008, 160쪽.
93_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건설』, 혜안, 2008, 162쪽.

1,685.16냥이 소요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돌 떠내는 데 들어온 밭 2부 1속과 논 4부를 사들인 것"[94]으로 보아 석맥이 있는 돌 뜨는 장소는 국가가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신작로는 십자거리(지금의 종로)에서 동장대까지, 또 다른 길은 십자거리에서 장안문을 거쳐 영화정까지인데 여기에는 초가집 4호 25칸과 움집 20호 23칸이 철거되었다. 신작로를 건설하는 데는 모군 품값 1,142.38냥을 포함해 1,216.38냥이 들었으므로, 가옥과 움집에 대한 보상은 74냥인 셈이다.[95]

5. 화성 건설 비용

정조는 1789년 7월 11일 장헌세자의 원침을 이전하기로 하고, 4일 만인 15일에 수원의 읍邑소재지를 전격적으로 팔달산 동쪽으로 옮겼다. 그리하여 양주 배봉산의 장헌세자 원침을 수원부 구읍치로 옮기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구읍치에 있던 주민들의 가사家舍와 전답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졌다. 보상은 민가 319호에 총 가사 2,417칸으로 원가 4,818냥에 4,394냥을 더 주어 총합 9,212냥이 들었다. 그리고 원침조성 등을 포함한 총 경비는 돈이 18만 4,600여 냥, 쌀이 6,320석, 목면이 279동 남짓, 베 14동 등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총 24만 5,500냥이 지출되었다. 이렇게 해서 현륭원의 모든 공역은 1789년 10월 16일에 완공되었다.

한편 1789년 7월 15일 수원부 신읍치를 팔달산 동쪽에 옮기고 광주의 송동면과 일용면을 수원에 이관하는 등 신도시를 진흥시키기 위한 행정적 조치도 이루어졌다. 신읍치는 팔달산을 주산主山으로 하고 행궁을 중심으로 동향으로 관청들이 자리 잡았고, 지금 종로로 불리는 행궁 앞에는 십자로十字路를 중심으로 상가와 민가民家들을 배치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을 펼치기 위한 재정능력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재정아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호조戶曹의 1년 수입은 90만~130만 냥 정도이고, 지출은 90만~170만 냥 정도였다. 선혜청의 수입과 지출 규모는 125만 9,500냥과 140만 6,484냥이었다. 그리고 균역청의 총수입은 121만 1,391냥이었다.

정세正稅로 간주되던 환곡의 총수는 926만 9,777석이었다. 그중 상진청을 비롯하여 비변사·호조·균역청·장용영·선혜청·병조·총융청·수어청 등 중앙아문이 680만 석 정도 그리고 지방 감영에서도 170여 만 석에 달하는 환곡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중 환곡의 총대부수는 669만 9,499석이었고, 그 수입은 대부수의 10%를 상회하는 10.85%로 72만 7,028석이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290만 8,112냥으로 약 300만

94_ 『화성성역의궤』 권6, 재용 하, 실입2.
95_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건설』, 혜안, 2008, 168~170쪽.

냥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 외에도 병조兵曹와 5군문軍門 수입 총규모는 23만 1,864석이었다. 이를 석당石當 전錢 5냥으로 계산하면 115만 9,320냥이다. 여기에다 균역청 급대 6만 3,888석을 포함하면 총규모는 29만 5,752석이었다. 특히 새로운 군문인 장용영이 정조 대에 추가되었다. 장용영의 수입 규모는 26만 냥 정도였다. 이상에서 볼 때 호조·선혜청·균역청·환곡·병조와 5군영·장용영 등의 수입 총규모는 790만 냥에 달하였다.[96]

또한 화성신도시 건설 자금 조달은 어떤 형편에서 진행되었는지 당시 재정 현황의 규모를 고려하면서 알아보자. 당시 주요 재정은 은자銀子, 전문錢文, 면포綿布, 미米 등이다. 은자는 1년 재고가 항상 40만 냥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은 1냥의 가치를 전 4냥으로 환산하면 160만 냥이다. 그리고 전문이 100만 냥 이상, 면포는 50만 냥, 미는 140만 냥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화성 성역 기간인 1794년부터 1796년 사이에 전문과 미의 재고가 급격히 준 점이 주목된다. 이 시기에는 자연재해와 화성 축성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중앙재정이 현저하게 줄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화성 성역에 구획區劃된 총금액은 전錢 87만 3,517냥 7전 9푼과 경기회부미 쌀 1,495석 11두 4홉이었다. 그중에서 직접 배정된 전은 24만 3,517냥 7전 9푼이고, 빌려 온 돈의 총액은 63만 냥이었다. 먼저 직급直給된 돈의 내역을 살펴보면 1795년까지는 평안병영, 관서關西, 각 도道 을묘년乙卯年의 가분모대전加分耗代錢, 영남병영, 완영完營 등에서 갹출하여 지급하였으나 경비 부족으로 호조, 평양, 황해도, 금위영, 어영청, 호남 등에서 더 투입되었다. 나아가 수안 금전세와 각 아문 상환 전목, 호남에서 쌀 팔아오는 몫, 마차소 및 섬 재목 가지 등을 판 돈도 추가로 지급되었다. 구획된 돈의 주요 대부기관과 대부총액은 장용영의 25만 냥, 균역청의 30만 냥, 어영청의 4만 냥, 금위영의 4만 냥 등이었다.

화성 성역에 실제 사용된 비용의 대부분은 어영청과 금위영으로 들어올 정번전과 기영과 완영 등의 비용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화성 성역에서 실제 자금염출 기관은 어영청 20만 3,000냥, 금위영 13만 3,000냥, 기영과 완영이 각각 10만 냥으로 호조와 선혜청과 같은 중앙재정기관에서는 단지 5,000냥과 1만 냥이 투입되었을 뿐이었다. 이 외에 경상도감영에서 5만 냥, 통영 5,000냥, 4영문 1만 8,000냥 등이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꾸어 온 기관인 균역청과 장용영의 돈은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화성 성역에는 중앙재정뿐만 아니라 기영, 완영, 통영, 경상도감영 등의 지방재정에서도 충당되었다.

화성행궁은 1789년 7월부터 시작하여 1790년 5월에는 340여 칸에 달하는 규모로 완공되었다. 처음에는 수원행궁이던 것이 1793년에 행정구역명이 화성유수부로 승

96_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건설』, 혜안, 2008, 199쪽.

격되면서 '화성행궁'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1794년부터 화성행궁을 확장 증축하였다. 총비용은 5만 5,734냥 1전 1푼이 들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총체적인 화성 건설에는 1789년 원침 이전과 구읍치 보상비용에 약 24만 5,500냥, 1790년 용주사 창건에 8만 7,505냥 1전, 혜경궁 홍씨 회갑연을 위한 1795년(을묘)의 원행에 지출된 10만 38냥 6전 8푼, 화성 건설에 약 93만 4,028냥 등 총 136만 7,071냥 7전 8푼이 지출되었다. 이러한 공사비는 호조 1년 수입과 맞먹는 금액으로, 공사기간이 10년 계획에서 2년 9개월로 줄면서 일시에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어 정조 대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화성 건설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전錢이 80만 4,963냥 9전 1푼과 화성행궁 등에 5만 5,734냥 1전 1푼의 합 86만 698냥 2푼이고, 재고 1만 2,926냥 2전까지 합치면 87만 3,624냥 4전이다. 따라서 배정된 돈 87만 3,517냥 7전 9푼과는 7냥 6전 1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화성 건설에 쓰인 실제 비용은 재고를 뺀 86만 698냥 2푼과 미리 배정된 도청 감동 이하 원역요미 1,495섬 11말 그리고 각 도에서 마련한 곡물 1만 3,170섬 6말 3되 1홉 8작 등이다.

실제 들어간 비용 중 화성행궁 등을 제외한 80만 4,963냥 9전 1푼에 대해 분석해 보면, 각종 재료비로 26만 7,242냥 5전 4푼이 들었고, 여기에 도하조의 재목 값 4,629냥 3전 5푼을 더하면 총 27만 1,871냥 8전 9푼이 지출되었다. 이는 지출된 돈의 약 33.8%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돌 떠내는 값에 가장 많은 12만 6,617냥이 지출되었다.

숙련공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12만 8,149냥 2전 2푼으로 15.9%이고, 여기에 모군에게 지급된 12만 3,424냥 5전과 담군에게 지급된 5만 8,535냥 5전의 합은 18만 1,960냥으로 22.7%에 달한다. 이 둘을 합하면 31만 109냥 2전 2푼으로 38.5%에 달한다. 공사비용 중 인건비에 약 5분의 2가 들어간 셈이다. 이러한 공사비는 공사기간이 10년 계획에서 2년 9개월로 줄면서 일시에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어 재정압박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97]

97_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건설』, 혜안, 2008, 224쪽.

정정남 경기대학교 연구교수

04
화성 축성의 전개와 완공

1. 조심태의 축성론과 석재 발굴

1793년(정조 17) 12월 초6일 정조는 다음 해 봄에 화성 공역의 시작을 결정하고 그 공사 책임자를 임명하였다. 감동당상은 비변당상 조심태에게 맡기고, 사무를 총괄하는 총리대신에는 채제공을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시대 왕실 건축공사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 공사담당기구인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도감의 최고 담당자로 제조提調나 도제조를 임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제조나 도제조는 보통 정승이나 호조판서 등 관직이 높은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는 공사에 소용되는 경비나 제반 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정조는 왕실의 그 어느 공사보다 화성 성역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방의 성곽을 짓는 공사여서 최고의 공사조직인 도감의 설치는 여의치 않아 대신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화성성역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그 공사 조직만큼은 도감에 버금가게 만들려는 의도로 그 이전에는 없던 총리대신이라는 직함을 만들고 그 자리에 정1품 무관직 최고 벼슬을 하고 있는 영중추부사 채제공을 임명하였다. 본래 성역소의 최고 책임자는 감동당상이 되어야 하지만 당시 비변당상이었던 조심태의 직함으로는 공역에 따르는 각종 문제를 수월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서 나온 해결방법으로 판단된다. 정조가 화성성역소의 담당자를 언급하는 데 감동당상을 먼저 언급하고 총리대신을 나중에 말한 것도 이와 같은 의중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심태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정조가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공사의 실무책임을

맡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조심태의 태생과 화성 공역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경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조심태는 조선시대 무반 가문 가운데 7번째로 많은 인원을 무과급제로 배출한 집안인 평양 조씨 집안에서 태어났다.[1] 평양 조씨 가문은 수원 인근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살던 집안으로, 이 지역에서 다수의 지방관을 배출하기도 했다. 조심태 일가 중 수원부사를 지냈거나 주요 무관직을 역임한 인물, 또 화성과 관련해 등용되었던 인물은 조심태의 선대 5명과 후손 5명으로 모두 11명에 달한다. 더욱이 조심태 집안의 묘역이 숙종 대부터 수원 비봉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의 집안이 정조 대 이전부터 수원에 근거지를 가지고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

이와 같은 조심태의 이력은 그가 수원 지역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인근 지역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다거나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게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심태가 사도세자의 무덤인 영우원을 천봉할 때 수원부사에 임명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그의 이력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화성성역소 감동당상에 조심태를 임명할 때도 정조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화성 성역은 보다 전문적인 건축지식과 조직관리가 필요한 일이다. 특히 성을 축조하는 것은 일반 주택이나 관아를 영건하는 것과는 규모와 물력 수급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감동당상에 임명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가 역임한 여러 관직의 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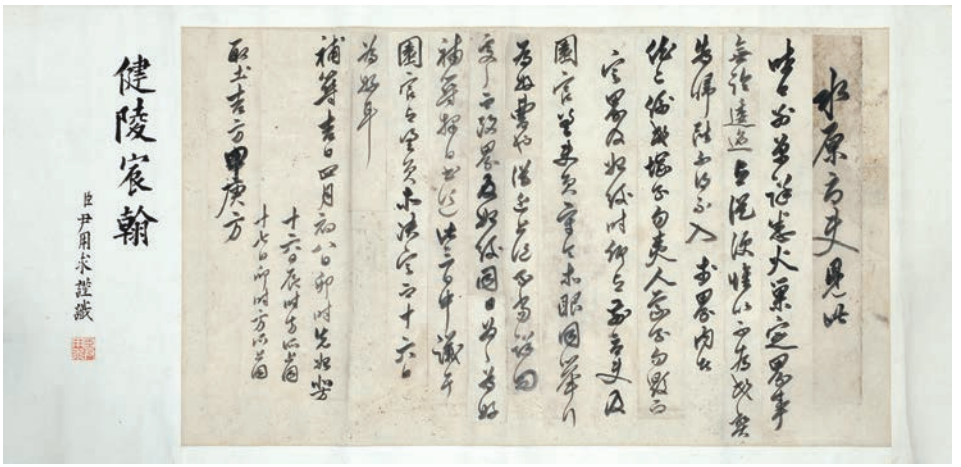
조심태가 처음 관직에 나간 것은 1768년(영조 44) 2월 무과전시에서 을과乙科에 합격하면서부터이다. 이때 참상관의 품계인 5위의 종6품으로 부사과副司果에 진출했고, 1770년에는 훈련원 주부를 거쳤다. 1771년에는 오위도총부의 종4품직인 총경력을 지냈고, 1772년에는 훈련원 부정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정4품인 경상좌병사직을 지냈다. 1773년에는 훈련원의 정3품 당하관인 전주영장, 1774년에는 궁궐 금군 중 하나인 종2품 우림위장, 1775년에는 부령부사에 임명되었다. 이후 1779년에는 용천부사에 임명되었다.[3] 이후 1783년에는 창성부사를, 1784년에는 홍충도의 수군절도사, 1785년에는 홍충도의 병마절도사, 1787년에는 회령부사와 함경도 병마절도사, 그리고 삼도수군통제사, 1788년에는 좌포도대장과 총융사, 1789년에는 다시 좌포도대장에 임명되어 그 직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 무관들은 지방의 수령직을 거쳐야만 중앙의 청요직에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있었다. 조심태도 그와 같은 구조에서 지방의 수령직과 중앙 무관직을 두루 거쳤다. 그런데 조심태가 수령직을 수행했던 지역을 보면 창성, 회령, 용천, 함경도 등

1_ 장필기, 『조선후기 무반벌족가문 연구』, 집문당, 2004, 87~91쪽.
2_ 김선희, 「화성유수 조심태 연구 – 수원 이읍과 화성 건설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0, 2009, 147쪽.
3_ 김선희, 「화성유수 조심태 연구 – 수원 이읍과 화성 건설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0, 2009, 148~149쪽.



조심태 영정(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조심태는 신읍치 조성과 화성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인물이다.


健陵寢役

수원부사에게 보낸 편지(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겨 현륭원을 조성할 때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수원부사에게 보낸 정조의 편지이다. 정조는 무덤을 옮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성들의 무덤이나 가옥을 파괴하지 말라고 엄히 지시하고 있다. 편지의 수신자는 현륭원 조성 당시수원부사였던 조심태로 추정된다.

주로 북쪽 경계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청나라와 이민족의 접경지역으로 한시도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는 곳이다. 또 경계를 위한 성곽시설의 유지관리 역시 철저히 해야 했던 곳이다. 조심태는 이곳의 수령직을 거치면서 성의 유지와 축성에 대한 제반 지식을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789년은 조심태가 좌포도대장직을 수행하던 시절로, 이때 영우원 천장이 결정되면서 그는 수원부사로 임명되었다. 수원읍치를 새로 조성하는 작업은 관아를 새로 짓고 향교를 세우는 건축공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또 영우원이 옮겨 오게 되면 왕의 행행이 잦아질 것을 예상해 임금이 머물 행궁도 조성해야 했는데, 이를 계획하고 감독해서 완성한 것이 수원부사인 조심태이다. 이 읍치시설들은 1790년(정조 14)에 완공되었다.

읍치시설의 건축공사보다 앞서 진행된 것은 영우원이 옮겨 올 터에 살던 주민을 신읍이 들어설 팔달산 아래로 이주시키는 일이었다. 수원의 지역민이었던 조심태는 구읍민을 설득하여 새로운 읍치로 옮기게 하고 신읍을 번성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륭원 천봉이 끝나고 신읍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조심태는 다시 중앙관직으로 자리를 옮겨 1791년 승지가 되었다. 같은 해 훈련대장이 되었다가 포도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1792년에는 우포도대장·훈련대장·포도대장·총융사를 거쳐 금위대장이 되었다. 그리고 1793년에는 어영대장직에 임명되었다가 6월 도목정사에서 훈련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사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게 된 수원은 과거의 읍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변모했다. 수원부가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3년이 지난 1793년(정조 17) 1월 정조는 수원부의 행정명칭을 화성華城으로 고치게 하고, 그 수령도 정2품직인 유수로 승격시

켰다. 화성유수의 관직 정2품은 지방도시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정2품 관직은 한성판윤, 즉 서울시장과 동급이고 지방으로는 유일하게 광주부유수에게만 주어진 관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개성부나 강화부의 유수는 한 급 낮은 종2품직이었다.[4] 그리고 그곳에 정조의 친위부대로 알려진 장용영의 외군영을 설치하였다.

화성에 장용외영이 설치되자 수원에 있던 방어사防禦使를 남양부南陽府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남양부로 옮긴 방어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조사를 통해 방어사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그 조사의 일을 조심태에게 맡겼다. 조심태의 보고로 남양부의 방어사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조심태의 이러한 행보는 수원 일대의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수원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5]

1793년 7월 6일 정조는 비변당상과 여러 장신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총융사 정민시鄭民始에게 수원의 군제가 아직 바로 잡히지 못하였으니 전 부사 조심태와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라는 명을 내린다. 그리고 11월 16일 전현임 대신과 규장각의 관원들이 입시했을 때 다시 조심태를 불러들여 수원성을 쌓는 데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묻는다. 이는 이미 조심태를 수원 성곽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때 조심태는 수원성 경비의 조달에 대한 질문에 "금위영과 어영청의 두 군영에 딸린 향군을 10년 동안 1개 초哨(100여 명) 줄이면 해마다 1만 냥의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을 한다. 그동안 무관직을 두루 거치고, 중앙의 군영에서 대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했던 식견에서 나온 대답이었다. 그의 말을 들은 정조는 향군이 번을 서러 오는 폐단도 없어지고, 군영에서는 폐단이 될 근거가 없어지는 일이니 대강의 수효를 검토하라는 명을 내린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6일 조심태는 화성성역소의 감동당상으로 임명되었다. 조심태가 감동당상이 될 수밖에 없던 분위기는 『정조실록』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영중추부사 채제공과 비변사당상 정민시, 심이지, 윤행임, 조심태를 만나는 자리에서 정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 수원에 성 쌓는 역사를 경이 그곳의 유수留守로 있을 때 경영하다가 중간에 정승에 임명되어 중지하고 말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10년 정도면 완공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만일 감독으로 적임자를 얻는다면 어찌 꼭 10년이나 걸리겠는가? 모든 일은 규모를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는 미리 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경영은 또 적임자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경들을 특별히 부른 것은 이 때문이다. 나무·돌·재물·인력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원래 국가의 경비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 예컨대 금위영과 어영청 두 군영에 속한 정번군停番軍이 무는 돈을 가져다가 쓰면 공사간에 조금도 구애될 것이 없을 듯한데 경들의 생각은 어떤가?

4_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 수원성』, 도서출판 발언, 1996, 55쪽.
5_ 김선희, 「화성유수 조심태 연구 – 수원 이읍과 화성 건설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0, 2009, 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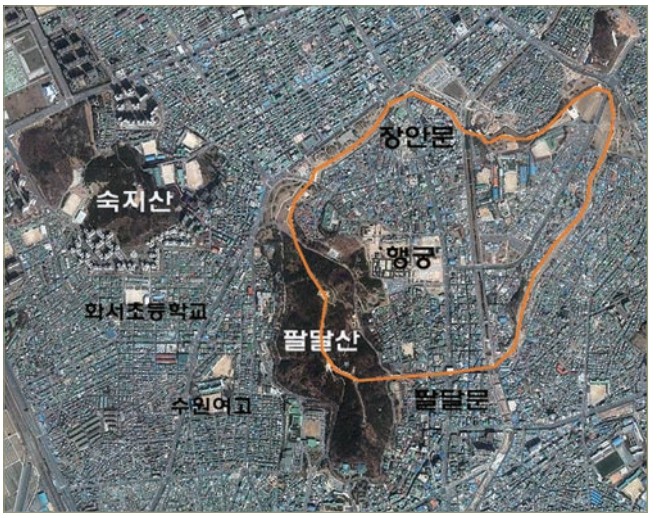
즉, 화성 공역을 누구에게 맡기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와 공역의 경비로 금위영과 어영청 소속으로 당직을 서지 않는 군인들이 납부하는 돈을 이용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선 채제공이 정번군이 무는 돈을 쓰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 답했다. 그러자 정조는 1년 동안 거치는 정번군의 돈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군영의 일과 셈에 밝은 조심태가 한 해 2만여 냥으로 10년이면 25만 냥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답을 들은 정조는 다시 화성 성역에 드는 총경비가 얼마면 넉넉한지를 물었다. 채제공은 30만 냥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조심태의 의견은 달랐다. 공역에 들어갈 물력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30만 냥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답을 했다. 정조는 조심태의 의견을 듣고는 공사경비를 이리저리 애써 모아 보겠다는 답을 했다.

실제로 화성 공역에 들어간 경비는 조심태의 예상대로 30만 냥을 훌쩍 넘겼다. 약 87만 냥의 돈과 1,500석의 쌀 그리고 1만 3,000여 석의 곡식이 소요되었다. 『화성성역의궤』의 재용편을 보면 당초 계획했던 어영청과 금위영의 정번료 외에, 완영상채곡대전完營償債穀代錢, 각종 별비전別備錢, 각 도 가분모대전加分毛代錢, 기부전記簿錢, 혜청별하고전惠廳別下庫錢, 목대전木代錢, 평안병영월비전平安兵營月費錢, 환무첨보전換貿添補錢 등을 통해 공사경비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비를 마련하는 문제는 임금인 정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사람을 구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경비문제에 대한 답을 조심태에게 듣고 정조는 다시 공사를 감독할 적임자가 누구이겠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채제공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시 훈련대장직을 맡고 있는 조심태를 거론하였다. 수원의 읍치를 옮기고 번성시키는 데 이미 공로가 많고, 감독하는 일에도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렇게 조심태는 화성 성역의 감동당상으로 임명되었다.

감동당상으로 임명된 자리에서 조심태는 화성 공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바로 석재石材 발굴에 관한 것이다. 성을 돌로 쌓을 것을 결정한다면 돌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만큼 시급한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채제공이 언급한 것처럼 조심태는 이미 경험을 통해 수원의 지리를 꿰뚫고 있었다. 그런 그가 석재 채취에 적합한 곳으로 공석면空石面의 숙지산孰知山을 지정하였다. 숙지산은 화성의 서쪽 2㎞ 지점에 있는 낮은 야산으로 화성 공역에 소용된 석재의 4분의 1이 이곳에서 채취되었다. 처음 조심태가 석재 채굴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숙지산뿐이었지만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돌 채취 장소는 숙지산 외에도 여기산如岐山 2곳, 권동權洞에 1곳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 팔달산에서도 돌을 뜬 것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공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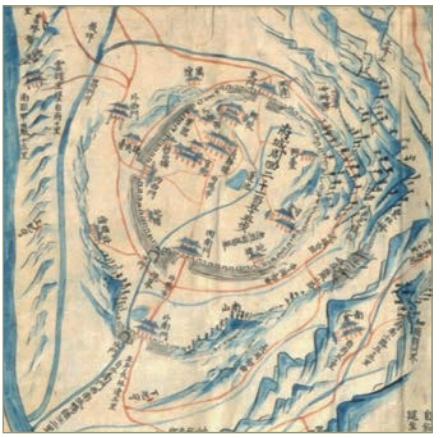
「수원부지도」에 표기된 숙지산(1872년 지방도, 수원박물관 소장)

항공에서 본 화성과 숙지산(다음 지도)

진행하는 동안 나머지의 장소에도 석재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개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석재 발굴지에 대한 의견을 낸 조심태는 감동당상의 입장으로 축성과 성의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동안 수원의 지형상 석재를 구하기 어려우니 토성土城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석재 발굴의 가능성을 제시한 현 상황이라면 석성을 쌓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전체를 석성으로 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토성을 쌓을 것인지에 대한 중지를 모아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 부분이 결정되어야만 석재 채취량도 결정할 수 있고 공사에 들어갈 물력과 인력을 예상할 수 있으니 감동당상으로서 의견을 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더하여 성의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치와 여장 그리고 문루의 설치에 대한 부분이었다. 수원의 지형은 다른 산성처럼 지형이 험준하지 않고 들이 평평하기 때문에 곡성曲城과 문루가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시설을 꼭 두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조심태의 변방 수령직 경험에서 얻은 축성에 대한 의견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심태는 영우원 천봉이 있기 전 평안도 창성부와 용천부 그리고 함경도의 회령부와 함흥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이곳은 수원 지역과는 달리 산세가 험준하여 성이 대다수 산에 의존해 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다. 일견 생각해 보면 산세에 기대어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시설을 하지 않아도 방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72년에 제작된 해당 지역의 지도를 살펴보면 각 지역의 성벽 위에는 다양한 방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창성부의 경우는 지형을 이용해 남쪽에 목책을 쌓아서 한 겹의 성벽을 더 만들고 그 위에 문


① ②

① 「회령부지도」
(1872년 지방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② 「창성부지도」
(1872년 지방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③ 「함흥부지도」
(1872년 지방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루를 설치했으며,[6] 함흥부는 성벽 위에 다수의 누樓를 두어 감시하는 곳으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해당 지역이 국경에 가까운 곳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의 수령 경험을 통해 조심태는 성벽 못지않게 성문과 방어시설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며, 그의 축성에 대한 이론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심태의 의견은 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화성은 동서남북 모두 돌로 쌓도록 결정되었으며, 문에 누樓를 설치하고 옹성을 두르는 것도 수용되었다. 또 옹성뿐만 아니라 돌로 쌓은 각종 시설물에 현안懸眼을 설치하는 것도 받아들여졌다. 축성에 대한 조심태의 생각은 다년간 무관직을 두루 경험하면서 얻은 실질적인 것이었기에 그의 모든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드디어 1794년(정조 18) 2월 28일 고유제告由祭를 올리고, 4대문의 터닦기와 물길 내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화성 공역이 시작되었다. 어느 정도 공역이 진행되어 화성의 모양이 갖추어진 1796년(정조 20) 1월 조심태는 화성행궁의 담장과 성위의 패장이나 군졸들이 파수하는 절목을 만들었다. 같은 해 9월 10일 화성 공역이 마무리되고, 10월 16일 낙성연을 했다. 처음에 10여 년을 생각하고 시작한 공사였지만, 정조의 말대로 적임자인 조심태의 공로로 3년 만에 화성 건설이 완료된 것이다.

2. 석재와 전재塼材의 활용

『화성성역의궤』의 「어제성화주략」은 화성 건설의 기본 계획서로 정약용의 축성안

6_ 창성의 성에 대해서는 정조 대 무관직을 지낸 노상추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구조를 자세히 알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 편, 『노상추일기』, 정조 18년 1월 10일).

을 토대로 정조가 재정리한 것이다.[7] 여기에는 화성 공역을 진행하는 데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적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화성의 규모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재료에 관한 것이다.

화성은 조선의 어느 성보다 사전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획해서 만든 성이다. 성 전체의 규모와 수치를 정하는 일은 공역에 필요한 재료와 인력 그리고 여기에 드는 경비를 예산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가장 첫 번째로 두어 꼽았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은 둘레가 3,600보 정도 되어야 기준에 들어맞으며, 높이는 2길 5자는 되어야 적들이 넘어오지 못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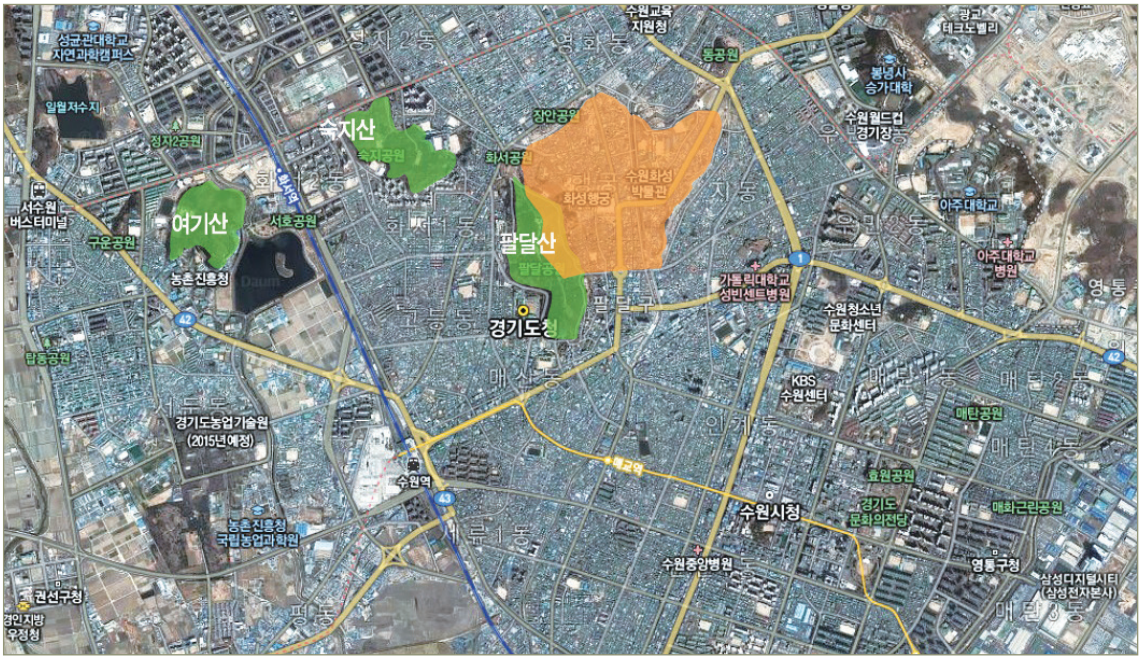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은 재료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화성은 돌과 벽돌을 적절히 활용하여 축성하였지만, 축성을 논의하던 초기에는 어떤 재료로 성을 쌓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였다. 벽돌을 재료로 하는 벽성甓城으로 할 것인지, 흙을 재료로 하는 토성을 쌓을 것인지 논의가 있을 때 토성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기울기도 했다. 그 이유는 성을 쌓으려는 신읍인 수원 근처에서 쉽게 돌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8] 이와 같은 논의는 「어제성화주략」에 적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돌로 축조할 것이 결정되었다.

> 지금 벽성으로 할 것인가, 토성으로 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벽돌 굽는 데 익숙하지 못하고 또 벽돌 굽는 땔나무를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벽돌로 성을 쌓자는 것은 계책이 아니다. 또 토성은 비록 겉면을 회로 쌓는다 할지라도 흙과 회는 서로 붙지 않으며 얼음이 깊이 어는 때는 흙 밑바닥이 가라앉게 되고, 비에 부서져 회가 떨어져 나가는 곳도 많게 되며, 흙이 점점 안에서 부풀어 오르면 회가 밖으로 엎어져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성 쌓을 재료로 돌만한 것이 없다.

그간 조선의 실정과 풍토로 볼 때 벽성과 토성 둘 다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 돌을 재료로 할 것이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축성된 화성의 규모는 둘레가 1만 7,600자로 4,600보로 계획했던 것보다 1,000보나 더 길었다. 성의 높이는 2길[丈]을 기준으로 하여 산 위에서는 5분의 1을 줄였으며, 성벽은 성석을 길게 다듬어 뿌리를 깊게 하는 방식으로 배열한 다음, 뿌리 둘레에 자갈을 뿌리고 부수어서 돌 사이를 채운 후, 그 위에 흙으로 겹쳐 쌓는 내탁內托의 방식으로 쌓았다. 이렇게 축조된 성의 두께는 아래쪽이 대략 5길이 되고, 위쪽은 줄어들어 3길 정도가 된다.

비록 성벽의 안쪽은 흙을 덮어 언덕처럼 만드는 내탁을 했지만 석성이라는 특성상 화성 공역에는 매우 많은 양의 석재가 소용되었다. 조선시대 도성 내 왕실의 건축공사를 기록한 영건의궤營建儀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석재는 우이동牛耳洞이나 불암산佛巖

7_ 경기문화재단, 『국역증보판 화성성역의궤』 권1, 「개설」, 2005, 149쪽.
8_ 『화성성역의궤』 권수, 벌석(伐石).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석재 부석소
(다음 지도)

山 등에서 수급되었다. 이곳들이 돌을 뜨는 곳으로 이용된 이유는 산 자체가 바위산일 뿐만 아니라 한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운반이 수월했기 때문이다.

신읍치 수원의 경우 한양과 달리 주변이 대부분 논과 밭이고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트막한 흙산뿐이었으므로, 돌로 성을 쌓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석재를 수급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이때 읍치 이전을 맡아서 처리했던 조심태가 이전의 경험을 살려 가까운 곳에 석재를 채취할 곳이 있음을 알렸고, 이로써 화성 공역은 진행될 수 있었다.

조심태가 석재 수급처로 타진한 곳은 공석면의 숙지산뿐이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 그러나 『화성성역의궤』에는 숙지산 외에 몇 곳을 더 석재 채취의 장소로 적고 있다. 아마도 화성 성역을 진행하면서 더 개발되었던 곳으로 보인다.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돌 채취 장소는 모두 다섯 곳이다. 숙지산에 2곳, 여기산에 2곳, 권동에 1곳이다. 이중 숙지산과 여기산은 화성의 서쪽 2㎞와 4㎞ 지점에 있던 산으로, 현재는 두 곳 모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숙지공원은 화서주공아파트 근처에, 여기공원은 농촌진흥청 북쪽에 있다.

숙지산과 여기산은 처음에 흙에 덮여 있어 돌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나, 돌을 찾아 들어가자 석맥이 여기저기 걸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후 권동에서도 돌맥을 찾았는데 두 산에 버금가는 것이어서 공역에 활용하였다. 또 서쪽의 성터를 닦던 중 팔달산 왼쪽 등성이에서부터 남쪽으로 용도에 이르기까지 600~700보가 모두 석

맥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서쪽 성의 한쪽 면은 제자리에서 캔 돌을 사용했다는 『화성성역의궤』 권수卷首의 「벌석伐石」조 내용으로 화성 공역에 사용된 석재 발굴지의 전말을 알 수 있다.

『화성성역의궤』에는 석재 발굴지 외에도 각 지역의 석재가 보이는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수원 인근에서 채취된 돌은 조선의 땅 어느 곳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화강암이었지만 숙지산 돌은 강하면서도 결이 가늘고, 여기산 돌은 부드럽지만 결이 거칠고, 권동의 돌은 여기산과 같지만 결이 조금 더 가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팔달산의 돌은 숙지산에 비하면 더 강하고, 여기산보다는 더 거친 속성이 있었음을 적고 있다.

돌공사는 돌의 속성을 잘 알고 다룰 줄 아는 석수가 있어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원 지역 석재의 특질이 정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재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이와 같은 성격의 돌을 가공할 수 있는 석수의 확보였다. 화성 공역이 계획된 지 얼마 안 된 1793년 12월 초6일 한양의 각급 관청인 장용영,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용호영, 총융청, 내수사, 선공감, 상의원, 공조,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와서瓦署에는 화성 공사가 곧 시작되어 돌 뜨는 작업을 하게 될 테니 해당 석수를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공문이 보내졌다.

장용영,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용호영, 총융청은 군영으로 군인들도 많고 국가 공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관리 아래에 있는 장인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또 내수사나 선공감, 상의원, 공조 등은 본래 왕실과 중앙정부의 공역을 담당하던 기관이었으므로 역시 관할 장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 기관에 석수를 수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더불어 한양의 각 부와 와서에도 공문을 보냈다.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는 조선시대 한양의 행정구역 담당 관서로 현재의 구청區廳과 같은 성격을 가진 곳이다. 이곳에 공문을 보낸 것은 소속이 없는 석수들의 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서 한양에서 확보된 석수는 공역을 마칠 때까지 218명이었다. 화성 성역의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여서 결국 성역소에서는 경아문京衙門에 등록된 석수로는 일을 진행할 수 없으니 공사公私의 장인을 막론하고 수원부로 보내 달라는 공문을 각 지방관아에 또 보냈다. 이로써 참여하게 된 석수는 전국 각지에서 650명이 되었다. 『화성성역의궤』에서는 전체 인원의 합계를 642명으로 기록했지만,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명단을 통해 인원수를 헤아려 보면 650명으로 642명이라는 숫자는 『화성성역의궤』의 계산착오로 생각된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 화성 공역에 참여한 석수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표 1〉과

<표 1> 화성 성역에 참여한 석수의 지역별 분포와 상전등급

소속	등급	1등		2등	3등	등외	합계
		편수	석수	석수	석수		
서울	내수사	6	30	4	4	2	46
	훈련도감	1	11		1	3	16
	금위영	1	3		1	1	6
	어영청			1		1	2
	장용영		1				1
	수어청				1		1
	용호영				1	1	2
	경기감영		1				1
	선공감	1	42	13	18	13	87
	무소속	3	16	4	11	22	56
지방	강화부	1	17	5	11	6	40
	개성부	1	42	10	6	6	65
	수원부			4	1	4	9
	광주부					1	1
	경기	1(용인)	9	17	17	14	58
	강원		3	7		7	17
	충청		11	12	12	17	52
	황해	1(해주)	15	11	16	31	74
	평안	1(정주)	1		39	11	52
	전라		2			39	41
	경상					23	23
합 계							650

같다. 공역에 가장 많이 참여한 석수들은 역시 한양 경아문에 소속된 장인들이다. 그 중 왕실 공사를 담당하는 내수사와 선공감의 석수들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많이 참여한 지역의 석수는 개성부, 강화부, 경기, 충청, 황해 지역의 사람들로 수원과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왔다. 경아문과 이들 지역 소속의 석수 중 상당수가 공사가 끝나 시상할 때 1등급으로 매겨졌다. 즉 공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오랜 기간 공역에 참가했다는 뜻이 된다. 이들이 공역한 곳을 살펴보면 부석소뿐만 아니라 장안문·팔달문 등 각 문과 옹성·적대·치·포루·암문 등 굴곡이 지고 다양한 모양의 석재가 사용되는 고난이도의 작업이 요하는 곳으로, 이곳에 그들의 기술이 활용된 것이다. 화성에는 성문이나 적대, 치, 포루 등 다양한 시설물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은 단순한 성벽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쌓을 돌들을 캐내어 다듬고 쌓는 일들은 그 나머지의 석공들과 모군募軍들의 몫이었다.





선단선, 무사석, 홍예석으로 만들어진 팔달문

큰 돌부터 작은 돌의 순으로 쌓아 올라간 성벽

화성 공역에 사용된 총석재량은 18만 7,200여 덩어리로 지역별 채취량을 보면 숙지산에서 8만 1,100여 덩어리, 여기산에서 6만 2,000여 덩어리, 권동에서 3만 200여 덩어리, 팔달산에서 1만 3,900여 덩어리이다. 이 돌들은 처음부터 그 크기와 가격이 매겨져 공사현장에 수용되었다. 큰 성돌은 뒷길이가 3자 5치에 한 변 길이가 2자로 값은 8전, 중간 성돌은 길이 3자에 한 변 1자 8치로 값은 5전, 작은 성돌은 길이 2자 8치에 한 변 1자 5치로 값은 3전으로 매겨졌다. 성벽을 쌓는 성돌과는 달리 특수한 돌도 있었는데 선단석扇單石이 그 예이다. 선단석은 크고 네모 반듯한 돌로 큰 선단석은 길이 5자 2치, 너비 4자 1치, 높이 4자로 값이 15냥이었다. 큰 선단석 하나가 작은 성돌 50개와 맞먹는 셈이다. 이처럼 큰 선단석은 주로 장안문, 팔달문 등과 같은 성문의 석축에 쓰였다. 또 값이 많이 나가는 돌로는 아치에 쓰는 홍예석이다. 이 홍예석은 길이 5자 2치, 너비 2자, 높이 2자 7치로 값이 12냥이었다.

성역소에서는 돌 뜨는 현장마다 각양의 돌 크기와 값을 배정해 주고 그에 맞추어 돌을 공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석재의 효율적인 운반과 관리, 시공의 편리를 위해서였다.

돌을 떼어 낸 현장에서는 석공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어설프게나마 돌을 다듬어서 그 무게를 덜도록 해서 운반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 그 돌덩어리는 먹줄을 쳐서 필요한 크기에 맞게 몇 등급으로 나누어서 깎고 다듬은 다음 부석소마다의 물량을 기록하고, 성을 축조할 때는 큰 돌을 아래층에 중간 돌을 중간층에 작은 돌을 위층에 놓아 점차 작고 좁아지는 방식으로 쌓아 가며 활용하였다.

화성은 석성으로 짓기로 하고 축조한 성이지만 돌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성벽은 돌로 쌓고, 포루나 공심돈 등 새로운 방어시설은 흙을 구워 만든 전돌로 쌓았다. 조선에서는 그동안 벽돌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벽돌을 굽는 데 익숙하지 않고, 또 온돌로 주택의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벽돌 굽는 땔나무를 구하기도 어려워 석성을 채택한다고 「어제성화주략」에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 공역에 다량의 벽돌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화성 축성에는 석재를 기본 재료로 쓰면서 북문[長安門], 남문[八達門], 서문[華西門], 동문[蒼龍門] 등 4대문의 옹성甕城을 비롯하여 공심돈空心墩, 노대弩臺, 암문暗門, 봉돈烽墩, 각루角樓, 포루砲樓 등에 벽돌이 다수 쓰였다.

성축에서 벽돌에 대한 인식은 17세기 『반계수록』에서 처음 나타났거니와,[9] 이익을 거쳐 18세기 중엽 중국 연경을 다녀온 박지원·박제가 등 북학파 실학자들이 그 선진성과 실용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熱河日記』 도강록渡江錄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벽돌의 효용성을 설명했고, 그 제자 박제가는 『북학의北學議』 내편 벽甓조에서 누대·성곽·담장을 비롯하여 교량·분묘·구거溝渠·제언 등에 이르기까지 벽돌의 편리함과 유용성을 설명하면서 그 제조와 보급이 시급함을 주장한 바 있었다.[10] 또한 이 책 성城조에서는 중국에 보편화된 성곽 축조에서 전축塼築의 견고성과 그 축성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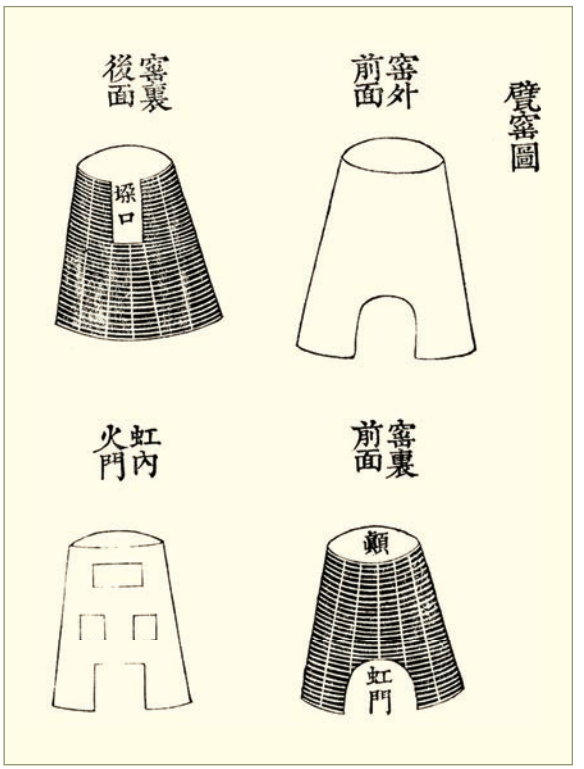
> 성은 모두 벽돌로 쌓았다. 벽돌은 회灰로 붙였고, 회 쓴 것이 너무 엷어서 간신히 붙을 정도였다. 쌓는 방법은 먼저 돌로 터를 닦거나, 큰 벽돌을 쌓아 터를 닦기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벽돌을 쌓았는데, 혹은 가로로 혹은 세로로 쌓았으며, 혹은 눕히고 혹은 세우기도 하여 내외가 서로 어긋나게 하면서 성 두께대로 다 쌓아 올렸다. 겉과 안 사이에서 간혹 흙으로 채우기도 했으나, 그 넓이의 3분의 1이 못 된다. 그러므로 엿 뭉치와 같이 합쳐져서 대포大砲를 맞아도 다 부서지지 않도록 되었다.[11]

유형원 이후 이익을 거쳐 박지원·박제가 등의 실학자들이 성의 재료로서 벽돌에 대해 가졌던 인식은 정약용에게 그대로 수용되었고, 그보다 21년 연상인 수원부 출신의 실학자 우하영이 『천일록』과 『관수만록』에서 더욱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12] 북학파의 맹장 박제가는 일찍이 정조의 지우知遇를 얻어 규장각 4검서관의 한 사람으로 발탁되었고, 1778년(정조 2) 사은사 채제공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갔다가 귀국 후 『북학의』 내·외편을 저술한 바 있었다. 그리고 1798년(정조 22) 왕에게 이 책의 진소본進疏本을 제출하고 있었던 만큼 정조가 벽돌을 성재城材로 과감히 결정하는 데 직·간접의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정조의 측근으로 총애를 받던 정약용의 「성설」에서 벽돌을 성재로 인식하여 서술함으로써 그 영향이 미쳐, 마침내 화성에 구체적으

9_ 『반계수록(磻溪隨錄)』 권22, 병제후록, 성지.
10_ 『북학의(北學議)』, 내편, 벽(甓).
11_ 『북학의』, 내편, 성.
12_ 최홍규, 「조선후기 화성축조와 향촌사회의 제양상」, 『국사관논총』 30, 1991, 316쪽.

로 실용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벽돌 활용이 채택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흔하게 사용하던 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마 제작부터 굽는 기법 등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고안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국을 통해 입수된 기술서적인 『천공개물天工開物』이 큰 지침이 되었다. 『천공개물』은 중국 명나라 말기에 저술된 종합 과학 기술서로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벽돌을 굽는 가마에 관한 내용은 중권에 수록되어 있다. 『천공개물』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가마를 만들어 벽돌을 굽는 일은 화성 공역이 진행되기 전까지 조선의 어느 곳에서도 시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화성성역소에서는 북성 밖에 가마 2개를 만들어 처음 벽돌을 굽는 실험을 했는데, 비용도 재래가마보다 절감되면서 빨리 구워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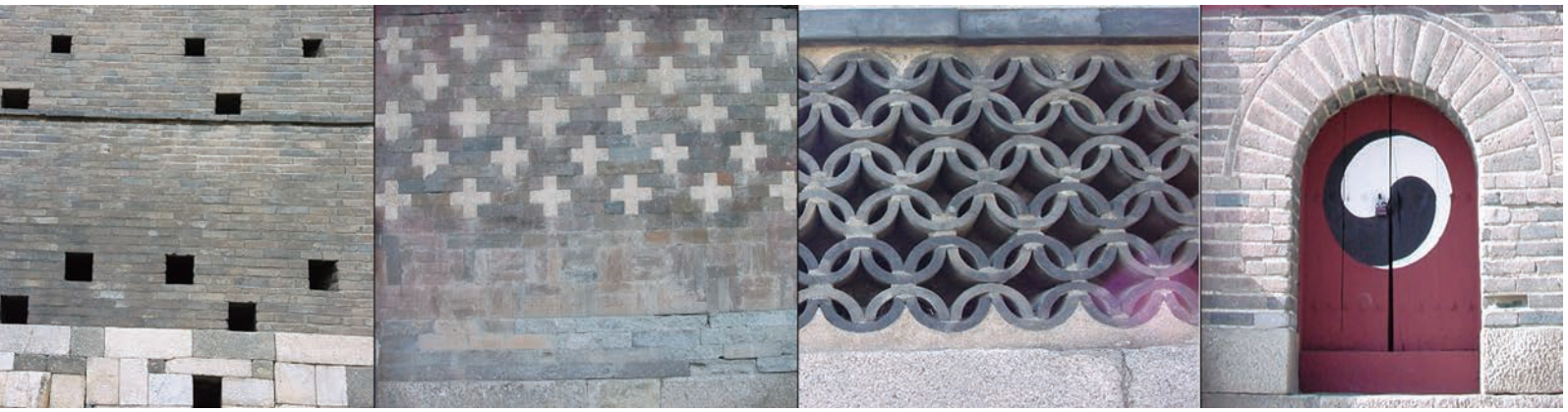


『화성성역의궤』 도설편에 실린 벽돌 가마 구조도

이전의 벽돌은 모두 광주의 왕륜旺倫(현재의 의왕시)에 있는 기와가마에서 구웠지만, 이 실험 이후에는 별도의 가마를 만들어 벽돌을 굽게 했다. 또 땔감 대는 길이 멀다는 이유로 서봉산(현 화성시 팔탄면 봉담리)에 가마 하나를 옮겨 필요에 따라 공역현장에 벽돌을 대도록 했다.

벽돌은 온전한 네모 틀에 만든 방전方甎과 그 틀의 반을 판자로 가로막아 만든 반방전半方甎이 사용되었다. 방전의 경우 큰 방전이 사방 1자 3치 8푼에 두께가 2치 4푼으로 제작되었으며, 반방전은 길이 1자 2치에 너비 7치, 소방전은 사방 1자로 두께는 모두 1치 8푼으로 제작되었다. 이 외에도 홍예에 사용되는 벽돌과 귀벽돌[耳甓], 마루벽돌[宗甓], 덮개벽돌[蓋甓] 등도 제작되었다.

벽돌과 더불어 가마에 구워야만 하는 것은 기와이다. 기와는 벽돌과 달리 내내 만들어 오던 것으로 역시 왕륜과 서봉산의 가마에서 구워 조달하도록 했다. 기와도 벽돌처럼 규격을 정했는데, 기와 낱장의 크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기와 틀의 지름과 길이를 정했다.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암키와는 기와 틀에서 네 장을 찍어 내고 수키와는 두 장을 찍어 낸다. 때문에 기와 틀의 규격만 정해 주면 기와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와 틀의 크기를 정함과 동시에 기와 표면을 연마해 올 것인지 아닌지도 정하고, 막새는 겉면에 봉황을 새겨 오도록 했다. 벽돌과 기와의 제작은 주로 왕륜벽소의 와벽장과 한양에서 내려온 무소속의 와



벽돌과 기와를 사용해 만든 수원 화성의 다양한 조형적 형태

벽장들이 했다. 이들은 성역소에서 정해 준 수치에 따라 벽돌과 기와를 제작했고 이를 가져다주면 벽돌과 기와 값을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화강암으로만 쌓아 오던 성벽에 벽돌이 사용되자 수원 화성에는 전에 없던 조형적 면모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성벽이나 시설물의 모서리를 둥글게 굴려서 미묘한 곡선을 만들어 내고, 모양이 다른 벽돌을 사용하여 성벽에 다양한 총구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이다. 네모난 벽돌로 만들 수 없는 것은 벽돌을 갈아서라도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냈다.[13]

3. 축성의 난관과 해결

화성 성역이 시작된 것은 1794년(정조 18) 2월 28일이다. 먼저 2월 28일 진시辰時에 팔달·장안 양 대문과 북수문北水門인 화홍문華虹門 건립을 위한 터닦기 공사와 하천의 물돌림공사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같은 해 9월 5일과 15일에 북문과 남문의 문루가 각각 완성되었으며, 북문의 외성인 북옹성은 같은 해 10월 20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795년(정조 19) 2월 27일에, 그리고 남문의 외성인 남옹성은 1795년(정조 19) 4월 21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 20일에 각각 완공을 보았다. 화성 내로 들어가는 물을 감시하는 북수문(화홍문)은 다음 해 1월 13일 완료되었으며, 남수문은 개기開基 후 공사를 한동안 중단했다가 이듬해 11월에 다시 공사에 들어가 1796년(정조 20) 3월 25일 공사가 완료되었다.

공사 경비로는 남문인 팔달문에 5만 2,423냥 1전 3푼이, 북문인 장안문에 5만 8,090냥 8전이, 동문인 창룡문에는 1만 3,335냥 7전 3푼이, 서문인 화서문에는 1만

13_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 수원성』, 도서출판 발언, 1996, 202~207쪽. 김동욱은 『화성성역의궤』에 등장하는 '마벽패장(磨甓牌將)'의 존재를 통해서 수원 화성에 사용된 다양한 모양의 벽돌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해시키고 있다.

2,668냥 8전 1푼이 각각 들었으며, 북수문에는 3만 940냥 4전 3푼이, 그리고 남수문에는 3만 446냥 7전 5푼의 공사 비용이 각각 소용되었다.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7개월 만인 1796년(정조 20) 9월 10일에 완공을 본 화성은 팔달문·장안문·창룡문·화서문 등 4대문과 화홍문·남수문 등 2개의 수문시설을 갖추었다. 그리고 암문 5곳, 적대 4곳, 노대 2곳, 공심돈 3곳, 봉돈 1곳, 치성 10곳, 포루砲樓 5곳, 포루舖樓 2곳, 장대 2곳, 각루 4곳, 포사 3곳 외에 성신사城神祠·사직단社稷壇·공자묘孔子廟·행궁과 그 부속건물로 구성되었다. 이 중 포루舖樓·공심돈·노대 등은 그 이전의 성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조물이었다.

화성의 완성된 모습은 장려했지만, 축성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공사를 결심할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경비를 조달하는 문제와 공사를 효율적으로 이끌고 갈 적임자를 찾는 일이었고, 다음으로 성벽을 쌓을 돌을 찾고 벽돌을 만드는 문제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앞의 항목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다음으로 발생한 문제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온전히 실무적인 것에 관계되어 있다.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각급 관청들 사이에 오간 공문들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갔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1) 목재 수급과 운반에 관한 문제

화성에는 성벽을 제외한 각종 방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 석재와 벽돌을 활용하여 축조했지만, 상부의 시설물은 목재를 이용해서 건축하였다. 목재가 가장 많이 들어간 건물은 화성을 대표하는 성문인 장안문과 팔달문이다. 다음으로는 서장대와 동장대, 창룡문과 화서문 순이다. 장안문과 팔달문이 비록 칸수는 정면 5칸, 측면 2칸이지만 2층의 누로 이루어져 있어 높고 굵은 목재를 필요로 했으며 기둥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다포에도 만만치 않게 목재가 쓰였다.

이전에는 공각 공역에 소용되는 재목을 각 도별로 나누어 지정해 주고 그것을 받아 쓰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화성 성역은 정조가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진행할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모든 재료와 품에 값을 매겨 지불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이는 목재도 마찬가지였다.

공사 초기에 소용되는 대부분의 목재는 안면도에서 베어 올 것을 결정했으나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조심태가 영호남의 여러 섬에 잡목이 많이 생산되니 해당

도의 절도사 및 통제에게 명령하여 괴목과 잡목의 기둥감 100그루 정도를 베어다가 조세선漕稅船편으로 나누어 수송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를 아뢰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해당 지역의 관찰사를 지낸 정민시가 했다. 남도의 섬에 국역을 대비해 목재를 키우는 봉산이 있으니 목재의 벌채는 그곳에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조세선에 운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었다.[14]

운반하는 것은 차후에 고민하기로 하고 우선 해당 지역에서 목재를 베어다 쓰라는 윤허가 내려졌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호남우수사가 지역이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목재를 분정하여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다. 이 보고가 목재를 수급해야 할 모든 지역에서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정조는 여러 지방관을 엄중히 조사하고 보고받은 뒤에 죗값을 치르게 하여 본보기를 보일 뜻을 명했다.[15]

목재 벌채가 끝나자 이번에는 운반에 문제가 생겼다. 당초 정민시가 말했던 것처럼 조세선은 큰 나무를 싣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는 보고가 전라감사로부터 들어왔다.[16] 이는 전례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문제였다. 조선시대 왕실 공역을 기록한 영건의궤를 살펴보면 삼남의 목재가 한양 도성의 공역에 쓰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서해 바다와 사투를 벌인 후라야 안전하게 도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배는 대부분 조세선이 아니라 전쟁 때 수군들이 타고 나가는 병방선兵防船이었다. 조세선으로 운반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장계를 올린 전라감사는 그 해결책도 같이 언급했는데 바로 병선의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수영에 소속된 병선은 비록 전쟁 방비를 위한 것이지만 마땅히 이처럼 막중한 공사에 일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 정책일 듯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전례가 있으니 보고한 대로 시행하되 사공과 격군을 정하여 왕래할 때 양식을 넉넉히 주어 조금도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바다를 통해 올라오는 목재는 병선을 사용하여 운반하도록 처리되었지만, 한강을 통해 도성의 경강에 도착한 목재를 공사현장인 수원으로 옮겨 오는 것 또한 문제였다.[17] 강을 오르내리는 배는 바다 배와 달리 폭이 좁고 작은 것이 특징이다. 수원으로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다시 바다로 나간 뒤 수원과 가까운 구포鷗浦(현재 화성시 비봉면 구포)까지 실어 날라야만 하는데 한강의 배로는 처리할 수 없으니 개인 배를 따로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문제는 비슷한 시점 영남 우조창右漕倉의 배가 세곡을 바치러 경강에 오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세곡을 바치고 돌아가는 편에 목재를 실어 화성 접경지인 구포 항구에 내려놓게 하면 감독하는 곳에서 스스로 담당하여 공사장까지 실어 가도록 하는 방안으로 처리하였다.

14_ 『화성성역의궤』, 계사(啓辭), 계축년 12월 18일.
15_ 『화성성역의궤』, 계사, 갑인년 2월 초10일.
16_ 『화성성역의궤』, 계사, 갑인년 3월 초5일.
17_ 『화성성역의궤』, 계사, 갑인년 5월 22일.

2) 석수石手 수급과 관리의 문제

화성 공역은 여태까지의 국가공사와 달리 모든 공정에 참여하는 장인과 모군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래 조선에서는 큰 공사가 있으면 일반 백성들은 부역의 의무를 졌다. 백성들은 자기가 먹을 음식을 직접 싸들고 나와 나라에서 시키는 길 닦는 일이나 성 쌓는 작업에 정해진 날짜만큼 복무해야 했다. 특히 신분이 관청에 속해 있는 장인들은 1년 중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관청 공사의 일을 했다. 이 부역노동의 관습이 무너진 것은 17세기경부터였다. 17세기 중반부터 부역 대신 모군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미 조세제도는 바뀌어 실물 대신 돈이나 포목 등으로 대납이 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부역노동 또한 더 이상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기보다는 돈을 주고 일꾼을 고용하는 것이 관행화되기 시작한 것이다.[18]

이때 이후 백성들의 부역은 없어졌지만 18세기 중반까지 장인에 대한 강제 동원과 부역노동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동일수만큼만 요미를 받아 급기야는 모군들과 같거나 적은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모순은 정조대에 있었던 문희묘 신축공사부터 극복되었다.[19] 문희묘는 정조와 의빈 성씨 사이에서 태어나 어려서 죽은 문효세자의 사당이었는데, 정조는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장인의 기능과 작업일수에 따라 노임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모군 고용제와 장인 노임제가 정착되자 화성 공역에는 한양과 인근 지역에 사는 많은 모군과 장인들이 찾아왔다. 모군의 경우 특정 기술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밥벌이를 하기 위해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이 몰려와 그 수가 충당되었다. 그러나 석수와 목수 같은 전문기술자의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장인만으로는 사역을 해낼 수가 없었다. 특히 돌로 성 쌓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공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공사하는 내내 각 지방에 공문을 보내어 해당 지역에 사는 석수를 물색해서 올려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공사 초기에는 개성부, 강화부, 충청도, 황해도 지역의 석수들이 올라왔다. 이들은 수원과 비슷한 풍토를 가진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원의 돌을 잘 다룰 줄 알았던 것 같다. 거의 2년 반을 꼬박 일해서 공역이 끝나 시상할 때에는 대다수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구분한 상전의 대상에 들었다. 공사 후반부에는 수원에서 비교적 거리가 먼 평안, 경상, 전라 지역의 석수들이 참여하였다.

사람들이 얽혀 일을 하는 곳에는 언제나 이권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화성 성역에 쓰이는 돌을 채취하는 곳에서도 여지없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화성 공역은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재료의 규격과 값을 매겨 놓고 그에 합당한 제품을 납품해야만

18_ 김동욱, 『한국건축공장사연구』, 기문당, 1993, 165~174쪽.
19_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90쪽.

값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또 다른 폐해를 낳았다.

가지각색의 돌 값을 미리 정해 석수들이 있는 곳에 배정해 주자, 임시로 배정된 막일꾼의 수를 땅 판다는 명목으로 함부로 늘려 보고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20] 석재의 값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 일 값을 더 늘리기 위해 공역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부풀려서 보고한 것이다. 결국 해당 부석소를 담당하는 패장에게 죄를 묻겠다는 엄포로 이 일을 처리했지만,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권문제는 돌맥을 찾는 과정에 대한 견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돌 뜨는 곳이 무덤 가까이에 있어 석수들이 무덤을 돌아보지 않고 돌만 함부로 떠내어 산소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으니, 새로이 돌맥을 얻은 곳에서는 반드시 그 전말을 먼저 도청에 보고하고, 도청이 상세히 조사한 다음 비로소 돌 뜨는 것을 허락받아야 한다[21]는 공문이 도청에 전해졌다. 공문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염려하는 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문이 보내졌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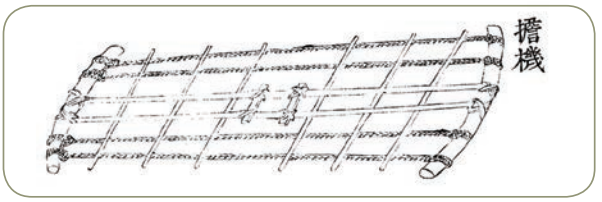
3) 석재 운반과 가공 문제

화성 공역에서 가장 큰 난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재와 관련된 부분이다. 석재는 그 무게 때문에 채취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가공과 운반에서도 어려움이 따른다. 화성성역소가 조직되고 나서 초기에 한 일 중의 하나는 별감동을 시켜 수원에서 부석소까지 수레가 다닐 길을 닦는 일이었다. 지금은 포크레인이나 대용량의 덤프트럭이 있어서 쉽게 석재를 운반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모든 부분에 인력이 들어가야만 가능했던 일이다. 이 작업을 조금 수월하게 해 주는 것이 각종 들것과 수레였고, 이들이 다닐 길을 평평하게 하는 일은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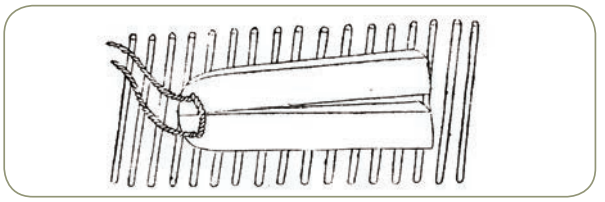
화성 공역에서 석재와 각종 재료를 나르는 데 쓰인 운반용구는 담틀[擔機], 썰매, 구판駒板, 대거大車, 평거平車, 발거發車, 동거童車 등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담틀이었다. 담틀은 만들기도 쉽고 고장이 나도 쉽게 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담틀로 운반공사를 하니 운반하는 돌덩어리가 작을 뿐 아니라 운반하는 횟수도 부진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가장 큰 것은 한 덩어리씩, 약간 작은 것은 두 덩어리씩, 운반하는 횟수는 매일 여섯 번으로 하라는 명이 담틀 운반패장에게 하달되었다.[22]

수레와 담틀로 운반된 돌덩이가 성역소에 도착해서 마구 뒤섞이는 폐단도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레 몇 채가 몇 덩어리를 운반하였으며, 담틀로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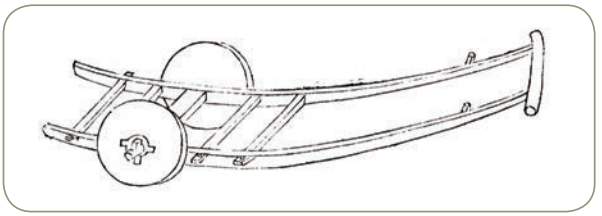
20_ 『화성성역의궤』, 감결(甘結), 갑인년 1월 29일.
21_ 『화성성역의궤』, 감결, 갑인년 2월 초2일.
22_ 『화성성역의궤』, 감결, 갑인년 2월 초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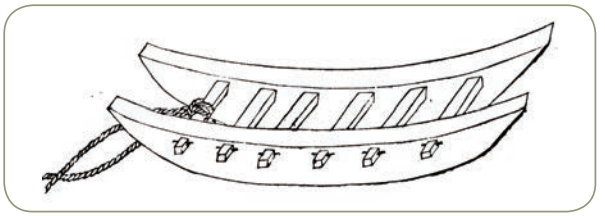
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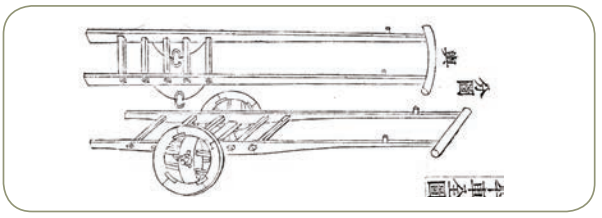
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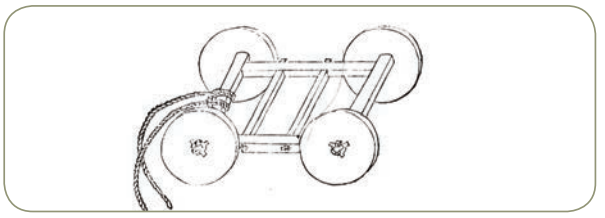
썰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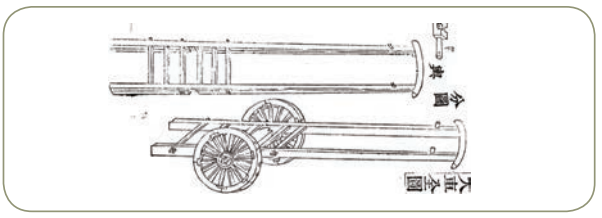
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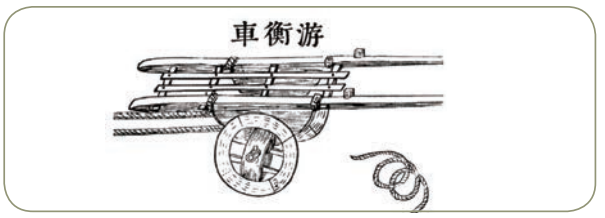
평거



동거



대거



유형거

화성 성역에 사용된 각종 도구

반한 것은 몇 채의 몇 담틀이 몇 덩이를 운반하였는지 매일매일 작업일지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근무태도를 평정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명이 각 소의 감동들에게 전달되었다.[23]

석재를 나르는 데 주로 담틀이 이용되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운반도구가 사용되었다. 구판·썰매·발거·평거·동거·대거 등은 이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재래식 운반도구로, 성역에 사용된 수는 대거가 8량, 별평거가 17량, 평거가 76량, 동거가 192량, 썰매가 9좌였다. 이전에는 쓰이지 않던 유형거도 11량이나 동원되었는데, 유형거는 석재

23_『화성성역의궤』, 감결, 갑인년 2월 20일.

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반하고자 다산 정약용이 고안한 것이다.

기존의 수레는 바퀴가 너무 크고 투박해서 돌을 싣기 어렵고, 바퀴살이 약해서 부러지기 쉬운데다가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썰매는 몸체가 땅에 닿아 밀고 끄는 데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유형거는 여러 개의 가는 바퀴살 대신 바퀴통에 바퀴살 두 개를 꿰어 바퀴테에 고정시킨 것으로 기존의 수레바퀴에 비해 훨씬 튼튼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 바퀴와 바퀴통 사이에 반원모양의 부품인 복토를 덧대어 수레 바닥의 높이가 높으며, 수레가 앞뒤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저울의 원리를 이용한 복토는 수레의 무게중심을 평형으로 유지시켜 수레가 비탈길에서도 빠르고 가볍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도록 고안되었다.[24] 공사가 끝난 후 유형거 11량 중에 1량만 온전하게 남았지만, 공사 기간 중 일반 수레 100량이 324일에 걸려 운반할 양을 70량분으로 154일 만에 운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유형거가 석재 운반에 크게 활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사 초기 부석소에서 운반해 온 돌들은 한곳에 쌓아 놓고 한꺼번에 다듬었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것이 마구 뒤섞이는 문제가 생겼고, 돌 값을 지불할 때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는 각기 돌을 다듬을 때에 돌의 표면에 각각 길이와 너비 크기, 어느 부석소에서 뗀 것인지, 편수나 석수의 이름을 적어 넣고, 이것을 기준으로 건별로 기록을 작성해서 닷새마다 한 번씩 제출하여, 각 소의 건별 기록을 돌덩이를 다듬는 증빙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결책을 삼았다.[25]

또 부석소에서 어느 정도 다듬어 담틀이나 수레에 실으면 운반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각 소에서 일정 부분 가공해 보낼 것을 명했다. 그러나 돌을 다듬는 일은 쉬운 공정이 아니었으므로 성역소에 도착한 석재의 상태는 앞의 한 면 두어 곳에 겨우 정을 대다가 만 정도였다. 이에 대해서는 각 소에서 돌 떠내기를 우선 중지하고 이미 떠낸 돌덩이 가운데서 뒤가 기다란 것을 한결같이 모두 다듬되, 앞면은 비록 정교하게 다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몸체는 반드시 먹줄을 대어 네모반듯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배치할 때에 또다시 깎아 내고 쪼아 내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이 부석소의 패장들에게 내려졌다. 그리고 매일 작업일지에 기록된 수효 및 대중소의 성석, 잡석은 부록의 기준 수치에 따라 기록하는 장부를 구별하되, 검사할 때 어긋나거나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며, 다듬기가 끝나기를 기다려 이후에 다시 돌 뜨는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처리되었다.[26]

돌은 가공이 끝나서야 공사에 사용할 수 있었다. 성벽은 아래쪽에 큰 돌을 놓고 중간에 중간돌을, 위쪽에는 작은 돌을 놓는 방식으로 쌓였다. 낮은 곳에 깔리는 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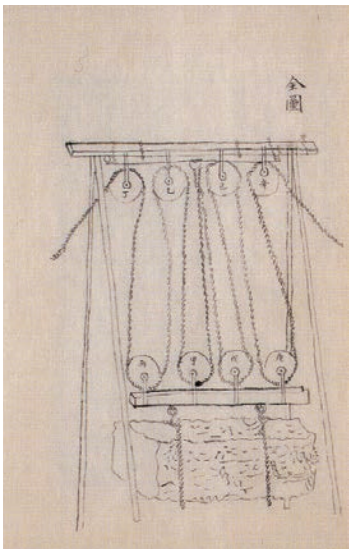
24_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건축용어집』, 2009, 220쪽.
25_ 『화성성역의궤』, 감결, 갑인년 5월 19일.
26_ 『화성성역의궤』, 감결, 갑인년 7월 3일.



①



②



③

①『화성성역의궤』의 녹로 전도

②『화성성역의궤』의 거중기 전도

③『여유당집』,「기중도설」의 기중가 전도

은 운반해 온 상태에서 자리를 잡기만 하면 되지만 위에 놓이는 성석들은 수직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화성 성역공사에서 무거운 공사자재를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데 주로 쓰인 기계는 녹로였다. 녹로는 도르래와 물레를 각각 틀의 위아래에 끼우고 여기에 밧줄을 연결한 장비인데,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물레를 감고 내릴 때는 푸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그 기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선 전기부터 왕과 왕비의 국장國葬 때 작성되었던 각종 산릉도감의궤를 보면, 시신을 담은 재궁梓宮(왕이나 왕비의 관)을 무덤 안으로 내릴 때 녹로가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녹로와 더불어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 1좌도 사용되었다. 거중기는 여러 개의 도르래를 통해 물건의 무거움을 감소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 올리는 힘은 녹로에 있는데, 이는『화성성역의궤』와『여유당집』에 실린 도설을 통해 알 수 있다. 가운데 틀에 여러 개의 도르래를 설치하고 좌우에 녹로 한 대씩을 연결하여 오르고 내림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거중기는 기존의 녹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건축 장비인 것이다. 거중기가 화성 공역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기계를 고안해 공역에 드는 수고를 덜려고 했던 의도만은 확실히 알 수 있다.





左 전라도 순천시 낙안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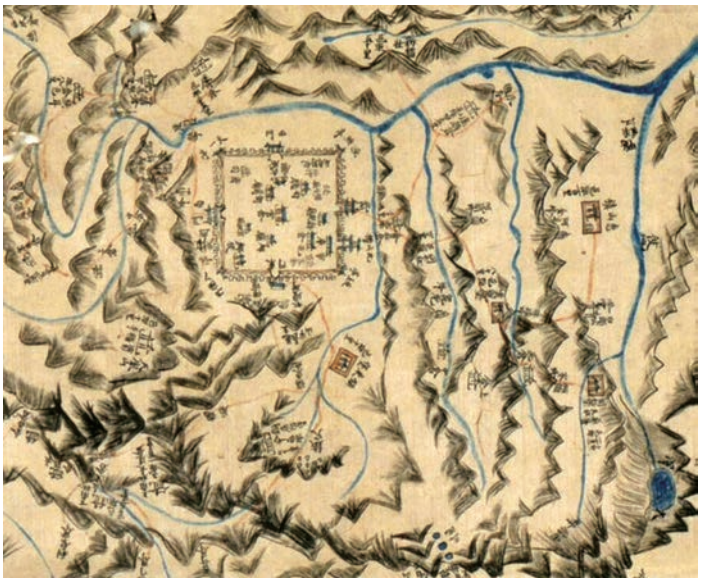
右 충청도 서산시 해미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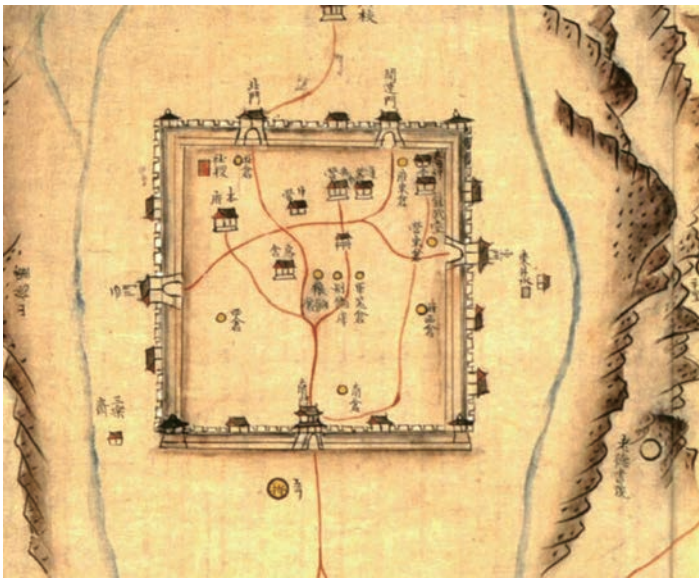
4. 화성의 성곽사적 의의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산맥이 발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부분의 도시는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라고 해도 주변 산보다는 형국이 넓어서 대개 이곳을 평지라고 한다.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민족은 평상시에는 평지에 쌓아 놓은 성 안에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산에 구축에 놓은 산성으로 피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주변에 중국과 같이 큰 나라와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을 살린 산성은 적의 침입을 막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물론 산이 있다고 다 산성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산성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식수와 용수가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피난할 수 있을 정도로 골짜기가 넓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산이 전국 어디에나 있었다. 그 결과 도성인 서울 주변뿐만 아니라 지방 대부분의 도시에는 평상시에 거주하는 읍성 주변에 산성이 마련되어 있어서 유사시를 대비했다.

우리나라 산성의 전통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평양의 대성산성이나 경주 주변의 남산성·선도산성·서형산성, 한강 주변에 있는 아차산성과 이성산성 등은 대표적인 삼국시대 산성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평상시의 읍성과 유사시의 산





左 **갑산부**(1872년 지방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右 **북청부**(1872년 지방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성이라는 이원구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하나의 고유한 성곽제도로 자리 잡게 된다. 그 전통은 고스란히 조선시대의 읍성과 산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산성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읍성의 위축을 초래했다. 전쟁이 났을 때 산에 들어가 항전하는 방식에 의존하다 보니, 평상시 거주하는 읍에는 이렇다 할 성곽을 갖추지 않거나 읍성이 있다고 해도 방어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27]

읍성은 사람들이 사는 읍치의 외곽에 성벽을 둘러쌓은 것을 말한다. 읍성은 관아나 객사와 같은 읍치시설만 읍성 내에 있고 백성들은 성벽 밖에 사는 경우와 수령과 백성 모두가 읍성 내에 거주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현재 충청도 서산시에 있는 해미읍성이 전자의 경우이고, 전라도 순천시에 있는 낙안읍성이 후자의 경우이다. 둘 중 어떤 거주방식이 먼저였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던 대부분의 읍성은 후자처럼 읍성 내에 통치시설과 백성들의 거주지가 공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통치자와 주민 모두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사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서아시아나 유럽 등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중국의 경우 평탄한 지세를 따라 네모반듯한 성곽을 2중 또는 3중으로 쌓고 성벽을 따라 외곽에 반드시 깊은 호를 파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적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벽에는 일정한 간격마다 치성이라는 돌출부를 두어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28]

27_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54쪽.

28_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57쪽.

조선의 읍성은 중국의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지만 지역마다 다른 지형을 고려해서 불규칙한 형태로 만들어진 점과 또 성벽 주변으로 깊은 호를 파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산성 의존의 전통 때문에 읍성에 이렇다 할 방어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도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쪽 지역에 있던 갑산부나 경성, 부령읍성, 북청부성 등은 성곽을 네모반듯하게 구성하고 방어시설물을 비교적 많이 설치했는데 이것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 접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였다.

평상시에 거주하는 읍성과 유사시를 대비한 산성의 이원체제를 답습한 조선의 성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17세기를 전후해 전기를 맞이하였다. 조정에서는 산성이 잘 수축되지 않아 방어벽이 쉽게 무너졌다는 생각에 전국적인 산성 수축공역을 실시하였다. 한편에서는 읍성의 방어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다. 이 주장을 한 대표적인 사람은 서애 유성룡인데 그는 읍성에 치성을 쌓고 옹성과 현안, 성벽 호 안쪽에 한 겹의 성벽을 더 설치하는 양마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29] 서애의 이러한 주장은 단지 읍성만을 강화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산성도 필요하니 그것을 강화하면서 읍성의 방어시설도 갖추자는 것이었다.

17세기 중반에 이와는 다른 의견을 들고 나온 이가 실학자 반계 유형원이다. 유형원은 조선의 산성이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과 너무 떨어져 있어서 위급한 때를 만나도 쉽게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읍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유형원의 주장은 읍성의 방어시설만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사는 백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해 읍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반계의 주장은 전국적인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현실화되어 갔다. 1721년 황주읍성을 시작으로 전주읍성, 대구읍성, 동래읍성, 해주읍성, 청주읍성이 연이어 개축되었다.[30] 그러나 반계의 주장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난 곳은 18세기 말에 축성된 화성에서였다.

화성은 성곽공사 이전에 성내에 살 읍민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해 도시가 부흥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펼쳤고, 이렇게 안정된 도시의 외곽을 둘러 화성을 건설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화성이 가지는 성곽사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성은 조선의 전통적인 읍성제도를 따르면서도 공심돈·포루·노대 등 전례에 없던 새로운 방어시설을 갖추어 거주민들이 생활하는 읍성과 방어성의 기능을 겸비하였다. 둘째, 화성의 성벽은 중국 도성의 형태에 따라 축성된 방형의 북쪽 지역 성과는 달리 지형의 굴곡에 따라 산지에는 산성과 같이 쌓고, 평지에서는 읍성을 쌓아 그 안으로 도시가 수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화성의 시설물은 돌과 벽돌을 번갈아 사용하여 건축한 것으로 고구려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돌로만 축조하던 성곽 건축기술을 한층 발전시켜 새로운 건축미를 만들어 냈다.

29_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59~60쪽.
30_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60쪽.

이와 같은 의의를 가지는 화성은 가장 근대적인 읍성이면서 산성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마지막 성이기도 하다. 이후 화약의 발달과 무기의 변화로 전쟁은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고 더 이상 성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화성과 같은 시설은 축조되지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부분의 화성 시설이 파괴되었다. 이것이 성의 기능 상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정남 경기대학교 연구교수

05
화성의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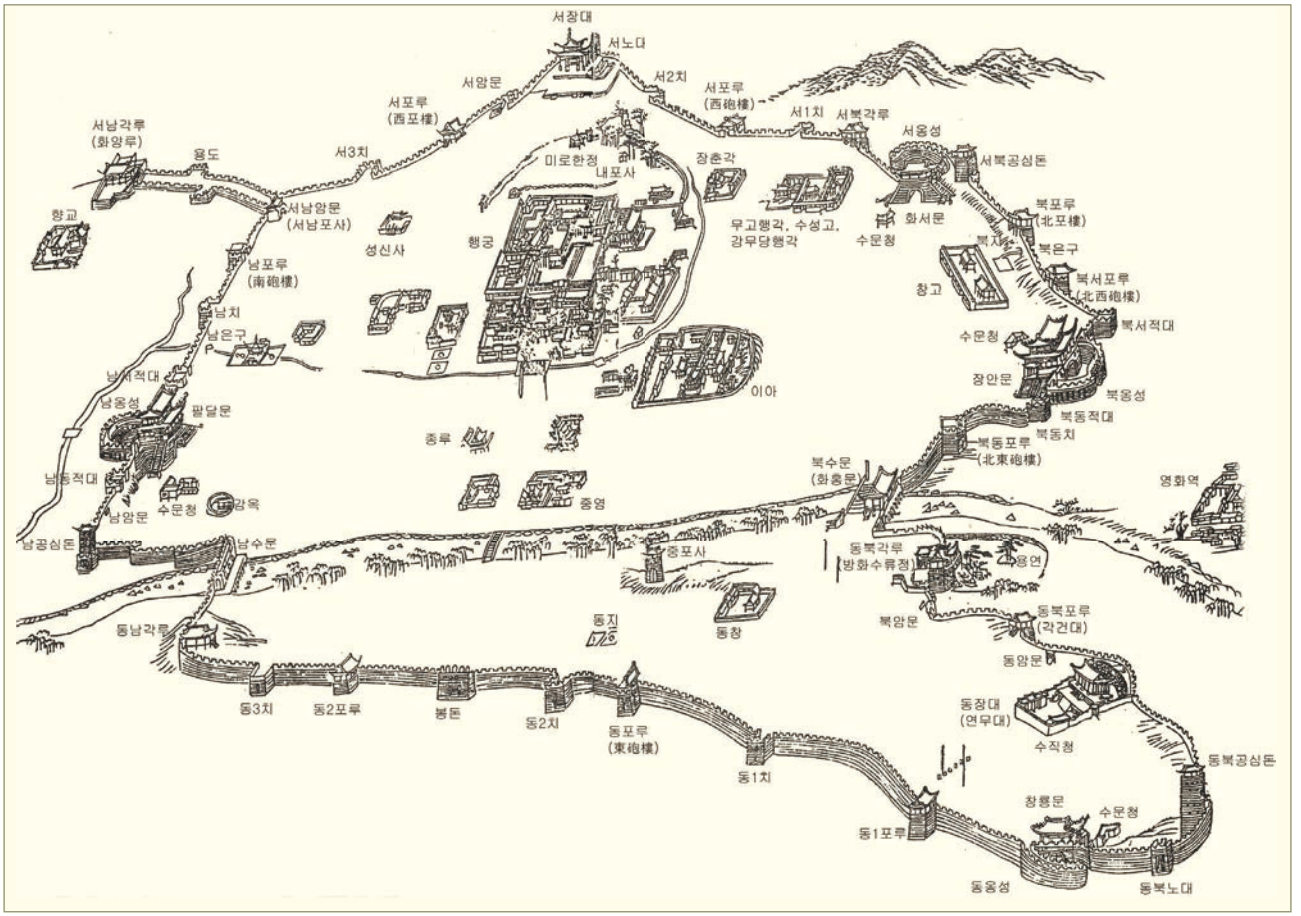
1. 성벽

화성 성곽은 서쪽에 위치한 팔달산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동쪽을 내다보는 형국으로 축조되었다.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성곽의 총길이는 4,600보(5,743.56m)로 산지 부분이 2,944보 4자, 평지 부분이 1,019보 4자로 되어 있다.

성벽은 돌로 쌓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방어시설은 벽돌로 쌓았다. 성벽의 높이는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4~6m로서 평균 5m 내외이며, 일반적으로 평지 부분의 성을 경사지 부분의 성보다 높게 쌓고 있다. 성벽 위에는 높이 1~1.35m, 평균 1.2m 정도의 여장女墻을 쌓았으며, 여장 1타垜의 길이는 평균 3.6~4.5m 정도이다. 1타에는 총안銃眼 3개를 내되, 중앙에는 근총안近銃眼, 좌우에는 원총안遠銃眼을 두었다. 여장의 두께는 보통 75~90㎝이며, 벽돌로 만든 곳은 60㎝ 정도까지도 된다.

성벽의 석축은 문루·각루 및 중요 부분에는 다듬어진 장대석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은 마름돌 또는 막돌을 썼다. 성벽의 하부에는 큰 돌을, 상부에는 작은 돌을 썼으며, 그 단면형태는 홀笏 모양으로 휘어 성벽은 위로 올라가면서 중간배가 안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규자圭字형을 취하였다. 이 수직 규자형 성벽은 경성성鏡城城에서 전례를 보인 것으로, 적을 방어할 때 매우 우수한 장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화성의 성벽에서 이런 흔적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산이 계획안에서 주장한 홀형의 형태를 염두에 두고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상태를 강조한 결과로 생각되나, 실제로 축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재래식의 평범한 방식으로 성벽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1]

1_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 수원성』, 발언, 1993, 138~141쪽.



화성 성곽과 시설물(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2009)

『화성성역의궤』에서 성벽에 대해 설명하기를, "성벽은 높이 2장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산 위에서는 5분의 1을 감하고 모두 돌로 쌓았다. 돌은 길이로 세워서 배열하여 쌓아 그 뿌리가 깊게 하였다. 다음에는 자갈을 뿌리 둘레에 쌓고 몽둥이로 바수어 굳게 다져서 돌 사이의 틈을 채웠다. 다음에는 또다시 자갈을 다져서 두께가 반 장 정도로 쌓아 올리고, 다음에는 그 뒤쪽으로 흙을 겹쳐 쌓았는데, 이것을 내탁內托이라고 한다. 성벽의 두께는 아래는 5장쯤 되고 위는 줄어들어 거의 3장 정도가 된다."고 적었다.

이처럼 성벽의 안쪽은 자갈과 흙으로 돋우고 바깥쪽만 성벽을 쌓는 내탁 방식을 취했다. 이는 대개 바깥쪽만 성벽을 쌓고 안쪽은 산을 낀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흙을 돋운 것인데, 화성의 경우 평지에서도 일부러 경사지처럼 흙을 쌓아 올려 인공적으로 내탁을 만들었다. 또한 『화성성역의궤』에서는 성벽보다 안쪽이 높은 지세를

갖춘 경우 산탁山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다산은 실제적인 축성 경험은 부족했으나 조선이나 중국의 성곽에 대한 많은 문헌을 섭렵함으로써 그 장단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성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다산의 제안이 실제 축성 과정에서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지리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성곽을 만들어 온 조선의 전통과 상치되는 부분에서는 다산의 계획안보다는 조선 성제의 전통을 존중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2] 전통적인 내탁 방식을 취하면서도 호를 두지 않은 점이나 방어시설 외에는 벽돌이 아닌 돌로 성을 쌓은 점을 일례로 들 수 있다.

2. 사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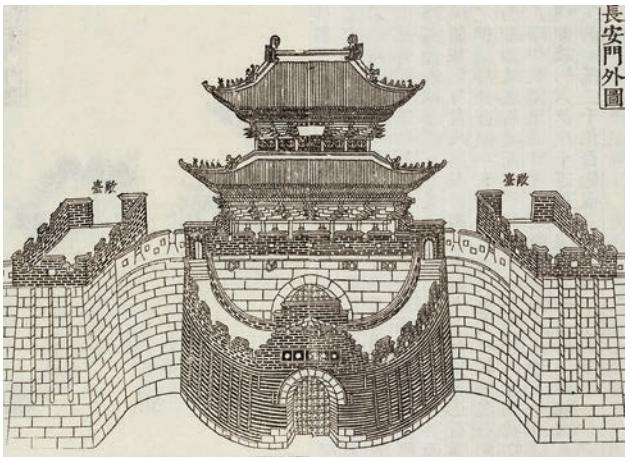
화성의 남북 도로 끝에는 북문인 장안문과 남문인 팔달문이, 동서 방향으로는 동문인 창룡문과 서문인 화서문의 4대문이 있다. 그중 서울을 향한 장안문과 그 반대 방향의 팔달문이 화성을 대표하는 성문이다. 이 두 성은 축성 당시부터 규모가 서울의 성문보다 크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화성은 도성에 비해 성 둘레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각종 성곽시설은 도성보다 월등히 강화되었다. 옹성 역시 도성을 비롯한 이제까지의 몇몇 성곽에 설치한 옹성과는 다른 큰 규모와 격식을 갖추어 조성되었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격식의 성곽을 화성에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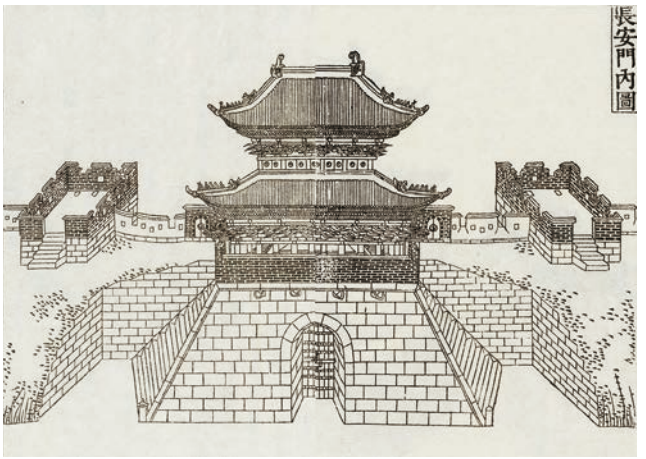
1) 장안문長安門

장안문은 성의 북문으로, 행궁의 왼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780보 되는 곳에 사좌해향巳座亥向으로 지어졌다. 1794년(정조 18) 2월 28일 진시辰時(8시) 터다지기 공사에 착수하여, 그해 7월 15일 묘시卯時(6시)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8월 15일 묘시에 상량上樑하여 9월 5일에 문루가 이루어졌다. 사다리꼴로 육축陸築한 가운데 안팎으로 석성의 홍예문紅蜺門을 내고 그 뒤에 중층重層의 장중한 누각을 세웠으며, 밖에는 옹성[北甕城]을 벽돌로 쌓았다. 북옹성은 1794년(정조 18) 10월 20일에 착공하여 이듬해 정월 16일에 홍예가 완성되고 2월 27일에 완공되었다. 옹성의 중앙 전면에는 전돌의 홍예문을 내고, 위에 옹성문루甕城門樓를 세웠다.

장안문의 석축인 홍예의 규모에 대해서 『화성성역의궤』에는 안쪽은 높이 19척에

2_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129~131쪽.
3_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 수원성』, 발언, 1993, 165쪽.





左 **장안문외도**

右 **장안문내도**

넓이 18척 2치이고, 바깥쪽은 높이 17척 5치에 넓이 16척 2치이고 전체 두께 40척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홍예에는 두 짝의 나무대문을 달았는데, 철엽鐵葉을 대고 큰 나무빗장을 걸도록 되어 있다. 홍예개판 아래에는 구름무늬를 그렸으며, 홍예 상부에는 누조漏槽 8개를 설치하고, 그 안팎으로 여장을 쌓아 여러 개의 총안을 내었다. 중층의 문루는 1층과 2층은 모두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목조건물로서 화려하고 복잡한 다포식多包式의 공포를 결구하고, 2층 구조로 꾸며 성 정문으로서의 위의威儀를 갖추었다. 건물 내부는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그 사이에 마루를 깔았으며, 곡란층계曲欄層階를 따라 2층 마루에 올라서면 성 앞을 멀리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층의 4면에는 판문을 달았는데, 3면에는 짐승의 얼굴을 그리고 전안箭眼을 뚫었으며, 안쪽에는 태극을 그려 넣었다. 지붕은 우진각지붕으로 각 처마가 한데 모여지는 형식으로 꾸며졌는데, 이것도 서울 남대문과 같은 형식이다. 홍예개판 위에는 4치 두께의 삼물을 고르게 발랐으며, 단청[丹雘]은 3토三土를 사용하였으며, 양상도회樑上塗灰[4]하였다. 문 안 서쪽가에는 수문청守門廳을 별도로 세웠다.

옹성은 서울의 동대문에도 있지만, 석축인 동대문 옹성이 출입구를 한쪽 모서리에 낸 데 비하여, 이 북옹성은 장안문의 출입문과 마주 보이는 중앙 위치에 둔 것이 특색이다. 이 점에 대하여 『화성성역의궤』에는 "옛 제도에는 문 하나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하나씩 설치했는데, 이제는 사방으로 열리고 뚫린다는 뜻을 따서 한가운데 문을 내어 정문과 마주하게 하였다."고 설명해 놓았다. 북옹성 홍예문 상부에는 오성지五星池라고 불리는 구멍이 5개 뚫린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적이 성문에 불을 질러 파괴하는 공격에 대비하여 이 구멍으로 물을 쏟아 부어 성문을 보호하고 적의 공격

4_ 양상도회는 지붕의 용마루에 암막새를 쌓고 그 겉에 회를 발라 마감한 것을 말한다. 현재는 양성마루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지만, 『화성성역의궤』에서는 양상도회라 표현하고 있다.



장안문

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다른 성에서는 볼 수 없다. 이 밖에도 옹성 바깥쪽에는 현안懸眼 16개를 뚫었고, 안쪽에는 벽돌로 된 누조 8개를 설치하였다.

장안문의 좌우 53보 되는 곳에는 적대敵臺가 하나씩 있는데, 이른바 북성적대北城敵臺이다. 옛 제도에는 70보 되는 곳에 1대臺를 세우고, 활·화살·화창을 대 위에 갖추어 둔다고 하였다. 이 2개의 적대는 1795년(정조 19) 2월 28일에 완공된 것인데, 높은 위치 가장자리에서 적을 좌우로 살피면서 공격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적대의 외면 아래는 26자로 넓고, 위로 갈수록 넓이가 줄어들어 21자가 되었다. 현안은 3곳에 설치하였는데, 이는 성 밑을 살피거나 성벽에 가까이 다가선 적에게 뜨거운 물이나 기름을 부어 공격하도록 한 시설이다. 윗부분에는 벽돌로 3면 11첩의 여장女墻을 둘러쳤고 총안을 뚫었다.

팔달문



2) 팔달문八達門

화성의 남문인 팔달문은 행궁의 오른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500보 되는 곳에 자좌오향子坐午向으로 앉았다. 1794년(정조 18) 2월 28일 진시부터 터닦기 공사가 시작되어 8월 25일 진시에 상량하고, 9월 15일에 문루가 완공되었다. 편액은 전 참판 조윤형曺允亨이 썼다. 장안문의 반대 방향으로 남향하여 건립된 팔달문은 모든 규모나 형태가 장안문과 동일하다.

반원형 외성인 남옹성南甕城은 1795년(정조 19) 4월 21일에 착공하여 5월 12일 홍예가 이루어지고, 5월 20일에 완공되었다. 이 옹성 내외 홍예는 모두 벽돌을 사용했고 현안 12개를 설치하였다. 옹성 위 좌우에는 여장이 각각 9첩이 있으며, 나머지는 북옹성의 제도와 같다.

문 좌우에 설치된 남성적대南城敵臺 역시 1795년(정조 19) 2월 28일에 완공되었고, 바깥쪽에 현안 2곳을 설치하였다. 나머지는 북성적대와 같다.

3) 창룡문蒼龍門

화성의 동문인 창룡문은 행궁에서 동북쪽으로 1,040보 떨어진 곳에 유좌묘향酉坐卯向으로 시설되었다. 장안문과 비교하여 문의 규모도 작고, 형태도 간략한 편이다.



창룡문

1795년(정조 19) 5월 8일 묘시에 터닦기 공사에 착수하여 9월 11일에 홍예가 이루어지고, 27일 묘시에 상량했으며, 10월 17일에 문루가 완공되었다. 편액은 판부사 유언호兪彦鎬가 쓴 것이다.

석축의 안팎으로 홍예를 설치하였으며, 두 대문은 철엽으로 싸고 쇠빗장을 설치하였다. 홍예개판 위에는 3치 두께의 삼물을 발라 마감했다. 여장 안에 있는 누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에 내외삼포內外三包 이익공二翼工 구조이다. 단청은 3토를 사용하였으며, 양상도회하였다. 수문청은 3칸이며, 문안 북쪽 변에 지었다.

벽돌로 쌓은 동옹성東甕城은 1796년(정조 20) 8월 6일에 착수하여, 그달 14일에 완공되었다. 옹성과 성문의 좌측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문을 설치하지 않아서 형태상으로 서울 홍인지문 옹성의 제도와 같다. 옹성 안쪽에 벽돌 누조 4개를 설치했으며, 바깥쪽에 현안 3개를 뚫었다. 여기에 여장 4첩을 설치하고, 원근총안遠近銃眼 14개를 설치하였다. 옹성의 뒤는 회다짐을 하였고, 그 남쪽 가장자리에 돌층계를 설치하여 위로 원성元城과 통하게 하였다.

4) 화서문華西門

화서문은 행궁에서 서북쪽으로 460보 떨어져 있는 곳에 묘좌유향卯坐酉向으로 지어졌다. 1795년(정조 19) 7월 21일 묘시에 터닦기 공사에 착수하여 11월 13일 홍예가 이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전경

루어졌다. 그해 11월 18일 묘시에 정초입주定礎立柱하였으며, 12월 11일 묘시에 상량하고, 이듬해인 1796년(정조 20) 1월 8일에 문루가 완공되었다. 편액은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썼다.

화서문의 홍예나 문루의 제도는 창룡문과 같다. 다만 성벽의 일부가 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형에 맞추어 성을 쌓은 결과이다. 수문청守門廳은 문안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건물이며, 이익공 5량 구조의 팔작지붕에 겹처마집이다. 서옹성西甕城의 제도는 동옹성과 같으나, 안팎 모두 평여장平女墻을 설치한 점과 바깥쪽에 방안총혈 19개, 사혈射穴 6개를 설치한 점이 다르다.

3. 암문暗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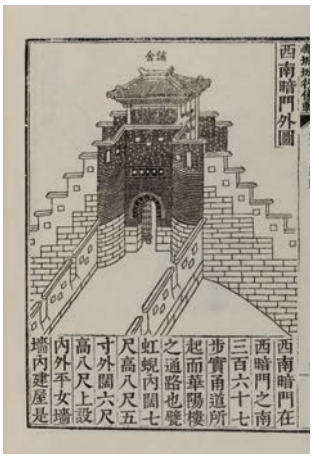
암문은 성곽의 깊숙하고 후미진 곳에 적이 알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내어 사람이나 가축이 통과하고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문이다. 성에는 북암문·동암문·서암문·서남암문·남암문 등 5개의 암문이 설치되어 있다. 각 암문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지형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형상을 달리하였다.



동암문도



남암문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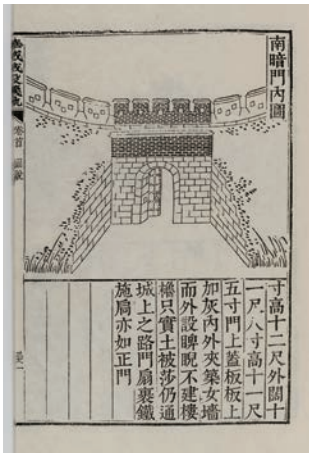
서남암문외도



서암문외도



북암문도



남암문내도



서남암문내도



서암문내도

1) 남암문南暗門

남암문은 팔달문 동쪽 79보 3자 되는 곳에 있고, 남쪽을 향하여 약간 후미진 곳에 있었다. 곧 팔달문과 남수문 터의 중간에 위치해 있던 남암문은 그 지역이 시가지가 되면서 인멸湮滅되어 버렸다. 1795년(정조 19) 2월 23일에 홍예가 이루어졌다. 성벽에 돌로 홍예를 쌓고 그 위에는 여장을 쌓아 문을 막으면 통로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의 제도는 정문과 같이 하였으나 약간 작으며 쇠빗장을 설치하였다. 성 밖에는 낮은 담만 설치하고, 누는 세우지 않았다.


동암문


북암문


서남암문


서암문

2) 동암문東暗門

동암문은 동장대에서 서쪽으로 166보 되는 곳인 동북포루와 동장대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암문이다. 1796년(정조 20) 3월 25일에 홍예가 이루어졌다. 성벽은 안쪽으로 굽어져 들어가 북암문과 같은 형태이다. 홍예는 성의 내외에 축조되었으며, 그 중간에는 홍예개판虹霓蓋板을 장대석으로 건너질렀다. 안쪽 넓이는 7자에 높이는 8자이고, 바깥은 너비가 6자에 높이가 7자 5치이다. 문 위는 반원형의 둥근 벽체를 가운데 두고 좌우에 수직으로 막대를 세운 듯한 형상을 갖춘 비예를 축조하였다. 오성지와 1개의 원여장圓女墻을 설치하였다.

3) 북암문北暗門

북암문은 동북각루에서 서쪽으로 40보 되는 곳인 방화수류정 남측의 약간 골짜기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성 밖에서는 좀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다. 1796년(정조 20) 3월 27일에 홍예가 이루어졌다. 벽돌로 쌓은 성벽 사이에 있으며, 안과 밖의 홍예 역시 벽돌로 쌓았다. 안쪽은 너비가 4자 5치에 높이가 6자 5치이고, 바깥쪽은 너비가 4자에 높이가 6자이다. 홍예문 위에는 둥근 여장을 설치했는데, 그 제도는 동암문과 같다.

4) 서암문西暗門

서암문은 서장대의 남쪽 44보 되는 곳, 즉 남쪽 팔달산 남쪽 기슭의 사이에 위치해 있다. 1796년(정조 20) 6월 18일에 홍예가 이루어졌다. 성 내의 지반은 높고 성 외는 낮아 성 내에서 계단으로 내려가 홍예문을 통해 성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서암문

은 지형상 북암문·동암문처럼 암문을 설치하기 곤란하여 옆으로 틀어 앉혀서 멀리서는 암문의 위치를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벽돌로 홍예를 틀었으며, 안팎에다 평평한 여장을 설치하였다.

5) 서남암문西南暗門

서암문의 남쪽 367보 되는 곳에 위치한 서남암문은 서남각루西南角樓(화양루)로 나가는 암문으로서 유일하게 암문 위에 포사舖舍 1칸을 세우고 있다. 1796년(정조 20) 8월 6일에 홍예가 이루어졌다. 서남암문이 있는 곳은 팔달산의 한쪽 높은 곳으로 성의 서남 방향 조망이 좋은 곳에 적을 감시하는 포사를 특별히 설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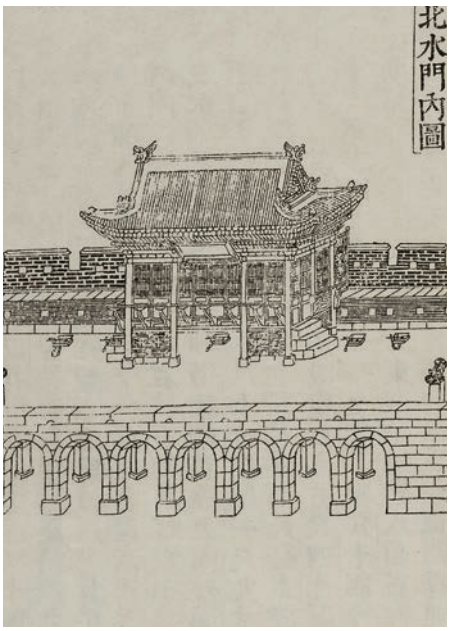
4. 수문水門

수원 지역에는 두 개의 하천이 있다. 하나는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연무동을 거쳐 화성 내를 관통하는 수원천으로 유천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유천이 성으로 유입되는 곳과 나가는 곳에 북수문北水門과 남수문南水門이 설치되었다. 수원에 있는 또 다른 물줄기는 역시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괴목정교槐木亭橋 아래로 흘러나온 물줄기와 진목천眞木川의 물줄기가 정자동에서 만나 이루어진 영화천迎華川이다. 수원천과 영화천 두 개의 물줄기를 따라 수원에는 몇 개의 연못이 조성되었는데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에서 내려다보이는 용연龍淵을 비롯하여 상·하 남지南池와 북지北池, 상·하 동지東池의 여러 연못이 그것이다.

1) 북수문北水門

화홍문華虹門이라고 불리는 북수문은 장안문의 동쪽 방화수류정의 서쪽 44보 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북수문은 그 위치가 용연龍淵이라는 연못이 있는 곳이고, 동북각루가 놓여 있는 등 비교적 경관이 아름다운 곳인 까닭에 남수문에 비하여 장대하게 꾸며졌다. 1794년(정조 18) 2월 28일 진시에 터닦기 공사를 착수하여 8월 3일에 화홍문의 홍예가 이루어지고, 이듬해 1795년(정조 19) 1월 13일 문루가 준공되었다. 편액은 유한지兪漢芝가 썼다.





북수문(화홍문) 안쪽 전경과 북수문내도

광교천光敎川이 성 전체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어 성 안 민인들은 여름철 장마 때마다 심한 물난리를 겪었으므로 성역 때 먼저 물길을 파서 넓히는 한편, 7칸의 홍예석교虹蜺石橋를 마련하였다. 홍예 하단 지대석이나 돌기둥 중에 물살과 마주치는 것은 모두 마름모꼴로 면을 다듬어 물살이 좌우로 갈라지게 하였다. 성문 홍예는 앞뒤 보이는 곳에만 아치를 틀고 안쪽은 좌우 수직 벽을 쌓았는데, 수문의 홍예는 아치가 앞뒤로 연결된 서양식 볼트(vault) 구조를 하고 있다. 홍예에는 각각 쇠살문을 달아서 평상시에는 수문을 열어 물이 잘 흐르게 하고, 유사시에는 홍예를 통해서 적이 성 안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5]

북수문 위에는 '화홍문'이라는 누각이 세워져 있다. 누각은 전면 3칸에 측면 2칸의 누마루 형식으로 초익공初翼工의 5량 겹처마집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양상도회하였다. 누각의 4면에는 분합을 달았는데, 동·서·남 3면에는 분합 주변에 연잎을 새긴 난간을 붙였으며, 북쪽 분합 밖으로 물려 깐 널 위에는 전붕戰棚을 설치하고 짐승의 얼굴을 그린 판문에 전총안箭銃眼을 뚫어 놓았다. 단청은 녹색을 바탕으로 하고 진채眞彩는 사용하지 않았다.

누각을 갖춘 북수문은 홍예에서 쏟아지는 장쾌한 물보라와 주위 환경이 잘 어우러져 수원팔경의 하나로 '화홍관창華虹觀漲'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놓았다. 홍예문 위로는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여장을 쌓고 여러 개의 총안을 뚫어

5_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 수원성』, 발언, 1993, 187쪽.

놓았다. 바깥쪽 장대 위에는 누조漏槽 7개를 설치하였으며, 아래에는 방안대포혈方眼大砲穴 8개를, 위에는 소포혈小砲穴 14개를 뚫어 놓았다. 안쪽에는 장대만을 두고 누혈漏穴 6개를 뚫었으며, 동서 양끝에는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무기를 새겼다.

이곳은 성 안에서 가장 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방화수류정·용지의 아름다움과 잘 어우러져 국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던 곳이다. 북수문의 누각은 평상시에는 수문·교량으로서, 비상시에는 군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안과 포혈을 갖추어 설계된 실용성과 아름다운 외관이 잘 조화를 이룬 화성의 대표적인 시설물의 하나이다.

2) 남수문南水門

화성을 흐르는 물은 용연에서 한 번 휘돌아 가면서 물살을 죽이게 되는데, 이 물길 이름은 대천大川이다. 여기서 북수문을 지나 800~900보를 천천히 흘러 남수문을 통해 구천龜川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용의 연못에서 시작한 물이 성을 빠져 나가 거북의 내로 바뀌는 것이다. 북수문에는 7개의 홍예문을 내고, 성 안을 통과하면서 물길이 넓어져 남수문에는 9개의 홍예문을 내었다.

남수문은 구천 위에 위치하여 교량과 수문의 역할을 하고, 비상시에는 군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1794년(정조 18) 2월 28일 진시에 터닦기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듬해 11월에 공사를 재개한 끝에 1796년(정조 20) 1월 16일에 홍예가 이루어졌다.

이 수문은 화홍문과 마주서서 물줄기의 흐름을 인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석축으로 9칸의 홍예를 틀고 철전鐵箭을 설치하여 잠가 두는 것이 화홍문의 제도와 같았다. 남수문은 9개의 홍예문 위에 통로를 만들고 여장을 높이 쌓았는데, 돌기둥 8개가 돌다리를 떠받들고 있다. 특히 남수문에는 장포長舖라고 하는 전돌로 만든 긴 포를 설치했는데, 길이는 수문의 다리와 같고 폭은 다리의 3분의 2로 하여, 이 포 안에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이곳에는 밖으로 3층 포혈 57개를 설치하여 군사시설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안쪽에는 홍예로 된 3개의 소문을 설치하였다. 포의 꼭대기는 벽돌을 깔아 길을 만들고, 바깥쪽으로는 홍예의 머리에 맞도록 대원벽여장大圓甓女墻과 방여장方女墻을 교대로 쌓았다.

준천濬川(도랑 치는 일, 준설浚渫)은 화홍문 밖 500~600보 지점에서 인도하기 시작하여 서쪽으로 휘어 돌아 용연으로 직류直流하는 걱정을 덜게 하였다. 이곳에서부터 냇물이 넓어지고 평평하게 된다. 이 두 수문 사이에 놓여 있는 다리를 오교午橋라고 하였다.

매년 여름 장마가 걷히면 반드시 도랑을 쳐서 소통시키는 것을 연중행사로 삼았다.

3) 남은구南隱溝와 북은구北隱溝

이곳에는 수문 외에도 성 내의 물 흐름을 조절·관리하는 시설로 남은구와 북은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 은구는 가느다란 물줄기를 설치하여 성 안의 물을 빼내는 장치이다. 남은구는 남서적대南西敵臺의 서쪽 40보 1자 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원성元城을 쌓을 자리에 벽돌을 깔고 위에 짧은 돌기둥을 세 줄로 세워 4개의 도랑을 만들었다. 그 안에 은주隱柱를 엇비슷이 교차시켜 설치하여 겨우 가는 물줄기를 통하게 하여 성 내의 물을 빼내는 구실을 한다. 상남지, 하남지가 모두 그 안에 있다. 도랑 위에 돌을 얹어 성을 쌓고 안은 토탁土托으로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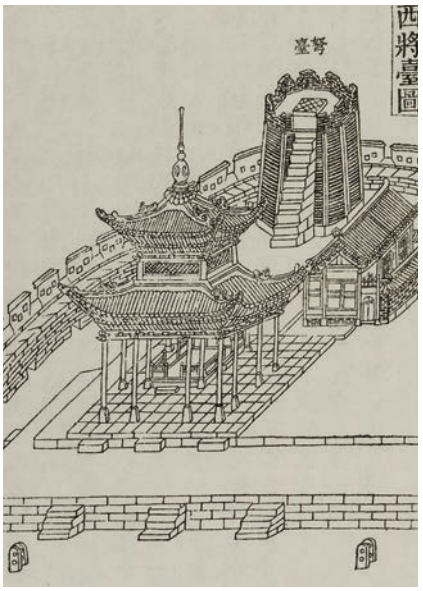
북은구는 북서포루北西砲樓의 서쪽 90보 지점에 있다. 그 제도는 남은구와 같고, 기둥 둘에 도랑 세 개로 되어 있다.

4) 남지南池, 북지北池, 동지東池

팔달문 안 상·하에는 두 개의 남지가 있다. 상남지上南池는 1794년(정조 18) 3월 14일 굴착공사에 착수하여 4월 1일에 완공하였다. 남창南倉의 남쪽에 있는 상남지는 넓이 40보(47.5m)에 깊이 6자(1.86m)이고, 연못 가운데에 섬이 있으며, 홍련紅蓮과 백련白蓮을 심었다. 하남지下南池는 1796년(정조 20) 7월 7일 굴착공사에 착수하여 7월 27일에 공사를 마쳤다. 너비는 40보(47.5m), 길이 60보(71.28m), 깊이 7자(2.17m)의 규모를 갖추었고, 가운데에 섬돌이 있으며, 두 못 사이에 정자 터가 있다.

북지는 북은구 안에 있으며, 성 밖의 도랑물을 끌어 대도록 되어 있다. 1794년(정조 18) 3월 16일 굴착공사에 착수하여 그해 4월 4일에 공사를 마쳤다. 못의 길이는 30보(35.64m), 깊이는 5자(약 1.55m)이다.

한편 동지는 상·하의 두 곳이 있다. 상동지上東池는 매향동 어귀에 위치해 있는데, 1795년(정조 19) 9월 14일 굴착공사에 착수하여 9월 23일에 공사를 마쳤다. 남북 길이 58보(68.9m), 동서 넓이 50보(59.4m), 깊이 7자(2.17m)이다. 기하芰荷(마름과 연蓮)를 심었고, 가운데에 작은 섬이 있다. 하동지下東池는 구천의 북쪽에 있는데, 1794년(정조 18) 4월 7일에 굴착공사에 착수하여 4월 21일에 공사를 끝냈다. 못의 길이는 사방 37보(4.4m), 깊이 4자(1.24m)이다.





서장대도와 서장대 전경

5. 장대將臺

장대는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거나 성 안팎을 관망하는 곳으로, 지대가 높은 곳이나 군사들을 모아 놓고 지휘하기에 좋은 곳에 세워졌다. 화성에는 두 곳의 장대가 있는데 서장대는 팔달산 꼭대기에 있어서 성 안을 내려다보는 역할을 하고, 동장대는 동쪽 넓은 곳에 위치해서 군사를 훈련시키는 연병장 구실을 했다.[6]

1) 서장대西將臺

팔달산 정상에 유좌묘향酉坐卯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서장대는 1794년(정조 18) 8월 11일 묘시에 터닦기 공사에 착수, 9월 16일 진시에 상량하고, 9월 29일에 완공되었다. 「화성장대華城將臺」란 편액은 혜경궁의 회갑연을 치른 을묘년 행차 때 이 건물에서 치러진 장대한 성조식城操式을 기념하여 정조가 친히 쓴 것이다. 이 현판은 20세기 초에 사라져 버리고 건물도 크게 퇴락한 것을 후에 새로 고쳐 지으면서 현판도 새로 달았다.[7] 이후 2006년 화재로 전소된 것을 같은 해에 복원하였다.

이곳은 성의 안팎이 모두 한눈에 들어와 화성 일대는 물론, 팔달산을 둘러싸고 있는 백 리 안쪽의 모든 동정을 파악하고 앉은 자리에서 변을 제어할 만한 위치이다. 화성의 총지휘소인 이곳에는 장대석으로 대를 쌓고 세 벌의 계단을 마련한 위에 또

6_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100쪽.
7_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120쪽.

한 단의 대를 놓고 그 위에 2층 지붕의 건물을 세웠다. 이 건물은 남한산성의 수어장대守禦將臺와 같이 하층을 개방하고 하층 일부에 마루를 놓았다. 서장대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중층 누각으로서 상층은 정면과 측면이 각각 1칸의 모임지붕으로 되어 있다. 가운데 1칸의 규모는 13자 2치이며, 밑에는 판자를 깔고 하엽평난荷葉平欄으로 둘렀으며 뒤쪽에는 분합을 드리웠다. 퇴칸의 규모는 6자 5치이며, 위층은 4면에 교창交窓을 내고 층사다리를 내어 통하게 하였다.

서장대의 뒤편에는 8면의 노대弩臺(서노대)를 세웠다. 또한 현재는 복원이 안 되었으나 후당後堂 3칸을 지었다. 이 건물은 이른바 군무의 필요에 응하는 곳이다. 서쪽 2칸은 온돌이고, 동쪽 1칸은 판자를 깔았다. 모두 창과 분합을 설치하고 단청을 하였다.

2) 동장대東將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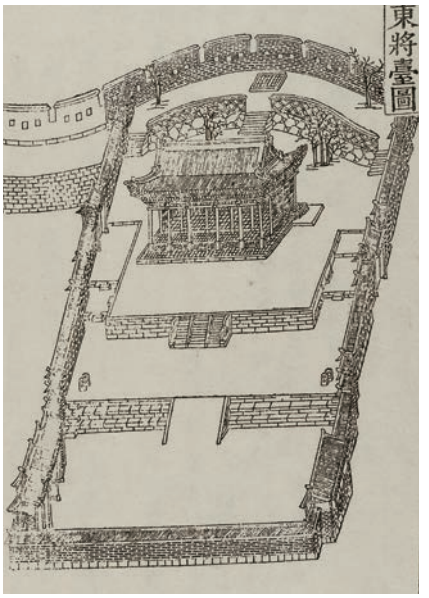
동장대는 성의 동쪽 동북공심돈과 동암문 사이에 위치하여 건좌손향乾坐巽向으로 앉아 있다. 1795년(정조 19) 7월 15일 묘시에 터닦기 공사에 착수하여, 8월 10일 신시申時에 상량하고, 8월 25일에 장대 건물을 완공하였다. 이 장대는 지형상 높은 곳은 아니지만 사방이 트여 있고, 등성이가 험하게 높이 솟아 있는 곳으로 동쪽 구릉인 일명 선암산仙巖山의 요지이자 성중에서 지휘소를 설치할 만한 요충지로 대장이 먼저 점거할 만한 땅이다. 동장대 주변에는 탁 트인 넓은 공터가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 벌어지는 큰 행사를 이곳에서 자주 치렀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호궤犒饋 행사였다. 호궤란 주로 군인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베푸는 행사로서 화성에서는 축성 공사를 하면서 열한 차례에 걸쳐 감독관이나 장인들 및 일꾼들에게 호궤를 크게 베풀었는데, 그중 여섯 번을 이곳 동장대에서 치렀다.[8] 동장대 앞은 지금은 수원시 내의 대표적인 활터로 쓰이고 있다.

동장대는 평상시 군사들을 훈련하고 지휘하는 장대이다. 경사진 지면을 따라 3단으로 나누어 대를 쌓아 총수가 숨어서 쏘기에 편리하게 되었다. 대의 넓이는 134자이고, 하대下臺의 전면은 잡석으로 쌓고, 이어서 짧은 담을 둘러쳤다. 전체 높이는 12자이고, 중대는 돌로 쌓았는데 높이가 7자 5치이다. 그 높이를 반으로 하여 4자쯤 물려 또 한 층을 쌓아 총수가 숨어서 쏘기 편하게 하였다. 또한 한가운데 좌우에는 와장대臥長臺를 설치하였는데, 흙을 판판하게 하고 바닥을 돌로 깔아 하대에서 말을 타고도 장대에 올라갈 수 있게 하였다.

장대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익공식 단층 팔작지붕이다. 건물 바닥은 한 칸씩 뒤로 가면서 높아지도록 하였는데, 제일 앞 칸은 전돌을 깐 바닥이고, 가운데 칸

8_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122쪽.





동장대와 동장대도

은 마루를 깔았다. 제일 뒤쪽 칸 역시 마루인데, 바닥을 가운데보다 한 단을 높이고 주변에 난간을 설치하였다. 동장대 동북쪽 처마 밑 모서리에 따로 작은 대를 하나 설치했는데, 이곳은 장수가 활을 쏘는 사대射臺이다. 또 동장대 바로 뒤에는 성벽과 건물 사이에 낮은 담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성벽 가까이에 머무는 군사들과 장대건물 사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담장은 하단을 문석대紋石臺, 상단을 영롱장玲瓏墻이라고 부르는데, 모두 독특한 문양의 의장을 갖추었다.[9] 건물 주변에는 터를 넓게 잡아 동서 180보, 남북 240보 규모의 조련장操鍊場을 닦았다.

정문은 소슬삼문으로 동쪽에 마루방 1칸을 낮게 달아 지었다. 정면 4칸, 측면 1칸의 단층 소슬대문이 설치된 우행각右行閣은 3량樑 초익공 겹처마로 부연을 달고 있다. 좌행각左行閣인 부속사附屬舍는 창고로서 정면 4칸, 측면 1칸의 단층 3량 집이다.

동장대 부근에도 역시 노대를 두었는데, 이 노대는 치雉 위에 전돌로 대를 높이 쌓은 것으로 성벽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

6. 노대弩臺

장대 옆에는 노대를 두었는데, 이곳에서는 성 밖의 동향을 살펴보다가 군사명령에 따라 특정한 색깔의 깃발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쇠뇌라는 큰 화살을 날리

9_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 수원성』, 발언, 1993, 161쪽.



서노대 전경

기도 하였다. 쇠뇌는 발사틀에 화살을 걸고 방아쇠를 당겨 활을 멀리 쏠 수 있게 한 병기의 하나로, 쇠뇌를 쏘는 군사를 노수弩手라고 한다. 명나라 병서 『무비지武備志』에 따르면 노대에 노수를 배치시켜 여기서 쇠뇌를 쏘게 하는데, 화성에서도 이 『무비지』를 본떠서 노대를 설치하고 쇠뇌를 마련하였다.[10] 또한 적이 동쪽에서 오면 청색 깃발, 남쪽에서 오면 적색 깃발, 서쪽에서 오면 백색 깃발, 북쪽에서 오면 흑색 깃발을 들고, 이미 왔던 적이 돌아가면 황색 깃발을 들었다.[11]

노대는 성 안에서 바깥의 움직임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면서 장수가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데, 화성의 경우 팔달산 정상인 서장대 뒤편에 서노대를, 창룡문 북쪽 동장대 근처에 동북노대를 세웠다.

1) 서노대西弩臺

서노대는 서장대의 뒤편인 서북쪽에 동향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정팔각형의 벽돌로 쌓은 높은 대이다. 『무비지』에 따르면 "노대는 위는 좁고 아래는 넓어야 하며, 대 위에 집을 짓되 모양은 전붕戰棚과 같이 하고, 안에 노수가 머물던 곳이다."고 하였다. 그 제도를 본떠서 짓되 약간 달리하였는데, 집은 얹지 않고 대를 8면으로 하여 우뚝 서 있게 지었다. 상부 주위에는 여장을 둘러 설치하고, 타구와 총안을 두었으며, 계단 부분은 트이게 하였다. 1971년에 보수하였다.

2) 동북노대東北弩臺

동북노대는 창룡문과 동북공심돈의 중간(창룡문 북쪽 96보의 거리)에 동북향하여 자리 잡고 있다. 1796년(정조 20) 4월 14일에 완공되었다. 이 노대는 서노대와는 달리 성벽 밖으로 돌출된 치성을 쌓고 그 위에 벽돌로 대를 쌓아 올렸는데, 이는 지형조건에 따라 각기 형태를 달리한 것이다. 대 아래의 석축 높이는 13자, 대의 높이는 18자

10_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100쪽.
11_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 수원성』, 발언, 1993, 158쪽.

이다. 벽돌로 쌓은 방식은 사각형이지만 모서리를 깎아 벌의 허리처럼 만들어서 모를 죽였다. 현안 2개를 뚫었으며, 위에는 방안方眼 3혈을 갖춘 둥근 여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타구마다 좌우에 여장을 설치하였다.

7. 공심돈空心墩

돈墩이라는 것은 망을 본다는 뜻의 후侯자를 함께 써서 돈후墩候라고 해서 성곽에서 멀리 떨어진 요충지에 독립된 망루를 설치한 것이다. 돈대에는 항시 소수의 군사가 머물면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다른 돈대와 통신을 해서 본성에 위급한 상황을 미리 알리도록 하였다. 공심돈은 돈대의 내부를 개조해서 사람이 내부에 들어가 주변을 살피고 적의 공격에 응전할 수 있도록 꾸며진 것이다. 돈대는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군사들이 대 위에 올라가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고안된 것이 공심돈이다.[12]

돈은 성곽 주위와 비상시에 적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망루와 같은 것으로, 이미 남한산성과 강화도의 해안 주변에 설치한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성제상으로 돈의 내부가 비어 있도록 설계한 것은 화성이 처음이며[13] 유일무이하게 조성된 건물이다.

중국의 병서인 『성서城書』에서는 공심돈을 "벽돌로 3면에 섬돌을 쌓고 그 가운데를 비워 둔다. 가운데를 2층으로 구분하여 널빤지로 누樓를 만들고 나무사다리를 이용하여 위아래에 공안空眼을 많이 뚫어서 바깥의 동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불랑기佛狼機, 백자총百子銃들을 발사하여도 적으로서는 화살이나 총탄이 어느 곳에서 날아오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놓았다. 화성에는 돌로 쌓은 곳과 벽돌로 만든 공심돈이 3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서북공심돈·남공심돈·동북공심돈이 그것이다. 불랑기는 손으로 불씨를 점화시켜 발사하는 대포로, 연속 점화가 가능하다는 우수성 덕분에 조선 후기에 주로 활용된 대표적인 화포이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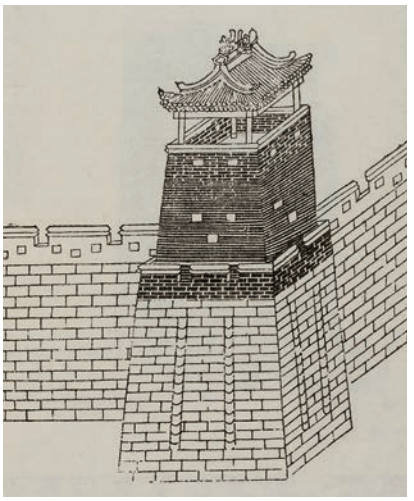
1) 서북공심돈西北空心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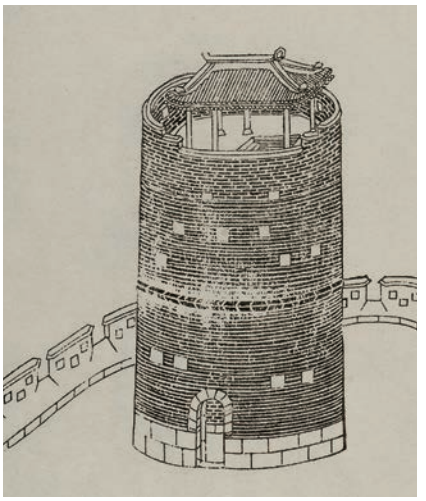
서북공심돈은 화서문 북치北雉 위에 위치해 있다. 1796년(정조 20) 3월 10일에 완공된 서북공심돈은 성벽과 벽돌로 쌓은 부분 및 누각 모두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왔다.

치雉의 높이는 15자(4.25m)이며 서북 2면에 각각 현안 두 구멍을 내었고, 그 위에

12_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 수원성』, 발언, 1993, 151~152쪽.
13_ 김동욱, 「수원성과 화성행궁」, 『수원문화』 11, 1992, 35쪽.
14_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101쪽.


서북공심돈도


남공심돈도


동북공심돈도


서북공심돈


동북공심돈

벽돌을 사용하여 네모지게 높이 쌓아서 그 속을 비게 하였다. 벽축甓築의 높이는 18자 이고, 아래의 넓이는 사방 23자, 위의 줄어든 넓이는 사방 21자이다. 내부는 3층으로 꾸며 2층과 3층 부분은 마루를 깔았고, 사다리를 놓아 위아래로 통하게 하였다. 돈대의 꼭대기에는 포사舖舍를 지었으며, 돈대 외벽에는 총안·포혈砲穴 등을, 상층의 벽면 위쪽 판문板門마다 각각 전안箭眼을 뚫었다.

아래층 안쪽에는 벽돌로 홍예를 튼 작은 문을 내어 출입하도록 하였다. 공심돈의 성벽 높이는 약 5m이고, 전돌 부분은 성 위에서 5.14m, 처마 높이는 성 위에서 도리 밑까지 6.27m이다.

2) 남공심돈南空心墩

남공심돈은 남암문의 동치東雉 위에 위치해 있으며, 1795년(정조 19) 10월 18일에 완공되었다. 성제는 서북공심돈과 같으나 그 규모는 약간 작다. 치의 동·남 두 면에 각각 현안 둘을 내었고, 위에 평여장을 설치하였다. 각 면마다 2개의 총안을 뚫었으며, 장내墻內 3면에는 각각 1자가량의 공간을 두어 군사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한가운데 돈을 벽돌로 쌓고 그 가운데는 비워 두었다. 아래 넓이는 사방 10자이고, 벽돌 내부 3층의 전체 높이는 16자 5치다. 벽여장甓女墻 안에 1칸 건물을 지었으며, 판문은 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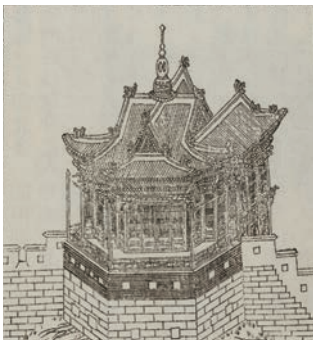
3) 동북공심돈東北空心墩

동북공심돈은 동장대의 동쪽, 동북노대의 서쪽으로 60보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동북공심돈은 성벽 안쪽에 약간 떨어져서 따로 세워서 본래 돈후의 형태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큰 동심원 형태로 화성 성곽 내에서 가장 특징 있는 건물의 하나이다. 성탁城托의 위 여장 안에는 중국 요동遼東에 있는 계평돈薊平墩을 본떠서 벽축으로 둥그렇게 돈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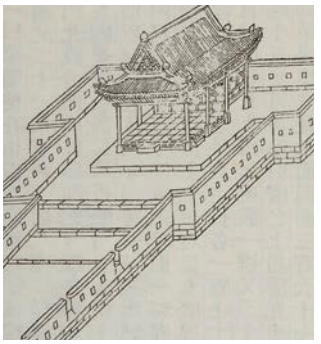
높이 17자 5치, 바깥 원둘레 122자(38m), 벽의 두께 4자(1.24m), 안쪽 원둘레는 71자(22m)이며, 내원內圓과 외원外圓 사이는 4자 5치(1.39m)의 공간을 비워 두고, 내부에 나선형의 계단을 설치하였다. 아래층 공심에서 나선형의 벽돌 계단을 거쳐 위층에 이르는 이 건물은 나선형 계단형 때문에 '소라각'이라고도 불렸다.

각 층의 3면에는 상하 2단으로 총안 40개(상혈上穴 26개, 하혈下穴 14개)와 포혈 23개를 뚫었고, 특히 중층에는 열쇠구멍 모양의 전안箭眼을, 상층의 평여장 밑에는 배수를 위한 6개의 누혈漏穴을 뚫었다. 벽에 40개에 이르는 총안을 뚫어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내부에 빛이 스며들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이다.

목조로 이루어진 상층의 누각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규모이며, 지붕은 우진각지붕으로 3량 구조에, 처마는 홑처마이다. 하층 안쪽에 벽돌로 작은 홍예문을 설치했고, 문 동쪽에는 공심空心을 막아서 온돌방 1칸을 들여 군사들의 숙직처로 삼았는데, 총안을 창으로 삼아 밝은 광선을 이용하여 군사들이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온돌방의 불아궁이는 공심돈의 출입구 안쪽에 있으며, 굴뚝은 벽에 구멍을 뚫어 연기가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돈대의 벽 중간에는 열쇠구멍 모양의 전안을 뚫었는데, 이곳으로 내부의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게 한 것도 특징이다.


서북각루도


서남각루도


동남각루도


동북각루도


서북각루


서남각루


동남각루


동북각루

8. 각루角樓

각루는 성곽 부분 가운데 높은 구릉을 택하여 누각 모양의 건물을 세워 사방을 감시하고, 때로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정자처럼 다기능적인 성격을 지닌 건물이다. 화성에는 4곳의 각루가 있는데, 동북각루·서북각루·서남각루·동남각루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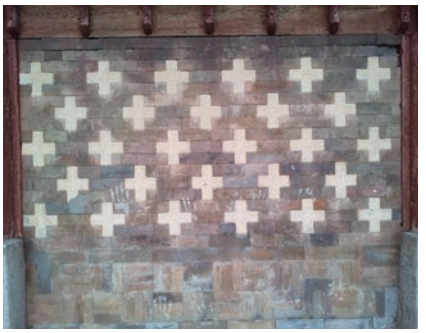
1) 동북각루東北角樓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이라고도 불리는 동북각루는 북수문의 동쪽 구릉 정상에 위치하여 용연을 바라보고 있으며, 성벽도 돌출된 위치에 있어 동북 및 서북쪽의 전망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1794년(정조 18) 9월 4일 진시에 터닦기 공사에 착수하여, 10월 7일 오시午時(12시)에 상량했으며, 10월 19일에 완공되었다. 누각에는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이란 현판이 걸려 있는데, 전 참판 조윤형이 쓴 것이다.[15]

동북각루는 그 형태가 불규칙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주위의 자연경관과도 아름답게 어울리며, 목조건물에 돌과 벽돌 재료를 적절히 사용하여 세 가지 재료가 잘 어우러지도록 한 조선시대 정자 건물의 높은 수준을 보여 주는 걸작 가운데 하나이다.

15_ 지금의 글씨는 원곡(原谷) 김기승(金基昇)이 쓴 것이다.





左 **방화수류정 전경**

右 **방화수류정의 벽체석연**

북수문인 화홍문에서 동쪽으로 경사져 올라간 위치인데다가 아래쪽으로는 용연이 내려다보이는 곳의 성벽에 절묘하게 대어서 용두龍頭라는 바위 위에 누각을 세운 것이다.

건물은 2층 구조이며, 상층은 사방이 트인 누각이고 성곽 위로 툇마루를 달아 내고 난간을 설치하였다. 북측면은 8각형을 이루고 남측면은 ㄱ자형 평면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팔작지붕의 꺾이고 펼쳐지는 것이 여러 겹으로 전개되는 등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상층은 동서 3칸에서 가운데는 온돌을 놓고, 북쪽에 1칸을 붙이고 남쪽으로 반 칸을 물리었으며, 서쪽의 1칸은 또 길게 물리었다. 하층은 아래는 석축을, 그 위로 벽돌로 쌓았으며, 성 바깥쪽으로 총안을 뚫어 놓았다. 1층 서남측 1칸은 온돌방이고, 2층은 장마루를 깔고 교란交欄을 설치하였다. 2층 밖에는 전붕판문戰棚板門 16개를 달아 마치 병풍을 포개어 친 것 같다. 단청은 5토五土를 사용하였으며, 양상도회하였다.

이 건물의 외관을 살펴보면, 기단의 외곽 테두리는 돌로 만들고 내부를 벽돌로 채우거나 나무기둥 사이를 벽돌로 채워 벽체를 구성하는 '벽체석연甓砌石緣'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기단을 고안해 냈다.[16]

용연은 북성北城 밖에 있는데, 반달 모양이다. 둘레가 210보(249.48m), 깊이는 6자(1.81m)이고, 가운데 작은 섬이 있다. 못의 서쪽에 설치된 석각이두石刻螭頭로 물을 화홍문 밖으로 뿜어내게 하였다.

2) 서북각루西北角樓

서북각루는 화서문의 서남쪽 146보쯤 되는 산기슭에 성벽이 돌출되는 휘어 굽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은 1796년(정조 20) 7월 9일에 완공되었다. 현재의 누각은 인멸된 것을 복원한 것으로, 성 위에 정면 2칸, 측면 2칸으로 동북 3칸은 마루를 깔고 사면은 평난간으로 둘렀다. 4각 주춧돌 위에는 각 기둥을 세웠으며, 5량 납도리

16_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 수원성』, 발언, 1993, 205~209쪽.

홑처마의 팔작지붕이다. 위에는 판문을 설치했고, 내면에는 태극문양을, 외면에는 모두 짐승의 얼굴을 그렸으며, 전안을 뚫어 놓았다. 동남 1칸은 온돌을 설치하여 수직하는 군사가 있게 하였고, 서남 1칸은 비워서 층계를 설치하여 북쪽 누마루로 이어지게 하였다.

3) 서남각루西南角樓

서남각루는 일명 '화양루華陽樓'라고도 불리는데, 서장대와 팔달문의 중간지점 산기슭에 서남암문에서 용도甬道를 통하여 뻗어 나간 외성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다. 옛 제도에 따르면 "용도란 군량을 운반하고 매복을 서기 위하여 낸 길"을 말한다. 지금의 남쪽기슭 한 가닥은 성 밖으로 나와 별안간 높이 솟아 있어, 이곳을 지키지 못한다면 성의 허실이 모두 엿보이게 되므로, 비록 양식을 운반하는 길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곳이 된다.

즉 서남각루는 성 밖에 있는데, 이곳을 적에게 내주게 되면 성 안을 공격당할 수도 있어서 성벽에 서남암문을 만들고, 암문 밖으로 좁고 긴 통로(용도)를 만들어 그 끝에 각루를 세운 것이다.[17]

1796년(정조 20) 4월 16일 묘시에 터닦기 공사에 착수하여 7월 13일 묘시에 상량했으며, 7월 20일에 누각의 준공을 보았다. 새로 복원된 이 누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앞의 4칸은 바닥에 벽돌을 깔아 3면을 개방했고, 뒤의 2칸에는 누를 들여 판문과 분합을 설치하였다. 지붕은 3량 팔작지붕에 납도리를 썼다. 단청은 5토五土를 사용하였으며, 양상도회하였다.

산 위의 3면에 여장을 쌓아 북쪽 서남암문의 밖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암문에서 84보 되는 동쪽에 하나의 치성을 설치했고, 여기에서 10보가량 서쪽에도 치성을 두었다. 서남각루는 용도 끝에 위치하여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구실을 하였다.

4) 동남각루東南角樓

팔달문의 동쪽, 수원천 동안東岸의 높은 구릉 정상에 위치해 있으며, 성벽이 꺾인 모퉁이에 있어 조망이 좋다. 이 역시 새로 복원된 건물로서, 본래의 누각은 1796년(정조 20) 7월 25일에 준공되었다. 성벽이 산세 때문에 이곳에 이르러 가파르게 뚝 끊어져 누각이 성 위로 불쑥 나와서 멀리 평야를 조망하고 있다. 누각의 구조 또한 5량 4칸으로 높이와 넓이가 모두 서북각루와 같다. 다만 4칸에 모두 판자를 깔았으며, 서

17_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100쪽.

남 한 칸은 청판 아래에 온돌을 설치하였다. 납도리에 홑처마 집으로 지붕틀은 3량에 우진각지붕이다.

9. 치성雉城

치雉는 성벽 밖으로 돌출시켜 좌우 방향에서 접근하는 적병을 방어하기 위한 성제의 하나로, 꿩[雉]이 제 몸은 숨기고 밖을 엿보기를 잘하는 까닭에 이 모양에서 취한 것이다. 치는 성벽을 돌출시킨 것인데 높이는 성과 같이 하고, 긴 쪽의 너비가 대체로 3장쯤 되며, 바깥쪽으로는 현안 1개를 뚫었다. 그러나 그 둘레의 길고 짧음은 지세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는 까닭에 타垜를 따지고 보수步數를 계산하는 방법이 옛날의 제도에 기준할 수는 없다.

치성 위에 지은 집은 포루舖樓라고 하고, 성벽이 휘어 돌아가는 모퉁이의 돌출부에 세운 누각은 각루角樓라고 한다. 또 성문의 좌우에 배치한 치성으로 성문을 수호하기 위한 것을 적대敵臺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화성 성곽에서 순수한 치성은 모두 10개소에 이른다.

1) 서일치西一雉

서일치는 서북각루와 서포루西砲樓 사이(화서문 남쪽 216보 거리)에 있으며, 성벽과의 접속부와 모서리는 둥글게 석축으로 쌓았다. 돌출된 3면에는 여장을 두르고 원근총안을 각 면에 내고, 성벽 정면에는 현안을 두었다. 여장은 막돌로 쌓았으며, 옥개부에는 벽돌을 사용하였다.

2) 서이치西二雉

서이치는 서포루와 서장대 사이(서포루의 남쪽으로 104보 되는 거리)에 있으며, 둥글게 네 모퉁이를 쌓고 총안과 현안을 낸 것은 서일치와 같다.

3) 서삼치西三雉

서삼치는 서포루와 서남암문 사이(서포루의 남쪽으로 140보 되는 거리)에 있으며,





左 동일치와 봉돈

右 북이치

구조 및 규모는 서일치와 같다.

4) 용도치甬道雉

용도치는 서남각루로 나가는 외성 용도 중간 부분의 좌우에 있다. 화양루를 향하여 우측이 서남일치西南一雉이며, 좌측이 서남이치西南二雉이다. 용도치는 각각의 모서리가 직각으로 돌출되고, 여장은 막돌로 쌓고 옥개부는 벽돌로 덮었으며, 각 면에 총안을 내었다.

5) 동일치東一雉

동일치는 동일포루東一舖樓와 동포루東砲樓 사이(동일포루의 남쪽으로 125보 되는 거리)에 있으며, 성벽에 직교하여 돌출시키고, 돌출부 모서리도 직각으로 하였고, 그 외에는 서일치와 거의 동일하다.

6) 동이치東二雉

동이치는 동포루와 봉돈 사이(동포루의 남쪽으로 110보 되는 거리)에 있는데, 접속부 및 돌출부 모서리는 모두 둥글게 돌렸으며, 그 외에는 서일치와 같다.

7) 동삼치東三雉

동삼치는 동이포루東二舖樓와 동남각루 사이(동이포루의 남쪽으로 123보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치성의 폭이 다른 곳에 비해 크므로 현안을 정면에 두 군데 설치했고, 기타 구조는 서일치와 같다.

8) 남치南雉

남치는 남포루와 팔달문 사이에 있으며, 성벽의 접속부는 직교하고, 돌출부 모서리는 둥글게 돌렸다. 남치의 구조는 모두 서일치와 같다.

10. 적대敵臺

적대는 성문과 옹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성문의 좌우에 위치하는데, 그 구조와 기능은 치와 거의 같다. 화성에서는 장안문과 팔달문의 좌우에 각기 북동·북서·남동·남서 적대라고 불리는 4개의 적대가 있었으나, 팔달문 좌우의 적대는 시가지화와 더불어 인멸되어 버렸다.

1) 북동적대北東敵臺

북동적대는 장안문에서 동쪽으로 관통하는 도로 건너에 있다. 남측면에 돌계단 3단을 두고 사방에 벽돌로 여장을 둘렀다. 성벽의 정면에는 현안 3곳이 있다.

2) 북서적대北西敵臺

장안문의 서쪽으로 북동적대와 같은 모양으로 단절된 성벽에 위치해 있다. 여장은 북동적대와 마찬가지로 계단 입구를 제외한 4면에 둘러 있다. 출입구의 계단은 5단이며, 정면에 현안 3곳을 설치하였다.

11. 포루砲樓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의 성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제일 먼저 지적된 것이 성벽에 치성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어서 성벽의 보강책으로 제기된 것이 포루였다. 이 시설들은 17세기부터 진주성 등 지방의 읍성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런 과정을 거쳐 화성에서는 치성과 포루를 성벽 방어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여 그 설치에 힘을 쏟았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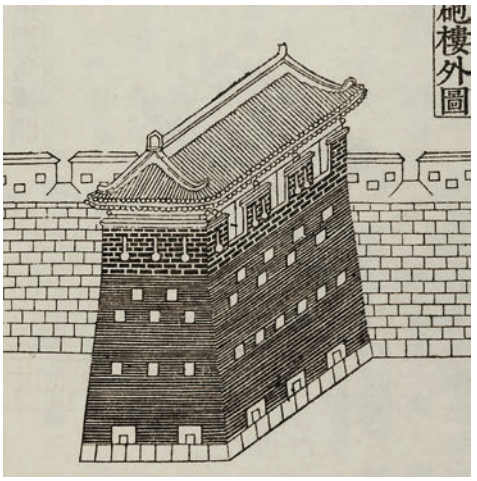
포루는 성벽의 일부를 외부에 돌출시켜 치성과 유사하게 건물을 배치하고, 3층의 내부를 공심돈과 같이 비워 그 안에 화포를 감추어 두었다가 위아래에서 한꺼번에 쏘아 외적을 공격하도록 만든 성제이다. 유성룡은 포루의 제일 아래쪽에 천지현자총을 설치하고 그 위에 등자총을 설치하고, 그 위에 누를 만들어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화성 안에는 5개소에 포루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북포루·동포루·북서포루·서포루·남포루가 그것이다.

포루의 구조적인 특징은 하부의 3~6단은 화강석의 석축을 쌓고 상부는 벽돌로 쌓았으며, 상층에는 목조의 건물을 세웠다. 모두 벽축을 사용했으며, 그 위에 작은 누각식의 건물을 올렸는데, 나무사다리를 대어서 아래쪽 공간으로 통하게 하였다. 아래 너비나 위의 줄어든 너비는 모두 옛날의 성제를 따랐다. 바깥쪽 아래 너비는 각각 24자, 위의 줄어든 너비는 20자이며, 좌우의 아래 너비는 각각 27자, 위의 줄어든 너비는 27자, 높이는 27자 5치, 3면 벽 두께는 6자이다. 벽면에는 지대에서부터 포루 벽면까지 대포혈석大砲穴石 8개, 총혈 15개, 총안 15개를 뚫어 놓았고, 포루의 판문에는 전안을 뚫어 놓았다. 누 위의 단청은 3토三土를 사용하였고, 양상도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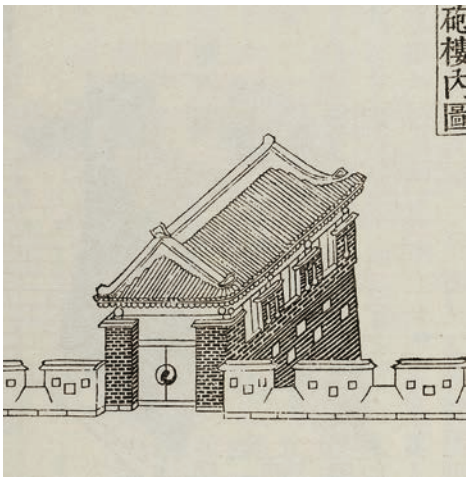
1) 동북포루東北砲樓

동북포루는 장안문과 화홍문(북수문)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본래의 성곽은 보존되어 있으나 누각은 인멸되어 새로 복원한 것이다. 본래의 누각은 1794년(정조 18) 9월 23일에 준공되었다. 포루는 정면 1칸, 측면 3칸의 2중층이며, 도리는 납도리이고 홑처마의 5량 구조이다. 성 외측은 우진각지붕이고 성 내측은 박공지붕으로 하였다. 계단은 하층의 중간에서 중층 및 상층의 곧은 계단으로 오르내리도록 했으며, 출입문 등은 북서포루와 비슷하다.

18_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 수원성』, 발언, 1993, 146쪽.



①



②



③

① 포루 외도

② 포루 내도

③ 동북포루

2) 동포루東砲樓

봉돈烽墩의 북쪽 229보 지점에 있으며, 성벽은 보존되었으나 많이 붕괴된 것을 새로 복원한 것이다. 원래의 동포루는 1796년(정조 20) 7월 16일에 준공되었다. 포루는 3중층으로 정면 1칸, 측면 3칸의 규모이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납도리에 5량 우진각지붕이다. 하층과 중층의 벽은 돌출부 3면을 벽돌로 쌓고, 성 내측면은 석축으로 했으며, 외부의 3면에 포혈과 총안을 두었다. 상층 여장의 타구垜口, 전안은 서포루와 거의 비슷하다.

3) 북서포루北西砲樓

서장대의 북쪽 서일치와 서이치 사이에 있으며, 누각은 완전 인멸된 것을 새로 복원한 것이다. 원래의 포루는 1794년(정조 18) 9월 24일에 준공되었다. 정면 1칸, 측면 3칸의 3중층이며, 성 위로는 최상층의 누각이 세워져 있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지붕은 5량 구조에 성 외측은 합각으로 하고, 성 내측은 박공지붕으로 하였다. 목조의 계단이 하층 중간에서 시작하여 중층과 상층으로 오르내리도록 하였다.

포혈·총안·여장·타구·전안 및 출입문 등의 구조는 서포루와 동일하다. 그러나 서포루는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북서포루는 평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성곽의 높이도 산지성山地城보다 평지성이 높게 축조되어 있으므로, 평지의 포루가 산지의 포루보다 규모가 커지게 된다.

4) 서포루西砲樓

서장대의 북쪽 서일치와 서이치의 사이에 있으며, 누각은 완전 인멸된 것을 새로 복원한 것이다. 1796년(정조 20) 5월 30일에 준공되었다. 정면 1칸, 측면 3칸의 3중층 건물이나 성 내의 지반면 위로는 최상층의 1층 누각만을 세운 것처럼 보인다. 처마는 납도리 홑처마이며, 3량의 우진각지붕이다.

최하층과 중층의 돌출된 3면의 벽은 벽돌구조로, 성 내측의 1면은 석축했으며, 최상층의 4면은 벽돌 여장으로 둘러막고, 동측면에 2장의 판문을 달았다. 상층의 여장 위는 4면이 모두 개방되어 있다. 최하층에는 포혈을 뚫었고, 총안을 각 면에 내었다. 중층에는 상하 2단으로 내고, 상층의 여장에는 타구와 전안을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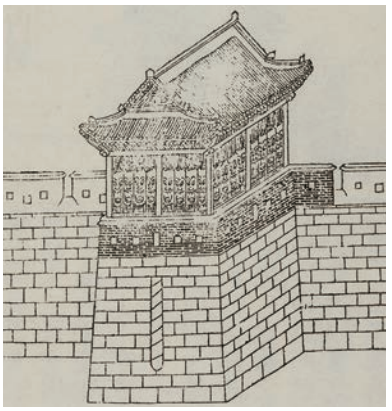
5) 남포루南砲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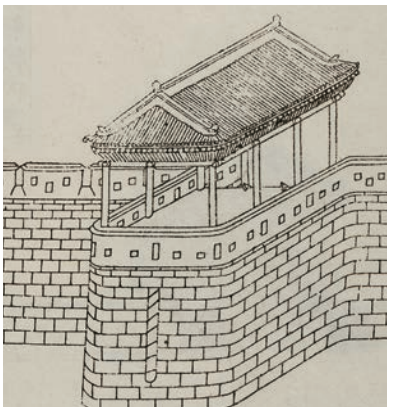
남포루는 팔달산 중턱 서남암문의 101보 지점에 있으며, 1796년(정조 20) 7월 9일에 준공되었다. 성 내 5개의 포루 중 가장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었으나 누각은 인멸되어 새로 복원한 것이다. 3중층의 포루는 정면 1칸, 측면 3칸의 규모이며, 처마는 납도리 홑처마에 5량 우진각지붕이다. 하층의 중간에 목조계단을 설치하여 상층까지 곧은 계단으로 오르내리도록 했으며, 상층 바닥에는 계단으로 통하는 판문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여닫게 하였다.

하층과 중층의 포혈·총안 등은 동북포루와 거의 동일하며, 여장에는 타구와 전안을 뚫었고, 타구의 안쪽에는 전판문箭板門을 달았다. 마루·지붕 등의 구조는 서포루와 거의 같다.

12. 포루舖樓

『성설』에 이르기를 "치雉 위에 지은 집을 포舖"라고 하였는데, 이는 치성의 군사들을 가려 적군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새운 성제의 하나이다. 이 포루舖樓는 층루로 되어 그 하층에는 총포혈銃砲穴을 내었으며, 필요에 따라 성벽도 벽돌로 쌓았다. 성 내에는 5개소의 포루가 있는데, 동북포루[角巾臺]·북포루·서포루·동일포루東一舖樓·동이포루東二舖樓이다.


북포루도


동포루도


서포루 밖


북포루


동포루


서포루 안

1) 동북포루東北鋪樓

동북포루는 일명 '각건대角巾臺'라고도 불린다. 각건이란 보통 처사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을 가리키는데, 꼭대기가 네모진 형상을 이룬다. 동북각루(방화수류정)와 동장대 사이 성벽의 굴곡 돌출부(방화수류정에서 동쪽으로 135보 4자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성벽은 일부 남았으나 포루는 인멸된 것을 새로 복원한 것이다. 원래의 포루는 1796년(정조 20) 5월 15일에 준공되었다.

3면의 치성이 성 밖으로 돌출되었고, 하부 1.46m까지는 석축, 그 위로는 벽돌로 쌓았으며, 상부에 여장을 쌓았다. 누각은 중층으로 정면 2칸, 측면 2칸의 규모이나 남측면은 중간에 작은 기둥을 써서 3칸으로 하였다. 기둥은 민흘림이며, 처마는 홑처마로 민도리 수장 5량집의 합각지붕이다. 하층의 3면은 벽돌을 쌓고, 남측에는 건물 외부에 계단을 설치하여 상층까지 오르내리도록 하였다. 치성에는 현안 1개를 뚫어 놓고, 여장 안은 벽등甓磴을 이중으로 쌓았는데, 이 벽등 아래위에 방안총혈 19개, 누혈

11개를 뚫어 놓았다. 누의 위 4면에는 판문을 설치하고 외면과 좌우에는 사안射眼을 내어 놓았다. 내면에 벽돌계단을 설치하여 오르내리게 하였다. 단청은 3토를 사용하였고, 양상도회하였다.

2) 북포루北鋪樓

북포루는 서북포루와 서북공심돈 사이(서북포루에서 서쪽으로 129보 5자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치성으로 돌출된 석성石城 위에 중층 누각으로 되어 있다. 1795년(정조 19) 2월 20일에 준공된 이 건물은 새로 복원된 것으로, 복원 당시 성벽은 완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다.

정면 2칸, 측면 2칸, 내면 3칸의 규모이며, 중층 5량 팔작지붕을 갖추었다. 처마는 홑처마에 민도리집이며, 상층에는 주위에 전판문을 달았다. 하층은 성 위에 여장이 3면을 둘러막아 이어져 있으며, 누 밑에 각각 포혈을 내었다. 내부에는 나무사다리를 놓아 상층에 오르내리게 했으며, 그 앞에 여닫이문을 달았다. 건물의 구조와 공법은 동북포루와 같다.

3) 서포루西鋪樓

서포루는 서장대 남쪽 서암문과 서삼치의 중간(서암문에서 남쪽으로 126보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원 당시에 성곽도 완전히 남아 있고, 여장의 일부분도 잔존해 있었다. 원래의 누각은 1796년(정조 20) 8월 18일에 준공되었다. 정면 2칸, 측면 2칸의 규모이나 동측면은 1칸으로 된 중층이다. 건물 내면은 나무사다리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민도리 5량 팔작지붕을 갖추었다. 석축의 성벽 위에는 벽돌로 여장을 쌓았다.

4) 동일포루東一鋪樓

동일포루는 창룡문의 남쪽 180보 2자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성벽 위에 중층누각을 세웠다. 현재의 건물은 새로 복원된 것인데, 원래의 건물은 1796년(정조 20) 7월 10일에 준공되었다. 포루는 정면 1칸, 측면 3칸의 중층으로 3량의 우진각지붕을 갖추었다. 하층 주위의 3면은 여장으로 둘려져 있고, 원근총안遠近銃眼을 내었다. 건물의 상층 동측 2칸은 마루를 깔고 1칸은 통 2층으로 하여 나무사다리를 설치하였다. 단

청은 3토를 사용하였고, 양상도회하였다.

5) 동이포루東二舖樓

동이포루는 봉돈의 남쪽 105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원래의 성벽은 거의 완전하나 건물은 인멸된 것을 새로 복원하였다. 1796년(정조 20) 7월 3일에 준공되었다. 구조는 동일포루와 같으나, 정면 1칸, 측면 2칸 규모의 작은 중층누각이다. 처마는 홑처마에 납도리를 썼으며, 지붕틀은 5량의 우진각지붕이다. 나무사다리를 설치했고, 하층의 총안 등은 동북포루와 같다.

13. 봉돈烽墩

봉돈은 불을 비추어 행궁을 수비하고 성을 파수하며 주위를 정찰하여 인근에 사태를 알리는 군사·교통상의 신호시설물이다. 화성 봉돈은 서해의 흥천대興天臺에서 오는 횃불 신호를 받아 용인 석성산石城山 봉화대로 전달하기 편리하도록 성 동쪽에 세웠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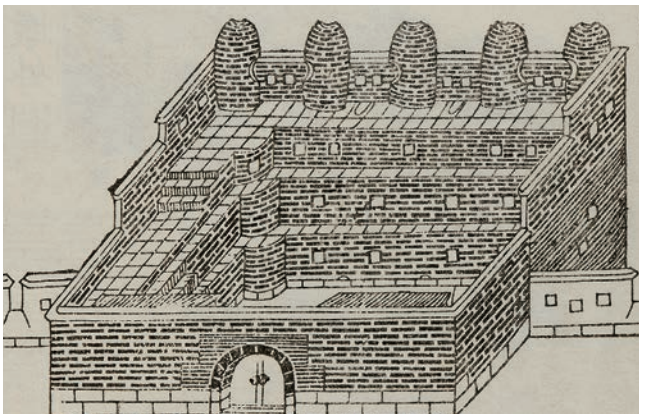
1) 화성 봉돈烽墩

화성 봉돈은 동문의 서남쪽 동이치와 동삼포루 사이에 위치하여 행궁과 마주보고 있다. 모두 새로 복원된 것이며, 원래의 봉돈은 1796년(정조 20) 6월 17일에 완공되었다.

봉돈은 성벽 일부를 치성처럼 밖으로 돌출시켜 하층은 석축으로 쌓고, 위는 벽돌로 성벽보다 높이 쌓아 상부에 여장을 두었다. 특히 외벽과 계단은 모두 벽돌로 쌓았는데, 특히 굴뚝 자체를 벽돌로 쌓은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매우 실험적인 것이었다.[20] 외면은 돌로 쌓은 것이 5층, 벽돌로 쌓은 것이 62층으로 전체 높이는 25자, 너비는 54자이고, 현안 2개를 뚫었다. 내부는 3층의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가장 높은 곳에 5개의 화두火竇(횃불 구멍)를 설치하여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장 3면에는 포혈 18개를 갖추었고, 또 여장 아래 3면 벽성甓城에는 총안 18개, 누혈 1개를 뚫었다. 양쪽 가장자리의 층계 끝에는 1칸 규모의 벽돌로 지은 집이 있는데 용마루 없이 기와를 이었다. 남쪽의 것은 온돌로서 수직하는 군졸이 거처하는 곳이고, 북쪽의 것은 판자를 깔아 기계 등을 넣어 두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전면 중앙에는 홍예를 틀어 작은 문을 설치하였다.

19_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100·127쪽.
20_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127쪽.





봉돈 전경과 봉돈 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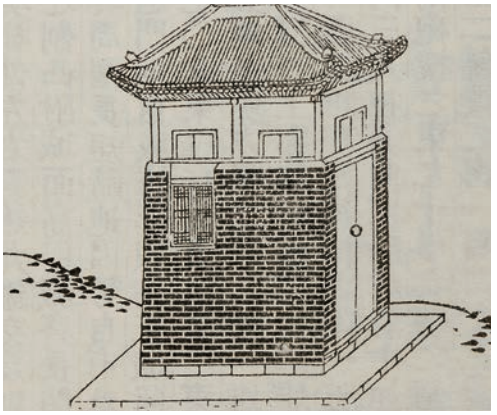
5개의 화두 가운데 평상시에는 남쪽의 첫 번째 것만을 사용하였다. 매일 저녁 남쪽의 첫 번째 화두에서 횃불을 올리면, 동쪽으로 용인 석성산의 육봉陸烽(육지 봉돈)에서 봉화로 응하고, 서쪽으로는 수원부의 홍천대에 있는 해봉海烽(바다 봉돈)에서 응하였다. 나머지 4개의 화두는 긴급한 일이 없으면 횃불을 들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만 홍천대 해봉은 너무 멀어서 직접 전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또다시 간봉間烽을 두어, 오는 봉화를 이곳에서 전담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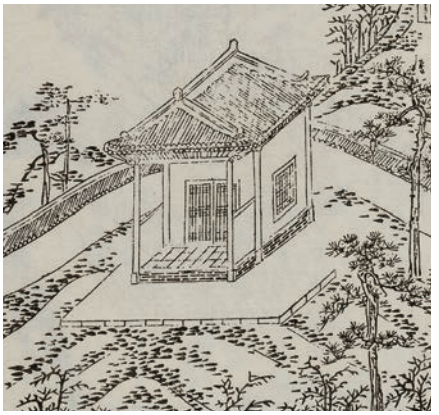
2) 서봉산棲鳳山 사이 봉화

화성 봉돈의 봉화에 준하고 있던 서봉산 사이 봉화는 동쪽으로 잡석대雜石臺 위에 5개의 화두를 설치하였다. 대 아래 산허리에는 4칸의 고사庫舍를 지어 군물軍物을 저장하게 하였고, 그 아래에는 수직청守直廳을 지었다.

14. 포사舖舍

중포사中舖舍는 성 밖 비밀 경보를 알리는 구실을 하는 건물로, 동북포루(각건대) 아래 320보(380m) 지점에 있었다. 이 건물은 1796년(정조 20) 8월 6일에 완공되었다. 이 포사가 치 위에 있을 때는 포루舖樓가 되고, 성 내에 있으면 포사舖舍가 된다. 각각 자기가 맡은 성면의 경보를 대포를 쏘아 알리면, 포사에 있는 군사가 기를 휘두르거나 대포로 응하는 것이 성을 지키는 약속이다. 2칸의 중층 건물로서 아래는 온돌이 1칸, 남쪽 1칸은 터서 나무사다리를 놓아 상층과 통하게 하였다. 위의 2칸은 모두 판





중포사도와 내포사도

자를 깔고 판문을 달았다. 단청은 3토를 사용하였으며, 양상도회하였다.

내포사內鋪舍는 행궁 안 왼쪽 기슭 미로한정未老閑亭의 북쪽 50보 거리인 화성행궁 뒷담에 세워졌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온돌 1칸을 놓고, 전퇴 반 칸에는 벽돌을 깔았으며, 단청은 중포사와 같다.

서남포사西南鋪舍는 사방 한 칸의 규모로, 온돌을 놓고 4면에 판문을 대고 바깥쪽 판문에는 짐승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지붕은 우진각지붕이며 양상도회하였으며, 단청은 3토를 사용하였다.

15. 성신사城神祠

성신사는 화성 성신의 신주를 봉안한 사당으로, 팔달산 오른쪽 기슭의 병풍바위 위에 유좌묘향酉坐卯向으로 앉혔다. 1796년(정조 20) 봄에 특별 교지를 내려 터를 잡고 이 사당을 지었다. 정당正堂은 5량 3가三架이며, 벽돌을 쌓아 벽을 만들었다. 문의 좌우에는 5칸 행각을 붙였는데, 남쪽 2칸은 안쪽을 향하게 하여 전사청典祀廳으로 삼고, 북쪽 3칸은 바깥쪽을 향하게 하여 재실齋室로 삼았다. 단청은 3토를 사용하였으며, 양상도회하였다.

62년 임오화변으로 정조는 왕세손의 신분으로 동궁이 되었다. 당쟁의 희생물로 아사된 장헌세자를 통해 정조는 정치의 비정함과 장차 국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탕평과 경장이라

렇게 오군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호위체제로의 전환을 인각하였다. 임시기구로 출발한 조선 후기 중앙의 오군영에서 통일된 군제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군영들은 1차기

가중시켰기에 군영 개혁이 군주들의 현안이 되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정조의 군사에 대한 개혁 의지는 1778년(정조 2) 6월에 발표한 '경장대고'에 잘 드러나 있다. 정조는

목을 대대외에 천명함으로써 자신이 국왕으로 재임하는 동안 군사통수권을 장악한과 아울러 군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정조는 부흥파의 저항을 이용하여 왕권

. 정조는 중인과 서얼 출신 중에서 무예가 출중한 자를 금군으로 채용하는 변통을 실시하고, 무과에 합격한 자 중에서 명문에 속하는 사람을 뽑아 금군이 되도록 조치하여 금군의

하지만 당시의 지적처럼 금군의 질은 금군의 많은 폐단으로 훈련도감의 마병과 금위영의 기사만도 못할 정도였다. 이들은 근기에 거주하면서 몇 말의 급료를 받기 위해 금군에 투탁

위기구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정조는 1777년(정조 1) 11월 15일에 건양문 동쪽에 숙위소를 설치하고 도승지와 금위대장을 겸임하고 있는 홍국영을 숙위대장으로 삼았

군사들을 통제하게 하였다. 그리고 삼영과 병조와도 숙위체계에 대한 약속을 정하도록 하였다.숙위대장 홍국영은 도승지·금위대장을 겸직하며 정조 즉위 초반 정국 운영의 중추였

줄 뿐만 아니라, 송시열의 후손인 송덕상을 산림으로 초치하여 그를 조종함으로써 송덕상이 가지고 있는 송시열 후손이라는 명망과 호서 지역의 산림 기반을 자신의 집권 기반으로

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홍국영의 처사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나 그의 정치적 위세에 눌려 반대의견을 공론화하지 못하였다. 정조의 후궁으로 원빈이 들어서자 홍국영의 권세는 다

빈장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과정에서 예관이 홍국영의 분치를 보아 전례에 없는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산림으로 조정에 들어온 송덕상은 원빈을 위한 공제가 있어야 한다고까지 주

정조는 홍국영의 관직인 도승지를 비롯한 일체의 직책을 거두는 듯하였으나 곧 그에게 훈련대장 등 이전의 모든 직책을 도로 임명하였다. 정조는 자신의 등극을 위해 애쓴 공로

를 고려 왕공이라 하고 또 자신의 생질이라고 불렀다. 또 이라는 것은 대조 이성계의 고향인 완산을 뜻하고, 이라는 것은 홍국영의 본관인 풍산을 가리킨 것이었다. 이러한 홍국영

신료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홍국영은 사직했고 정조는 최대한 예우하여 붕조하의 직책을 주고 배웅까지 해 주었다. 실제 정조는 홍국영 개인에 대한 응징과 더불어 그의 집안

영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서명선을 호위대장으로 임명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숙위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였다. 숙위소 혁파 이후 정조는 조신들의 찬성을 얻어 호위청

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호위대장권을 사실상 대신에게서 빼앗았다. 그리고 정조는 호위청 군사로 하여금 대궐 내의 입직을 물론 국왕의 교외 행행과 도성 안 동가 등의 비

수원 SUWONHWASEONG 수원 SUWONHWASEONG
화성 SUWONHWASEONG SUWONHWASEONG 화성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수원화성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홍국영 이후 정국 운영의 실세로 등장한 서명선은 친군위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의 격을 높이기 위

군위가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선혜청당상 조시준 역시 친군위가 좋다고 하였다이처럼 무에 출신의 칭호를 선정함에 친군위·장용위·무용위를 놓고 대신들의 의견 교환이 있었

종 결정하였다. 장용위 창설을 결정하자 50명으로 구성된 장용위를 설치하였다. 즉, 1685년(숙종 11)에 무예별감 출신 30인을 훈련도감 국 출신 3개 번과 교차시킨 선례를 따라 조정

더 선발하여 장용위를 창설하였다. 장용위는 훗날 장용청과 장용영으로 승격될 때까지 척계광의 남군제도를 본받아 5개 사에 25개 초를 두었는데 중사5개 초는 서울에 있게 하고,

원 장용위의 설치는 상대적으로 금군의 축소를 가져왔다. 새로운 국위기구 창설에 따른 부담을 최소한 적게 하기 위해 기존 군영의 급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자리를 장용위로 옮겨

이 3종의 위는 조선 전기에 금군이 계속된 것으로서, 효종은 이를 통합 편성하여 금군으로 삼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이후 금군은 내삼청이란 별명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금군이

전출시킴으로써 군사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장용위 창설에 따른 군비의 절박함도 일부 해결할 수 있었다.그러나 정조가 장용위를 설치한 것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였기

서 장용영으로 바뀐 뒤의 내용이지만 수어청과 총융청의 혁파를 제기하며 장용위를 만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장용위의 설치 목적이 바로 군제 개혁이라는

특별히 금군이었다. 이로써 장용위 금위군은 국왕의 지휘를 받는 특별한 위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용위는 1788년 장용청으로 확대 개편되고 1793년 장용영으로 다시 확대

역모사건 그리고 정후겸, 홍상범 역모사건을 겪으면서 호위부대를 창설하고 이 호위부대를 장용위라는 명칭으로 설치하였다. 정조는 장용

위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정조는 이와 더불어 숙위는 매우 중요하고 비밀스럽다고 하며 크고 작은 업무가 누설되면 군율로 시행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그만큼 자신을 호위하

의 폐단이 심각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당시 각 군영의 폐단이 심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금군인 용호영의 폐단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용호영은 근무를 서지 않고 집에 있을 때에

이해지고 무에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정조는 더 이상 이들로 하여금 자신과 궁성의 호위를 담당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정조는 용호영의 군병 700명을 600명의 제

chapter 4

장용영 외영의 설치와 운영

01 장용영 창설과 군권 강화
02 장용영의 직제
03 장용영 외영의 성립
04 장용영 외영의 군제 운영

SUWON HWASEONG

김준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01
장용영 창설과 군권 강화

1. 장용영 창설의 추이

1) 숙위소 설치

1762년 임오화변으로 정조는 왕세손의 신분으로 동궁東宮이 되었다. 당쟁의 희생물로 아사餓死된 장헌세자莊獻世子를 통해 정조는 정치의 비정함과 장차 국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탕평蕩平과 경장更張이라는 국정 운영의 목표를 정하게 되었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호위체제護衛體制와 군영체제軍營體制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1] 정조는 친위 군영의 확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오군영五軍營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오위체제五衛體制로의 전환을 생각하였다.

임시기구로 출발한 조선 후기 중앙의 오군영에서 통일된 군제軍制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군영들은 17세기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무반武班 가문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주요 무반들은 정치세력과 직접 혹은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군영의 난립은 필연적으로 양역의 폐단을 가중시켰기에 군영 개혁이 군주들의 현안이 되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2]

정조의 군사軍事에 대한 개혁 의지는 1778년(정조 2) 6월에 발표한 '경장대고更張大誥'에 잘 드러나 있다. 정조는 당시 사회가 마치 큰 병에 든 사람이 진원眞元이 허약해져서 혈맥이 막히고 혹이 불거진 상황과도 같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타개하기 위해서 민산民産·인재人才·융정戎政·재용財用의 4항목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자신이 국왕으로 재임하는 동안 군사통수권을 장악함과 아울러 군제 개혁을 추

1_ 『홍재전서』 권2, 춘저록(春邸錄), 시(詩), 견무예잉념예자(見武藝仍拈藝字).
2_ 배우성, 「정조의 군사정책과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배경」, 『진단학보』 91, 2001.

진하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3]

정조는 부홍파扶洪派의 저항을 이용하여 왕권 호위의 당위성을 더 한층 강조하고 새로운 호위기구 창설에 들어갔다. 정조는 숙위소宿衛所를 창설하기 전에 금군禁軍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즉 금군을 통해 자신의 호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중인과 서얼 출신 중에서 무예가 출중한 자를 금군으로 채용하는 변통變通을 실시하고,[4] 무과에 합격한 자 중에서 명문에 속하는 사람을 뽑아 금군이 되도록 조치하여 금군의 질을 높이려 하였다.[5] 자리가 한정된 금군은 무과에 합격하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정조는 선천내금위宣薦內禁衛 일一·이번二番의 제도를 변통하여 금군의 인원을 늘리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지적처럼 금군의 질은 금군의 많은 폐단으로 훈련도감의 마병馬兵과 금위영의 기사騎士만도 못할 정도였다. 이들은 근기近畿에 거주하면서 몇 말[斗]의 급료를 받기 위해 금군에 투탁하였으므로 군용軍容이 피폐하고 조잡할 뿐만 아니라 융정戎政이 허술해지는 발단이 되고 있었다.[6] 금군을 변통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국왕 시해 기도사건이 발생하였고, 정조는 이에 새로운 호위기구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정조는 1777년(정조 1) 11월 15일에 건양문建陽門 동쪽에 숙위소를 설치하고 도승지와 금위대장을 겸임하고 있는 홍국영을 숙위대장宿衛大將으로 삼았다. 그리고 포도대장에게 대장패大將牌와 전령패傳令牌가 있음을 모방하여 숙위대장에게 대장패와 전령패 각 1부씩을 어필御筆로 써서 내려 주었다. 그리고 홍국영으로 하여금 궁성宮城 안팎에서 숙위하는 군사들을 통제하게 하였다. 그리고 삼영三營과 병조와도 숙위체계에 대한 약속을 정하도록 하였다.[7]

숙위대장 홍국영은 도승지·금위대장을 겸직하며 정조 즉위 초반 정국 운영의 중추였다. 또한 홍국영은 정조의 명을 받아 모든 신료들을 통제하는 중영대장中營大將에 특교特敎로 임명받았기에 그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다.[8] 그는 소론 계열 무반 구선복과 노론 김종수 등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송시열의 후손인 송덕상宋德相을 산림山林으로 초치하여 그를 조종함으로써 송덕상이 가지고 있는 송시열 후손이라는 명망과 호서 지역의 산림 기반을 자신의 집권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홍국영은 정조의 비妃인 효의왕후孝懿王后가 건강이 좋지 않아 후사를 이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1778년(정조 2) 6월에 자신의 여동생을 후궁으로 들여보내 원빈元嬪으로 책봉冊封받게 하였다.[9] 당시 조정에서는 홍국영의 처사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나 그의 정치적 위세에 눌려 반대의견을 공론화하지 못하였다.

정조의 후궁으로 원빈이 들어서자 홍국영의 권세는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에 대해

3_『정조실록』 권5, 정조 2년 6월 임진.
4_『일성록』, 정조 1년 7월 22일 을유.
5_『일성록』, 정조 1년 7월 25일 무자.
6_『일성록』, 정조 1년 7월 25일 무자.
7_『정조실록』 권4, 정조 1년 11월 정축.
8_『일성록』, 정조 2년 9월 초1일 정해.
9_『정조실록』 권5, 정조 2년 6월 기유.

사관史官은 "홍국영의 방자함이 날로 극심하여 온 조정이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였다."고 기록할 정도였다. 홍국영의 뜻과 반대로 원빈이 일찍 사망하자 빈장殯葬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과정에서 예관禮官이 홍국영의 눈치를 보아 전례에 없는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산림으로 조정에 들어온 송덕상은 원빈을 위한 공제公除가 있어야 한다고까지 하였다.[10]

홍국영은 원빈이 죽자 자신의 문벌이 한미함에도 벼슬이 높아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빈이 죽었다는 이유로 벼슬을 내놓으며 오히려 정조를 압박하는 무례를 보였다. 정조는 홍국영의 관직인 도승지를 비롯한 일체의 직책을 거두는 듯하였으나 곧 그에게 훈련대장 등 이전의 모든 직책을 도로 임명하였다. 정조는 자신의 등극을 위해 애쓴 '동덕회同德會' 회원인 홍국영을 쉽게 축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명선(徐明善) 초상화(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홍국영 이후 정국 운영의 실세로 등장한 서명선은 호위대장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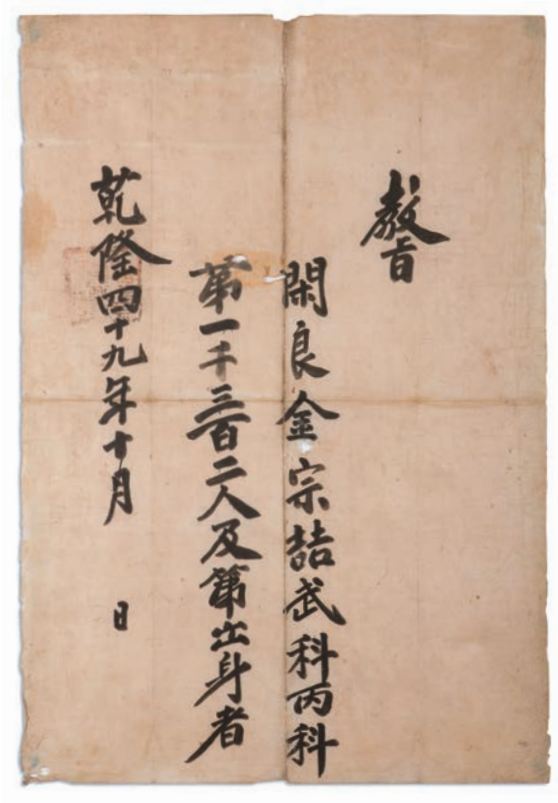
홍국영은 원빈이 죽고 나서 더 이상 정조가 후사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은전군恩全君의 아들 상계군常溪君을 대전관代奠官으로 삼고, 그 군호君號를 고쳐 완풍完豊이라 하고 늘 자신의 생질이라고 불렀다. '완完'이라는 것은 태조 이성계의 고향인 완산完山을 뜻하고, '풍豊'이라는 것은 홍국영의 본관인 풍산豊山을 가리킨 것이었다.[11]

이러한 홍국영의 행동은 국본國本에 관여된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조는 홍국영을 용인하다가 그가 효의왕후를 시해하고자 은밀히 준비를 하였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를 방축시켰다.[12] 다른 신료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홍국영은 사직했고 정조는 최대한 예우하여 봉조하奉朝賀의 직책을 주고 배웅까지 해 주었다.[13] 실제 정조는 홍국영 개인에 대한 응징과 더불어 그의 집안인 풍산 홍씨豊山 洪氏 가문이 벌열閥閱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홍국영을 제거한 것이다. 홍국영의 방축으로 정조는 그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숙위소를 혁파하였다.[14] 숙위소를 혁파한 정조는 홍국영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서명선徐命善을 호위대장扈衛大將으로 임명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숙위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였다.[15]

2) 장용영 창설

숙위소 혁파 이후 정조는 조신朝臣들의 찬성을 얻어 호위청으로 숙위를 대신하게 하고 자신의 근신近臣이자 동덕회 회원인 서명선을 호위대장으로 임명하였으며 350

10_『정조실록』 권7, 정조 3년 5월 경인.
11_『정조실록』 권8, 정조 3년 9월 정미.
12_『홍재전서』 권31, 교(敎)2, 이봉조하홍국영귀환전리(已奉朝賀洪國榮歸還田里).
13_『일성록』, 정조 3년 9월 28일 기유.
14_『정조실록』 권8, 정조 3년 10월 무오. 비록 숙위소가 국왕의 호위를 위해 만든 특수한 호위기구였지만 홍국영을 위해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에 아예 폐지를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15_『정조실록』 권9, 정조 4년 1월 경자. 호위청은 숙위소로 인해 기능이 축소되었으나 국왕의 호위를 전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다.



정조가 장용영 설치를 염두에 두고 실시한 1784년(정조 8) 무과에 급제한 한량 김종철의 홍패(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명의 군관을 두도록 하였다. 정조는 이때 비록 대신이라 하더라도 훈척勳戚이 아니면 대장大將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호위대장권을 사실상 대신에게서 빼앗았다. 그리고 정조는 호위청 군사로 하여금 대궐 내의 입직은 물론 국왕의 교외郊外 행행行幸과 도성 안 동가動駕 등의 배위陪衛를 담당하게 하였다.[16]

하지만 호위청은 한계를 드러냈다. 홍국영의 종제從弟인 홍복영洪福榮을 비롯한 잔여세력들이 이율李瑮 등 산림세력들과 연계하여 도성을 공격하고 정조를 시해하고자 하였다.[17] 정조는 사건이 발생한 1785년(정조 9) 2월 29일부터 한 달여 동안 창덕궁 숙장문肅章門 앞에서 친국親鞫하였다. 그리고 친국 결과에 따라 홍복영과 문양해 등 주도세력 대부분을 사형에 처하는 엄벌을 내렸다.[18]

정조는 자신을 시해하려는 홍복영의 옥사사건을 겪으면서 호위기구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정조는 창경궁 명정전明政殿 서월랑西月廊에 주둔하고 있던 무예武藝 출신들을 승차陞差하여 새로운 호위기구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군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무예 출신은 원래 훈련도감 내의 별기군別技軍 중에서 우수한 자를 뽑은 무예별감 가운데 무과에 합격한 자들이다. 정조는 무예 출신들을 다른 군영의 군사들에 비해 특별히 우대하였다. 물론 1784년(정조 8)에 실시한 무과에 2,000여 명을 뽑아 모두를 무예 출신에 근무케 하지는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이들을 모두 새로운 호위기구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세자로 바꾸고, 그 '광경희희廣慶餚喜'를 함께하는 명목으로 특별과거를 실시하여 앞으로의 왕권 강화정책의 첫 발을 내딛었다.[19]

경과慶科의 무과 초시 합격자는 무려 2,926명으로서 이는 병자호란 때 호종군사를 위해 베푼 이른바 산성직부山城直赴나 숙종 초 북벌을 위한 만과萬科와 비견되었다. 정조는 각 도에 모인 이 무과 합격자를 단순히 합격이란 명예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들을 활용하여 금위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20]

정조는 이들의 귀향을 막기 위해 일단 각 영營 대장에게 분속시켰다. 그리고 이들을 금위체제에 흡수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금군은 원래부터 자리가 적기 때문에 다수인 그 인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정조가 생각해 낸 것은 새로운 금

위기구의 창설이었다. 이들 경과 출신들을 대거 편입시키는 친위 금위기구를 창설하려고 할 때 앞서와 같은 홍복영 사건으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새로운 호위기구를 만드는 것은 중대한 일이기에 정조는 신료들에게 무예 출신의 전환을 논의하였다. 정조는 신료들에게 무예 출신들을 친위 호위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전부터 있던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새로운 기구의 명칭을 공론화하여 이 기구를 안정화시키고자 하였다.[21]

무예 출신의 새로운 호위기구 이름은 예전부터 사용된 친군위親軍衛와 장용위壯勇衛 그리고 선조 연간에 불렀던 무용위武勇衛를 가지고 논의하였다. 이에 대신들은 무예출신청武藝出身廳을 변통變通으로 삼은 것은 역대 조정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기에 마땅히 이름을 고쳐 장용청壯勇廳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22]

이에 대해 홍국영 이후 정국 운영의 실세로 등장한 서명선은 친군위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의 격을 높이기 위해 영전令箭을 바꾸어 신전信箭으로 전교하는 것과 대장패, 전령패, 순장위장패巡將衛將牌, 적간표신摘奸標信, 문안표신問安標信, 목마패木馬牌 등 각각의 부신符信들을 착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서명선과 같은 소론인 서유린 역시 친군위가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 조시준趙時俊 역시 친군위가 좋다고 하였다.[23]

이처럼 무예 출신의 칭호를 선정함에 친군위·장용위·무용위를 놓고 대신들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여러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정조는 "친군·무용의 칭호가 모두 옳지 않은 것은 아니나 장용壯勇이 나을 듯하니 지금부터 장용위로 칭하고 이 일을 훈국訓局으로 보내라."라고 하여 장용위로 최종 결정하였다.[24]

장용위 창설을 결정하자 50명으로 구성된 장용위를 설치하였다. 즉, 1685년(숙종 11)에 무예별감 출신 30인을 훈련도감 국局 출신[25] 3개 번과 교차시킨 선례를 따라 조정에서는 국왕의 호위를 위하여 1782년(정조 6)에 무예 출신 및 무예별감의 장교를 지낸 경력이 있는 자 30인을 골라 명정전 남쪽에 근무하게 했었다. 정조는 이들 30인에 추가로 20명을 더 선발하여 장용위를 창설하였다.[26]

장용위는 훗날 장용청과 장용영으로 승격될 때까지 척계광의 남군南軍제도를 본받아 5개 사司에 25개 초哨를 두었는데 중사中司 5개 초는 서울에 있게 하고, 전사前司 5개 초는 수원에, 좌사左司 5개 초는 양성·용인·광주에, 우사右司 5개 초는 고양·파주·안산·과천·시흥에, 후사後司 5개 초는 지평·양근·가평·양주·장단에 있게 하였다.[27]

무예 출신으로 창설된 장용위의 설치는 상대적으로 금군의 축소를 가져왔다. 새로운 금위기구 창설에 따른 부담을 최소한 적게 하기 위해 기존 군영의 급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자리를 장용위로 옮겨 왔기 때문이다.

16_ 『정조실록』 권5, 정조 2년 2월 병신. 서명선은 영조의 비였던 정성왕후(貞聖王后) 서씨(徐氏) 인척이었기에 호위대장직에 임명될 수 있었다.

17_ 홍복영은 자신의 종형인 홍국영과 부친인 홍낙순이 정조의 친위세력에서 배제된 후 정치적 입지를 상실한 인물이었다. 홍낙순은 홍국영 실각 이후 좌의정을 맡는 등 권력의 중심에 있었으나 본인의 영의정 임명과 홍국영의 대제학 복권운동을 주도하다가 우의정 서명선 형제의 상소로 끝내 실각하고 말았다.

18_ 『정조실록』 권19, 정조 9년 3월 무인.

19_ 이태진, 「18세기 왕정과 삼군문 도성수비체제 및 친위군영」, 『조선후기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268~269쪽.

20_ 이태진, 「18세기 왕정과 삼군문 도성수비체제 및 친위군영」, 『조선후기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270쪽.

21_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 7월 기유.

22_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 7월 기유.

23_ 『장용영고사』 권1, 을사 7월 초2일.

24_ 『장용영고사』 권1, 을사 7월 초2일.

25_ 국 출신은 병자호란 때 호종한 훈국군사의 대우를 위해 무과를 설행해서 뽑은 자들이다. 당초 이들은 1만 3,884명으로 7국으로 편성되었는데, 점차 사망자가 생겨 5국, 4국으로 축소되다가 현종 때 3국으로 고정되었다.

26_ 『홍재전서』 권13, 서인(序引)6, 익정공주고군려류서(翼靖公奏藁軍旅類敍), 군제인(軍制引).

27_ 『홍재전서』 권13, 서인6, 익정공주고군려류서, 군제인.



친막에서 근무하는 군사들에게 내린 글

(『어전친막제명첩(御前親幕題名帖)』, 수원박물관 소장)

1787년 정조는 대궐 안에서 숙직하며 자신을 호위하는 별군직의 처소에 친필로 '어전친막(御前親幕)'이라고 쓴 편액을 달게 하고, 특별히 이를 한 첩 본떠서 간직하였다가 새로 별군이 임명될 적마다 인(印)을 찍어 주고 그 원편에선 임자들의 성명을 나열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 첩이다. 서문에서 정조는 임금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는 별군직은 총애와 대우가 규장각학사와 필적할 정도이므로, 심복(心腹)이 되고 간성(干城)이 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에 전령 37명의 명단이 나이 순으로 필사되어 있다.

효종 대 이후 금군은 칠번제七番制로 내금위가 3번, 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가 각 2번으로 1번은 100명씩이었다. 일내一內, 이내二內, 삼내三內, 일겸一兼, 이겸二兼, 일우一羽, 이우二羽는 각 위衛의 번별番別 편제의 약칭이다. 이 3종의 위는 조선 전기에 금군이 계속된 것으로서, 효종은 이를 통합 편성하여 금군으로 삼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이후 금군은 내삼청內三廳이란 별명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금군이 장용위의 설치로 육번제로 개편되었다. 금군은 700명의 정원 중에서 100명을 장용위로 넘겨주게 되어 자연스럽게 육번제로 변화된 것이다.[28] 정조는 금군 내 최고의 군사들을 장용위로 전출시킴으로써 군사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장용위 창설에 따른 군비의 절박함도 일부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조가 장용위를 설치한 것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였기에 장용위 운용에 대한 견제가 극심하였다. 당시 장령 오익환吳翼煥은 금군과 무예청이 있는데 굳이 장용위를 설치하냐며 직접적인 반대의견으로 상소하였다.[29] 물론 오익환의 상소는 장용위에서 장용영으로 바뀐 뒤의 내용이지만 수어청과 총융청의 혁파를 제기하며 장용위를 만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장용위의 설치 목적이 바로 군제 개혁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정조는 장용위를 설치한 후 한 달 만에 장용위 무예청에 행차하여 직접 군사들과 대화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안할 때 위급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유시하였다. 이로써 장용위 군사들은 국왕의 지우를 받는 특별한 위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30] 장용위는 1788년(정조 12) 장용영으로 확대 개편되고 1793년(정조 17) 내외영제가 성립되기 전까지 정조의 호위를 담당하며 오위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조의 군제 개혁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2. 장용영 창설의 목적

1) 친위군 강화

정조는 즉위 직후 경희궁 존현각尊賢閣 침입사건, 홍국영의 방축과 홍상범 역모사건 그리고 홍복영·문양해 역모사건 등 국왕을 제거하고자 하는 역모사건을 겪으면서 호위부대를 창설하고 이를 확대시켜 장용영이라는 친위부대를 만들었다. 정조는 장용영을 만들고 처음으로 병조의 '별부료병방別付料兵房'의 규정을 적용하여 병방兵房으로 하여금 모든 군무를 맡게 하였는데, 이렇게 장용영을 만든 목적이 "남 보기 좋

28_ 『만기요람』 군정편, 용호영 설치연혁조.
29_ 『정조실록』 권25, 정조 12년 1월 병술.
30_ 『장용영고사』 권1, 을사 8월 4일.



김종수가 쓴 장용영 편액 탁본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호위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31] 정조는 이와 더불어 숙위宿衛는 매우 중요하고 비밀스럽다고 하며 크고 작은 업무가 누설되면 군율로 시행할 것을 신칙하였다.[32] 이는 그만큼 자신을 호위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조의 장용영 설치는 일차적으로 자신과 궁성을 호위하기 위한 친위부대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국왕 호위부대인 호위청扈衛廳과 용호영龍虎營의 폐단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각 군영의 폐단이 심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금군인 용호영의 폐단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용호영은 근무를 서지 않고 집에 있을 때에도 물금패勿禁牌를 차고, 번을 설 때는 고급 가죽 신발인 당운혜唐雲鞋를 신었으며, 등급은 정직正職과 같고 절은 반드시 대청에서 할 정도의 영예와 총애를 받았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와 기강이 해이해지고 무예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정조는 더 이상 이들로 하여금 자신과 궁성의 호위를 담당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정조는 용호영의 군병 700명을 600명의 제도로 변경시키고, 나머지 100명 중 50명은 금군청禁軍廳의 내금위內禁衛·우림위羽林衛·겸사복兼司僕으로 번을 서게 하고 나머지 50명은 장용영으로 이관하여 훈련의 강도를 높여 정병을 만들고 궁성을 호위하게 하였다.[33] 이와 같은 정조의 조처에 대하여 병조판서 김문순은 용호영의 군사들 모두가 장용영으로 이관되기를 원한다면서 정조의 조처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34]

장용영은 국왕의 안위를 위한 궁성 수비만이 아닌 정조의 거둥擧動을 수행하였다. 정조는 경모궁敬慕宮 행차 때 장용영 보군步軍 3초와 마군馬軍 1초로 호위하게 하였다.[35] 그뿐만 아니라 현륭원 행차 시에도 장용영의 향군 3초를 장관이 인솔하게 하였다.[36]

이처럼 정조는 장용영을 자신의 호위를 담당하는 친위부대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효종이 심양에 볼모로 갔을 때 자신을 호위하여 다녀왔던 8장사를 별군직으로

31_ 『홍재전서』 권13, 서인6, 익정공주고군려류서, 군제인.
32_ 『장용영고사』 권1, 무신 9월 11일.
33_ 『장용영고사』 권2, 신해 5월 26일.
34_ 『장용영고사』 권2, 신해 5월 29일.
35_ 『장용영고사』 권5, 갑인 11월 27일.
36_ 『장용영고사』 권5, 을묘 2월 1일.

임명하여 친위부대로 양성하였던 것을 본받고자 한 것이다.[37] 정조는 1787년(정조 11)에 이와 같이 별군직 같은 친위 군영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정조는 장용위를 국왕 가까이에서 늘 보좌하는 영화로운 자리로 평가하였다. 당연히 장용위는 무사만이 아닌 일반 문신들도 부러워하는 자리로서 정조의 총애와 대우는 규장각 학사와 서로 필적할 정도였다.[38]

과거 효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북벌을 위한 조총鳥銃부대를 창설하고 이를 활용했던 것과 유사하게 장용영을 창설하여 이를 왕권 강화의 매개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화성을 축성하고 철저한 군사도시로 만든 뒤 왕권을 양위하고 스스로 융정戎政을 담당하여 새로운 군제 개혁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정조는 장용영 내외영제를 수립하였는데, 조선 초기 도성과 태조의 고향인 관북關北의 땅을 지켰던 오위체제를 그대로 따름과 동시에 장용위의 명칭과 화성에 설치된 친군위의 명칭 모두가 과거 오위체제의 관북군영의 명칭을 따랐다. 아울러 정조는 이러한 체제와 명칭을 만든 것은 선조先祖의 뜻을 계승하고 오위제도를 본받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39] 이는 곧 과거 태조를 관북의 자제들이 호위하듯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화성의 장용영 군사들이 자신을 호위하게 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래서 정조는 장용영의 위상을 강화하고 오군영과 차별을 두고 격을 높이기 위해, 장용영의 체제가 대체로 갖추어진 1791년(정조 15)에 황색 띠에 황색 바탕의 기를 사용하는 기호旗號의 정식을 세웠다. 군영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기치旗幟의 운용이 매우 중요하였다. 그래서 기의 길이와 넓이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 장용영이 설치된 이후 장용영병방의 수기手旗를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먼저 파총과 초관의 기를 제작하는 결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조는 그 사유를 조사하지 않고 묵과해 줌으로써 초기 군영의 반목을 없애는 포용책을 쓰기도 하였다.[40]

당시 각 군영의 기치는 『기효신서紀效新書』와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을 근거로 제작하였다. 하지만 정조는 장용영의 기치를 기존의 사례나 고금古今의 서책을 참고할 필요가 없이 새로운 형식으로 제작하도록 하였다.[41] 이는 기존 군영과 장용영의 차별성을 두면서 군영 자체에 새로운 기운을 넣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수기에는 '장용壯勇'이란 두 글자를 쓰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중국의 황제가 사용하는 제도로서 조선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조선이 건국된 직후 의흥삼군위의 용양위龍驤衛 대장기와 호분위虎賁衛 대장기가 이러한 형태였다.[42] 정조가 장용영 깃발에 대한 정식을 세운 것은 조선 초기 이성계가 건국을 하였듯이 장차 화성 축성을 통해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하겠다는 개혁 의지와 조선의 군세軍勢가 중국과 동등하다는 조선 문명주의가 깔려 있다고 하겠다.

37_ 『홍재전서』 권55, 잡저(雜著)2, 제어전친막제명첩(題御前親幕題名帖) 정미.
38_ 『홍재전서』 권55, 잡저2, 제어전친막제명첩 정미.
39_ 『홍재전서』 권29, 윤음(綸音)4, 장용외영군제변통윤음(壯勇外營軍制變通綸音).
40_ 『장용영고사』 권2, 경술 3월 10일.
41_ 『장용영고사』 권2, 경술 3월 10일. 당시 장용영병방의 기(旗)는 사방 1자 1치, 길이는 1자 8치이며, 파총의 기는 사방 1자 2치 5푼, 자루의 길이는 1자 8치 4푼, 선기장은 같고 초관의 기는 사방 1자 3치, 자루의 길이는 1자 8치 8푼이었다.
42_ 『정조실록』 권32, 정조 15년 5월 병신.



『기효신서(紀效新書)』(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명나라 절강의 참장(參將)으로 있던 척계광이 개발·정비한 무기의 제조법과 사용법, 훈련방법과 진형, 신호법 등을 정리한 책이다. 선조는 이 책을 입수하여 전법을 연구하도록 하였고 이후 조선의 군대전술 무기와 무예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에서는 기존의 내용을 보충하고 재구성해 목판으로 인쇄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흔히 『기효신서 조선본』이라고 부른다.

아울러 정조는 장용영의 창설을 통해 소외세력의 사회적 진출을 추진하였다. 특히 서북 지역 백성에 대한 깊은 배려와 서얼들에 대한 인재 발굴을 시도하였다. 정조는 장용영에 서북 지역민을 대거 등용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서북 지역 유민들의 구휼에도 참여하게 하였다. 1790년(정조 14) 2월 정조의 현륭원 행차 시 서북 지방의 유민 수십 명이 어가가 지나는 길옆을 지나가자 정조는 어가를 멈추고 위로하며 장용영에서 돈과 베를 주고 진휼청에서 증명첩을 주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43]

또한 정조는 장용영병방 유효원으로 하여금 서북 지역의 무사를 특별히 선발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때 병조판서 서유대가 서북 지역이 무예를 숭상하는 고향이었으나 최근 무예보다는 글공부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아 뛰어난 무인이 없다고 하자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무예를 육성하여 3개월 안에 다시 취재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서북무사 우대책을 추진하였다.[44]

정조의 서북무사에 대한 배려는 계속되었다. 1797년 6월 평안병영의 무사 중에서 철전鐵箭 모래들기[擧沙] 시예試藝 등을 시험 보이고 합격한 자들은 장용위에 차정差定하여 관마官馬를 지급하였다.[45] 그리고 이들을 도성으로 올라오게 하여 자신 앞에서 내시사례內試射禮를 거행하게 하였다. 당시 철전이었던 육량전六兩箭으로 시험과목을 정하였는데 영남무사들의 경우 육량전 120보步면 합격을 한 데 비해 관서무사들은 200보로 잡았다.[46] 그만큼 관서무사들의 활쏘기 능력이 탁월하였던 만큼 정조는 무예가 출중했던 관서 지역 무사들을 자신의 친위군영인 장용영에 소속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정조는 장용영의 초관哨官을 선발할 때 중인이나 서얼도 참여하게 하여 전례 없는 혜택을 입게 하였다. 이는 무예가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무변에 나갈 수 없는 소외세력을 끌어들여 인재 양성과 더불어 친위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47]

이처럼 장용영 창설은 왕권 강화를 위한 호위체제 구축과 더불어 균역법의 폐단으로 생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민생 개혁의 한 방편임과 동시에 소외세력을 등용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43_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2월 임술.
44_ 『정조실록』 권31, 정조 14년 12월 계술.
45_ 『장용영고사』 권7, 정사 6월 4일.
46_ 『장용영고사』 권7, 정사 6월 17일.
47_ 『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4월 경진. 서얼 출신으로 장용영의 초관이 된 대표적인 무관이 백동수다. 백동수는 이덕무, 박제가와 더불어 정조의 명에 따라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를 편찬하는 데 참여하였다.

2) 균역법 혁파를 통한 민생 안정

정조는 장용영을 설치하면서 궁궐의 호위를 위해서만이 아닌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라고 신료들에게 강조하였다.[48] 정조의 또 다른 뜻이란 바로 장용영을 통해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백성들의 고통이 왜 극심해지는지 폐단의 근원을 깊이 궁구하였다.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과 계획을 세웠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고려하여 경장정책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나온 정책은 바로 왕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정을 줄여 이 비용으로 새로운 군영인 장용영을 창설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49] 이와 같은 의도를 지니고 있던 정조는 아예 장용영 창설이 자신의 호위와 민생을 위한 고민의 결과였다고 선언하였다.

> 대개 새로 설치한 이 장용영은 실상 장용藏用이라는 은미한 뜻을 부친 것이니, 병사를 선발하여 왕궁을 엄중히 호위하게 한 것은 기문期門이나 우림羽林에 비할 뿐이 아니며, 둔전을 두어서 농사짓는 뜻을 부친 것은 나름대로 부병府兵의 유법遺法을 취한 것이다.[50]

정조가 이처럼 새로운 군영을 창설하여 민생 안정을 추구하는 군제 개혁을 시도한 것은 조선 후기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었던 군역 때문이었다. 군역으로 생긴 고통을 덜기 위해 균역법이 만들어졌으나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민생은 파탄 날 지경이었다. 그래서 정조는 장차 균역법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장용영을 만든 것이다.[51]

새로운 군영을 창설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정이 필요했고 이는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훈련도감이 생기자 포수砲手·살수殺手·사수射手의 군사들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세금으로 베 두 필을 징수했고,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이 창설되자 보미保米와 보포保布를 육도六道가 거의 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는 기존 오군영의 형태와 다른 구상을 하였던 것이다.

> 내가 또 영營 하나를 더 설치하면서 다른 영들이 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내가 몇 십 년을 두고 먼 안목으로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음을 써 온 본의가 아니다. 그리하여 나는 내탕전內帑錢으로 각도의 곡물을 사서 그곳에다 두고, 백성들에게서 많은 조세를 받아오던 내수사의 토지에 대해서도 그 요역과 부세를 경감하고 양서兩西에다는 그것으로 둔전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더 보태진 진상품이거나 상격賞格에 쓰이는 것들, 또는 정원 이외의 남아도는 액례, 격식에 틀린 군제軍制, 그리고 또 군대들에게 주어야 할 미곡이 선혜청에 저장되어 있거나 내수사가 지급해야 할 대금이 호조에서 나오는 것들을 혹은 바로 잡기도 하고, 혹은 그쪽으로 전속시키기도 하였다.[52]

즉 정조의 이와 같은 말은 장용영을 만들어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탕전의 비용과 둔전으로 장용영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백성들의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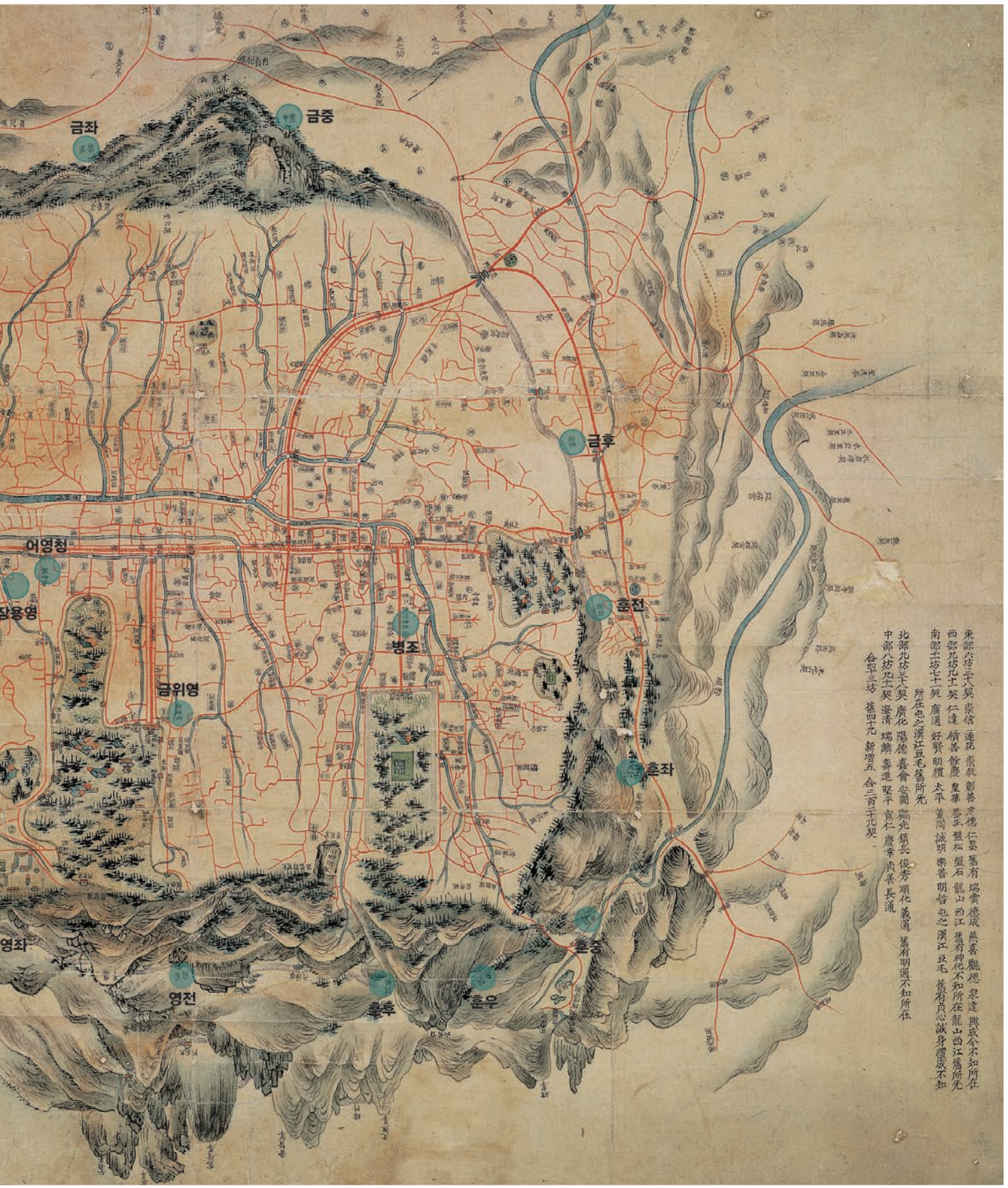
48_ 『정조실록』 권32, 정조 15년 5월 병신.
49_ 『홍재전서』 권168, 일득록(日得錄)8, 정사(政事)3.
50_ 『홍재전서』 권22, 제문(祭文)4, 장용영기제문(壯勇營旗祭文). "蓋此壯勇新營 實寓藏用徵意 旅嚴衛親 不啻期門羽林 寘屯寓農義 竊取府兵遺法."
51_ 『정조실록』 부록, 묘지문(墓誌文). 정조의 묘지문을 지은 이조참판 윤행임은 정조가 궁중 창고의 재정으로 따로 저축하여 기근 구제의 비용을 마련하고 장용영을 설치하여 균역법을 없애려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52_ 『홍재전서』 권13, 서인6, 익정공주고군려류서, 군제인.



오군영체제의 도성 방어체제

(「도성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도성 주변으로 삼군문의 담당구역을 각 군영별로 전후좌우중의 5부로 구분하고 있어 상세히 알 수 있다.


금좌
금중
금후
어영청
장용영
병조
훈전
금위영
훈좌
영좌
훈중
영전
훈후
훈우
東部六坊三十八契 崇信 通化 崇敎 彰善 崇德 仁昌 舊有 瑞雲 德成 慕喜 觀德 泉達 興盛 今不知所在
西部九坊九十契 仁達 積善 敦慶 皇華 養生 盤松 盤石 龍山 西江 舊有神化 不知所在 龍山 西江 舊所无
南部十坊七十契 廣通 好賢 明禮 太平 董閒 誠明 樂善 明哲 屯之 漢江 豆毛 舊有 貞心 誠身 德成 不知
所在 屯之 漢江 豆毛 舊所无
北部九坊三十契 廣化 陽德 嘉會 安國 德光 鎭長 俊秀 順化 義通 舊有 明通 不知所在
中部八坊九十契 蓼清 瑞麟 壽進 堅平 貴仁 慶幸 貞善 長通
合四十三坊 舊四十九 新增五 合三百三十九契

역과 부세를 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장용영의 환무미換貿米를 납부받을 때 곡물穀物을 가장 헐한 전세田稅와 대동미의 예에 따라 받도록 하였다. 이를 정식定式한 뒤에 부당하게 더 받으면 감봉장관監捧將官과 이배吏輩 모두에게 죄를 묻겠다고 하였다. 이 같은 조처는 군과 민 모두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정조의 의도였다.[53]

정조는 장용영의 둔전에 대한 민폐 여부를 담당자들에게 확인케 하고 요역과 부세의 분급량을 따져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재용이 늘 남아돌도록 하였다. 이처럼 자신이 장용영을 통해 백성들의 고통을 없애서 마침내 균역법을 혁파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언젠가는 알 때가 있을 것이라고도 하였다.[54] 장용영은 이를 위해 군비를 절감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장용영의 돈 4만 냥을 경기감영에 꿔 주어 현륭원 화소火巢 안에 있는 백성들의 전답 값을 보상해 주고 그 나머지로는 임금이 행차할 때 외탕고外帑庫의 경비 및 식목植木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하였다.[55]

정조의 이와 같은 의도와 실행으로 1800년(순조 즉위) 11월에 장용영에서 관할하는 황해도와 평안도의 곡식을 작전作錢하여 관서의 14만 1,000여 민과 해서의 4만 4,000여 민을 황해·평안 두 도의 민고民庫에 특별히 붙여 줄 수 있었다.[56] 또한 순조 즉위 초 사노비寺奴婢 혁파에 따른 재정적 손실도 모두 장용영의 재정에서 충당되었다.[57] 이를 통해 장용영의 설립이 정조의 의도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조는 장용영의 설치를 통해 오군영체제의 도성 방어체제를 조선 초기의 병농일치兵農一致를 통한 오위체제로 변경시키고자 하였다. 오위체제로의 전환은 앞서 균역법 혁파안과 일정 정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오군영체제가 확립되면서 군사의 수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양인들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신역과 요역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17·18세기에 군제변통론軍制變通論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군제변통이란 오군영이 불필요한 군액을 감축함으로써 이들 여정餘丁들이 지니고 있는 백골징포, 황구첨정 등 양역 폐단을 일시나마 완화시키고자 하는 변통책이다.[58]

하지만 이러한 군제변통론이나 균역법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당시 상황은 정조의 표현대로 "군영제도가 나타나 오위제도가 폐지되었으니 옛날과 지금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이 하늘과 땅처럼 현격할 뿐만 아닌데 농부가 밭을 갈아도 먹을 수가 없고, 아낙네가 길쌈을 해도 옷을 입을 수가 없게 된 지 이제 200년이 되었다."[59]고 할 정도로 민생이 어려웠는데, 정조는 이러한 이유가 바로 오위제도의 폐지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정조가 국방체제를 오위체제로 전환하고자 한 것은 오위체제가 병농일치를 통한 개병제皆兵制이기에 군역을 담당하는 양인이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군역 의무기간을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60] 정조

53_ 『정조실록』 권25, 정조 12년 4월 을사.
54_ 이렇게 하여 각 창고의 곡식이 총 43만 1,691석이었는데, 이를 관서·해서·호서·호남·영남·관동에 나누어 두었고, 3진(鎭)의 곡식은 총 9,948석이었는데, 매년 한 해에 들어오는 것으로 쌀은 2만 5,890석이고, 대두는 4,690석이고, 돈은 7만 8,895냥이고, 무명은 367동 19필이고, 삼베는 26동 25필이었다.
55_ 『정조실록』 권34, 정조 16년 윤4월 을해.
56_ 『국조보감』 권76, 순조 즉위년 11월.
57_ 『순조실록』 권2, 순조 1년 1월 을사.
58_ 정만조, 「조선후기 양역변통에 대한 검토 – 균역법성립의 배경」, 『동대논총』 7, 1997.
59_ 『홍재전서』 권29, 윤음4, 장용외영군제변통윤음.
60_ 백기인,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혜안, 2004, 121~125쪽.

가 생각하는 병농일치를 통한 장용영의 체제는 장용영 소속의 둔전에서 군사의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소속 부대에서 조련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취재를 통해 군사를 선발하고 이들에게는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군포가 아닌 둔전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급료를 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61]

정조는 균역법과 군제 개혁을 요구하는 양주익梁奏翊의 상소에 대한 답변으로 "병농을 합일시키자고 청한 조목으로 말하면, 어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는가. 매번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밤에도 벌떡 일어나곤 한다. 근일 장용영을 설치한 것으로 말하면, 먼저 한 쪽부터 해 보라는 주자朱子의 말을 내 나름대로 행해 보려 한 것인데,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경솔하게 말해서야 되겠는가?"[62]라고 답변하였다. 즉 병농일치를 위해 개혁의 시범으로 장용영을 설치하였는데 아직 시작 단계라 성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답변을 보더라도 정조가 얼마나 병농일치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조의 장용영 창설은 신해통공辛亥通共 같은 사회경제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1791년 신해통공책이 발표됨으로써 육의전이 갖고 있는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혁파하고 자유상인의 난전활동을 인정해 주었다. 당시 유통체제의 변화와 상인층의 분화현상을 초래케 하는 상업활동이 자행됨으로써 물화를 대량으로 매점매석하는 도고都賈 형태가 대두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앙등하였다.[63] 따라서 정조는 통공정책을 통하여 이들 도고상의 독점매매권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부 특권세력의 반대로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하였다. 실제 금난전권을 행사하는 시전상인들과 이들을 보호하는 각 군문과 특정 정치세력들이 결탁을 하였기 때문이다.[64]

따라서 각 군문과 시전상인의 결합을 통해 사회경제적 안정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재정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통공정책이 실시된 측면이 있다. 즉 장용영 창설을 통해 중앙 오군영과 시전상인의 결탁을 최소화하고 자유상인을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함께 내포되어 있었다.

61_ 『정조실록』 권46, 정조 21년 1월 경오.
62_ 『정조실록』 권43, 정조 19년 11월 신미.
63_ 변광석, 「18세기 난전·도고에 대한 정부의 상업정책」, 『지역과 역사』, 1996, 257쪽.
64_ 변광석, 「18세기 난전·도고에 대한 정부의 상업정책」, 『지역과 역사』, 1996, 273~274쪽.

SUWON HWASEONG

김준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02
장용영의 직제

1. 장용영의 개편과 직제의 성립

정조는 1782년(정조 6)에 호위기구를 개편하여 군제 개혁의 중추로 삼기 위해 무예 출신 및 무예별감의 장교를 지낸 경력이 있는 자 30인을 골라 명정전 남쪽에 근무하게 하였다. 그리고 1785년(정조 9) 9월에 무예별감 출신 30인에 추가로 20명을 더 선발하여 자신의 호위부대인 장용위를 창설하였다.[1]

장용위의 설치는 상대적으로 타 군영의 축소를 가져왔다. 신군新軍 창설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기존 군영의 급료와 직제를 이획시켰던 것이다. 훈련도감의 무예 출신만이 아닌 타 군영의 몇몇 과窠가 장용위로 넘어갔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희생을 본 것은 금군이었던 용호영이었다. 금군은 700명의 정원 중 100명을 장용위로 넘기고, 7번제에서 6번제로 바꾸는 제도상의 변화까지 있었다.[2]

장용위체제는 구선복 역모사건 직후 1787년(정조 11) 50인의 장용위를 좌우열 편제로 나누어 장용청으로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3] 이러한 명칭 변경과 개편은 정조의 왕권 강화를 위해 친위부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에 중앙 군영처럼 확대하기 전 단계로 소폭 개편한 체제였다.

장용청은 마침내 1788년(정조 12)에 장용영으로 확대 창설되었다. 장용영은 척계광의 남군南軍제도를 본받아 5개 사司에 25개 초哨를 두었는데 중사中司 5개 초는 서울에 있게 하고, 전사前司 5개 초는 수원에, 좌사左司 5개 초는 양성·용인·광주에, 우사右司 5개 초는 고양·파주·안산·과천·시흥에, 후사後司 5개 초는 지평·양근·가평·양주·장단에 있게 하였다.

1_ 『홍재전서』 권13, 서인6, 익정공주고군려류서(翼靖公奏藁軍旅類敍), 군제인(軍制引); 『장용영고사』 권1, 을사 7월 2일.
2_ 『만기요람』 군정편, 용호영 설치연혁.
3_ 장용위가 장용청으로 확대 개편된 근거는 『장용영고사』에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장용영고사』 권1, 정미 4월 7일의 기사 이후 장용청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1787년(정조 11) 4월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1793년 간행된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장용영의 제원을 기록한 요람 형식의 책으로, 장용영 제조 이하 관원들의 체제와 군제를 기술하여 중앙 오군영과 지휘체제가 다른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더불어 장교들의 승진에 대한 사항, 국왕을 알현할 때 복식, 장용영 내영 군사들의 집단거주지역과 그들이 청계천을 청소하는 업무 등 생활사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지고 있어 조선 후기 군제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장용위가 장용영으로 확대 개편된 이후 장용영은 해마다 인원을 늘려 가기 시작하였다. 정조는 기존 오군영의 인원을 장용영으로 이관하는 형태를 취하며 장용영의 규모를 확대시켰다. 이는 자신이 처음부터 강조하던 경장정책에서의 융정戎政 실현을 취하기 위함과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고자 함이었다.

처음 장용위는 마·보군 3초 정도의 소규모 부대였다. 하지만 장용영으로 명칭과 기능이 확대된 이후 계속하여 군액을 증가하다가 마침내 1793년(정조 17) 장용영 내외영제를 실시하면서 대폭적으로 군액을 증가하였다.

정조의 이와 같은 군액 증가로 장용영의 군제는 크게 마보군馬步軍이 기병인 선기대善騎隊의 좌·중·우 3초와 보군인 오사五司의 각 5초와 아병牙兵의 6초를 합한 34초와 각색各色 표하군標下軍이 839명으로 구성되었다. 3초의 선기대는 모두 345명으로 각 초는 115명으로 구성되었다. 경군京軍은 615명이며, 향군鄕軍은 2,540명, 사후군伺候軍은 52명, 공장아병工匠牙兵 26명, 치중복마군輜重卜馬軍 40명, 배봉아병拜峯牙兵 245명, 고성아병古城牙兵 439명, 노량아병露梁牙兵 144명으로 장용영의 군사 총인원은 5,245명이다.[4]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에 편제된 5초의 군사들을 직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뇌자牢子는 118명으로 1782년(정조 6)에 장용위를 만들 당시 훈련도감의 기예군技藝軍 15명을 이관시켜 창설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 인원을 보충하여 1793년(정조 17)에 38명을 보충함으로써 군액을 편성하였다. 뇌자는 46명이 입번入番하여 군무에 임하고 대장소大將所에 43명과 도제조소都提調所에 10명과 향색제조소餉色提調所에 7명과 종사관소從事官所에 5명과 서패書牌에 2명과 복마군卜馬軍에 5명이 소속되었다.[5] 순령수巡令手는 115명으로, 뇌자와 마찬가지로 1782년(정조 6)에 훈련도감의 기예군 15명을 장용위로 옮겨 와 창설하였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초기 장용영 군액은 훈련도감으로부터 이관된 군인으로 보아야 한다. 순령수 역시 장용영 내외영제가 실시되는 1793년(정조 17)에 38명을 보충하여 인원이 구성되었다.[6] 취타吹打와 세악細樂을 담당하는 취고수吹鼓手는 95명으로 1787년(정조 11) 21명으로 창설하여 1793년에 49명을 보충하였다. 위의 뇌자와 순령수는 인원수의 반 정도가 입번을 하는 데 반해, 취고수는 95명 중 88명이 입번을 하여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서패와 복마군에 군무를 하고 있다.[7] 대기수大旗手는 100명으로 1787년(정조 11)에 28명을 창설하여 1790년(정조 14)에 23명을 보충하고, 1793년(정조 17)에 49명을 보충하여 인원을 구성하였다. 대기수 역시 취고수와 마찬가지로 100명의 인원 중에서 93명이 입번을 하고 나머지 7명이 서패(2명)와

4_ 『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장용영대절목』의 군제 내용을 통한 전체 군사를 세분화할 경우 총인원이 5,284명으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5_ 『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6_ 『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7_ 『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복마군(5명)에 근무하고 있다.[8] 당보수塘報手는 66명으로, 장용위에서 장용영으로 확대되는 1788년(정조 12)에 새로 보강되었다. 이때 16명을 창설하여 1793년(정조 17)에 43명을 보충하여 인원이 구성되었다. 당보수는 화전군火箭軍 10명과 겸별파진兼別破陣 23명에 인원이 배치되는 등 기존에 설치되었던 군액들과는 배치가 달랐다.[9] 등롱군燈籠軍은 60명으로, 역시 장용영으로 확대되는 1788년(정조 12)에 16명을 창설하여 1790년(정조 14)에 9명을 보충하고 1791년(정조 15) 6명, 1793년(정조 17) 29명을 보충하였다. 장용영 내에 입번하는 인원 26명과 도제조소都提調所 10명과 향색제조소餉色提調所 5명과 대장소 15명과 서패 2명과 복마군 2명으로 구성되었다.[10] 장막군帳幕軍은 50명으로 1787년(정조 11)에 13명으로 창설하여 1788년(정조 12)에 4명을 보충하고 1790년(정조 14) 6명, 1792년(정조 16)에 2명, 1793년(정조 17)에 25명을 보충하였고 서패 2명과 복마군 7명이 포함되어있다.[11] 아병(牙兵)은 장용영의 본진에서 대장을 수행하는 군사로서 5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1787년(정조 11)에 20명으로 창설하여 1788년(정조 12)에 7명을 보충하고 1793년(정조 17)에 30명을 보충하였다. 입번 32명과 대장소 20명과 서패 2명과 복마군 3명으로 구성되었다.[12] 별장표하군別將標下軍은 40명으로, 1791년(정조 15)에 31명으로 창설하여 1793년(정조 17)에 9명을 증설하였다.[13] 사사파총표하군四司把摠標下軍은 120명으로, 1788년(정조 12)에 12명으로 창설하여 1789년(정조 13)에 52명, 1793년(정조 17) 56명을 보충하였다.[14] 선기장표하군善騎將標下軍은 18명으로, 1788년(정조 12)에 10명으로 창설하여 1791년(정조 15)에 2명, 1793년(정조 17)에 6명을 보충하였다. 선기대善騎隊는 3초만 있기 때문에 초당 각각 6명으로 구성되었다.[15] 선기대는 3초 345명으로, 초당 115명씩이다. 서패는 각 1명씩으로 좌초左哨는 마재馬才로 뽑아 정하고 중초中哨와 우초右哨는 기예技藝로 선발하였다. 1787년(정조 11)에 27명으로 창설하여 1788년(정조 12)에 88명, 1791년(정조 15)에 115명, 1793년(정조 17)에 115명을 보충하여 총 345명으로 정해졌다.[16] 중사中司의 오초는 615명이니, 초당 123명씩으로 1787년(정조 11)에 전일초前一哨를 창설하고 1788년(정조 12)에 중초와 후초의 2초를 보충하고 1793년에 좌초와 우초를 보충하였다. 특이한 것은 경군京軍의 번성한 자손 및 군역軍役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복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뒤를 이을 16세 미만의 남자인 대년군待年軍으로 뽑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17] 전·좌·우·후사의 20초는 2,540명으로 매초에 127명으로 구성되었다. 1788년(정조 12)에 1초를 창설하고 1789년(정조 13)에 1초를 보충하고 1790년(정조 14)에 8초를 창설하고 1793년(정조 17)년에 10초를 창설하였다.[18] 사후군伺候軍은 52명으로 장정을 뽑아 입역立役하는데, 초관청에 19명과 지구관청知殼官廳 9명과 통장청統長廳 2명과 교련관청教鍊官廳 20명과 장용위청壯勇衛廳 2명으로 하며, 원군元軍에 결원이 생기면 차례에 따라 승

8_『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大旗手一百名[丁未拶二十八名 庚戌加二十三名 癸丑加四十九名]內入番九十三名書牌二名卜馬軍五名爲白齊."
9_『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10_『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11_『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12_『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13_『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14_『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15_『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16_『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17_『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18_『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표 1> 장용영의 군영 직제[19]

직제 \ 연도	1782	1785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계
뇌자(牢子)	15	15		22	5	9	5	9	38	118
순령수(巡令手)	15	15		18	5	9	5	10	38	115
취고수(吹鼓手)			21			25			49	95
대기수(大旗手)			28			23			49	100
당보수(塘報手)				16			7		43	66
등롱군(燈籠軍)				16		9	6		29	60
장막군(帳幕軍)			13	4		6		2	25	50
아병(牙兵)			20	7					30	57
별장표하군(別將標下軍)							31		9	40
사사파총표하군(四司把摠標下軍)				12	52				56	120
선기장표하군(善騎將標下軍)				10			2		6	18
선기대(善騎隊)			27	88			115		115	345
중사 오초(中司五哨)			123	246					246	615
전·좌·우·후사이십초 (前·左·右·後司二十哨)				127	127	1,016			1,270	2,540
사후군(伺候軍)										52
공장아병(工匠牙兵)										26
치중복마군(輜重卜馬軍)										40
별중사표하군(別中司標下軍)										58
별중사아병(別中司牙兵)										381
별후사표하군(別後司標下軍)										23
별후사아병(別後司牙兵)										222
별아병장표하군(別牙兵將標下軍)										23
별아병장아병(別牙兵將牙兵)										120
합계	30	30	232	566	189	1,097	169	21	1,888	5,284

격시키도록 하였다.[20] 공장아병工匠牙兵 26명은 대장간에 소속하는데 책임자인 도편수 1명이 주관하도록 하였고, 치중복마군輜重卜馬軍 40명은 확실한 내력과 주소가 있는 한정閑丁으로 뽑아 정하여 값을 더 주고 입마立馬하게 하고 기총旗摠 1명은 그중에서 선발하도록 하였다.[21] 별중사別中司의 표하군은 58명인데 진에 속한 백성으로 뽑아 정하고, 아병 3초는 381명으로 역시 인근에 사는 백성에서 뽑도록 하였다. 그리고 별후사別後司의 표하군은 23명인데, 별중사 표하군과 마찬가지로 진에 속한 백성에서 뽑도록 하였으며, 아병 2초는 222명으로 역시 부근에 사는 백성에서 뽑도록 하였다. 아울러 별아병장別牙兵將의 표하군은 23명인데 역시 진에 속한 백성에서 뽑아 정하고, 아병 1초는 120명인데 역시 부근에 사는 백성에서 뽑아 정하도록 하였다.

19_『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20_『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21_『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장용영은 명나라 척계광의 남군제도를 본받아 5사에 각기 5초를 두는 것으로 규례를 삼았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척계광의 군사제도를 본받는 데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훈련도감의 군사제도를 따랐던 것이다.[22] 하지만 당시 수어청은 1초의 인원을 125명으로 하였는데, 장용영은 127명을 1초의 인원으로 삼기로 하였다.[23]

물론 정조는 장용영을 통해 오위체제로 복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여 화성에 주둔하고 있는 장용외영에서 오위체제의 군사체제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도성을 호위하는 장용영 내영의 체제는 훈련도감을 비롯한 기존의 오군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24]

하지만 장용영 내영은 3초의 선기대 외에 오사체제로 구성되었다. 이는 기존의 장용위 당시 창설된 선기대善騎隊 외에 오사체제를 추가로 창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제 도성을 지키는 장용영 내영은 선기대와 중사 5초가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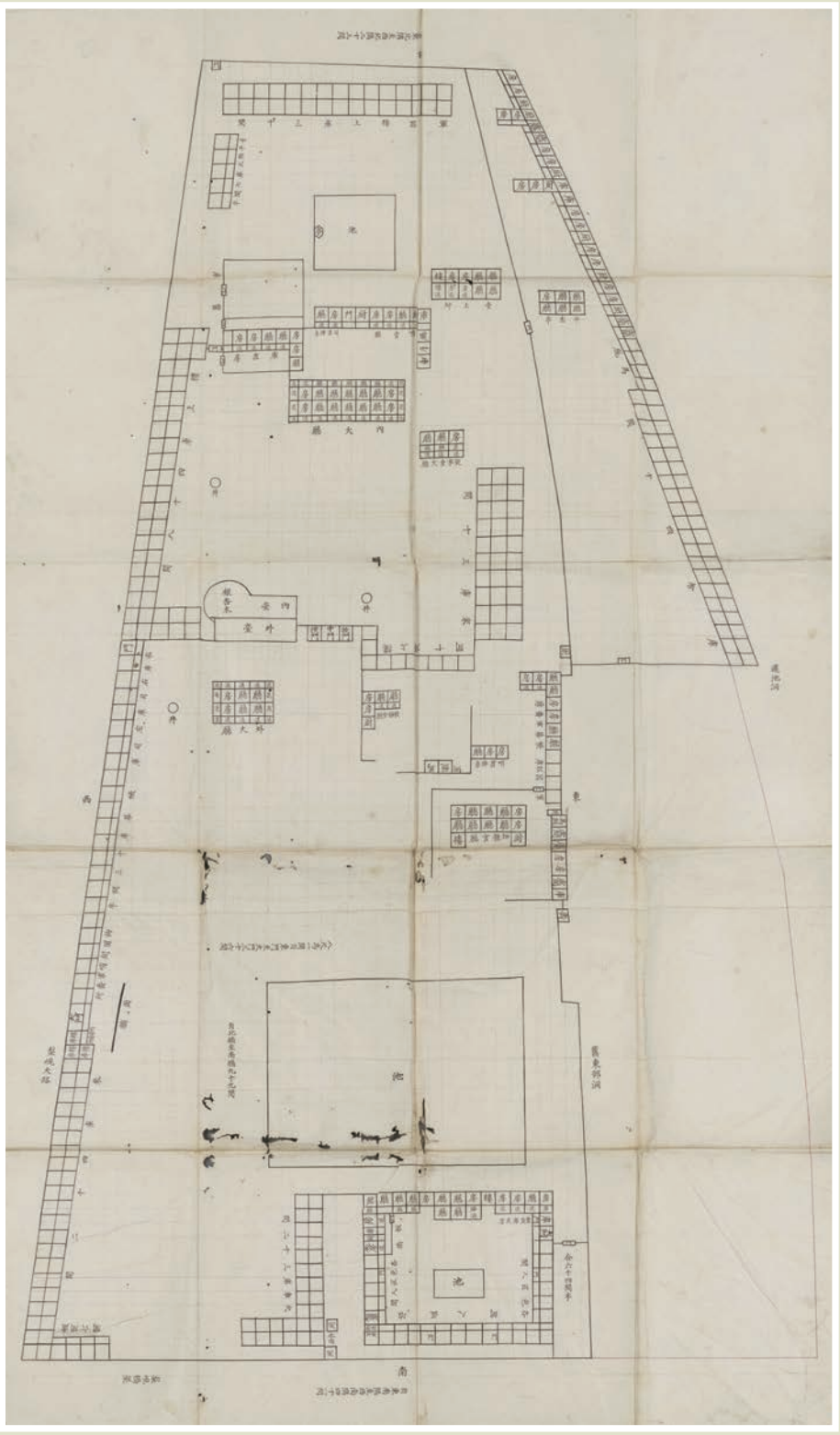
장용영의 선기대 3초는 초마다 115명으로 하였다. 115명의 편제는 정규군인 90명, 기총旗摠 3명, 대장隊長 9명, 서자적書字的 1명, 패두牌頭 1명, 고수鼓手 1명, 인기수認旗手 1명, 화병火兵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편제 구성은 1787년(정조 11)에 처음 27명을 선발하여 장용영에 두기 시작해서 1788년(정조 12)에 88명을 증원하여 처음으로 좌초를 만들게 되었다. 이후 1791년(정조 15) 우초를 확대하고 1793년(정조 17)에 중초를 늘린 결과였다.[25]

중사 5초는 도성에 있었는데 초마다 123명으로 총 615명이다. 선기대와 마찬가지로 정규군인 90명, 기총 3명, 대장 9명인데 복마군卜馬軍이 선기대보다 9명이 많았다. 1787년(정조 11)에 전초를 처음 창설하고 1788년(정조 12)에 중초와 후초를 늘렸다. 그리고 1793년(정조 17) 좌초와 우초를 늘렸다. 전사 5초는 수원에 있었는데, 1789년(정조 13)에 장헌세자의 영우원을 수원도호부로 옮겨 현륭원을 조성하고 이를 호위하기 위하여 5초를 처음으로 창설하였다. 정조는 현륭원의 행차를 정례로 삼아 매년 한 차례 마련하였는데, 한양 각 영문의 군병이 여러 날 동안 수가隨駕하는 폐단이 있기에 한강 밖에서 군병들을 교체하기 위해 수원에 5초를 설치하였다.[26] 그리고 수원부 공청公廳 건립과 더불어 전목錢木을 보관하는 장용영전목고壯勇營錢木庫를 지어 설치하였다.[27] 전사 5초를 수원에 주둔시킨 이후 수원 인근을 강화하기 위해 1793년 이후 수원 인근에 좌사를 설치하여 진위·양성·용인·광주에 주둔하였다. 즉 전초는 진위에 있고, 좌초는 양성에 있고, 중초는 용인에 있고, 우초와 후초는 광주에 두었다. 우사는 1788년(정조 12)에 2초를 창설했는데 우초를 고양, 후초를 파주에 두었다. 이후 3초를 1793년(정조 17)에 증설했는데, 전초는 안산, 좌초는 과천, 중초는 시흥에 설치하였다. 후사는 1788년(정조 12)에 3초를 창설했는데, 전초는 지평에 있고, 좌초는 양

22_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 – 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변동」, 혜안, 2003, 78~79쪽.
23_ 『장용영고사』 권1, 무신 7월 19일, 장용영신제향군절목(壯勇營新制鄕軍節目).
24_ 『홍재전서』 권13, 서인6, 익정공주고군려류서, 군제인.
25_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병오.
26_ 『장용영고사』 권2, 기유 11월 18일.
27_ 『장용영고사』 권2, 경술 5월 7일.



「**본영도형**」(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장용영의 서울 본영을 상세히 그린 대형 채색 그림으로, 주요 지휘소와 막사, 무기와 군수품 창고, 연못 등 건물 깊숙한 곳의 공간구성, 창호의 형태 등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799년 장용영의 서울 본영을 상세히 그린 「본영도형」(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근과 가평에 나뉘어 있고, 중초는 양주에 두었다. 우초와 후초는 1793년(정조 17)에 증설했는데 우초는 양주에, 후초는 장단에 두었다. 장용영 내영의 편제는 〈표 2〉와 같다.

<표 2> 장용영 내영 편제[28]

장용영	편제	주둔 지역	건립시기	인원(명)
선기대	전초	한성부	1788년(정조 12)	115
	후초			115
	중초			115
중사	전초	한성부	1787년(정조 11)	123
	후초		1788년(정조 12)	123
	중초		1788년(정조 12)	123
	좌초		1793년(정조 17)	123
	우초		1793년(정조 17)	123
좌사	전초	진위	1793년(정조 17)	127
	후초	광주		127
	중초	용인		127
	좌초	양성		127
	우초	광주		127
우사	전초	안산	1793년(정조 17)	127
	후초	파주	1788년(정조 12)	127
	중초	시흥	1793년(정조 17)	127
	좌초	과천	1793년(정조 17)	127
	우초	고양	1788년(정조 12)	127
전사	전초	수원	1789년(정조 13)	127
	후초			127
	중초			127
	좌초			127
	우초			127
후사	전초	지평	1788년(정조 12)	127
	후초	장단	1795년(정조 17)	127
	중초	양주	1788년(정조 12)	127
	좌초	양근, 가평	1788년(정조 12)	127
	우초	양주	1795년(정조 17)	127

이와 더불어 장용영은 1789년(정조 13)에 배봉둔拜峯屯 군병을 설치하였다. 배봉둔은 1789년 10월까지 정조의 생부인 장헌세자의 영우원이 설치되었던 곳이었다. 영우

28_ 이 표는 『장용영대절목』과 『정조실록』, 『장용영고사』를 합쳐 정리한 것으로, 이태진의 연구(이태진, 「18세기 왕정과 삼군문 도성수비체제 및 친위군영」, 『조선후기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277쪽, 〈표 2〉 장용내영 편제)에서는 선기대를 전사로 보아 5사로 정리하였다. 하지만 이 표에서도 전사에 대한 구체적 창설시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장용영고사』에서 1793년 부분이 아예 빠져 있고 『장용영대절목』과 『정조실록』의 기사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조실록』의 정조 17년 1월 병오 기록에서 나타난 장용영의 확대된 내용에서 이 연도를 넘어 1795년의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장용영대절목』의 기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두 부분을 『장용영대절목』을 우선으로 하고, 『정조실록』을 참조하여 장용영의 편제를 파악하였다.

원은 1762년(영조 38)에 처음 원을 조성하여 1789년(정조 13)까지 27년간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 격이 다른 지역과 전혀 달랐다. 당연히 식목을 하는 것조차도 나무꾼에게 맡길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래서 특별히 둔전을 설치하고 장용영에서 주관하게 하여 구근久勤의 자리로 별장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29]

그리고 배봉둔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봉진 아래와 부근의 사람들 중에 신역身役을 원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모아 배봉아병拜峯牙兵 2초를 만들었다. 1초의 인원은 115명으로 도합 230명의 군안軍案을 만들었다. 배봉진의 장교는 병방군관兵房軍官 1명, 아병장牙兵將 2명, 부료군관付料軍官 2명, 기패관 1명이며, 원역員役은 진의 서원書員 1명, 군기서원軍器書員 1명, 창고직倉庫直 1명, 둔고직屯庫直 1명, 통인通引 2명, 배사령陪使令 2명, 기수旗手 4명, 취수吹手 8명, 산직山直 2명, 동산직東山直 1명, 청령군聽令軍 1명, 시수군柴水軍 2명 등 245명으로 규정하였다.[30]

장용영을 확대하기 위해 훈련도감의 별기군·난후초攔後哨와 군기시의 별파진別破陣 등을 감액하여 장용영으로 이속시켰고,[31] 『장용영신정향군절목壯勇營新定鄕軍節目』을 작성하여 수어청 15초의 둔아병屯牙兵 중에서 초마다 25명씩 줄여서 장용영의 좌·우·후초를 만들었다.[32]

이를 보면 애초부터 장용영이 새로운 군사력으로 창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 군영의 군병 중에서 일부를 이속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자연히 지금까지의 오군영을 중심으로 한 군문세력軍門勢力의 체제를 다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33]

더구나 장용영의 군사가 궁성문을 수위하는 무예청武藝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 자리를 따로 선발하지 않고 훈련도감의 군사 중에서 이력이 분명하고 기예가 능한 사람으로 정하여 장용영 군사로 삼도록 하였다.[34] 이는 훈련도감의 출중한 인원을 장용영으로 보낸다는 명목 아래 자연스럽게 훈련도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2. 장용영의 직제 구성

정조는 장용영으로 확대 개편한 후 기존의 오군영체제와는 다른 관직 임용체계로 구성하였다. 오군영의 경우 국왕이 대장을 임명한 이후 중군中軍 이하 무반들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군영대장과 협의하여 자천自薦하였던 것을 영조 대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병조로 이관하여 삼망三望에 의해 선발하였다. 하지만 장용영은 대장의 의도에

29_ 『장용영고사』 권2, 기유 12월 3일.
30_ 『장용영대절목』 권1, 군제.
31_ 『정조실록』 권25, 정조 12년 1월 을유.
32_ 『정조실록』 권25, 정조 12년 7월 기묘, 장용영.
33_ 장필기, 『조선후기 무반벌족가문 연구』, 집문당, 2004, 71쪽.
34_ 『장용영고사』 권1, 무신 8월 25일.



『장용영고사(壯勇營故事)』(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장용영에 관한 다양한 기록을 일별로 필사한 책이다. '고사(故事)'란 "옛날부터 전해 오는 유서 깊은 일과 규칙이나 정례"를 말하는 것으로, 장용영의 전신인 장용위가 창설되는 1785년(정조 9)부터 혁파되기 직전인 1800년(정조 24) 4월 17일까지 17년 동안의 여러 사실들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따라 거의 대부분 단망單望으로 국왕에게 보고한 이후 임명하는 파격적 체제였다. 이러한 장용영의 관직은 정조의 친위군영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장용영은 군사를 선발할 때 군사들의 용모와 풍채, 출신, 족파族派 등을 검사하여 최종적으로 선발하였다. 이러한 선발 기준은 장용영 내외영제가 실시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장용외영의 현륭원 수원군守園軍과 기병인 친군위를 선발할 때에도 적용시켰다. 따라서 이들은 정조에 의해 실시되는 별시別試에 무과 초시에 대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응시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35]

우선 오군영과 유사한 도제조都提調와 제조提調의 관직을 각기 1자리와 2자리를 만들었다. 도제조는 장용영이 화성유수부의 신설로 내·외영체제로 정비되는 1793년(정조 17)에 신설되었다.[36] 대신 중에서 현직의 호위대장扈衛大將[37]을 지낸 사람을 겸직하게 하여 이조로부터 1명을 추천받아 국왕의 결재 후 임명하도록 하였다.[38] 대신 중에서 호위청대장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 한정한 것은 타 군영과 다른 점인데, 이는 한편으로 인조 때부터 있어 온 호위청을 폐지하여 장용영으로 합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조는 2명을 선발하는데, 장용영으로 확대 개편되는 1788년(정조 12)에 만들어졌

3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계사, 을묘 2월 7일.
36_ 『장용영대절목』 권1, 관직.
37_ 호위대장은 국왕의 호위를 관장하는 호위청의 주장으로 원임대신(原任大臣), 시임대신(時任大臣), 국구(國舅) 중에서 선임하였다.
38_ 『장용영대절목』 권1, 차제(差除).



『**촬요(撮要)**』(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장용영의 관직, 편제, 훈련, 활쏘기 연습, 활쏘기 시험, 각종 활쏘기 시행요령, 군마관리규정, 시험요령, 선발규정 등 그 설치·편제·운용을 정리 수록한 휴대용 업무지침서이다.

다.[39] 제조 2명 중 1명은 장용사壯勇使가 겸직을 하기 때문에 실제 1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조는 장용영의 군수와 급료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현직 호조판서가 이조에서 3명을 추천받아 국왕으로부터 낙점落點을 받아 임명하였다.[40] 장용영 제조는 장용영에서 지출하는 돈과 곡식을 주관하기 위하여 선혜청宣惠廳 공사제조公事提調가 겸직하도록 하였다.[41] 장용영 제조가 하는 일은 무척이나 다양하였다. 장용영에서 처음 기록한 국왕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비롯하여 각 둔이 곡물을 거두지 않아서 연기하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고을 수령의 죄의 경중을 조사하기도 한다. 또한 이획移劃한 곡물을 조정에 바칠 때 쌀과 콩이 부족하거나 조세 운반선의 곁꾼[船格]들이 잔꾀를 부리는 일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다스리는 등 장용영의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42]

사使는 1명으로 1785년(정조 9)에 병방兵房으로 만들었는데, 1793년(정조 17)에 장용영 내외영제로 개편되면서 칭호를 장용사壯勇使로 고쳤다.[43] 장용사는 일찍이 장신將臣을 지낸 사람으로 호위대장을 차출하는 규정에 의하여 종사관이 승정원에 보고하면,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보고하고 국왕의 특지에 의해 선발하였다.[44] 다시 말해 국왕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을 선정한 것이다. 장용사는 군사를 거느리는 중책이기 때문에

39_ 『장용영대절목』 권1, 관직.
40_ 『장용영대절목』 권1, 차제.
41_ 『정조실록』 권26, 정조 12년 8월 기유.
42_ 『장용영고사』 권1, 무신 8월 22일.
43_ 『장용영대절목』 권1, 관직. 12월 10일.
44_ 『장용영대절목』 권1, 차제.

인망이 없고 자급이 낮은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 하여 장수의 경력이나 아장亞將인 포도대장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뽑도록 조치하였다.[45] 그리고 내외영제 실시 이후 어영청의 어영사御營使를 대장으로 칭하는 구례舊例에 의하여 장용영 내의 문서에 대장으로 칭호하고 군색제조軍色提調의 역할을 겸직하게 하였다. 장용영병방은 금위영과 어영청, 수어청의 대장들이 체직이 되었을 시 각 군영대장을 겸찰하여 군영을 통솔하기도 하였다.[46] 이는 중앙 오군영보다 한 단계 높은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종사관從事官은 1명을 선발하는데, 1791년(정조 15)에 설치되었다.[47] 음관으로서 일찍이 군수 이상을 지낸 사람으로 명확한 출신 지역과 이력이 있는 사람을 장용영의 제조가 3명 추천하여 국왕으로부터 낙점을 받아 임명하였다. 다른 호칭으로 군향색軍餉色 종사관이라 불리기도 한다.[48]

별장別將은 1명으로, 종사관과 마찬가지로 1791년(정조 15)에 설치되었다.[49] 장용영병방 김지묵은 각 군문軍門의 별장을 훈련도감에서는 아장亞將 이하, 금위영과 어영청에서는 병사兵使 이하에서 추천하였으니 장용영에서도 별장의 자리를 만들고 이력과 정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50] 정조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별장은 일찍이 포도대장 및 훈련도감의 중군이나 금군별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장용영의 대장이 1명을 추천하여 국왕에게 직접 고하여 승인을 받았다.[51]

인조 대 오군영체제가 확립된 이후 군영대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승진과정이 정해져 있었다. 즉 각 군영의 중군을 역임한 후 외직의 무반을 거쳐 금군별장을 역임하고 이후 포도대장이나 군영대장으로 임명되는 것이었다.[52] 이와 같은 무반 승진과정에서 장용영의 별장을 훈련도감의 중군이나 금군별장을 역임한 무반을 임명하는 것은 장용영의 격식이 중앙 오군영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용영에서는 직분에 따른 위계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예규禮規를 절목에 기재하게 하였는데 별장을 새로 임명하게 되면 파총이 가서 알현하고 반드시 면회를 청하여야 하며, 길에서 서로 만나면 말에서 내려 경어를 써서 말을 하고 서로 절을 할 때 파총이 먼저 별장에게 절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별장이 장용영에서 사謝와 강講을 할 때 일찍이 포도대장을 거친 자는 사와 강을 면제하도록 하였다.[53]

파총은 5명으로 1788년(정조 12)에 2자리를 만들고, 1789년(정조 13)에 1자리를 증설하였다. 이후 1793년(정조 17) 장용영 내외영제로 개편되면서 2자리를 더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1자리는 화성유수부의 외영 몫이었다.[54] 장용영의 파총은 비록 중앙 오군영의 선발과정과 달리 지역에서 근무하던 장수라도 능력이 있으면 장용대장의 3망 추천 중에서 1명을 국왕의 특지로 선발할 수 있었다. 다만 수원의 파총은 무반으

45_ 『정조실록』 권32, 정조 15년 5월 병신.
46_ 『장용영고사』 권3, 임자 3월 12일.
47_ 『장용영대절목』 권1, 관직.
48_ 『장용영대절목』 권1, 차제.
49_ 『장용영대절목』 권1, 관직. 별장일원(別將一員) 신해창(辛亥牕).
50_ 『장용영고사』 권2, 신해 5월 29일.
51_ 『장용영대절목』 권1, 차제.
52_ 배우성, 「정조의 군사정책과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배경」, 『진단학보』 91, 2001, 228쪽.
53_ 『장용영고사』 권7, 정사 윤6월 12일.
54_ 『장용영대절목』 권1, 관직.

로 당상관 이상의 이력을 지닌 사람을 선발하여야 했다.[55] 당시 수어청과 총융청의 파총은 5품 이상, 훈련도감의 파총은 정3품과 당상의 정3품에서 강자降資된 사람 중에서 선발하였다. 이처럼 파총은 그 군영의 지위에 따라 임명되는 직급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정조는 각각 군영의 파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장용영 파총의 경우 당상은 변지첨사邊地僉使 이하를 역임한 자로서 차출하고, 당하는 3품을 지내지 않은 자 중에서 특교特敎가 있으면 선발하도록 하였다.[56]

당시 장용영을 제외한 군영에서는 천총千摠을 반드시 두었는데, 정조는 이 제도를 장용영에 적용하지 않았다. 군서軍書의 오영오사五營五司제도에 파총으로 하여금 영장營將을 잇게 하고 있으며, 조선 고유의 오위제에도 여수旅帥와 대정隊正의 위·아래에는 부장部將과 위장衛將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굳이 천총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정조는 각 영의 천총을 없애 쓸모없는 군액을 줄여 군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총의 제도를 없애고 파총으로 대신한 것이다.[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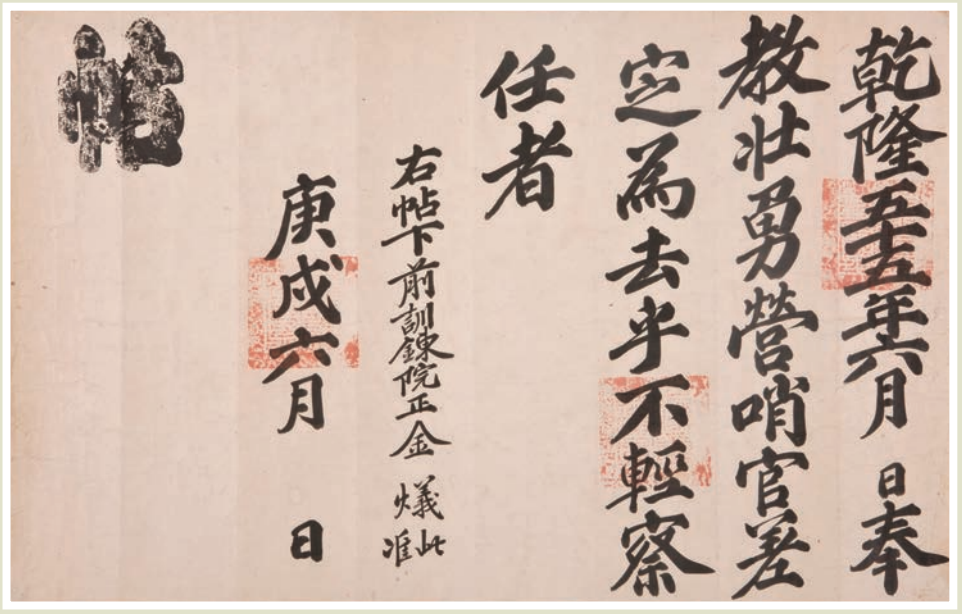
한편 정조는 특교로 임명할 수 있는 장용영 파총에 충신들의 후손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병자호란 당시 활약했던 충민공忠愍公 임경업林敬業의 후손인 임태원林泰園을 장용영 파총으로 특별히 승차陞差하고 군장軍裝과 마필馬匹을 하사하였다. 정조는 관례를 벗어나 특별히 임태원을 승차시키는 것이 충민공 집안을 위해서라고 하였으나[58] 이는 충신을 우대함으로써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장용영의 핵심 지휘관인 파총의 선발 폭을 당상 이상 급으로 높이면서도 인사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인조 대 이후 무반을 장악하고 있는 무반벌열의 장수들보다는 정조에게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무반을 선발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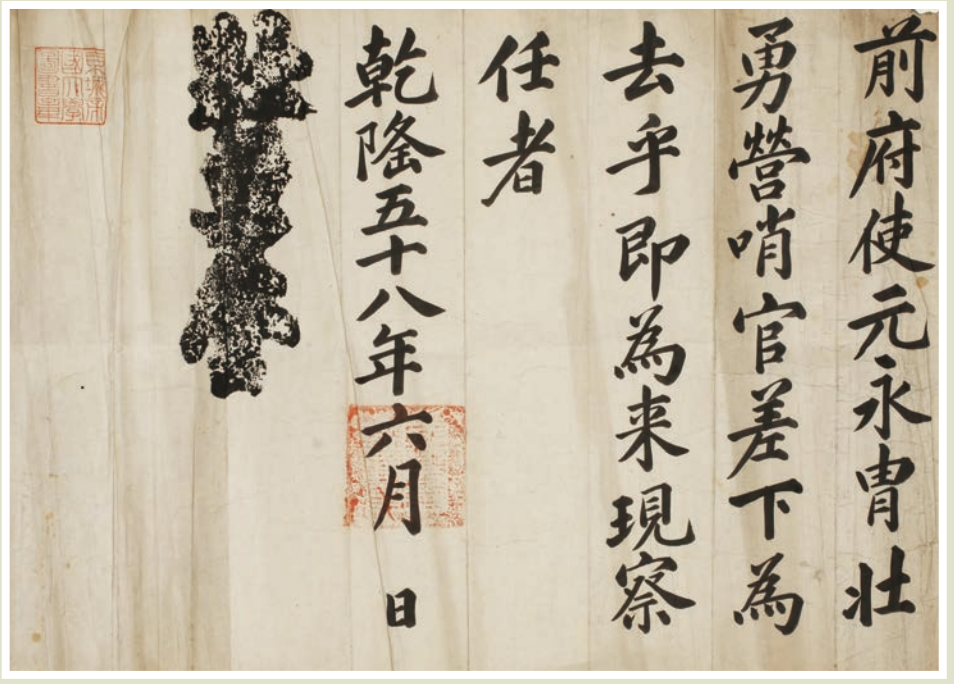
선기장善騎將은 선기별장이라고도 하며 3명으로, 1787년(정조 11)에 처음 한 자리를 설치하였으며, 1791년(정조 15)에 한 자리, 1793년(정조 17)에 한 자리를 증설하였다.[59] 선기장은 마병 조직인 선기대善騎隊의 우두머리로서 해당 초의 장령將領 또한 선기장이라 칭하였는데,[60] 일찍이 변방 지역 및 중앙과 지방의 장수를 지낸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용대장이 1명을 추천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여 벼슬을 임명하였다.[61]

초관哨官은 25명을 선발하였으며, 1787년(정조 11)에 처음 1자리를 만들었다. 이듬해인 1788년(정조 12)에 5자리를 증설하고, 1789년(정조 13)에 7자리를 증설하였으며, 1793년(정조 17)에 12자리를 증설하였다. 이 중 5자리는 수원 출신으로 선발하도록 하였다.[62] 초관은 일찍이 당하관 정3품 이하 및 천거가 있는 출신인으로서, 장용대장의 천거로서 국왕에게 보고하고 벼슬을 주는데, 이 역시 1명씩 천거하였다. 전사前司 5자리는 수원에 살고 천거가 있으며, 예전에 조관朝官의 참상參上·참하參下 출신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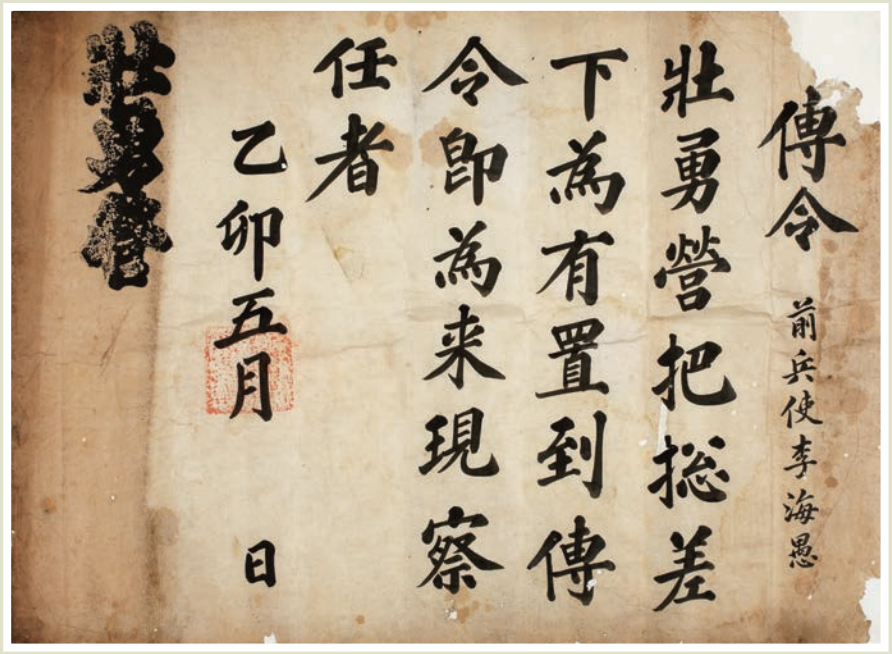
55_ 『장용영대절목』 권1, 차제.
56_ 『장용영고사』 권1, 무신 8월 17일.
57_ 『장용영고사』 권2, 신해 5월 22일.
58_ 『장용영고사』 권2, 기유 5월 26일.
59_ 『장용영대절목』 권1, 관직.
60_ 『장용영고사』 권2, 신해 5월 29일. 정조는 1790년(정조 14)에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면서 장헌세자가 편찬했던 『무예신보』의 18가지 지상무예에 6가지 마상무예를 추가하였다. 정조가 복구하고자 했던 오위체제는 기병을 중시하는 군사체제로서 정조는 마상무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용영에서 편찬하고 장용영 군사들에게 익히게 했던 『무예도보통지』의 무예인 마상무예를 실제 전술화하기 위해 장용영의 기병부대인 선기대를 확대한 것이다.
61_ 『장용영대절목』 권1, 차제.
62_ 『장용영대절목』 권1, 관직. 장용영 외영 역시 1793년 독자적인 영으로 승격하였기 때문에 기존 수원 지역을 방비했던 총융청 소속의 보군 26초 중에서 절반인 13초를 정병으로 만들어 화성에 주둔케 하고, 용인·안산·진위·시흥·과천 등 5읍의 군병을 이속시켜 5읍의 속오군 중에서 정장(精壯)한 자들을 추려 내어 12초를 더 만들어 도합 25초를 만들었다. 이에 장용영 내영과 똑같이 1영(營) 5사(司)의 제도를 만들었다. 장용영 내영의 초관 중 5명을 수원 출신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현륭원이 있는 수원을 우대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乾隆五十五年六月 日奉
教壯勇營哨官差
定為去乎不輕察
任者
右帖下前訓鍊院正金 爗 此准
庚戌六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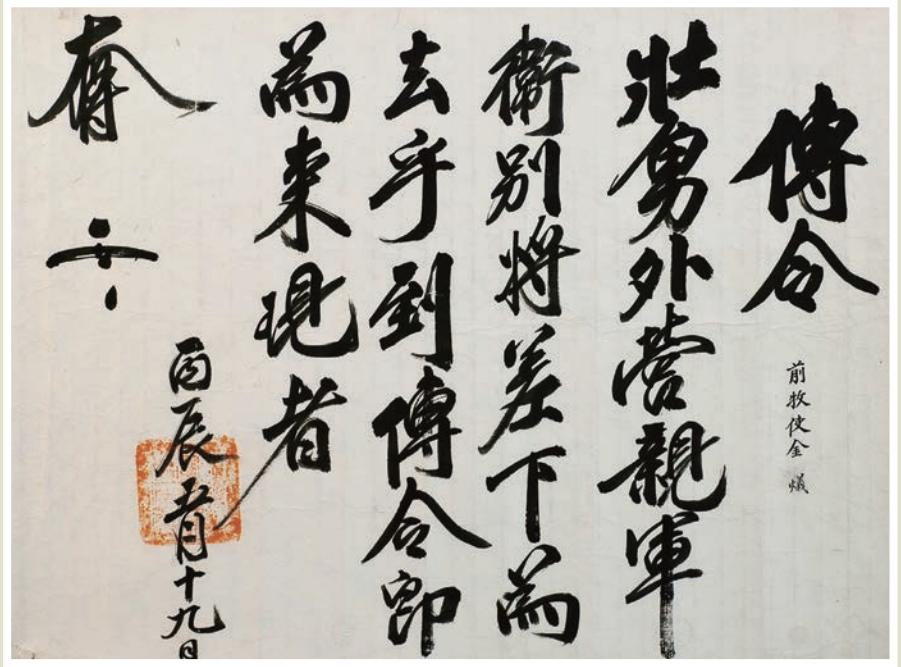
차첩(差帖)(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1790년 6월에 전 훈련원정 김희(金爗)를 장용영 초관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차첩이다.


前府使元永胄壯
勇營哨官差下為
去乎即為来現察
任者
乾隆五十八年六月 日

차첩(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793년(정조 17) 전 부사 원영주(元永胄)를 장용영 초관으로 임명하니 곧바로 가서 임무를 살피라는 명령서이다.


傳令
前兵使李海愚
壯勇營把摠差
下為有置到傳
令卽為来現察
任者
乙卯五月 日

전령(傳令)(수원박물관 소장)
전 병사인 이해우(李海愚 : 1760~1832)를 장용영 파총으로 임명하니 곧바로 와서 임무를 수행하라는 전령이다.


傳令
前牧使金 煥
壯勇外營親軍
衛別將差下為
去乎到傳令卽
為来現者
丙辰 月十九日

전령(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1796년 5월 19일 장용영대장이 김의를 장용외영 친군위별장에 임명하는 전령이다.

임시로 법을 만들어 변통하여 차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63] 정조는 장용영 중사中司의 초관 한 자리는 반드시 효종을 심양까지 수행했던 8장사의 후손으로 장용대장이 추천하여 선발하도록 하였다.[64] 8장사는 국가 충성의 모범이자 별군직別軍職의 시초로서 무반이 세습화됨에 따라 이들을 위무하여 친위화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더불어 정조는 자신을 지지하는 왕실의 인척들을 초관에 임명하였다. 서명탁徐命託은 영조의 왕후인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사촌으로 정조와 동덕회 회원인 서명선과도 사촌 사이였다. 정성왕후 집안은 본관이 달성達城으로 소론의 중심 집안이었다. 정조는 이와 같이 자신을 지지하는 왕실 인척을 특별히 장용영 초관으로 임명하면서 실제 장용영을 움직이는 기본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65]

장용영 초관은 타 군영과 달리 초관으로 15개월을 근무하면 훈련원의 6품인 주부主簿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기도록 배려하였다. 기존 군영은 20개월을 기한으로 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반면, 장용영의 초관은 비변사 낭청郎廳의 관례에 따라 15개월로 정한 것이다.[66] 이를 통해 처음으로 장용영 초관 정경행이 15개월을 채워 6품으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67]

1793년(정조 17) 장용외영이 신설된 이후 장용외영 초관의 승진과 전근에 대해 논의되었다. 당시 장용외영 초관은 선부장宣部將의 3천遷으로 차출하였는데, 이는 외영의 체모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용내영의 초관은 때가 되면 자리를 옮기는 데 반해, 외영의 초관은 2도목을 간격으로 1차례 전근을 하게 되어 내영과 외영이 초관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1795년(정조 19) 5월에 화성유수 겸 장용외사인 조심태는 내영 초관이 15개월이 되면 6품으로 승진하듯 외영 초관도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였다. 이에 조심태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영과 외영의 초관 모두 15개월이 지나면 6품으로 승진하도록 조치하였다.[68]

액외장용위額外壯勇衛는[69] 15명으로, 1791년(정조 15)에 창설되었다. 이 자리는 때에 따라서 증설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다.[70] 액외장용위는 금군액외삼영권무군관禁軍額外三營勸武軍官의 예에 의하여, 장수 집안의 번성한 자손과 지벌地閥이 현저한 자 및 신체와 손의 힘과 체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별장이 장용대장과 의논해서 뽑아야 한다. 임명의 권한은 장용대장이 가지고 있으나 합격사유를 국왕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액외장용위가 무과에 합격하거나 유고가 있을 시에는 인원을 감원하여야 한다.[71]

한편 액외장용위는 내금위인 용호영에 비해 지벌이 훨씬 뛰어나기에 사대부 출신이 선전관을 겸한다는 『병조등록兵曹謄錄』에 의거 1793년(정조 17)부터 진법훈련과 시사試射 시에 임시로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거행하게 되었다.[72]

액외장용위가 선전관을 겸한 숫자가 만일 3명을 초과하면 녹과祿科를 수어청과 당

63_ 『장용영대절목』 권1, 차제.
64_ 『장용영고사』 권1, 무신 7월 28일.
65_ 『장용영고사』 권2, 경술 6월 16일.
66_ 『장용영고사』 권2, 경술 12월 1일.
67_ 『장용영고사』 권3, 임자 7월 1일.
68_ 『장용영고사』 권5, 을묘 5월 22일.
69_ 액외장용위는 정원 외에 선발한 장용위로 기패관(旗牌官)과 교련관(敎鍊官) 중에서 다섯 가지(木箭, 柳葉箭, 달리기, 근력, 講書)를 취재하여 세 가지에 합격한 장교들로 조직하였다.
70_ 『장용영대절목』 권1, 관직.
71_ 『장용영대절목』 권1, 차제.
72_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10월 신사.

상장관과 금군의 남은 자리를 증획하여 옮겨 오도록 하고, 3명이 되지 못하면 도로 병조로 돌려주도록 하였다.[73] 액외장용위가 비록 15명의 정원이었어도 봉록을 받는 자리는 4자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선전관을 겸한 액외장용위가 봉록을 받게 조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가 3자리가 넘게 되면 장용영의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조는 수어청과 금군에서 봉록을 뒷받침하게 한 것이다.

이 외에 사무를 주관하는 감관 1명, 사무와 더불어 셈을 할 줄 아는 별부료 1명, 약방藥房, 침의鍼醫, 화원畵員, 사자관寫字官, 별우사파총別右司把摠, 별후사파총別後司把摠, 별아병장別兒兵將이 각각 1명씩 장용영의 관직에 임명되었다.[74]

장용영은 전곡錢穀의 출입이 너무 많아서 사무를 보는 별부료를 아무나 맡을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별부료로 임명된 인물은 가평의 유학儒學 한이형韓以亨으로 수학數學에 정밀하고 밝다는 소문이 나서 인재를 등용한다는 취지 아래 정조의 특교로 임명하기도 하였다.[75] 특히 장용영의 약방은 군병의 구제와 치료를 위해 설치하였기 때문에 다른 군영과 달리 장교와 병졸이 가난하여 병들어도 약을 쓰지 못하는 자들을 구제하게 하는 특혜를 주었다.[76]

장용영의 하급사관인 장교는 지구관知殼官 17명, 통장統長 2명, 제본사除本仕 7명, 교련관敎鍊官 20명, 장용위 102명을 선발하였다. 장용위는 장용영에서 국왕 호위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좌우열에 각각 50인과 패두 2인으로 처음 1782년(정조 6)에 30명을 창설하였다가, 1786년(정조 10) 4명을 증설하고, 1789년(정조 13)에 16자리, 1791년(정조 15) 52자리를 증설하였다.[77]

별무사別武士는 36인으로 1788년(정조 12)에 2자리를 창설하고 1789년(정조 13) 1자리, 1791년(정조 15) 12자리, 1792년(정조 16)에 1자리를 증설하고, 마지막으로 1793년(정조 17)에 20자리를 증설하였다. 부료무사付料武士 16인이며, 마병이 확충된 1792년(정조 16)에 마의馬醫 1인이 창설되었다.[78]

그렇다면 장용영의 관직은 중앙 오군영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표 3〉을 통해 확인해 보자.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융청과 수어청을 제외한 중앙 오군영은 도제조와 제조를 두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모두 대장을 두어 군영 전체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장용영은 중앙 오군영과 기본적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훈련도감은 중군과 천총이 중요한 직제로서 이들은 군영의 중추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장용영은 중군과 천총 없이 이 업무를 이전 장용영 관직에 대한 설명과 같이 별장과 파총이 대신하고 있다. 이는 정조가 장차 장용영의 조직체계를 중앙 오군영의 오사체제가 아닌 오위체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73_ 『장용영고사』 권6, 병진 12월 16일.
74_ 『장용영대절목』 권1, 관직.
75_ 『장용영고사』 권1, 무신 12월 22일.
76_ 『장용영고사』 권2, 기유 3월 24일.
77_ 『장용영대절목』 권1, 장교(將校).
78_ 『장용영대절목』 권1, 장교.

<표 3> 장용영과 중앙 오군영의 관직[79]

관직	장용영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도제조(都提調)	1	1	1	1		
제조(提調)	2	2	1	1		
대장·사(大將·使)	1	1	1	1	1	1
중군(中軍)		1	1	1	1	1
종사관(從事官)	1	4	2	2		
별장(別將)	1	2	1	1		2
천총(千摠)		2	4	5	2	1
진영장(鎭營將)					3	3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1		
국별장(局別將)		3				
기사장(騎士將)			3	3		
파총(把摠)	5	6	5	5	2, 1(北漢)	2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12	10		
선기장(善騎將)	3					
초관(哨官)	25	34	41	41	10, 6(北漢)	12, 5(南漢)
액외장용위(額外壯勇衛)	15					
지구관(知彀官)	17	10				
통장(統將)	2					
제본사(除本仕)	7					
기패관(旗牌官)		20	10	11	2, 5(北漢)	60(南漢)
별무사(別武士)	36	68	30	30		
군관(軍官)		17	5	38	14	43(南漢)
한량군관(閑良軍官)					150	
관성장(管城將)					1(北漢)	
수성장(守城將)						1(南漢)
별군관(別軍官)		10	10	10		
권무군관(勸武軍官)		50	50	50		50(南漢)
가전별초(駕前別抄)						
국출신(局出身)		150				
부료무사(付料武士)	16					
교련관(敎鍊官)	20		12	12	15, 4(北漢)	7, 10(南漢)
기사(騎士)			150	150		
별기위(別騎衛)			32			

79_ 『장용영대절목』과 『대전회통』의 병전에서 관제 변화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장용영과 중앙 오군영의 관제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금위영 역시 훈련도감과 마찬가지로 중군과 천총의 편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용영의 선기장과 유사한 기사장이 3인이며, 외방겸파총이 종4품의 직위로 12명이 선

발되었다. 외방겸파총은 문경聞慶, 영천榮川, 익산益山, 임실任實, 대흥大興, 진천鎭川, 파주坡州, 용인龍仁, 수안遂安, 금천金川, 금화金化, 금성金城 등 고을의 수령을 겸직하였다. 금위영의 초관은 처음 41명이었으나 영조 대 5명을 추가하여 45인으로 편재하였다. 이중 7인은 선전관으로 추천된 사람, 5인은 금군, 4인은 호위군관, 2인은 서북인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정조는 금위영의 군제를 축소하기 위해 초관을 4인 축소하여 다시 처음과 같이 41명이 되게 하였다. 7인은 선전관으로 추천된 금군, 4인은 금군 중에서 선발하며, 3인은 기사騎士 중 취재取才에 합격한 자를 승진 임용하고, 1인은 영남의 좌별무사 도시都試에서 수석합격한 자, 4인은 호위군관, 2인은 서북인, 20인은 전직관료와 한산인閑散人으로 선발하도록 하였다.[80]

어영청은 1624년(인조 2)에 처음으로 어영사를 두었고 1652년(효종 3)에 비로소 군영을 설치하였으며, 1706년(숙종 32)에 1영 5부제로 군제가 완성되었다. 가전별초와 별무사는 가후금군駕後禁軍의 예에 따라서 오래 근무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였는데, 정조대에 들어와서 별초別抄는 6개월 동안 활쏘기의 적중한 점수를 합산하여 금군의 예에 따라 6월과 12월에 나누어 병조에 공문을 보내어 체아직을 받도록 하였다.[81]

정조 대에 어영청의 초관 역시 금위영과 마찬가지로 영조 대 45명으로 증원된 것을 4명 감축하였으며, 기패관 11명 중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5명을 병졸 중에서 승진 임용케 하는 특단을 보여 줌과 동시에, 1명은 장용위 출신과 1명은 장용위 패두를 금위영과 윤번輪番으로 임명하게 하였다. 또한 별무사 30명 중에서 1명은 반드시 장용위를 임명하도록 하였다.[82]

80_『대전회통』 권4, 병전 금위영.
81_『대전회통』 권4, 병전 어영청.
82_『대전회통』 권4, 병전 어영청.

SUWON HWASEONG

김준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03
장용영 외영의 성립

1. 장용영 외영의 설치 목적

1793년(정조 17) 1월 정조는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면서 화성유수부에 장용영 외영外營을 신설하였다. 화성유수부의 승격은 1년 뒤에 있을 화성 축조를 위한 사전준비였다. 화성 축성은 왕권을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조의 장기적인 정국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이었다. 이를 위해 정조는 화성유수부를 강력한 정치적·군사적 배후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하고 더불어 장용외영을 신설한 것이다.

1789년(정조 13) 현륭원 천봉으로 수원 신읍치를 건설한 후부터 화성 축성 준비가 시작되었다. 현륭원 천봉 이듬해인 1790년(정조 14) 6월에 부사직副司直 강유姜游가 수원 신읍치에 성곽을 축성하여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 수원은 곧 총융청摠戎廳의 바깥 군영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진鎭이고 더구나 또 막중한 능침을 받드는 곳이니, 의당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새 읍을 옮겨 설치하였으나 성지城池의 방어설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번에 옮겨 설치한 것을 계기로 성지도 아울러 경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옛사람의 말에 '금성탕지金城湯池'라고 한 것은 곧 참호를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적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산을 의지하여 쌓게 되어 참호를 설치할 수 없으니, 이는 옛 제도가 아닙니다. 새 읍은 이미 들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므로 과연 성을 쌓고 참호를 설치한다면 실로 성을 설치하는 조건에 맞을 것입니다.[1]

강유는 수원 신읍치에 성을 쌓아 구읍치를 방어하던 독산성禿山城과 서로 방어체제를 구축하면 어떠한 적이라도 감히 쳐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지

1_『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6월 기미.

역에 군사들을 불러들여 집을 짓게 하고 부호復戶 500결 내에서 그 절반을 군병에게 떼 주어 살아갈 길을 삼게 하며, 또 각 군문으로 하여금 새 읍 부근에 둔전을 설치하게 하여 군병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군문에서 그 세를 징수하게 한다면 토지 없는 군사들이 반드시 앞을 다투어 모집에 응할 것이라 하였다.[2]

강유의 수원 신읍치 축성론을 이어 1791년(정조 15) 정월에 부사직 신기경申基慶은 수원 신읍치에 축성을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 신읍은 곧 경사京師입니다. 빙 둘러서 사방에서 적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마땅히 성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질地質이 사석토질이니, 고대에 판축版築하는 제도대로 지대地帶를 넓히고 도축搗築을 견고하게 하고 모래로 덮는다면 그 완고함은 석성石城보다 나을 것이고, 만약 모래, 돌, 흙을 섞어서 쌓는다면 그 견고함은 곱절이나 더할 것입니다.[3]

이와 같은 강유와 신기경의 상소는 수원 신읍치에 성곽을 축조하고 강력한 군병을 설치하여 현륭원과 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는 다름 아닌 국왕 정조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였다. 정조가 장헌세자의 원침을 수원으로 천봉한 것은 이 지역을 친위지역화하고 본격적인 개혁의 진원지로 삼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수원 읍치 이전과 상권 부양책의 추진, 장용외영 주둔, 화성 축조로 구체화되어 갔다.[4]

정조는 화성 축성에 대하여 "현륭원을 보호하고 행궁을 호위하기 위함"[5]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곧 국왕 자신을 변란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시해사건弑害事件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 강화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변란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즉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수원 신읍치를 건설하여 자신의 배후도시로 육성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생부 장헌세자를 추존하기 위한 포석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정조는 1804년(순조 4) 왕위를 물려주고 세자였던 순조로 하여금 왕위를 물려받아 자왕子王이 조부祖父인 장헌세자를 국왕으로 추존追尊케 하고 자신은 상왕上王이 되어 화성유수부에서 국정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6] 결국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키고 화성을 축성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조의 장기적인 정국구상의 핵심거점으로 수원을 선택한 데는 두 가지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첫째, 수원은 삼남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군사상의 요지로 평가되었다. 방비를 튼튼히 하고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한다면, 수원 지역은 삼남의 튼튼한 배후지를 바탕으로 서울 이북의 가상의 적에 대해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지역이었다. 둘째,

2_ 『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6월 기미.
3_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정월 21일.
4_ 김성윤,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7, 241~242쪽.
5_ 『화성성역의궤』 권2, 절목(節目), 수성고절목(守城庫節目).
6_ 『고종실록』 권39, 고종 39년 8월 3일.



「화성부성조도(華城府城操圖)」
(육군박물관 소장)
화성의 축성 과정과 군사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화성부지도이다. 지도에서 검은색으로 그려진 부분은 이미 쌓은 부분이고 붉은색으로 그려진 부분은 아직 쌓지 않는 부분[黑畵已築紅畵未築]이라고 쓰여 있다.

수원이 교통상의 요지로 타 지역에 비해 상업이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단순한 군사거점 이상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하삼도下三道의 곡창과 군사를 보호하고, 군사적으로 주요한 거점이 되며, 장기적으로 거점의 안정화를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수원이 가장 유리한 지역이었다.[7] 따라서 군사력의 중추를 수원에 집결시키고 왕의 거처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조는 수원에

7_ 김성윤,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7, 250~253쪽.

자신의 친위부대를 반드시 주둔시킬 필요가 있었다.

정조는 수원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1789년(정조 13) 현륭원을 천봉한 직후 수원도호부를 방비하던 총융청 소속의 향군 5초를 장용영으로 이관하여 장용영 향군 5초를 설치하였다. 수원은 현륭원 천봉 이전부터 왜구를 방비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총융청에서 독산성을 중심으로 향군 5초를 설치하였다. 총융청은 1초당 125명의 정원이었으므로 정조는 장용영으로 이관한 향군을 각 초당 장용영 편제에 맞춰 2명씩 증원하여 1초당 127명 도합 635명으로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정조의 현륭원 행차를 수가하고 현륭원과 수원도호부를 호위하였다. 당시 조심태는 수원도호부에 설치한 향군의 운영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장용영이 5초 향군을 본부에 설치한 것은 오로지 행행할 때 후상後廂에서 배호陪扈하기 위함이고, 경군이 수가隨駕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함이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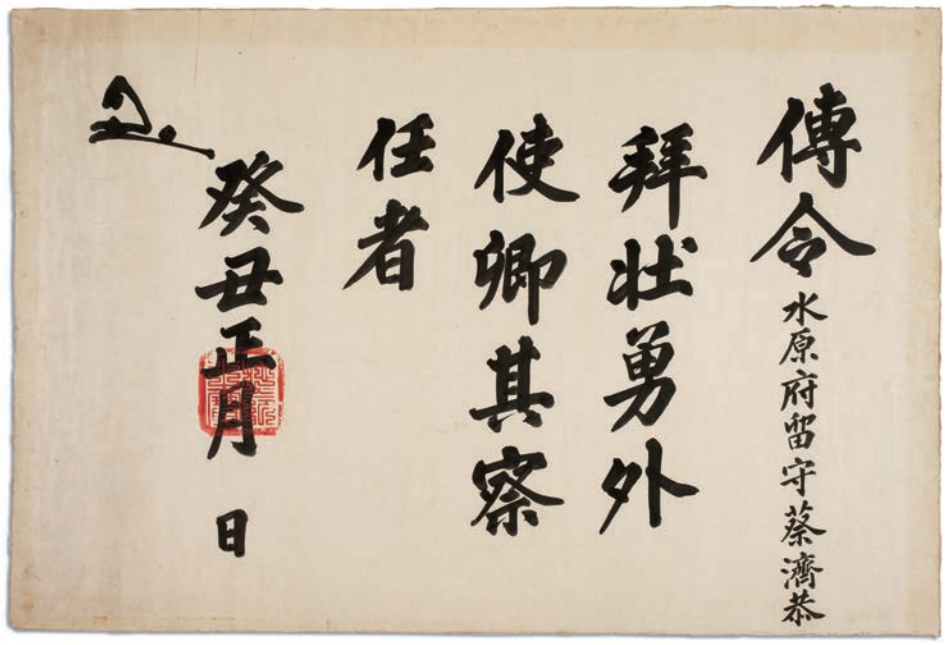
조심태는 수원도호부에 향군 5초를 설치하는 주역으로 장용영 향군이 군복과 군기를 확보하기 위해, 호조에서 관문關文을 내려 관서關西·영남嶺南 곡물이 여러 읍의 모조耗條를 작전한 것 중에서 5,000냥과 균진청均賑廳 보환곡補還穀 1,000섬을 매년 이속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비변사는 보환곡 1,000섬을 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정조에게 건의하고 정조는 이를 윤허하였다."[9]

수원도호부를 책임지고 있던 조심태의 건의로 장용영 향군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정조가 추진하는 배후 친위도시의 군사력 기반을 형성하였다. 안정된 재정과 군사적 기반을 중심으로 정조는 수원 지역의 향군을 장용영 외영으로 확대하여 왕권 강화를 위한 확실한 군사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다.

화성유수부에 장용영 외영을 설치하고 화성유수로 하여금 장용외사壯勇外使를 겸하도록 하는 조처는 조선 정치사에서 매우 파격적인 일로 지방의 일개 고을이 국왕의 친위도시親衛都市로 거듭나는 일이기도 하였다. 정조는 화성유수부를 신설하면서 수원 지역이 자신을 비롯한 왕실의 고향과 같이 중요한 곳이며, 따라서 지위를 격상시켜야 하며 수원 지역의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국방에 대한 강조는 다름 아닌 자신의 친위군영인 장용영 외영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

> 왕위에 오른 이후로 재용을 많이 저축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왔다. 그런데 다행히 황천에 계신 조종祖宗의 말 없는 도움을 입어서 용이 서리고 범이 웅크린 듯한 좋은 자리를 잡아 영원토록 천억 만년 끝없을 큰 운세를 정하였으니, 이 땅의 소중함은 실로 주周나라의 풍豐이나 한漢나라의 패沛와 같이

8_ 『비변사등록』 179책, 정조 15년 7월 15일.
9_ 『비변사등록』 179책, 정조 15년 7월 15일.


傳令
拜壯勇外
使卿其察
任者
癸丑正月 日
水原府留守蔡濟恭

전령(수원화성박물관 소장)
1793년 1월 수원부유수로 재직 중인 채제공에게 장용외사(壯勇外使)를 겸하게 한 전령이다. 이해에 장용영이 화성에 신설되어 장용영은 내영과 외영체제를 갖추었다. 왼쪽 상단에 정조의 수결이 있다.


傳令 前本營外使
卿所佩前任水
原留守壯勇外
使弗符右一隻及
水原府發兵符
右一隻傳授壯新
留守事才令政
院成送諭書付送
於宣傳官卿其
依此忠奉行與
印信軍籍冊一應
軍務交龜日傳授
於新留守宣勿者
癸丑五月二十五日
壯勇

전령(수원화성박물관 소장)
1793년 5월 25일 장용영외사로 재직하던 채제공을 영의정에 임명한 후 채제공에게 장용외사의 호부(虎符)와 수원부사의 발병부(發兵符)를 신임외사에게 넘겨주고 오라는 전령이다.

융성할 것이다. 오직 이곳을 잘 수호할 방도를 더욱 애써 치밀하게 하여 체모가 존엄하고 제도가 엄숙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 소자小子의 정리로나 예법으로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비유하자면 마치 종묘의 예절을 두고 먼저 백관百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소중함에 관계되는 것이 이와 같다. 이곳 수원부는 현륭원을 마련한 뒤로부터 관방關防이 더욱 중하여졌다. …… 남한산성은 단지 방위하는 성의 역할만이 있을 뿐인데도 대신이 사使가 되고 유수는 문반의 경재卿宰로만 오로지 차임하면서도 방위의 일을 위해서는 무장武將이 남한산성에 통의通擬되었다. 그런데 더구나 이곳이 수원부의 소중함이겠는가.[10]

정조의 특별한 지우知友를 받게 된 화성유수는 대신이나 무장으로 국왕의 특지를 받아 임명하기로 하였으며 정5품 판관이 보좌하게 하였다.[11] 정조는 신설된 화성유수 및 장용외사의 지위를 강화·개성의 종2품의 유수와 격이 다르게 정경正卿 2품 이상으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고, 초대 화성유수만은 더욱 특별하게 임명하였다.

10_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병오.
11_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병오.

정조는 초대 화성유수로 1790년(정조 14)부터 좌의정으로 독상체제獨相體制를 유지한 채제공을 임명하였으니 화성유수부와 장용외영의 신설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국왕을 제외한 최고의 고위관료를 특교特敎로 화성유수에 임명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여 새로운 경장정책更張政策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화성유수부의 수장首長이 조정朝廷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로 임명되어야만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장용영을 설치한 지는 여러 해가 되었으나 장용영 장수의 칭호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장용외영이 신설되어 장용외사壯勇外使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장용영 내영과 외영의 분리는 정조 대 군제 개편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중앙 오군영 중에서 총융청은 내외영제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군영을 유지하였다. 총융청 역시 처음에는 총융사摠戎使와 총융대장摠戎大將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총융청병방摠戎廳兵房이라고 호칭하다가 비로소 외영의 설치 이후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12]

정조는 장용외영을 신설하면서 장용영병방을 장용사라 하고, 장용영의 문서들에는 대장이라고 공식적 호칭을 사용하도록 정하였다. 이는 남한산성을 방비하는 어영청의 수장인 어영사를 어영대장이라 호칭하는 것처럼 하였다. 또한 도제거都提擧를 두어 그 법식을 갖추되 역시 경리영經理營의 도제조는 삼공이 의례 겸대하는 것처럼 하고 호위대장의 관청을 합해서 소속하게 하였다. 아울러 내영과 외영의 군수물자와 군사들의 식량을 마련하고 조처하는 것을 자신이 마련한 경비로 해결할 것임을 밝혔다.[13]

정조는 화성유수부 및 장용외영을 신설하는 주요 목적이 단순히 현륭원을 호위하는 읍치의 지위를 승격시키는 데 있지 않고 이를 통해 군제 개혁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 나는 자나 깨나 한 마음이 선대를 사모하는 데에 있다. 백성을 보호하는 것도 비록 길은 다른 것 같으나 거기에 쓰는 마음은 마찬가지다. 이 백성은 곧 선왕의 백성이다. 그러니 지금 이 백성들을 감싸 보호하려면 의당 먼저 폐단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큰 폐단은 군영軍營보다 많은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설날 조참朝參 때에 네 가지 항목을 들어 하유하였는데, 네 가지 항목 중에서 군과 민이 그 두 자리를 차지하였고 그 말을 한 것은 앞으로 행하고자 함에서였다. 중앙과 지방으로 하여금 이 전교를 길이 새겨 보고 은미한 뜻을 자세히 헤아려서, 내가 이 일을 경영하여 우리 후인들을 계도해서 우리 국운이 억만년토록 영원하기를 비는 본의本意를 알게 하라.[14]

즉, 이와 같은 정조의 하교는 1778년(정조 2) '경장대고更張大誥'에서 밝힌 4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군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장용영을 내외영

12_ 『만기요람』, 군정3, 총융청조.
13_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병오.
14_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병오.

제로 개편하는 것을 군제 개혁의 근간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즉 중앙 오군영을 중심으로 하는 도성방위체제를 개편하여 장용영 내외영으로 도성과 수도권 일대의 방위체제를 확립하고 아울러 화성유수부를 양경체제로서 정조의 친위도시로 만들어 경장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

2. 장용영 외영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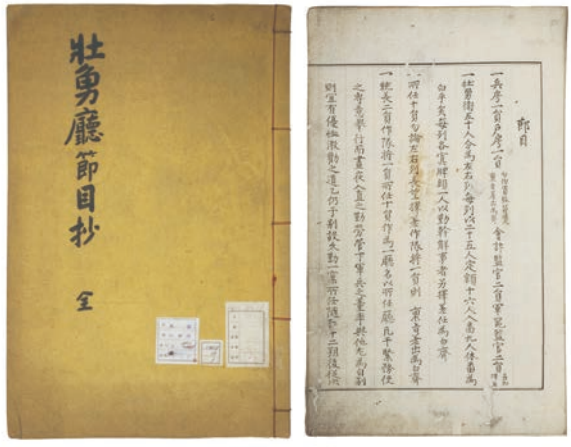
정조의 장용외영 신설에 따라 비변사는 화성유수부가 지역의 크기와 인구가 비록 적지 않은 도시이나 장용외영을 설치한 뒤로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처 소읍을 합병하여 보태는 것을 건의하였다. 정조는 비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안성·용인·진위·과천 등 읍은 모두 직로直路에 걸림돌이 많지만 안산安山은 작은 소읍小邑이기 때문에 합병이 가능하니 안산을 수원으로 합병 이속移屬하게 하였다.[15]

정조는 어영대장 조심태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용영 내영과 외영의 기호旗號를 구분하기로 하였다. 이는 장용내사와 장용외사의 비중과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국왕이 이들에게 구분하여 질문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장용내사의 기호를 '장용내군사명壯勇內軍使命'이라 칭하고, 장용외사壯勇外使의 기호는 '장용외군사명壯勇外軍使命'이라고 칭하도록 하였다.[16]

장용외영의 체제를 갖추면서 더불어 수원부 소관에 있던 독성禿城 중군의 지위와 경기좌방어사京畿左防禦使를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이에 정조는 독성 중군의 이력은 마땅히 대흥大興의 예를 적용하고, 화성유수 및 장용외사가 개성유수에 비해 1등을 더하여 정2품 이상이 임명되기 때문에 독성 중군도 품계와 자급을 존중하여 변장邊將 이상을 임명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되 토포사討捕使의 임무는 맡지 않고 군정軍政만 관할하게 하였다. 아울러 경기좌방어사는 죽산竹山의 지세는 특이하고 장단長湍은 파주로 이속된 지 오래되었고, 부평과 인천은 형세가 편리하기는 하나 인력이 소비되어 남양南陽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17]

정조는 1793년(정조 17) 1월 12일에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킨 이후 장용영 내영과 외영의 조직을 정비하여 1월 25일에 내영과 외영의 절목을 새로 정하였다. 장용영의 군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으며 도성을 방어하는 1사 5초와 더불어 어가가 지나가는 지방 고을에서나 선달 공물 마련을 위해 사냥을 하는 곳에서는 향군 20초를 나누어 배치하여 4사를 만들어 5사의 제도로 장용외영을 꾸리도록 하였다. 장용외영 절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8]

15_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정월 12일.
16_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정월 14일.
17_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정월 16일.
18_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기미.



『장용청절목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장용청의 설립과 그와 관련된 규약을 요약한 책으로, 1787년(정조 11)경부터 장용영 협수 체제가 완성된 1788년(정조 12)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一. 화성유수 겸 장용외사는 양 도都에 비겨 한 등급을 높여서 문신인 경우는 정2품 이상으로 한정하여 묘당이 의망해 추천하고, 대신무장大臣武將의 경우는 특지에 의한다. 그리하여 수원부유수로서 장용외사壯勇外使와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의 호칭을 겸한다.

一. 외영의 군제를 금방 바로잡았는데, 조련에 참가하는 군사는 별효사別驍士 2초, 마병馬兵 4초, 속오군束伍軍 26초, 각종의 표하군 547명, 치중군輜重軍 200명인데, 이것은 이미 훈련도감의 군제를 본뜬 것이니,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둔다. 비용의 쌀로 양인의 봉족奉足이 낸 2,000석은 그대로 외영에 소속시켜 받아 유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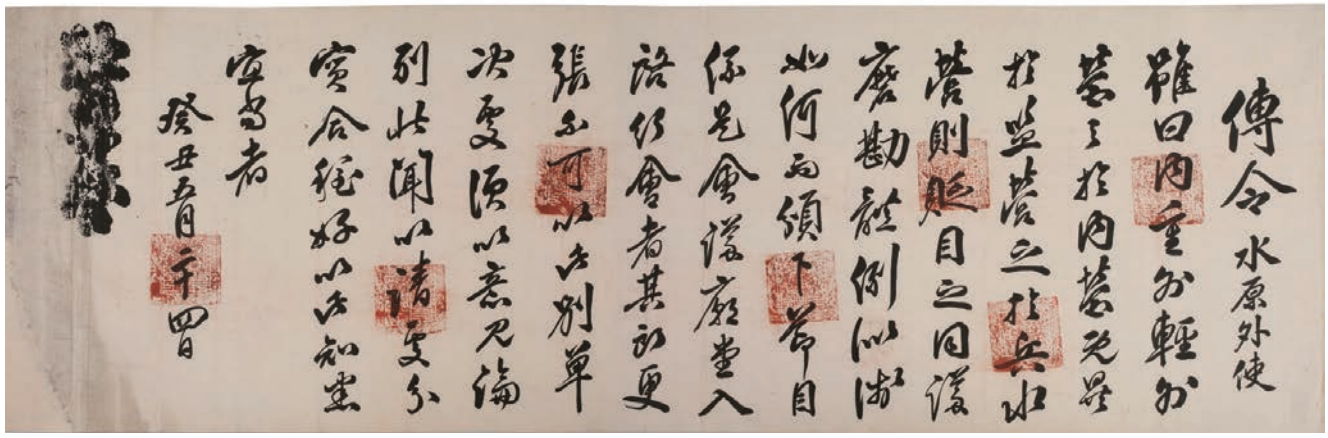
一. 본부에 성곽을 축성할 계획이니 물력을 구하기 위해 본부와 안산창安山倉에 소재한 환곡과 군량 등 각종 곡물들을 모두 축성곡築城穀으로 명목을 지어서 매년 그 모조耗條를 거두어들여 차차로 경영해 나갈 뒷받침으로 삼을 것이다.

一. 본부에 아직은 성을 축조하지는 못하나 앞으로 경영하는 것이 이미 순서가 정해진 일이고 보면 성정군城丁軍을 불가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에 총융청의 소관으로 집에 머무는 군관 150인, 본부의 소관인 방어사영의 번을 면제받은 군관 290인, 토포사의 소속으로 번을 면제받은 군관 459인을 수첩군관守堞軍官으로 호칭을 바꾸고, 본부의 군수별무사軍需別武士 2,002명에서 마사馬士 204명을 감하고 유방군留防軍 702명을 성정군이라 명칭하여 성을 수비하는 제도를 이루도록 한다.

一. 독성산성은 이미 요새로서의 중요한 지역이자 또 군량을 쌓아 둔 곳이니, 방어하는 도리를 소홀하게 할 수 없다. 전에 총융청의 소관이었던 장초壯抄 2초, 아병 1초, 둔장초屯壯抄 68명, 군수보軍需保 125명을, 본성의 소관 아래 모집해 들인 군관 30인, 수첩군관 130인, 아병 2초, 봉족군奉足軍 400명, 별무사 1,523명과 합해서 성을 수비한다는 명목으로 본성에 전속시키고, 그중 장초 2초, 아병 1초, 둔장초 68명, 군수보 125명은 본래 쌀을 납부하는 군인들이었으니, 그 납부한 쌀은 외영에서 받아 유치한다.

위의 「장용영내외영신정절목壯勇營內外營新定節目」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별효사 2초, 마병 4초, 속오군 26초, 각종의 표하군 547명, 치중군 200명으로 편제되었다. 그리고 총융청으로 들어가던 양인의 봉족奉足이 내는 쌀 2,000석과 안산창에 속한 환곡을 외영에 속하게 하여 재정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이처럼 절목을 통해 규모와 지위가 확정된 장용외영에도 문제는 존재하였다. 다름



전령(수원화성박물관 소장)
1793년 5월 24일 전령으로 동년 1월에 장용영에 내린 절목을 시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닌 군수의 부족이었다. 형조판서 이경무李敬懋는 장용외영은 군총은 많지만 궁도弓刀와 약환藥丸이 적기 때문에 군병과 기계에 비례할 수 없으며 만약 유사시에 변란이 생긴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그는 중앙과 지방의 여유 있는 곳에서 적정 수량을 옮겨다 놓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건의하였다.[19]

장용외영 군수문제에 대한 이경무의 건의는 매우 시의적절하였으며, 정조는 대신들과 장신들에게 의견을 구하며 이를 공론화하였다. 아마도 공론화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화성에 주둔하기로 한 장용외영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화성유수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약은 3,000여 되[升]에 불과하고 조총은 겨우 2,000개, 흑각黑角·교자죽交子竹·장궁長弓 등 기물도 2,000개가 채 안 되는 실정이어서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 어영대장 조심태, 훈련대장 서유대徐有大, 총융사 이방일李邦一, 우의정 김이소金履素는 모두 중앙과 지방의 영문은 물론이고 여유 있는 곳에서 군수품을 구하여 장용외영의 본부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특히 우의정 김이소는 수원부가 지금 대영문大營門이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적정 수량을 이송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정조는 대신과 장신들의 의견을 모은 뒤 비변사에서 모여 서로 의논한 뒤 수량을 우선 써서 들이고 이 일이 비록 장용외영의 일이지만 화성유수 채제공이 군제 변통에 관계된 일이기에 혼자 할 수 없으니 어영대장 조심태와 장용내사와 함께 처리하도록 하였다.[20]

이 결과 경기 각 읍·진의 군기는 본래 넉넉하지 않아 추이할 수 없고, 군기사·총융청·수어청의 관할인 삼남·양서兩西의 월과月課 조총과 약환 중에서 삼년조를 수원으로 이송하게 하였다.[21] 이러한 조처는 자연스럽게 장용외영의 군비를 강화함과 동시에 총융청과 수어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_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2월 20일.
20_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2월 20일.
21_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2월 21일.

총융청의 관리에 있던 수원방어영水原防禦營이 장용외영으로 승격된 후, 남양에 방어영을 설치하자던 제안을 3월이 되어 대신과 장신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처음 남양에 방어영을 설치하자던 논의는 오히려 장용외영이 화성유수부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수어사 이문원, 장용대장 김지묵, 형조판서 이경무, 훈련대장 서유대, 어영대장 조심태 등 정조의 근신近臣으로 평가받는 군영대장들의 논의 결과였다. 특히 이경무와 훈련대장 서유대는 오히려 남양에 방어영을 설치하는 것이 군제 개혁에 모순되는 길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 지금 이 남양에 방어영을 이설移設하자는 논리는, 바다를 방어하기에 지형적으로 편리하다는 계산뿐만 아니라, 수원이 유수로 승격한 뒤로 유수가 방어사의 직임을 겸임했으나, 귀속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원유수가 장용외사를 겸임하고 있으니, 사체가 전에 비해 한층 더 중임인데, 굳이 억지로 인읍隣邑에 방어영이라는 칭호를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체된 무변武弁의 자리를 소통시켜서 방어영으로 진출할 길잡이로 삼을 계산이라면 더욱이 사람 때문에 관을 설치하는 결과로써 부당합니다.[22]

이 결과 정조는 남양에 총융청의 방어영을 설치하는 것을 보류하도록 하였다. 이는 쓸모없는 군병을 줄이자는 군제 개혁의 일환임과 동시에 장용외영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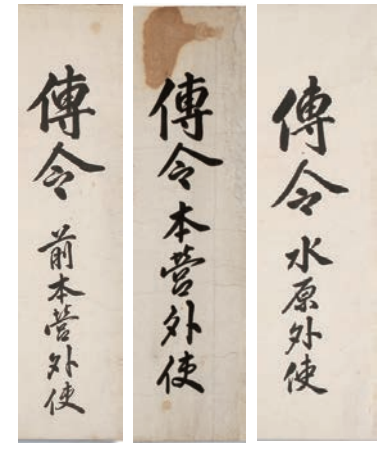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장용외영은 장용내영보다 수장들의 실질 권한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 초대 화성유수이자 장용외사를 맡아 기틀을 다진 채제공은 장용외영과 내영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이었다. 장용내영의 도제조와 장용외사였던 채제공은 서로 정승의 반열에 있더라도, 내영은 외영과 논의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외영은 반드시 내영과 논의를 하여야 하였다. 채제공은 이러한 내외영의 차이는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조는 장용내외영이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가지도록 조처하였다. 설치된 지 5개월 만에 장용외영은 장용영이라는 큰 군영에 속해 있지만 실제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지니게 된 것이다.[23]

그 후 정조는 장용영의 수원유수부에 속해 있는 모든 문서들을 반드시 외사外使로 표시하라고 신칙하였다. 장용영이 내외영으로 분리된 이후 장용외영의 문서에는 수원유수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장용영외사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정조는 이와 같은 문서 표기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여 주었다. 이는 자신의 장기적 구도에서 만든 장용외영이 스스로 군영을 낮추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병조와 비변사의 문서에서도 장용외사로 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외영의 문서에 반드시 '외사外使'라 표기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중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였다.[24]

22_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3월 22일.
23_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5월 25일.

정조는 현륭원을 호위하고 장차 자신이 왕위를 양위한 후 상왕으로 거처할 화성을 호위하기 위해 장용영 외영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추진하였다. 정조는 "장용외영이 주主이고 내영이 그 뒤를 받쳐 준다."라고 할 정도였다.[25] 이러한 의도에서 정조는 장용외영을 장용내영보다 각종 문서와 행사에서 앞서게 하여 외영을 높여 주었다.

> 각항사목各項事目을 장차 인쇄하도록 하며, 장영壯營의 설치는 전적으로 행궁을 위한 것이니, 외영이 주인이 되고 내영은 그에 딸린 것이 된다. 책을 편집하는 예 또한 응당 이것에 따라 하라는 뜻으로 당상에게 전언傳言하고, 이 밖에 거행문서擧行文書 또한 모두 앞에는 외영의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내영의 것을 쓰라는 것으로 묘당 및 내·외영이 잘 알게 하고, 이 전교를 거듭하여 내·외영의 벽에 게시하라. 외영이 거의 100리 가까운 곳에 있음에 대저 명령을 내릴 일이 있으면, 전관專關과 지실知悉이 아닌 외에는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후로 정원政院과 비국備局에서 서로 관여하는 도리를 외사에서 참작하여 정식定式으로 삼아서 사목 가운데 첨부하도록 하고, 발로發路한 조목 또한 연교筵敎에 의거하여 일체 왕복하도록 하여, 기백畿伯이 좋은 점을 좇아 마련하게 하는 것으로 분부하라.[26]



전령에 표기된 '외사(外使)'

이처럼 정조는 장용내외영에 명하여 각항사목과 거행문서에서, 외영을 앞으로 하고 내영을 그다음에 하는 것으로 영문營門의 벽에 게시하도록 하고, 승정원과 비변사에서 서로 관계되는 일은 외사에서 참작하여 정식으로 삼도록 하였다. 결국 정조는 향후 양경체제를 통해 한성부와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할 화성유수부를 지키기 위하여 장용외영의 지위를 장용내영보다 우월하게 만들었다.

3. 장용영 외영의 화성 방어와 수가隨駕

장용외영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화성의 방어와 국왕의 화성행차에 대한 호위 그리고 이를 위한 훈련이었다. 장용외영의 보군은 내영의 향군과 함께 번갈아 번을 서야 하였다. 물론 처음 외영을 설치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있었으나 점차 안정되어 해마다 동짓달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우선 행궁 방어에 임하고 유방留防할 때는 날마다 무예를 연마하였다.[27] 이때 장용외영 보군이 입방入防하는 날은 동짓달 초1일로 하고, 좌열친군위左列親軍衛의 입방일은 정월 16일로 하였다.[28]

외영이 보군 13초의 군사를 5번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번을 드는 차례는 15일로 기한을 정하였다. 동짓달 16일부터 전사를 시작으로 첫 차례는 3개 초가 하고, 둘째 차례는 2개 초가 번을 서며, 다른 사도 이런 식으로 교대하도록 하였다. 중사는 3개 초로 되어 있으므로 두 차례로 나눌 필요가 없고 사 전체가 번을 서도록 하였다. 번을

24_『장용영고사』 권5, 을묘 11월 17일.
25_『원행을묘정리의궤』, 전교, 병진 2월 17일.
26_『장용영고사』 권6, 병진 2월 7일.
27_『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10월 신사.
28_『장용영고사』 권5, 갑인 11월 26일.

들 때는 해당 사의 파총과 각 초의 초관이 군사를 통솔하였는데, 파총은 평상시 장령이 입직하던 곳에서 입직하고 초관은 각각 자신의 군사들이 번을 든 곳에 배치되어 입직하면서 통솔하도록 하였다. 지구관 1명과 기패관 2명은 반드시 사리에 밝은 사람에게 맡겨 함께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29]

이렇게 외영의 보군이 화성에 서는 번을 정함과 더불어 화성행궁의 파수 역시 막중한 관계로 더욱 치밀하게 호위하고자 하였다. 일단 행궁 후면에서 조망眺望이 편리한 곳에 포사鋪舍를 설치하여 매년 거둥할 때에 군병들로 하여금 교대로 파수하게 하였다. 정조의 거둥 시 행궁 내 포사의 파수는 외영에서 전담하지 않고 내영 외영에서 똑같이 거행하여 호위를 엄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는 외영 설치 초기에 외영의 보군이 아직 정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조처였다. 그래서 파수할 때 장수將帥로 내영의 수가隨駕 장용위와 외영의 보군 초관과 성 초관을 정하여 패장牌將으로 삼고, 군으로는 수가보군 입방군을 정하여 군졸로 삼도록 하였다. 이들 행궁 파수군은 매 경更에 내영과 외영의 패장 2명과 군졸 3명씩 3교대로 나누어 순라가 포사 내부를 교대로 파수하고, 화성행궁 궁장宮墻의 내부와 외부를 관망 순찰하도록 하였다. 또 성곽 위에서 여러 파수와 서로 접선하되 시어소時御所의 궁장을 순찰하는 예대로 하고, 별도로 별수가장관別隨駕將官 지구관을 정하여 윤번제로 검찰하게 하였다.[30]

이와 같이 궁장 내부·외부의 순라巡邏와 장졸은 거둥할 때 외영의 수가보군·초관이 각 초 내에서 윤번제로 1기를 덜어 내되, 가령 전·좌·중·우·후초로 하여금 각각 1경을 순행하여 경이 완전히 끝났는데 날이 밝지 않으면 친군위 좌장·우장이 각각 친군위 5명을 인솔하고 두 차례 나누어 고찰하다가 동이 틀 때 철수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외영의 장졸들은 자체 훈련을 날마다 실시하되, 첫날과 마지막 날은 훈련장에서 하는 규정과 똑같이 연습하고 중간 날에는 18가지 무예를 『무예도보武藝圖譜』에 의거하여 가르치고 시험을 보았다. 번을 든 지 제11일이 되는 날에는 활쏘기와 화포 쏘기의 시험을 보이고 약간의 시상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다. 자체 훈련할 때나 무예를 시험할 때 교사敎士가 없을 수 없으므로 번을 드는 초는 각 초마다 진법교사陣法敎士 1명과 기예교사技藝敎士 1명을 선정하여 전일하게 가르치도록 한다. 번이 교체할 때마다 상번上番하는 군사와 하번下番하는 군사는 같은 사의 편제를 이뤄야 되므로 반드시 새 번과 묵은 번이 합동 훈련을 하여 사의 단위로 하는 훈련법을 알도록 하였다. 중사 3개 초는 단독으로 번을 서므로 하번하기 하루 전 합동 훈련 조례에 따라 전체적인 훈련을 실시하였다.

정조는 1789년 장헌세자의 원침을 수원으로 천봉한 이후 해마다 현륭원에 거둥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31] 이때 장용영 및 훈련도감 등 각 군영의 장졸들이 어가를

29_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10월 신사.
30_ 『비변사등록』 183책, 정조 20년 정월 29일.
31_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한국학보』 88, 1997.



정조의 화성행차를 수가(隨駕)하는 장용영 군사들
(『원행정리의궤도』, 「반차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수행하여 수원 인근의 지지대고개에 이르면 외영의 군병이 어가를 맞이하여 따르며, 읍과 원소園所의 역참에서 빙 둘러서서 호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32]

이러한 정조의 화성행차를 수행하는 외영은 이를 넘어 도성으로 올라가서 정조의 행차를 수행하였다. 외영을 설치한 지 1년 후인 1794년(정조 18) 정월 정조의 화성행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용외영은 도성으로 올라가 정조를 선상先廂에서 수가隨駕하였다. 예전에는 화성행차를 통해 정조가 화성행궁에 이르면 행궁 환위를 전상前廂 군병이 앞쪽에 배열하고 후상後廂 군병이 뒤쪽에 배열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때부터 장용외영이 앞쪽에서 수가하기 때문에 정조가 행궁으로 들어오면 내영 군병

32_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10월 신사.

과 함께 행궁을 환위하였다. 이때 병조판서 서유방徐有防은 행궁에서 현륭원에 이르기까지의 수가를 장용외영이 전담하도록 건의하였다. 이 건의에 따라 정조는 장용외영으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게 하였으며 향후 정식이 되었다.[33]

장용외사 이명식李命植이 입방군 3초와 별군관 50명 및 친군위 100명을 거느리고 진목정眞木亭에서 훈련대장이 이끄는 난후마병과 금군 50명 및 선기대 2초를 이어받아 어가를 호위하고 행궁을 환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즉, 수원유수부 입구까지 훈련도감과 장용영 내영의 군사들이 어가를 호위하고 나면 장용영 외영의 군사들이 훈련도감의 임무를 교대하기 때문에 화성유수부에서 정조의 어가 호위는 전적으로 장용영의 내영과 외영이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1795년 윤2월의 화성행차는 장용외영의 군사들이 실질적으로 어가를 수행한 것이었다. 장용외사가 친군위 200명과 별군관 100명 그리고 장용외영의 보군 5초를 거느리고 화성유수부 초입의 진목정으로부터 선상이 되도록 하였다.[34] 당시 정조의 화성행차를 수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용위의 군병 100명, 가전별초駕前別抄 50명, 가후금군駕後禁軍 50명, 선기대善騎隊 2초, 마병馬兵 2초, 친군위親軍衛 200명, 별군관別軍官 100명, 장용영 내외영의 보군步軍 10초, 훈련도감의 보군 2초, 화성에서 군사훈련을 행할 때 여기에 참여할 장교와 졸병 등 3,700여 명, 각 군영의 각색 표하군標下軍[35] 1,000여 명 등 6,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36] 이 중 훈련도감 보군 2초와 각색 표하군 1,000여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용영의 군사들이었다. 장용영 군사 중 친군위, 보군 10초의 절반 그리고 군사훈련에 참가할 장졸 3,700여 명이 장용외영의 장졸들이었다. 이 현황을 보더라도 1795년 윤2월의 화성행차는 장용외영이 전적으로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정조는 자신이 양성한 장용외영의 수가에 대한 만족과 더불어 이들을 위로하였다.

> 장용외사가 관할하는 친군위 및 보군은 처음으로 경숙經宿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좌작坐作과 치돌馳突의 절차를 연습하여 통달하고 익숙하게 하였으니, 공로가 가장 컸다. 하물며 이번의 행행은 일의 체모가 각별하였다. 내영의 본부에 있는 향군과 더불어 모두 환궁한 후에 외사로 하여금 각각 유엽전과 조총 중에 한 가지 기예를 시험하여 그 입격한 수효를 장문狀聞하고, 3중中 이상은 방목榜目을 기다려 상을 내려 주도록 하라.[37]

이에 따라 총 2중中은 각각 무명 1필을 내려 주고, 사射 1중은 각각 전죽箭竹 300개를 내려 주며, 총 1중은 각각 쌀 2말을 내려 주는데, 외탕고外帑庫에서 곧바로 분등分等하여 상을 내려 주기로 하였다.[38]

33_ 『장용영고사』 권5, 갑인 정월 8일.
3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계사, 을묘 2월 1일.
35_ 표하군(標下軍)은 일명 수하군(手下軍)이라고 하는 군병으로, 대장에게 직접 딸린 휘하 병사들이다. 이들은 대장에게 직속되어 깃발을 드는 일, 연락, 잡일 등 갖가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3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계사 윤2월 3일.
37_ 『장용영고사』 권5, 을묘 윤2월 11일.



「서장대성조도(西將臺城操圖)」
(『원행을묘정리의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1795년 윤2월 12일에 있었던 장용영 군사들의 훈련을 그린 목판화이다.

1795년 윤2월의 을묘년 화성행차 이후 정조는 더욱더 자신의 화성행차 호위에 대한 장용영 외영의 의존도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정조는 화성행차 시에도 실질적으로 어가를 수행한 것은 장용외영이었지만 훈련도감의 군병들도 함께 수가하였다. 1796년(정조 20)의 화성행차에서도 장용외영을 기본으로 하고 순번에 의해 어영청의 군병이 참가하게 되었다.[39]

하지만 화성행차 시 현륭원과 화성행궁을 호위하는 것은 장용영 내영과 외영의 군병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도록 조처하였다.

장용내외영의 규제規制가 조금이나마 이루어졌는데, 이 어찌 경외京外에 거둥할 때만을 위하여 설치한

38_ 『장용영고사』 권5, 을묘 윤2월 11일.
39_ 『장용영고사』 권6, 병진 정월 8일.

> 것이리오. 곧 원행園幸의 소중함 때문에 설치한 것인데, 오히려 규모가 세워지지도 않고 나의 본뜻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 폐단이 있었다. 이제부터 원행할 때에는 행궁에 이르렀을 때에나 원소에 이르렀을 때에 작문作門을 에워싸 호위하는 등의 일은 내외영에서 전담하여 거행토록 하라. 어가를 수행하는 영문營門은 시흥과 과천의 행재行在 외에는 보군步軍이 겹겹이 에워싸 호위케 할 뿐이다. 작문하여 잡인을 금하는 등의 일은 장용내외영이 주관하도록 하라. 어가를 수행하는 영문은 단지 해당 영문의 에워싸서 호위하는 일만 단속하게 하라. 이것으로 병조에 명하여 자세히 알아 절목을 마련하게 하고, 또한 장용내외영과 어가를 수행하는 영문으로 하여금 자세히 알도록 하라.[40]

이처럼 정조는 장용영 내외영의 군병들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게 하였던 것이다. 더불어 정조는 이번 행차에 연관해서 어가를 수행하는 훈련도감의 보군 중에서 특출난 군병을 정밀하게 뽑아 1초를 장용영의 진영에 소속시키게 하였다.[41] 자신의 호위를 장용영 군병에게 맡기는 동시에 어가를 수행할 훈련도감의 군병들을 장용영으로 이속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친위군병으로 삼은 것이다. 정조의 화성행차는 단순히 장헌세자를 참배하기 위함이 아닌 국왕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함이었다. 이와 같은 의도에서 정조는 장용영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훈련도감의 군병을 장용영으로 이속시키는 조처를 감행한 것이다.

1796년 화성행차에서 정조는 1월 22일 동장대에서 군병들의 시열試閱을 받았다. 화성행궁에서 동장대로 이동하는 동안 내영의 보군 5초가 좌열이 되고, 외영의 보군 5초가 우열이 되었다. 내외영의 마군馬軍이 횡렬하여 두국頭局에서 호위하게 하였다. 이로써 장용영 내외영의 군사들의 위용을 행차를 수행한 전 관료와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행사가 끝난 이후 장용외사 조심태에게 내구마內廐馬 1필, 장용내사 김지묵金持默에게 표피豹皮 1령, 독성중군禿城中軍 김후에게 숙마 1필을 하사하였다. 아울러 시열할 때 내외영에서 어가를 수행한 장사 및 성역을 감동監董한 장리將吏와 공장工匠 등에게 호궤를 베푸는 은전을 내려 주었다.[42]

1797년(정조 21) 정월의 화성행차 역시 장용영이 어가 호위를 맡았다. 어가를 호위할 마보군馬步軍의 숫자 및 금군의 번수番數는 정례대로 하여 인원을 충원하고, 정례에 의해 이번 행차의 번을 맡은 금위영이 어가를 호위하면서 장용영 향군 중 수원과 광주 각각 2초로 맡게 하였다. 더불어 장용내사가 장용위 선기대 경보군京步軍을 영솔하고 장용외사가 친군위 입방보군과 별군관을 영솔하고 출궁이나 환궁 시에 선상先廂과 후상後廂 전체를 영솔하게 하였다. 더불어 한강을 건너면서 노량진 남쪽에 횃불이 아닌 연등煙燈으로 대신하는 것을 노량아병에게 시키지 않고 장용영 내외영의 군병들로 하여금 주관하여 거행하게 하였다.[43]

1795년(정조 19)부터 정례된 정조 화성행차의 호위는 다음과 같이 화성 인근까지

40_ 『장용영고사』 권6, 병진 정월 13일.
41_ 『장용영고사』 권6, 병진 정월 8일.
42_ 『장용영고사』 권6, 병진 정월 22일.
43_ 『장용영고사』 권7, 정사 정월 25일.

는 장용내영이 주관하고, 지지대고개를 넘어오면서부터는 장용외영이 주관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즉, 장용대장이 선기대 1초, 마병 1초, 금군 50명을 영솔하여 선상이 되고, 훈련대장이 선기대 1초, 가후금군駕後禁軍 40명을 영솔하여 후상이 되고, 가전별초駕前別抄는 좌우익대·장용위는 왼쪽에 줄지어 서고, 가전별초는 신지信地에 줄지어 서고, 난후攔後는 장용영의 경향보군京鄕步軍과 훈국보군訓局步軍 2초를 각각 해당 당상장관堂上將官이 후상後廂에서 영솔하고, 미국尾局에서 수행하였다. 지지대에 도착하여 장용외사가 친군위 200명, 입방군 5초, 별군관 100명을 영솔하고 지지대 아래서 머물러 기다리다가, 선상先廂의 전열前列이 되어 행차를 이끌고 화성행궁까지 호위하였다.[44]

1798년(정조 22)의 화성행차는 전년의 행차보다 규모를 늘렸기 때문에 장용영 경향보군 12초, 선기대 2초는 장용대장이 모두 영솔하고, 장용외영의 화성유수부 지역에서는 좌우열 친군위별군관親軍衛別軍官 80인, 보군 5초를 장용외사가 영솔하도록 하였다.[45]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용영 내사보다 장용영 외사가 정조의 화성행차 전체를 영솔하는 막중한 중임을 맡게 된 것이다. 이는 정조의 마지막 화성행차인 1800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며 이어졌다.

44_『장용영고사』 권7, 정사 정월 29일.
45_『장용영고사』 권8, 무오 정월 7일.

SUWON HWASEONG

김준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04
장용영 외영의 군제 운영

1. 장용영 외영의 초기 군제

1793년(정조 17) 1월 화성유수부의 장용외영 군사는 「장용영내외영신정절목壯勇營內外營新定節目」의 기록대로 별효사 2초, 마병 4초, 속오군 26초, 각종의 표하군 547명, 치중군 200명으로 편성되었다.[1] 장용영 내외영의 군사편제는 중앙 오군영과 달리 각 초당 인원이 127명이기에 초기 장용외영의 주둔 군사는 대체로 4,811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초기 장용외영 군대 편성

소속	별효사(別驍士)	마병(馬兵)	속오군(束伍軍)	각색(各色) 표하군(標下軍)	치중군(輜重軍)	계
편성	2초	4초	26초	547명	200명	
인원	254명	508명	3,302명	547명	200명	4,811명

한편으로 정조는 이듬해인 1794년부터 화성유수부에 성곽을 축성할 것을 준비하면서 성정군城丁軍을 마련하였다. 전에 총융청 소관으로 집에 머무르는 군관 150명, 화성유수부 방어사영의 번을 면제받은 군관 290명, 토포사討捕使 소속으로 번을 면제받은 군관 459명을 성곽을 지키는 수첩군관守堞軍官으로 호칭을 바꾸고, 화성유수부의 군수별무사軍需別武士 2,002명에서 마사馬士 204명을 감한 1,798명 그리고 유방군留防軍 702명을 성정군이라 명칭하고 장차 성곽을 수비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였다.

1_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기미.

아울러 독성산성禿城山城이 중요한 군사요새이기에 이전 총융청 소관이었던 장초壯抄 2초, 아병 1초, 둔장초屯壯抄 68명, 군수보軍需保 125명을 독성산성의 소관 아래 모집해 들인 군관 30명, 수첩군관 130명, 아병 2초, 봉족군 400명, 별무사 1,523명과 합해서 성곽을 수비한다는 명목으로 독성에 전속시키고, 그중 장초 2초, 아병 1초, 둔장초 68명, 군수보 125명은 본래 쌀을 납부하는 군인들이었으니 그 납부한 쌀은 외영에서 받아 유치하도록 하였다.[2]

이와 같은 장용외영의 편성은 장용외영의 확대와 더불어 마·보병에 대한 개편작업부터 시행되었다. 먼저 8월에 보군인 장용외영의 속오군 26초 가운데 군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호軍戶와 군보軍保가 유기적으로 도와 병력이 강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26초 가운데 근본이 확실하고 건장한 양정良丁 13초를 편성하고, 나머지 13초는 보군保軍으로 강등하여 쌀을 거두어 군사를 기르게 하며 정군正軍의 자리가 비게 되면 승급시켜 외영의 군병으로 채우도록 하였다.[3]

이어서 당시 장별대壯別隊로 불리는 화성의 마병은 친군위체제로 재편되면서 좌열과 우열로 나누고 각각 100인씩의 마병이 소속되도록 하였다. 이들에게는 훈련도감의 예에 따라 제주마 1필과 관보官保·자보資保 각 1인씩에 봉족 2인이 배정되었다.[4]

장용외영의 친군위를 강화하기 위해 장령將領은 내영의 선기별장善騎別將의 예에 따라 경내의 무관으로 이미 변경의 방어 임무를 맡았던 사람으로 임명하며 좌장·우장은 전에 내외의 장將이나 오위장을 지낸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친군위의 좌열 100명은 경내의 전에 지방의 양반 출신 장교로서 절충장군折衝將軍과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낸 사람 및 추천 없이 출신한 사람 가운데서 신체가 좋고 무예가 있는 사람을 각별히 선발하며, 우열 100명은 문벌이 좋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여 선전관·부장·수문장의 세 자리로 추천할 만한 한량을 별도로 가려 뽑아 내금위의 예에 따라 3정正 9령領으로 임명하였다. 창설 초기에 친군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 양반 출신의 무반이 친군위를 지내지 못했으면 비록 다른 길로 무과에 합격하였어도 별군관 이외의 벼슬을 주지 못하도록 하였다.[5] 이와 같은 규정을 두었기에 장용외영의 친군위를 역임하기 위해 많은 무과 급제자들이 지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유수부에 장용외영이 설치된 지 9개월 만인 10월에 이르러 군제에 대한 일차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앞서의 내용과 같이 장용외영이 설치된 후 초기에는 총융청의 군사를 이관하였고, 이후 마병과 보병에 대한 보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양정을 확보하기가 극히 어려워서 보군을 양정으로 채우면 7초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 6초는 부득이 사천私賤으로 우선 숫자를 메우되 이는 3년을 기한하여 양정으로 바꾸어서 13초의 수를 맞추게 하였다. 외영의 정군 13초는 3사司로 편제를 정하여 좌사左

2_『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기미.
3_『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8월 기축.
4_『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9월 갑인.
5_『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9월 갑인.

司·중사中司·우사右司로 명칭을 정하고 좌사와 우사는 각각 5초를, 중사는 좌초左哨·중초中哨·우초右哨의 3초로 구성되었으며, 각 초당 7필의 말이 지급되었다.

장용내영의 직제에서 장령將領 중 천총千摠의 직임은 별로 긴요하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다. 외영에서도 내영의 예에 따라 천총을 설치하지 않았다. 3사의 파총把摠은 경내에서 경력이 있는 당상 무관으로 차출하고, 각 초의 초관 중 일곱 자리는 수문장守門將·부장部將으로 추천받은 자를 임명하고 여섯 자리는 편제를 정하되 선전관·수문장·부장으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전직 조관朝官으로 참상·참하와 출신을 통틀어 차출하도록 하였다. 추천받은 출신을 이미 별군관別軍官으로 편성하여 초관을 분배하여 추천하는 것은 어렵게 하였고, 별군관은 군총軍摠과는 달리 겸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였다.

외영은 군사들 복색도 훈련도감의 예를 모방하여 전건戰巾과 홑동달이[單挾袖], 사방색깔에 맞춘 더그레[號衣]를 갖추어 간편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도로 하고, 서울 군영의 예에 따라 스스로 마련하게 하였다. 군기인 조총鳥銃·환도環刀·남날개[南飛箇]·화승火繩·화약·탄환 등의 물품은 본부의 군기소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며, 역시 내영의 단총수單銃手에 대한 규정에 따라 기대장旗隊長과 사수射手의 활과 화살도 자체 마련하지 말도록 하였다.[6]

장용외영의 유방군留防軍도 해마다 동짓달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우선 화성행궁 방어를 위하여 번을 섰으며, 26초 중 반인 13초의 군사를 5번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번을 드는 차례는 15일로 기한을 정하였다. 동짓달 16일부터 전사를 시작으로 첫 차례는 3개 초가 하고 둘째 차례는 2개 초가 번을 서며, 다른 사司도 이런 식으로 교대한다. 중

6_『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10월 신사.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무예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 검서관 이덕무·박제가와 장용영 장교 백동수가 주관하여 1790년(정조 14) 간행된 무예서이다.

사는 3개 초로 되어 있으므로 두 차례로 나눌 필요가 없고 사 전체가 번을 선다.

자체 훈련은 날마다 실시하되 첫날과 마지막 날은 훈련장에서 하는 규정과 똑같이 연습하고 중간 날에는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수록된 무예 24기 중 마상무예 6기를 제외한 18기를 가르치고 시험을 보도록 하였다. 번을 든 지 11일이 되는 날에는 활쏘기와 화포 쏘기의 시험을 보이고 약간의 시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1796년(정조 20) 정월에 정조의 현륭원 거둥 시에 수가隨駕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어경청守禦京廳이 혁파되고 남한산성으로 출진하여 그 여유 인원인 향군 5초를 장용외영으로 이속시켰다. 향군 5초는 안산에서 뽑아 정원을 채운 반초半哨를 합한 700명 중에 용인 1초는 전초로, 광주 2초는 좌초·중초로, 시흥 1초는 우초로, 과천 1초는 후초로 편성하여 1사로 삼았다. 이때 용인·시흥·과천의 3초는 해당 읍이 양정良丁을 뽑아 충당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문제는 각 읍의 수어청에서 감액한 아병 등 여러 명색의 군병 800명의 신전身錢을 받아 지급하도록 하였다.[7] 이와 같은 향군 5초의 증원은 장차 개편할 화성을 방어하기 위한 협수군協守軍체제를 위한 기초준비였다.

2. 장용영 외영의 화성 협수군제協守軍制 완비

1793년(정조 17)에 일차적으로 정비되었던 장용외영의 군제는 화성 축조가 완공되는 전후의 시기에 외영제의 확립을 위한 몇 차례의 군제 개편이 뒤따랐다. 이는 조선의 군영체제를 국왕 중심의 오위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정조는 화성의 장용외영의 군제를 대隊–기旗–초哨–사司–영營으로 편성한 척계광의 군제 대신 오伍–대隊–통統–부部–위衛의 오위체제를 택한 것이다. 1793년 10월까지 일차적으로 정립된 장용외영의 제도는 기존의 척계광의 군제였던 반면,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는 오위제를 적용한 것이고 이를 위해 화성 주변의 도시를 함께 아우르는 협수군체제로 전환시켰다.

1795년(정조 19) 이후 장용외영을 협수군체제로 바꿔 나가면서 그 군액을 조달할 때 기존의 수원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액의 부족액은 모두 인근 군현의 총융청과 수어청에 소속되어 있던 군액에서 이급하였다. 이때까지도 총리사 채제공의 지적처럼 화성유수부를 환위하는 장용외영의 군제와 군수軍需가 정비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외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1795년 윤2월에 용인현·진위현·안산군을

7_ 『비변사등록』 183책, 정조 20년 정월 29일.

화성에 이속시키고,[8] 3개월 후인 5월에 화성을 위한 협수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용인·안산·진위는 화성유수부와 매우 가까운 지역일 뿐만 아니라 관장官長과 군병軍兵 그리고 백성들이 서로 왕래가 잦은 곳이기 때문에 세 고을의 수령들을 협수장協守將으로 정하여 화성을 지키게 하였다. 용인현령을 동성협수초관東城協守哨官으로, 진위현령을 남성협수초관南城協守哨官, 안산군수를 서성협수초관西城協守哨官으로 정하여 용인의 수어청 속오군 5초, 진위의 수어청 속오군 3초, 안산의 총융청 속오군 4초 등을 옮겨 화성의 타졸墜卒로 편성하였다. 군안軍案을 작성하여 1건은 군영에 놓아 1건은 되돌려 준 뒤 궐원闕員이 생기는 대로 채워 넣도록 하였으며, 만약 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좌계左契의 표신標信이 없더라도 반드시 전령의 영기令旗로 동원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9]

이 같은 협수체제는 1797년(정조 21) 화성유수 서유린徐有隣의 계청에 따라 총융청 남양병영에 소속되어 있던 시흥과 과천을 각각 북성협수장과 통구유격장通衢遊擊將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화성방위체제는 비로소 5읍 군현에 의한 협수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다.[10] 이어 이듬해(1798) 10월 5위체제로 일대 개혁 끝에 그 제도의 완비를 보았다.[11]

이로써 화성은 앞서 이속된 용인·진위·안산 3읍의 협수군 12초, 새로 이속된 시흥·과천의 속오군 5초, 안산·시흥의 장초군壯抄軍 2초, 용인·진위·안산의 수어아병 8초 등 도합 27초의 병력을 확보, 1영 5사의 군제를 갖추게 되었다.[12] 장용외영이 훈련도감을 능가하는 당대 최고의 계획은 1797년(정조 21) 12월 「화성진군제협수추절목급수성절목華城進軍制協守追節目及守城節目」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 내용은 42초의 병력을 입방군 20초, 협수군 22초로 편성 확대된 것이다.[13]

입방군은 번상의 방법으로 화성행궁을 교대로 방수防守하는 주력부대로서 정군正軍이라고도 불렸다. 전·좌·우·후사 등 1영 4사의 편제로 이루어진 이 부대는 각 읍 군사 중 선발된 정장精壯한 자로 구성되었으며, 그 입방 방법은 1년에 10초씩 5번으로 나누어 1번 2초씩 입방케 하였다. 각 읍별의 소속과 초소는 다음과 같다.[14]

8_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윤2월 기축.
9_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5월 을해.
10_ 장필기, 「정조대 화성건설과 수도방위체제의 재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183쪽.
11_ 『정조실록』 권49, 정조 22년 10월 기유.
12_ 『정조실록』 권47, 정조 21년 9월 경인.
13_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264쪽.
14_ 『정조실록』 권47, 정조 21년 12월 을축.

<표 2> 화성 협수군의 입방군체제

부대명	합	소속 읍 및 지원 초
전사	5	수원 남변 소재 5초
좌사	5	용인 2초, 진위 1초 2기, 수원·진위·용인 접계 소재 1초
우사	5	안산 1초 1기, 시흥 1초, 과천 2기, 수원 서변 안산 접계 소재 2초
후사	5	수원 북변 소재 5초

정조는 화성을 둘러싸고 있는 용인·진위·안산·시흥·과천 등 5읍의 군사들로 하여금 유사시 화성을 돕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물론 수도 한성부를 방비하기 위하여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만약에 있을 역모를 막기 위한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을 것이다.

주대병駐隊兵·아병牙兵·유병遊兵 등과 함께 입방으로 초정抄定한 나머지 병력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읍별 초수는 용인 3초, 진위 2초, 시흥 2초, 안산 3초, 과천 2초 등이었다. 4대문을 중심으로 한 각 문의 협수장은 〈표 3〉과 같이 편성하였다.

<표 3> 화성 협수군의 협수장[15]

성문	구역	협수장	비고
장안문	북성	시흥현령	
팔달문	남성	진위현령	
화서문	서성	안산군수	
창룡문	동성	용인현령	
신풍루	화성행궁	과천현감	유격장(遊擊將)

또한 앞의 입방군·협수군 초수 이외에도 속오·아병·장초 등 각 읍 병력 총 27초 중 입방군 7초, 난후아병攔後牙兵 5초, 협수군 10초, 주대駐隊와 유병遊兵 5초로 새로 편제되는 과정에 있었으며, 이들의 통솔은 20인의 초관과 각 읍 수령 겸임의 파총이 맡았다. 난후아병 5초는 입방군 4사와 연관된 부대로서 영화역 찰방을 파총으로 삼았고, 아병의 구성은 영화역 소속의 역졸이 대부분이었다. 또 10초의 협수군은 주대병駐隊兵 2초, 유병 3초를 가졌다.

앞의 외영군제의 주력을 이루는 입방·협수군 이외에도 화성에는 수성군守城軍 또는 성정군城丁軍이라 불리는 별도의 병력이 배치되었다. 수원부 판관 겸임의 영성장營城將 아래 4대문 담당의 성장城將 4원員, 치총雉摠 8원, 그리고 초관 16원 아래 수첩군관守堞軍官 47인, 타장垜將 180인(5垜 1將), 성정군 8,620명이 있었다. 성정군은 수원부 내의 각양 납미군納米軍으로 충당되었는데, 제번군관除番軍官·별무사別武士·보군보步軍保·수미군需米軍·감마보減馬保·서고별무사西庫別武士·둔장초屯壯抄·치중보輜重保·둔아병屯牙兵 등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매 성첩에 5명씩 도합 4,565명이 타장 아래 배치되었으며, 나머지 1,620명은 예비병력으로 삼았다.[16]

15_ 『정조실록』 권47, 정조 21년 12월 을축, 화성진군제협수추절목(華城進軍制協守追節目).

16_ 『정조실록』 권47, 정조 21년 12월 을축.

<표 4> 1797년(정조 21) 9월 화성 장용외영의 각 읍 편성

읍명	구 편성		신 편성		비고
용인	속오 아병 신아병	5초 4초 1초	입방군 협수군 주대군	2초 1기 3초 2초	
	계	10초	아병	2초 2기	진위아병 1기와 합침
진위	속오 아병	3초 2초	입방군 협수군	1초 2기 2초	
	계	5초	아병	1초 1기	용인아병 2기와 합침
안산	속오 장초	4초 1초	입방군 협수군	1초 1기 3초	
	계	4초	아병	2기	과천아병과 합침
시흥	속오 장초	3초 1초	입방군 협수군	1초 2초	
	계	4초	유병	1초	
과천	속오 장초	2초 1초	입방군 유병	2기 2초	
	계	3초	아병	1기	안산아병과 합침

이러한 군제가 재편성하게 된 배경은 당시 민폐의 표적이 되고 있던 군역의 모순, 곧 군정의 문란에 대응하여 군정이 부담해야 할 군액을 줄이고, 병농일치를 특징으로 하는 5위법의 실현을 통해 현실적으로 보다 많은 군사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발상된 것이었다.[17]

조선의 군제는 본래 5위체제였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을 거치면서 군영제도가 변화된 것을 정조는 다시 국초의 5위제로 회복한 것이다. 아울러 숙종 이래 군정 문란 등으로 약화된 중앙의 군사력을 개혁하고, 또 기존의 정치세력과 연계된 중앙 군영을 근본적으로 개혁, 국왕 자신이 군권을 완전 장악한다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군정의 고질적인 면은 군포 부담과 함께 그 징수를 둘러싼 폐단에 있었으며, 앞의 입방·협수군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화성 속읍의 군사는 국왕의 배려와 의도와는 달리 이중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18] 예컨대 용인현의 경우 총 군액 2,803명 중 납포양군 1,159명과 납포사군 847명 등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제 입역을 담당하는 비非납포군은 무포양군無布良軍(금·어영정군, 장용향군) 172명과 무포사군無布私軍(속오군) 625명뿐이었다.[19]

이러한 사정은 진위·안산·시흥·과천 등 다른 속읍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17_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264쪽.
18_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264~265쪽.
19_ 『정조실록』 권49, 정조 22년 10월 기유.



화성 협수군체제에 포함된 군현
(『해동여지도』 중 「경기도지도」 일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조는 화성과 5개 속읍민이 부담해야 하는 과중한 군액에 유의, 전령을 내려 개선책을 제시했는데, 그 대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0]

① 5개 속읍의 군총을 모두 장용외영에 소속시켜 보군 12초를 초출하여 외영의 13초와 합하여 25초를 편성하고 나머지 장정은 수성군에 부속시킨다.
② 5개 속읍이 서울의 각 영·사에 바치던 포와 미를 외영에 소속시켜 군수품으로 쓰게 하되, 그 형편에 따라 감액하여 주도록 한다.
③ 화성부에 두었던 아별무사兒別武士 1,000여 인은 본래부터 잘못된 규칙이므로 모두 없애, 아약첨정兒弱簽丁에 대하여 부역이나 군역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
④ 납미군納米軍의 부담을 경감시켜, 종래 화성에 바치던 6두와 4두를 각각 1두씩 감하여, 3두와 5두의 차만 두는 것으로 표준을 삼도록 한다.
⑤ 5개 속읍의 군총이나 민인에게는 인징隣徵을 면제해 주고, 속오군 510명, 납포군 490명을 특별히 감액케 한다.

그 뒤 장용외영의 편성·운영을 오위체제로 일대 개편하는 작업은 1798년(정조 22) 10월 19일 비변사에서 올린 「장용외영오읍군병절목」으로 구체화되고, 이를 화성에서 시행케 하였다. 그 결과 수원부 납미군의 1두 감액을 비롯하여 5개 속읍의 포미 부담과 인징 등의 모순도 크게 감쇄되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서울 각 영·사에 편성되어 있던 각 읍 납포군의 포미를 앞으로는 화성부에 직납케 함으로써 중간 작폐

20_ 『화성성역의궤』 권1, 전령(傳令), 무오 10월 19일.

도 줄어들고 허액虛額을 일소시킴과 아울러, 납포미의 필·두수도 감하되는[21] 등 군정 운영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5위체제로 전환 이후 종전의 납포군도 실제 군사로 입역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군제 개혁에 따른 경각영京各營·사司의 손실 충액은, 재정적인 것은 균역청均役廳의 급대給代로, 무포군의 경우 군사의 인원은 감액으로 처리되었다. 이때 조정된 각 읍별 신·구 군액의 내용을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1798년(정조 22) 10월에 조정된 장용외영 소속의 군액[22]

군액 읍명	구액		신정액		감액 내용	
수원부	무포양군 납미양군 납미사군 독성군	1,651 7,409 1,359 2,439	무포양군 납미양군 납미사군 독성군	1,651 7,409 675 2,123	납미 1두씩 감하 본부 독성	684 316
	계	12,858	계	11,858	계	1,000(아별무사)
용인	무포양군 납포양군 무포사군 납포사군	172 1,159 625 847	무포양군 납포양군 무포사군 납포사군	172 1,006 475 847	납포양군 무포사군	153 150
	계	2,803	계	2,500	계	303
진위	무포양군 납포양군 무포사군 납포사군	92 937 380 611	무포양군 납포양군 무포사군 납포사군	92 797 290 611	납포양군 무포사군	140 90
	계	2,020	계	1,790	계	230
안산	무포양군 납포양군 무포사군 납포사군	77 478 527 309	무포양군 납포양군 무포사군 납포사군	77 343 407 309	납포양군 무포사군	135 120
	계	1,391	계	1,136	계	255
시흥	무포양군 납포양군 무포사군 납포사군	121 439 477 279	무포양군 납포양군 무포사군 납포사군	121 299 387 279	납포양군 무포사군	140 90
	계	1,316	계	1,086	계	230
과천	무포양군 납포양군 무포사군 납포사군	139 537 465 493	무포양군 납포양군 무포사군 납포양군	139 391 405 493	납포양군 무포사군	145 60
	계	1,634	계	1,428	계	205
합계		22,022		19,798		2,224

21_ 『화성성역의궤』 권1; 『정조실록』 권49, 정조 22년 10월 기유.

22_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267쪽.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1798년(정조 22) 10월에 새로 조정된 군액은 구액 총 2만 2,022명 중 10%에 해당되는 2,224명이 감소되어 신정액은 총 1만 9,798명이 되었으며, 그 감액 내용은 수원부의 아별무사 1,000명(본부本府 684명, 독성禿城 316명)[23]을 비롯하여, 납포양군·무포사군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원부와 각 속읍의 부담을 정리한 다음 각 읍 군사는 오위체제로 재편됨으로써, 화성에 설치된 장용외영의 군제는 국왕이 승하하던 1800년(정조 24)까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표 6> 1798년(정조 22) 10월에 조정된 장용외영 본부 소속의 군액

구분		전재(前在) 군액		시재(時在) 군액	
				군액	내용
본부 군액	무포양군		1,651	1,651	장락대 : 1,651명(양정) 팔달대 : 1,388명(통장 12명, 타장 27명 포함) 창룡대 : 802명(통장 8명, 타장 18명 포함) 화서대 : 2,005명(통장 16명, 타장 36명 포함) 장안대 : 1,740명(통장 16명, 타장 36명 포함) 주대책응병(駐隊策應兵) : 450명(양·사정을 통틀어 씀) 중포사 가파군 : 40명(양·사정을 통틀어 씀) 내포사 가파군 : 40명(양·사정을 통틀어 씀) 실제 총수 : 8,116명 남은 군사 : 1,619명 총수 : 9,735명
	납미양군	수미군(需米軍)	2,000	7,409	
		유방군(留坊軍)	702		
		감마사(減馬士)	204		
		감마보(減馬保)	417		
		보군(保軍)	1,560		
		치중군(輜重軍)	95		
		재가군관(在家軍官)	147		
		도안군관(都案軍官)	101		
		읍별무사(邑別武士)	1,231		
		화약고별무사(火藥庫別武士)	203		
		금도군관(禁盜軍官)	459		
		수첩군관(守堞軍官)	290		
		계	7,409		
	납미사군	감마보(減馬保)	54	675	
		치중보(輜重保)	10		
		읍별무사(邑別武士)	300		
		아별무사(兒別武士)	684		
		둔아병(屯牙兵)	186		
		노아병(奴牙兵)	125		
		계	1,359		
독성군		별무사(別武士)	819	2,123	
		아별무사(兒別武士)	316		
		보별무사(保別武士)	400		
		노별무사(奴別武士)	91		
		수첩군관(守堞軍官)	197		
		모입군(募入軍)	116		
		모입초군(募入哨軍)	250		
		장초군(將抄軍)	250		
		계	2,439		
총수			12,858	11,858	감액 : 아별무사 1,000명(본부 684명, 독성 316명)

23_『화성지』 권1, 군총.

군제 개편에 따라 이제 화성의 5위는 전·좌·중·우·후위로 나누었고, 각 위는 그들이 방수하는 성문 지경地境에 따라 팔달八達·신풍新豊·화서華西·장안위長安衛 등의 별칭을 붙였다. 또 이 5위 전체의 명칭을 '장락위長樂衛'[24]라 하고, 각 위의 위장은 ① 전위(팔달위八達衛 : 진위현령) ② 좌위(창룡위蒼龍衛 : 용인현령) ③ 중위(신풍위新豊衛 : 유병장, 본부 당상관) ④ 우위(화서위華西衛 : 안산군수) ⑤ 후위(장안위長安衛 : 과천현감, 협수위장으로는 시흥현령을 보임) 등으로 편제하였다.

화성의 장락5위에는 각 위마다 위장 1명, 부장 5명, 통장 3명, 대정 9명의 지휘관을 배치하였다. 또 이와는 달리 '속5위'라 불리는 수성군 편제를 마련, 위마다 위장 1명, 부장 5명, 통장 20명, 타장垜將 45명씩을 두어, 유사시에 성정군을 통솔하여 수성을 주요 임무로 한 지휘체제를 갖추었다. 위장과 부장을 차출할 때에는 외영에서 의망擬望한 다음 병조에 이첩, 개정開政 시에 차출케 했으며, 위장의 임기는 15개월, 참상·참하의 부장들은 그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

화성 속읍의 수령은 평상시에는 장락5위의 위장으로서 국왕의 원행 때에는 수가 또는 환위環衛하는 5위의 호위체제를 이루었다. 또 유사시에는 속5위의 위장으로서 각기 행정구역의 주민과 거의 일치하는 소속 성정을 동원하는 수성체제를 갖추었으며, 각 위는 화성의 4대문을 기준으로 나눈 수성구역을 배정받았다. 한편 새로 편제된 장락5위는 매 위마다 정병인 장락대와 성정군인 팔달·창룡·신풍·화서·장안위 등으로 편제되었으며, 이중 신풍위는 통구유병通衢遊兵으로, 유병장도 화성 경내의 당상내·회장이나 조관朝官 역임자 중에서 차출하여 임명하였다. 또한 처음에는 과천과 시흥의 군병으로 장안위를 삼았으나, 얼마 뒤 시흥현령은 협수위장으로 옮겨졌다. 이 화성 장락5위의 편성 내용을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장락대는 정예군으로 편성된 상근부대로서 국왕의 행행 때 호위의 임무를 맡았다. 장락5위가 행궁을 호위할 때에는 전·좌·우·후위가 서로 잇대어 고리 모양으로 둘러서 호위하고, 중위는 4위 안에서 둥글게 둘러서 호위하였다. 또 진陣을 펼칠 때는 4위는 외루外壘, 중위는 자벽子壁이 되어 임기응변하여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국왕의 행행 시 척후나 복병은 속읍에 소재하고 있는 신풍대에서 차출케 했는데, 장락대는 본부나 속읍, 신·구군을 막론하고 유사시 군정이 집결해야 할 장소를 기점으로 하여 거주하는 인근 지역으로부터 충정充定하여 점차 먼 곳으로 확산해 나가면서, 한 지역의 군정을 모두 동일한 부대에 편성시키는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형상인 어린작대魚鱗作隊하는 것을[25] 규례로 삼았다.

장락대는 무포양군인 금위영·어영청·양영의 정병과 병조상번기병이 주축을 이루고, 그 자보資保 중에서 정장한 자를 뽑아서 매위 635명, 총 3,175명의 규모를 갖추었

24_ 화성에 주둔한 장용외영의 전체 명칭을 장락위라고 한 것은 화성행궁 내에 있는 '장락당(長樂堂)'의 이름을 딴 것이다. 장락당은 1795년 윤2월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위해 봉수당(奉壽堂)에 붙여 지은 건물인데 당시 혜경궁이 침전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정조의 화성행차 시 장락당은 정조의 침전으로 사용되었다. 즉 장락당은 정조의 침실 명칭으로 자신의 편안한 거처이기에, 화성을 지키는 장용외영의 이름을 자신을 안전하게 호위하기 위한 의도로서 장락위라고 한 것이다.

25_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연구』, 일지사, 1995, 90쪽.

<표 7> 화성 장락5위의 편성

구분	장락전위	장락좌위	장락중위	장락우위	장락후위
정병(正兵)	본부 남쪽 장락대 635명	용인 장락대 381명 진위 장락대 254명	본부 수상(水上) 각 면 장락대 389명 용인 장락대 123명 진위 장락대 123명	본부 서쪽 장락대 361명 안산 장락대 274명	본부 서북쪽 장락대 266명 시흥 장락대 169명 과천 장락대 2명
	합 635명 (127명씩 5부)	합 635명 (127명씩 5부)	합 635명 (127명씩 5부)	합 635명 (127명씩 5부)	합 635명 (127명씩 5부)
성정(城丁)	남성 팔달위	동성 창룡위	유병 신풍위	서성 화서위	북성 장안위
	남쪽 팔달대 1,104명	동쪽 창룡대 736명	용인 신풍대 275명 안산 신풍대 250명 시흥 신풍대 213명 진위 신풍대 170명 과천 신풍대 52명 도합 960명	서쪽 화서대 1,464명	서북쪽 장안대 1,464명
	전·좌·중 3부 368명씩	전·좌 2부 368명씩		전·좌·중 3부 368명씩	전·좌·중 3부 368명씩
	진위 팔달대 720명	용인 창룡대 1,096명			
	우·후 2부 360명씩	중부 376명 우·후 2부 360명씩		우부 360명 후부 안산 화서대 360명	우부 360명 후부 과천 장안대 360명
보충병 지키는 곳	본부 팔달대 245명 진위 팔달대 265명	본부 창룡대 40명 용인 창룡대 150명		본부 화서대 320명	본부 서북쪽 장안대 224명 과천 장안대 166명
	정문 및 남암문·서남암문·각루·수문·치성·적대·봉돈·포루 등 13개 증원	정문 및 포루·치성·노대·공심돈 등 7개 증원		정문 및 각루·암문·치성·포루·노대·공심돈 등 11개 증원	정문 및 수문·각루·암문·적대·포루 등 10개 증원
	본부 팔달대 39명 통장 12명 타장 27명	본부 창룡대 26명 통장 8명 타장 18명	4성 통구부장(通衢部將) 8인 120명씩 거느림.	본부 화서대 52명 통장 16명 타장 36명	본부 장안대 52명 통장 16명 타장 36명
	진위 팔달대 26명 통장 8명 타장 18명	용인 창룡대 39명 통장 12명 타장 27명		안산 화서대 13명 통장 4명 타장 9명	과천 장안대 13명 통장 4명 타장 9명
	진위 팔달대 184명 위장·부장·통장, 각색 표하 및 화부 마련	용인 창룡대 184명 위장·부장·통장, 각색 표하 및 화부 마련	과천 신풍대 56명 위장·부장의 표하 마련	안산 화서대 15명 본부 화서대 169명 위장·부장·통장, 각색 표하 및 화부 마련	과천 장안대 184명 위장·부장·통장, 각색 표하 및 화부 마련
총계	2,583명	2,271명	1,016명	2,393명	2,463명



장용외영 부대별 경계 표석
장용외영이 오위체제로 되면서 화성의 각 지역 방어도 신풍위, 팔달위, 장안위, 창룡위, 화서위가 나눠서 분담하였다.

다. 정군正軍인 이들 정초군精抄軍은 본부 정군 13초와 속5읍 속오가초束伍加抄 12초로 25초를 이루어 겨울과 봄 6개월간 분번입방分番入防하였다. 여기에서 각 위 부장 1인이 통솔하는 관하인원은 127명으로 정하였다.[26]

이들 정군 외의 속5위의 성정군은 전위(팔달위) 2,583명, 좌위(창룡위) 2,271명, 중위(유병, 신풍위) 960명, 우위(화서위) 2,378명, 후위(장안위) 2,463명 등 총 1만 655명의 병력을 갖추었다. 이들은 주로 작읍의 납포군으로 편성되었으며, 평상시에는 실역實役에 종사하지 않았다. 성정군의 대종을 이루는 이들 납포군은 종전의 경각영·사에 납부하던 각종의 미·포를 군제 개편 이후부터는 화성에 직접 납부함으로써 수원부 재정의 충실화를 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속5읍민에 대한 군액의 감하조처는 기존의 납포군이 부담하고 있던 지나친 군액을 현실성 있게 대폭 조정함으로써 속읍민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부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즉 납미액의 경우, 이제까지 역의 종류에 따라 6두·4두·3두이던 것을 5두·3두로 각각 감하, 양역

26_ 『정조실록』 권49, 정조 22년 10월 기유, 장용외영오읍군병절목(壯勇外營五邑軍兵節目).

으로 납미하는 5두의 역 7,479명과 노奴로 납미하는 3두의 역 578명 두 가지로 통일함으로써, 적어도 수원부와 속5읍민의 부담을 크게 감소시켰다.

이와 같이 장용외영은 직접적으로는 화성성곽·화성행궁·현륭원을 수행하고, 거의 6,200여 명이 동원되는 원행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간접적으로는 화성 축조를 계기로 정조의 친위군영으로서 기존의 중앙 군영을 훨씬 능가하는 정예의 군사력을 확보, 정조의 왕권 강화정책과 부국강병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조 말년 장용영의 재정은 당시 어느 군영보다 충실했던 듯 순조 초 공노비를 혁파했을 때 발생한 재정 결손을 장용영의 재정으로 충당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27]

결국 화성에 주둔시킨 총병력 2만 명을 헤아리는 장용영은 정치적 위용과 왕권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군사적 동력이자 친위군영으로서 각별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27_ 이태진, 「18세기 왕정과 삼군문 도성 수비체제 및 친위군영」, 『조선후기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296쪽.

조의 화성행차는 왕실의 경사를 축하하는 의미가 있었다. 1795년은 정조가 국왕에 오른 지 20년이 되는 해였고, 정순왕후의 나이가 51세가 되는 등 왕실의 경사가 겹치는 해였다.

방문한 것은 1765년(영조 41)의 일이었다. 사도세자는 1762년에 사망했으므로, 정조는 부친이 사망하고 3년이 지나서야 부친의 묘소를 방문할 수 있었다. 정조는 1776년(영조 52)에

이후에도 계속 부담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조는 승정원일기에 있는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것을 하락했고,

그래서 한 존호를 올렸고, 묘소의 이름을 '원'에서 '묘'로 고쳤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사당인 '수은묘'를 설치하였다가 이내 '경모궁'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789년(정조 13)에

키려는 의지를 드러냈고, 1795년에는 혜경궁과 함께 현륭원을 방문함으로써 이를 더욱 구체화하였다.1795년 화성행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행사는 현륭원 방문과 봉수당의 회갑

성'이라는 점이 중요했고, 화성은 정조가 현륭원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건설한 도시였다. 또한 정조가 회갑잔치에 앞서 혜경궁과 함께 현륭원을 방문한 것도 사도세자의 존재를 부

모궁을 방문하여 제사를 지냈다. 정조는 1776년에 경모궁을 설치한 이후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하면서 사도세자를 복권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으므로 정조의 방문이 새

세자에게 묘헌례를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조는 사도세자를 추모하고 복권시키려는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왕실 가족 전체임을 보여 줄 수 있었다. 환조 부부의 위판을 영흥본

사모하는 태조가 익조의 위판을 제사공간에 추가로 모셨듯이, 부친인 사도세자를 사모하는 정조는 사도세자의 위판을 제사공간에 추가로 모시고 싶다는 희망이 담겨 있는 행사

. 민종헌은 바로 민진후의 증손이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숙종이 신덕왕후의 위판을 추가로 모시고, 자신이 환조 부부의 위판을 추가로 모셨듯이,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숭하여

은 해나무를 둘러싼 축대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영괴대' 글씨를 직접 써 주고 비석의 음기를 지어 주었다. 또한 정조는 사도세자가 온양행궁에 행차했을 때 수행했거나

시키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1795년 정조의 화성행차는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숭하려는 그의 의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행사였다. 정조가 화성에서 개최한

궁의 두 딸인 청연군주와 청선군주를 비롯하여 혜경궁의 친정 친척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정조는 회갑잔치 이후에 거행된 양로연에서 혜경궁과 동갑인 61세의 노인들을 포함시킴으

회갑잔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가 있었고, 주인공에는 회갑잔치의 기쁨을 확산시키는 행사들이 있었다. 혜경궁을 주인공으로 하는 봉수당의 회갑잔치는 이러한 행사들의 정

혜경궁의 뜻을 따라 내편전에서 간략하게 거행되었다. 그렇지만 혜경궁을 주인공으로 하는 가운데 왕실의 사위들과 혜경궁의 친척들이 대거 참석했고, 정조는 회갑잔치에서 불려

회갑일에 경모궁을 방문하여 제사를 올릴 때에는 혜경궁도 참석하여 묘헌례를 거행하였다. 정조는 사도세자를 위한 행사를 할 때에 혜경궁을 유리하는 행사도 함께 거행하였다. 정

수원 SUWONHWASEONG 수원 SUWONHWASEONG
화성 SUWONHWASEONG SUWONHWASEONG 화성 SUWON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수원화성 SUWON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한 행사였다. 다만 이때 화성에서 선발된 인원의 숫자는 평소보다 많았다. 정조가 화성에서 개최한 양로연도 특별한 행사였다. 정조는 혜경궁의 회갑잔치를 거행한 다음 날 양로연

국왕이 궁궐에서 주최하는 양로연에 참석하는 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화성의 양로연에는 61세의 노인도 참석했는데, 이들은 회갑을 맞은 혜경궁과 동갑이었

를 시행하여 합격자를 뽑았다. 또한 정조는 영흥본궁에 환조 부부의 위판을 추가로 모실 때 함흥과 영흥 출신의 유생들에게 과거를 실시했고, 무사들에게 무예시험을 보았으며, 함

연을 개최한 것은 1795년 화성행차가 유일하였다. 이는 화성에서 혜경궁의 회갑잔치를 개최하면서 현지의 노인들과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였다.정조는 화성행차에서 현지 노인들

행'이라 표현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베푸는 은혜로운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이다.정조는 화성행차를 통해 행차가 지나갔던 지역의 백성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

폐를 방도를 생각하는데, 혜경궁의 회갑잔치를 거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라면 어떠할 것이 있다는 판단하였다. 이날 정조는 1년 전 환곡의 상환을 연기시켰던 것을 모두

혜택이 미치도록 조치하였다. 이를테면 행사 경비에서 남은 2만 냥을 활용하여 마련한 '을묘정리곡'이 그것이다. 이때 정조는 전국 300군현의 백성들에게 정리곡을 고루 배포함으로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1795년 왕실에서 맞이한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을묘정리곡은 전국의 군현으로 배포되어 환곡의 자본으로 이용되었는데, 이

할 필요가 있다. 국왕은 정치를 잘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 정조의 화성행차는 사도세자의 완전한 복권을 추진하고 혜경궁을

한 백성들을 위한 행사들을 개최함으로써 왕실의 경사를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려고 하였다. 정조의 화성행차는 이처럼 [illegible] 개최되었다. 그 중 11일에 [illegible]

일하였으면 과거를 실행하여 사람을 뽑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향교를 찾아 공자를 배알한 후에는 학문을 장려하는 과거시험을 치르는 것이 적절함을 인급하

음에는 화성·광주·과천의 신비들과 부사들에게만 시험 자격을 주었지만 금천, 곧 시흥 지역의 신비들까지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문과 시험의 응시자격은 화성·광주·과천·시흥

만이 응시자격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화성 유생은 장원에 이름이 올라 있고, 유적이나 교안 중 한 가지에만 올라 있어도 응시자격을 주었다. 앞에서 살폈듯이 이에 덧붙여 정조

chapter 5

1795년 8일간의 화성행차

01 1795년 왕실 행사와 화성행차
02 8일간의 화성행차
03 화성행차와 군사훈련
04 을묘원행 재정의 마련과 운영

SUWON HWASEONG

김문식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01
1795년 왕실 행사와 화성행차

1795년(정조 19)은 정조에게 여러 가지로 뜻 깊은 해였다. 정조 자신이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되었고 할머니 정순왕후貞純王后는 망육望六, 즉 51세가 되며, 사도세자와 혜경궁 부부는 함께 회갑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다.[1]

정조는 1795년 새해가 되자 왕실의 어른들께 존호尊號를 올렸고, 사도세자의 생일에는 왕실의 어른들과 함께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景慕宮을 방문하여 제사를 올렸다. 또한 윤2월에는 7박 8일의 일정으로 혜경궁을 모시고 화성에 행차하여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顯隆園을 참배하고, 화성행궁의 봉수당奉壽堂에서 혜경궁의 회갑잔치를 거행하였다.

그러나 1795년의 행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4월에 정조는 태조의 부친인 환조桓祖가 탄생한 지 8주갑이 되는 해를 맞아 태조 부부의 위판이 모셔져 있던 영흥본궁에 환조 부부의 위판을 추가했고, 혜경궁의 실제 생일인 6월 18일에는 창경궁 연희당에서 다시 한 번 혜경궁의 회갑잔치를 열었다. 또한 10월에는 사도세자의 행적이 남아 있는 온양행궁에 이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1795년에 있었던 다섯 가지 행사를 시간 순으로 개략적으로 검토한 다음, 정조가 화성에 행차한 목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傳敎), 갑인 12월 10일. "上之御極二十年乙卯, 卽慈殿寶齡望六, 景慕宮誕彌舊甲, 慈宮寶齡周甲之歲也."

1. 1795년의 다섯 가지 행사

1) 경모궁의 제사(1월)

1795년의 행사는 정조가 왕실의 어른들께 존호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정조는 1월 15일에 왕대비로 있던 정순왕후에게 '수경綏敬'이란 존호를, 1월 17일에는 사도세자에게 '장륜융범기명창휴章倫隆範基命彰休'란 추상존호追上尊號와 혜경궁에게 '휘목徽穆'이란 가상존호加上尊號를 올렸고, 명정전明政殿에서 이를 축하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2] 존호를 올리는 행사는 정순왕후가 51세가 되고, 사도세자와 혜경궁이 회갑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왕실 가족에게 존호를 추가할 경우 국왕은 여덟 글자, 왕세자는 네 글자의 존호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따라서 사도세자에게 여덟 글자의 존호를 추가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예우에 해당하였다.

1월 21일에 정조는 왕실의 어른들과 함께 경모궁을 방문하여 참배하였다. 이날은 바로 사도세자의 회갑이 되는 날이었다. 정조는 국왕이 된 직후 사도세자의 위판을 모신 경모궁을 창경궁 근처에 설치하고, 매월 이곳을 방문하여 참배하기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방문자는 정조 혼자가 아니라 정순왕후와 혜경궁, 왕비[內殿, 中宮殿]가 함께하였으며, 정순왕후와 혜경궁, 왕비가 경모궁을 방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또한 혜경궁과 왕비에게는 묘현례廟見禮를 거행하는 의미도 있었다. 이날 정순왕후와 혜경궁, 왕비는 적의翟衣에 머리 장식을 했고, 정조는 면복冕服을 갖추어 입었다.[3] 정조 일행이 경모궁으로 행차할 때 의장으로 정순왕후와 왕비는 주장朱杖을 사용했고, 혜경궁은 오장烏杖을 사용하였다.[4] 왕비와 세자빈(혜경궁)의 위상을 구분한 의장이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혜경궁은 경모궁 계단 위의 중앙에서, 정조와 왕비는 길의 동서에 나눠 서서 사도세자의 위판을 향해 두 번 절을 하였다. 다음으로 사도세자의 신주를 감실龕室에서 내어와 신좌神座에 설치했고, 정순왕후가 막차에서 나와 경모궁 건물 안의 중앙에 마련된 자리로 가서 섰다. 혜경궁과 정조, 왕비는 다시 두 번 절을 올렸고, 정순왕후는 세 번 향을 올린 다음에 술잔을 올렸다. 정순왕후는 절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례奠爵禮만 거행한 것이다. 정순왕후가 술잔을 올리고 나자 혜경궁과 정조, 왕비가 다시 두 번 절을 올리는 것으로 행사는 끝이 났다.[5] 혜경궁과 왕비는 묘현례廟見禮를 거행한 것이다.

세자빈에 해당하는 혜경궁이 경모궁을 방문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정조와 대신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가령 영중추부사

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갑인 12월 10일.

3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2, 경모궁전배(景慕宮展拜), 연설(筵說), 갑인 12월 초9일;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2, 경모궁전배(景慕宮展拜), 의주(儀註), 「왕대비예경모궁전작례혜경궁중궁전묘현례급행례의(王大妃詣景慕宮奠爵禮惠慶宮中宮殿廟見禮及行禮儀)」.

4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2, 경모궁전배, 의주, 「왕대비전혜경궁중궁전예경모궁시절목(王大妃殿惠慶宮中宮殿詣景慕宮時節目)」.

5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2, 경모궁전배, 의주, 「왕대비예경모궁전작례혜경궁중궁전묘현예급행례의」.



『**궁원의(宮園儀)**』(수원화성박물관 소장)
1785년(정조 9)에 간행된 책으로 사도세자의 신위를 모신 경모궁과 묘소 영우원에 관한 의식과 절차가 정리되어 있다.

로 있던 채제공蔡濟恭의 견해를 살펴보자.

> 자전慈殿(정순왕후), 자궁慈宮(혜경궁), 곤전坤殿(왕비)이 같은 날 경모궁에 나아가 정례情禮를 펴는 것은 실로 인정人情과 천리天理에 부합하는 것으로 매우 성대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그 예절은 전대를 상고해도 근거할 만한 법도가 없고, 국조國朝(조선)의 전례에도 두루 비추어 보거나 실행할 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신처럼 노둔하고 용렬하며 천박한 사람이 감히 그 사이에 끼일 만한 의견이 있겠습니까? 다만 억견으로 말한다면 곤전은 스스로 묘정廟庭의 판위에 두 번 절하는 예를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궁은 곤전과 차이가 있으니 상탁床卓 앞에서 두 번 절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으며, 자전은 묘 안에 들어가서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예의상 절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직접 탁자 앞에 앉으시면 술 한 잔을 올리고, 마치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각 전殿이 차례로 술을 올리면 정情에 근심이 없을 것이요, 예禮에서도 흠결이 없을 것입니다.[6]

정조는 여러 차례 대신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혜경궁이 절을 하는 위치는 경모궁의 계단 위로 하며, 혜경궁이 절을 하는 횟수는 네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최종 결정하였다.[7]

1795년은 2월에 윤달이 있었기 때문에 총 13개월이었다. 13개월 동안 정조는 매월 그믐날 경모궁에서 거행하는 삭향朔享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아 총 51일을 경모궁을 방문하였다. 조선의 국왕이 한 곳을 50일 이상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정조는 부친이 살아 계실 때 자식으로서 다하지 못한 정을 조금이나마 펴기 위해 이처럼 정성을 기울였다고 말하였다.[8]

> 올해와 같은 해를 만나 어버이에게 다하지 못한 자식의 사모하는 정성을 조금이나마 펼 수 있는 길은 오직 참배하고 향사하는 예절이 있을 뿐이다. 새해 초부터 지금까지 경모궁에 갔던 날짜를 계산해 보니 51일이나 되는데, 건강에 이상이 없는 가운데 정情과 예禮를 조금이나마 펼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

6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2, 경모궁전배, 계사(啓辭), 갑인 12월 24일.
7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2, 경모궁전배, 계사, 을묘 정월 15일.
8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2, 경모궁전배, 전교, 을묘 12월 13일;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2, 경모궁전배, 전교, 을묘 12월 15일.

로 하늘에 계신 혼령께서 돌보아 주신 덕분이라 하겠다. …… 1년에 50일이나 국왕이 거둥했던 적이 옛날에 어찌 있기나 했겠는가?

정조는 경모궁을 방문하는 동안 행차를 수행한 관리들에게 별도의 상을 주었다. 그중에서 원내취元內吹 김정삼金鼎三은 51차례를 방문하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국왕을 수행한 공으로 상을 받았다.[9]

2) 화성행차(윤2월)

1795년 윤2월에 정조는 7박 8일의 일정으로 화성에 행차하였다. 화성행차는 준비 단계, 본 행사, 마무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정조가 혜경궁을 모시고 화성에 행차하겠다는 구상은 1793년 초에 시작되었다.[10] 이때 정조는 선혜청宣惠廳 당상 정민시鄭民始에게 2년 후에 있을 경사를 축하하는 행사를 언급하며, 1795년에 자신은 혜경궁을 모시고 현륭원에 참배하겠다고 말하였다. 정민시에게 행사에 사용될 비용을 미리 마련하라는 명령이었다.

내후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있는 큰 경사가 있는 해이며, 나 소자小子(정조)가 천재일우로 만나는 기회이다. …… 대개 이해가 거듭 돌아옴은 소자에게 있어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슬픔만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자궁을 모시고 원침園寢을 참배하여 한편으로는 자궁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아들로서의 정성을 조금이나마 펼치려 한다. 이는 천리와 인정으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난여鑾輿가 돌아오는 길에 행궁에 모시고 나아가 간략하게 진찬進饌의 예를 마련하여 장수를 기원하는 정성을 조금이나마 펼칠 것이다. 예禮는 의義로 일으키고, 정情은 예로 인해 펼쳐진다. 이해의 이 경사와 이곳의 이 예는 자궁의 마음을 감동하여 돌릴 것이니 어찌 일거양득의 마땅함을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만 자궁이 원소園所를 참배하는 것은 매년 있는 원행園行에 비할 바가 아니다. 반드시 관청에는 번다한 비용이 없어야 하고, 사람들은 사역을 알지 못해야 할 것이다.[11]

1794년 11월에 장용영壯勇營 제조로 있던 정민시는 1795년의 행사 비용으로 10만 3,000냥 정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2]

화성행차의 준비는 1794년 연말부터 본격화되었다. 행차를 주관할 임시관청인 정리소整理所가 장용영 조방朝房에 설치되었고, 정리소에 소속된 정리사整理使와 낭청郎廳들이 임명되었다.[13] 1795년 2월에는 화성에서 거행할 행사의 예행연습이 있었다. 한강의 배다리[舟橋]는 2월 13일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2월 24일에 완성되었고, 윤2월 4일에는 배다리를 건너는 연습을 하였다. 2월 20일에 정리소에서는 화성행궁에서의 진찬과 양로연을 연습하였다.

9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2, 경모궁전배, 상전(賞典), 「수가제신이하시상(隨駕諸臣以下施賞)」.

10_ 행차 준비의 내용은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의 「택일(擇日)·각항일자(各項日子)」를 참고하였다.

1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筵說), 계축 정월 19일.

1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갑인 7월 20일.

13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갑인 12월 10일.

본 행사는 윤2월 9일부터 윤2월 16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원래 정조는 화성에 도착한 후 제일 먼저 현륭원을 참배하고, 화성행궁에서 혜경궁 진찬과 양로연, 성묘聖廟(수원향교의 대성전) 참배, 화성행궁에서의 과거 시행, 서장대의 군사 훈련, 장사將士들의 위로 순으로 행사를 진행하려 하였다.[14] 그러나 정조 일행이 화성에 도착했을 때, 정조는 혜경궁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하느라 피곤할 것을 염려하여 현륭원 방문 날짜를 하루 늦추었다.

윤2월 9일에 정조는 창덕궁을 출발하여 노량의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에서 점심을 먹었고, 시흥행궁에 도착하여 숙박하였다. 혜경궁이 탄 가마가 배다리 중앙에 위치한 홍살문에 이르렀을 때, 정조는 미리 용양봉저정으로 가서 혜경궁이 머물 장소를 둘러보았고, 혜경궁에게 점심을 올릴 때에는 자신이 먼저 살펴본 후 직접 올렸다.[15] 이후 정조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윤2월 10일, 정조는 시흥행궁을 출발하여 사근평肆覲坪행궁에서 점심을 먹었고, 화성행궁에 도착하여 숙박하였다. 이날은 비가 내려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정조는 화성 성문을 들어가면서 국왕이 군문軍門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았다. 혜경궁의 숙소는 봉수당奉壽堂 뒤에 있는 장락당長樂堂이었다.[16]

윤2월 11일, 정조는 수원향교로 가서 대성전에 참배하고, 낙남헌洛南軒에서 거행된 문무과 시험을 참관하였다. 향교를 찾아 공자에게 인사를 한 후에 학문을 장려하는 과거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였다.[17] 무과 시험은 이미 2월 10일과 15일에 1차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이날은 2차 시험을 시행하였다.[18] 문과 시험은 우화관于華館에서 거행되었고, 정조가 대성전에 참배할 때 참석했던 유생들도 함께 응시하였다.[19]

윤2월 12일, 정조는 혜경궁을 모시고 현륭원을 참배하였다. 1762년 사도세자가 사망한 이후 남편의 묘소를 처음 방문한 혜경궁의 슬픔은 극도에 달하였다. 행궁으로 돌아온 정조는 서장대에 올라 이튿날 새벽까지 주간훈련과 야간훈련을 참관하였다.[20]

윤2월 13일, 중심 행사인 봉수당 진찬이 거행되었다. 이날 혜경궁은 7잔의 술잔을 받았고, 정조는 승지와 사관史官, 규장각 각신閣臣들에게 "취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不醉無歸."고 하면서 술을 권하였다. 이날 정조는 혜경궁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술잔을 올렸고, 나머지 넉 잔은 혜경궁의 명령을 따라 명부命婦와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광은부위光恩副尉 김기성金箕性이 올렸다. 김기성은 혜경궁의 맏사위였다.[21] 이날 정조는 혜경궁의 장수를 기원하는 시를 지었다.[22]

1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윤2월 1일. 만팔문(萬八門)의 회방(回榜) 행사를 제외하면, 정조가 명령한 순서는 『원행을묘정리의궤』 의주의 편집 순서와 동일하다.

1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9일.

1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0일.

17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윤2월 10일. "明日先爲謁聖, 而旣行謁聖, 則設科取人, 亦當在明日, 以此一體分付."

18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2월 12일;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2월 15일.

19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1일.

2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2일.

2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3일.

2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어제(御製), 「화성진찬일구점시여연제신이우만년축강지성(華城進饌日口占示與宴諸臣以寓萬年祝岡之誠)」.



화성행차(『화성원행반차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큰 복을 받아 운명을 맞이함이 새롭고
봉황이 저를 불고 난새가 피리를 불며 청춘을 붙잡네.
땅의 상서로움으로 만든 관화곡觀華曲은 삼축三祝을[23] 능가하고
해가 유홍流虹(왕이나 왕비가 태어날 조짐)에 이르러 육순이 되셨네.
안팎의 빈객들은 꽃나무로 모이고
문무 관리들은 바로 꽃구경하는 사람들이라.
해마다 오직 오늘 같기만 바라니
장락당長樂堂의 잔치 술은 몇 순배가 되었는가.

이상에서 관화곡은 정조가 봉수당 회갑잔치의 후창곡後唱曲으로 지은 악장 이름이고, 장락당은 화성행궁에서 혜경궁이 묵었던 건물의 이름이자 정조가 회갑잔치의 선창곡先唱曲으로 지은 악장 이름이었다.

윤2월 14일, 정조는 화성 신풍루新豊樓에서 사민四民에게 쌀을 나눠 주고 기민饑民에게 죽을 제공하였다. 정조가 파악한 화성부의 사민과 기민의 숫자는 총 4,819인이었다. 정조는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면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 주는 것은 혜경궁의 뜻임을 알리게 하였다.[24]

화성행궁 회갑잔치에 일반 백성에게 쌀을 내리고 기민에게 양식을 지급하는 행사는 자궁(혜경궁)의 뜻을 우러러 실천하여 자궁의 은혜를 알게 하려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정리소에서 필요한 것은 비록 경상 비용을 많이 소비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갈라 지급하는 것도 본래의 뜻은 아니다. 내하전內下錢 5천 냥을 내려 보내 후하게 지급하게 하니, 정리소에서 잘 알아 분부하도록 하라.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 준 후에는 낙남헌에서 양로연이 거행되었다. 정조는 양로연에 참석한 70세 이상의 노인과 61세의 노인에게 비단을 한 단씩 하사했고, 노란색 명주를 주어 구장鳩杖 지팡이의 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25] 양로연 이후 정조는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에 행차하였다가 득중정得中亭에서 활쏘기를 하였다.[26]

윤2월 15일, 정조 일행은 화성행궁을 출발하여 사근평행궁에서 점심을 먹었고, 시흥행궁에서 숙박하였다. 사근평행궁에서 정조는 광주부윤, 시흥현령, 과천현감을 불러 각 고을의 문제점과 백성들의 어려움을 물었다.[27]

윤2월 16일, 정조는 시흥행궁을 출발하여 노량행궁(용양봉저정)에서 점심을 먹었고,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시흥행궁을 출발할 때 정조는 시흥 백성들을 만나 요역을 견감해 주었고, 호역戶役을 두 번 징수하는 폐단을 없애 주었다.[28] 정조는 현륭원을 참배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미륵고개에 이르면, 말에서 내려 무덤을 바라보면서 길을 쉽게 떠나지 못하였다. 이날 정조는 고개 위에 있는 대의 이름을 '지지대遲遲臺'라고 지었다.[29] 부친 묘소를 방문할 때마다 길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자신의 모습을

23_ 삼축(三祝)은 화봉삼축(華封三祝)에서 나온 말로 부귀, 장수, 남자아이가 많은 것을 말한다.
2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2월 20일. "傳曰, 華城行宮進饌時, 四民賜米饑民給糧之擧, 出於仰體慈意, 俾知慈恩也. 整理所需, 雖不煩費於經用, 就此劃給, 亦非本意. 內下錢五千兩, 下送于華城府, 以爲以此優饋厚餉之地事, 令整理所, 知悉分付."
2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윤2월 13일.
2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윤2월 14일.
27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윤2월 15일.
28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윤2월 16일.
29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윤2월 16일.



①「자궁주갑탄신갱재축(慈宮周甲誕辰賡載軸)」

②「화성봉수당진찬갱재축(華城奉壽堂進饌賡載軸)」

③「장대열무갱재축(將臺閱武賡載軸)」

④「낙남헌양로갱재축(洛南軒養老賡載軸)」

형용한 이름이었다.

정조가 창덕궁으로 돌아온 후 화성행차를 마무리하는 절차로 들어갔다. 정조는 윤2월 17일에 배다리를 해체하여 삼남 지역의 조전漕轉이 소통되게 하였다.[30] 정조의 화성행차를 위해 한강에 설치된 배다리 때문에 한강의 물길은 한 달 가까이나 막혀 있었다. 윤2월 19일에는 화성행차를 주관한 정리소가 폐지되었다.[31] 윤2월 21일에 행차를 수행한 군인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있었고,[32] 3월 13일에 춘당대에서 각 군영의 중순中旬을 거행하여 성적 우수자에게 상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화성행차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정리한 『원행을묘정리의궤』를 간행하였다. 윤2월 28일에 주자소鑄字所에 의궤청이 설치되고, 여기에 소속된 당상과 낭청이

3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 택일·각항 일자.

3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계사, 을묘 윤2월 19일.

3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윤2월 21일.

임명되었다.[33] 5월 1일에는 가칭 『정리통고整理通考』가 편찬되었고,[34] 8월 15일에 책의 교정이 완료되었다. 책자의 인쇄를 감독한 사람은 책의 편찬에도 참여했던 윤행임이었고, 활자는 목활자인 생생자生生字를 자본으로 한 정리자整理字를 사용하였다.[35] 『정리의궤』는 1797년 3월에 간행되어 혜경궁과 정조에게 1건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총 101건의 의궤가 배포되었다.[36]

이 외에도 화성에서 정조와 신하들이 주고받은 시를 정리한 「자궁주갑탄신갱재축慈宮周甲誕辰賡載軸」, 「화성봉수당진찬갱재축華城奉壽堂進饌賡載軸」, 「장대열무갱재축將臺閱武賡載軸」, 「낙남헌양로갱재축洛南軒養老賡載軸」이 활자로 인쇄되어 보급되었다.[37] 이는 봉수당의 회갑잔치, 서장대의 군사훈련, 낙남헌의 양로연에서 작성된 시들이었다.

3) 영흥본궁의 추향 제사(4월)

1795년은 환조桓祖가 태어난 지 8주갑(6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였다. 정조는 자신이 태조의 마음을 가지고 부친(환조)을 사모하는 정을 표현하기 위해 함흥본궁咸興本宮에 관리를 파견하여 작헌례를 거행했고, 영흥본궁永興本宮에 환조 부부의 위판位版을 추가하는 제향躋享 행사를 하였다.

> 올해 을미년(1795)은 우리 환조연무성환대왕桓祖淵武聖桓大王께서 태어나신 때로부터 여덟 번째 태세太歲가 되는 해이다. 실내에 들어가 주선하는 동안 선조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내가 제1실에 계신 성조聖祖(태조)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는 이상, 금년은 정성을 펴서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드려야만 하겠다.[38]

함흥 운전사雲田社에 위치한 함흥본궁은 환조의 묘소인 정릉定陵이 있는 곳으로, 조선 초기에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 부부의 위판을 모셨고, 숙종 대에 태조와 신의왕후神懿王后,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위판을 추가하였다. 영흥 순녕사順寧社에 위치한 영흥본궁은 태조가 태어난 곳으로, 태조와 신의왕후, 신덕왕후의 위판이 모셔져 있었다.[39] 또한 영흥의 준원전濬源殿에는 태조 어진御眞이 모셔져 있었다.[40]

2월 13일, 정조는 행판중추부사 김희金憙를 함흥행궁에 파견하여 작헌례를 거행하게 하였다. 이날이 환조의 8주갑 회갑날이었기 때문이다. 작헌례가 거행되는 날 정조는 정성을 다하기 위해 재계를 하였다.[41] 함흥본궁의 제사가 끝난 이후 함흥부의 유학幼學 김응일金應一 등이 "환조대왕 부부를 영흥본궁에 추향할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고, 정조는 태조가 탄생한 옛 저택에서 환조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화답하였다.[42]

33_ 행사 마무리의 내용은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의 「좌목」을 참고하였다.
3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계사, 을묘 5월 1일.
3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8월 15일. 이와 별도로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찬집(纂輯)은 5월 1일에 완료되었고(『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5월 1일), 감인(監印)은 교정을 담당했던 이만수(李晩秀)가 그대로 맡았다.
3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계사, 정사 3월 18일;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정사 3월 24일.
37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전교, 을묘 9월 15일.
38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永興本宮躋享), 전교, 을묘 정월 초3일.
39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 전교, 을묘 정월 초3일.
40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 계사, 을묘 윤2월 17일.
41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 전교, 을묘 2월 초10일; 2월 13일.
42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 전교, 을묘 윤2월 17일; 계사, 을묘 윤2월 17일.

환조를 영흥본궁에 추향하는 논의가 본격화되자, 정조는 선왕대의 사례를 근거로 활용하였다. 1695년(숙종 21)에 숙종은 민진후閔鎭厚의 건의를 채택하여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위판을 함흥본궁과 영흥본궁에 추가로 모신 적이 있었다.[43] 이는 태조(1335~1408)가 탄생한 지 6주갑인 36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44] 정조는 또한 영조 대에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李翰 부부의 위판을 모신 조경묘肇慶廟를 건설할 때의 사례를 참고하기도 하였다.[45]

4월 21일에 함흥본궁과 영흥본궁에서 고유제告由祭가 거행되었고, 4월 26일에 영흥본궁에서 환조 부부의 위판을 모시는 제향대제躋享大祭가 거행되었다.[46] 새 위판의 글씨를 쓴 사람은 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이었는데, 그는 민진후의 증손이었다.[47] 영흥본궁에서 환조 부부의 위판은 제1실, 태조 부부의 위판은 제2실에 모셔졌고, 제1실에서 사용하는 제기祭器와 위판은 서울에서 제작하여 보냈다.[48] 제향대제는 헌관獻官이 동쪽 섬돌에 위치한 배위拜位에 자리한 상황에서 신주독神主櫝을 열고, 헌관이 네 번 절한 다음에 밥과 찬을 올리며, 세 번 향을 올린 다음에 폐백을 올렸다. 이어서 세 헌관이 석 잔의 술잔을 올렸고, 헌관들이 네 번 절한 후 차를 올리고 신주독을 닫는 것으로 제사는 끝이 났다.[49] 이날의 초헌관은 판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 아헌관은 예조판서 민종현, 종헌관은 함경감사 조종현趙宗鉉이었다.[50]

영흥본궁의 추향 제사가 있던 날 정조는 경모궁으로 가서 재숙齋宿했는데 이날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다. 영흥본궁의 제사가 사도세자의 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는 발언이었다.[51]

> 좋은 날 경사스런 예절이 거행되었으니 내 마음에 기쁘고 다행함을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다. 전후 제례를 거행하는 날 반드시 비궁閟宮(경모궁)에 나아가 재숙한 것은 추모하는 정성을 조금이나마 펴기 위해서였다. 올해의 이 제례를 위해 이 경모궁에 재숙하게 되었으니 내 마음에 기쁘고 슬픈 것이 어떠하겠는가?

영흥본궁에서 제사가 거행되는 날 영흥의 노인들은 제사에 참석했고, 주민들은 풍패루豊沛樓 아래에서 이를 관람하였다. 함흥과 영흥의 유생들은 정조가 출제한 문제로 과거를 보았고, 무사武士들은 유엽전柳葉箭과 육량전六兩箭으로 무예 시험을 보았다.[52] 이날 유생으로 합격한 사람은 80인, 무사로 합격한 사람은 201인이었다.[53] 함흥과 영흥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양로연도 개최되었다. 관리는 70세 이상, 일반인은 80세 이상인 노인과 61세가 되는 노인들이 참가하였다. 윤2월에 화성에서 개최되었던 양로연과 같은 방식이었다.[54]

정조는 환조 탄생 8주갑을 맞아 함흥본궁에 작헌례를 거행하는 것을 계기로 영흥

43_ 『숙종실록』 권29, 숙종 21년 12월 19일(정미); 『숙종실록』 권29, 숙종 21년 12월 28일(병진).
44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 전교, 을묘 윤2월 20일; 계사, 을묘 윤2월 20일.
45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 연설, 을묘 윤2월 20일.
46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 전교, 을묘 4월 초2일; 계사, 을묘 3월 16일.
47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 전교, 을묘 4월 12일; 4월 30일.
48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 전교, 을묘 4월 초2일.
49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 의주, 「영흥본궁추제시이환안급예성제의(永興本宮追躋時移還安及禮成祭儀)」.
50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 장계(狀啓), 을묘 4월 28일.
51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 연설, 을묘 4월 25일.
52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 전교, 을묘 4월 초6일; 5월 초1일.
53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 전교, 을묘 5월 초1일.
54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 제향, 전교, 을묘 4월 초6일;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3, 영흥본궁제향, 전교, 을묘 5월 초1일; 계사, 을묘 4월 초7일.

본궁에 환조 부부를 추향하는 조치를 유도하였다. 1795년 4월에 거행된 영흥본궁의 추향 제사는 장차 사도세자를 복권하려는 정조의 의도가 반영된 행사였다.

4) 혜경궁 탄신의 축하(6월)

혜경궁 홍씨의 진짜 회갑일은 1795년 6월 18일이었다. 정조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몇 가지 행사를 시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행사는 연희당延禧堂에서 거행된 혜경궁의 회갑잔치[進饌]였다. 잔치 장소를 내편전內便殿인 연희당으로 한 것은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혜경궁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었다.[55] 이날 혜경궁은 연희당 중앙에서 남쪽을 향해 앉았고, 정조는 그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왕비는 그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앉았다. 혜경궁의 맞은편에는 내명부와 외명부가 앉았고, 발을 친 바깥의 보계補階에는 의빈儀賓과 척신戚臣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마주보고 앉았다. 이날 혜경궁과 왕비는 적의翟衣에 머리 장식을 했고, 정조는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혜경궁에게 치사致詞와 전문箋文, 표리表裏를 올렸다.[56]

회갑잔치는 정조와 왕비가 두 번 절을 한 후 여집사가 「노래의老萊衣」 악장을 불렀고, 정조가 첫 번째 술잔을 혜경궁에게 올린 후 치사致辭가 낭독되었다. 다음으로 왕비가 두 번째 술잔을 올렸으며, 역시 치사가 낭독되었다. 이어 정조가 세 번 머리를 조아리고 세 번 천세千歲를 외쳤으며, 두 번 절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 이후 명부의 반수班首(우두머리)와 의빈 및 척신의 반수가 술잔을 올린 다음 여집사가 「만년萬年」 악장을 불렀고, 정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두 번 절하는 것으로 잔치는 끝이 났다.

잔치에서 불려진 「노래의」와 「만년」 악장은 모두 정조가 지은 것인데, 혜경궁이 장수를 누리고, 국가가 평안하며, 왕실의 후손들이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었다.[57]

「노래의」

내가 노래자老萊子의 색동옷을 입으니
만년토록 경사가 밝게 빛나리.
관리가 새벽 시간을 알리자
원량元良과 함께 당에 오르네.
오늘은 자궁의 회갑 날
온 나라가 함께 장수를 축원하네.
맛있는 술이 잔에 넘치고
선도仙桃 복숭아 안주는 둥글합니다.
한 잔 한 잔 또 한 잔을 드리니
한 잔에 일만 년씩 삼만 년을 사소서.

「만년」

삼만 년에 또 억만 년
해마다 이날에는 이 잔치를 펼치리.
첫째로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반석磐石 위에 놓이고
둘째로 바라는 것은 자손들이 번성하길.
정다운 이야기에 흥겨운 잔치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네.
태평시대의 술잔이 흘러넘치고
소리 없는 음악소리 은은하도다.
자궁의 덕은 천심天心에 합치되니
자손들은 많은 복을 받으리라.

55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誕辰慶賀), 연설, 을묘 6월 16일.
56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 전교, 을묘 4월 초7일;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誕辰慶賀), 연설, 을묘 6월 18일.
57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 악장(樂章), 「어제연희당진찬선창악장(御製延禧堂進饌先唱樂章)」.



「**연희당진찬도**」(『원행정리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홍화문사미도**」(『원행정리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날 정조는 회갑잔치를 축하하는 시도 지었다.[58]

동방에 경사가 있어
회갑 날 장수를 축하하는 술잔 올리네.
하늘에는 무지개가 나타나고
빈객은 구름처럼 모여 축하하네.
장락전長樂殿에 잔치가 열리니
악공은 노래장老來章을 연주하네.
인자한 모습에 축복이 넘치고
베푸신 은혜는 팔방에 미치네.

회갑잔치가 끝난 후 정조는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弘化門으로 가서 기민饑民들에게 쌀을 나눠 주었다.[59] 정조가 화성에서 사민四民과 기민에게 쌀을 나누어 준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정조는 서울의 5부部에서 기민 5,868호를 선발하여 6월 17일에 호당 3두斗씩 지급하고, 7월에도 2두씩 지급하게 하였다.[60] 기민의 분포는 중부에 229호, 동부에 529호, 서부에 2,591호, 남부에 1,142호, 북부에 861호, 연융대鍊戎臺 61호, 북한산성에 112호였고, 기민에게 배포한 쌀은 상평창과 하평창의 곡식을 활용하였다.[61] 정조가 홍화문에서 직접 쌀을 나누어 준 사람은 가장 가난하고 의탁할 곳이 없는 512호를 대상으로 하였다.[62] 지역별로 보면 중부 31호, 동부 80호, 서부 208호, 남부 135호, 북부 58호였으며, 102석 6두가 배포되었다.[63] 나머지 기민에 대해서는 서유린, 심이지, 심환지, 서유대, 윤행임을 5부로 파견하여 현지에서 쌀을 나눠 주도록 하였다.[64]

다음으로 연희당 잔치에서 전문箋文을 올린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과거시험이 실시되었다.[65] 시험 제목은 진찬 악장의 첫 구절인 "내가 노래자의 색동옷을 입으니我有老來衣"였고, 400여 장의 시권이 접수된 가운데 수석을 차지한 진사 심후진沈厚鎭은 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고, 차석이 된 진사 이일휘李日煇 등 5인은 상을 받았다.[66]

다음으로 백성들의 세금을 탕감하는 조치를 하였다. 6월 18일에 정조는 서울 공인貢人이 부담하는 2,000석石의 곡식과 시민市民들이 부담하는 2개월치의 요역, 반인泮人(성균관이 위치한 마을의 주민)이 부담하는 속전贖錢을 탕감하였다. 또 지방으로는 화성, 경기도, 삼남三南의 백성들에게 지난해에 연기시켜 준 신공身貢 일체를 탕감했고, 양도兩都(강화도와 개성을 말함)와 북방 4도道에는 묵은 환곡과 1년치 조대條代를 탕감해 주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혜경궁의 은혜를 널리 베풀고 은덕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67]

58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 악장, 「어제시(御製詩)」.
59_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6월 18일(정유);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 전교, 을묘 6월 15일.
60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 계사, 을묘 6월 14일.
61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 연설, 을묘 6월 초4일;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 계사, 을묘 6월 17일.
62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 계사, 을묘 6월 17일.
63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 상전(賞典), 「홍화문친림사미(弘化門親臨賜米)」.
64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 연설, 을묘 6월 18일.
65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 전교, 을묘 6월 18일.
66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 연설, 을묘 6월 18일.
67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 전교, 을묘 6월 18일.

세월이 흘러 회갑 탄신일을 맞는 것이야말로 보기 드문 큰 경사이다 …….. 나 소자는 황천皇天과 조종祖宗의 보살핌을 받아 국조 이래 처음으로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6, 7개월 동안 어느 달이고 기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어느 날이고 축하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옥에 새기고 금으로 엮은 것은 자궁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남산을 바라보고 만세를 부른 것은 자궁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 섬과 육지의 백성들에게 두루 나눠 준 것은 자궁의 은혜를 널리 베풀기 위함이고, 노인과 사방 백성에게 취하도록 마시고 배불리 먹게 한 것은 자궁의 은덕을 표시하기 위함이었다.[68]

5) 「영괴대비」의 건립(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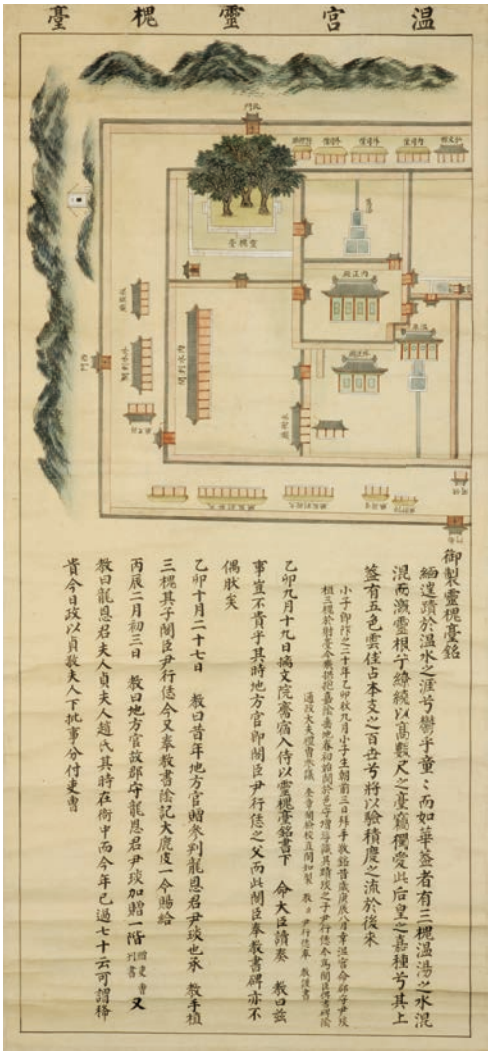
1795년 4월 18일에 정조는 온양에 있는 온천행궁溫泉行宮의 축대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온천행궁의 서쪽 담장 안에는 1760년(영조 36) 7월에 사도세자가 다리의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와서 활쏘기를 한 후 품品자 모양으로 심어 놓은 세 그루의 홰나무가 있었다. 홰나무는 36년 동안 무성하게 자라 짙은 그늘을 드리웠고, 온양군수가 홰나무 둘레에 축대를 쌓아 나무를 보호하게 하였다는 소식이었다.[69] 축대 공사는 3월 22일에 시작하여 4월 13일에 완료되었다.[70] 정조가 온양에 행차한 사도세자가 세 그루의 홰나무를 심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이보다 앞서 윤2월 화성에 행차했을 때였다.[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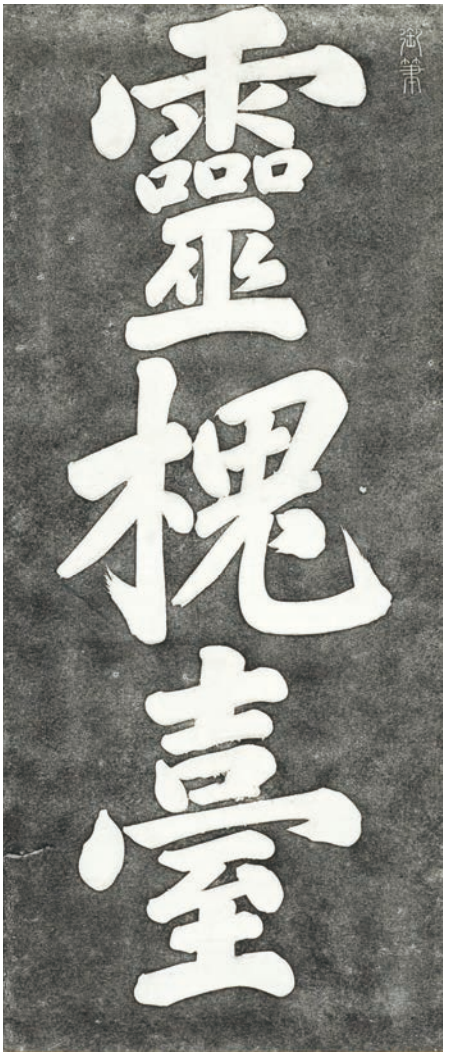
정조가 온양행궁의 축대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함흥본궁의 고유제告由祭와 영흥본궁의 환안제還安祭를 위해 경모궁에서 재숙하고 있었다. 경모궁이란 공간과 사도세자의 과거 행적이 묘하게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정조는 이 보고를 계기로 1760년 사도세자의 온양 행적을 기록한 비석을 축대 옆에 세울 것을 명령했고, 어필御筆로 비석의 앞면에 새길 '영괴대靈槐臺' 세 글자를 쓰고, 비석의 뒷면에 새길 글까지 지어 주었다.[72]

오늘이 무슨 날인가? 올해 영흥본궁의 경사스러운 의식을 위하여 비궁閟宮(경모궁)에 가서 재숙齋宿하고 환궁한 날이다. 그런데 이날 이런 말을 들은 것은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슬프고 감동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미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날을 그냥 넘길 수가 있겠는가? 축대 공사가 이미 완공되었으니 사적事蹟도 본읍本邑(온양)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 당시의 도신道臣(감사), 수령 및 분부를 받들고 나무를 심은 사람의 이름을 조목별로 적어 장계를 올리도록 충청감사에게 하유하라. 또 삼가 그 사실을 기록한 비석을 축대 옆에 세워야 할 것이니, 이 뜻도 아울러 알려 주도록 하라.[73]

4월 18일에 정조는 충청관찰사에게 사도세자가 온천행궁에 행차했을 때의 관찰사, 온양군수, 명령을 받고 나무를 심었던 사람의 이름과 사도세자의 행적이 기록되어

68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탄신경하, 전교, 을묘 6월 18일.
69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溫宮紀蹟), 전교, 을묘 4월 18일.
70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장계, 을묘 4월 24일.
71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전교, 을묘 10월 27일.
72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전교, 을묘 4월 18일.
73_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4월 18일(무술).





左 「**온궁 영괴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右 「**영괴대비**」 **탁본**(한신대학교박물관 소장)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충청관찰사 이형원은 그때 관찰사는 구윤명具允明, 온양군수는 윤염尹琰이었고, 나무를 심은 사람은 탕직湯直으로 있던 양인良人 이한문李漢文이지만 이미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다.[74]

온양행궁에 「영괴대비」가 세워진 것은 10월 24일이었다.[75] 비석은 남포에서 생산되는 오석烏石을 사용했고, 비석의 길이는 3척 9촌, 너비는 1척 5촌, 두께는 8촌이었다.[76]

정조가 지은 「영괴대명靈槐臺銘」과 음기陰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77]

온수溫水 물가에 아득히 지나간 자취여
빽빽한 나무그늘과 꽃이 덮인 곳에 세 그루 홰나무가 있네.

74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장계, 을묘 4월 24일.
75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장계, 을묘 10월 24일; 『정조실록』 권43, 정조 19년 10월 28일(을사).
76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전교, 을묘 4월 18일.
77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어제, 「영괴대명」.

온탕溫湯의 물이 솟아 영괴(신령한 홰나무) 뿌리에 흐름이여
굽이굽이 높이가 수척이 되는 대臺라네.
홀로 이 땅의 아름다움을 좋아함이여
그 위에 오색구름 아름답게 머물렀네.
뿌리와 가지가 백세토록 오래됨이여
쌓인 경사가 후세까지 흘러감을 징험하리라.

소자小子(정조)가 왕위에 오른 지 20년인 을묘년(1795) 가을 9월, 소자가 조정에 나오기 3일 전에 삼가 명을 지었습니다. 지난 경신년(1760) 8월에 온궁溫宮에 가서 군수 윤염에게 사대射臺에 세 그루의 홰나무를 심도록 했더니, 지금은 거의 아름드리로 자라 아름다운 그늘이 땅을 가릴 정도입니다. 초봄에 고을 수령이 대臺를 증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공적을 기록합니다. 윤염의 아들 윤행임이 지금 각신閣臣이 되었으므로 그에게 비음碑陰을 쓰게 합니다.
통정대부 예조참의 규장각 검교직각 지제교 신 윤행임이 왕명을 받들어 삼가 쓰다.

정조는 「영괴대비」의 건설을 계기로 사도세자의 행적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을 표창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는 사도세자가 온양을 방문했을 때 충청감사였던 능은군綾恩君 구윤명을 예조판서로 선발했고, 온양군수였던 용은군龍恩君 윤염의 아들인 각신 윤행임尹行恁에게 「영괴대비」의 음기陰記를 쓰게 하였다.[78] 정조는 「영괴대비」의 탁본 30건을 만들어 올리게 하고, 이를 규장각의 주합루와 봉모당, 화성행궁, 현륭원 재실, 경모궁 재실, 서고西庫, 외규장각, 내각 등에 보관하게 하였다.[79] 이 중에서 화성행궁, 현륭원, 경모궁은 사도세자의 행적과 밀접한 인연이 있는 장소였다.

1796년이 되자 정조는 사도세자를 수행했던 사람들을 조사하여 한 자급을 올려 주거나 관리로 등용하였고, 쌀이나 돈, 옷감, 어물 같은 물품을 제공하였다.[80] 정조는 이조와 병조에서 사도세자를 수행한 사람으로 70세가 넘은 사람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했고,[81] 얼마 후에는 70세가 넘지 않아도 모두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82] 이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였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서연書筵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찾아 관직을 주고 쌀과 고기를 보내 주기도 하였다.[83] 정조가 상을 준 사람에는 사도세자의 행차를 수행했던 사람, 당시 관찰사와 수령, 교리, 선창船艙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포함되었고, 사도세자를 위한 세자시강원[春坊]이나 세자익위사[桂坊]에 근무했던 사람, 사도세자가 행차할 당시 경기도와 충청도 각지에서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84]

6)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간행

이상의 모든 행사가 끝난 이후 정조는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를 편찬하고, 이를 활자로 인쇄하여 보급하였다. 필사본으로만 작성되던 의궤가 활자로 인쇄된

78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연설, 을묘 9월 19일
79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전교, 을묘 10월 27일.
80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전교, 병진 2월 초3일;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전교, 병진 3월 14일;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전교, 병진 4월 11일;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전교, 병진 4월 14일;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전교, 병진 10월 24일;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계사, 병진 2월 초2일;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계사, 병진 2월 초10일;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계사, 병진 3월 14일.
81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계사, 병진 정월 28일.
82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계사, 병진 2월 초2일.
83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계사, 병진 3월 26일.
84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4, 온궁기적, 상전.



『원행을묘정리의궤』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소장)

것은 『원행을묘정리의궤』가 처음이었다. 정조가 이 의궤를 널리 보급한 이유는 1795년에 있었던 행사를 총정리하여 당대 사람은 물론이고 후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정조가 1795년 윤2월에 7박 8일간 화성에 행차하여 거행한 행사를 꼼꼼히 정리한 의궤이다.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보면 본문에서는 화성행차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정리했고, 부록에서는 경모궁의 제사, 영흥본궁의 추향 제사, 혜경궁 탄신의 축하, 온양행궁에 기념비를 건립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이를 보면 1795년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7박 8일간의 화성행차였지만 나머지 행사도 화성행차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의 화성행차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방문하고 혜경궁의 회갑잔치를 개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정조는 이를 통해 사도세자를 복권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조는 그동안 이룩해 온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백성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친위세력과 백성들의 충성심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정조가 화성행차를 마친 이후 『원행을묘정리의궤』의 편찬을 서둘렀던 것은 이러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2. 화성행차의 목적

1795년 윤2월에 있었던 정조의 화성행차는 특별한 행차였다. 국왕의 행차 가운데 7박 8일이라는 일정은 매우 길었고, 정조가 혜경궁과 함께 이동했던 유일한 행차이

기도 하였다. 화성에 행차한 정조는 현륭원을 방문하고 혜경궁의 회갑잔치를 여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하였다. 화성행차가 끝난 후에는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한 『원행을묘정리의궤』가 편찬되기도 하였다.

1795년에 있었던 행사에는 화성행차 이외에도 사도세자의 회갑일에 거행된 경모궁의 제사, 영흥본궁에 환조 부부의 위판을 추가하는 제사, 혜경궁의 회갑일에 거행된 회갑잔치, 온양행궁에 사도세자의 행적을 기록한 「영괴대비」를 건립한 행사가 있었다. 이런 행사들은 정조의 화성행차와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정조의 화성행차를 중심으로 1795년에 있었던 행사들의 목적을 검토해 보자.

1) 사도세자의 복권 추진

정조의 화성행차는 왕실의 경사를 축하하는 의미가 있었다. 1795년은 정조가 국왕에 오른 지 20년이 되는 해였고, 정순왕후의 나이가 51세가 되는 등 왕실의 경사가 겹치는 해였다. 그러나 정조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자신을 낳아 준 사도세자와 혜경궁 부부의 회갑이 되는 해라는 점이었다.[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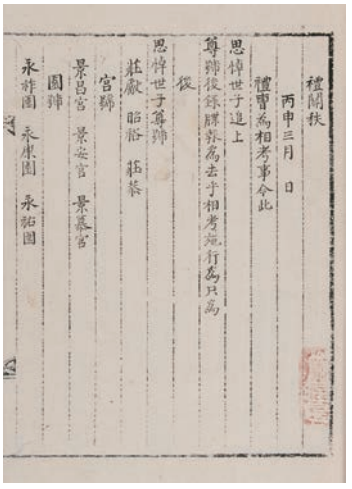
세손 시절의 정조가 처음으로 사도세자의 묘소인 수은묘垂恩墓를 방문한 것은 1765년(영조 41)의 일이었다.[86] 사도세자는 1762년에 사망했으므로, 정조는 부친이 사망하고 3년이 지나서야 부친의 묘소를 방문할 수 있었다. 정조는 1776년(영조 52)에 다시 한 번 수은묘를 방문했고, 『승정원일기』에서 사도세자에게 불리한 기록들을 삭제해 줄 것을 영조에게 요청하였다. 영조가 살아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이 국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 부담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조는 『승정원일기』에 있는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것을 허락했고,[87] 다음 날 정조는 다시 수은묘을 방문하여 이 사실을 알리는 고유제를 거행하였다.[88] 사도세자를 복권시키기 위한 첫 번째 고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1776년에 왕위에 오른 정조는 사도세자를 복권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였다. 사도세자에게 '장헌세자莊獻世子'란 존호를 올렸고, 묘소의 이름을 '묘墓'에서 '원園'으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사당인 '수은묘垂恩廟'를 설치하였다가 이내 '경모궁景慕宮'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789년(정조 13)에 정조는 천하의 명당지라는 화산花山 아래에 현륭원을 조성하고, 사도세자를 복권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더욱 분명하게 시행하였다. 정조는 매년 부친

8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갑인 12월 초10일.
86_ 『영조실록』 권106, 영조 41년 9월 26일(기해).
87_ 『영조실록』 권127, 영조 52년 2월 4일(병오).
88_ 『영조실록』 권127, 영조 52년 2월 5일(정미).





『장조상시봉원도감의궤(莊祖上謚封園都監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莊獻)으로 추존한 후 수은묘의 봉호를 영우원으로, 사당을 경모궁으로 존봉한 일체의 과정을 기록하였다.

의 묘소를 방문하면서 사도세자를 복권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냈고, 1795년에는 혜경궁과 함께 현륭원을 방문함으로써 이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1795년 화성행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행사는 현륭원 방문과 봉수당의 회갑잔치였다. 그러나 혜경궁의 실제 회갑일은 1795년 6월 18일이었고, 이날 창경궁 연희당에서 혜경궁의 회갑잔치가 열리기도 하였다.[89] 따라서 화성에서의 회갑잔치는 잔치가 열린 장소가 '화성'이라는 점이 중요했고, 화성은 정조가 현륭원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건설한 도시였다. 또한 정조가 회갑잔치에 앞서 혜경궁과 함께 현륭원을 방문한 것도 사도세자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정조가 사도세자의 복권을 위해 추진한 행사는 화성행차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회갑일에 정순왕후, 혜경궁, 왕비와 함께 경모궁을 방문하여 제사를 지냈다. 정조는 1776년에 경모궁을 설치한 이후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하면서 사도세자를 복권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으므로 정조의 방문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순왕후, 혜경궁, 왕비가 경모궁을 방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정순왕후는 아들인 사도세자에게 전작례를, 혜경궁과 왕비는 남편이자 시아버지인 사도세자에게 묘현례를 거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조는 사도세자를 추모하고 복권시키려는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왕실 가족 전체임을 보여 줄 수 있었다.

환조 부부의 위판을 영흥본궁에 추가하는 제사도 사도세자의 복권과 관련이 있는 행사였다. 이때 정조는 자신이 태조의 마음을 가지고 부친을 사모하는 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 행사를 거행한다고 하였다. 부친을 사모하는 태조가 익조의 위판을 제사공간에 추가로 모셨듯이, 부친인 사도세자를 사모하는 정조는 사도세자의 위판을 제사공간에 추가로 모시고 싶다는 희망이 담겨 있는 행사였다. 영흥본궁에 새로 모신

89_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전교, 을묘 6월 18일; 『원행을묘정리의궤』 부편1, 연설, 을묘 6월 18일.

위판의 글씨를 민종현이 쓴 것도 의미가 있었다. 숙종 대에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위판을 함흥본궁과 영흥본궁에 모시도록 건의한 사람은 민진후였는데, 민종현은 바로 민진후의 증손이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숙종이 신덕왕후의 위판을 추가로 모시고, 자신이 환조 부부의 위판을 추가로 모셨듯이,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숭하여 그 신주를 추가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온양행궁에 「영괴대비」를 건립한 것도 사도세자의 복권과 관련이 있었다. 정조는 영흥본궁의 행사를 한창 진행하던 중에 사도세자가 심은 홰나무를 둘러싼 축대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영괴대靈槐臺' 글씨를 직접 써 주고 비석의 음기를 지어 주었다. 또한 정조는 사도세자가 온양행궁에 행차했을 때 수행했거나 이동로의 경비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게 했고, 이들을 관리로 등용하거나 선물을 주었다. 온양행궁에 행차한 사도세자의 행적을 드러냄으로써 장차 사도세자를 복권시키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1795년 정조의 화성행차는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숭하려는 그의 의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행사였다.

2) 혜경궁에 대한 우대

정조가 화성에서 개최한 행사 가운데 봉수당의 회갑잔치는 행사의 중심이 되었고, 그 주인공은 혜경궁이었다. 정조는 이를 위해 혜경궁을 위한 가교駕轎를 특별히 제작하게 했고, 회갑잔치에 참석한 하객들도 혜경궁의 두 딸인 청연군주淸衍郡主와 청선군주淸璿郡主를 비롯하여 혜경궁의 친정 친척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정조는 회갑잔치 이후에 거행된 양로연에서 혜경궁과 동갑인 61세의 노인들을 포함시켰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줄 때에는 이것이 혜경궁의 뜻을 따른 조치임을 몇 번이고 강조하였다. 1795년 화성에서 개회된 행사들을 보면, 회갑잔치를 중앙에 놓고 전반부에는 회갑잔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가 있었고, 후반부에는 회갑잔치의 기쁨을 확산시키는 행사들이 있었다. 혜경궁을 주인공으로 하는 봉수당의 회갑잔치는 이러한 행사들의 정점에 위치하였다.

1795년의 행사에는 봉수당의 회갑잔치 외에도 혜경궁을 위한 행사가 많이 있었다. 우선 혜경궁의 회갑일인 6월 18일에 연희당에서 회갑잔치가 다시 열렸다. 이 잔치는 혜경궁의 뜻을 따라 내편전에서 간략하게 거행되었다. 그렇지만 혜경궁을 주인공으로 하는 가운데 왕실의 사위들과 혜경궁의 친척들이 대거 참석했고, 정조는 회갑잔치에서 불려진 「노래의」와 「만년」 악장을 직접 지었다. 악장의 내용은 혜경궁의 장수와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화성진찬일구점(華城進饌日口占)」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정조가 1795년(정조 19) 윤2월 13일에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장수를 축원하며 읊은 시이다. 정조는 이 시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신하들에게 보이면서 어머니께서 만만년 장수하시기를 축원하였다. 이 시는 편액으로 제작되어 봉수당에 걸렸다.

정조는 1795년 연초에 회갑을 맞은 혜경궁에게 존호를 더해 주었고, 사도세자의 회갑일에 경모궁을 방문하여 제사를 올릴 때에는 혜경궁도 참석하여 묘현례를 거행하였다. 정조는 사도세자를 위한 행사를 할 때에 혜경궁을 우대하는 행사도 함께 거행하였다. 정조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 사도세자와 혜경궁을 국왕과 왕비로 격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차츰 마련해 갔다고 할 수 있다.

3) 군사훈련을 통한 무력시위

정조는 능행을 왕릉 참배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군대를 이동시키며 무예를 겨루는 군사훈련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특히 정조는 궁궐을 출발할 때부터 융복을 갖춰 입고 말을 타고 이동했으므로, 능행을 하는 국왕의 모습은 전쟁터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모습이었다.

정조는 1779년(정조 3)의 능행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이때에도 정조는 7박 8일의 일정으로 능행을 했는데, 여주에 있는 두 영릉(英陵과 寧陵)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한산성의 서장대에 올라 주간훈련과 야간훈련을 주관하였다.[90] 따라서 정조가 1795년의 화성행차에서 화성의 서장대에 올라 주간훈련과 야간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미 선례가 있었다.

그런데 1795년은 정조의 친위부대인 장용영壯勇營의 개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였다. 장용영은 1785년(정조 9)에 장용위壯勇衛를 설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장용위를 설치한 이후 정조는 국왕의 호위를 이곳에서 전담하게 했고, 장용위를 지휘할 장용대장壯勇大將을 국왕의 특명으로 임명하였다. 이는 종래 척신戚臣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

90_ 1779년 남한산성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김문식의 연구(김문식, 「1779년 정조 능행과 남한산성」『한국실학연구』 8, 2004, 116~118쪽) 참조.

았던 군영에 대한 통제권을 국왕이 확보하겠다는 의미가 있었다.[91]

1793년에 정조는 현륭원을 호위하기 위해 장용위를 장용영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장용영의 대장을 장용내사壯勇內使라 했고, 화성에 유수부留守府를 설치하고 화성유수가 장용외사壯勇外使를 겸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도 정조는 장용외영의 병력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조치를 하였다.[92] 1795년 화성에서의 군사훈련은 화성에 소속된 장용외영 군대가 중심이 된 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정조가 장용외영의 병력을 강화시킨 것은 현륭원이 있는 화성을 방어하는 동시에 국왕이 군대 통제권을 장악하여 중앙 군영까지 개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1795년 화성에서의 군사훈련은 정조가 장용영을 중심으로 꾸준히 강화해 왔던 국왕의 무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4) 양반층과 노인을 위한 행사

정조는 화성에 도착한 다음 날 별시別試를 실시하여 문과 5인, 무과 56인을 선발하였다. 이 시험에는 화성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국왕의 능행이 있을 때 현지에서 문사文士와 무사武士를 선발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정조는 1793년 화성행차에서 화성 유생 윤지승 등을 문과에 급제시킨 적이 있었고,[93] 1797년에는 김포에 있는 장릉에서 화성의 현륭원으로 이동하면서 지나갔던 10개 읍의 유생들에게 문과 별시를 시행하기도 하였다.[94] 1795년에 화성에서 치러진 별시는 이전의 관행을 따라 현지 양반층의 사기士氣를 고양시키기 위한 행사였다. 다만 이때 화성에서 선발된 인원의 숫자는 평소보다 많았다.[95]

정조가 화성에서 개최한 양로연도 특별한 행사였다. 정조는 혜경궁의 회갑잔치를 거행한 다음 날 양로연을 개최했고, 서울에서 온 관리 15명과 화성의 노인 384명이 참석하였다. 서울에서 온 관리는 70세를 넘는 노인이었고, 화성의 노인은 80세를 넘는 노인이었다. 이때 80세란 나이는 매년 국왕이 궁궐에서 주최하는 양로연에 참석하는 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96] 그런데 화성의 양로연에는 61세의 노인도 참석했는데, 이들은 회갑을 맞은 혜경궁과 동갑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양로연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받았다.[97]

이 외에도 정조는 연희당에서 혜경궁의 회갑잔치를 거행하면서 회갑잔치에서 전문箋文을 올렸던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거를 시행하여 합격자를 뽑았다. 또한 정조는 영흥본궁에 환조 부부의 위판을 추가로 모실 때 함흥과 영흥 출신의 유생들에게 과거를 실시했고, 무사들에게 무예시험을 보았으며, 함흥과 영흥 출신으로 80

91_ 배우성, 「정조연간 무반군영대장과 군영정책」, 『한국사론』 2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1, 217~232쪽.

92_ 강문식, 「정조대 화성의 방어체제」, 『한국학보』 82, 일지사, 1996, 198~204쪽.

93_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13일(정미).

94_ 『정조실록』 권47, 정조 21년 9월 12일(무인).

95_ 1793년 행차에서 화성에서는 문과 1명, 무과 2명이 급제하였다.

96_ 『국조오례의』 권3, 가례, 「양로연의(養老宴儀)」.

97_ 서울에서 온 관리는 6명, 수원의 노인은 168명이 혜경궁과 동갑인 61세였다.

세 이상의 노인과 61세의 노인들을 위한 양로연을 개최하게 하였다. 화성에서 있었던 행사와 동일한 방식의 행사였다.

그러나 국왕이 지방에 직접 행차하여 양로연을 개최한 것은 1795년 화성행차가 유일하였다. 이는 화성에서 혜경궁의 회갑잔치를 개최하면서 현지의 노인들과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였다.

5) 일반 백성을 위한 조치

정조는 화성행차에서 현지 노인들에게 양로연을 베풀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지급하였다. 혜경궁의 회갑잔치로 대표되는 왕실의 경사를 화성의 일반 백성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국왕의 행차를 '행행行幸'이라 표현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행운, 즉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었다.

정조는 화성행차를 통해 행차가 지나갔던 지역의 백성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민원民寃을 듣고 해결해 주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정조는 화성 행사를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시흥의 백성들에게 민원 사항을 말해 보라고 하였다. 일상적인 능행에서도 국왕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방도를 생각하는데, 혜경궁의 회갑잔치를 거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정조는 1년 전 환곡의 상환을 연기시켰던 것을 모두 면제해 주었고,[98] 백성들의 민원이 기록된 상언上言을 접수하여 처리해 주었다. 화성행차에서 처리한 민원건수는 총 127건이었다.[99]

1795년의 화성행차에서 정조는 전국의 백성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미치도록 조치하였다. 이를테면 행사 경비에서 남은 2만 냥을 활용하여 마련한 '을묘정리곡乙卯整理穀'이 그것이다. 이때 정조는 전국 300군현의 백성들에게 정리곡을 고루 배포함으로써 혜경궁의 은혜가 모든 백성에게 미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려 하였다.

다음은 심환지의 발언인데, 을묘정리곡이 가졌던 의미를 잘 보여 준다.

> 성상(정조)께서 "백성은 나의 자식인데 집집마다 소고기와 술을 주어 사람들이 모두 취하고 배불리 먹게 하지를 못했으니, 내 마음이 어찌 서운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정리소에서 쓰고 남은 돈을 여러 도에 분배하여 1냥의 돈으로 피곡皮穀 1포包를 바꾸고, 이듬해부터 봄에 나눠 주고 가을에 거둬들이게 했습니다. 종자의 밑천으로 삼거나 농사철 식량이 되게 하여, 우리에게 좋은 종자를 주어 오래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혜경궁의 은혜를 널리 베풀려는 성상의 효에서 나온 것으로, 끝없는 혜택을 남겨 두어 백성들이 잘 사는 바탕이 되게 한 것입니다.[100]

98_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윤2월 16일(무술).
99_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윤2월 19일(신축).
100_ 『정조실록』 권47, 정조 21년 10월 7일(임인).



환궁하는 정조
(「화성능행도병」, 「시흥환어행렬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조는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1795년 왕실에서 맞이한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을묘정리곡은 전국의 군현으로 배포되어 환곡의 자본으로 이용되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 정조의 원래 의도가 성공하지는 못하였다.[101] 그렇지만 국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모친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길이라는 정조의 해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왕은 정치를 잘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 정조의 화성행차는 사도세자의 완전한 복권을 추진하고 혜경궁을 우대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고, 화성에 기반을 둔 장용영 군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훈련을 통해 국왕이 가진 무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또한 정조는 양반층, 노인, 일반 백성들을 위한 행사들을 개최함으로써 왕실의 경사를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려고 하였다. 정조의 화성행차는 이처럼 복합적인 목적을 가진 행사였다.

101_ 1795년 11월에 비변사에서는 충청도에서 정리곡을 고을의 크기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지 못하며, 억지로 나눠 주고 징수하는 폐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정조실록』 권43, 정조 19년 11월 9일(병진)).

SUWON HWASEONG

허용호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02
8일간의 화성행차

정조는 1795년 윤2월 9일에서 16일까지 7박 8일 동안 화성을 행차한다. 8일에 이르는 정조의 화성행차 양상을 『원행을묘정리의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1]

- 을묘년乙卯年(1795년) 윤2월 9일, 임금[大駕]께서 자궁慈宮(혜경궁 홍씨)을 모시고 생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무덤인 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갈 때에, 노량鷺梁의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에서 휴식과 점심을 취하고[晝停], 시흥현始興縣의 행궁行宮에서 숙박하다.
- 같은 달 10일, 사근평肆覲坪의 행궁에서 휴식과 점심을 취하고, 화성부華城府의 행궁에서 숙박하다.
- 같은 달 11일, 화성의 성묘聖廟에 참배하다. 낙남헌洛南軒에 돌아와 친히 문과와 무과를 실시하고 아울러 시험결과를 발표하다[放榜]. 봉수당奉壽堂에서 시행한 생모 혜경궁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연습[進饌習儀]에 친히 참석하다.
- 같은 달 12일, 임금이 자궁을 모시고 현륭원에 나아가 참배하고 화성의 행궁으로 돌아오다. 서장대西將臺에 친히 참석하여 성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城操]과 야간의 군사훈련[夜操]을 시행하다.
- 같은 달 13일, 봉수당에서 자궁의 회갑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다[進饌].
- 같은 달 14일, 신풍루新豊樓에서 홀아비·과부·고아·독자[四民]들에게 쌀을 나누어 줄 때 여기에 친히 참석하다. 낙남헌에서 행한 노인들을 위한 잔치에 친히 참석하다.
- 같은 달 15일, 임금께서 자궁을 모시고 대궐로 돌아올 때, 사근평의 행궁에서 휴식과 점심을 취하고 시흥현始興懸의 행궁에서 숙박하다.
- 같은 달 16일, 용양봉저정에서 휴식과 점심을 취하고 당일로 대궐에 돌아오다.

7박 8일간의 행차 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위의 인용 대목에서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화성에서 벌어진 행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1일부터 14일까지 화성에서 벌어진 행사를 중심으로 이 글이 서술되는 것이다. 결국 이 글은 정조의 을묘년乙卯年 원행園幸 가운데서 '대성전大成殿 참배', '과거시험', '현륭원顯隆園 참배',

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 택일(擇日).

'주·야간 군사훈련', '봉수당奉壽堂 진찬進饌', '사미賜米 행사', '양로연養老宴 행사', '득중정得中亭 어사御射' 등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어쩌면 정조의 화성행차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만을 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대성전 참배

정조의 화성향교 대성전大成殿 참배는 1795년 윤2월 11일에 이루어졌다. 이날은 정조가 한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화성에는 윤2월 10일 저녁에 도착했지만, 화성에서의 행사는 윤2월 11일 대성전 참배가 처음이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택일擇日 대목을 보면 "같은 달 11일, 화성의 성묘聖廟에 참배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성묘聖廟'란 공자를 모신 사당으로 '문묘文廟' 또는 '대성전'이라고도 한다. 정조는 공자를 모신 사당인 대성전에 아침 일찍부터 참배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들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화성성묘에 고유한 축문華城聖廟告由祝文」을 보면, 화성향교 대성전에는 공자, 곧 대성지성大聖至聖문선왕文宣王에서 휘국공徽國公 주희朱熹에 이르는 21명의 성현과 홍유후弘儒候 설총薛聰에서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에 이르는 15명의 우리나라 성현들에 대한 참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명단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2]

> 대성지성大聖至聖 문선왕文宣王, 복성공復聖公, 종성공宗聖公, 술성공述聖公, 아성공亞聖公, 비공費公 민손閔損, 설공薛公 염옹冉雍, 여공黎公 단목사端木賜, 위공衛公 중유仲由, 위공魏公 복상卜商, 도국공道國公 주돈이周敦頤, 낙국공洛國公 정이程頤, 미백郿伯 장재張載, 운공鄆公 염경冉耕, 제공齊公 재여宰予, 서공徐公 염구冉求, 오공吳公 언언言偃, 영천후潁川侯 전손사顓孫師, 예국공芮國公 정호程顥, 신안백新安伯 소옹邵雍, 휘국공徽國公 주희朱熹, 홍유후弘儒候 설총薛聰,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 문창공文昌公 최치원崔致遠,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

이렇게 대성전 참배를 화성에서의 첫 행사로 정한 것은 학문을 사랑하는 정조의 유학 진흥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3]

정조는 윤2월 초5일에 지시하기를 "화성의 성묘 참배는 곧 처음 행하는 예이다. 장차 행례行禮한다는 내용을 관리를 보내어 알리게 하는 것이 예이다. 이번 초8일 새벽에 유수留守를 시켜 성묘에 제祭를 올리게 하라."[4]고 하였다. 이 전교傳敎에 나타나고 있듯이, 1795년 윤2월 11일 정조의 화성향교 대성전 참배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어제(御製), 화성성묘고유축문(華城聖廟告由祝文).
3_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183쪽.
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傳敎), 을묘 윤2월 초5일.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총 36명에 이르는 성현들 각각에 대한 고유축문告由祝文이 정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대성지성大聖至聖 문선왕文宣王, 곧 공자에게 올린 고유축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 하늘이 장차 성인을 내리시니 백성이 능히 말로써 이름 할 수 없습니다. 요순堯舜보다 어지시고, 만세토록 태평천하의 도를 가지셨습니다. 소자小子가 뜻이 있어서 호경鎬京에 벽옹壁雍을 세웠습니다. 하물며 새로이 고을을 이루었으니 어찌 공경치 않으리오. 제사를 맡은 관원은 이른 새벽부터 소를 잡고 돼지와 양을 준비합니다. 좋은 날을 택해서 알현하오니 쌍룡을 그린 깃발과 아홉 가지의 수놓은 의복을 갖추었습니다.

인용한 고유축문의 "새로이 고을을 이루었으니 어찌 공경치 않으리오."에서 보듯이, 새로운 도시 화성 건설에 맞추어 성현에 대한 공경의 예를 다한다고 하고 있다.

정조의 대성전 참배는 묘시卯時(5~7시)에 시작되었다.[6] 정조는 화성행궁에 나와 동부승지 이조원李肇源에게 "승지는 먼저 우화관于華觀에 가서 유생儒生들을 먼저 입장시키고, 시관試官이 예를 행하고 시험제목을 거는 것은 어가가 오는 것을 기다려 행하게 하라. 대성전에 알성謁聖할 때 반열에 참여할 유생儒生은 태학太學에서 알성할 때처럼 집사유생執事儒生들이 어가를 따라 입장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묘시 초삼각初三刻(5시 45분경)에 정조는 군복을 갖추어 입고, 말을 타고 중양문中陽門, 좌익문左翊門, 신풍루新豐樓를 거쳐 팔달문八達門으로 나와 향교 문 밖에 이르렀다. 향교 문 밖에서 정조는 말에서 내려 명륜당明倫堂 대차大次로 들어가 면류관을 쓰고 곤룡포로 갈아입었다. 정조는 옥으로 만든 임금의 홀笏인 규圭를 잡고 동쪽 협문으로 들어가 동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 대성전 앞 기둥 동쪽에 설치한 판위로 가서 서쪽을 향해서 선 다음 네 번 절하였다. 배종陪從한 백관과 유생들도 규정에 따라 예를 올렸다.[7]

의식이 끝나자 정조는 대성전 안으로 들어가 찬찬히 살피고 난 후, 다음과 같이 명을 내렸다.[8]

> 중앙의 태학太學이나 지방의 향교鄕校나 성묘聖廟이기는 한가지이다. 그런데 용마루와 처마[棟宇]가 볼품없이 허술하고 단청丹靑이 더럽혀지고 바랬으며 의자椅子, 상탁牀卓, 포진鋪陳(깔개), 노합罏盒(향로) 등이 모두 제 모양이 아니니, 전부 수리하라.

대성전 건물과 가구 및 제기 등이 낡은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수리와 교체를 명한 것이다. 대성전을 둘러 본 정조는 대성전 참배에 참여한 유생들에게도 섬세한 관심을 표명하여, 그들에게 과거 응시의 기회를 주었다. 출신지나 적籍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 과거 응시자 명부인 거안擧案에 올리고, 봉내封內[9]에 '성묘집사유생聖廟執事儒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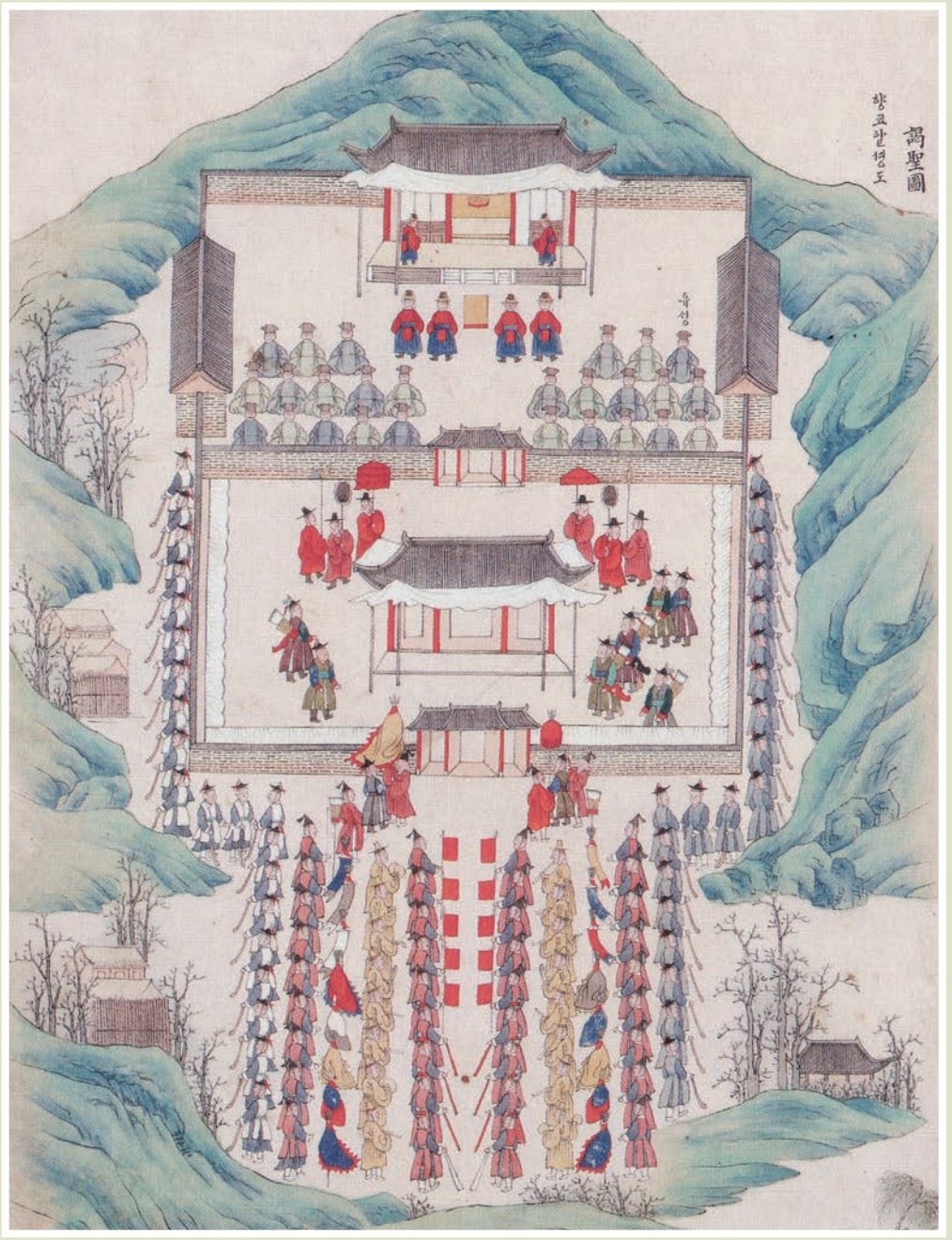
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어제, 화성성묘고유축문.

6_ 대성전 참배와 관련한 이하의 서술은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筵說), 을묘 윤2월 11일 대목을 바탕으로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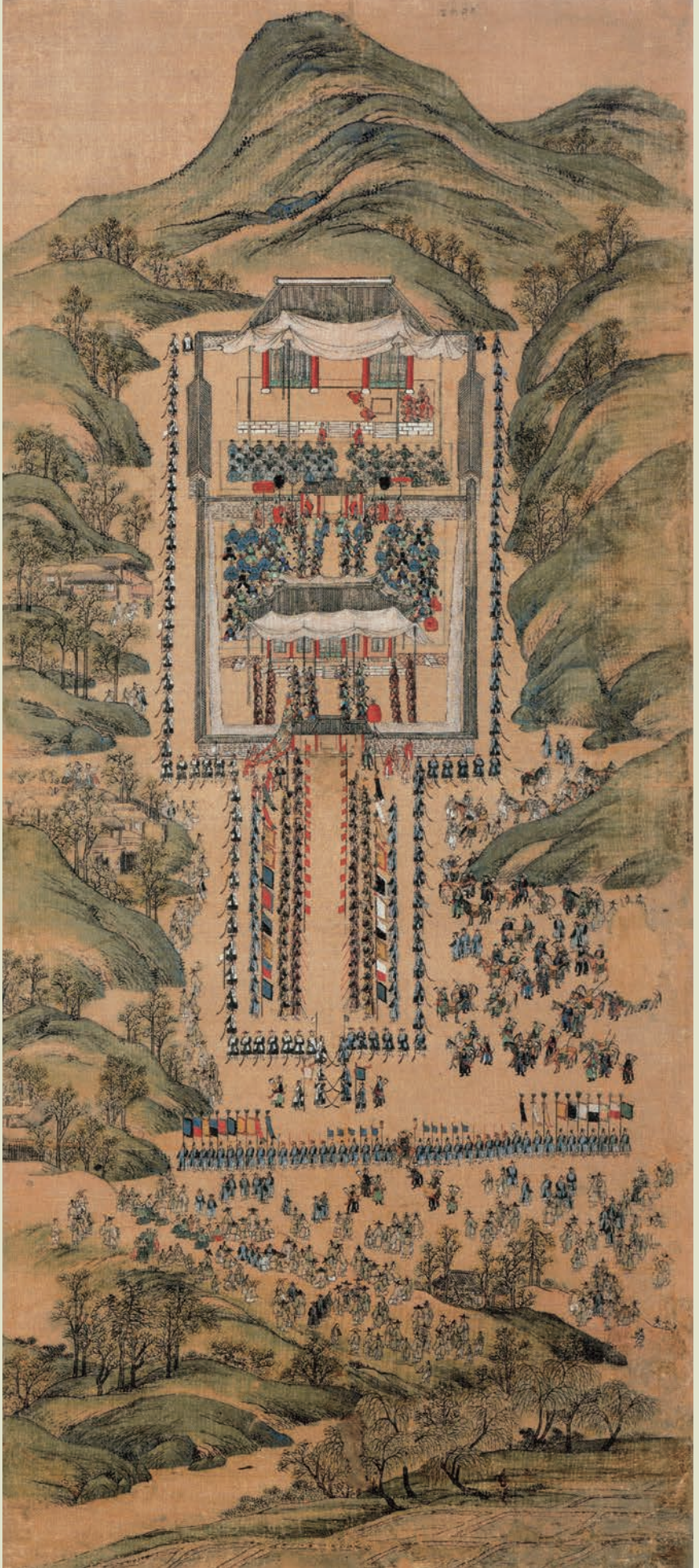
7_ 보다 세밀한 대성전에서의 의식은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의주(儀註), 화성성묘전배의(華城聖廟展拜儀) 참조.

8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1일.

9_ "과거 답안지 오른편 끝에 응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사조(四祖) 등을 쓰고 봉하여 붙이는 것"을 말한다.



「알성도(謁聖圖)」(『원행정리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95년(정조 19) 윤2월 11일 정조가 화성향교의 대성전에 참배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알성(謁聖)이란 성인, 곧 공자를 배알(拜謁)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상단부의 건물이 공자를 모신 대성전이고, 중단부에 있는 건물이 명륜당이다. 대성전과 명륜당 사이에 좌우에 있는 건물은 재(齋)로서 기숙사이다.



「화성성묘전배도(華城聖廟展拜圖)」
(『화성능행도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성묘란 공자를 모신 사당을 말하며, 대성전이라고도 한다. 정조가 화성에 도착한 이후 첫 번째 수행한 공식 행사인 대성전 참배 양상이 묘사되어 있다.

이라 쓰라고 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성전 참배에 참여한 용인에 사는 유생 2명과 화성에 살기는 하지만 집을 지은 해가 얼마 되지 않아 응시자격이 없는 34명의 유생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대성전 참배를 마친 정조는 명륜당으로 돌아와 군복으로 갈아입고, 다음과 같이 화성부 향교에 노비와 전결田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10]

> 듣건대, 화성부 향교는 옛날에는 노비와 전결이 있었으나 주관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 선조先朝(영조) 경신년(庚申年 : 1740, 영조 16)에 송경松京(개성)에 행차하여 성묘에 참배하고 장획臧獲(노비)을 하사한 것은 오늘에 있어 우러러 계술繼述할 만한 내용이니 경신년의 전례에 따라 탁지度支(호조)에서 상량商量하여 획급할 것을 유사당상有司堂上이 대신과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라.

1795년 화성행차 가운데 화성에서 거행된 첫 번째 행사인 대성전 참배의 양상은 그림을 통해서도 접할 수가 있다. 정조가 수원향교의 대성전에 나아가 참배하는 광경이 「알성도謁聖圖」라는 그림으로 묘사되었다.[11] 대성전, 명륜당, 재齋 등의 건물과 참배하는 장면은 『화성능행도병華城陵幸圖屛』의 「화성성묘전배도華城聖廟展拜圖」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2. 과거시험

윤2월 11일 아침 일찍 이루어진 대성전 참배에 이어서 과거시험이 실시되었다. 진시辰時(아침 7~9시)에 화성행궁 낙남헌洛南軒에서 거행된 문무과 별시別試가 그것이다. 정조는 "내일 먼저 성묘를 배알할 것인데, 이미 성묘를 배알하였으면 과거를 설행하여 사람을 뽑는 것은 모레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12]고 하여, 향교를 찾아 공자를 배알한 후에는 학문을 장려하는 과거시험을 치르는 것이 적절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화성에서의 문무과 별시 거행은 화성부와 그 인근 지역인 광주廣州, 과천果川, 시흥始興 지역의 선비들과 무사들을 등용하여 지역 주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13] 처음에는 화성·광주·과천의 선비들과 무사들에게만 시험 자격을 주었지만 금천衿川, 곧 시흥 지역의 선비들까지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14]

문과 시험의 응시자격은 화성·광주·과천·시흥 지역의 유생으로서 서원 유생 명부인 '유적儒籍'과 향교 학생 명부인 '교안校案'에 들어 있으면서 '장적帳籍(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었다. 유적, 교안, 장적 등 삼식三式에 모두 올라 있는 유생들만이 응시자격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화성 유생은 장적에 이름이 올라 있고, 유적이나

1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1일.
1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 도식(圖式), 알성도(謁聖圖).
1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傳敎), 을묘 윤2월 10일.
13_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186쪽.
14_ 『정조실록』 권41, 정조 18년 12월 임신(19일).

교안 중 한 가지에만 올라 있어도 응시자격을 주었다.[15] 앞에서 살폈듯이 이에 덧붙여 정조가 대성전을 참배할 때 참석했던 유생들도 그 출신지나 적籍의 유무에 상관없이 문과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얻었다.[16] 무과 시험의 경우 화성·광주·과천·시흥 지역의 유생들에 덧붙여 무사들까지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다.[17]

화성·광주·과천·시흥 지역의 유생에 한정된 문과 시험의 응시자격은 일종의 특혜였다. 이희평李羲平이 지은 『화성일기華城日記』에 따르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읽어 낼 수 있다.

> 왕이 공자의 신위에 참배하시고 낙남헌樂南軒으로 나오셔서 문무과文武科 알성謁聖 과거시험을 실시하니, 화성·광주廣州·과천·시흥, 사읍四邑 선비만 볼 수 있었다. 당일 신선의 음악이 펼쳐지며 쌍개雙蓋 무동舞童이 인도하여 문무 장원에게 급제증서를 주었지만, 우리는 사읍四邑에 호적戶籍이 없어 과거도 못 보고 남을 구경만 하니 애달팠다.

이렇게 이희평이 "우리는 사읍四邑에 호적戶籍이 없어 과거도 못 보고 남을 구경만 하니 애달팠다."고 말하는 것에서, 화성·광주·과천·시흥 지역의 유생들에게 주어진 특혜의 정도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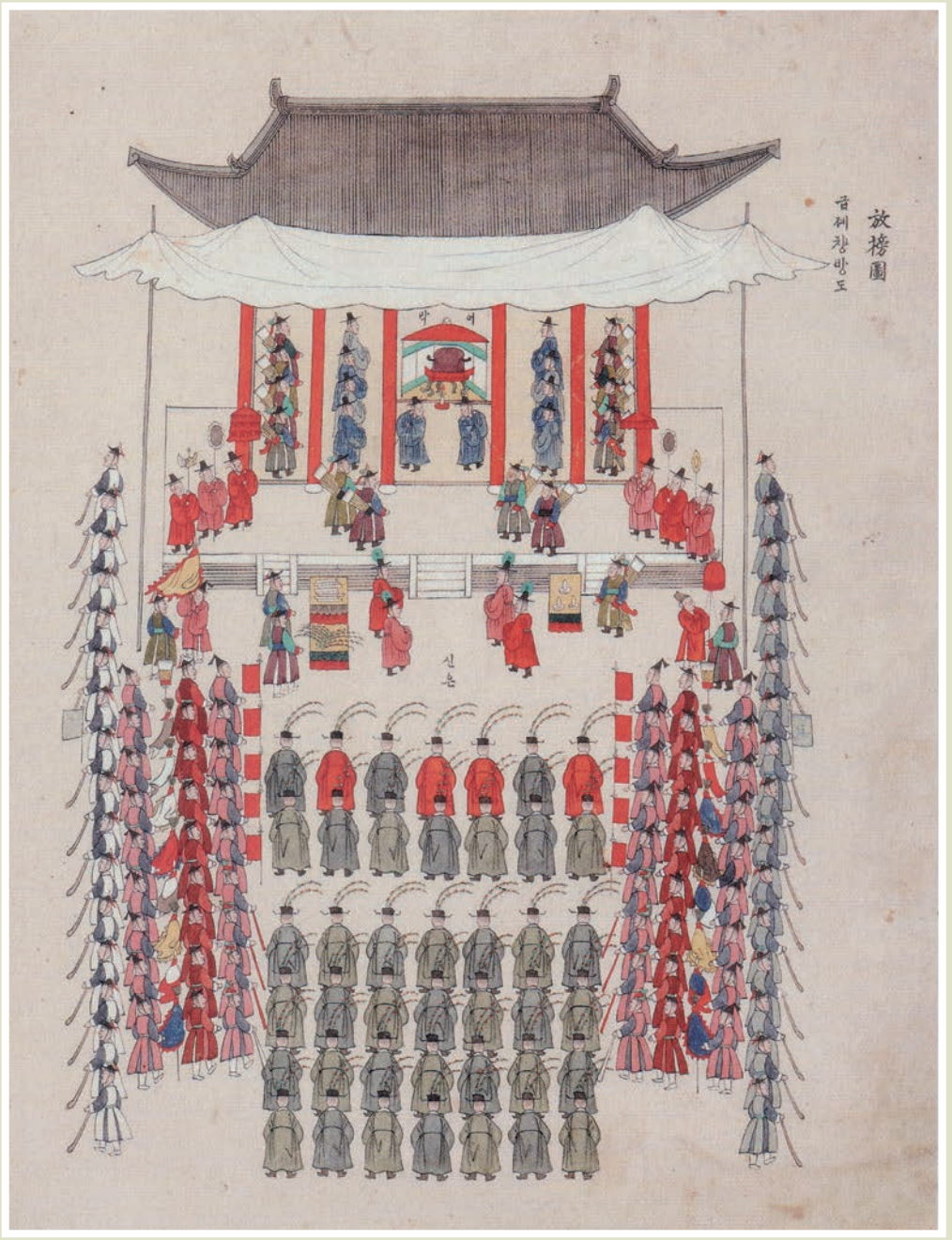
과거시험은 정조가 융복戎服을 입고 모자에 깃을 꽂고 낙남헌으로 나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정조가 나오자 음악이 연주되었고, 자리에 오르자 음악이 중지되었다. 시험에 앞서 일정한 의식이 치러졌다. 참가자들이 모두 네 번씩 절을 하고 정해진 위치로 돌아가는데, 절을 할 때마다 음악이 연주되고 일어나면 음악이 중지되었다.

이날 문과 시험의 문제는 '근상천천세수부謹上千千歲壽賦'였는데, 혜경궁 홍씨가 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부賦를 지으라는 것이었다.[18] 정조는 과거시험 독권관讀券官인 유언호兪彦鎬에게 "이는 치사致詞의 말이니, 이 점을 알고 잘 지으라는 뜻을 응시하는 여러 유생들에게 알아듣게 타이르라[曉諭]."[19]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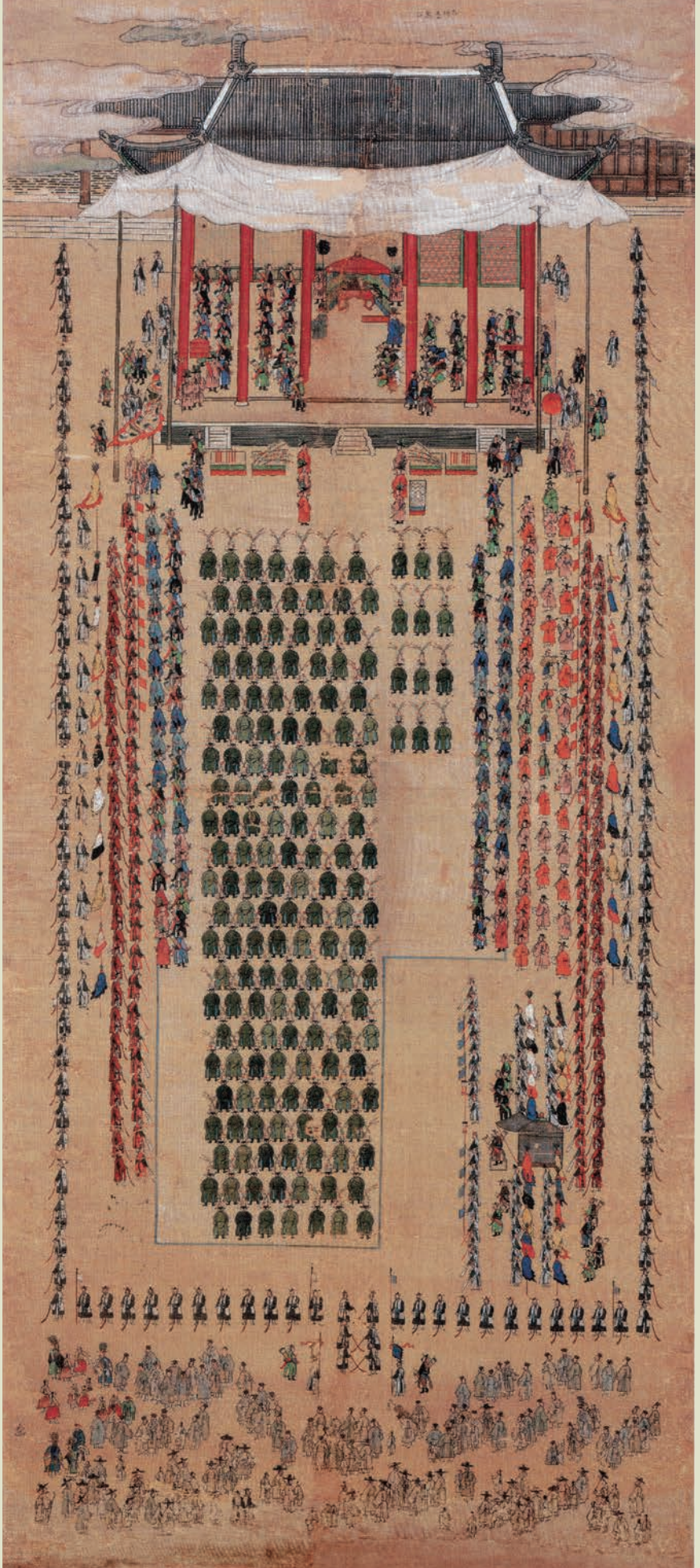
이어진 무과 시험의 종목은 활쏘기였다. 무과 시험 응시자[應射人]를 한 명씩 불러 활을 쏘게 하였다. 무과 시험에 응시한 이들은 이미 지난 2월 10일 화성부에서 초시初試를 치러 합격한 이들이었다.[20] 화성·광주·과천·시흥 사람 116명, 구포민인鷗浦民人 5명, 그리고 왕이 특별히 응시를 허락한 화성부 교졸校卒 16명이 각각 활을 쏘았다.[21] 활쏘기가 끝나자 정조는 "무과의 응시자 중 합격에 든 사람에게서 본부本府 교리校吏가 궁시弓矢를 빼앗았다고 하는데 유수에게 분부하여 일일이 찾아서 내어 주도록 하라."[22]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날 행해진 과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문과에서 최지성崔之聖 등 5명인데, 그 나이와 거주지 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23]

1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절목(節目), 「화성에서 임금께서 문무과 시험장에 친히 임하실 때의 절목」 참조.
1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1일.
17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계사(啓辭), 을묘 1월 24일 참조.
18_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188쪽.
19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1일.
2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 각항일자(各項日子) 참조.
21_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189쪽.
2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1일.
23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5, 방목(榜目), 화성문과별시방목(華城文科別試榜目)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방방도(放榜圖)」(『원행정리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95년(정조 19) 윤2월 11일 낙남헌에서 문무과 별시를 실시한 후, 같은 날 합격자를 발표하는 광경을 묘사하였다. 문무과에 합격한 이들이 낙남헌 앞마당에 어사화를 꽂고 자리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낙남헌방방도(洛南軒放榜圖)」(『화성능행도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낙남헌에서 벌어진 문무과 합격자 발표와 축하 의식을 묘사하였다. 그 인원수는 맞지 않지만, 오른편에 자리한 이들이 문과 급제자이고 왼편에 자리한 이들이 무과 급제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하단의 시위 군사 밖에 자리한 이들은 문무과에 합격한 이들의 가족으로 보인다. 하단 왼쪽에 붉은 옷을 입거나 어사화를 꽂은 이들은 급제자들의 유가(遊街)를 위한 광대들이다.



「낙남헌방방도」에 그려진 합격자들의 가족과 유가를 행할 광대
(『화성능행도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갑과甲科 1인 : 생원 최지성崔之聖(40세, 화성)
을과乙科 1인 : 유학 임준상任俊常(29세, 광주)
병과丙科 3인 : 유학 정순민鄭淳民(41세, 과천), 생원 이유하李游夏(29세, 시흥), 진사 유성의柳聖儀(33세, 화성)

위에서 보듯이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의 거주지는 화성 2명, 광주 1명, 시흥 1명, 과천 1명이다. 이는 정조가 "화성에서 2인을 취하고 시흥과 과천에서 각 1인을 취하라."[24]고 명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무과 시험의 합격자는 김관金寬 등 56명이었다. 갑과 1인, 을과 5인, 정원 외 45인을 포함한 병과 50인의 합격자들을 그 나이와 거주지 등과 함께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25]

- 갑과 1인 : 친군위親軍衛 김관金寬(37세, 화성)
- 을과 5인 : 부사과副司果 김창운金昌雲(34세, 광주), 한량閑良 권득성權得星(36세, 광주), 부사과 박후신朴厚新(32세, 광주), 한량 김성갑金星甲(29세, 화성), 한량 김종진金宗鎭(29세, 화성)
- 병과 5인 : 별무사 송덕관宋德寬(51세, 화성), 친군위 한치유韓致裕(31세, 화성), 부사과 윤혁주尹赫周(36세, 화성), 부사과 이국연李國連(45세, 광주), 부사과 서종복徐宗福(35세, 광주)
- 병과 정원 외 45인 : 장용위 유엄柳曮(29세, 서울), 통덕랑 신광혁申光赫(19세, 화성), 녹사錄事 최운득崔雲得(24세, 화성), 친군위 한송韓淞(24세, 화성), 친군위 문세린文世麟(32세, 화성), 친군위 차석삼車錫三(35세, 화성), 친군위 김천한金千漢(47세, 화성), 족친위族親衛 이억빈李億彬(42세, 화성), 별무사 최성욱崔聖郁(28세, 화성), 한량 이기형李基馨(33세, 화성), 한량 박용대朴龍大(46세, 광주), 한량 한세항韓世恒(29세, 광주), 한량 이항오李恒五(32세, 화성), 한량 박리인朴履仁(20세, 화성), 한량 김세광金世光(35세, 화성), 한량 표창언表昌彦(43세, 화성), 한량 서정옥徐廷玉(32세, 수원), 한량 김처홍金處洪(54세, 광주), 한량 김응철金應喆(30세, 남양), 장용군 최천동崔千東(36세, 화성), 장용군 홍한위洪漢渭(27세, 화성), 장용군 서대광徐大光(38세, 화성), 장용군 강흥운姜興雲(30세, 화성), 한량 조계조趙啓祚(37세, 화성), 한량 윤영기尹永基(22세, 시흥), 장용영 향무사 이필대李弼大(38세, 화성), 친군위 권득경權得經(32세, 화성), 친군위 윤행묵尹行默(31세, 화성), 친군위 김성악金星岳(31세, 화성), 장용군 임복선林福善(23세, 화성), 장용영 향무사 장점복張漸福(28세, 화성), 친군위 윤성운尹聖運(32세, 화성), 한량 윤형동尹炯東(39세, 화성), 장용영 향무사 최만빈崔萬彬(46세, 화성), 친군위 김치원金致元(28세, 화성), 장용군 김종록金宗祿(26세, 화성), 친군위 정덕래鄭德來(32세, 화성), 친군위 김이종金彛鍾(29세, 화성), 장용군 이성관李成寬(45세, 화성), 선무군관選武軍官 곽천운郭千雲(63세, 과천), 장득관張得寬(34세, 화성), 친군위 김약채金若采(27세, 화성), 겸사복兼司僕 김중일金重鎰(54세, 서울), 친군위 이흡李熻(37세, 화성), 장용군 박중태朴重太(40세, 화성)

2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1일.
2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5, 방목, 무과별시방목(武科別試榜目)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들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의식인 방방의放榜儀가 미시未時 정삼각正三刻(오후 2시)에 행해졌다.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곤룡포袞龍袍를 입은 정조가 친림한 가운데 합격자에게 합격 증서인 홍패紅牌가 주어지고 어사화와 술, 안주 등이 내려진다. 갑과甲科 합격자에게는 우산처럼 생긴 깃발인 개蓋를 주었다.[26] 이러한 방방의의 모습은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방방도放榜圖」[27]에 묘사되어 있다. 어사화御賜花를 머리에 꽂은 과거 급제자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화성능행도병』의 「낙남헌방방도洛南軒放榜圖」에서도 과거시험 합격자들을 위한 의례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특히 합격자들의 가족들과 유가遊街를 행할 광대들의 모습이 함께 묘사되어 흥미롭다.

3. 현륭원 참배

화성에서의 둘째 날인 윤2월 12일 이른 새벽에 정조는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현륭원顯隆園으로 향하였다.[28] 인정寅正 3각三刻(오전 4시 45분경)에 군복을 입고 말을 탄 정조는 가교에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출발하였다. 현륭원 참배를 위한 행차는 행궁의 중양문·좌익문·신풍루를 지나서 팔달문으로 나와 상류천上柳川 가게 앞 길[店前路]에 이르러 잠시 쉬면서 미음과 차를 마셨다. 이때 혜경궁 홍씨의 몸이 편치 않음을 알아차린 정조는 약방제조藥房提調 심환지에게 "먼저 원소에 가서 자궁께 드릴 삼령다蔘苓茶 한 첩을 즉시 달여 놓고 기다리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행차는 다시 출발하여 하류천下柳川·황교皇橋·옹봉甕峰·대황교大皇橋·유첨현迫瞻峴을 지나 유근교迫覲橋 앞길에 이르자, 정조는 여러 신하 및 장관將官 이하에게 모두 말에서 내리라고 명하였다. 만년제萬年堤를 지나 동네 입구[洞口]에 이르러서는, "시위하는 인마人馬는 산불을 막기 위하여 초목을 불살라 버린 화소火巢 근처에 함부로 난입攔入하여 수목樹木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현륭원에 도착한 정조는 먼저 재실齋室 밖에 장막으로 임시로 지어 놓은 막차幕次로 가서 자궁을 모시고 재실로 들어갔다. 여기서 정조는 앞서 준비해 두라고 한 삼령다를 직접 받들어 자궁께 올렸다.

정조는 막차에서 연한 검푸른 색의 옷인 참포黲袍와 검은 물소 가죽으로 만든 오서대烏犀帶를 두른 다음, 여輿를 타고 원園 위로 올라갔다. 혜경궁 홍씨는 유옥교有屋轎라 불리는 지붕이 있는 작은 여를 타고 올라갔으며, 사도세자의 딸인 청연군주淸衍郡主와 청선군주淸璿郡主 역시 뒤를 따랐다. 혜경궁 홍씨가 설치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비통悲痛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통곡을 하니, 울음소리가 휘장 밖까지 들렸다. 정조가

2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의주, 화성문무과친임방방의(華城文武科親臨放榜儀) 참조.
27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 도식, 방방도.
28_ 이하 현륭원 참배 관련 서술은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2일을 바탕으로 한다.



융릉 전경

정리소에 명하여 삼령다를 올렸는데 혜경궁 홍씨는 이를 물리쳤다. 정조 역시 몹시 조급하고 당황해 하는 빛이 역력하였다. 정리사들이 혹시라도 혜경궁 홍씨께서 병환이라도 날까 염려하여 행궁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하였다. 이에 정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29]

> 출궁할 때는 자궁께서 십분十分 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여기에 도착하니 비창悲愴한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 내 자신이 이미 억제할 수가 없으니, 자궁의 마음이야 어떠하시겠는가?

이어 정조는 혜경궁 홍씨께 차종茶鍾(차를 담아 마시는 종지)을 친히 받들어 권해 올렸다. 잠시 후 정조는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귀환길에 올랐다. 홍살문[紅箭門] 밖에 이르자, 가마를 멈추라고 명하여 원 위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비로소 돌아가기를 명하였다.

29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2일.

정조가 군복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말을 타고 재실 앞에 이를 즈음 정조의 일면을 보여 주는 대화가 이루어졌다.[30]

>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전從前 원행 때에 백관百官들은 의례대로 화성행궁에서 모자에 깃을 꽂았고[插羽], 원소에 나아가서 제거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따로 다례茶禮를 행궁에서 하였고, 재齋를 지낸다는 명령[齋令]도 없었는데 백관들이 깃을 꽂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시니, 행 우승지 이익운이 답하길, "전하께서 현륭원에 나아가실 때 참포黲袍를 입으셨으므로 백관들이 감히 깃을 꽂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를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후에는 친제親祭가 아니면, 전례前例에 따라 깃을 꽂아야 한다는 것을 예도감禮都監에 분부하라." 하셨다.

이 대화를 보면, 예규를 중시하는 정조의 일면이 드러나고 있다. 비통해 하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모습에 어쩔 줄 모르고, 정조 자신도 슬픔에 잠겨 있었으면서도 섬세하게 예규를 살펴 지적해 내는 정조의 모습이 이 대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륭원 참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행차가 동구洞口를 나와 하류천下柳川에 이르자 잠시 휴식이 이루어졌다. 정조는 혜경궁 홍씨께 미음을 올리고 각신閣臣, 승지承旨, 사관史官 등에게도 식사를 제공하였다.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출발하여 팔달문을 거쳐 신풍루新風樓, 좌익문左翊門, 중양문中陽門을 지나, 봉수당奉壽堂에 이르렀다. 정조는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장락당長樂堂으로 들어갔다.

이상의 서술이 바탕을 둔 『원행을묘정리의궤』의 해당 대목을 보면,[31] 절제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혜경궁 홍씨의 비통한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혜경궁 홍씨에게 이날 현륭원 참배는, 1762년 사도세자가 사망한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그 슬픔이 극도에 달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정조는 그러한 슬픔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날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정조의 모습은 위풍당당 그 자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희평의 『화성일기』에서 현륭원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정조의 모습을 "왕은 군복을 입고 계셨는데 군복에는 금으로 용이 그려져 있었고 금빛이 밝게 비쳐 빛나니 햇빛에 찬란하였다."고 표현한 데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4. 주 · 야간 군사훈련

윤2월 12일 오후에는 화성을 방어하는 군사훈련이 있었다. 화성 축성의 목적 중에 하나가 군사적 요새지를 만드는 것이었던 만큼 군사적으로도 화성은 중요한 곳이었

3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2일.
3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2일.

다. 또한 이곳에 장용외영이 있었기에 화성을 방문하면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욱이 5,000명에 이르는 장용외영의 군사들은 정조의 친위군대라는 성격이 강하여, 이들이 중심이 된 훈련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정조가 가진 군사적 힘의 실체를 대외적으로 과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윤2월 12일의 군사훈련은 주간과 야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정조가 "서장대에 친히 참석하여 성조城操와 야조夜操를 시행하다."[32]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조'란 성城에서 하는 군사훈련을 말하고, 낮에 하는 군사훈련을 '주조晝操', 밤에 하는 훈련을 '야조'라고 한다. 따라서 윤2월 12일에는 낮과 밤에 걸쳐서 군사훈련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군사훈련에서 정조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갖추어 입고 직접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에 올라가 군사들의 훈련을 지휘하였다. 이때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이 수원의 지리적 이점과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33]

> 신이 이 지방을 지나다닌 것이 여러 차례이지만, 이와 같이 장애나 위해가 없이 보호받는 땅[保障之地]일 줄은 여태 몰랐습니다. 지금 주위 형국[形便]이 두루 갖추어지고[周遭], 규모規模가 굉원宏遠함을 보니 비로소 하늘이 만든 높은 산이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겠습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 공수攻守에 모두 편하며, 삼남三南의 요충지에 해당하며 근엄함이 경기 지방[畿輔]을 보호할 수 있으니, 참으로 만세토록 의지할 터[萬世永賴之基]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조는 화성 축성에서는 지리적 이점과 중요성뿐만 아니라, 축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력 또한 대단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치하하였다.[34]

> 원침園寢을 수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특별히 축적한 예산을 상량하여 이와 같은 토목 공사가 있었으나 만약 지리地利와 형편을 얻지 못하였다면 또한 어찌 일을 크게 벌일 수 있었겠는가? 모든 일에 매번 사람은 역량力量이 없음을 근심하기 마련인데 어찌 뜻이 있다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겠는가?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 성제城制에 매우 열심이나, 공역工役이 또한 이와 같이 매우 거대한데도 수년 사이에 거의 다 완공하였으니 또한 내가 처음에는 헤아림이 미치는바 아니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화성은 아직 도읍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채제공은 다음과 같이 안타까워하였다.

> 이제 성부城府의 제도는 거의 두루 갖추어졌으나, 마을[閭井]이 아직 즐비櫛比함을 이루지 못하고 재화와 이익[貨利]이 샘처럼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왕도王都의 장려壯麗한 규모는 3년여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니, 공사의 나머지 일이 매우 걱정입니다.[35]

32_『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 택일.
33_『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2일.
34_『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2일.
35_『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2일.

이에 정조는 아직 화성이 완전히 그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지만, 지금부터 이용후생의 길을 차례로 갖추어 나간다면 백성들이 몰려들어 2~3년 내로 읍邑이 이루어지고, 도都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하였다.[36]

> 고을이 되고 도읍이 되는 것은 아직 2년, 3년의 기간이 있다. 지금부터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방도를 점차 갖추어 나가면 백성들이 몰려들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어서 정조는 좌승지 이만수에게 다음과 같은 어제시御製詩를 써서 내려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화답하도록 명하기도 하였다.[37]

> 능원을 호위함이 중대한 일이지만
> 공사를 다스려서 경영함에 허비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도다.
> 성城은 평지를 따라서 뻗었고
> 대臺는 멀리 하늘 높이 솟았도다.
> 일만 장벽은 규모가 웅장하고
> 삼군三軍은 의기가 호걸스럽도다.
> 대풍가大風歌를 한 번 연주하니
> 붉은 해가 갑옷[鱗袍]을 비추도다.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앞두고 정조는 이유경李儒敬에게 "행궁行宮이 아주 가까우니 포성砲聲이 높지 않도록 하라. 신포信砲는 세구멍박이총[三穴]으로 대신하여 총수銃手로 하여금 성城의 서북쪽 모퉁이에서 방포放砲하게 하라."고 섬세하게 명하기도 하였다.

이날 훈련을 위하여 정조는 병조兵曹와 장용영에 명하여 화성의 성조와 야조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행차 한 달 전인 2월 9일에 그 규정을 완성하였다. 이때의 훈련 규정은 『원행을묘정리의궤』의 '화성성조주조식華城城操晝操式'과 '야조식夜操式'에 정리되어 있다.[38]

"성조와 야조를 의례대로 시행하라."는 정조의 지시가 떨어지자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낮에 실시된 성조의 순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39]

> 소개문小開門(성문을 조금 열어 임금이 나아가는 공간을 만들기) → 승단升壇(임금이 단에 오르기) → 승기升旗(기 올리기) → 발복로發伏路(성문 밖의 요새나 참호에 군사를 매복하여 경비하기) → 폐성문閉城門(성문 닫기) → 면조面操 → 사면제조四面齊操 → 개성문開城門(성문 열기) → 수복로收伏路(매복하였던 병사를 거두어들이기) → 하성下城(성 내려오기) → 낙기落旗(기 내리기)

낮에 진행된 군사훈련에서 핵심적인 것은 '일면조一面操'와 '사면제조四面齊操'였다. 성

3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2일.
37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어제(御製), 화성장대친림성조유시제우미상(華城將臺親列城操有詩題于楣上).
38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의주, 화성 성조주조식과 야조식 참조.
39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의주, 화성 성조주조식.

을 사면四面으로 나누어 한 면씩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훈련이 일면조이다. 일면조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40]

> 성 한 면에서 조련을 하고 해당 면에서 길에 복병을 배치하는 일에 대한 절목. 포를 쏘며 불을 지펴 올려 경계를 알린다. 해당 면 성장城將들 역시 수에 맞추어 포를 쏘고 불을 지펴 올린다. 병조판서가 무릎을 꿇고 모면某面에서 조련식 명령을 내리기를 아뢴다.[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간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모면에서 조련하라고 호령한다.[교련관을 불러 수에 맞추어 신포를 발포하도록 한다.] 이어 무릎을 꿇고 기립하라는 호령을 하시기를 아뢴다.[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1차례 발포하도록 한다.]
> 나팔을 어지럽게 불면 각 병사들은 기립하고 징소리가 나면 끝낸다. 해당 방위색의 대기大旗를 세운다. 북을 어지럽게 치며, 길게 부는 나팔 소리인 천아성天鵝聲에 맞추어 기를 점검한다.[해당 면의 유병遊兵들은 고함을 지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응원한다.] 해당 면에서 적賊이 백 보步 안에 도달하였다고 보고되면 호령에 따라 낭기狼機와 조총을 번갈아 쏜다. 또 적이 오십 보五十步 안에 도달하였다고 보고되면 사수射手들이 일제히 활을 쏜다.
>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북을 울리고 자바라를 치기를 아뢴다.[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1차례 발포하도록 한다.] 북을 굴리듯이 치고 자바라를 울리면, 해당 면에서는 적이 성 아래에까지 왔음을 보고한다. 성 위에서 돌을 내려친다. 적을 물리쳤음을 알리고 징을 쳐서 자바라와 북을 멈추게 한다. 또 적이 이미 멀리 돌아갔음이 보고되면 선전관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징을 쳐서 자바라와 북을 멈추게 하기를 아뢴다.[징수를 불러 행한다.]
> 이어 무릎을 꿇고 유병이 목적지에 돌아오도록 호령하시기를 아뢴다.[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1차례 발포하도록 한다.] 해당 면의 기를 안으로 향하게 세우고 점검하는 한편 징을 2번 울려 대취타를 연주하게 한다.[해당 면에서는 동시에 포소리로 응하고 취타를 연주한다.] 유병이 각각 신지信地로 되돌아오면 징을 쳐서 취타를 멈추게 한다.
>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휴식하라는 호령을 내리기를 아뢴다.[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1차례 발포하도록 한다.] 꽹과리를 친다.[해당 면에서는 동시에 포소리에 응하여 자바라를 울린다.] 징을 울려 끝낸다. 병조판서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모면의 조련식을 마쳤음을 아뢴다.[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간다.] 한 면의 조련식을 마치면 또 다른 면에서 조련식을 가진다.

4면에서 동시에 같은 내용의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인 사면제조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41]

> 4개 면에서 일제히 조련하는 일에 대한 절목. 4개 면의 길에 모두 복병을 배치하고 일시에 포를 쏘고 불을 지펴 올려 경계를 알리면, 각 면 성장들도 역시 수에 맞추어 포를 쏘고 불을 지펴 올린다. 병조판서는 임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면제조를 아뢴다.[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간다.] 선전관은 무릎을 꿇고 사면에서 일제히 조련하도록 호령하시기를 아뢴다.[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1번 발포하고 빠른 속도로 종을 치되 종은 징으로 대신하도록 한다.]
> 이어 무릎을 꿇고 기립하라는 호령을 하시기를 아뢴다.[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한 번 발포하도록 한다.] 나팔을 어지럽게 불면 각 병사들은 기립하고 징을 울려서 동작을 멈추게 한다. 사면에 기를 세우고 북을 두드리면 천아성 소리에 맞추어 기를 점검한다.[사면의 유병들은 고함을 지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응원한다.] 각 면에서는 적이 백보 안에 도달하였다고 보고되면, 호령에 따라 낭기와 조총을 번갈

4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의주, 화성성조주조식.
4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의주, 화성성조주조식.

아 쏜다. 또 적이 오십 보 안에 도달하였다고 보고되면 사수들이 일제히 활을 쏜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북을 치고 자바라를 치는 일을 아뢴다.[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1차례 발포하도록 한다.]
북을 굴리듯이 울리고 자바라를 치면 즉시, 각 면에서는 적이 성 아래에까지 왔음이 보고되고, 성 위에서 돌을 내려친다. 적을 물리쳤음이 보고되면 징을 쳐서 자바라와 북소리를 멈추게 한다. 또 적이 이미 멀리 돌아갔음이 보고되면, 선전관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징을 쳐서 자바라와 북소리를 멈추게 하기를 아뢴다.[징수를 불러 행한다.]
이어 무릎을 꿇고 유병들이 신지에 돌아가도록 호령하시기를 아뢴다.[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1차례 발포하도록 한다.] 4개 면의 기를 안으로 향하게 세우고 점검하게 한다. 징을 2번 울려 대취타를 연주하게 한다.[각 면에서는 동시에 포소리에 응하여 취타를 연주한다.] 유병들이 각기 신지로 돌아오면 징을 울려 취타를 그친다.[각 면에서도 동시에 취타를 그친다.]

군사훈련은 밤에도 실시되었다. 같은 장소에서 야간 군사훈련인 야조가 실시된 것이다. 정조는 갑옷을 입고 서장대에 올라 군사를 지휘하였다. 야조의 훈련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42]

폐성문閉城門 → 연거演炬(횃불 올리기) → 낙기落旗(기 내리기) → 현등懸燈(등 달기) → 전경傳更(초경初更(밤 7~9시)부터 오경五更(새벽 3~4시)까지의 시간을 알리는 것) → 낙등落燈(등 내리기) → 폐성문閉城門 → 수복로收伏路 → 하성下城

야간 군사훈련인 야조에서 특별한 것은 횃불 올리기[演炬]이다. 야간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이날 행해진 횃불 올리기 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거演炬, 즉 횃불을 올리는 훈련을 할 때 병조판서는 무릎을 꿇고 연거하시기를 아뢴다.[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난다.] 선전관은 무릎을 꿇고 횃불을 올리라는 호령을 하시기를 아뢴다.[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3번 발포하고 가지 3개에 불을 일으키도록 한다.] 횃불을 4자루 점화한다.[각 면에서는 동시에 응포하고 불을 일으켜 횃불을 올린다.] 선전관은 무릎을 꿇고 횃불을 당기라는 호령[點炬號令]을 하시기를 아뢴다.[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1번 발포하고 천아성을 불도록 한다.] 횃불을 점검한다.[각 면에서는 일제히 응포하고 점거하며 모두 3차례 고함을 지른다.] 선전관은 무릎을 꿇고 횃불을 끄라는 호령[仆炬號令]을 하시기를 아뢴다.[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3번 발포하도록 한다.] 횃불을 내린다.[각 면에서는 일제히 응포하고 횃불을 내린다[仆炬].]

등 달기[懸燈] 역시 야간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이날 행해진 등 달기 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다.

등을 달 때 병조판서는 무릎을 꿇고 현등懸燈에 대해 아뢴다.[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간다.] 선전관은 무릎을 꿇고 등을 달라는 호령[懸燈號令]을 하시기를 아뢴다.[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3번 발포하고 가지 3개에 불을 일으키도록 한다.] 북을 굴리듯이 치면서 자바라를 울리기를 3차례 같이 하면 오색의 쌍등雙燈을 건다.[각 면에서는 일제히 포소리에 응하여 불을 일으키고 자바라와 북을 세 차례 친

4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의주, 야조식 참조.



「**서장대성조도(西將臺城操圖)**」(『원행정리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장대성조도(西將臺城操圖)」
(『화성능행도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95년(정조 19) 윤2월 12일 벌어진 군사훈련을 그린 그림이다. 서장대를 중심으로 하여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횃불을 든 군사들이 성곽을 에워싸고 있으며, 성 안의 마을 집집마다 등이 달려 있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이로 보아 야조, 곧 야간 군사훈련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물이나 사람들이 모습이 낮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야간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다음 등을 단다. 각 타垜, 즉 살받이에서는 일시에 등을 단다. 성 안의 인가에서는 문 위에 등잔 하나를 달아 한 사람이 이를 앉아 지킨다.] 징을 쳐서 끝낸다.[각 면에서도 징을 그친다.] 선전관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휴식 호령하시기를 아뢴다.[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1번 발포하도록 한다.] 꽹과리를 울린다.[성의 각 면에서는 동시에 포소리에 응하여 자바라를 친다.] 징을 쳐서 끝낸다.

이처럼 야간훈련에는 횃불이 사용되었으며, 화성 안의 일반 백성들도 문 위에 등을 하나씩 걸도록 하였다. 횃불을 든 군병들이 성을 에워싸고, 성 안의 마을 집집마다 등이 켜져 있는 모습이 그려진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중 「연거도演炬圖」를 보면 이러한 야조의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밤에 이루어진 야조의 경우 장관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희평의 『화성일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해당 대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윽고 서산에 햇빛이 감추고 아버지 사도세자 묘소 한쪽에 어둠이 깔리자, 선전관宣傳官이 밤 행군 시 깃대에 매달던 등에 불 켬을 웃어른에게 여쭈어서 그 의견을 기다린 후 각 영문營門이 일시에 등에 불을 켜 매달고, 나팔을 불고, 징을 치니, 성터 위로 군병이 일시에 열을 지어 늘어서고, 조두刁斗소리 내며 순찰 돌았다.

총을 쏴 소리를 내고, 천야성天鵝聲을 불고, 청룡기靑龍旗에 청룡등靑龍燈을 내어 세우니, 동문에서 응대하는 총을 쏴 내는 소리에 여러 사람이 일제히 큰소리를 지르고, 또 총을 쏴 소리를 내고, 천야성天鵝聲을 불고, 주작기朱雀旗와 주작등朱雀燈을 내어 두르니, 남문에서 응대하는 총을 쏴 소리를 내고, 여러 사람이 일제히 큰소리를 지르고, 천야성天鵝聲을 불고, 백호기白虎旗와 백호등白虎燈을 내어 두르니, 서문에서 응대하는 총을 쏴 내는 소리에 여러 사람이 일제히 큰소리를 지르고, 또 총을 쏴 소리를 내고, 천야성天鵝聲을 불고, 현무기玄武旗와 현무등玄武燈을 내어 두르니 북문에서 응대하는 총을 쏴 내는 소리에 여러 사람이 일제히 큰소리를 질렀다.

대臺 위에서 신기전神機箭을 쏴대니, 사문四門과 사면四面 성터 위로 일시에 삼두화三頭火가 켜지고, 전후좌우 신기전이 공중에 높이 솟아올라 하늘을 찌를 듯 하며, 불빛이 밝게 빛나며 찬란하여 성 안이 불빛으로 붉어지고 그 때 달빛이 희미하여 불빛이 더 밝게 빛나더라. 하여 사면이 다 불 경치라, 구경하는 사람이 길을 메우고 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구경이라 하였다.

불빛에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구경하니, 그런 장관壯觀이 또다시 어이 있으리오.

"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구경"이라는 언급이나 "그런 장관이 또다시 어이 있으리오."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이날 벌어진 야조의 양상은 '대단한 구경거리'요 '장관'이었다.

정조는 낮과 밤에 걸쳐 이루어진 군사훈련을 통해 화성의 방어체제를 점검하였다. 동시에 이 군사훈련은 장용영을 중심으로 강화해 왔던 정조의 실제적인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정조는 이날 이루어진 군사훈련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훈련이 끝난 후인 윤2월 14일에 정조가 말한 다음 내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43]

43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4일.

> 어제(12일)의 군사훈련[城操]으로 말하더라도 화성부[本府]의 군대가 평소 조직적으로 훈련한 것이 아니었지만, 성정군城丁軍이 횃불을 올리고[擧火] 화포를 쏘는 것[應砲]이나, 친군위親軍衛 군인들이 앉고 서고[坐作] 전진과 후퇴[進退]를 하는 것이 모두 능히 모양을 이루었다. 이는 앞으로 쓸 인재를 얻은 것이라 볼 수 있으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낮과 밤에 걸쳐 이루어진 군사훈련의 양상은 「서장대성조도西將臺城操圖」라는 그림을 통해서 보다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44] 서장대에서 정조의 참여하에 이루어졌던, 성을 수비하고 공격하는 훈련과 야간 훈련의 광경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림 상단에는 정조가 자리한 서장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이희평의 『화성일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옆에 단壇을 쌓고 단 위에 흰 색칠을 한 담장을 둘러놓았는데 왕이 올라앉는 자리라 하였다. 누樓 사면에 차일遮日과 설포장設布帳을 치고 파수병을 두어 함부로 아무나 출입을 못하게 경계하는 문이 있어 올라가 보지 못하고 그냥 내려왔다.

엄중하게 호위를 하는 가운데, 군사훈련을 이끄는 지휘부의 모습이 그림과 글을 통해 잘 표현되어 있다.

5. 봉수당 진찬

'진찬進饌'이란 "세자 및 신하가 임금에게, 임금이 대비에게 드리는 격식을 갖춘 잔치로서 음식과 술과 함께 예능인들의 재주를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봉수당奉壽堂 진찬은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벌어진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일컫는 것이다. 을묘년 정조의 화성행차의 독특한 행사 중에 하나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였다. 다른 행사들이 주로 화성의 선비와 무인들 및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봉수당에서 벌어진 진찬은 왕실을 위한 행사였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으로 옮겨 모신 후 "해마다 한 번 찾아뵌다[歲一展省]."는 원칙으로 거의 매년 화성에 행차하였다. 그런데 1795년인 경우, 독특하게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행차를 하였다. 그 이유는 1795년이 정조의 친부모인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탄신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었다. 부모님 모두의 환갑을 맞은 정조는 이해 정월에 사도세자의 존호尊號를 장헌세자莊獻世子로 올리고, 자궁慈宮 혜빈惠嬪을 혜경궁惠敬宮으로 가상존호加上尊號하였다. 그리고 혜경궁을 모시고 현륭원에 전배하고, 그곳에서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올릴 것을 계획하였다. 원래 혜경

4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 도식, 서장대성조도.



「봉수당(奉壽堂)」 편액(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화성행궁의 중심 건물인 봉수당에 걸렸던 편액으로, 당대 최고의 명필인 송하(松下) 조윤형(曺允亨 : 1725~1799)이 편액의 글씨를 썼다. 1795년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 진찬례를 미리 앞당겨 이 건물에서 거행하였는데, 이때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만년(萬年)의 수(壽)를 받들어 빈다."는 뜻의 봉수당이란 당호를 지었다.

궁 홍씨의 회갑날은 6월 18일이었지만, 화성에서 미리 회갑잔치를 하려 한 것이다.

결국 1795년에 이루어진 화성행차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자신이 건설한 화성에서 경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 장헌세자의 회갑도 같은 해에 겹쳐서, 정조는 돌아가신 아버지 묘소에 참배를 하고 살아 계신 어머니에게는 뜻 깊은 회갑잔치를 베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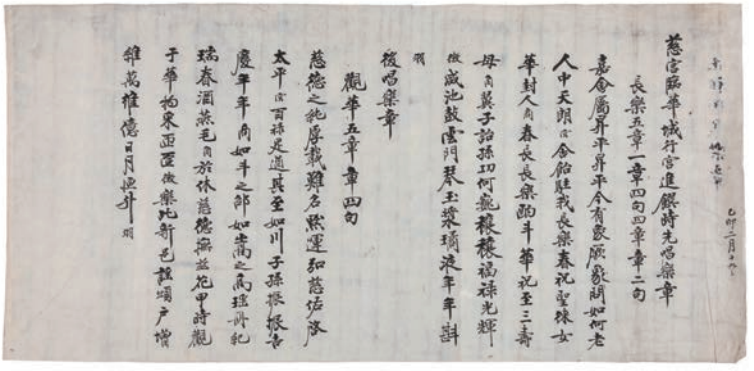
봉수당 진찬을 위해서 윤2월 11일에 총연습이 벌어졌다.[45] 이때에도 정조는 직접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진찬연이 벌어지기 이틀 전에 벌어진 총연습에도 몸소 참여하여 살펴볼 만큼 정조는 신경을 많이 썼다. 여기에는 대신들 이외에도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여자 친척인 내빈內賓들과 남자 친척인 외빈外賓들도 초대되었다. 이때에 정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46]

> 모레 행해질 진찬은 처음 있는 성대한 행사인 관계로 거행의 의식 절차에 여령女伶의 가장 어려움은 중식中式인데, 서울 기생京妓은 재주와 경험이 있어서 상호도감上號都監이 혹시 익숙할지 모르나 본부本府의 여령은 생소함을 면치 못할 것이 틀림없다. 오늘 과거 합격자 발표 의식을 일찍 마쳤으므로 경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행연습을 시키려고 한다.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축하하는 잔치는 윤2월 13일 진정辰正 3각(오전 8시 45경)부터 봉수당에서 거행되었다. 봉수당은 수원유수의 집무장소이자 화성행궁의 정전正殿 건물이다. 평상시에는 수원유수의 집무장소로 쓰이다가 임금이 행차할 경우, 조회朝會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1790년 2월 정조가 직접 쓴 「장남헌壯南軒」 편액을 달았기 때문에 장남헌이라고도 한다. 이 건물이 봉수당이라 불리게 된 것은,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 때부터이다.

이때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원하는 악장樂章과 자신의 마음을 읊은 시를 지어 신하들에게 보이면서, "만수萬壽를 받들어 기원한다."는 의미의 '봉수당'

4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1일 참조.
4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1일.



「자궁임화성행궁진찬일악장(慈宮臨華城行宮進饌日樂章)」(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자궁(慈宮)인 혜경궁 홍씨가 회갑을 맞이한 1795년(정조 19) 윤2월 13일 화성행궁에서 잔치를 벌일 때 음식을 올리면서 연주한 악장이다. 이 악장은 정조가 직접 지은 것으로,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하고 지금이 태평성대임을 노래하고 있다

이란 당호堂號를 지어 올렸다. 정조가 직접 지은 악장은 선창하는 악장인 「장락당長樂堂」[47]과 후창하는 악장인 「관화곡觀華曲」[48]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화성 봉수당 진찬 때 선창하는 악장

즐거운 잔치가 태평시대에 열렸으니 태평함을 나타내는 상象이 있도다. 그 상이 어떠한고? 노인성老人星이 중천中天에 빛나도다. 「궁宮」
기쁨이 나에게 머무니 길이 즐거운 봄이요, 성수를 빌러 온 여인은 화봉인華封人이로다. 「상商」
길고 긴 봄날 장락궁에 술잔치 열고 화봉인은 어머니께 삼수三壽를 송축하도다. 「각角」
아들을 돕고 손자에게 끼친 공이 얼마나 높으신지 넘치는 복록 밝게 빛나도다. 「치徵」
함지와 운문雲門을 연주하고, 옥장玉漿과 경액瓊液을 해마다 준비하도다. 「우羽」

화성 봉수당 진찬 때 후창하는 악장

인자한 덕의 순수함이 두텁고 많아서 형용하기 어려옵고, 조용한 운수와 큰 사랑을 태평시대를 열었도다. 「궁宮」
온갖 복이 바로 모이니 그 이르름이 냇물과 같고, 자손들 번성하고 해마다 경사로다. 「상商」
북두北斗처럼 밝고 숭산嵩山처럼 높으며 요책瑤冊은 상서로움을 기록하고 춘주春酒는 나이를 따라 베풀도다. 「각角」
아! 아름답다 인자하신 덕으로 이 화갑을 맞으셨도다. 지금의 화성華城을 보니 온갖 물채物采가 사방에 즐비하도다. 「치徵」
즐겁다. 이 신읍新邑이여!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송축하노니 억만 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소서. 「우羽」

이날 회갑잔치의 주인공인 혜경궁 홍씨는 행궁 내전, 곧 봉수당 온돌에 자리하였다. 혜경궁의 자리에는 연꽃무늬 방석이 깔리고, 그 뒤에는 십장생十長生 병풍이 둘러쳐졌다. 혜경궁 홍씨 양쪽 옆으로 내외명부內外命婦들도 자리하였고,[49] 이들이 자리한 봉수당 온돌에는 발을 쳐서 이들의 거동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정조의 자리는 동쪽, 곧 봉수당 전퇴前退에 마련되었다.[50] 보통 임금의 자리는 주 무대에서 행해지는 연희를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중앙에 위치한다. 하지만 봉수당 진찬

47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악장(樂章), 어제화성봉수당진찬선창악장.
48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악장, 어제화성봉수당진찬후창악장.
49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의주, 화성봉수당진찬우자궁의.
5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의주, 화성봉수당진찬우자궁의.

에서의 정조의 자리는 "자궁(혜경궁 홍씨) 좌석 동쪽"[51]에 마련되었다. 이는 이날 벌어진 진찬의 주인공이 임금의 어머니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리에는 표피 방석이 깔리고, 뒤에는 진채병풍眞彩屛風이 놓였다.

이희평이 지은 『화성일기』에도 봉수당 진찬의 양상과 혜경궁 홍씨와 정조가 자리한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 길을 빙 돌아서 외삼문外三門 신풍루 앞에 모여 차례로 들어갔다. 삼문 안에 둘러섰더니 왕께서 편전 앞문으로 걸어 나오셨다. 여러 기생이 누런 비단 관복官服에 화관花冠을 쓰고 각각 의식에 쓰는 물건을 들었고 또 한 쌍은 알자謁者, 찬의贊儀가 앞에서 예법에 맞도록 허리를 굽히고 빨리 걸어가 안내해 드렸는데 몸을 굽혀 절하고 오르시게 하였다. 고개를 숙여 엎드려 백관이 왕을 맞이한 후에 왕의 뒤를 따라 차례로 내삼문內三門 안 보계 다리로 올라 추창하여 들어가니 사면이 꽃밭이었다. 외빈外賓 중 유생儒生은 무반武班 쪽으로 갔는데 장헌세자의 서녀 사위 광은부위光恩副尉 김기성金箕性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앉을 자리를 정하여 고개를 숙여 엎드려 꿇어앉은 후 눈을 들어 보니 장락당 앞뜰에 보계한을 한 길 남짓이 쌓고 그 위에 차일을 치고 사면으로 설포장設布帳을 둘렀는데 방문을 열어 검은 발이 드리워져 있고, 자궁이 앉아 계시고 마루에 성상이 자리하고 계시었다.

봉수당 진찬에는 여러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혜경궁 홍씨의 여자 친척인 내빈內賓이 13명, 남자 친척인 외빈外賓이 69명 초대되었다. 정조 이하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차례로 혜경궁에게 술잔을 올리며 천세千歲를 불러 축하하였다. 봉수당 진찬에서 혜경궁 홍씨가 받은 술잔은 7잔이었다.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은 정조가 올렸다. 세 번째 잔에서 일곱 번째 잔은 혜경궁 홍씨의 명에 따라 명부命婦와 외빈 영의정 홍낙성, 맏사위인 광은부위光恩副尉 김기성金箕性 등이 올렸다.[52] 이때 정조는 다음과 같은 치사를 직접 올렸다.[53]

> 국왕 모某는 삼가 건융乾隆 60년(1795) 윤2월 13일을 맞이했습니다. 효강자희정선휘목혜빈孝康慈嬉貞宣徽穆惠嬪 저하邸下께서는 왕실의 아름다운 덕을 계승하사 바다 같은 마음으로 오랜 수壽를 누리시어 복福이 자손에게 흐르고 경사가 어머니에게 미쳤습니다. 공손히 축하의 잔치에 모시고자 삼가 술잔을 올립니다. 부모의 연세를 아는, 심히 기쁜 날이오니 칭송하는 소리가 산처럼 울립니다. 아! 즐거운 이 잔치에 만물이 모두 은혜를 입어서 봄의 화창한 기운을 맞이하여 하늘의 도우심에 보답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더욱 오래 사시어 복을 크게 받으시고 오래오래 태평하시고 변함없이 영원하소서. 경사롭고 즐거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천천세千千歲를 기원하는 축수잔을 올립니다.

혜경궁 홍씨에게 술잔을 올리며 장수를 기원하는 사이사이에 정재呈才도 연행되었다. 이날 정재 연행에 참여한 연희자들은 서울과 화성부에서 선발된 여령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언급이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나와 있다.[54]

5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의주, 화성봉수당진찬우자궁의.
5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3일.
53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치사(致詞), 화성봉수당진찬시친진치사(華城奉壽堂進饌時親進致詞).
5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계사(啓辭).



진찬연에서 연행되는 선유락
(『원행정리의궤도』, 「선유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을묘년(1795) 2월 12일. 정리소의 낭청이 당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번 화성부에서 진찬을 베풀 때 정재여령을 각 도에서 선발해 올리는 것을 그만둠으로써 간소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연교筵敎를 받들었습니다. 여령의 각 차비를 화성부의 여령으로 간략하게 분배했지만 많은 숫자가 부족합니다. 내의원과 혜민서의 의녀 및 공조와 상방의 침선비 중에 약간명을 화성부에 옮겨 보내도록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시기를, "허락한다."고 하였다.

인용한 대목에서처럼 봉수당 진찬의 정재 연행에는 화성부의 여령女伶과 함께 내의원과 혜민서惠民署 소속의 의녀醫女 및 공조工曹와 상방尙方 소속의 침선비針線婢가 참여하였다. 서울에서 온 여령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정재 여령이 아니었다. 이는 위 인용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조가 "정재 여령을 각 도에서 선발해 올리는 것을 그만두고 간소하게" 하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재 연행에 참여한 연희자들의 신원과 이름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55]

서울에서는 기녀가 1명[덕애德愛 나이 47세], 홀기 담당이 1명[연섬蓮蟾 나이 50세], 노래[歌] 담당이 14

5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5, 공령(工伶).

명[춘운春雲 나이 31세, 철옥哲玉 나이 25세, 난화蘭花 나이 22세, 양대운陽臺雲 나이 19세, 상애常愛 나이 18세, 이상은 의녀醫女이다. 서지西芝 나이 45세, 채단彩丹 나이 40세, 창섬昌蟾 나이 28세, 윤옥允玉 나이 27세, 득선得仙 나이 27세, 용대龍大 나이 25세, 운선雲仙 나이 24세, 승애勝愛 나이 21세, 옥이玉伊 나이 20세, 이상은 바느질하는[針線] 여비이다.]이다.
화성부에서는 기녀가 1명[계섬桂蟾 나이 60세], 노래 담당이 9명[모애慕愛 나이 35세, 분단分丹 나이 29세, 윤애允愛 나이 27세, 동월冬月 나이 25세, 계월桂月 나이 25세, 매열梅烈 나이 22세, 경희景喜 나이 17세, 금례今禮 나이 16세, 복혜福惠 나이 15세], 춤 담당이 5명[명금明今 나이 32세, 연애連愛 나이 31세, 금련今連 나이 25세, 옥혜玉惠 나이 21세, 복취福翠 나이 21세]이다.

인용한 대목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기녀가 1명, 홀기 담당이 1명, 노래 담당이 14명"으로 총 16명이고, 화성 출신의 경우 "기녀가 1명, 노래 담당이 9명, 춤 담당이 5명"으로 총 15명이다. 서울 출신과 화성 출신의 비율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음악 연주와 정재 연행의 반주를 한 악인들은 음악의 전반적인 진행을 지휘한 집사전악 2명, 피리 16명, 대금 9명, 해금 8명, 당적 2명, 동소 2명, 장구 5명, 교방고 2명 등이 참여하였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56]

집사전악은 김응삼金應三과 박보완朴輔完이며, 피리 담당은 16명이다[손봉욱孫鳳郁 배복상裵福祥 박창근朴昌根 장양문張良文 정수명鄭守明 호복득扈福得 김약대金若大 이경손李景孫 김용대金龍大 정치혁丁致赫 변호랑邊虎浪 김사저金獅猪 한종현韓宗賢 장윤기張允起 최해득崔海得 김표득金表得]. 대금 담당은 9명이다[최오장崔五章 김상록金尙祿 조성대曹聖大 이광수李光秀 장복인張福仁 박남상朴南象 조도야지曹道也之 한호란韓好蘭 김쌍대金雙大]. 해금 담당은 8명이다[홍삼득洪三得 박수담朴壽聃 강세문姜世文 김경휘金景輝 문성운文聖運 정사사리鄭獅沙里 우명득禹明得 한국세韓國世]. 당적 담당은 2명이다[임희창林喜昌 전성철全聖哲]. 동소 담당은 2명이다[오대손吳大孫 이윤손李允孫]. 장구 담당은 5명이다[김삼득金三得 김창득金昌得 한상길韓象吉 박일공朴一公 한종복韓宗福]. 교방고 담당은 2명이다[김성운金聖雲 김성복金聖福].

위에서 인용한 악기 연주자들의 이름을 보면, 이들이 모두 남성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신분은 개별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다음 대목을 보면 일부 악기 연주자들의 신원이 나와 있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57]

장악원집사 전악 김응삼金應三, 박보완朴輔完은 첩가한다. 유경윤柳敬潤 문효담文孝潭은 각각 무명 2필과 베 1필. 각차비악공 손봉욱孫鳳郁 등 10명, 내영세악수內營細樂手 정재문丁載文 등 23명, 외영세악수 장윤기張允起 등 12명, 내영아세악수內營兒細樂手 한상길韓象吉 등 6명, 여령색장女伶色掌 1명은 각각 무명 2필과 베 1필[모두 본소에서 나누어 준다.]

이로 보건대 봉수당 진찬의 악기 연주는 장악원 악공과 장용영 세악수細樂手가 담

56_『원행을묘정리의궤』 권5, 공령.
57_『원행을묘정리의궤』 권5, 진찬시시상(進饌時施賞).

당했음을 알 수 있다. 『정조실록』에도 "화성華城에서 연회를 베풀 때에 음악 연주는 장용영壯勇營의 군악軍樂을 대신 쓰라고 명하"였다고 되어 있다.[58]

봉수당 진찬은 "대비·왕·왕비·왕세자·왕세자빈·공주를 포함한 왕실 가족과 봉호를 가진 여성인 명부가 주축이 되는 연향으로, 종친·의빈·척신 등의 왕실 친인척이 참여하기도 하는"[59] 내연內宴에 해당한다. 『정조실록』에도 "혜경궁에게 올린 내진찬"이라 하여, 내연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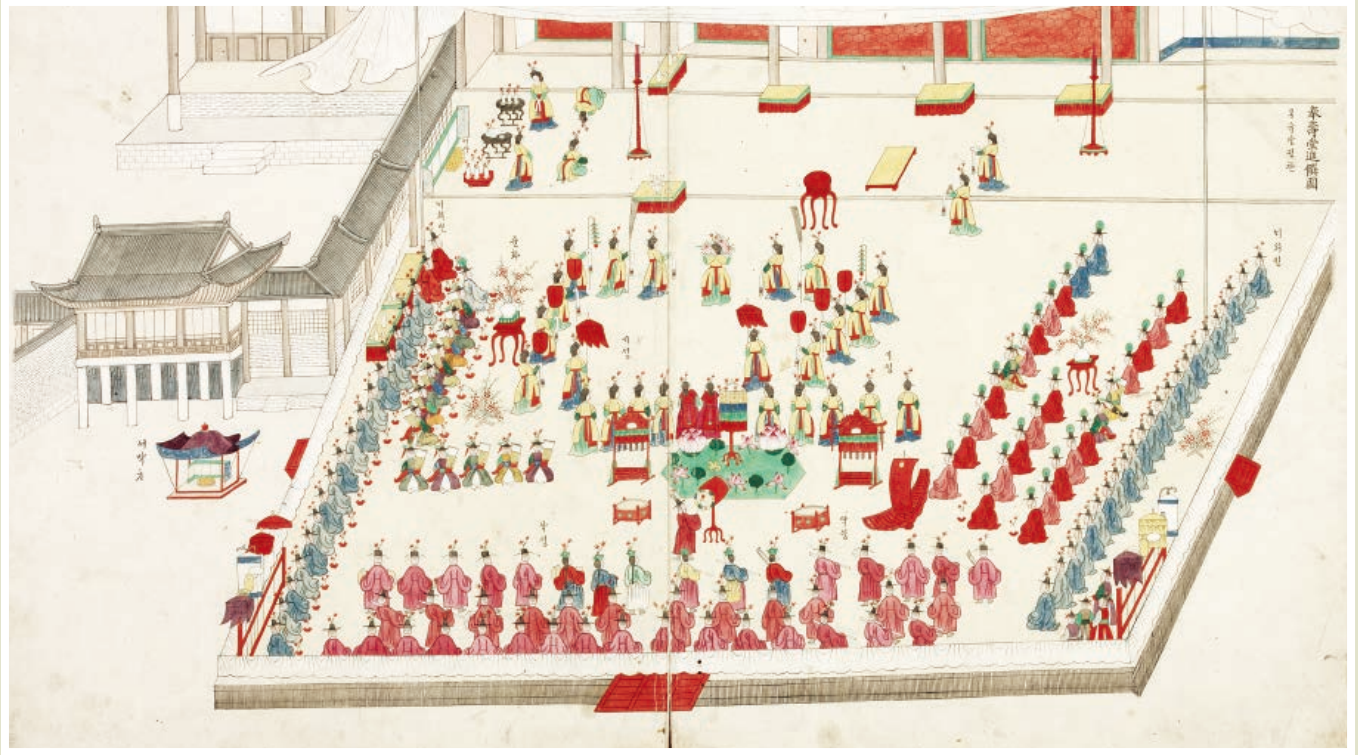
그런데 내연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여악과 관현맹인管絃盲人이 악기 연주를 담당하는 것이 관례였다.[61] 그런데 봉수당 진찬에서 악기를 연주한 이들은 장악원 악공과 장용원 세악수로서 남성들이었다. 참여자나 연회자 모두가 여성 중심의 연향이었던 내연에서 남성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하게 되는 변화가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봉수당 진찬에서 남녀가 공공연하게 마주쳤다는 것은 아니다. 왕실 여성들의 모습이 함부로 보이거나 남녀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공간을 안배하고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 하루 전날 상침尙寢은 소속 나인들을 통솔하여 좌궁의 좌석을 행궁 내전의 북쪽 벽에 남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 여관女官은 내외명부들이 시위侍位할 자리를 앞기둥 발 안쪽에 북쪽을 윗자리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설치한다.[내명부는 동편에, 외명부는 서편에 자리를 배치한다.] 의식에 초대받은 부마나 척신들의 시위는 앞기둥 발 밖에 북쪽을 윗자리로 삼아 좌우로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고, 배위는 전 앞에 좌우로 북쪽을 향해 서로 대할 수 있게 설치한다. …… 집박여령執拍女伶[우두머리 기생을 말한다.]은 그 앞에 서고 여집사와 여령은 뜰 가운데에[장막으로 가린다.] 외위에 두며 공인의 자리는 장막 밖에 둔다.[62]

이렇게 자궁과 내외명부들의 자리를 봉수당 안쪽에 설치하고 발을 쳐서 일종의 여성 관객석을 만들었으며, 남자 악기 연주자인 공인의 경우 역시 '장막 밖에' 자리하게 하였다.

악기 연주자들의 반주에 따라 여령들의 정재가 회갑잔치에서 연행되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있는 「봉수당진찬도」[63]나 『화성능행도병』의 「봉수당진찬도」를 보면 봉수당 진찬에서 연행된 정재 종목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있는 「봉수당진찬도」의 경우 정조가 혜경궁 홍씨에게 헌수獻酬할 때 추어진 헌선도獻仙桃가 그려져 있고, 선유락船遊樂에 사용되는 채선이 무고舞鼓 오른쪽에 준비되어 있다. 『화성능행도병』의 「봉수당진찬도」에서는 헌선도 정재를 마친 3명의 여령이 헌상된 선도를 담은 은반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무고와 선유락을 연행하고 있는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다.

58_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2월 계축(1일).
59_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민속원, 2001, 82쪽.
60_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윤2월 을미(13일) 참조.
61_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민속원, 2001, 248쪽 참조.
6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의주, 화성 봉수당진찬우자궁의.
63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 도식.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원행정리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95년(정조 19) 윤2월 12일 봉수당에서 벌어진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묘사한 그림이다. 그림 상단 왼쪽 봉수당 전퇴에 정조가 자리하였다. 무대에서는 정조가 혜경궁 홍씨에게 헌수(獻酬)할 때 추어진 헌선도(獻仙桃)가 연행되고 있다. 그림 중하단에는 무고(舞鼓)가 놓여 있고, 그 오른쪽에는 선유락(船遊樂)에 사용되는 채선이 놓여 있다.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화성능행도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가 묘사된 그림이다. 상단에 봉수당이 자리하고 있고, 중양문을 활짝 열어, 문의 안쪽으로는 왕실의 종친과 대신이 자리하고, 문의 바깥쪽으로는 승지와 사관, 각신이 자리하여 행사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봉수당 진찬에서는 여러 종목의 궁중 정재가 연희되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봉수당 진찬에서 연희된 정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64]

> 헌선도獻仙桃, 몽금척夢金尺, 하황은荷皇恩, 포구락抛毬樂, 무고舞鼓, 아박牙拍, 향발響鈸, 학무鶴舞, 연화대蓮花臺, 수연장壽延長, 처용무處容舞, 첨수무尖袖舞, 검무劍舞, 선유락船遊樂

위에서 나열된 연희 종목을 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1795년(정조 19) 봉수당 진찬 이전까지의 궁중 연희에서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종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정리한 연희 종목 중에서 첨수무, 검무, 선유락 등은 새롭게 등장한 정재들이다. 이 세 연희 종목은 봉수당 진찬 이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봉수당 진찬 이후 등장하여 궁중 정재의 한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봉수당 진찬은 회갑잔치답게 많은 음식이 준비되었다. 다음의 인용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혜경궁 홍씨가 절약을 하라고 했지만 정조는 "경사를 축원하는 정성에 부응하도록 음식을 풍성히 하라."고 명을 내렸다.[65]

> 원행의 여러 행사에 모두 절약과 생략하는 것으로 자궁의 뜻을 본받았으나, 금년의 경례慶禮는 진찬에 중요성이 있으므로 음식상饌案과 음식의 품수品는 반드시 음식을 두텁게 담고 풍성히 해서 내가 경사를 축원하는 정성에 부응하라. 내가 공어供御 받는 것에 있어서는 진찬의 상進饌案과 견줄 수 없으니 10여 그릇을 넘지 말게 하되 다만 시식侍食의 예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차려진 음식은 혜경궁 홍씨의 경우 70종이었다. 이 음식이 42개의 상화床花와 함께 제공되었다. 정조에게도 20종의 음식과 26개의 상화가 바쳐졌다. 장식용으로 큰 준화樽花가 식장 한가운데 놓이고, 왕의 머리에 꽂는 어잠사권화御簪絲圈花도 제작되었다. 내빈과 여러 신하들에게도 푸짐한 음식과 상화가 제공되었다. 각 영에서 차출된 장관將官과 장교將校, 그리고 7,000여 명의 일반 군병들에게도 떡·탕·건대구乾大口 등이 제공되었다. 이날 진찬에 참여한 이희평은 『화성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어, 그야말로 풍성한 회갑잔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상이 들어오자 모든 상은 그릇마다 꽃을 꽂았고 음식은 팔진미八珍味가 모두 갖추어 있어 아주 맛있을 것이다. 상을 다 받자, 두 쌍 기생이 오색 한삼汗衫을 드리우고 예쁜 얼굴의 눈썹을 나직이 하고, 환한 얼굴에 옥 같은 손으로 유리잔을 들어 차례로 술잔을 돌리니 일어나 절하고 받았으나 술을 못 먹어도 사양할 길이 없어 두 손으로 받아 입에 대니 맑은 향기가 달고 맛이 있었다. ……
> 종일토록 보고 먹은 후 저녁에 또 열구자탕悅口子湯 한 그릇씩 돌려 먹은 후에 서산에 해 떨어지고 하늘

6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 도식;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악장;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의주(儀註), 화성봉수당진찬우자궁의; 『원행을묘정리의궤』 권5, 공령 참조.
6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2월 25일.

에 황혼이 지는지라, 또 몸을 움직여 나와 밥을 먹으려 한들 어찌 배가 불러 더 먹을 수 있겠는가. 하인들에게 나눠 준 후 또 왕의 분부를 받들어 들어가니, 사면에 홍사紅絲 촉롱燭籠을 걸고, 집 서까래 끝과 차일 대마다 다 촉롱을 걸고, 사람들 앞에 유기로 만든 촛대에 값비싼 초를 꽂았으니, 불빛의 영롱함이 대낮 같아 낮보다 더 휘황 영롱 찬란하기가 더하니, 내 몸이 선인의 잔치에 참례한 듯 구천九天 신선의 집에 오른 듯 황홀하여 모르겠더라.

밤에 또 풍악風樂하고 순배 돌리고는 농어회를 먹었는데 한쪽에 두셋씩 앉고 각 접시 하였더니 맛이 기이하였다. 기름종이를 내주어 음식을 다 싸고 끝내고 나올 적에 또 상賞으로 많이 내려 주시니 받아들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나오니 금동 물시계의 각刻을 나타내는 구리로 만든 침이 사경四更을 알려 주고 먼 동네 닭 우는 소리가 들리었다.

봉수당 진찬에는 잔치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 역시 준비되어 곳곳에 배치되었다. 인장함을 올려놓는 탁자인 인안印案, 향로를 놓는 탁자인 향안香案, 자궁이 축하 술을 받는 자리인 수주정壽酒亭, 임금이 술을 받는 자리인 주정酒亭, 꽃을 드리는 쟁반과 탁자인 진화반탁進花盤卓, 수건이 놓인 탁자인 휘건함탁揮巾函卓, 신하들에게 꽃을 나누어 주는 쟁반과 탁자인 산화반탁散花盤卓, 꽃병을 올려놓는 탁자인 화준탁花樽卓, 혜경궁 홍씨에게 올릴 축사祝辭를 놓는 탁자인 치사안致詞案 등의 도구들이 준비되고 잔치판 곳곳에 배치된 것이다.[66]

회갑잔치가 끝난 후,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원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고, 참석한 신하들에게도 시를 짓도록 하여 왕실의 안녕과 혜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리는 시들이 이어졌다.[67]

큰 복을 많이 받아서 운명을 맞이함이 새롭고
봉황이 저를 불고 난새가 피리 불며 청춘을 붙잡도다.
땅의 상서로움으로 만든 관화곡觀華曲은 삼축三祝을 능가하고,
해가 유홍流虹에 이르렀으니 육순이 되셨도다.
안 밖의 빈객은 꽃나무로 모이고
문무관원은 바로 꽃을 구경하는 자들이라.
해마다 오직 오늘 같기만 바라노니
장락당長樂堂에 잔치 술이 몇 순배가 되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봉수당 진찬은 서울의 궁궐에서나 거행되는 화려하고 기품 있는 궁중 연회가 지방 도시인 화성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봉수당 진찬은 서울 궁궐 밖의 화성에서 행사가 벌어지고 조선조에 자궁慈宮이 회갑을 맞는 경사로 처음 있는 일로서 이후에 전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68] 정조가 "금일의 예禮는 천 년에 처음 있는 경사이나 오는 갑자년甲子年(1804)은 자궁께서 응

6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의주, 화성 봉수당진찬우자궁의 참조.

67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어제, 화성진찬일구점시여연제신이우만년축강지성(華城進饌日口占示與宴諸臣以寓萬年祝岡之誠).

68_ 임미선, 「1795년 화성에서의 진찬과 양로연, 『원행을묘정리의궤』」, 『정조대의 예술과 과학』, 문헌과해석사, 2000, 75쪽.

당 칠순七旬이 되시는데, 그때 원소園所에 참배하고 진찬進饌하는 것을 마땅히 또 오늘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니 오늘 사용한 반탁盤卓·준작尊爵 등의 도구는 화성부華城府에 보관하여 10년 만에 경사가 거듭 돌아옴을 기다리라"[69]고 했듯이, 이후 전례가 된 것이다.

봉수당에서 벌어진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는 그림을 통해서도 묘사되었다. 앞서 언급한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가 그것이다.[70] 『화성능행도병』의 「봉수당진찬도」를 통해서도 화려하고 기품 있는 진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6. 사미賜米 행사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 회갑의 기쁨을 화성부 주민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였다. 또한 자신의 어진 정치가 화성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에 미치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바람과 기대는 정조의 다음 언급에서 잘 나타나 있다.[71]

> 이번의 일을 보건대 시기로 말하면 자궁께서 회갑이 되시는 해이고 절기로 말하면 따뜻한 봄철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때로서 자궁께서 건강하실 뿐더러 성대한 예식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므로 산천 역시 영광을 입고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에 자궁의 마음을 우러러 체득하여 크나큰 은혜를 대대적으로 베풀어서 노인들을 일단 은혜롭게 대접한 뒤에 문관의 시험과 무관들의 훈련을 또한 사열할 것이다.
>
> 그러나 생각건대 저 누더기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유독 같이 즐기고 기뻐하는 가운데에서 소외된다면 어찌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받들어 행하는 뜻이 될 수 있겠는가.
>
> 내일 신풍루新豊樓에 가서 사민四民에게 쌀을 나누어 주어 백성들을 구제하는 동시에 거리가 조금 먼 마을에는 승선承宣을 나누어 보내 창고를 열어서 먹여 주도록 할 것이다. 지금 이때에 죽을 먹이고 전대를 채워 줌으로써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격양가擊壤歌를 부르게 하는 것은 털끝만큼이라도 모두가 자궁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니, 백성이 아무리 식견이 없고 무지하다 하더라도 어찌 기쁜 마음으로 서로들 이야기하며 크나큰 은혜에 감격해 자궁의 덕을 칭송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술을 따르며 오래 사시기를 축원하는 것이 또한 나의 오늘 심정과 같지 않겠는가.
>
> 이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건대 인정仁政이란 은혜를 넓혀 가는 데에 있을 따름이니, 맹자孟子가 말한바 '이 마음을 들어 저쪽에 가해준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하겠다. 그러니 이제 화성 한 고을에 시행한 것을 7도道와 양도兩都에 넓혀서 시행해야 하리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다. 만약 이번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화성 한 고을에만 미치고 팔도八道와 양도에는 미치지 않게 되거나 금년 1년만 이렇게 행하고 천년 만년토록 행해지지 않게 한다면, 이것을 어찌 넓혀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위의 인용 대목에 언급되었듯이, 실제로 정조는 봉수당 진찬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윤2월 14일 새벽부터 사미 행사를 거행하였다. 화성 주민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행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이미 정조는 윤2월 13일에 "사민四民(홀아비,

69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傳敎), 을묘 윤2월 13일.
7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 도식,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71_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윤2월 을미(13일).



「신풍루사미도(新豐樓賜米圖)」
(『원행정리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95년 윤2월 14일 정조가 신풍루에 직접 나와 사민(四民 : 홀아비, 과부, 고아, 독자)과 진민(賑民 :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과부, 고아, 독자)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것은 신풍루에서 하며, 진민賑民(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것 역시 신풍루에서 할 것"[72]을 직접 지시하였다. 또한 지역을 네 군데로 나누어서, 성곽 내외의 도시 지역은 신풍루에서 왕이 친림한 가운데 쌀을 나누어 주고, 주변 지역은 승지承旨들을 산창山倉과 사창社倉, 그리고 해창海倉으로 보내 왕을 대신하여 나누어 주도록 지시하였다.[73]

사미 행사가 이루어진 윤2월 14일 묘시에 정조는 신풍루에 친림親臨하여, 전날 내린

7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윤2월 13일.
73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윤2월 13일 참조.

지시를 확인하였다.[74] 그리고 사미 행사를 할 때, "어머니의 배려[慈恩]에 의해 쌀을 주고 죽을 먹이는 것임"을 알게 하고, 정조 자신이 "친림親臨한 가운데 하는 것처럼 하여 혹시라도 빠뜨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기민과 사민에게 쌀과 죽을 주는 것은 일제히 거행하되, 쌀 포대를 먼저 신풍루 아래에 두어, 나누어 줄 때 시끄럽지 않게 하고, 시간이 일러서 아직 오지 못한 자가 있으면 모두 알려 주어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묘시卯時 초삼각(5시 45분경) 삼취에 이르자, 정조는 융복을 입고 말을 타고 신풍루에 나왔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 2층 누각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이어 동부승지 이조원李肇源에게, "너는 내려가서 쌀을 배급하고 죽을 똑같이 나누어 먹이되, 쌀과 죽이 모두 자궁의 은혜에서 나왔음을 뭇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라."고 명을 내렸다. 그뿐만 아니라 선전관宣傳官에게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직접 죽 맛이 어떤지를 살피기도 하였다. 이는 혹시 백성들이 차가운 죽을 먹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정조의 자상함은 "경은 이곳에 남아 사민이 와서 기다리면 일일이 죽을 먹이고, 혹시 뒤늦게 오는 자가 있더라도 일체 차가운 죽을 먹이지 말고 몸소 잘 살펴 소홀함이 없게 하라."고 좌승지 이만수李晩秀에게 명을 내린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정조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된 이날 사민과 진민에게 내린 쌀과 소금은 다음과 같다.[75]

> 임금께서 친히 신풍루에 와서 쌀을 내리다. 사민 50구는 쌀 19섬 3말[홀아비 20구, 과부 24구는 각각 쌀 6말, 고아 6구는 각각 쌀 4말]. 진민賑民 261구는 쌀 17섬 2말 6되, 소금 1섬 4말 7되 8홉[남자 장년壯年 38구는 각각 쌀 1말 2되와 소금 8홉. 남자 노인 56구와 여자 장년 41구, 여자 노인 71구는 각각 쌀 1말과 소금 8홉. 남녀 약자弱者 55구는 각각 쌀 8되와 소금 6홉. 이러한 비율로 각 창고의 쌀과 소금을 곱절로 지급한다.].
>
> 산창山倉[가승지 조진관을 보내다.]에서 내리는 쌀. 사민 122구는 쌀 46섬 12말[홀아비 56구, 과부 48구, 독신 3구는 각각 쌀 6말, 고아 15구는 각각 쌀 4말]. 진민 1,169구는 쌀 39섬 4말 1되와 소금 2섬 14말 4되 2홉[남자 장년 280구는 각각 쌀 6되와 소금 4홉. 남자 노인 195구와 여자 장년 258구, 여자 노인 202구는 각각 쌀 5되와 소금 4홉. 남녀 약자 234구는 각각 쌀 4되와 소금 3홉].
>
> 사창社倉[가승지 이유경을 보내다]에서 내리는 쌀. 사민 163구는 쌀 57섬 1말[홀아비 49구와 과부 49구, 독신 4구는 각각 쌀 6말. 고아 61구는 각각 쌀 4말]. 진민 1,848구는 쌀 62섬 11말 9되와 소금 4섬 10말 9되 9홉[남자 장년 472구는 각각 쌀 6되와 소금 4홉. 남자 노인 332구와 여자 장년 439구, 여자 노인 312구는 각각 쌀 5되와 소금 4홉. 남녀 약자 293구는 각각 쌀 4되와 소금 3홉].
>
> 해창海倉[가승지 홍인호洪仁浩를 보내다.] 사민 204구는 쌀 75섬 9말[홀아비 73구와 과부 54구, 독신 32구는 각각 쌀 6말. 고아 45구는 각각 쌀 4말]. 진민 1,535구는 쌀 50섬 6말 1되와 소금 3섬 12말 8되[남자 장년 246구는 각각 쌀 6되와 소금 4홉. 남자 노인 310구와 여자 장년 323구, 여자 노인 296구는 각각 쌀 5되와 소금 4홉. 남녀 약자 360구는 각각 쌀 4되와 소금 3홉].
>
> 이 네 곳에서 진휼할 백성 4,813구는 죽쌀 9섬 9말 2되와 감곽甘藿(미역) 925립立, 간장 1가마 12말 7되 4홉을 설치한다.

74_ 이하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윤2월 13일 참조.

7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5, 상전(賞典), 화성부의 사민과 진민에게 내린 쌀.

이 기록에 따르면 이날 사미 행사에서 혜택을 받은 주민들을 모두 합하면 사민이 539명이고, 진민이 4,813명이며, 이들에게 나누어 준 쌀이 약 386석이다.[76] 당시 화성부 인구가 대략 6만 명임을 감안하면, 화성부 전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77] 이러한 사정은 이날의 사미 행사가 그저 형식적인 차원의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배려[慈恩]에 의해 쌀을 주고 죽을 먹이는 것"이고, "쌀과 죽이 모두 자궁의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뭇 백성들에게 알리라."며 곳곳에서 혜경궁 홍씨의 은혜를 언급함으로써, 혜경궁 홍씨를 두드러지게 하려는 의도 역시 드러내고 있다.

신풍루에서 벌어진 사미 행사는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신풍루사미도新豐樓賜米圖」[78]라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혜경궁 홍씨에게 회갑잔치를 올리고 난 다음 날인 윤2월 14일에 정조가 신풍루에 친히 나와 사민과 진민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광경이 이 그림에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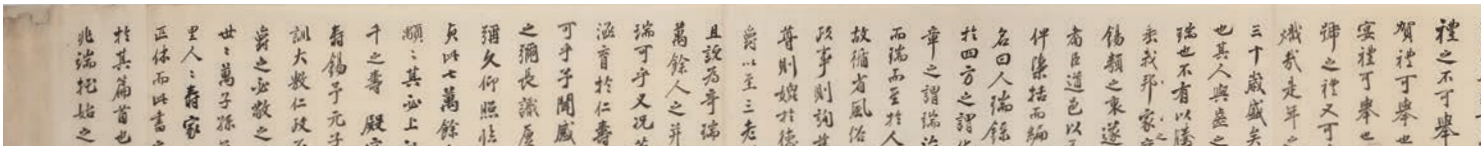
7. 양로연 행사

윤2월 14일 새벽부터 진행된 사미 행사에 이어서 아침에 양로연養老宴이 벌어졌다. 양로연이란 국가에서 노인 공경과 풍속 교화를 위하여 설행했던 잔치를 말한다. 매년 8월에 열며 국가 경사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열기도 하였다. 문·무 관리, 생원, 진사, 녹사錄事, 유음자손, 적자손 없는 자의 첩자손, 승중자承重者 가운데 80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참석하였다.

이러한 양로연이 이번 화성행차 때에도 벌어졌다. 을묘년 화성행차에서 양로연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을묘년 화성행차의 목적 중에 하나가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위한 것이었기에, 현지 노인들 역시 위로할 필요가 생겼다. 이는 양로연에 초대한 노인들의 선발에서도 나타난다. 양로연에 초대받은 이들은 어가御駕를 따라 한양에서 내려온 영의정 홍낙성을 비롯한 노인 관료 15명과 화성에 사는 노인 384명이었다.[79] 이때 초대된 노인들의 자격은 조관朝官(벼슬아치)과 사서인士庶人(선비와 서민)으로 구별하여, 조관은 70세 이상과 61세인, 사서인은 80세 이상과 61세인에 한정하였다.[80]

> 연회에 참가하는 노인들은 배종대신陪從大臣 이하 문관·음직·무관으로 70세 이상이거나 당년 61세, 본부 경내에 있는 조관朝官은 70세 이상이거나 61세, 선비와 서민은 80세 이상이거나 61세를 자격으로 두되 배종하는 응참인應參人은 수가관隨駕官이 마련하기를 기다려 정리소에서 별단을 내리도록 하고 본부의 응참인은 본부에서 미리 뽑아 아뢰도록 할 것.

76_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223쪽.
77_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223쪽.
78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 도식, 신풍루사미도(新豐樓賜米圖).
79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筵說), 을묘 윤2월 14일.
8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절목(節目), 화성에서 양로연 의식을 할 때의 절목.



여기서 61세인을 포함시킨 것은 혜경궁 홍씨, 사도세자와 동갑의 노인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배려한 것이다. 이는 정조의 다음의 언급에서 잘 나타난다.[81]

> 우리 노인을 어른 대접하는 것과 같이 남의 노인을 대접함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남을 헤아리는 도리[絜矩之道]이다. 더구나 금년에 이곳에서 치르는 행사는 더욱 그러하지 않을까? 양로연養老宴이 비록 고례古禮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마땅히 진찬 다음 날, 선조先朝 계사년癸巳年(1773, 영조 49)의 예例에 따라 설행할 것이다. 70세, 사서인士庶人은 80세 이상으로 기준하되, 61세인 사람도 존년尊年의 의리로 잔치에 함께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고 수가관隨駕官 가운데 마땅히 참석해야 할 노인은 정리소에서 별도의 명단[別單]을 계하啓下하며, 화성華城의 노인은 본부本府에서 수색 방문하여 보고하라.

화성에 사는 노인들 384명의 나이별 분포를 보면,[82] 99세 3명, 97세 1명, 96세 1명, 94세 2명, 93세 6명, 92세 1명, 90세 3명, 89세 6명, 88세 7명, 87세 18명, 86세 20명, 85세 15명, 84세 13명, 83세 19명, 82세 45명, 81세 20명, 80세 29명이다. 90세 이상의 노인만도 17명이나 된다. 화성 지역에 장수하는 노인이 매우 많았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양로연에 일반 평민을 참여시킨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신분을 초월하는 정조의 통치철학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83]

양로연은 진시辰時 정일각正一刻(8시 15분경)에 모든 의식의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삼엄三嚴의 북이 울리고, 융복戎服을 갖추어 입은 정조가 자리에 앉으면서 시작되었다. 양로연의 주인공들인 노인들이 차례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한양에서 내려온 노인 관료들은 모두 지팡이를 짚고 전殿에 오르고, 그 나머지 여러 노인들이 모두 계단 밑에 열을 지어 앉았다. 전에 노인들이 올라와 앉을 때, 정조는 다음과 같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뜻을 몸소 보여 주기도 하였다.[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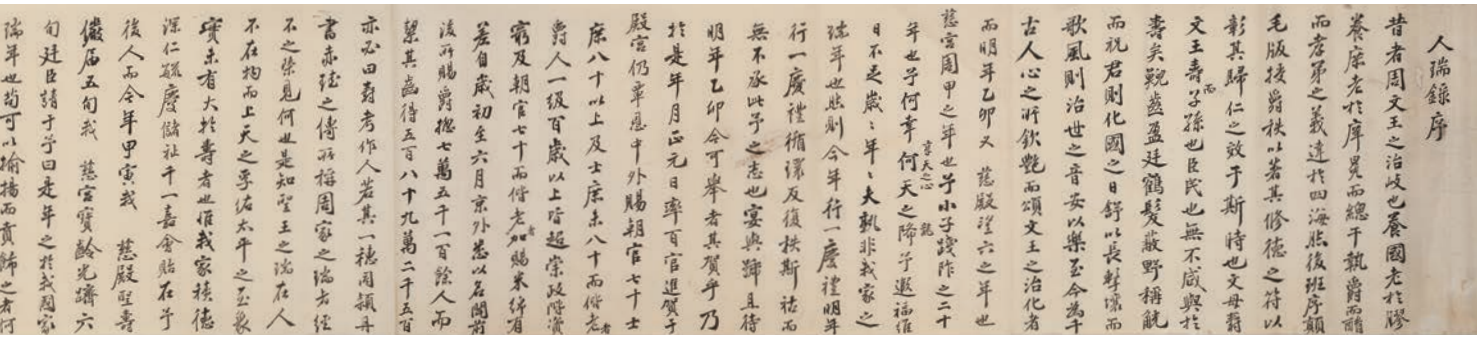
> 인의引儀가 전殿에 올라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해서 동쪽과 서쪽 계단으로 올라와 들어오려 할 즈음에 상이 이르기를 "나도 노인들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좌탑座榻을 악차幄次(장막을 친 임금의 임시 휴게소)의 앞에 설치함으로써 나이 많은 이를 높이는 뜻을 보여 주도록 하였다.

8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2월 25일.

8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5, 참연노인(參宴老人)을 바탕으로 한영우(『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226쪽)가 정리한 것을 참조.

83_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225쪽.

84_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윤2월 병신(14일).


人瑞錄序

「인서록서(人瑞錄序)」(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인서록(人瑞錄)』은 정순왕후의 오순(五旬)과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하여 70세 이상의 조정신하들이 올린 전문(箋文)과 80세 이상의 백성 7만 5,000여 명의 이름을 적은 책이다. 이 책이 완성되자 정조가 채제공에게 짓게 하여 쓴 서문이다.

또한 정조는 노인들에게 누런 명주 수건[黃紬巾]을 나누어 주어 지팡이 머리[杖頭]에 매게 하고, 비단 한 단段씩을 나누어 주었다.

이어서 음식이 나오고 연례宴禮가 행해졌다. 거문고와 비파 연주자와 노래꾼이 계단에 올라 먼저 천보天保를 연주하고 다음에 관저關雎·녹명鹿鳴 등을 연주하였다. 장수를 기원하는 꽃이 나누어지고 세 번에 걸쳐 잔을 올리는 가운데 산호가 불리고 낙빈악·녹명·천보곡·관저關雎·작소곡鵲巢曲·남유가어南有嘉魚·남산유대곡南山有臺曲 등이 연주되었다. 전궁殿宮, 원자궁元子宮, 자궁慈宮에 대한 장수 기원 역시 함께 이루어졌다.

양로연 의식 때에 악사 2인이 화일곡化日曲을 창하기도 했는데,[85] 이 곡은 우의정右議政 채제공蔡濟恭이 지어 올린 것으로 다음과 같다.[86]

봄날은 더디고 더디며 구장鳩杖은 느릿느릿.
혹은 조정의 벼슬아치 혹은 마을의 노인이라.
누런 머리털 흐트러지니 임금께서 웃으시며 보시도다.
너희 무리가 어찌 아리오. 진실로 자궁慈宮께서 베푸신 잔치니라.
자궁께서 천총을 입으시고 회갑을 맞으셨도다.
그 기쁨을 백성에게 베푸나니, 집안의 노인과 아이에게도 미치도다.
임금은 떳떳이 뜻을 순종하사 조상의 능[珠邱]을 받들어 보살피시도다.
이미 귀한 음식을 올렸으니 은혜가 한 고을에 다했도다.
뭇 늙은이는 취하고 배불러서 절하고 머리 조아리며 소원을 올리도다.
소원이 무엇인가, 북두北斗와도 같고 남산南山과도 같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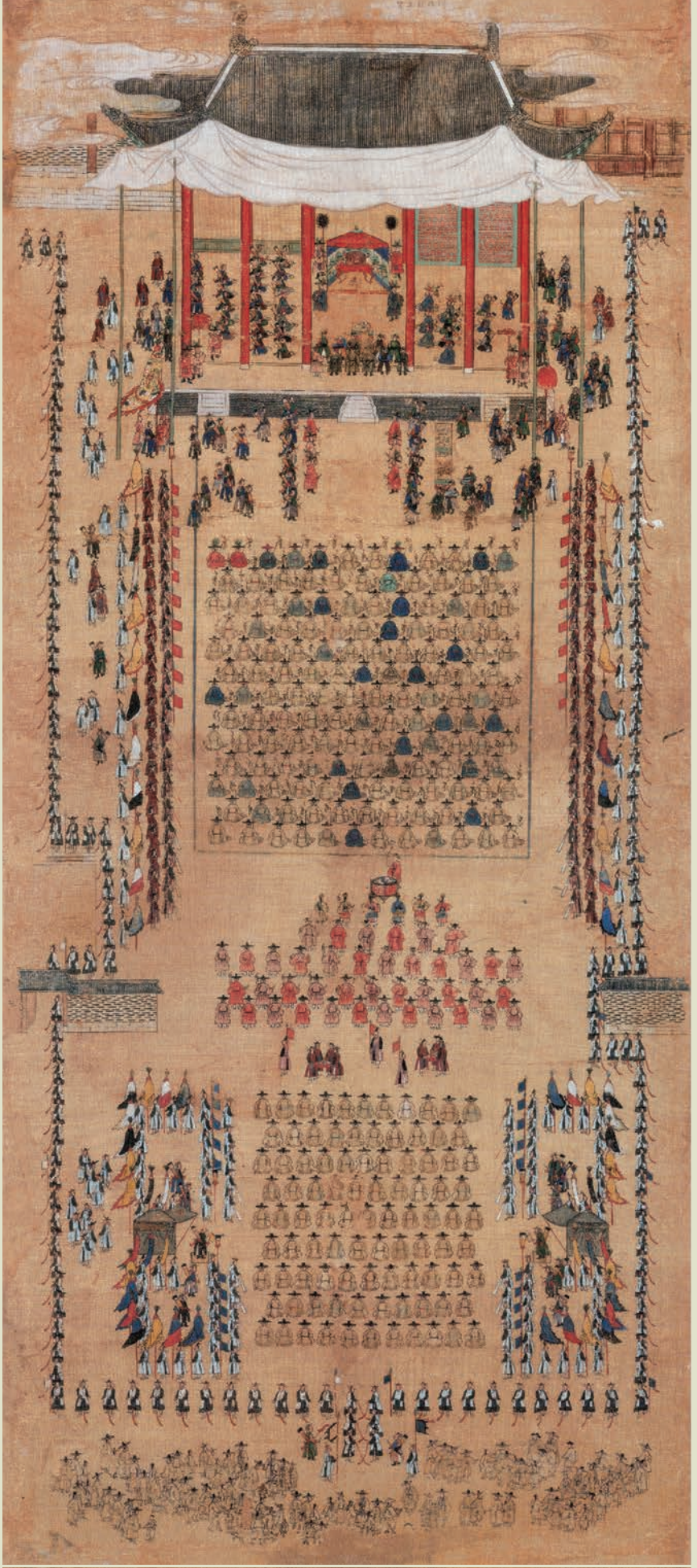
정조 역시 양로연에서 시를 한 수 지었다.

흰 머리 비둘기 지팡이 가진 노인들이 앞뒤로 모이고
해동의 화창한 날씨에 낙남헌洛南軒 잔치를 베풀었다.
원컨대 앞으로 뭇 노인들은 백세향수 누리시고
어머니는 만만년萬萬年 향수하시기를 절하고 비옵니다.

8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의주, 화성낙남헌친임양노연의(華城洛南軒親臨養老宴儀).
8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악장(樂章), 화성낙남헌양로연악장화일곡(華城洛南軒養老宴樂章化日曲).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원행정리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낙남헌에서 벌어진 양로연에 초대된 노인들이 신분에 따라 자리를 한 광경이다. 자리한 모든 노인들이 수건을 지팡이에 매고 있는데, 이는 이날 하사받은 누런 명주 수건이다.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
(『화성능행도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95년(정조 19) 윤2월 14일 정조가 낙남헌에서 베풀었던 양로연을 그린 것이다. 초대가 된 노인들이 그 신분에 따라 앉아 있는 광경이다. 초대된 노인들이 이날 하사받은 누런 명주 수건을 지팡이에 매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그림 하단에 여러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음식과 술을 대접받았다.



양로연 시상(施賞)
노인들에게 누런 명주 수건을 나누어 주어 지팡이 머리에 매게 하고, 비단 한 필씩을 나누어 주고 있다.

또한 정조는 이날 벌어진 양로연에 참여하지 못한 노인들에게까지 세심한 신경을 썼다. 화성부에 거주하는 노인들 가운데 장부에 오르지 않아 양로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파악하여 모두 초청하게 한 것이다. 또한 밖에서 지켜보는 이들 가운데 노인이 있으면 멀고 가깝고,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말고 모두 술과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술과 음식을 대접받은 이들은 모두 일어나 춤추고 천세千歲를 불렀다. 이러한 정황이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87]

하교하시기를, "화성부[本府]에 거주하는 노인이지만 적籍에 오르지 않아 양로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파악하여 유수留守로 하여금 모두 초청케 하라. 또한 호위 밖[仗外]에서 관광觀光하는 사람 중에 노인이 있으면 멀고 가깝고,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두 술과 음식을 대접하라." 하셨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전하의 행차를 우러러 보기 위해 먼 지방으로부터 온 노인이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주위에 담장을 이루고 있는 저 사람들 거의가 노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하나같이 경사를 축하하는 것이니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어제 잔치상[饌案]의 남은 것을 나누어 주어 자궁의 은덕으로 배불리 먹게 하면 좋겠다." 하셨다. 드디어 구경꾼들을 열을 지어 앉게 하고, 윤행임으로 하여금 음식상 네 개를 갖다 놓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이것이 자궁의 은덕으로 내려주신 것임을 알리고 똑같이 나누어 주게 하니, 모두 일어나 춤추고 천세千歲를 불렀다.

이날 양로연에서 노인들에게 제공된 음식은 두부탕, 편육, 흑태찜, 실과(배·건시·밤) 등이었다. 모두 425개의 상에 이 음식이 차려졌으며, 정조 역시 동일한 음식을 제공받았다.[88] 양로연에 참석한 노인들은 각각 백화주白禾紬 1필과 황목주 3척 등의 비단과 명아주 줄기로 만든 지팡이인 청려장靑藜杖 1개가 상으로 내려졌다. 노래를 한 등가인登歌人들에게도 무명과 베 1필이 하사되었다.[89]

윤2월 14일 낙남헌에 벌어진 양로연은 그림을 통해서도 묘사되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가 그것이다.[90] 『화성능행도병』의 「낙남헌양로연도」에서도 지팡이 머리에 누런 명주 수건을 매고 앉은 노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87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4일.
88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4, 찬품(饌品), 양로연찬품(養老宴饌品).
89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5, 상전(賞典), 양로연시시상(養老宴時施賞).
9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 도식,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

8. 득중정 어사御射



활을 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신하들
임금의 모습은 그리지 않았지만, 그림 중앙에 나인들이 엎드려서 정조가 활을 쏘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성전 참배와 문과 시험이라는 문인을 위한 행사, 무과 시험과 주야간 군사훈련으로 나타난 무인을 위한 행사, 사미 행사로 표현된 백성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행사, 그리고 양로연을 통한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윤2월 11일에서부터 14일까지 벌어졌다. 이를 통해 화성 지역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갔다. 이러한 여러 행사들은, 정조가 표방하는 성인聖人의 통치가 구체화된 것이다.[91]

화성에서의 공식적인 행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정조는 성곽을 둘러보았다. 군복軍服을 갖추어 입고 말을 타고 낙남헌으로부터 강무당講武堂을 지나 성을 따라가며 시찰을 하였다. 몇몇 신하들과 함께 장안문長安門과 화홍문華虹門을 지나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까지 둘러보며 자신이 설계한 화성의 성곽을 살피고 자신이 기획한 성제城制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낙남헌으로 돌아왔다.

윤2월 14일 신시申時(오후 3~5시)에 정조는 낙남헌 바로 뒤에 있는 득중정得中亭으로 갔다. 정조가 득중정으로 간 것은 수행한 신하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정조와 함께 활쏘기에 참여한 신하들은 영의정 홍낙성, 수어사 심이지沈頤之, 경기감사 서유방徐有防,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 장용외사 조심태, 장용내사內使 서유대徐有大, 총융사 서용보徐龍輔, 행 좌승지 이만수李晩秀, 행 우승지 이익운李益運, 정리사 윤행임尹行恁, 검교직각 남공철南公轍, 초계문신抄啓文臣 서준보徐俊輔·조석중曹錫中, 수가장관隨駕將官 오의상吳毅常·이석李晳·이광익李光益·이희李熹·조기趙岐 등이었다.

활쏘기는 살촉이 버들잎처럼 생긴 화살인 유엽전柳葉箭으로 쏘기, 무명으로 만든 작은 과녁小布에 쏘기, 손바닥만 한 가죽掌革에 쏘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정조는 유엽전으로 연속 5발을 쏘는 것을 6번 거듭하여 총 30번을 쏜 가운데 24번을 맞추었다. 소포 과녁에는 총 25번 가운데 24번을 맞추었고, 장혁 과녁에는 5번 쏜 가운데 3번을 맞추었다.[92] 함께 참여한 신하들 가운데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도 유엽전에서 17번, 소포에서 18번, 그리고 장혁에서 1번 맞추었을 뿐이다. 함께 활쏘기를 한 신하들이 의도적으로 양보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조의 활솜씨가 뛰어났음이 이 사례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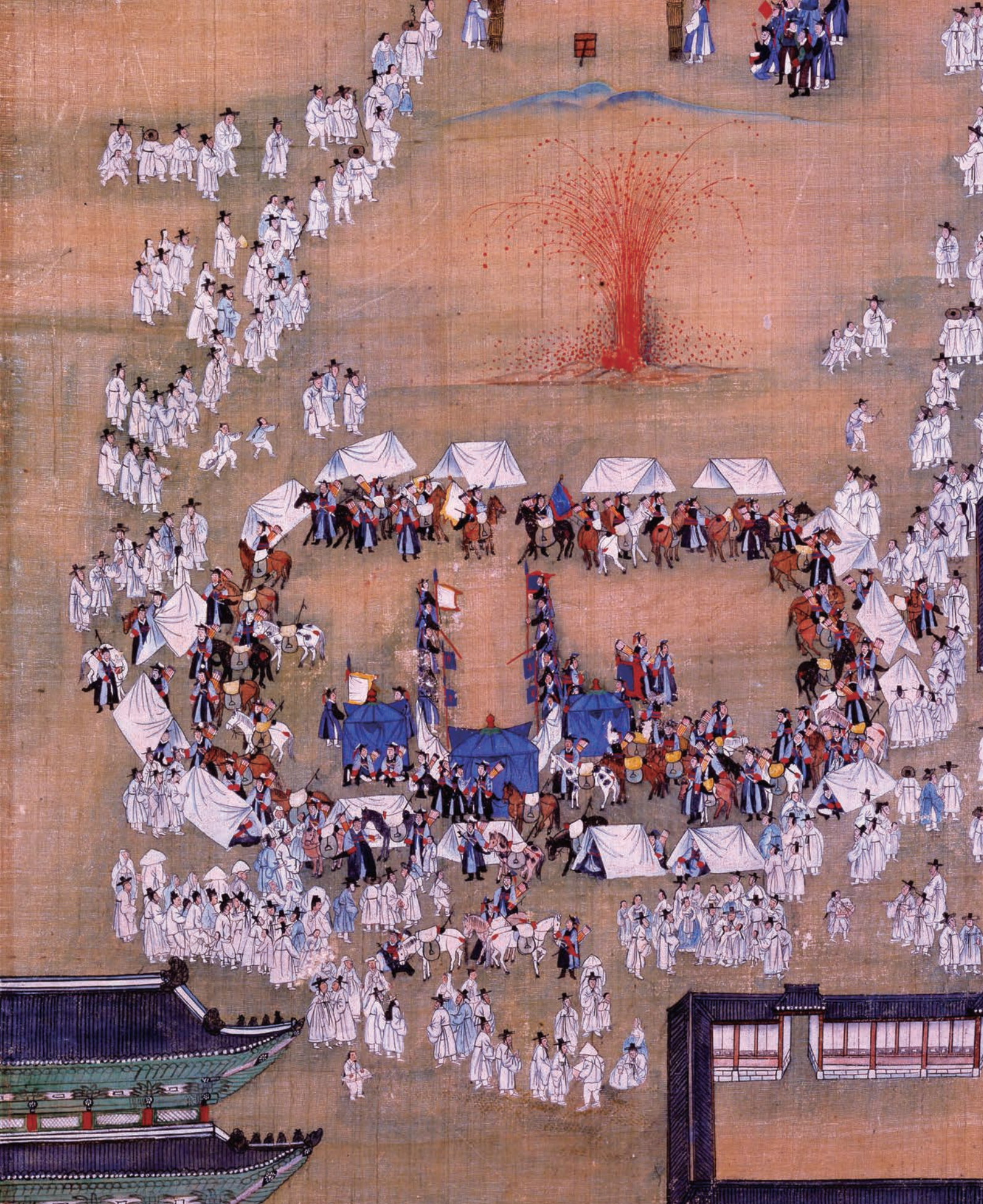
91_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230쪽.
92_ 구체적인 적중 횟수와 점수는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어사(御射)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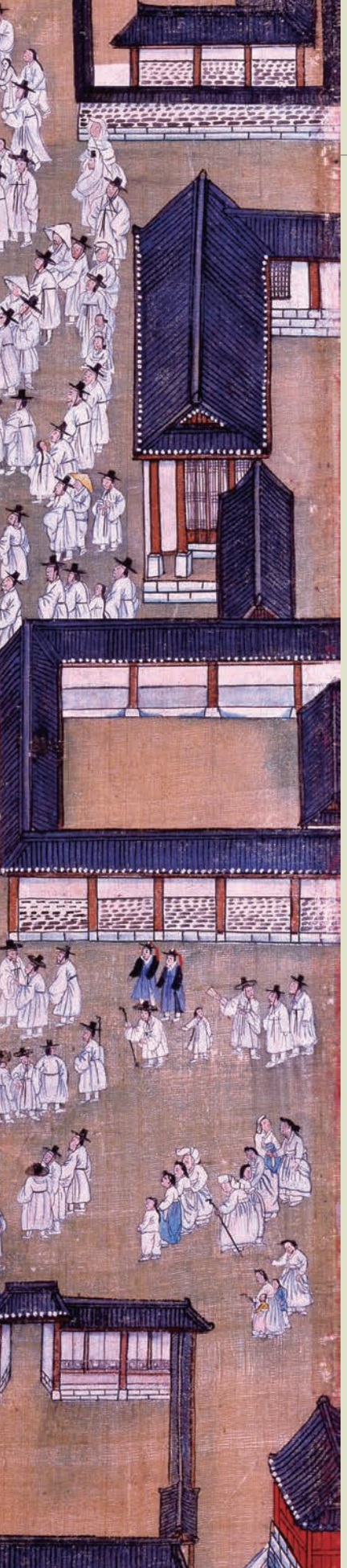


「**득중정어사도**」(『원행정리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화성능행도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95년(정조 19) 윤2월 14일에 정조는 득중정에서 신하들과 활쏘기를 하였다. 이날 활쏘기는 낮과 밤에 모두 이루어졌다. 이 그림은 횃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야간 활쏘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중앙의 횃불 주변에 과녁이 놓여 있다.





매화포 터지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
(『화성능행도병』, 「득중정어사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매화포를 터트린 광경으로, 윤2월 12일 군사훈련 후에 계획되었다.

정조는 자신의 활솜씨에 대해 "활쏘기는 비록 육예六藝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지만 기술에 가까운 것이라 포기하고 익히지 않은 것이 이미 4년인데, 금일의 적중은 역시 우연일 뿐"[93]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함께 참여한 영의정 홍낙성에게 "경은 팔순의 원로元老로 작은 무명 과녁에 세 번이나 적중시킨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94]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기도 하였다.

활쏘기가 끝난 후 정조는 여러 신하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야간 활쏘기를 준비하라고 명하였다. 야간 활쏘기를 위해 작은 표적[小的]이 설치되고 횃불[炬] 2개가 표적 좌우左右에 설치되었다. 이때 정조는 10번을 쏘아 5번을 맞추었다. 활쏘기가 끝난 후 땅에 묻은 화약[埋火]를 터뜨렸는데, 이는 윤2월 12일의 성조城操 후에 계획된 것이었다. 『화성능행도병』의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를 보면 아랫부분에서 매화포가 터지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묘사한 것이다.

「득중정어사도」의 중단과 하단을 보면, 매화포가 터지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다. 그림에도 나타났듯이 단순한 화약 터트리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장관壯觀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광경을 이희평은 『화성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용두각龍頭閣에 오르셔서 활을 쏘신 후 환궁還宮하시고, 저녁에 매화꽃이 떨어지는 것 같은 매화포 불꽃놀이를 하시는데 신기전神機箭이 일시에 하늘에 올라가니 몇 천, 백인지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사면四面에 줄불이 왕래하여 이 불이 여러 군데로 가 불붙이니 불이 일어나고 다른 불이 여기에 와 불 붙이니, 또 불이 일어나 불꽃 터지는 소리에 산악이 무너지는 듯 진동하니 그런 장관壯觀이 또다시 어디 있으리오. 군마들이 다 놀라 뛰어 나가더라.

93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4일.
9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4일.

SUWON HWASEONG

김준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03
화성행차와 군사훈련

1. 정조의 능행과 군사훈련

정조는 장용외영을 화성에 신설하고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보여 주기 위하여 1795년 윤2월의 화성행차 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모친의 회갑연 준비와 현륭원 방문에 초점이 맞춰진 8일간의 화성행차에서 오히려 장용외영과 화성을 지키는 협수군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훈련은 정조가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조가 지니고 있었던 화성 방어체제를 시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화성에서의 군사훈련 이전부터 정조는 수도권 일대의 선대왕 능행 시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는 수도권의 방위 상황을 점검하고 국왕을 수행하는 중앙군의 무예를 단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조는 능행 시 궁궐을 출발할 때부터 융복戎服을 갖춰 입고 이동 시에는 말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동 시 국왕의 모습은 전장에서 군사를 지휘하는 모습과도 같았다.[1]

정조가 처음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1779년(정조 3) 8월 효종 사후 120년에 맞춰 여주驪州의 영릉寧陵을 방문했을 때였다. 정조는 영릉 방문을 마치고 여주 행궁에 머물면서 청심루淸心樓에서 신포信砲의 성능을 시험한 다음 육상과 수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영기營旗를 점검한 이후 각 영문대장에게 휘하의 군대를 인솔하여 언덕에서 진을 치게 하였고, 경기감사京畿監司와 광주목사廣州牧師에게 수백 척의 선박을 정렬시키고 청심루에서 올린 봉화를 따라 일제히 고악鼓樂을 응하게 하였다. 이때 관람한 백성들이 1만 명이 넘을 정도였으니 정조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1_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한국학보』 88, 1997, 57~58쪽.

통해 백성들에게 국왕의 지엄함을 보여 주는 계기도 함께 마련한 것이었다.[2] 환궁하는 길에 정조는 병자호란의 치욕이 서린 남한산성을 방문하여 승군들의 훈련을 관람하고 홍이포紅夷砲의 일종인 매화포埋火砲를 설치하는 등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남한산성의 군사훈련 역시 병자호란의 치욕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의 한 형태임과 동시에 즉위 초반 자신의 왕권이 확고함을 보여 주고자 하는 정치적 시위였다.[3] 정조는 남한산성의 군사훈련을 통해 과거 병자호란의 치욕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조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여주행차 이후 2년 만인 1781년(정조 5) 장헌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을 방문하고 환궁하는 도중 서울 근교의 사아평沙阿坪에서 이루어졌다. 정조는 사아평에 이르러서 병조판서 홍낙성洪樂性에게 명하여 5번의 금군을 거느리고 먼저 사아평으로 나아가 진을 치게 하고, 훈련대장 구선부具善復에게는 보군의 선상을 거느리고 길가에 유주留駐하게 하였다. 그리고 좌우별장은 마병을 거느리고 금군이 진을 친 서쪽에 진을 치게 하였다. 정조는 이때 지휘소인 막차幕次에 올라 대신들을 불렀는데 금위대장 이경무李敬懋는 표하의 병마를 거느리고 대臺의 동쪽에 진을 쳤고, 어영대장 이주국李柱國은 표하의 병마를 거느리고 대의 서쪽에 진을 쳤으며, 중앙에는 병조판서 홍낙성이 금군을 거느리고 있고, 좌우별장 이명운李明運·신대겸申大謙은 마병을 거느리고 동남쪽의 모퉁이에 진을 쳤다. 정조는 이와 같이 진을 형성하게 한 후 금군으로 하여금 학익진鶴翼陣을 이루게 하고 마병으로 하여금 방진方陳을 이루게 하여 전투하는 진陳을 만든 다음, 두서너 번 충돌하게 하고 나서, 이어 징을 쳐서 울려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게 하여 군사훈련을 종료하였다.[4]

정조는 1785년(정조 9) 사아평에서 한 차례 더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정조는 강릉康陵과 태릉泰陵을 배알한 후 회가回駕하는 도중 사아평에서 갑작스런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정조는 금위대장 서유대徐有大가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서쪽에서 진을 치게 하고, 금군별장 이득제李得濟에게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동쪽에 진을 치게 하였다. 즉 금위영 군사들과 금군으로 하여금 실전 훈련을 시키자는 의도였다. 이때 정조는 비밀리에 마병별장 조학신에게 명하여 휘하 기병 50명과 무예 출신을 거느리고 기병奇兵을 만들어 양쪽 진영 사이를 치게 하였다. 또 가전별초駕前別抄와 가후별초駕後別抄에게 명하여 그 동쪽으로 나가서 이를 에워싸게 하였다. 서로 추격하게 하여 말을 사로잡은 군사에게는 말을 주고, 사람과 말을 사로잡은 자에게도 똑같이 하였고, 깃발을 빼앗은 자에게는 면포를 주었다. 정조의 지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마병별장 조학신에게는 내구마內廐馬를 상으로 주었다. 이어서 대취타大吹打를 연주하도록 명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차지했던 지점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정조는 가전별초와 가후별초, 무

2_『정조실록』 권8, 정조 3년 8월 병진.
3_『정조실록』 권8, 정조 3년 8월 경신.
4_『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 4월 임자.



「서성우렵도」(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화성추팔경도 병풍의 하나로, 화서문과 장안문 밖 들판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완공된 화성의 화서문 밖에서 장용영 군사들이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사냥을 하고 있다. 그림에서 멀리 보이는 산은 광교산이고, 서장대 너머로는 숙지산이 보인다. 서장대 아래로 포루와 치성, 그리고 서남암문과 포사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예 출신, 별대마병別隊馬兵에게 명하여 원진圓陣을 치게 하고, 대기치大旗幟로써 4변문邊門을 만들게 한 다음 금위대장과 금군별장에게 명하여, 단신으로 말을 달려가서 말을 몰아 채찍과 몽둥이를 잡고 진중에 들어가서 맞받아치고 서로 무기와 기계를 빼앗게 하였다.[5]

정조의 이와 같은 능행차 과정에서 회가 도중 실시되는 군사훈련은 대체적으로 즉흥적인 훈련이었다. 물론 정조는 행차에 앞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의중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를 사전에 공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정조의 갑작스런 군사훈련 지시는 정조의 행차를 수가하는 중앙 오군영의 군사들에게 긴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군사훈련의 방식이 규모에 치중하는 등 인원만을 가지고 하는 훈련이었기에 정조가 원하는 수도군 방어훈련으로서는 적합할 수 없었다.

특히 군사들의 세부적인 무예 능력과 지휘관들의 통솔 능력을 한 차례의 군사훈련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정조는 대규모의 인원으로 사전에 계획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군사훈련은 국왕 정조가 장용영을 중심으로 새로운 군사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도 하였다. 그래서 정조는 1785년 이후 대규모 군사훈련을 10년 뒤인 화성행차 시에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2. 1795년 윤2월 화성 행행의 군사훈련

정조는 화성 행행 시에 군사훈련을 먼저 실시하지 않고 지역의 무사를 선발하기 위한 무과를 설행하여 군사훈련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를 구축하였다. 정조는 1795년 윤2월 화성으로 행행한 후 첫날 수원향교의 대성전을 참배하였다. 이는 조선의 국왕이 공자를 참배함으로써 유교를 숭상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이 행차를 마치고 화성행궁으로 돌아와 문무과 과거시험을 개최하였다. 당시 문과는 최지성崔之聖을 포함하여 5명을 선발하였고, 무과는 김관金寬 등 56명을 선발하였다.[6]

정조가 화성행궁에서 개최한 문무과는 지역민들의 사기 앙양과 동시에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인재 선발은 화성 일대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었다. 즉 정조는 화성을 지키기 위하여 장용외영 군사들 외에 지역의 백성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지금의 민방위와 같은 개념으로 정조의 민관군 합동 군사훈련의 의지를 정약용은 『민보의民堡議』를 통해 정리하였다.

5_ 『정조실록』 권19, 정조 9년 2월 경인.
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윤2월 11일.

정조는 화성의 해안가 일대에 위치하여 서해안의 교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지역인 남양과 구포鷗浦의 백성들 중에서 무예가 있는 사람들에게 초시를 보게 한 후 별도의 명단을 작성하여 유엽전柳葉箭 일순一巡에 이중二中 이상을 맞춘 사람을 시취試取하여 다가올 정조의 화성행차 시에 무과에 응시하도록 하였다.[7] 이는 자연스럽게 화성 축성에 참여한 지역 백성들을 위무하는 것임과 동시에 서해안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왜구 및 청의 세력을 막아 내겠다는 의도이기도 했다.

정조는 이러한 의지로 무과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2월 10일 화성부에서 초시에 응시한 사람은 화성유수부 2,795명, 광주부 1,502명, 과천현 281명, 시흥현 276명이었다.[8] 화성의 특별무과에 응시한 이와 같은 숫자는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였다. 특히 화성유수부 남자들의 상당수가 무과에 응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조가 추구하는 화성 방어체제 구축에 상당한 기능을 할 수 있었다. 화성유수부의 무과 초시 응시자 중 시사試謝에서 2중 이상으로 합격한 사람은 65명이었다.[9] 이날 화성유수부를 포함하여 초시를 치러 합격한 사람은 광주, 과천, 시흥에서 선발된 116명을 비롯하여 남양과 구포에서 선발된 백성 5명, 그리고 국왕의 특지로 허락된 화성유수부 교졸 16명 등이었다.

무과 합격자는 갑과에 친군위 김관(수원인, 37세), 을과에 부사과 김창운金昌雲(광주인, 34세), 한량 권득성權得星(광주인, 36세), 부사과 박후신朴厚新(광주인, 32세), 한량 김성갑金星甲(수원인, 29세), 한량 김종진金宗鎭(수원인, 29세), 병과에 별무사別武士 송덕관宋德寬(수원인, 51세), 친군위 한치유韓致裕(수원인, 31세), 부사과 윤혁주尹赫周(수원인, 36세) 등 50명을 선발하였다.[10] 무과 합격자는 대체적으로 장용영 친군위에 속한 군병의 합격률이 높아서 장용영 외영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무과를 실시하여 장용외영의 사기를 진작시킨 정조는 윤2월 12일 신시申時에 화성장대에 친림親臨하여 성조城操와 야조夜操의 관계자들을 불러 군사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앞서 정조는 화성행궁에서 다음과 같이 하교하였다.

> 친림습조親臨習操 시에는 대신 이하가 모두 기복器服을 갖추고 따라 올라가는 것이 곧 『오례의五禮儀』에 실려 있는 바이니, 오늘 여러 대신 및 별운검別雲劒에게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들어오게 하라.[11]

이에 정조는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낙남헌에서 화성장대로 올라 직접 지휘할 준비를 하였다. 정조의 화성장대 행차에 병조판서 심환지, 장용외사 조심태 등이 차례대로 참현參現하였다. 이때 영의정 홍낙성은 "신이 이 지방을 지나다닌 것이 매우 여러

7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2월 11일.
8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3, 장계, 을묘 2월 11일.
9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3, 장계, 을묘 2월 12일.
1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5, 방목, 무과별시방목.
1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2일.



서장대 주변의 장용영 군사(『화성능행도병』, 「서장대성조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행궁 주변의 장용영 군사(『화성능행도병』, 「서장대성조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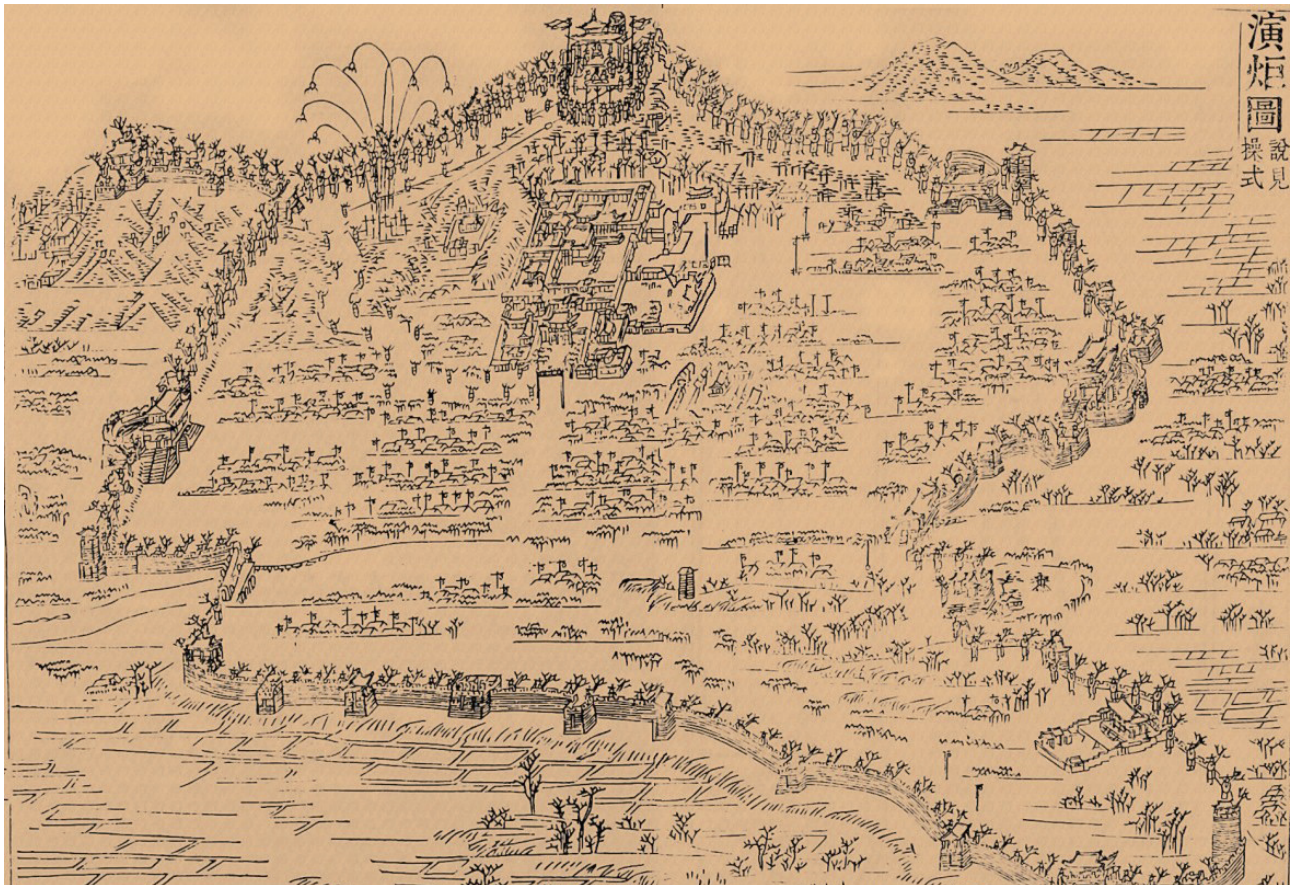
번인데 이와 같은 보장지지保障之地가 되는 줄 아직 몰랐다가 지금 형편形便이 주조周遭하고, 규모規模가 굉원宏遠함을 보니 비로소 천작天作의 고산高山이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겠나이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 공수攻守에 모두 편하여 바로 삼남三南의 요충에 해당하며 근엄함이 기보畿輔를 제압할 수 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만세토록 영원히 힘입을 터[萬世永賴之基]'라고 하겠습니다." 하였다.[12]

이처럼 영의정 홍낙성 역시 화성유수부와 화성이 축성되는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로서 적합한 지역임을 확인하였다. 정조는 장기적으로 화성유수부를 조선의 군사적 중심지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곽을 지키는 훈련과 백성들과 함께하는 훈련을 추진한 것이었다.

정조는 화성에서의 성조와 야조를 통해 장용외영의 군사력을 대소신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군령을 강화하였다. 일반적으로 군령을 임금에게 결재받는 방법은 무릇 임금의 행차를 준비하라는 명이 있으면 병조판서가 승정원에 나아가서 군령을 마련했음을 임금에게 아뢰고, 입시入侍하라는 명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가 전정殿庭에 명을 받아 군령을 병방승지가 전하고 권정權停할 때에는 승정원에서 승전색承傳色에 청하여 입계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현륭원 행차는 정조의 의중이 담긴 특별한 행차이고 자신의 군사력을 보여 주는 것이기에 군령을 특교特敎로 인해 정리소에서 글을 올리며 궁궐을 출발한 후에는 각 참의 군령은 병조에서 예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되 병조판서가 관여하지는 못하게 하였다. 만약 장용영의 외영과 내영이 함께 열무閱武하면 병조에서 주관하여 거행하는데, 이번은 외영만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장용외사가 주관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13] 즉 일반적인 군사훈련은 병조에 의해 주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장용외영을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병조판서를 제외시키고 장용외사로 하여금 행사를 주관하게 한 것이다.

화성의 군사훈련은 기존의 훈련과 달리 사전에 예고와 준비를 통해 장용외영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이기에 장용외영의 군사력을 보여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군사들이 너무 오랫동안 훈련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대기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화성유수 조심태의 건의에 따라 훈련 일정을 조절하였다. 조심태는 화성의 성조와 야조가 정조가 화성에 도착한 이후 4일째 되는 마지막 날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지칠 것을 염려하여 정조의 입성入城 시에는 약간의 군병이 영접을 하고 실제 일정을 앞당겨 훈련 하루 전날 전체 군인이 모이게 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조심태의 건의에 정조는 동의하였고, 보다 원활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14] 이에 따라 8일간의 행차 중 5일째 하기로 했던 문무과 시험 일정 역시 3일째로 조정하

1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2일.
13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군령.
1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계사, 을묘 1월 24일.



「연거도(演炬圖)」(『화성성역의궤』)
장용영 군사들의 야간훈련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게 되었다. 결국 화성에서의 성조와 야조는 기존에 정조의 능행 시 실시했던 군사훈련과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화성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장교와 군졸들은 정조를 호위하는 군사들과 처음부터 차별화시켰다. 물론 이들 군사들 역시 정조의 현륭원 행차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이들은 처음부터 화성에서의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참여한 장용영 내외영의 군사들이었다. 군사훈련에 참여한 인원을 정리소에서 3,700여 명으로 건의하였는데, 정조는 이를 수용하였다.[15] 3,700명의 숫자는 정조 대 군사훈련 중에서 가장 큰 인원으로, 전체 화성행차 인원인 5,700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매우 많은 인원이었다. 윤2월 12일의 화성 성조에서는 3,700여 명의 장졸 외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군격인 참진군參陣軍 2초를 차출하여 전초관 최명건崔命健과 좌초관 이원형李源亨이 해당 초군을 각각 115명씩 거느리고 화성장대를 호위하도록 하였다.[16]

화성의 주간훈련 과정을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7]

1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계사, 을묘 윤2월 3일.

1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계사, 을묘 윤2월 12일.

17_ 1795년 윤2월의 화성 성조와 야조에 대한 기록은 『정조실록』에는 거의 언급이 없는 반면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화성성조주조식(華城城操晝操式), 야조식과 『장용영고사』 권5, 을묘 2월 9일의 기사의 병조와 장용영에서 화성의 성조와 야조의 정식(程式)을 계문하는 내용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다.

① 화성의 주조晝操는 앞서 군령조에 관한 내용과 같이 장용영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군사훈련 하루 전에 장용외사가 정조에게 군령기軍令旗를 청하여 원문轅門, 즉 장용외영 진영의 문에 걸어 놓는다.
② 훈련 당일 기와 북을 화성행궁 문 밖에 걸어 놓고 선전관이 국왕 앞에 무릎을 꿇고 훈련을 주관하기를 아뢴다. 각 장령은 행궁 정문 밖에서 이를 듣고 대기하고 군사들은 무기를 들고 성에 오른다.
③ 화성행궁에서 병조판서가 정조의 지시를 받아 관초官哨들에게 훈련 지시를 내린다. 이때 병조판서는 "성과 함께 운명을 함께한다. 군사들은 각자 맡은 곳을 지키면서 떠들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도망가거나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군법을 적용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시한다.
④ 또한 국왕의 지시를 받은 병조판서는 "적들이 틈을 엿보다 한꺼번에 충돌해올 경우 임기응변하여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그대들의 힘에 달려 있다. 지연시켜 일이 잘못되면 응당 군법을 적용하여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지시한다.
⑤ 성곽과 장대 주변에 훈련 준비가 완료된 보고를 받은 정조가 화성행궁을 나와 화성장대로 오르고, 이때 장용외사가 포를 쏘고 천아성을 울리게 하면 각 군사들이 모두 함성을 세 번 지른다.
⑥ 군사들의 매복을 지시하고 선전관이 군사들을 매복하라고 호령하고 신포를 세 번 울린다. 이때 화성 주변의 각 면에서도 똑같이 신포 소리에 응대하여 징을 울리고 10명씩 매복을 보낸다. 매복하는 군사들은 각자 삼안총三眼銃과 기화起火기구를 휴대하고 성을 나가 매복하는데, 매복 거리는 군사 1명당 1리씩 떨어져 있다.
⑦ 군사들이 모두 숨죽이고 성곽을 호위하게 하는 숙정포肅靜砲를 쏘고 한 방면에서 조련을 하고 해당 면面에서 매복한 군사들이 포를 쏘고 기화를 들어 경보를 하면 각 성장城將도 그 숫자대로 포를 쏘고 기화를 든다.
⑧ 각 방면에서 군사들을 기립시키고 깃발을 들어올린다. 이때 각 방면으로 화성의 신풍위新豊衛가 응원을 하고 해당 방면에 적이 100보 안에 당도하였다고 보고하면 낭기狼機와 조총鳥銃을 쏜다. 또 적이 50보 안에 당도하였다고 보고하면 사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쏜다. 해당 방면에 적이 성곽 아래까지 도달하였다고 보고하면 성곽 위에서 돌을 던진다.
⑨ 적이 도망갔다고 보고하면 선전관이 국왕에게 보고하고 징을 친다. 이때 신풍위는 정해진 장소로 돌아오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⑩ 다시 한 번 더 4개 방면 전체적으로 적의 공격과 방어 훈련을 실시한다.
⑪ 신포를 울려 매복한 군사들을 철수시키고 깃발을 내린다. 각 방면에서 신포소리에 맞춰 자바라와 북을 세 번 울려 깃발을 내리고 행사를 마친다.

야간 군사훈련의 경우 주간 군사훈련과 같은 순서에 의해 진행되면서 추가로 성문을 닫는 훈련과 횃불을 달고 각 성곽의 여장女墻과 성 안의 민가에 등불을 다는 의식이 추가되었다. 야간 군사훈련은 초경初更에 시작하여 화성 성내의 모든 백성들과 주간훈련에 참여했던 장졸將卒들이 모두 참여한 훈련으로 주간훈련보다 더 규모가 큰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5경의 시간이 되어 등불을 내리고 성문을 열어 훈련을 마치도록 하였다. 이 야간 군사훈련에서 정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화성을 방어하는 훈련을 직접 지휘하였다. 정조 대 야간 군사훈련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초유의 일로서 정조는 장용외영의 군사들과 백성들의 합동훈련을 통해 화성을 실질적으로 방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훈련은 장기적으로 정조의 화성 거주를 위한 훈



「화성장대친열성조유시(華城將臺親閱城操有詩)」(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795년 윤2월의 화성 원행 기간 중, 12일에 거행된 장용외영 군사들의 훈련 모습을 화성장대에서 지켜본 정조가 자신의 소회(所懷)를 읊은 시이다. 이 시에서 정조는 화성 성곽과 장용영 군사들에 대한 만족감과 스스로의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 시는 양각의 편액으로 제작되어 화성장대 문 위 인방(引枋 : 문 위에 가로놓여 벽을 지지하는 나무)에 걸어 두었다.

련이었다.

정조는 화성장대에서의 군사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마침을 기념하여 친히 시를 지어 장대 위에 붙여 놓도록 할 정도였다.[18] 그리고 행사를 마치고 이틀 뒤 화성을 순례하는 과정에서 화성 축성과 장용외영의 훈련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 화성을 경영한 위치가 조리條理가 있으니 장용외사가 성심껏 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능하였겠는가? 또 어제의 성조城操로 말하더라도 본부本府의 군대가 평소 조직적으로 훈련한 것이 아니었는데 성정군城丁軍의 거화擧火·응포應砲와 친군위親軍衛의 좌작坐作·진퇴進退가 모두 능히 모양을 이루었다. 이는 앞으로 쓸 인재를 얻은 것이라 볼 수 있으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19]

즉, 정조는 화성의 군사훈련이 장기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화성의 방어체계와 국방개혁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조는 훈련에 참가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시상을 베풀었다. 순뢰차지巡牢次知 장교 문세준文世駿·황치욱黃致郁은 각각 활과 화살 1부, 취대기수차지吹大旗手次知 장교 이언관李彦寬·이원영李元榮은 각각 활과 화살 1부, 가전전도화성순령수駕前前導華城巡令手 이만숙李萬淑 등 27명, 뇌자 김범금金凡金 등 3명, 취고수 최금산崔今山 등 48명, 대기수 김도항金道恒 등 47명은 각각 무명 1필과 베 1필, 가전취타수駕前吹打手 김태흥金兌興 등 57명은 각각 무명 2필, 호령차비내취號令差備內吹 김정삼金丁三 등 6명은 각각 무명 1필을 나눠 주도록 하였다.[20]

정조는 화성장대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이틀 뒤인 윤2월 14일 화성행궁 득중정에서 신료들과 더불어 대규모의 활쏘기를 거행하였다. 정조의 화성행차를 배종한 신료들 대부분이 참여한 활쏘기에서 정조는 뛰어난 활쏘기를 보이며 신료들에게 문무겸전文武兼全의 국왕임을 강하게 보여 주었다.

정조는 평상시 활쏘기를 시간을 정해 놓고 연습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18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어제, 화성장대친열성조유시제우미상(華城將臺親閱城操有詩題于楣上).
19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 을묘 윤2월 14일.
2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5, 상전(賞典), 성조시시상(城操時施賞).



고풍(수원박물관 소장)
1787년 3월 장용영 별군(別軍)이었던 오의상(?~1820)이 정조의 활쏘기 성적에 고풍(古風)을 받은 기록이다.

> 나는 활쏘기에 숙업宿業이 있어 맞힐 때마다 좌우의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곤 했는데, 이것이 세속에서 말하는 '고풍古風의 고사古事'라는 것이다. 일찍이 근신과 짝이 되어 활을 쏜 후 내각內閣의 고풍첩古風帖에다 왕의 마음이 편안하니, 이때에는 다툼도 없도다[王心載寧 時靡有爭]라고 썼다.[21]

라고 할 정도로 활쏘기에 매진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조의 무신적 기질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당시 참여한 신하는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수어사 심이지沈頤之, 경기감사 서유방徐有防,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 장용외사 조심태, 훈련대장 이경무, 장용내사 서유대, 총융사 서용보徐龍輔, 정리사 윤행임尹行恁, 검교직각 남공철南公轍 등 당파를 가리지 않고 조정의 중요 관료들이 참여하였다.

정조는 이 자리에서 유엽전을 6순을 쏘았다. 이때 24발[矢]을 쏘아 28점을 얻었다. 함께 시사에 참여한 영의정 홍낙성 3점, 수어사 심이지 3점, 경기감사 서유방 7점, 호조판서 이시수 3점, 장용외사 조심태 14점, 훈련대장 이경무 10점, 장용내사 서유대 15점, 총융사 서용보 5점, 정리사 윤행임 14점, 검교직각 남공철 4점 등 전반적으로 정조의 성적과는 차이가 많았다. 정조는 유엽전만을 쏜 것이 아니라 장혁掌革을 1순 쏘고, 유엽전을 소포小布에다 5순을 쏘아 24발을 명중시켰다. 한편 야간에 유엽전을 2순 쏘아 6점을 얻었다.[22] 물론 함께 시사에 참여한 신료들의 점수는 정조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정조는 국왕 스스로 활쏘기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무를 증진시키고 자연스럽게 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방어체제를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정조는 득중정에서 시사試謝 직후 매화埋火[23]를 시방하게 하였다. 이는 화약을 이용한 신무기를 개발하여 화성에서 새롭게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조는 이미 1779년에 남한산성에 거둥하여 중앙 오군영의 군사들을 이용한 군사훈련을 실시

21_ 『홍재전서』 권122, 노론하전(魯論夏箋)1, 팔일편(八佾篇), 子曰君子無所爭章.
2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어사(御謝), 華城得中亭御謝柳葉箭六巡 乙卯閏二月十四日.
23_ 폭발물을 배설하는 일 또는 그 폭발물을 말한다. 폭발하면서 불덩이가 유성(流星)보다 빠르게 달려 나가고 소리가 진동하여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므로, 지포(紙炮)·화포(花炮)와 함께 불꽃놀이에 이용되었다.



매화 터트리는 광경(『화성능행도병』, 「득중정어사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95년(정조 19) 윤2월 14일에 정조는 득중정에서 신하들과 활쏘기를 하였다. 이날 활쏘기는 낮과 밤에 모두 이루어졌는데, 이 그림은 야간 활쏘기이다. 그림 아래쪽에 표현된 것은 매화(埋火)를 터트린 광경으로, 윤2월 12일의 군사훈련[城操] 후에 계획되었던 것이다.

할 때 매화시방埋火試放을 실시하였다. 정조는 화약을 이용한 무기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남한산성에서 매화훈련을 실시한 정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불랑기포(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복제품)
1789년 11월 장용영에서 제작한 불랑기포(佛狼機砲)로 5호이다. 이해는 장용영으로 개명한 지 1년 뒤이고 현륭원을 옮긴 해로 장용영의 강화를 통한 정국 변화를 위해 각종 군기류를 새롭게 제작하면서 만든 무기로 추정된다.

이것은 원숭환袁崇煥이 영원寧遠에서 시험한 홍이포紅夷砲의 유제遺制이다. 병자년(1636년)에 이 방법을 배우지 않아서 쓰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24]

즉 정조는 병자호란 당시 매화를 이용한 화포기술을 사용하지 못해 청에게 굴복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국왕으로서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화포기술을 창안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화포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그 첫 번째 시험을 화성에서 실시한 것이다.

정조 초반 북벌론을 주장했던 송규빈宋奎斌은 북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기한 화기를 가지고 적을 향해 먼 거리에서 발사하여 사격을 가한다면 이것을 맞은 적들은 모두 가루가 되어 재를 이루고 말 것이니 이를 통해 승산이 있다고 하였다.[25]

송규빈의 국방정책 개혁론을 받아들여 친위군영인 장용영 창설과 수어청 혁파를 추진했던 정조가 화약무기 개발에 대한 송규빈의 의견을 받아들였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송규빈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조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군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약을 이용한 화포의 새로운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하지만 득중정에서 화약을 땅에 묻고 성능을 시험하고자 할 때 날씨가 좋지 않았다. 이에 정조는 "지금 비가 오려고 날씨가 잔뜩 찌푸려 있으니 이와 같은데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조심스럽게 장용외사 조심태에게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에 조심태는 매화시방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 주었다. 첫 번째로 화약의 성능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두 번째로 비가 오더라도 땅속까지 스며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24_ 『정조실록』 권8, 정조 3년 8월 기미.
25_ 송규빈, 『풍천유향』, 한담(閑談).

하였다. 즉 조심태는 장용외영에서 개발한 새로운 화약무기가 어지간한 비에도 견디어 폭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조심태의 자신감에 정조는 성능 시험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마침내 매화시방은 날씨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로써 전체적인 화성행차 시의 주간 군사훈련과 야간 군사훈련은 장용영 외영의 3,800여 군사들의 일사분란함을 보여 줌과 동시에 장용외영이 가지고 있는 화약신무기를 선보임으로써 화성유수부가 강력한 군사도시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화성 내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함께 횃불과 등불을 올리고 내리는 훈련을 함으로써 민보民堡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보여 주었다.

결국 정조가 화성행차에서 보여 준 일련의 군사훈련은 자연스럽게 타 군영으로 하여금 장용외영을 두렵게 만드는 조치이기도 하였다. 더불어 이는 자연스럽게 장차 자신이 왕위를 물려주고 거처할 화성유수부를 통해 친위군사력의 위세를 보여 주어 자신이 추구하는 국방 개혁에 대한 반대를 일소하고 향후 외세에 대한 군사적 방어와 공격의 중심지 역할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UWON HWASEONG

정승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04
을묘원행 재정의 마련과 운영

1795년 정조가 자신의 생모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이하여 수원에 행차한 을묘원행乙卯園幸은 재정적으로도 10만 냥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창한 행사였으며 국왕권의 강화라고 하는 당시 정조의 정치 운영 방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였다. 따라서 이 행사의 재정 운영은 이 행사에 대한 정조의 생각과 함께 당시 재정 운영의 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정조는 을묘원행을 위하여 조성한 재원으로 단지 이 행사만 치른 것이 아니었다. 행사 당시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 어려움을 겪자 원행을 위해 조성한 자금의 일부를 떼어 내어 제주도에 진휼곡으로 보내고 있으며 또한 자금 중 일부를 당시 새로 조성한 화성 둔전을 매입하는 데 충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행사를 치른 후 남은 자금은 전국에 분급하여 진휼곡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정조는 원행을 위하여 조성한 재원으로 이 행사만 치른 것이 아니라 폭넓은 통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조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의 정치 운영 방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당시 그가 자신의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1]

1_ 이 글에서는 『정조실록』, 『일성록』,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원행을묘정리의궤』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특히 이 행사가 끝난 후 편찬한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이 행사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주로 이용하였다. 페이지의 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1994년 영인한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쪽수에 따랐다.

1. 재원의 마련

정조가 을묘원행을 구상하게 된 것은 흔히 그의 효성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즉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서 고난에 찬 한평생을 보낸 자신의 생모 혜경궁 홍씨에 대한 위로와 더불어 젊은 시절 비명에 목숨을 잃은 사도세자에 대한 추모를 위해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행사는 이와는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사도세자의 정치적 복권은 곧 정조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을 천명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이 행사는 자신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로서의 의미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이러한 큰 행사를 치르기가 쉽지만은 않은 형편이었다. 행사가 있기 바로 전해인 1794년에는 삼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익운, 서영보, 홍대협 등을 삼남위유사三南慰諭使로 파견할 정도였으며,[2]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 백관에게 구황의 방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3] 구황책의 하나로 금주령이 검토되기도 하였으며,[4] 여기서 더 나아가 구황의 대책으로 당시 진행 중이던 화성 성역을 일시 중단하기까지 하였다.[5]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조는 이 행사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고심의 흔적은 무엇보다 먼저 행사를 간소하게 치를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정조는 1794년 12월 11일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생모인 혜경궁 홍씨의 뜻도 비용을 절약하라는 것이니 추호라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으며,[6] 이듬해 2월 25일에는 정리소整理所의 당상에게 "진찬 때 찬품饌品은 먼 곳의 진기한 재료를 구하지 말고 속습俗習의 사미奢靡한 맛을 쓰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7]

1) 원행을 위한 재원의 마련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이 행사를 위한 재원 마련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1794년 7월 28일 장용영 제조 정민시와 이 문제를 상의하였다. 정조가 정민시에게 명년 원행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묻자 정민시는 적어도 10만 냥은 들 것이라 대답하였다. 그러자 정조는 다시 백성들의 힘을 들이지 않고 각 영읍營邑의 재정과 무관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있다. 그러자 정민시는 다음과 같은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였다.[8]

2_ 『정조실록』, 정조 18년 10월 기사; 『정조실록』, 정조 18년 11월 병술; 『정조실록』, 정조 18년 11월 정해; 『일성록』 권21, 정조 19년 1월 7일.
3_ 『일성록』 권21, 정조 18년 11월 1일.
4_ 『정조실록』, 정조 18년 10월 무인.
5_ 『정조실록』, 정조 18년 10월 계유; 『일성록』 권21, 정조 18년 11월 1일.
6_ 『일성록』 권21, 정조 18년 12월 13일, 476쪽;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연설(筵說), 갑인 12월 11일, 215쪽.
7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연설, 을묘 2월 25일, 222쪽.
8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연설, 갑인 7월 20일, 209쪽.
9_ 정조 연간의 군영(軍營)의 변천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들 수 있다. 이태진, 『조선 후기의 정치와 군영제변천』, 1985; 배우성, 「정조 연간 무반군영대장과 군영정책」, 『한국사론』 2, 1991.
10_ 『일성록』 권20, 정조 18년 8월 4일, 973쪽.
11_ 『정조실록』, 정조 18년 11월 무신; 『일성록』 권21, 정조 18년 11월 24일; 『만기요람』 재용(財用) 1, 균역청사례(均役廳事例)에서는 1793년 관서에 있는 균역청(均役廳)과 진휼청(賑恤廳)에서 관리하는 회록곡(會錄穀), 면세결미태(免稅結米太)와 삼계첨가조미(蔘契添價條米)를 장용영에서 무치(貿置)한 호남곡(湖南穀)과 상환하여 계축회록곡(癸丑會錄穀)이라 명칭하고 모곡(耗穀)을 취하여 작전(作錢)하니 1년에 상납되는 것이 3만 850냥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진휼청사례(賑恤廳事例)에서는 관서회록곡(關西會錄穀)은 1793년에 장용영의 호남곡과 상환하여 계축회록곡이라 명칭하고 균역청으로부터 작전하여 오게 한 후에 반분하여 봉상(捧上)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기 관서의 재원을 장용영에서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_ 『증보문헌비고』 권155, 재용고(財用考) 2, 국용(國用).

작년 호남이 풍년으로 쌀값이 낮으므로 영모미營耗米 1만 4,800석과 영저리營邸吏의 보수 1만 석을 연례에 따라 돈으로 받은 것을 상정가詳定價로 판 것과 전라도 선무전選武錢 어세전漁稅錢 결전結錢 응납분을 획급하여 미곡으로 바꾸어 이를 분급한 후 가을에 이식과 함께 돈으로 바꾸어 상정원가詳定元價를 제하고 난 나머지가 약 3만 수천 냥이 되며, 관서의 철산 등 3읍의 포곡逋穀 만여 석을 돈으로 거두어들인 것과 덕천의 환곡 5,000석을 민원에 따라 돈으로 받은 것은 달리 귀속될 곳이 없어서 가져다 써도 무방한데 이를 합하면 4만 5,000여 냥이 되며, 화성의 상인에게 빌려 준 진휼청의 돈 6만 5,000냥의 4년간 이식이 2만 6,000냥이 되니, 이상 모두를 합하면 10만 3,000여 냥이 되는데 이것은 각 민읍民邑과 무관하므로 원행에 가져다 써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민시 초상화
(일본 천리대학교 부속 천리 도서관 소장)
정민시는 세손시절부터 정조를 보호해 온 신하로, 원행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정민시는 정조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약 10만 3,000여 냥의 자금이 확보되었는데, 이는 정민시의 설명대로 대부분 환곡 등을 통한 이자 수입으로 백성들의 세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원행을 위한 재원 조성의 방책을 장용영 제조인 정민시와 상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용영이 정조의 친위 군영이라는 점과 아울러 당시 군영들이 사실상 재정 아문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9]

이러한 정민시의 제안에 따라 정조는 같은 해 8월 4일 평안도 철산 등 세 읍의 이포전吏逋錢으로 진휼청에 속한 것을 장용영에 이송하여 군물 등에 쓰이게 할 것을 명하고 있다.[10]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원행을 위한 자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행을 위한 재원으로 일단 장용영이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해 11월 24일에는 관서 회부절미會付切米 1만 석을 화성에 보내 성역과 원행에 쓰도록 할 것을 명하고 있다.[11]

정민시의 제안에 나타난 수원 상인에게 빌려 준 돈은 화성 건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1790년 수원부사 조심태가 "수원은 삼남의 요로이긴 하지만 본디 물산이 없어서 시전市廛을 설치하려 하여도 응모하는 자가 없으니 원하는 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백성을 모집하여 산업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함에 따라 균역청의 돈을 획급하라는 하교가 내려온 바 있다.[12] 이러한 하교에 따라 수원의 상인들에게 자금을 빌려 주었고, 정민시는 이 돈의 이식을 원행에 사용하자고 제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원 화성의 건설과 원행은 재정적으로 긴밀히 맞물려 있는 것이었다.

정조가 1794년 12월 원행의 준비가 시작될 무렵 정리소 당상 윤행임에게 원행을 위한 자금으로 선혜청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전에 장용영 제조 정민시가 말한 10만 3,000냥에 모자람이 없는가 묻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민시의 제안에 따라 원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질문에 윤행임이 틀림없다고 대답하자 이러한 공화公貨는 쓰고 남음이 있으면 마땅히 백성과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선혜청에 있는 돈 10만 냥을 정리소에 이속하여 윤행임이 전관 출납토록 할 것을 명령하였다.[13]

이렇게 하여 조성된 재원이 실제 원행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원행을묘정리의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재무 결산에 해당하는 재용편에 나타난 수입 항목과 액수는 〈표 1〉과 같다. 이 내용을 앞서 살펴본 정민시의 제안과 비교해 보면 항목은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각 항목의 액수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총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정민시의 제안은 실제로도 집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을묘원행을 위한 재원 내역[14]

재원 내역	액수
수원의 상인에게 빌려 주고 받은 이자	26,000냥
평안도 철산 등 세 읍의 포곡(逋穀)을 돈으로 바꾼 것	31,081냥 8전
덕천의 환곡을 돈으로 바꾼 것	14,220냥
호남에서 쌀을 사들여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이익	24,800냥
모조(耗條)를 돈으로 바꾼 것	6,960냥
합계	103,061냥 8전

2) 비용 지출을 정리소로 일원화

이렇게 하여 원행을 위한 기본 재원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정조는 기본적으로 이 행사에 드는 비용을 정리소의 재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는 이 행사로 말미암아 각 읍이나 각 관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정조는 1794년 12월 13일 정리소에 낭관을 둔 것은 각 읍에서 관원을 차출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15] 이는 원행으로 말미암아 공식 국가기관에 부담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함

13_ 『일성록』 권21, 정조 18년 12월 13일, 476쪽;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연설, 갑인 12월 11일, 215쪽.
1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재용(財用), 477쪽.
15_ 『정조실록』, 정조 18년 12월 을축; 『일성록』 권21, 정조 18년 12월 13일;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연설, 갑인 12월 13일, 216쪽.

이었으며, 따라서 재정적으로도 행사비용의 지출을 정리소로 일원화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이듬해 2월 11일에는 원행 때 교량 은구隱溝의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은 호조가, 외곽은 경기감영에서 담당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이번에는 정리소에서 비용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있다.[16] 또한 정조는 같은 해 윤2월 12일에도 수원부의 순뢰, 취대, 기수, 전도와 장교의 시상은 정식에 따르면 경기감영에서 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정리소에서 분급하라고 지시하고 있다.[17] 이상과 같이 정조는 원행의 재정 지출을 가급적 정리소로 일원화하려고 하고 있었다.

3) 내탕금의 하사

그러나 이 행사에는 정리소의 재원만 사용된 것은 아니며, 이와는 별도로 행사의 중간 중간에 내탕금內帑金이 사용되고 있다. 정조는 1795년 2월 20일 전교를 내려 화성행궁 진찬 시 사민四民에게 쌀을 하사하고 기민饑民에게 양곡을 지급하는 것은 혜경궁 홍씨의 뜻에 따른 것이니 아무리 정리소의 재정에 여유가 있어도 이를 정리소 재정에서 지출하지 말고 내하전 5,000냥을 내려보내라고 명령하고 있다.[18]

내하전을 사용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같은 해 윤2월 11일에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수원부 소재 장용영 외영의 향군鄕軍에게 사격 시험을 실시하여 입격자를 시상하되 이 비용은 외탕고에서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다.[19] 또한 같은 달 17일에는 내탕금을 풀어 어가를 수행한 장신將臣, 장관將官, 군병軍兵 등의 호궤를 실시할 것을 명하고 있다.[20] 이렇게 주로 민에게 하사하거나 원행 참가자를 시상하는 데에는 내하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소의 지출을 절감하는 한편 일반 백성에게 자신의 배려가 느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장용영을 통한 재정 운영

정조는 백성과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조성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출납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성된 재원은 일차적으로 선혜청에 유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1794년 12월 13일 정리소에서는 선혜청에 감결을 보내 선혜청에 유치해 둔 돈 10만 냥을 본소의 용도로 쓸 것을 윤허받았으니 유치전 10만 3,061냥 8전 중 1만 냥을 우선 보내고 나머지는 추후 본소의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다.[21] 또한 같은 해 12월 19

1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전교(傳敎), 을묘 윤2월 11일, 167쪽.
17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전교, 을묘 윤2월 12일, 169쪽.
18_ 『정조실록』, 정조 19년 2월 임신; 『일성록』 권21, 정조 19년 2월 20일, 728쪽;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전교, 을묘 2월 20일, 156쪽.
19_ 『일성록』 권21, 정조 19년 윤2월 11일, 788쪽;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전교, 을묘 윤2월 11일, 167쪽.
20_ 『일성록』 권21, 정조 19년 윤2월 17일, 807쪽;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전교, 을묘 윤2월 17일, 179쪽.
2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감결(甘結), 갑인 12월 13일, 143쪽.

일 정리소에서는 정조에게 원행 때 쓰이는 시급하지 않은 경비는 선혜청에 유치해 두었는데 소요되는 바에 따라 가져다 쓰겠다고 보고하고 있다.[22] 이로써 당시 원행에 쓰이는 자금을 선혜청에 유치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행의 재무 결산에 해당하는 『원행을묘정리의궤』 재용편에 의하면 원행을 위한 자금이 진휼청에 유치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23] 그리고 1795년 2월 14일에는 정리소에서 진휼청에 본소에 구획된 돈 가운데 1만 냥을 경기감영에 출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24] 같은 해 4월 1일에는 진휼청에서 정리소에 관문을 보내 진휼청에 유치되어 있던 정리소의 자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25] 이상의 기록에 따르면 원행 자금의 유치처가 선혜청이 아니라 진휼청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행자금이 처음에는 선혜청에 유치되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진휼청으로 옮겨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행자금의 유치처를 선혜청에서 진휼청으로 옮겼다는 분명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금의 유치처가 선혜청과 진휼청으로 뒤섞여 기록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당시 선혜청과 진휼청의 관계 때문이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진휼청은 당초 구황청이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어 비변사에서 관장하였는데, 1626년 선혜청에 이속시켜 상평청과 합병하고 경외의 휼전恤典을 전관하되 진휼을 설시할 때는 진휼청이라 칭하고 진휼이 파하면 상평청으로 개칭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균역청은 1750년 설치되어 1753년 상평진휼청과 합해졌다고 하였다.[26] 이렇게 볼 때 이 무렵 상평청, 진휼청, 균역청은 모두 선혜청의 예속 관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원행을 위한 자금의 유치처가 처음에는 선혜청으로 정해졌다가 행사가 실제 진행되면서 그 예속 관서인 진휼청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27]

이렇게 원행을 위한 자금을 선혜청(후에는 진휼청)에 유치해 두었지만 여기서 바로 자금을 출급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94년 12월 13일과 이듬해 2월 14일 선혜청과 진휼청에서 1만 냥씩 출급하였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정리소는 1794년 12월 16일 장용영에 있는 돈 가운데 1만 냥을 우선 빌려서 쓰겠으니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28] 이러한 요청에 따라 장용영은 같은 달 25일 정리소에 1만 냥을 받아 가라는 관문을 보내고 있다.[29]

그 후에도 1월 24일, 2월 17일, 2월 30일, 윤2월 5일, 윤2월 7일 5차례에 걸쳐서 빌리고 있는데 앞의 4차례는 1만 냥씩, 나머지 한 차례는 2만 냥을 빌려서 12월 16일의 1만 냥까지 합하면 총 7만 냥을 장용영에서 빌린 것이 확인된다. 이는 행사가 끝난 후인 1795년 4월 1일 진휼청 낭청이 정리소에 보고한 내용에서도 확인된다.[30] 이 문서에서는 진휼청에 유치되어 있던 돈 10만 3,061냥 8전 가운데 7만은 장용영에서 빌린 것

2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계사(啓辭), 갑인 12월 19일, 391쪽.
23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재용, 477쪽.
2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감결, 을묘 2월 14일, 149쪽.
2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내관(來關), 을묘 4월 1일, 135쪽.
26_ 『만기요람』, 재용 1, 선혜청각항사례(宣惠廳各項事例); 『대전통편』, 이전(吏典) 선혜청(宣惠廳).
27_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수원 주민에게 빌려 준 돈을 정민시는 진휼청에서 획급한 것이라 하고 있는데 『증보문헌비고』에서는 균역청에서 획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었다.
28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이문(移文), 갑인 12월 16일, 87쪽.
29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내관, 갑인 12월 25일, 111쪽.
3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이문, 을묘 1월 24일;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이문, 을묘 2월 17일;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이문, 을묘 2월 30일;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이문, 을묘 윤2월 5일;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이문, 을묘 윤2월 7일.

을 갚기 위해 보냈다고 하였다.[31]

이상에서 살펴볼 때 원행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 출급은 선혜청이나 진휼청에서 하지 않고 대부분 장용영에서 빌리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원행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 출급을 장용영을 통해서 하고 있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장용영 제조인 정민시와 상의하고 있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장용영이 정조의 친위 군사기구이며 또한 재정기구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을묘원행을 위한 자금은 선혜청과 진휼청에 유치해 두고 있으면서 직접적인 출급은 장용영을 통해서 하고 있었다. 그러면 재정의 지출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었을까? 물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정리소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와는 다른 방식이 취해지기도 하였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지방관에게 원행에 소용되는 물품을 올려 보내게 할 경우이다. 정리소는 1794년 12월 20일 통영에 각색 칼 110자루를 만들어 보낼 것을 명령하면서 이에 드는 돈은 중앙에 상납해야 할 공곡公穀에서 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32] 이 밖에도 각 지방 관아에 각종 물품을 올려 보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의 방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지방에서 물건을 올려 보낼 경우 공곡에서 비용을 감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선혜청과 진휼청에서 물건을 가져올 경우는 경비 지급 방식이 오히려 간단하였다. 1794년 12월 17일 정리소는 선혜청에 포목을 쓸 데가 있으니 본소에서 받아야 할 돈 가운데 매필 2냥씩 계산하여 감하고 선혜청 소재 세작목稅作木 5동을 보낼 것을 요청하고 있다.[33]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선혜청이나 진휼청에 포목을 신청하면서 그곳에 유치되어 있는 금액에서 감하도록 하고 있다.

2. 을묘원행 시 사용된 비용

원행을 위한 자금은 선혜청에 유치해 두었지만 자금의 직접적인 출급은 장용영에서 빌리는 방식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면 자금의 구체적인 지출 내용은 어떠하였을까? 원행 당시 사용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은 『원행을묘정리의궤』 재용편에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 내역은 〈표 2〉와 같은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출의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행을묘정리의궤』 재용편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원행에 사용된 비용의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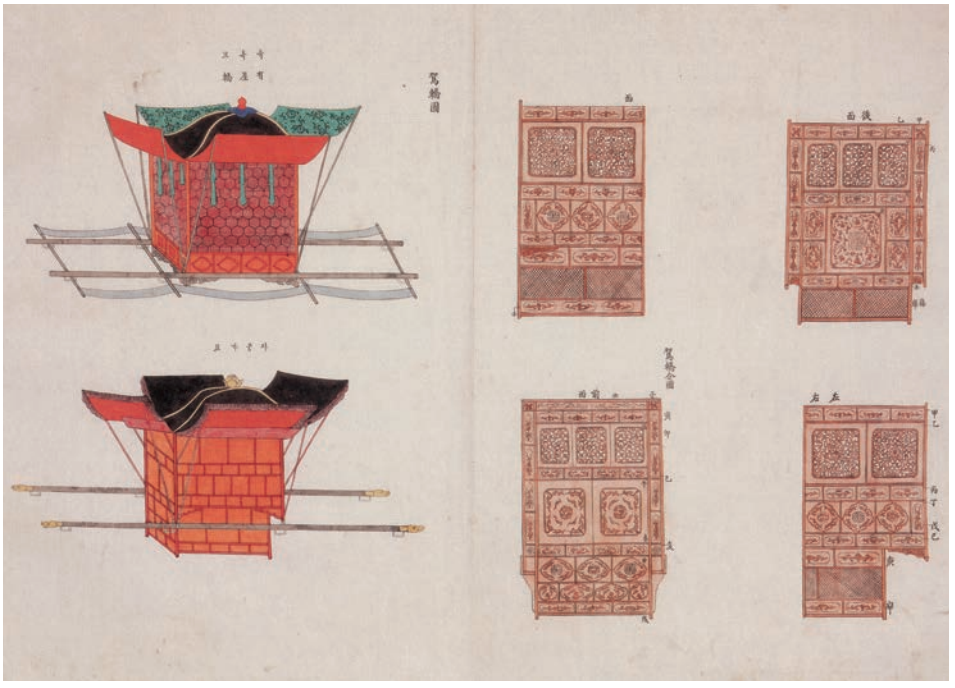
3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내관, 을묘 4월 1일, 135쪽.
3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이문, 갑인 12월 20일, 88쪽.
33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감결, 갑인 12월 17일, 144쪽.

<표 2> 원행 시 지출 내역[34]

지출 내역	액수
가교(駕轎)와 유옥교(有屋轎) 등 제작 비용	4,267냥 9전 8푼
정리소에서 쓴 포목 값	5,612냥
도청(都廳)의 각종 그릇에 들어간 비용	5,014냥 3전 8푼
노량참	504냥 1전 4푼
본진에서 만든 유옥교의 값	84냥 4전 4푼
시흥참	1,292냥 6전 6푼
사근참	551냥 4전 9푼
화성참	6,933냥 7전
준화상(樽花床)의 값	38냥
원소참(園所站)	293냥 6전
각색 꽃의 값	990냥 8전 7푼
갑소차(甲小次)를 설치하는 비용	100냥
경기감영 관할 세 역참에 공급한 잡물 및 교량 은구(隱溝) 등에 들어간 비용	8,316냥 4전 4푼
내외빈 이하 각 관서에 지급한 노자[盤纏]	14,218냥 9전 4푼
무예청의 군복 마세(馬貰) 양찬(糧饌)에 들어간 비용	1,089냥 7전 8푼
사복시의 의복 상격(賞格) 호궤(犒饋) 등에 들어간 비용	1,531냥 4전 7푼
대령한 역자(驛子)의 의복에 들어간 비용	25냥 4전
어가를 수행한 각 군영에 대한 건호궤(乾犒饋)	954냥 9전 9푼
난방과 조명에 들어간 비용	758냥 6전 1푼
지필묵의 값	355냥 9전 4푼
원역(員役)과 교졸(校卒)의 삭료(朔料) 및 군복과 양식	513냥 2전 7푼
각종 상격(賞格 : 사복시의 상격은 포함되지 않음)	1,316냥
어사(御射) 때의 각종 상격(賞格)	73냥
화성(華城)의 둔전 설치에 들어간 비용	10,000냥
탐라(耽羅)의 진휼에 들어간 비용	10,000냥
정리곡(整理穀)의 값	20,000냥
각종 상하축(上下縮)	1,000냥
내입(內入)한 진찬도 병풍 및 관원들의 계병(契屛)의 값	2,550냥
각종 짐 나르는 데 들어간 타가(駄價) 및 잡하(雜下)	1,651냥 5전 8푼
합계	100,038냥 6전 8푼

지출 내용을 지출 순서대로 살펴보면 대체로 행차 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정조와 혜경궁 홍씨의 행차 자체에 들어간 비용, 행차를 수행한 인원과 관

3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재용, 476~480쪽.



유옥교(『원행정리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에 지급된 노자 등 부대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행사 준비 비용에는 〈표 2〉의 가교駕轎와 유옥교有屋轎 등의 제작 비용, 정리소에서 쓴 포목의 값, 도청都廳에서 각종 그릇을 제작하는 데 들어간 비용 등이 포함된다.

1) 가교 등 제작 비용

혜경궁 홍씨가 행차할 때 타고 간 가교駕轎 등의 조성비용의 지출 과정과 내역은 『원행을묘정리의궤』 가교편에 정리되어 있다. 1794년 가을 이듬해의 원행에 대비해서 가교 1좌를 새로 만들고, 혜경궁 홍씨가 현륭원에 오를 때 타기 위해 유옥교 1좌도 새로 만들었다. 또한 정조의 두 누이를 위해 육인교六人轎 2좌를 만들었고, 가교 1좌와 유옥교 1좌는 수리하였다. 이 작업은 중광문 밖 행각行閣에서 행하였는데 9월 8일 시작하여 11월 6일에 마쳤다.

여기에 든 비용은 〈표 3〉과 같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혜경궁 홍씨가 타기 위한 가교 1좌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2,785냥 9전 3푼으로 가교 등 조성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원행 비용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가교(駕轎) 등 제작 비용[35]

종류	수량	액 수
가교 제작	1좌 새로 제작	2,785냥 9전 3푼
유옥교(有屋轎) 제작 및 수리	1좌 새로 제작, 1좌 수리	732냥 3전 2푼
육인교(六人轎) 제작	2좌 새로 제작	278냥 3전 3푼
가교 수리	1좌 수리	122냥 4전 7푼
기명(器皿) 제작 및 잡비		348냥 9전 3푼
합계		4,267냥 9전 8푼

2) 정리소에서 쓰인 포목 값

다음으로 정리소에서 사용한 포목의 값을 살펴보자. 〈표 2〉에는 이것이 5,612냥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선혜청에서 가져온 목木 51동 33필 13척 2촌과 포布 8동 45필 4척에 대해 포 매필 2냥씩, 목 매필 1냥씩 지불한 것이다. 이 경우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선혜청에 유치되어 있는 정리소의 돈에서 바로 감하였다. 이렇게 구입한 포목은 『원행을묘정리의궤』 재용편에는 선혜청 회록미會錄米 80석, 호조에 있는 명주 3동과 함께 물품 수입 항목으로 처리되어 지출되고 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재용편에 나타난 물품 항목의 지출 내역은 〈표 4〉와 같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리소에서 직접 사용한 부분도 있고 원행을 수행한 각 관서의 옷감과 군물軍物, 삭료朔料로 지출되는 부분도 있다. 또한 행사 후 시상을 위한 상격賞格으로 지출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 포목 지출 내역[36]

지출 내역	액수
도청(都廳)의 각종 용도	목(木) 37필 22척
갑소차(甲小次)의 설치	목(木) 2동, 포(布) 1동
액정서 옷감	목(木) 28필
무예청 옷감	목(木) 6동 12필
원역(員役) 교졸(校卒) 삭료 및 군복 사령과 기수의 삭료	목(木) 6동 36필 24척 4촌, 쌀 54석 1두
장용영 군물(軍物)에 들어감	목(木) 12동 49필 1척 8촌, 포(布) 21필 21척, 쌀 20석 7승 7홉
상격(賞格)	목(木) 19동 38필, 포(布) 7동 19필, 명주 1동 2필, 쌀 1석
어사(御射) 때의 각종 상격(賞格)	목(木) 7필
화성 진찬 시 각종 상격(賞格)으로 내입(內入)	목(木) 1동 41필, 명주 1동 48필
잡하(雜下)	목(木) 34필, 포(布) 4필 18척
합계	목(木) 51동 33필 13척 2촌, 포(布) 8동 45필 4척, 명주 3동, 쌀 75석 2두 2승 7홉

3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가교(駕轎), 270~293쪽.
3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재용.

3) 그릇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다음으로 도청都廳에서 각종 그릇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살펴보자. 『원행을묘정리의궤』 기용편에는 도청각양기명조비都廳各樣器皿措備 항목으로 전錢 4,634냥 8푼, 목木 37필 22척, 개조 및 잡비 380냥 3전이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다.[37] 정리소에서는 1794년 12월 17일 원행 때 쓰일 그릇을 제작하기 위한 숙동熟銅 68근, 유철鍮鐵 30근을 보내고 가격을 보고할 것을 호조戶曹에 지시하고 있다.[38]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호조에 그릇 제작을 위한 철물을 보낼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조에서는 철물을 보냈고, 이듬해 1월 18일에는 호조에서 그 값을 정리소에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그릇 제작을 위한 철물을 호조에서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은 호조에서 화폐 주조와 관련하여 철물을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릇 제작에는 이상과 같은 철물만 쓰인 것은 아니다. 사기그릇도 쓰이고 있으며 기타 물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릇을 마련하는 데 들어간 물품별 단가는 『원행을묘정리의궤』 기용器用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상 행차가 있기 전 미리 준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가교 등 조성 비용 4,267냥 9전 8푼, 정리소에서 쓴 포목값 5,612냥, 도청都廳에서 마련한 각종 그릇 조성 비용 5,014냥 3전 8푼을 합하여 모두 1만 4,894냥 3전 6푼이다.

4) 행차 시 각 참에서 사용된 비용

1795년 윤2월 9일 화성행차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행차를 위한 직접 경비가 지출되기 시작한다. 행차가 시작되기 약 19일 전인 2월 20일 각 참에서는 정리소에 수본을 보내 수라水剌와 반과盤果에 들어가는 비용의 액수를 보내니 이를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 그 내역은 〈표 5〉와 같다.

<표 5> 각 참의 소요 비용[39]

내역		노량참	시흥참	사근참	원소참
수라, 반과, 미음의 비용		323냥 3전	1,015냥 2전	330냥 8전	177냥 9전
그릇	사들인 비용	52냥 1전 9푼	57냥 4푼	52냥 1전 9푼	17냥 1전
	빌린 비용	19냥 7전	21냥 7전	19냥 7전	8냥 6전
	운반 비용	4냥 8전	11냥 2전	25냥	18냥 7전
강심수(江心水) 운반 비용			7냥 5전		
현판(懸板) 운반 비용			2냥		

37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기용(器用), 237쪽.
38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감결, 갑인 12월 17일, 145쪽.
39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수본(手本), 을묘 2월 20일, 138~143쪽.

내역	노량참	시흥참	사근참	원소참
기름종이		2냥	5냥 4전	
행담(行擔) 값		5냥 7전 5푼		
내외빈 등 식사 비용	45냥 4전	90냥 8전	45냥 4전	22냥 7전
기타 비용	58냥 7전 5푼	79냥 4전 7푼	73냥	28냥 6전
합계	504냥 1전 4푼	1,292냥 6전 6푼	551냥 4전 9푼	273냥 6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조와 혜경궁 홍씨 등의 음식과 그릇을 마련하는 비용과 수행 인원을 대접하기 위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시흥참이 다른 참에 비해서 액수가 많은 것은 오고갈 때 시흥에서 1박씩 하였기 때문이었다. 각 참에서 지출한 비용은 이상과 같은데 화성의 경우 상세한 지출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윤2월 4일 수원유수는 정리소에 반과盤果에 소용되는 돈 5,000냥은 이미 수령하였는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니 내려 보내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리소는 원래 마련한 돈 5,949냥 1전 중 나머지 949냥 1전을 지급하고 있다.[40]

그러나 이 액수만으로는 모자랐던 것 같다. 윤2월 28일 수원유수가 반과와 관련하여 원래 마련한 돈 5,949냥 1전은 모두 수령하였지만 이것으로 모자라니 추가로 마련하여 내려보내라고 요청함에 따라 정리소에서 984냥 6전을 추가로 지급하였다.[41] 원래의 액수와 추가분을 합하면 그 액수가 6,933냥 7전으로 『원행을묘정리의궤』 재용편에 나와 있는 액수와 일치한다.

5) 경기도에서 각 참에 공급한 잡물과 교량 보수 비용

1795년 윤2월 26일 경기관찰사는 정리소에 원행 때 노량, 시흥, 사근참에 공급한 물종物種 및 교량과 시초柴草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있다.[42] 이는 경기도가 관할하는 세 참에 공급한 잡물의 비용과 도로 보수 및 수행 인원의 군량과 옷감 등의 비용을 신청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참에 공급한 잡물의 가격 및 운송비가 2,085냥 9전 7푼이며, 각 참에서 군병의 식사와 말여물로 제공한 비용이 1,826냥 6전 8푼이었다. 장용영에 회부會付하여 보낸 액수가 500냥이며, 장용영 군병의 군량미 및 말여물 값이 437냥 8전 9푼이었다. 도로 보수 비용으로는 대교大橋 10곳과 은구隱溝 66곳을 보수하는 데 3,086냥 5푼이 들었으며, 행차를 엄호하기 위한 척후와 복병의 음식 값이 177

4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내관, 을묘 윤2월 4일, 125쪽.
4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내관, 을묘 윤2월 28일, 131쪽.
4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내관, 을묘 윤2월 26일, 129쪽.

냥 6전 들었다(척후 10곳, 복병 8곳). 사복시 인원의 옷감에 88냥 5전 2푼이 들었다.

이상 비용에 기타 비용을 합하면 모두 8,316냥 4전 4푼이었다. 이 액수는 『원행을묘정리의궤』 재용편에 수록된 기영구관삼참진배잡물급교량은구등소입畿營勾管三站進排雜物及橋梁隱溝等所入 8,316냥 4전 4푼의 액수와 일치한다. 이상 행사 당시 지출된 직접 경비를 모두 합하면 1만 9,105냥 3전 4푼이다.

6) 반전盤纏, 내외빈 이하 각 관서에 지급한 노잣돈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정조는 원행에 수행하는 인원의 노자盤纏에 많은 신경을 썼다. 이는 이 행사가 정치적 시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조는 1794년 12월 12일 정리당상 윤행임에게 명년 원행 때 두 누이 등 혜경궁 홍씨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의 옷값과 노자를 정리소에서 지급하여 정리소의 돈 이외에는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43] 이러한 지시에 따라 정리소는 12월 18일 각 관서에 원행 때 수행하는 사람들의 노자를 지급하려 하니 각 관서는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감결을 보내고 있다.[44] 이듬해 2월 1일에는 정리소에 정조에게 원행 때 수행하는 사람의 노자를 지급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45] 2월 19일에는 각 관서에 감결을 보내 원행 수행자의 노자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하니 각 관서의 담당자는 수령해 갈 것을 지시하고 있다.[46]

그러면 이렇게 지급된 노자의 총액은 얼마인가? 『원행을묘정리의궤』 재용편에 의하면 노자의 총액은 1만 4,218냥 9전 8푼이다. 이 액수의 각 관서별 분배 내역은 〈표 6〉과 같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분배 액수는 관서의 품계와는 상관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에 따르면 노자의 액수는 관서의 품계보다는 각 관서의 수행 인원의 숫자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내외빈을 제외하고 특별히 많은 노자를 지급받은 관서로는 나인과 궁속, 장악원, 사복시, 액정서, 병조, 경기감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관서는 소관 직무상 수행하는 인원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군영의 경우는 일반 관서와는 달리 군량미와 말여물이 함께 지급되었는데, 장용영을 제외하면 이를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장용영에 지급된 쌀과 콩은 앞서 살펴본 기영구관삼참진배잡물급교량은구등소입 항목으로 경기감영을 통해서 별도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원행을묘정리의궤』 반전盤纏편의 총액 합산에서는 제외되었다. 장용영의 경우 다른 군영에 비해서 액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렇게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장용영이 정조의 친위 군영임을 확인할 수 있다.

43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연설, 갑인 12월 12일, 216쪽.
4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감결, 갑인 12월 18일, 145쪽.
45_ 『일성록』 권21, 정조 19년 2월 1일;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계사(啓辭), 을묘 2월 1일, 399쪽.
4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감결, 을묘 2월 19일, 150쪽.

<표 6> 관서별 노자 분배 내역[47]

관서	액수	관서	액수	관서	액수
내빈	696냥	외빈	1,240냥	나인 궁속	1,705냥 5전 9푼
종묘서	6냥 4전	경모궁	6냥 4전	종친부	60냥
의정부	161냥 6전	중추부	122냥	돈녕부	64냥 8전
의빈부	39냥 2전	규장각	176냥 8전	비변사	29냥 6전
의금부	100냥	도총부	73냥 6전	이조	94냥 4전
호조	117냥 6전	예조	66냥 4전	병조	545냥 1전
형조	76냥 8전	공조	61냥 6전	승정원	278냥
홍문관	43냥 2전	예문관	44냥 8전	사헌부	57냥 6전
사간원	309냥 4전	내의원	148냥	상서원	19냥 2전
상의원	4냥 8전	장악원	1,796냥 4전	군직청	22냥 4전
별군직청	27냥 2전	선전관청	261냥 6전	봉상시	41냥 4전
사복시	991냥	내자시	4냥 8전	예빈시	6냥 4전
제용감	4냥 8전	향실	23냥 2전	충의청	61냥 6전
금루	27냥 2전	내수사	4냥 8전	내시부	143냥 2전
의장고	8냥 6전	좌우포청	19냥 2전	경기감영	522냥 8전
액정서	571냥 6전, 목 28필	화성궐리사제관	38냥		

<표 7> 군영별 노자 분배 내역

군영	전(錢)	미(米) 및 대전(代錢)	태(太) 및 대전	직(稷) 및 대전	합계
장용영	1,247냥 4전 5푼	252석 4두2승	50석 3두 2승		
용호영	118냥 3전 1푼	33석 2두 7승 165냥 9전 7푼	18석 5두 2승 36냥 6전 9푼		320냥 9전
훈련도감	535냥 8전 9푼	162석 7두 7승 812냥 5전 7푼	52석 104냥		1,452냥 4전 6푼
금위영	18냥 5전 2푼	8석 4두 7승 41냥 5전	5석 1두 4승 10냥 1전 8푼	4석 4냥	74냥 2전 6푼
어영청	63냥 6전 8푼	20석 6두 3승 102냥 1전	10석 6승 20냥 8푼	3석 6승 3냥 4푼	188냥 9전
수어청	30냥 2전 1푼	6석 8두 7승 32냥 9전	1석 1두 2냥 1전 3푼		65냥 2전 4푼
총융청	23냥 1푼	6석 8두 7승 32냥 9전	1석 1두 2냥 1전 3푼		58냥 4푼
합계	1만 4,218냥 9전 4푼, 목 28필				

47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반전(盤纏), 258~268쪽.



어승마 견마잡이(『화성원행반차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7) 무예청과 사복시에 지급된 비용

어가를 수행한 각 관서의 노자는 이상과 같은 반전조盤纏條의 규정에 따라 지출되었고, 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정리소에서 개별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독립 항목으로 지출된 관서가 있는데, 이러한 관서로는 무예청과 장용영, 그리고 사복시가 있다. 무예청과 장용영은 정조의 친위 군사기구이기 때문에 이 행사에 가장 많이 동원되었으리라 짐작되며, 따라서 별도의 항목으로 지출되었을 것이다. 사복시는 수레와 말을 담당하는 관서였으므로 행사에 동원된 숫자도 많았고

자체의 정례에 따라 움직였으므로[48] 별도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1795년 1월 25일 무예청 통장統長은 정리소에 관문을 보내 원행 때 수행하는 무예청 인원 156명의 전립 등 각종 비용을 후록하니 지급하라고 요청하였다. 정리소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이를 지급하고 있다. 그 내역은 전립 156립 매입가 3냥 5전, 홍목군복 156령 매령 목 2필, 단목 2근 백반白礬 1냥 5전, 염색비용 및 재봉용 실 값 등의 가격 3전 8푼, 전대戰帶 156건 매건 1냥 1전, 음식 값 합 130냥 9전, 말 26필을 빌리는 값 182냥으로 이상 모두 합하여 1,089냥 7전 8푼이었다.[49]

1795년 2월 13일에는 사복시에서 정리소에 관문을 보내 원행 시 수행할 사복시 인원의 노자, 의복, 상격, 호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후록하니 지급하라고 요청하였다. 정리소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그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 그 내역은 원역員役 등의 노자·의복·호궤·상격에 돈으로 2,047냥 6전 7푼, 쌀 2석 6두 3승(돈으로 대신하여 21냥 1전), 가교駕轎를 끄는 말의 견마잡이의 참상站賞 72냥, 어승마御乘馬의 견마잡이의 참상 쌀 13석 7두 5승(돈으로 대신하여 67냥 5전)이었다.[50] 이 밖에 원행에 참가한 군병과 원역들에게 각종 상격과 호궤를 실시하였는데, 이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탕內帑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정리소의 자금도 일부 사용되었고 각 관서에 명령하여 각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상하기도 하였다.

8) 행사 모습을 그린 병풍 제작

행사가 끝난 뒤 이 행사를 그린 병풍을 제작하여 궁중에 보관하고 각 관원에게 분급하였다. 이를 위한 지출 항목이 『원행을묘정리의궤』 재용편에 나오는 내입진찬도병급당랑이하계병가內入進饌圖屛及堂郎以下契屛價인데, 그 총액은 2,550냥이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재용편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내입內入과 각 관원에게 지급된 병풍의 개수와 단가가 제시되어 있다.[51] 그런데 감관까지의 관원에게는 지급된 병풍의 크기와 개수를 표시하고 있는데, 하급 관원 및 원역에 대해서는 금액만 표시하고 있다.

3. 자금을 남겨 화성 경영에 투자하다

이상에서 원행 당시 행사 자체에 사용된 자금 지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원행을 위해 마련한 재정을 가지고 원행 자체에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원행 이외에 목적에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48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사복정례(司僕定例), 313쪽.
49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내관, 을묘 1월 25일, 114쪽.
5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내관, 을묘 2월 13일, 116쪽.
5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재용, 490쪽.

하자.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정조는 원행을 위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 행사만을 치른 것이 아니라 상당액을 다른 목적에 전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행사에 대한 정조의 생각은 이렇게 용도 외에 자금을 전용하는 데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제주 진휼

원행의 준비가 한창인 1795년 2월 14일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 진휼곡을 청하는 정의 현감의 상소가 올라왔다.[52]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흉년이 든 것은 제주도만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조는 이 문제에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1794년 10월 정조는 비변사 당상 조진관에게 명하여 구황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황정연표荒政年表』를 편찬할 것을 지시하였다.[53] 그리고 구황을 위한 대책으로 전국의 환곡의 납부를 미루어 주기도 하였다.[54]

그런데 이번 기근은 제주도가 더욱 심하여 이러한 구황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1794년 9월 17일 제주목사의 보고에 따라 조정에서는 제주도에 대한 진휼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전라도 해안 각 읍의 곡식을 제주도로 수송하기로 결정하였고,[55] 같은 해 10월 13일에는 진휼을 위해 전라도의 곡식을 제주도로 보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56]

이렇게 전라도의 곡식을 보냈음에도 제주도의 기근은 해결되지 못하였고 1795년 2월 진휼을 청하는 상소가 또다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조는 대신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다시 영남과 호남의 곡식을 제주도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것은 당시의 기근이 제주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조는 결단을 내려 금번 원행 때 쓸 경비 중 시급하지 않은 부분을 헤아려 정리소 구관 재정에서 1만 냥을 관찰사에게 보내 곡식으로 바꾸어 진휼토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57]

이러한 정조의 명령은 즉각 집행되었고, 3월 정리소의 돈을 곡식 1만 석으로 바꾸어 무사히 도착했으며 이에 도민들이 감사하고 있다는 제주목사의 장계가 그 시행내역을 첨부하여 올라왔다.[58] 정조는 진휼곡이 진찬일에 맞추어 도착한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기뻐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을 정리의궤청整理儀軌廳 총리대신에게 명한다.[59]

정조가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즉 진휼을 공식적인

52_ 『정조실록』, 정조 19년 2월 병인; 『일성록』 권21, 정조 19년 2월 14일, 707쪽;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전교, 을묘 2월 14일, 147쪽;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계사, 을묘 2월 14일, 423쪽.

53_ 『정조실록』, 정조 18년 10월 무인(『증보문헌비고』 170권, 시적고(市糴考) 8에는 『혜정연표(惠政年表)』로 되어 있음).

54_ 『정조실록』, 정조 18년 9월 계묘.

55_ 『일성록』 권21, 정조 18년 9월 17일.

56_ 『일성록』 권21, 정조 18년 10월 13일.

57_ 『정조실록』, 정조 19년 2월 병인; 『일성록』 권21, 정조 19년 2월 14일, 707쪽;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전교, 을묘 2월 14일, 147쪽;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계사, 을묘 2월 14일, 423쪽.

58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장계, 을묘 3월 10일, 42쪽.

59_ 『일성록』 정조 19년 3월 10일, 917~918쪽;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전교, 을묘 3월 10일, 187쪽.

국가기구와 재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행을 위한 자금을 직접 내려보내 시행하는 것은 그가 이 원행을 단지 왕실만의 행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반 백성에 대한 배려를 보여 주기 위한 계기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국왕이 공식 국가기구를 넘어서 일반 백성과 직접 접촉하여 이를 포용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2) 수원 둔전 개발에 투자하다

정조가 원행 자금을 용도 외로 전용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정조는 원행 자금을 한 번의 행사에 다 써 버리지 않았고 장기적인 화성 경영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투자하려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원행 자금을 수원의 둔전 개발에 투자하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795년 2월 7일 정리소에서는 수원 화성 북쪽에 신축한 둔전은 100곡斛을 뿌릴 수 있는 넓이로 경계를 정하여 값을 지불하고 매득하기로 하고 비용은 정리소의 쓰고 남은 돈과 관동의 곡식 가운데 다읍작전조多邑作錢條를 활용하라고 지시를 받았지만, 새로 개간한 곳의 밖에 있는 민전民田은 바야흐로 봄이 닥치기 전에 값을 지불하고 매득하여 씨를 뿌리지 않으면 때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으니 우선 정리소의 자금 1만 냥을 먼저 수원부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정조에게 아뢰고 있다.[60]

이에 정조의 윤허가 내려졌고, 이러한 윤허에 따라 1만 냥을 수원부에 보내기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수원유수는 정리소에 화성 둔전을 위한 돈 1만 냥을 수령하기 위해 장교를 보냈으니 하송하라는 관문을 보내오고 정리소는 이를 지급하였다.[61] 이리하여 정리소의 자금 1만 냥이 둔전에 투자되었고 1795년 윤2월 25일에는 이미 할당되었던 관동의 곡식 1만 석도 도착하여[62] 같은 해 가을에는 수원 둔전이 완성되었다.[63]

수원 둔전은 정조가 장기적인 화성 경영을 위해서 만석거萬石渠 등의 수리시설과 함께 마련한 것으로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화성과 행궁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화성의 장용영 외영이 말해 주듯이 자신의 통치를 위한 군사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원 둔전에 원행의 자금을 투자한 것은 수원 화성에 상인을 유치하기 위해 빌려 준 돈의 이식이 다시 원행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면 원행이 단지 하나의 행사만이 아니었고 장기적인 화성 건설 프로젝트와 깊숙이 맞물려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조는 원행을 위해 조성한 자금을 원행 자체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목적에도 전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민饑民을 위한 진휼에 사용함으로써 자

60_ 『일성록』 정조 19년 2월 7일, 677쪽; 『증보문헌비고』 재용고 2 국용;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계사, 을묘 2월 7일, 411쪽.
61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내관, 을묘 2월 7일, 115쪽.
62_ 『일성록』 정조 19년 윤2월 25일.
63_ 『일성록』 정조 19년 11월 7일.

신의 혜택이 일반 민인民人에게 직접 펼쳐지는 것을 과시하고, 다른 한편 수원 둔전에 투자함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위한 장기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 하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원행의 재정적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3) 재무 결산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원행은 마무리되었고, 재무 결산과 뒤처리만이 남게 되었다. 이 과정은 1795년 4월 1일 진휼청 낭청이 정리소에 보고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64] 먼저 정리소는 원행의 재무 결산을 위해 진휼청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고 있다.

> 一. 진휼청에 유치되어 있던 물력物力이 10만 3,061냥 8전인데 그 가운데 1만 냥은 탐라 진휼을 위한 자금으로 획급하고, 1만 냥은 화성 둔전을 위한 자금으로 보내고, 7만 냥은 장용영에서 빌린 것을 갚기 위해 장용영으로 보낼 것.
> 一. 여기에 정리소의 전후 가져온 것 1만 냥과 경기감영에 보낸 1만 냥을 합하면 총 지출액이 11만 냥으로 원래 정해진 액수보다 6,938냥 2전이 초과하였으니 이를 정리소에서 실어 갈 것.
> 一. 진휼청에서 가져온 포목은 총 목 75동과 포 24동 가운데 목 10동과 포 4동의 값은 이미 원래 가져올 돈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이를 제한 목 65동과 포 20동 중 본소에서 쓴 목 41동 34필(매필 2냥씩 4,168냥)과 포 4동 45필(매필 1냥씩 245냥)의 값 4,413냥을 싣고 가고, 남은 목 13동 16필, 포 15동 5필은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제작하는 데 쓰일지 모르니 본소의 지시에 따라 거행하기 위해 유치해 둘 것.

이러한 정리소의 지시에 따라 진휼청에서는 7만 냥은 장용영에 보내고 원래 정해진 것보다 초과한 액수 6,938냥 2전과 포목을 돈으로 환산한 4,413냥을 곧 싣고 오겠으며, 나머지 포목은 추후 지시를 기다리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행사의 진행과정에서는 재정운영을 정리소와 장용영이 주도가 되어 시행하였고, 행사가 끝난 후 비로소 진휼청과 사후 정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해 4월 28일 정리소는 진휼청에 다시 감결을 보내 원행 때 각종 용도로 정해진 12만 1,613냥 6전 중 10만 3,061냥은 이미 가져다 썼는데 나머지 1만 8,551냥 8전은 아직 처리하지 않은 돈을 갚아야 하니 곧 보내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휼청에서는 이 돈을 정리소로 보내고 있다.[65] 여기서는 원행의 용도로 구획된 돈이 4월 1일의 기록과는 달리 12만 1,613냥 6전으로 늘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월 1일의 기록에서 맡겨 둔 돈의 총액이라고 한 10만 3,061냥이 여기서는 이미 가져다 쓴 돈으로 나타나고 있다. 4월 1일에서 28일의 사이에 추가로 배당된 것으로 생각

6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내관, 을묘 4월 1일, 135쪽.
65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내관 을묘 4월 28일, 137쪽.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혹시 확정된 진휼청 유치전 총액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간다. 원행자금의 출급을 진휼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장용영에서 빌리는 복잡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의심은 더욱 커지게 된다. 즉 원행의 재정 운영을 정리소와 장용영이 주도하여 시행하며 단지 그 재원의 조달처만 진휼청으로 할 것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총액은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원행의 재정은 마무리되었다.

4) 을묘정리곡乙卯整理穀을 마련하다

이상과 같이 재무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에 쓰고 남은 자금에 대한 처리문제가 제기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는 1794년 12월 원행자금의 출납을 정리소의 당상 윤행임에게 맡기면서 이 자금은 가급적 절약하여 남은 부분이 있으면 백성과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66] 정조는 애초 자금을 아껴서 별도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정조는 행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윤2월 28일 정리소의 쓰고 남은 돈 4만 냥 중 화성 둔전 설치와 제주의 진휼에 각각 1만 냥씩 쓰고 나머지 2만 냥은 전국에 나누어 보내 을묘정리곡乙卯整理穀으로 삼으라는 하교를 내리고 있다.[67] 이에 정리소에서는 나누어 보낼 수량과 거행 조건을 절목으로 정해 지방관에게 보내는 것이 어떨지 정조에게 아뢰고 있다.[68] 그에 따라 「삼도팔도을묘정리곡설치절목三都八道乙卯整理穀設置節目」이 정해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69]

一. 정리소 구획전 10만 3,061냥 가운데 원행 때 쓰인 6만 3,061냥과 화성 둔전에 쓰인 1만 냥, 탐라 진휼에 쓰인 1만 냥을 제하고 남은 2만 냥을 팔도와 삼도三都에 분배하여 여러 읍에 나누어 곡물로 바꾸어 을묘정리곡이라 이름한다.

一. 각 도 관찰사는 읍치의 대소를 헤아려 고루 나누어 곡물로 바꾼 뒤 읍명과 수량을 기록하여 보고하며 이는 비변사 유사당상이 구관하고 해마다 조적糶糴하여 이식과 함께 회록會錄하여 매년 말 보고하며 3도都도 마찬가지로 시행할 것.

一. 정리곡은 자궁慈宮의 은혜를 펼치는 것이므로 다른 환곡과 비교할 수 없으니 나누어 줄 때나 거두어들일 때 폐단이 없도록 하고 폐단이 있으면 지방관은 논죄할 것.

一. 정리곡을 매년 조적하여 이식이 쌓이게 되면 차후 폐단이 생길 것이 우려되니 7년을 한정하고 4만 석을 표준으로 하여 매년 불어나는 이식은 화성유수 겸 정리사에게 획급하여 행궁 정리整理의 용도에 쓰게 할 것.

一. 정리곡은 각 아문의 곡식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창고를 마련하여 표시를 해 두고 이를 나누어 주거나 거두어들일 때 백성들이 이것이 자은慈恩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66_ 『일성록』 권21, 정조 18년 12월 13일, 476쪽;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연설, 갑인 12월 11일, 215쪽.

67_ 『정조실록』, 정조 19년 3월 경술.

68_ 『일성록』, 정조 19년 윤2월 28일, 875~876쪽; 『증보문헌비고』 170, 시적고 8, 진휼;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계사 을묘 윤2월 28일, 470쪽.

69_ 『일성록』, 정조 19년 윤2월 28일; 『증보문헌비고』 167, 시적고 5, 각도 환곡수, 154~157쪽;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절목, 380~383쪽.

이러한 절목에 따라 2만 냥이 3도都와 8도에 분배되었다. 이 정리곡의 배분과 수송은 정리소에서 맡아서 시행하였다.[70] 정리곡의 각 도별 분배 내역은 〈표 8〉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역시 삼남 지방에 많은 액수가 분배됨을 알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관서에 삼남 지방 못지않게 많은 액수가 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3도都 가운데는 화성에 많은 액수가 분배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곡이 화성과 관계있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 지역별 을묘정리곡 분배 내역[71]

지역	영남	호서·호남·관서	경기	화성·관동·해서·관북	송도·강화
액수	4,000냥	각 3,200냥	2,000냥	각 1,000냥	각 200냥

이렇게 을묘정리곡이 분배됨에 따라 같은 해 3월부터는 각 도에서 정리곡을 수령하여 각 읍에 분배하였다는 장계가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각 도별 분배 양상은 지역마다 다르다. 경기도의 경우는 각 군현별 배분 내역은 〈표 9〉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관하 군현을 6등급으로 나누어 액수의 차등을 두어 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일괄적으로 조租로 바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배방식, 즉 모두 조租로 바꾸어 분배하는 방식은 경기도와 삼남 지방에서 취해졌다. 이것은 이 지역이 미작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9> 경기도 각 군현 을묘정리곡 분배 내역[72]

군현	액수	조(租)로 바꿈
광주, 여주, 양주, 파주, 장단	90냥	90석
죽산, 남양	80냥	80석
부평, 인천, 통진, 이천, 풍덕, 안성, 삭녕	70냥	70석
교동, 고양, 용인, 진위, 과천	60냥	60석
가평, 영평, 양성, 시흥, 포천, 양지, 지평, 음죽	40냥	40석
마전, 양천, 연천, 적성	30냥	30석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작이 취약한 북부 지방에서는 이와는 다른 방식이 취해졌다. 즉 지역적인 조건에 따라 각종 잡곡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를 평안도의 경우를

70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감결, 을묘 윤2월 28일, 154쪽.
71_ 『일성록』, 정조 19년 윤2월 28일; 『증보문헌비고』 167, 시적고5, 각도 환곡수, 154~157쪽;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절목, 380~383쪽.
72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장계, 을묘 3월 3일, 37쪽.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평안도의 각 군현별 을묘정리곡 분배 내역은 〈표 10〉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평안도의 경우 읍세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경기도와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적 여건에 따라 보리, 기장, 옥수수, 밀 등 여러 가지 잡곡으로 바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강원도와 황해도, 함경도도 이러한 분배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10> 평안도 각 군현 을묘정리곡 분배 내역[73]

군현	액수(냥)	잡곡으로 바꿈(석)	
평양, 강서, 용강, 삼화	90	보리	90
영유, 숙천, 안주, 정주, 영변		기장	90
선천, 의주, 중화		옥수수	90
성천, 강계, 초산, 벽동		밀	90
순안, 용천, 함종	75	보리	75
석가산, 구성, 개천, 박천, 삭주		기장	75
철산, 상원, 창성, 자산, 순천		옥수수	75
희천, 위원, 덕천		밀	75
곽산, 은산	56	보리	56
증산, 강동		기장	56
삼등, 양덕, 영원, 맹산, 운산		옥수수	56
태천		밀	56

수원부의 경우는 모두 조租로 바꾸어 창고별로 분배되었다. 창고별 분배 내역은 산창山倉 144석, 사창社倉 145석, 설창設倉 118석, 해창海倉 41석, 쌍창雙倉 101석, 사창司倉 220석 3두 5승이었다.[74] 이들 각 창고는 소재지 부근 면의 환곡 수납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각 창고에 분배된 조租의 수량을 합하면 769석 3두 5승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1냥당 1석으로 환산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수원유수는 1석당 1냥 3전으로 환산하여 조租로 바꾸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분배 양상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5) 을묘정리곡, 수원에 모이다

이렇게 분배된 을묘정리곡은 곧 백성들에게 분배되었다. 그리하여 그해 가을이 되면 지방관들이 이를 거두어들이고 나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절목에 따라 거두어들여 별도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 곡식이 다른 환곡과

73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장계, 을묘 3월 10일, 49쪽.
74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장계, 을묘 3월 24일, 61쪽.

그 의미가 현격하므로 백성들이 추호라도 체납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례적인 보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을묘정리곡의 운영을 둘러싸고 많은 폐단이 빚어지고 있었다. 1795년 11월 14일 비변사에서는 계를 올려 호서 지방에서는 을묘정리곡을 분배하는 데 읍의 규모에 따르지 않고 불균등하게 분배하고 있으며, 면임과 이서배가 부유한 집[饒戶]에 강제로 떠맡기고, 곡가도 매석 1냥으로 하지 않는 등 폐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호서가 이렇다면 다른 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75]

이에 따라 정조는 수령들이 정리곡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떠맡기고 있다는 충청도 어사의 장계가 올라왔으니 이들 수령을 엄하게 단죄하라는 전교를 내렸다.[76] 정리소에서는 이러한 전교에 따라 각 도에 분배의 불균, 뇌물수수 여부, 강제 분배 등의 폐단이 있는지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77]

정조가 이렇게 단속을 하였지만 을묘정리곡을 둘러싼 폐단은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인 1797년 가을에도 이러한 문제는 다시 발생하였다. 우참찬 심환지는 을묘정리곡을 둘러싸고 지방에서 폐단이 많으니 엄하게 조사하여 적발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는 계를 올렸다. 그러자 정조는 당초에 정리곡을 설치한 뜻은 주자[朱子]가 사창[社倉]을 둔 것과 같이 봄에 나누어 주고 가을에 거두어들여 우리 백성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니 개탄스럽다고 하였다.[78]

그런데 이때 또 하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당시 을묘정리곡 이외에 '정리곡[整理穀]'이란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해 11월 정조는 지금 정리곡이라는 명칭으로 쓰이는 것이 두 가지 있으니 수성향곡[修城餉穀] 또한 정리곡이라 일컬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때문에 을묘정리곡이 수성향곡과 섞여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79]

여기서 말하는 수성향곡이란 1795년 4월 마련한 화성행궁정리수성곡[華城行宮整理修城穀]을 뜻하는 것이다. 당시 비변사에서 올린 「화성행궁정리수성곡조적절목[華城行宮整理修城穀糶糴節目]」에 의하면 수성곡은 화성과 행궁의 유지를 위해서 비변사에서 구관하는 정곡[正穀] 1만 석과 피곡[皮穀] 2만 석을 팔도의 주현에 나누어 두어 조적[糶糴]하도록 한 것이다.[80] 이는 추후에 비변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을묘정리곡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이 수성곡의 명칭에도 '정리[整理]'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뒤섞여 버린 것이다. 정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듬해 2월 여러 도에 명하여 수성정리곡을 비변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곡식에 합쳐 버리고, 여기에 다시는 정리곡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81]

그러나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을묘정리곡 자체에서 일어난 폐단

75_ 『정조실록』, 정조 19년 11월 병진; 『일성록』 정조 19년 11월 9일;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계사 을묘 11월 9일, 482쪽.
76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전교, 을묘 12월 9일, 203쪽.
77_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중, 이문, 을묘 11월 10일, 108쪽.
78_ 『정조실록』, 정조 21년 10월 임인.
79_ 『정조실록』, 정조 21년 11월 을미.
80_ 『정조실록』, 정조 19년 4월 을미.
81_ 『정조실록』, 정조 22년 2월 무술.

도 해결하여야 하였다. 정조는 1798년 2월 수원에 행차하여 대신들과 정리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상의하였다. 정조는 애초에 을묘정리곡을 설치할 때 이를 화성에만 속하도록 하여 이자를 면제해 주려고 하였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이와 달라서 부득이 각 도에 나누어 주어 생모인 혜경궁 홍씨의 은혜를 넓게 펴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나누어 주고 거두어들일 때 폐단이 없지 않으니 이는 결코 나의 본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곡식을 모두 화성부에 속하도록 하고 이자를 면제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묻고 있다. 이에 대신 가운데에는 이자를 반만 면제해 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조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모두 정조의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82]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에는 모든 정리곡을 화성에 속하게 하라는 전교가 내려오게 되었다.[83]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을묘정리곡은 모두 화성부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짚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비변사에서 구관하는 수성곡과 을묘정리곡이 섞이는 데 대해서 정조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삼도팔도을묘정리곡설치절목」에서도 을묘정리곡이 다른 관서의 곡식과 섞이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정조가 이 자금을 국가의 공식 재정과 별도로 유지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조는 을묘정리곡이 비변사에서 관리하는 수성곡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성곡을 비변사에서 관리하는 일반곡과 합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주목되는 것은 정조가 추후에 밝히고 있듯이 그가 애초에는 을묘정리곡을 모두 수원부에 속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신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면 그는 왜 을묘정리곡을 모두 수원부에 집중시키려 하였을까? 그가 원행 자금의 일부를 화성 둔전에 투자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것 또한 수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원을 자신의 정치적 거점의 하나로 성장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을묘정리곡의 설치와 운영은 당시의 상황에서 예민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6) 을묘원행 재정 운영의 특징

이상에서 을묘원행의 재정 운영방식과 내용 그리고 남은 자금을 화성 경영에 투자하는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정 운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을묘원행에서 나타난 정조의 재정 운영방식은 그의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방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정조는 을묘원행의 재정 운영을 통하여 공식 국가기구와 별도로 재

82_ 『정조실록』, 정조 22년 2월 병신; 『정조실록』, 정조 22년 2월 정유.
83_ 『정조실록』, 정조 22년 5월 임진.

정을 조성하고 있으며, 재정의 조달과 지출도 정리소로 일원화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공식 국가기구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였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식 국가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신료들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독자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원행을 위해 조성한 자금의 지출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정조는 원행을 위해 조성한 자금을 원행 자체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 행위 일반에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 진휼이나 을묘정리곡의 경우 원행 자금을 이에 원용하여서 정조는 국가 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반 백성들과 접촉하려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 운영은 단지 일반 백성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었다. 정조가 원행을 위한 자금을 수원 둔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을묘정리곡을 결국 수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때 그는 원행자금의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거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수원을 성장시키려 하였다. 즉 정조는 원행을 통해서 재정을 조성하여 이의 운영을 통해 그의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독자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종 때의 인물인 이사철은 "군주가 머무는 곳을 행재라고도 하고 또 행궁이라고도 하니, 비록 행행 중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간소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언급을 하였다. 이사철의

궁궐을 지칭하다. 과거 동양의 군주제에서 왕은 땅과 백성의 주인으로 이념화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은 온 천하를 자신의 거처, 즉 궁궐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념적으로만 본다면

궐이 소재한 곳이 도성이고 수도이다. 하지만 왕은 천하를 거처로 삼는다는 이념에 따라 수시로 도성의 궁궐을 벗어나 행행한다. 그러므로 왕을 위한 궁궐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

. 이 같은 명칭들은 조선시대 궁궐의 용도와 왕의 역할을 잘 보여 준다. 법궁이나 이궁은 왕이 상주하는 도성 안에 건설된 궁궐이었다. 그중에서 법궁은 왕권을 상징하는 최고의 궁

하였다. 이궁은 법궁에 비해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별궁이라는 하였다. 경복궁이 있을 때의 창덕궁, 창경궁이 이궁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창덕궁이 법궁인 시기에는 경운궁, 경희궁

다. 이들은 모두가 궁궐 밖에 개인 집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태조 이성계를 비롯하여 태종, 세조, 효종 등이 모두 그런 경우이다. 이들은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이 살던 집을 본궁이라

는 곳곳에 지어 놓은 궁궐이다. 따라서 행궁은 먼저 군주의 행행을 전제로 한다. 과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군주는 수시로 도성의 궁궐을 떠나 천하를 행행했고, 행행 중에 머물면

도성의 궁궐을 떠났을 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행궁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험지와 평지 또는 밤과 낮 등에 따라 거궁, 단유궁, 유궁, 무궁 같은 행궁이 마련되었다. 거궁은 왕

잠깐 앉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천막으로 만든 행궁이었고 무궁은 왕이 행행 중 잠깐 누군가를 만나거나 무엇인가를 구경하기 위해 머물 때 특별한 시설 없이 단지 긴장한

의 행궁 중에서 기준이 되는 행궁은 역시 평지에 마련되는 단유궁이었다. 거궁, 유궁, 무궁은 단유궁을 만들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즉 거궁은 흙으로 단

궁의 기준이 되기에 「주례」에는 단유궁의 제도에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주례」에 의하면 단유궁은 왕이 특별한 일로 제후들을 회합시키기 위해 도성 밖에 만드

회, 순수 등의 경우에 왕은 도성의 궁궐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때 임시로 머물기 위한 행궁으로서 단유궁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단유궁은 기본적으로 흙을 쌓아 단을 만들고 단

사방의 담장마다 하나의 문을 두어 사문을 설치하였다. 사방 300보의 단유궁을 보호하기 위해 흙으로 만든 담장을 둘렀다. 담장 안의 단은 사방 넓이가 각각 90척이고 높이가 4척

자리했고, 공은 상등에 자리했으며 후백은 중등에 자리했고, 자남은 하등에 자리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의 단유궁은 도성 안의 궁궐을 본떠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왕이 도성 밖

에 소재하는지 아니면 도성 밖에 소재하는지 여부이다. 이와 함께 도성 안의 궁궐은 건축물이 상시로 존속하는 데 비해 도성 밖의 행궁은 건축물이 상시로 존속할 수도 있고 아니

다. 설문해자에 의하면 궁은 면과 여가 합쳐진 회의 글자인데, 면은 집의 밖을 둘러싼 시설물이고, 여는 면으로 둘러싸인 내부의 공간이었다. 즉 의례와 역사를 통해 볼 때 궁궐 또

수원 SUWONHWASEONG 수원 SUWONHWASEO
SUWONHWASEO
화성 SUWONHWASEONG SUWONHWASEONG 화성 SUWON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수원화성 SUWON
SUWONHWASEONG SUWONHWASEONG SUWONHWASEONG

하는 궁성 그리고 도읍 전체를 보호하는 도성이 축조되었다.그런데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건축 중에는 목조기와 건축이 없었다. 당시에는 아직 기와를 굽는 기술이 없었기 때

이 등장하였다. 기와와 함께 와질토기가 발달하였다. 삼국시대 이래로 목조기와 건축이 지배자와 종교를 위해 이용되면서 목조기와로 된 궁궐과 사찰이 발달하였다. 이런 목조건축

현에 구원으로 천렵을 자서 10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는데, 11월에 구원의 행궁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구원행궁은 도성 궁궐에 대비한 궁궐이

능을 도성의 궁궐 이외에, 천렵 등을 대비하여 도성 밖의 행궁도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천렵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건립된 행궁이 존재했는지, 행궁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서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기록은 고려사의 지 기록이다. 이의 기록에 보이는 행궁은 왕의 능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사국이 능의 근처에 행궁을 마련한다고 한 점으로

의 근처에 마련한 행궁은 능실 곁에 마련된 소차에 비해 큰 천막인 대차였던 것이다. 고려시대 왕이 능행하는 이유는 물론 능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는데, 고려시대의 능 제사

고려시대 왕의 능 제사 또는 원구단 제사 이외에도 오례와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행행이 거행되고 아울러 행궁도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명확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례의 중요성에 따라 대가, 법가, 소가의 세 가지 의장으로 구분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에 따르면 왕은 조칙을 맞이할 때, 종묘와 사직에 제사할 때 대가 의장을 사용하였다. 이 의

장을 사용하였다. 위의 대가, 법가, 소가 의장을 조선시대의 오례와 관련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먼저 왕은 조칙을 맞이할 때, 종묘와 사직에 제사할 때에는 대가 의장을 사용하

와 같이 행행 중에서 묵으로 정해진 날짜의 제사는 오례 중의 길례였고 사단에서 활쏘기 하는 의식은 오례 중의 군례였으며 군과 전시 거행은 오례 중의 가례였다. 마지막으

밖에 행행하였으며 동시에 오례를 거행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행궁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왕이 거행하였던 오례는 대치와 외교 등 통치활동 전반을 포괄하였다. 따라

윤리를 솔선수범하기 위한 통치활동과 직결되었다. 조선시대에 왕릉 중 상당수가 도성 밖에 위치하였기에 왕은 능 제사를 위해 수시로 도성의 궁궐을 떠나야 했다. 또한 어떤 왕릉

었다. 한편 왕의 국토방위 및 군사훈련을 위해 건설된 행궁도 있었다. 조선시대의 국토 방위체제는 수도 방위가 중심이었다. 왕이 상주하는 궁궐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

대비하여 내성이 되었다.

지역이므로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수도 방어를 책임지게 하였다. 아울러 이곳에 각각 행궁을 건설하여 만약의 사태에 왕이 대피할 수 있게 하였다. 개성행궁, 강화행궁, 화성행궁,

아울러 도성을 외곽에서 방어하기에 적당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chapter 6

화성 행궁

01 행궁제도와 화성행궁
02 화성행궁의 배치와 구조
03 화성행궁의 주요 건물
04 시민과 관이 함께한 화성행궁 복원

SUWON HWASEONG

신명호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01
행궁제도와 화성행궁

1. 조선시대의 행궁제도

세종 때의 인물인 이사철은 "군주가 머무는 곳을 행재行在라고도 하고 또 행궁行宮이라고도 하니, 비록 행행行幸 중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간소해서는 안 됩니다."[1]라는 언급을 하였다. 이사철의 언급은 과거 동양의 군주제에서 행재 또는 행궁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고 있다. 간단히 말해 행재 또는 행궁이란 다양한 궁궐 중에서 군주가 특별히 행행 중에 머무는 궁궐을 지칭한다.

과거 동양의 군주제에서 왕은 땅과 백성의 주인으로 이념화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은 온 천하를 자신의 거처, 즉 궁궐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념적으로만 본다면 어느 곳이든 왕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궁궐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는 특정한 곳에 건물을 세우고 머문다. 왕이 상주하는 곳, 그곳이 궁궐이고 왕의 상주 궁궐이 소재한 곳이 도성이고 수도이다. 하지만 왕은 천하를 거처로 삼는다는 이념에 따라 수시로 도성의 궁궐을 벗어나 행행한다. 그러므로 왕을 위한 궁궐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이다. 왕을 위한 궁궐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궁궐의 명칭도 각각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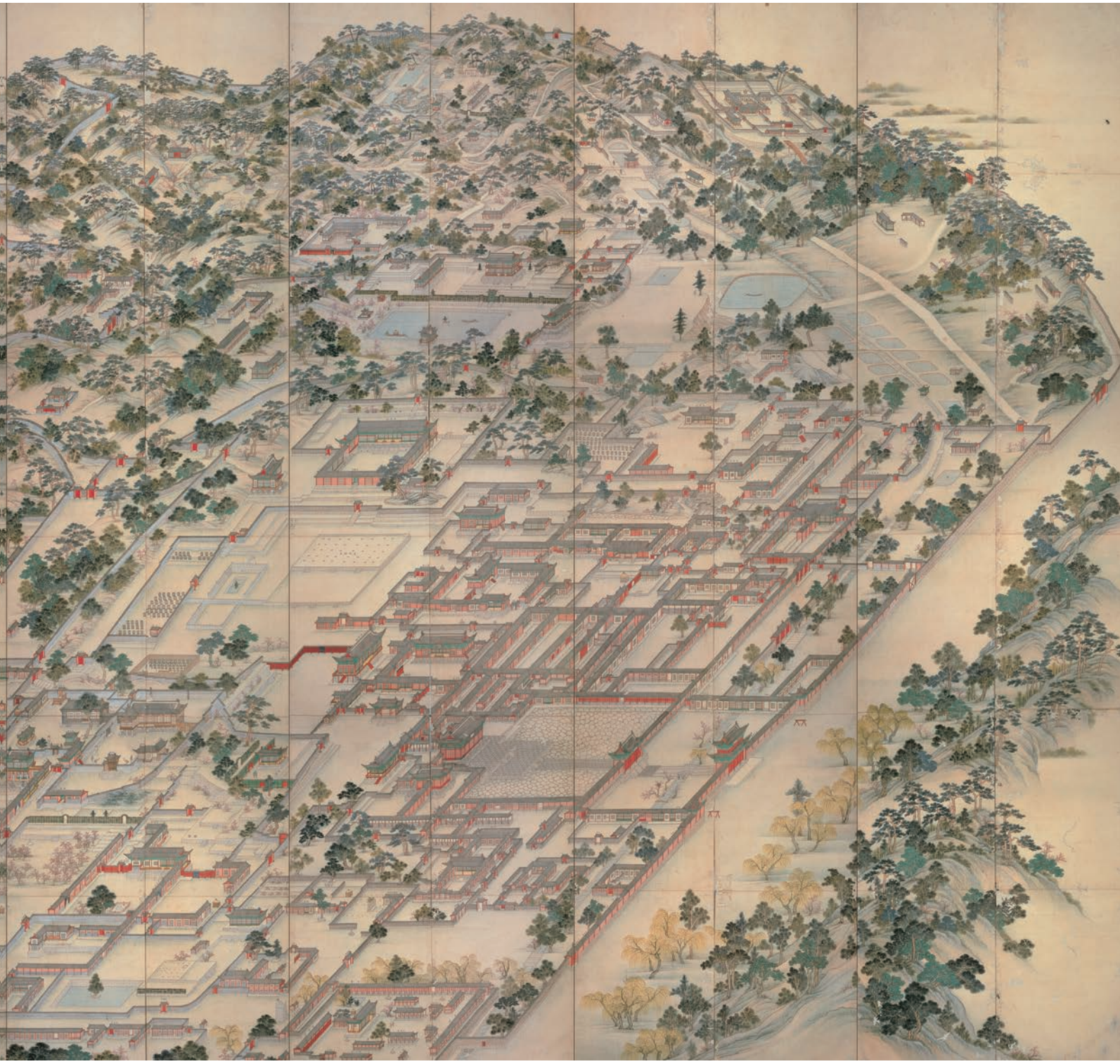
조선시대 왕이 거처하는 궁궐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법궁法宮, 정궁正宮, 이궁離宮, 별궁別宮, 행궁, 장전帳殿, 본궁本宮 등이 있었다. 이 같은 명칭들은 조선시대 궁궐의 용도와 왕의 역할을 잘 보여 준다.[2]

법궁이나 이궁은 왕이 상주하는 도성 안에 건설된 궁궐이었다. 그중에서 법궁은 왕권을 상징하는 최고의 궁궐로 정궁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1_ 『세종실록』 권24, 세종 24년 2월 23일 갑인. "思哲更啓曰 人君所駐 旣曰行在 又曰行宮 則雖在行幸 不可以太簡也."
2_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1999, 45~48쪽.



조선왕실의 궁궐(「동궐도」,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한양에 건설한 경복궁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법궁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이 소실된 이후에는 창덕궁이 법궁의 역할을 하였다.

이궁은 법궁에 비해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별궁이라도 하였다. 경복궁이 있을 때의 창덕궁, 창경궁이 이궁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창덕궁이 법궁인 시기에는 창경궁, 경운궁, 경덕궁 등이 이궁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본궁은 왕이 되기 이전에 거처하던 개인 집이 있을 경우에 그 집을 부르는 명칭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세자가 아니면서 즉위한 왕이 여럿 있었다. 이들은 모두가 궁궐 밖에 개인 집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태조 이성계를 비롯하여 태종, 세조, 효종 등이 모두 그런 경우이다. 이들은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이 살던 집을 본궁이라 하여 궁궐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였다. 본궁은 일명 잠저潛邸라고도 하였는데, "용이 하늘에 오르기 전 잠시 숨어 있던 집"이란 의미였다.

이에 비해 행궁은 천하를 거처로 삼는 왕이 자주 가는 곳곳에 지어 놓은 궁궐이다. 따라서 행궁은 먼저 군주의 행행을 전제로 한다. 과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군주는 수시로 도성의 궁궐을 떠나 천하를 행행했고, 행행 중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행재 또는 행궁을 마련했던 것이다. 행재는 행재소行在所라고도 하는데, 동양의 행재소 또는 행궁제도의 원리는 중국의 『주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례』에 의하면 왕이 도성의 궁궐을 떠났을 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행궁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험지와 평지 또는 밤과 낮 등에 따라 거궁車宮, 단유궁壇壝宮, 유궁帷宮, 무궁無宮 같은 행궁이 마련되었다. 거궁은 왕이 행행 중 험난한 곳에서 머물 때 수레를 이용해 울타리를 만든 행궁이었고,[3] 단유궁은 왕이 행행 중 평지에서 머물 때 흙으로 담장을 만든 행궁이었다.[4] 또한 유궁은 왕이 행행 중 낮에 잠깐 일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천막으로 만든 행궁이었고[5] 무궁은 왕이 행행 중 잠깐 누군가를 만나거나 무엇인가를 구경하기 위해 머물 때 특별한 시설 없이 단지 건장한 호위병들만 둘러서게 하는 행궁이었다.[6]

결국 『주례』의 행궁은 왕이 행행 중 잠깐이라도 머물기 위해 마련하는 모든 시설물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례』에 등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궁 중에서 기준이 되는 행궁은 역시 평지에 마련되는 단유궁이었다. 거궁, 유궁, 무궁은 단유궁을 만들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즉 거궁은 흙으로 담장을 만들 수 없는 험난한 곳이기에 흙 담장 대신에 수레로 울타리를 만든 행궁이었고, 유궁이나 무궁은 잠깐 머물기 위해 흙 담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행궁이었던 것이다. 단유궁이 행궁의 기준이 되기에 『주례』에는 단유궁의 제도에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3_ 『주례주소』 천관(天官), 장사(掌舍)-정현 주. "設車宮轅門〈謂王行止宿阻險之處 備非常 次車以爲藩 則仰車以其轅 表門〉."
4_ 『주례주소』 천관, 장사-정현 주. "爲壇壝宮〈謂王行止宿平地 築壇又委壝土起堣埒〉.".
5_ 『주례주소』 천관, 장사-정현 주. "爲帷宮〈謂王行晝止有所展肆若食息 張帷爲宮〉."
6_ 『주례주소』 천관, 장사-정현 주. "無宮則共人門〈謂王行有所逢遇 若住遊觀 陳列周衛 則立長大之人 以表門〉."

『주례』에 의하면 단유궁은 왕이 특별한 일로 제후들을 회합시키기 위해 도성 밖에 만드는 행궁이었다.[7] 왕이 제후들을 회합시키는 특별한 일에 대하여 정현鄭玄은 왕이 도성 밖에서 거행하는 춘하추동의 제사, 제후들의 춘하추동 조회, 왕의 순수巡守 등을 사례로 들었다.[8] 즉 제사, 조회, 순수 등의 경우에 왕은 도성의 궁궐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때 임시로 머물기 위한 행궁으로서 단유궁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단유궁은 기본적으로 흙을 쌓아 단을 만들고 단 주변에 흙으로 만든 담장을 둘렀다.[9] 단유궁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하여 정현은 『의례儀禮』 '근례覲禮'를 인용하였는데, 그것에 의하면 단유궁의 제도는 다음과 같았다. 단유궁의 사방은 300보이고 사방의 담장마다 하나의 문을 두어 사문四門을 설치하였다.[10] 사방 300보의 단유궁을 보호하기 위해 흙으로 만든 담장을 둘렀다.[11] 담장 안의 단壇은 사방 넓이가 각각 96척이고 높이가 4척이었다.[12] 단 위에는 상등, 중등, 하등으로 3층의 흙을 쌓아 올리고 맨 위에 당堂을 세우는데, 당 안에 사방의 신명神明을 놓았다.[13] 이 같은 단유궁에서 왕이 제후를 접견할 때, 왕은 단 위의 당에 자리했고, 공은 상등에 자리했으며 후백侯伯은 중등에 자리했고, 자남子南은 하등에 자리하였다.[14] 이와 같은 모습의 단유궁은 도성 안의 궁궐을 본떠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왕이 도성 밖에 행궁을 만든 이유는 제사, 조회, 순수 등 왕의 공식적인 업무를 도성 안의 궁궐에서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상의 사실을 놓고 보면 궁궐과 행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성 안에 소재하는지 아니면 도성 밖에 소재하는지 여부였다. 이와 함께 도성 안의 궁궐은 건축물이 상시로 존속하는 데 비해 도성 밖의 행궁은 건축물이 상시로 존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시만 존속할 수도 있으며 더 심하게는 건축물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었다.

반면 궁궐이나 행궁은 근본적으로 왕의 업무를 위한 건축물, 즉 집이라는 점에서는 같았다. 『설문해자說問解字』에 의하면 궁은 면宀과 여呂가 합쳐진 회의會意 문자인데, 면은 집의 밖을 둘러싼 시설물이고, 여는 면으로 둘러싸인 내부의 공간이었다.[15] 즉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궁궐 또는 행궁이란 집이라고 하는 건축물의 출현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초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집은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있었다. 구석기시대에 인류가 바위 아래나 동굴 안 또는 절벽의 틈, 나무의 위처럼 안전하기도 하고 아늑한 곳을 집으로 삼거나 움막처럼 임시 거처居處를 만들었던 것이 원초적인 의미에서 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집들은 정착을 위한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버리고 가는 임시 거처라는 면에서 정착 이후의 영주 거처와 달랐다.

영주 거처는 인류의 정착결과로 나타난 문화현상이었다. 인류의 정착은 농경문화

7_ 『주례주소』, 추관(秋官), 사의(司儀). "將合諸侯 則令爲壇三成 宮 旁一門."

8_ 『주례주소』, 추관, 사의-정현 주. "天子春帥諸侯 拜日於東郊 則爲壇於國東 夏禮日於南郊 則爲壇於國南 秋禮山川丘陵於西郊 則爲壇於國西 冬禮月四瀆於北郊 則爲壇於國北 旣拜禮而還 加方明於壇上而祀焉 所以敎尊尊也 覲禮曰 諸侯覲於天子 爲宮方三百步 四門 壇十有二尋 深四尺是也 王巡守殷國而同 則其爲宮亦如此與."

9_ 『주례주소』, 추관, 사의-정현 주. "宮謂壝土以爲牆處 所謂爲壇壝宮也."

10_ 『의례』, 근례. "諸侯覲于天子 爲宮 方三百步."

11_ 『의례』, 근례-정현 주. "宮謂壝土爲埒以象墻壁也."

12_ 『의례』, 근례. "壇十有二尋 深四尺."

13_ 『의례』, 근례-정현 주. "司儀職曰 爲壇三成 成猶重也 三重者 自下差之爲三等 而上有堂焉."

14_ 『의례』, 근례-가공언 소. "王在堂上 公在上等 侯伯於中等 子南於下等."

15_ 『설문해자』 궁. "按說宮謂從宀呂會意 亦無不合 宀繞其外 呂居其中也."

와 직결되었다. 농경문화 이전 단계에서는 먹을 것을 찾아 끝없이 헤매야 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정착이나 인구밀집은 불가능하였다. 그런 단계가 바로 구석기시대의 수렵이나 채집과 같은 단계였으며, 그런 단계에서 나타난 집이 일종의 임시 거처로서 동굴이나 바위 아래 등이었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에 농경문화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신석기 시대에 인류 최초로 영주 거처로서의 집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 약 1만 년 전에 신석기시대가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신석기 사람들의 집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신석기 사람들의 집은 이른바 움집으로서 지붕과 벽면의 구분도 없었으며, 기와도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신석기시대는 아직 원시공동체 사회였기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집이 크게 구별되지도 않았다. 그런 면에서 신석기시대에는 아직 왕과 왕비의 주거지로서의 궁궐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신석기시대의 움집은 인류의 역사에서 '건축문화' 및 '주거문화'의 시작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는 석기문명을 대신하여 청동기 문명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청동기문명이 확산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그와 동시에 생산물에 대한 쟁탈 전쟁이 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복과 피정복이 빈발하고 그 결과로 지배와 피지배관계가 형성되었다. 지배자는 점점 더 많은 물자와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그것은 거주지에서도 지배자의 거주지로 나타났다. 청동기시대의 집은 신석기시대의 움집과는 다르게 지상으로 올라왔다. 동시에 집에서 벽면과 지붕이 구분되기 시작하였고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즉 환호環濠와 목책木柵등이 등장하였다. 또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집은 규모와 화려함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런 경향은 철기시대로 접어들어 왕이 출현하고 고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고대왕국이 형성되면서 왕의 거주지로서 궁궐이 형성되고 그 궁궐을 보호하는 궁성 그리고 도읍 전체를 보호하는 도성이 축조되었다.

그런데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건축 중에는 목조기와 건축이 없었다. 당시에는 아직 기와를 굽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역사에서 기와는 한사군漢四郡이 있던 서기전 2세기에서 1세기 무렵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한반도의 북부 지역에는 목조기와라고 하는 새로운 건축기술이 등장하였다. 기와와 함께 와질토기瓦質土器가 발달하였다.

삼국시대 이래로 목조기와 건축이 지배자와 종교를 위해 이용되면서 목조기와로 된 궁궐과 사찰이 발달하였다. 이런 목조건축기술이 그대로 고려 및 조선의 궁궐 건축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역사 기록을 통해 볼 때, 행궁은 삼국시대 기록에서부터 확인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진사왕辰斯王이 392년(진사왕 8) 10월에 구원狗原으로 전렵田獵을 가서 10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는데, 11월에 구원의 행궁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16] 이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구원행궁은 도성 궁궐에 대비한 궁궐이 확실하며, 건립 목적은 왕의 전렵, 즉 군사훈련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행궁은 백제를 위시하여 고구려, 신라에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삼국시대에 각국의 왕들은 도성의 궁궐 이외에 전렵 등을 대비하여 도성 밖의 행궁도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렵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건립된 행궁이 존재했는지, 행궁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왕의 어떤 업무와 관련하여 행궁이 운영되었는지 등에 관련된 기록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고려시대에는 왕의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행궁이 운영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기록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기록은 『고려사』의 지志 기록이다.

> 왕이 능에 참배하기 위해 출발하기 하루 전에 태묘에 아뢰기를 평상시의 의식대로 한다. 담당 관사는 미리 참배할 능과 능실陵室 안을 정결하게 소제하여 정숙하게 한다. 상사국尙舍局은 능의 근처에 행궁을 마련하고 왕의 자리 깔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행궁은 모두 능소陵所 앞에 적당한 곳을 가려서 마련한다. 또한 능실 곁의 적당한 곳에 소차小次를 설치한다.[17]

위의 기록에 보이는 행궁은 왕의 능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사국이 능의 근처에 행궁을 마련한다고 한 점으로 보아 이때의 행궁은 상설화된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천막 같은 임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능실 곁의 적당한 곳에 소차小次를 설치한다는 기록과 대비해 볼 때 더욱 확실해진다. 즉 능의 근처에 마련한 행궁은 능실 곁에 마련된 소차에 비해 큰 천막인 대차大次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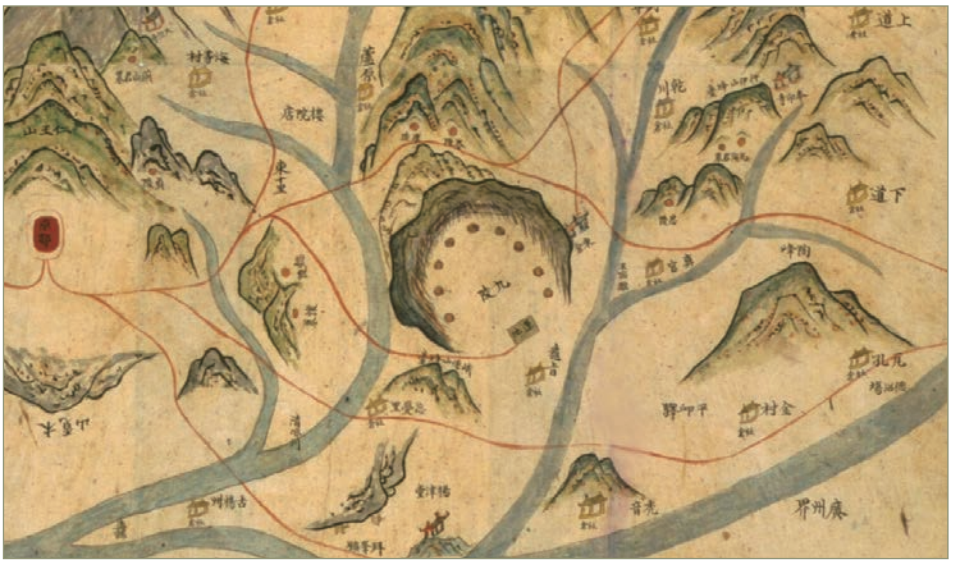
고려시대 왕이 능행하는 이유는 물론 능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는데, 고려시대의 능 제사는 오례五禮 중의 길례吉禮에 해당하였다. 즉 고려시대에 행궁이 건설된 이유 중의 하나는 왕의 길례 거행을 위해서였던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왕의 원구단 제사를 위해서도 행궁이 건설되었다.[18] 고려시대 왕의 능 제사 또는 원구단 제사 이외에도 오례와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행행이 거행되고 아울러 행궁도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명확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조선시대에는 오례와 관련된 왕의 행행 및 행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오례와 관련된 의식절차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선 오례와 관련된 조선시대 왕의 행행은 오례의 중요성에 따라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의 세 가지 의장儀仗으로 구분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에 따르면 왕

16_ 『삼국사기』 백제본기, 진사왕 8년. "王田於狗原 經旬不返 十一月 薨於狗原行宮."

17_ 『고려사』, 지(志), 예(禮), 길례대사(吉禮大祀), 제릉(諸陵), 배릉의(拜陵儀). "前發一日 奏告太廟 如常儀 所司 預掃除所拜之陵及室內 務極潔淨 不得喧雜 尙舍局 於陵近所設行宮 鋪王座 如常儀 行宮 皆於前所 量地之宜 又於陵室之側 量設小次."

18_ 『고려사』, 지, 예, 길례대사, 원구(圓丘), 친사의(親祀儀).



경도 옆에 위치한 동구릉(「양주지도」, 187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은 조칙을 맞이할 때, 종묘와 사직에 제사할 때 대가 의장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 문소전文昭殿, 선농단, 문선왕에 제사할 때 그리고 사단射壇에서 활쏘기 할 때, 무과전시를 거행할 때는 법가 의장을 사용하였다. 반면 능 참배, 활쏘기 관람, 기타 대궐 밖 행행 때에는 소가 의장을 사용하였다.[19]

위의 대가, 법가, 소가 의장을 조선시대의 오례와 관련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먼저 왕은 조칙을 맞이할 때, 종묘와 사직에 제사할 때 대가 의장을 사용하였는데, 조칙을 맞이하는 의식은 오례 중의 가례嘉禮였고[20] 종묘와 사직에 제사하는 의식은 오례 중의 길례吉禮였다.[21] 법가 의장이 사용된 문소전, 선농단, 문선왕의 제사 그리고 사단射壇에서의 활쏘기 및 무과 전시의 거행 중에서 문소전, 선농단, 문선왕의 제사는 오례 중의 길례였고[22] 사단에서 활쏘기 하는 의식은 오례 중의 군례軍禮였으며[23] 무과 전시 거행은 오례 중의 가례였다.[24] 마지막으로 소가 의장이 사용된 능 참배, 활쏘기 관람, 기타 대궐 밖 행차는 오례 중의 길례, 가례, 군례, 빈례, 흉례 등이 두루 포함되었다. 결국 조선시대 왕은 오례를 거행하기 위해 수시로 궁궐 밖에 행행하였으며 동시에 오례를 거행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행궁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왕이 거행하였던 오례는 내치와 외교 등 통치활동 전반을 포괄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한양 밖에 건설된 행궁은 왕의 내치 및 외교와 관련된 통치활동을 상징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행궁 중에서 왕릉 주변에 건설된 행궁은 왕의 통치활동 중에서도 유교 윤리를 솔선수범하기 위한 통치활동과 직결되었다. 조선시대에 왕릉 중 상당수가 도

19_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 가례(嘉禮), 노부(鹵簿).
20_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가례(嘉禮), 영조서의(迎詔書儀); 『국조오례의』, 가례, 영칙서의(迎勅書儀).
21_ 『국조오례의』, 길례(吉禮), 춘추급납제사직의(春秋及臘祭社稷儀); 『국조오례의』, 길례, 사시급납향종묘의(四時及臘享宗廟儀).
22_ 『국조오례의』, 길례, 삭망향문소전의(朔望享文昭殿儀); 『국조오례의』, 길례, 향선농의(享先農儀); 『국조오례의』, 길례, 향문선왕시학의(享文宣王視學儀).
23_ 『국조오례의』, 군례(軍禮),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
24_ 『국조오례의』, 가례, 무과전시의(武科殿試儀).

성 밖에 위치하였기에 왕은 능 제사를 위해 수시로 도성의 궁궐을 떠나야 했다. 또한 어떤 왕릉은 도성에서 100리 이상 떨어져 있었기에 왕이 능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행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시대 왕의 행행은 하루에 보통 30리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참고로 조선시대의 왕릉 중에서 서울 및 서울 부근의 동구릉東九陵과 서오릉西五陵, 서삼릉西三陵을 제외한 나머지 왕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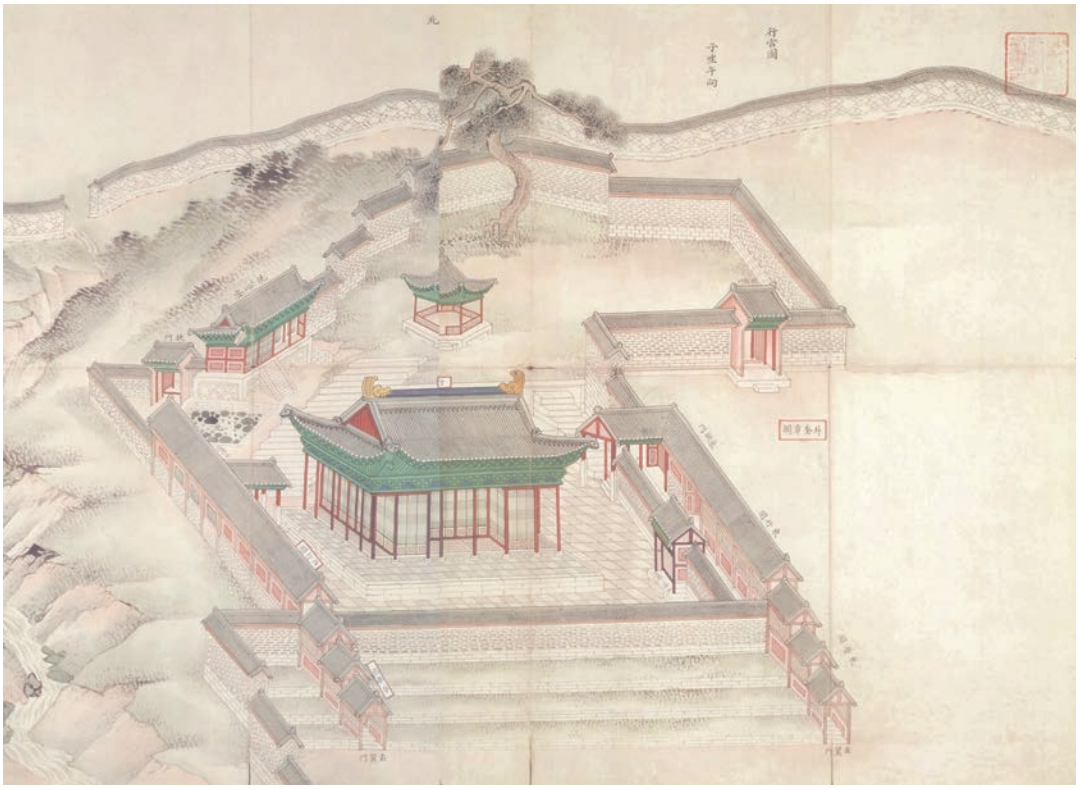
<표 1> 조선시대 도성 밖의 왕릉[25]

위치	왕릉 및 피장자	도성과 거리
경기도 개성 풍덕	정종의 후릉(厚陵) : 정안왕후 김씨와 합장	160리
경기도 고양시	덕종의 경릉(敬陵) : 소혜왕후 한씨와 합장 예종의 창릉(昌陵) : 안순왕후 한씨와 합장 인종의 효릉(孝陵) : 인성왕후 박씨와 합장 숙종의 명릉(明陵) : 인원왕후 김씨, 인현왕후 민씨와 합장 철종의 예릉(睿陵)	30리
경기도 김포시	원종의 장릉(章陵) : 인헌왕후 구씨와 합장	90리
경기도 남양주	세조의 광릉(光陵) : 정희왕후 윤씨와 합장 고종의 홍릉(洪陵) : 명성왕후 민씨와 합장 순종의 유릉(裕陵) : 순명왕후 민씨, 순정왕후 윤씨와 합장	80리
경기도 여주	세종의 영릉(英陵) : 소헌왕후 심씨와 합장 효종의 영릉(寧陵) : 인선왕후 장씨와 합장	160리
경기도 파주	인조의 장릉(長陵) : 인열왕후 한씨와 합장 진종의 영릉(永陵) : 효순왕후 조씨와 합장	
경기도 수원 화성	장조의 융릉(隆陵) : 경의왕후 홍씨와 합장 정조의 건릉(健陵) : 효의왕후 김씨와 합장	90리
강원도 영월	단종의 장릉(莊陵)	400리

〈표 1〉에서 영월을 제외한 개성의 풍덕, 고양, 김포, 양주, 여주, 파주, 수원에는 모두 행궁이 있었다. 그런데 영월의 장릉은 숙종 대에 단종이 왕에 복위되면서 왕릉으로 되었으므로 다른 왕릉과는 구별되었다. 즉 숙종 대까지 영월의 장릉에 참배하러 가는 왕이 없었으므로 행궁도 필요 없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왕들이 풍덕, 고양, 김포, 양주, 여주, 파주, 수원의 왕릉에 참배하기 위해 지나는 길목에도 역시 행궁이 건설되었다. 예컨대 여주의 왕릉에 가는 길목인 이천에, 김포의 왕릉에 가는 방향인 양천陽川에 행궁이 건설되었다.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가 묻혔던 수원 화성의 현륭원 길목이었던 사천沙川 및 과천, 시흥에도 행궁이 있었다. 이 외에 안산행궁, 영종행궁, 격포格浦행궁, 남성南城행궁도 있었다.

25_ 서울역사박물관, 『시흥행궁』, 2009, 56쪽의 '〈표 1〉 능침(陵寢)의 위치와 도성간 거리(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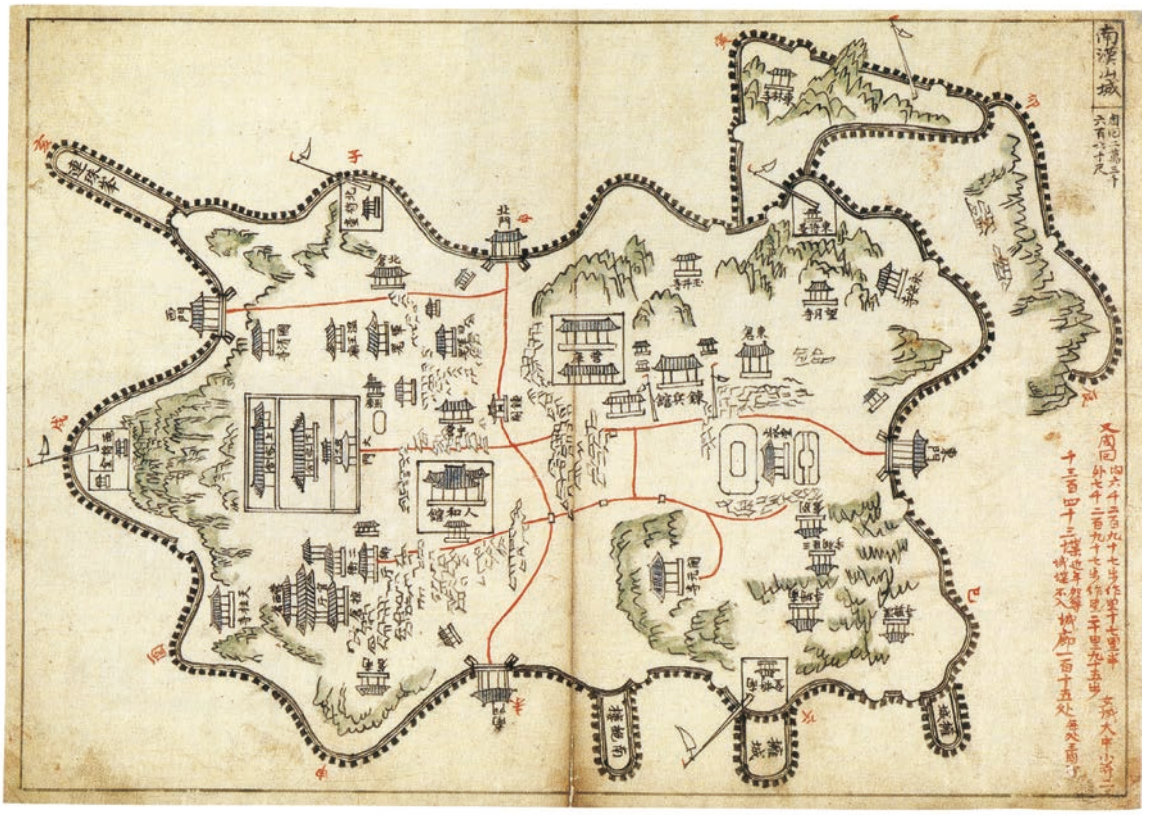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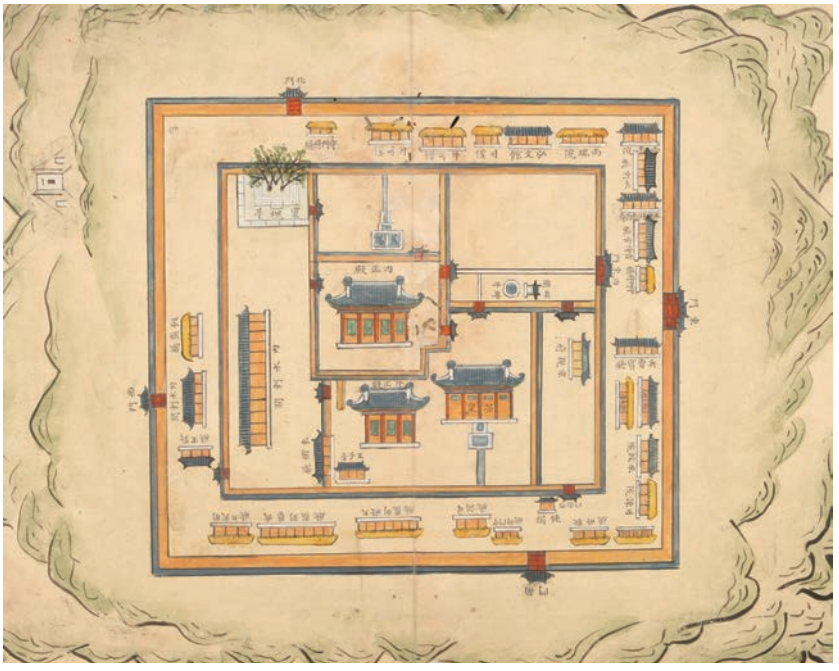
②



③



④



① **강화행궁**(『강화부궁전도』, 「행궁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② **시흥행궁**(「시흥환어행렬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③ **남한산행궁**(「남한산성도」,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④ **온양행궁**(『영괴첩』, 「온양행궁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한편 왕의 국토방위 및 군사훈련을 위해 건설된 행궁도 있었다. 조선시대의 국토방위체제는 수도 방위가 중심이었다. 왕이 상주하는 궁궐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 방어선 이외에도 수도 한양 외곽에 이중, 삼중의 방어선을 마련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한양 주변의 북악산, 낙타산, 남산, 인왕산의 산세를 방어선으로 이용하였다. 이 네 산을 연결하는 능선을 따라 도성都城을 쌓음으로써 수도 방어를 철저히 하였던 것이다. 도성 안의 궁궐에도 또 궁성宮城을 쌓아 방어하였다. 따라서 도성은 바깥의 외성外城이 되고 궁성은 이에 대비하여 내성內城이 되었다.

도성의 외곽에 설치한 방어선은 한양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는 네 곳의 전략적 요충지를 연결하는 방어선이었다. 바로 개성, 강화, 수원, 광주 네 지역이 한양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는 지역이므로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수도 방어를 책임지게 하였다. 아울러 이곳에 각각 행궁을 건설하여 만약의 사태에 왕이 대피할 수 있게 하였다. 개성행궁, 강화행궁, 화성행궁, 광주행궁은 이런 이유에서 건설되었다.

이 외에 북한산과 남한산도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 거점이었다. 북한산은 수도 서울의 북쪽에 우뚝 솟아 있고 남한산은 남쪽에 불끈 솟아올라 도성을 외곽에서 방어하기에 적당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산과 남한산이 수도 방위의 요충지로 부상한 계기는 임진왜란(1592년)과 이괄의 난(1624년) 그리고 병자호란(1636년) 때 수도가 함락된 사건이었다. 수도가 함락될 때마다 왕은 수도를 버리고 대피해야 했다. 임진왜란 때 선조는 의주까지 피신하였으며, 이괄의 난 때 인조는 공주까지, 또 병자호란 때에는 남한산성으로 대피하였다. 따라서 수도가 함락될 경우 왕이 대피할 장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게다가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 대한 국민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청나라를 정벌하여 복수하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수도 서울이 함락된 경험과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여론은 당연히 수도 방위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북한산과 남한산에 대대적으로 산성을 쌓고 무기와 식량을 비축하게 되었다. 만약 청나라와 전쟁이 벌어져 수도가 함락될 경우 왕이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으로 대피하여 장기항전을 하자는 의도에서였다. 산성 안에는 행궁도 건설하였다. 이런 면에서 조선 후기의 북한산행궁과 남한산행궁은 실로 북벌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온천에도 행궁이 건설되었는데, 온천행궁은 왕의 질병 치료와 관련되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왕들은 당뇨나 피부병으로 고생했는데 여기에 온천욕이 최고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 왕들은 자신의 치료를 위해 또는 대비나 왕비의 치료를 위해 자주 온천에 행차하였다. 온천 중에서 충청도의 온양온천이 가장 애용되었다. 온양온천은 세조를 비롯하여 현종, 숙종 등 여러 왕들이 즐겨 찾았다. 조선시대의 왕이 한양에서 온양까지 행차하는 데 며칠이 소요되었다. 그러므로 온양온천에는 물론 한

양에서 온양에 이르는 중간 중간에도 왕이 머물 수 있는 행궁을 세웠다. 한양에서 온양온천에 행차하는 노선은 서울-과천-수원-진위-직산-천안-온양이었다. 이곳에는 각각 행궁이 건설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행궁은 전국에 산재해 있었다. 이 행궁은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나 왕이 수시로 행차하는 왕릉이나 온천의 길목에 위치하여 왕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하면 조선시대 행궁은 도성 밖에서 이루어지는 왕의 통치활동을 위해 건설되었는데, 능 제사, 수도 방위 및 질병 치료를 위한 행궁이 대표적이었다. 참고로 『증보문헌비고』에 수록된 행궁을 분류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선시대 행궁 분류[26]

능행을 위한 행궁	수도 방위를 위한 행궁	온천행을 위한 행궁
풍덕행궁, 고양행궁, 김포행궁, 양주행궁, 여주행궁, 파주행궁, 이천행궁, 양천행궁, 사천행궁, 시흥행궁, 과천행궁, 화성행궁, 영종행궁, 안산행궁, 격포행궁, 남성행궁	개성행궁, 강화행궁, 화성행궁, 광주행궁, 북한산행궁, 남한산행궁	과천행궁, 화성행궁, 진위행궁, 직산행궁, 천안행궁, 온양행궁

2. 화성행궁의 건립

영조는 재위 52년 만인 1776년 3월 5일에 경희궁 집경당에서 승하하였다.[27] 그로부터 5일 후인 3월 10일에 정조가 즉위식을 거행하였다.[28] 정조는 즉위하고 10일이 지난 3월 20일에 생부인 사도세자의 무덤 명칭을 기왕의 수은묘垂恩墓에서 영우원永祐園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사당의 명칭도 수은묘垂恩廟에서 경모궁景慕宮으로 격상시켰다.[29]

본래 조선시대의 세자, 세자빈 또는 왕을 낳은 후궁의 사당은 묘廟로, 무덤은 묘墓로 불렸다. 이 같은 묘묘廟墓제도가 영조 때에 궁원宮園제도, 즉 사당의 이름이 묘廟에서 궁宮으로, 무덤의 이름이 묘墓에서 원園으로 바뀌게 되었다. 영조는 자신의 생모인 숙빈 최씨를 위해 이 같은 궁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숙원 최씨를 격상시키고자 하였다.[30] 정조는 영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부인 사도세자에게 궁원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사도세자를 격상시키고자 했다.

수은묘를 영우원으로 격상시킨 후, 정조는 8월에 영조의 원릉元陵을 참배하는 길에 영우원에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고자 하였다. 당시에 영우원은 경기도 양주 배봉산에 소재하였는데, 거리가 멀지 않아 일찍 출발하면 하루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다.[31] 정조는 1776년 8월 21일에 최초로 영우원에 가서 작헌례를 거행하고 당일로 환궁하였다.[32]

26_ 『증보문헌비고』, 여지고, 궁실, 외방궁실(外方宮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화성행궁은 능행, 온천행, 수도 방위를 위한 행궁으로 활용되었고, 과천행궁은 능행과 온천행을 위한 행궁이었다.

27_ 『영조실록』 권127, 영조 52년 3월 5일 병자. "上昇遐于慶熙宮集慶堂集."

28_ 『영조실록』 권127, 영조 52년 3월 10일 신사. "嗣王具冕服 卽位于崇政門."

29_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3월 20일 신묘. "追上思悼世子尊號曰莊獻 封垂恩墓曰永祐園 廟曰景慕宮."

30_ 김지영, 「1789년 현륭원 천원(遷園)과 『현륭원원소도감의궤(顯隆園園所都監儀軌)』」, 『현륭원원소도감의궤 역주』, 경기도박물관, 2006, 23~24쪽.

31_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6월 14일 계축. "上曰 八月陵幸時 欲爲永祐園酌獻禮而一日之內 不爲値暮乎 陽澤曰 若早爲出宮則似不値暮矣."

32_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8월 21일 경신.

당시에 정조의 영우원 원행園行은 『국조오례의』 '배릉의拜陵儀'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친향산릉의親享山陵儀'를 기준으로 마련되었다. 물론 『국조오례의』 '배릉의'와 『국조상례보편』 '친향산릉의'는 『세종실록』 오례의 '산릉친행제의山陵親行祭儀'를 약간 수정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조선시대 국왕의 능행陵幸 또는 원행의 기준이 되는 의례는 『국조오례의』 '배릉의'였는데, 배릉의 중에서 행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① 출발 하루 전에 능사陵司는 그 관속을 거느리고 능침의 안팎을 소제한다. 전설사典設司는 대차大次를 능소의 가까운 땅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소차小次를 능침의 옆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33]
② 만약 능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루 전에 행궁에 도착하여 재숙齋宿한다.[34]

①은 능행 또는 원행이 하루 안에 가능하여 별도로 행궁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서 고려시대의 '배릉의'와 마찬가지로 대차와 소차를 설치한다고 하였다. 다만 고려시대의 '배릉의'에서는 '대차' 대신에 '행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차'도 결국은 행궁이기 때문이었다.

정현에 의하면 대차의 차次는 악幄,[35] 즉 천막이었다. 따라서 대차는 '큰 천막'이고 소차는 '작은 천막'이란 뜻이 되는데, 결국 대차와 소차는 『주례』의 '유궁帷宮', 즉 왕이 행행 중 낮에 잠깐 일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천막으로 만든 행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②는 능행 또는 원행이 하루 안에 불가능하여 밤을 새기 위한 행궁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었다. 이 경우 왕의 능행 또는 원행을 위한 전용 행궁을 마련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상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을 행궁으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었다.

정조는 1776년(정조 즉위년) 8월 21일에 최초로 영우원에 가서 작헌례를 거행한 후 수시로 영우원에 행행하였다. 그때마다 정조는 당일로 환궁하였으므로 특별한 행궁을 마련하는 대신 대차와 소차를 마련하기만 하면 되었다. 영우원이 양주 배봉산에 소재하는 한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1789년(정조 13)에 양주의 영우원이 수원으로 옮겨짐으로써 변하게 되었다. 그 계기는 1789년 7월 11일에 올라온 금성위 박명원의 상소문이었다. 금성위 박명원은 영조의 셋째 옹주인 화평옹주의 남편으로서 정조에게는 고모부였다. 금성위 박명원은 상소문에서 양주 영우원의 문제점 네 가지를 지적하면서 천장遷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 띠가 말라죽는 것이고, 둘째 청룡青龍이 뚫

33_ 『국조오례의』, 흉례(凶禮), 배릉의(拜陵儀). "前發一日 陵司帥其屬 掃除陵寢內外 典設司設大次於陵所近地南向 小次於陵寢之側東南西向."
34_ 『국조오례의』, 흉례, 배릉의. "若陵所遙隔 則前一日 至行宮齋宿."
35_ 『주례주소』, 천관(天官), 장차(掌次)-정현 주. "次謂握也."

린 것이며, 셋째 뒤를 바치고 있는 곳에 물결이 심하게 부딪치는 것이고, 넷째 뒤쪽 낭떠러지의 석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36]

금성위가 상소하여 영우원을 천장하자고 요청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조정 중신들은 정조에게 청대請對를 요청하였다. 이에 정조는 창덕궁의 성정각誠正閣에서 조정 중신들을 만나 영우원의 천장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때의 논의에서 영우원 천장이 결정되었고, 그 결정이 화성행궁 건설의 근거였으므로 당시 정조와 조정 중신들 사이에 오고간 논의는 화성행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당시 정조와 조정 중신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오갔다.

> 7월 11일 진시辰時(오전 7~9시)에 주상이 성정각에 임어하였다. …… 판중추부사 서명선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엎드려 듣건대 금성위 박명원이 영우원의 천장문제로 상소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막중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신 등은 몽롱하게 아직도 청하지 않았으니 신 등의 불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성위가 상소한 후에 잠시라도 늦출 수 없어 이에 감히 서로 청대하였습니다." 하였다. 주상이 직각 이시수에게 명령하여 금성위 박명원의 상소문을 읽게 하였다. 이시수가 상소문을 다 읽자 서명선이 아뢰기를, "상소문의 내용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 속히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영돈녕부사 홍낙성이 아뢰기를, "이것은 금성위 한 사람만의 말이 아닙니다. 조정과 재야 그리고 여항에서 이런 논의가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일이 중대하여 쉽게 아뢰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뢰었으니 즉시 거행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판중추부사 이복원이 아뢰기를, "상소문의 말이 맞으니 다시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천장하는 의례는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였다. 영의정 김익이 아뢰기를, "금성위가 상소문에서 언급하기를, '조정에서는 한 사람도 요청하지 않으니 개탄스럽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에야 아뢴 것은 진실로 신 등의 죄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뢰었으니 어찌 지체하겠습니까?" 하였다. 판중추부사 김재협이 아뢰기를, "이 상소는 지당하니 달리 무슨 아뢸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좌의정 이성원이 아뢰기를, "이 일이 지금까지 지체된 것은 모두 저희들의 죄입니다. 금성위의 말을 신은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 청대한 것은 속히 결정하고자 해서입니다." 하였다. 우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예전 선왕 갑오년 사이에 하교하시기를, '세자에게 아직 아들이 없으니 인조대왕의 능인 장릉長陵을 천장하여야 할 조짐이 없기는 하지만 어떤지 모르겠다.' 하시고는 고故 봉조하 홍봉한에게 명령하여 장릉을 봉심하게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봉조하가 신릉新陵으로 천장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한 후에야 비로소 석연해 하셨습니다. 이는 신이 직접 목도한 일입니다. 지금 금성위의 상소문을 보니 진실로 종묘사직의 무궁한 대계입니다. 오늘날 신하 중에 어찌 다른 논의가 있겠습니까? 속히 천장의 의례를 거행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예조판서 이재간, 예조참판 김노순, 예조참의 이의강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예조에서 일을 하지만 금성위의 상소문에 대하여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명령을 내려주소서." 하였다. 제학 김종수 등 2품 이상의 관료들이 앞으로 나와 일제히 아뢰려 하자, 주상이 울음을 삼키며 목이 막혀 하교하지 못하였다. 서명선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주상의 아픈 마음이 이와 같음을 엎드려 보니 민망하고 절박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 막중한 일을 당하여 더욱 몸을 보호하셔야 하니 십분 억제하소서." 하였다. 주상이 이르기를 "나는 평상시 가슴이 막히는 증세가 있는 것을 경 등이 또한 안다. 평상시 충분히 관리하지만 조금만 소홀해도 매번 이렇게 된다. 지금 금성위의 상소를 보고 또 경 등이 영우원에 관해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막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다." 하였다. 홍낙성이 아뢰기를 "차를 마시고 기를 가라앉히

36_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7월 11일 을미. "一莎草枯損也 二青龍穿鑿也 三後托水勢之衝激也 四後節築石之非天作也."

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주상이 이르기를 "하필 그렇겠는가? 경 등은 잠깐 나의 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였다. 김익 등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며 아뢸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김종수 등이 아뢰기를 "금성위의 상소문은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니 번갈아 아뢰어 주상의 마음을 거듭 아프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잠시 후, 주상이 이르기를 "금성위의 상소는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이란 말인가? 풍수지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나는 모른다. 그러나 저쪽이 편해야 이쪽이 편안하다는 선유先儒들의 설로 본다면 전혀 틀렸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화복의 설을 혹신하여 갑자기 천장하는 것은 여항의 필부도 절대 안 되는 일이다. 하물며 국가의 막대한 일임에랴? 지금 나의 이 말은 어찌 금성위의 상소 때문에 하는 말이겠는가? 내 마음은 보통 사람으로 자처하기를 원치 않음을 경 등이 아는 바이다. 수십 년 사이에 지극한 슬픔이 가슴 속에 맺혀 있는데, 만약 흙이 시신에 가까이 닿아 있다고 한다면 나의 망극한 마음이 다시 어떻겠는가?" 하였다. 그리고는 한동안 울면서 하교하지 못했다. 서명선 등이 아뢰기를 "오늘 옛일을 생각하며 주상의 마음이 애통하고 절박하니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마음 아파하시면 절선節宣에 방해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완전해지려면 더욱 억제해야 합니다." 하였다. 주상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이것을 생각 못하겠는가? 그러나 과거 이야기를 하려니 격기隔氣가 먼저 막혀 나도 모르게 이렇다. 영우원은 처음에 건원릉 오른쪽에 정해졌지만 끝내 지금 장소에 정해졌다. 영우원의 시말은 이곳에 모인 신하들이 또한 모두 자세히 알 것이다. 금성위가 상소 중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는 원래 금성위가 마음대로 생각한 설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모두 같은 말을 한 것이 몇 년 되었다. 나는 풍수설에 대하여 비록 잘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의 안목이 이와 같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데 수십 년간 지체하였으니 어찌 마음으로 견딜 수 있겠는가? 금성위가 이 상소를 올리려 한다는 것을 내가 듣고 중지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진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비로소 상소했고 경 등이 또한 연이어 청하니 지금 무슨 다른 논의가 있겠는가? 내가 비록 부족하나 결코 풍수가의 화복론에 움직인 것이 아님을 경 등이 또한 잘 안다. 이제 내 뜻을 먼저 정하였고 논의도 같으니 마땅히 천장의 의례를 거행해야 할 것이다. ……" 하였다.[37]

위의 논의를 보면 정조는 금성위 박명원의 상소가 있기 훨씬 전부터 양주 영우원의 천장을 심사숙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조가 즉위 후 13년 동안이나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는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금성위 박명원의 상소가 올라오자 조정 중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찬성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정조의 준비가 완벽했음을 반증한다. 정조는 영우원의 천장이 왕 혼자만의 독단이 아니라 모든 문무백관과 모든 백성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따라서 금성위 박명원의 상소가 있기 전에 정조는 이미 양주 영우원의 천장에 대한 일체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즉 영우원을 어디로 천장할지, 천장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등에 관하여 이미 대책이 서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정조는 영우원을 천장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수원에 뜻을 둔 지 이미 오래여서 널리 살펴본 것이 몇 년인지 모른다."[38]고 하면서 수원으로 영우원을 천장하기로 확정하였다.[39] 영우원이라는 원호는 1776년(정조 즉위년) 8월 9일에 현륭원顯隆園으로 바뀌었다.[40]

그런데 양주 영우원을 천장하기로 한 후 결정된 무덤 자리는 수원 읍치邑治로부터

37_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7월 11일 을미.
38_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7월 11일 을미. "予於水原 留意已久 博考而詳察 不知爲幾年."
39_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7월 11일 을미. "予意已以水原定之."
40_ 『정조실록』 권28, 정조 13년 8월 9일 임술.



현륭원(현 융릉)

100여 보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41] 이에 따라 영우원 천장은 수원 읍치의 이전 문제를 야기하였다. 영우원 천장이 확정된 지 2일 후인 7월 13일에 영의정 김익은 정조에게 "영우원을 수원으로 천장하기로 확정하였으니 수원 읍치를 옮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42]라고 함으로써 수원 읍치 이전문제를 공식화하였다. 김익은 영우원 천장과 동시에 수원 읍치 이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두 가지 공사를 시한에 맞게 거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로 하여금 수원 읍치 이전을 조치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고, 정조는 동의하였다.[43] 이틀 후인 7월 15일에 수원부사는 새로운 읍치를 팔달산八達山 아래로 정했다는 장계를 올렸다. 정조는 수원부사가 장계에서 팔달산 아래는 국세가 넓어 웅진雄鎭에 합당하지만 그곳이 광주廣州의 일용一用 등 두 면과 맞닿아 백성들이 주저한다고 하자 광주의 일용 등 두 면을 수원에 합치게 하였다.[44] 이로써 수원의 새로운 읍치는 팔달산 아래로 확정되었다.

수원의 팔달산 아래가 신읍치로 확정된 1789년(정조 13) 7월 15일 오후에 정조는 창덕궁 희정당에서 경기감사 서유방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서유방은 궁궐에서 과천까지가 30리, 과천에서 수원의 신읍치까지가 40리 그리고 수원의 신읍치에서 현륭원까지가 20리라고 하면서 "주정소晝停所와 숙소宿所는 원래부터 정한 곳이 있습니다."라는 언급을 하였다.[45] 즉 양주의 배봉산에 소재하던 기왕의 영우원과는 달리 수원에 소재하게 될 현륭원에까지 정조가 행행하려면 하루로는 부족하여 주정소와 숙소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당시 서유방이 언급한 주정소와 숙소에는 과천행궁과 화성행궁이 포함되었다. 예컨대 정조는 1789년 8월 18일 창덕궁 중희당重熙堂에서 경기관찰사 서유방을 접견하였는데, 그때 "과천과 수원의 숙소에 소용되는 그릇들은 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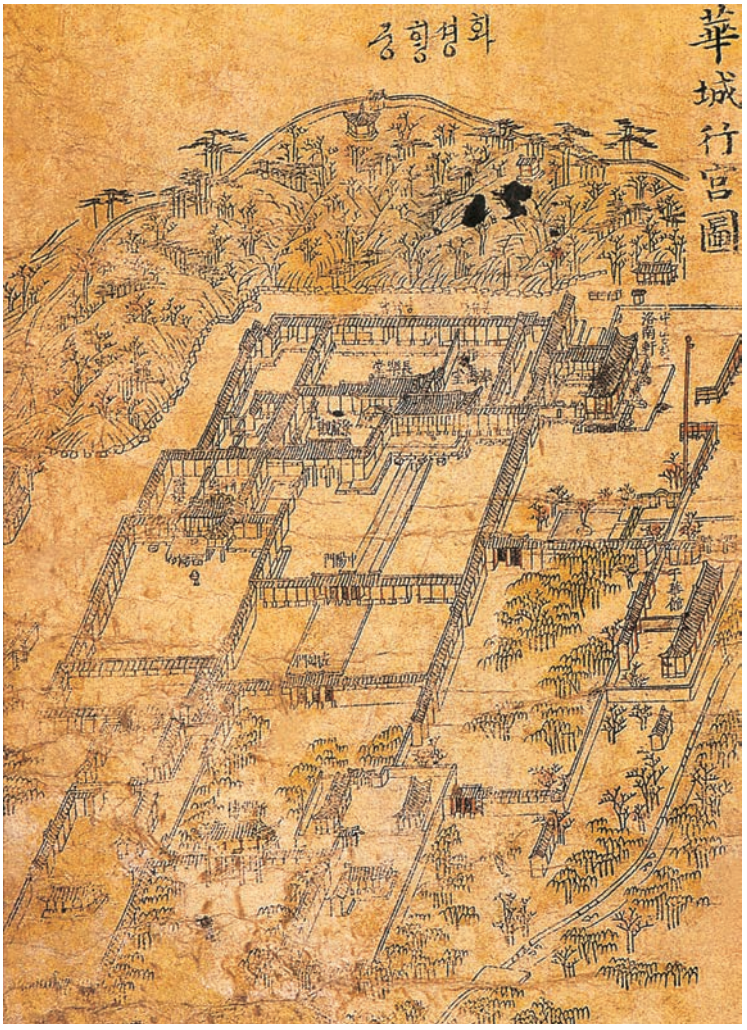
41_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7월 13일 정유. "蓋新占處, 在邑治後百餘步之內."

42_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7월 13일 정유. "煜曰, 園所今已完定於水原, 水原移邑, 在所不已."

43_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7월 13일 정유. "一邊移邑, 一邊始役然後, 可以及時擧行矣. 臣等非不知聖念, 以移邑移民, 每加難愼, 而神明默佑, 風水允叶, 園所新占, 旣在此地, 此實國家莫大之幸, 至於民邑撤移之擧, 有不暇顧, 況今邑役則劃給財力, 民戶則優償其價, 自朝家軫恤, 若是其至, 到今移設, 尤無所留難者, 令本道劃卽擧行, 本邑旣爲移設, 則鄕校亦當一體移建, 以此意竝卽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44_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15일 기해. "今見該府使狀本 邑基占定於八達山下 而局勢大開 可合雄鎭 然其民情 以壤地之直接廣州 一用等兩面 不無趑趄之意云 信爾則劃屬水原 豈或靳持乎."

45_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7월 15일 기해. "今則水原新邑 旣定於八達山下矣 此後園所幸行時 輦路次第 自闕門至果川爲三十里 自果川至水原新邑爲四十里 自新邑距園所爲二十里 晝停宿所 自有元定處."



「화성행궁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내려줄 것이니 해당 읍에 분부하여 이에 의해 거행하고 그대로 보관하여 영원히 쓸 수 있도록 하라."[46]는 명령을 내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정조는 1789년(정조 13) 7월 11일에 양주 배봉산에 소재하는 영우원을 수원으로 천장하기로 결정하였고, 7월 13일에 천장 장소를 수원의 구읍치로 확정하였으며, 역시 7월 15일에 수원의 신읍치를 팔달한 아래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수원의 신읍치에 건설되는 관아는 그대로 수원 원행 때 숙소, 즉 행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런 사실은 1789년(정조 13) 가을에 수원부 치소를 팔달산 아래로 옮겨 짓고 그 관아를 그대로 행궁으로 삼았다고 하는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의 기록으로도 확인된다.[47] 즉 화성행궁은 평상시에는 수원부사의 관아로 쓰이다가 정조의 원행 때에는 행궁으로 활용되기로 했던 것이다. 따라서 화성행궁은 1789년(정조 13) 7월 15일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1789년 10월 5일에 양주 배봉산의 영우원 자리를 떠난 장헌세자의 영여靈輿는 같은 날 과천을 지나 6일에 수원의 신읍치에 마련된 막차幕次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주정전晝停奠이 거행되었고, 그 직후 장헌세자의 영여는 다시 신읍치의 막차를 떠나 구읍치에 마련된 원소의 정자각에 도착하였다. 10월 6일에 정조는 장헌세자의 영여를 뒤따라 과천을 거쳐 수원의 신읍치에 와서 숙박하였다. 10월 7일, 정조는 구읍치에 마련된 원소로 가서 장헌세자의 천장을 살펴보고 10월 8일에 화성행궁으로 되돌아왔고 이어서 도성으로의 귀로에 올랐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7월 15일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화성행궁은 장헌세자의 영여와 정조의 행행이 처음 머물게 되는 10월 6일 이전에 대략적이나마 골격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790년(정조 14) 새해를 맞이한 정조는 1월 1일에 앞으로는 매년 현륭원 원행을 거

46_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8월 18일 신미. "上曰 果川水原宿所 所用器皿 當自內下之 分付該邑 使之依此擧行 仍爲藏置 以爲永久仍用之地 可也."
47_ 『화성성역의궤』 부편1, 행궁, 봉수당 행각. "上之十三年己酉秋 移建水原府治於八達山之下 以其府衙 仍作行宮."



「장남헌」 편액(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화성행궁 장남헌에 걸었던 편액으로, 1790년 2월 원행 시 정조가 직접 장남헌이라 이름 짓고 편액을 내렸다. 우측 상부에 전서체로 '어필(御筆)'이라고 쓰여 있다. 1795년(정조 19) 을묘 원행 시 봉수당으로 당호가 바뀌었다.

행하겠다고 공포하였다.[48] 그 공포대로 다음 달에 정조는 현륭원에 행행하였다. 2월 9일 오전에 현륭원 친제를 지낸 정조는 수원 관아, 즉 화성행궁으로 갔다. 정조는 당시까지 건설된 행궁의 주요 건물들 편액을 직접 써서 내려 주었는데, 그 내용이 『승정원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주상이 전교를 쓰라 명령하고 이르기를, "예전에 선왕께서 수원에 오셔서 어필로 편액을 쓰신 일이 있었다. 지금 옛일을 이어 편액을 써서 내린다. 장남헌壯南軒 편액은 동헌東軒에 걸고, 복내당福內堂 편액은 내아內衙에 걸며, 득중정得中亭 편액은 사정射亭에 걸어 지방관과 수원부사로 하여금 알게 하라. 문루는 진남루鎭南樓로 하여 본 수원부사가 써서 걸고, 중삼문中三門은 익좌문翊左門으로 하여 수행 신료들 중 이전에 수원부사를 지낸 사람이 써서 걸며, 외삼문外三門은 중약문重鑰門으로 하여 본 경기도관찰사가 써서 걸 것을 분부하라." 하였다.[49]

위의 내용에 의하면 화성행궁은 1790년 2월 9일 이전에 이미 동헌, 내아, 문루, 중삼문, 외삼문 등 지방관아의 기본 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화성행궁은 1789년(정조 13) 7월 15일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1790년(정조 14) 2월 9일까지 대략 반 년 만에 기본 골격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화성행궁은 1795년(정조 19) 윤2월의 이른바 을묘년 원행을 계기로 크게 확장되었다.

을묘년은 정조에게 매우 뜻 깊은 해였다. 이해는 정조의 생부인 장헌세자와 생모인 혜경궁 홍씨가 만 60세 되는 해였으며, 동시에 정조 자신이 왕위에 오른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였다. 또 이해에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수원성이 대략 완성되었다. 이에 정조는 생부의 무덤이 있는 수원에 행행하여 혜경궁 홍씨의 환갑잔치를 대대적으로 베풀었다. 이로써 정조는 장헌세자를 향한 추모의 정과 생모에 대한 효도의 정을 만천하에 알렸다. 더불어 왕실의 경사를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경로잔치와 과거 실시, 구호미 배급 등등 환갑잔치에 수반된 갖가지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행사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성행궁을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었

48_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1일 1일 임오.
49_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2월 9일 경신. "命書傳敎曰 昔在先朝駕次水原 有御筆揭板之擧 今又追述故事 書下扁號 以壯南軒揭于東軒 福內堂揭于內衙 得中亭揭于射亭 令地方官水原府使知之 門樓以鎭南樓 本府使書揭 中三門以翊左門 隨駕諸臣中 曾經府使人書揭 外三門以重鑰門 本道伯書揭事 分付."

다. 이에 따라 기존의 화성행궁은 을묘년 원행을 전후로 크게 확장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았다.

<표 3> 을묘년 원행을 계기로 한 화성행궁의 확장[50]

기존의 화성행궁 건물	을묘년 원행 전후로 확장된 화성행궁 건물
장남헌(壯南軒) : 동헌(東軒) 복내당(福內堂) : 내아(內衙) 득중정(得中亭) : 사정(射亭) 진남루(鎭南樓) : 문루(門樓) 익좌문(翊左門) : 중삼문(中三門) 중약문(重鑰門) : 외삼문(外三門) 강무당(講武堂) 무고(武庫)	봉수당(奉壽堂) : 1795년 기존 장남헌 개명 복내당(福內堂) : 유지 득중정(得中亭) : 이전 건설 신풍루(新豊樓) : 1794년 기존 진남루 개명 익좌문(翊左門) : 유지 중약문(重鑰門) : 유지 강무당(講武堂) : 유지 무고(武庫) : 유지 장락당(長樂堂) : 1794년 건설 경룡관(景龍館) : 1794년 건설 유여택(維與宅) : 1794년 은약헌(隱若軒) 확장 건설 낙남헌(洛南軒) : 1794년에 건설 노래당(老來堂) : 1794년에 건설 신풍루행각(新豊樓行閣) : 1794년 건설 강무당행각(講武堂行閣) : 1794년 건설 무고행각(武庫行閣) : 1794년 새로 건설 남북군영행각(南北軍營行閣) : 1794년 건설 외정리소(外整理所) : 1796년 건설 수성고(修城庫) : 1796년 건설

3. 화성행궁 건설의 의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성행궁이 건설된 직접적인 계기는 양주에 소재하던 장헌세자의 무덤을 수원의 구읍치로 옮긴 일이었다. 따라서 화성행궁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정조의 현륭원 행행 때 잠시 머물기 위한 거처라는 사실에 있었다. 조선시대에 왕의 능행 또는 원행을 위해서 이미 수많은 행궁이 건설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최초의 화성행궁은 왕의 능행 또는 원행을 위해 마련된 수많은 행궁 중의 하나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정조의 다양한 배려로 수원이 특별 도시화되면서 화성행궁은 수많은 행궁 중의 하나에서 특별 도시 수원의 행궁으로 자리 잡았고, 나아가 수도 한양의 궁궐에 버금가는 대규모 행궁으로 성장하였다. 정조 대에 수원이 특별 도시화된 첫 번째 계기는 수원 읍성의 건설이었다. 장헌세자의 영여가 수원으로 천봉된 1789년(정조 13) 10월부터 8개월 후인 1790년(정조 14) 6월 10일에 부사직 강유는 상소문을 올려 수원의 신읍치에 성지城池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강유는 수원에 성지를 마련해야

50_ 『화성성역의궤』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할 명분으로 수원이 총융청의 외영外營일 뿐만 아니라 현륭원을 받드는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지가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51] 즉 강유는 화성행궁이 단순히 현륭원 능행을 위해 스쳐 지나가는 행궁이 아니라 현륭원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까지도 맡아야 함을 역설한 것이었다. 강유의 상소문을 접수한 정조는 이를 비변사에 내려 논의하게 하였는데, 이는 정조 역시 강유와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강유에 이어서 1790년(정조 15) 1월 21일에 부사직 신기경이 상소문을 올려 읍성을 쌓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때 비변사에서는 "축성에 관한 일은 잠시 훗날을 기다려 다시 의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52]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1790년 당시까지 중앙 관료들은 수원 읍치에 성을 쌓는 일을 시급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수원 읍치에 성을 쌓는 일은 정조의 결단으로 확정되었다.

1793년(정조 17) 1월 12일 새벽에 정조는 도성의 창덕궁을 떠나 현륭원 원행 길에 올랐다. 화성행궁에 도착한 정조는 진남헌鎭南軒에서 수행관료들을 접견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조는 수원부사를 유수留守로 승격시키면서 수원유수가 장용외사행궁정리사壯勇外使行宮整理使를 겸하게 하였다.[53] 원래 수원부사는 종3품의 도호부사都護府使였는데 그것을 정2품의 유수로 격상시킨 것이었다. 본래 유수는 개성유수 또는 강화유수처럼 종2품인데, 정조는 수원유수를 특별히 정2품으로 격상시켰다.[54] 정2품은 종2품인 경기도 관찰사보다도 높은 관품이었고 동시에 중앙관료로 간주되는 관품이었다. 따라서 정조가 기왕의 종3품 수원부사를 정2품의 수원유수로 승격시킨 것은 대단히 특별한 조치였다. 그 후 수원유수는 『속대전』의 정2품 경관직京官職에 실렸다. 수원유수가 정2품으로 승격되었기에 그는 장용외사와 행궁정리사를 겸할 수 있게 되었다.

정조가 수원부사를 수원유수로 승격시킨 명분은 바로 현륭원이 수원으로 이장되면서 관방關防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었다.[55] 이 명분을 들어 정조는 당일로 조정중신들에게 명령을 내려 수원에 성을 쌓을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56] 정조는 이날 수원의 명칭을 화성華城으로 개칭함으로써 관방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진 수원에 성을 쌓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57] 수원이 화성으로 불리면서 행궁 역시 화성행궁으로 불리게 되었다.

정조에 의해 수원부사가 유수로 승격되고 아울러 수원유수가 장용외사와 행궁정리사를 겸할 뿐만 아니라 화성까지 쌓게 되면서 화성행궁은 최초 현륭원 원행을 위한 행궁이었던 것에서 이제는 정2품 중앙관료인 수원유수이자 중앙군영인 장용영 외사가 주둔하는 행정도시의 행궁이자 군사도시의 행궁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격상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였으므로 중요한 국정사항은

51_ 『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6월 10일 기미. "水原乃摠戎廳之外營 而爲國家之重鎭 況又奉莫重之地 宜有別般制置之道 今此新邑移設 而無城池之設險 臣謂因此移設 竝與城池而經紀宜矣."

52_ 『비변사등록』, 정조 15년 1월 21일. "至於築城便否 姑待後日 更爲商量爲宜."

53_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1월 12일 병오. "自今水原府使陞爲留守 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

54_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1월 12일 병오. "兩都則例以從二品以上差擬 至於本府比兩都尤爲自別 大臣武將特除外 文宰差擬限以正二品以上正式."

55_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1월 12일 병오. "是地水原府 自卜園寢 關防增重."

56_ 『화성성역의궤』 권1, 연설, 계축(1793) 1월 12일. "次第之事 惟在於鑿斯築斯 一以盡拱護之方 一以寓瞻依之誠."

57_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12일 병오. "改號水原府爲華城."



「화성행궁(華城行宮)」 편액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화성행궁 봉수당에 걸었던 편액으로 정조의 친필이다. 우측 상부에 전서체로 '어필(御筆)'이라고 쓰여 있고, '홍재(弘齋)'란 낙관이 있다. 좌측엔 전서체로 '내 즉위 18년 계축 맹춘[予踐位十有八年癸丑孟春]'이라고 쓰여 있으며, '규장지보(奎章之寶)'란 어보가 새겨져 있다. 화성행궁은 임금이 거둥할 때 임시로 머무는 궁이지만, 평상시에는 화성을 다스리던 유수의 집무처로 사용되었다.

① 

② 

③ 

① 정조의 호인 '홍재'의 양각 부분
② 정조 즉위 18년 1월에 편액을 썼음을 밝힌 부분
③ 정조의 낙관으로 사용된 '규장지보'의 양각 글씨

왕이 소재하는 도성의 궁궐에서 논의하여 결정되었다. 조선시대의 행정제도, 국방체제, 경제구조 등 대부분의 국가제도는 왕이 소재하는 도성의 궁궐을 중심으로 조직, 운영되었다. 이런 체제에서 왕이 도성 밖으로 나가는 행행은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우선 왕의 행행에 따르는 기본적인 문제는 행행의 규모에 관한 것이었다. 왕의 행행은 그 종류에 따라 동원되는 의장물과 수행원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행행을 대가, 법가, 소가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경우에 동원되는 의장물, 인원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행 준비를 쉽게 하고자 하였다.

행행의 규모와 함께 왕이 도성을 벗어나는 경우를 대비한 각종 제도들이 『경국대전』에 산견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궁궐과 도성 수비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왕의 부재 시 도성 수비 책임자인 유도삼대장留都三大將,[58] 도성 내외의 순찰방법,[59] 군호軍號를 받는 방법[60]을 비롯하여 행행 중인 왕의 호위방법,[61] 도성에 머무는 신료들이 왕을 배웅하는 의식[62]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왕의 행행에 따르는 각각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왕의 행행에 관련된 조치들은 『속대전』에 수록되었으며 이후의 변동내용은 『대전통편』, 『만기요람』, 『대전회통』 등에 수록되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왕의 행행에 관련된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왕의 행행이 결정되면 정리사整理使,[63] 유도대장留都大將, 수궁대장守宮大將, 유진대장留陣大將, 유영대장留營大將, 유주대장留駐大將[64] 및 왕의 시위 병사들을 지휘할 대장 그리고 수행할 인원 및 도성에 남을 인원이 정해졌다. 정리사는 보통 행행에 앞서 미리 현장을 점검하고 아울러 소용되는 경비 조달을 담당하였다.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진대장, 유영대장, 유주대장은 궁궐과 도성 방어를 책임졌다. 왕을 호위하는 대장은 행행 시 왕의 호위병사들을 통솔하였다. 정리사,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진대장, 유영대장, 유주대장, 호위대장 등은 보통 국왕과 대신의 협의에 의하여 선정되었다. 아울러 6조에서는 각각의 업무내용에 따라 행행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였다. 이조에서는 문신 중에서 국왕을 수행할 인원과 수도에 남을 인원들을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병조에서는 왕을 호위할 부대와 병력의 수 그리고 궁궐과 수도를 수비할 부대와 병력의 수를 정하여 보고하였다. 예조에서는 출궁과 환궁 및 행행 시의 각종 전례 등을 보고하였다.

행행이 결정된 후 출궁하기 전까지 국왕은 행행 시의 중요한 국정 처리에 관하여 대신들과 협의하여 기본 방침을 정해 놓았다. 정리사,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진대장, 유영대장, 유주대장, 호위대장 등이 결정되면 이들은 각자의 업무분장을 구체화하여 왕의 결재를 받았다.[65]

행행이 결정된 후에는 우선 도성의 궁궐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행행로가 정비되어야 했다. 행행로의 경우 왕의 가마와 행렬이 지나갈 수 있어야 했으므로 좌우 30보의 넓이로 만들어야 했다. 따라서 행행로의 정비에는 좁은 길을 넓히는 것에서부터 구덩이를 메우고 길의 흔적이 없어진 곳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등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행행로를 정비하기 위해 인근 30리 이내의 거주민들이 동원되었다.[66]

58_ 『경국대전』, 병전, 행순(行巡). "行在時 則留都三大將 各出軍士三十人 送本曺 本曺分所差定 又差巡將巡官."

59_ 『경국대전』, 병전, 행순. "都城內外行巡 本曺以出直軍士 分二所差定行巡 又受點巡將及監軍出入番將 詣闕肅拜 納牌受牌於大內 行在時 則受牌於承政院."

60_ 『경국대전』, 병전, 행순. "本曺刑曹義禁府漢城府修城禁火司五部直宿員 受通行標信于承政院 軍號于本曺 各率其司衙前司令 無時行巡〈行在時 同〉."

61_ 『경국대전』, 병전, 행순. "行在內陣行巡 則都摠管以下諸將中 本曺啓聞受點 率軍士十五人 無時行巡後 巡將直啓 外陣行巡及別巡 則大將定衛將若部將 率軍士十人行巡."

62_ 『경국대전』, 예전, 조의(朝儀). "經宿行幸 則於都城門外 序立祗送 駕還祗迎 亦如之 隨駕之闕 行問安禮."

63_ 정리사는 행행에 수반되는 각종 경비 문제와 현장점검을 담당하였다. 이는 대체로 행행 시의 식사경비, 도로나 건물의 보수비, 고용일군의 임금 등 호조의 업무와 관련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의 정리사는 대체로 호조판서가 맡았다. 정리사는 능행이면 능행정리사, 원행이면 원행정리사 등으로 불렸다.

64_ 유도대신은 도성에 남아 군무를 제외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던 대신이다. 수궁대장은 궁중에 숙직하면서 궁중경비를 책임지던 대장이다. 유진대장은 궁궐 앞에 주둔시킨 부대의 대장이다. 이들이 『경국대전』의 '유도삼대장'이다. 이 외에도 조선 후기에는 유영대장, 유주대장이 나타나는데, 유영대장은 도성의 3군문 중에서 국왕을 호위하지 않고 예비 병력으로 도성 내의 군영에 대기하던 부대의 대장이다. 반면 유주대장은 도성 밖의 총융청이나 수어청의 부대를 이끌고 궁궐 앞에 주둔하던 대장이다.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진대장, 유영대장, 유주대장은 왕의 신임이 두터운 측근이나 외척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65_ 신명호, 「조선후기 국왕 행행 시 국정운영체제」, 『조선시대사학보』 17, 2001년 6월, 115~116쪽.

66_ 서울역사박물관, 『시흥행궁』, 2009, 56~57쪽.



「주교도」
(『원행정리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게다가 화성에 소재한 현륭원에 가기 위해서는 한강을 건너야 했는데 이 또한 심각한 문제였다. 정조 이전에는 한강을 건너는 경우 한강의 선박들을 징발해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 수가 충분치 못하면 황해, 충청, 강원 등 여러 곳에서 나누어 모집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선박 징발이 어려울 때는 부교浮橋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선박이든 부교든 커다란 민폐를 끼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67]

게다가 행궁 역시 정비되어야 했다. 왕의 행행 중 최소한 30리마다 식사와 휴식, 숙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원거리 행행의 경우 왕뿐만 아니라 수행관료들, 시위병사들 모두가 힘들었다. 특히 시위군은 소지한 무기와 의장물의 무게와 이동거리로 말미

67_ 서울역사박물관, 『시흥행궁』, 2009, 59쪽.

암아 길에서 넘어지거나 처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규칙적인 식사와 휴식이 필요하였다.[68] 행궁을 정비하는 데도 인근 주민들이 동원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휴식을 취하거나 숙박하는 행궁 주변의 주민들은 음식물을 공급해야 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왕이 한 번의 행행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 때문에 발생하는 민폐 역시 어마어마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조는 1790년(정조 14) 이후 매년 현륭원 원행을 거행하겠다고 공포했고 실제로 매년 현륭원 원행을 거행하였다. 따라서 정조는 현륭원 원행에 수반되는 복잡다단한 과정 및 어마어마한 민폐들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야만 했다. 만약에 그런 대책 없이 무작정 매년 현륭원 원행을 거행한다면 그것은 국정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원행 연로의 주민들에게도 과중한 부담을 안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던 정조는 현륭원 행행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조치를 취하였다.

정조는 현륭원 원행의 가장 큰 폐단으로서 세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외방 고을의 공판供辦이고, 둘째는 군병軍兵 마련이며, 셋째는 한강나루를 건너는 것이었다.[69] 따라서 정조는 현륭원 원행을 원활하게 거행하기 위해 이 세 가지 폐단을 제거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정조는 외방 고을의 공판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륭원 원행과 관련해 과천과 수원에서 쓸데없는 비용을 쓰게 되는 잘못된 규례들을 조사하여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70] 이에 따라 정조는 현륭원 원행을 연례로 거행하겠다고 공포한 1790년(정조 14)부터 시작하여 앞으로는 수원, 과천 두 고을에서 준비해 오던 음식물 공급을 일체 없애게 하였다.[71] 또한 경비문제와 현장점검을 위해 파견하던 기왕의 정리사를 폐지하고, 대신 경기관찰사가 정리사를 대신해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였다.[72] 아울러 현륭원 보수 또는 수리에 들어가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원역고園役庫를 화성에 설치하였다.[73]

다음으로 정조는 군병 마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왕의 군제를 헤아려 정밀하고 간략히 뽑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조는 훈련도감에서 차출되는 시위 병력의 수를 줄이는 한편, 경기관찰사와 수원부사가 시위 병력을 거느리게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74] 이 대안이 확장되어 수원부사를 수원유수로 승격시키고 아울러 장용외사를 겸하게 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조는 한강나루를 건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였다.

선창을 부교浮橋로 대신하면 만전을 보장할 수 있다. 선창은 소용되는 배가 많게는 1,000척 가까이 되

68_ 서울역사박물관, 『시흥행궁』, 2009, 60쪽.
69_ 『정조실록』 권28, 정조 13년 9월 18일 신축.
70_ 『정조실록』 권28, 정조 13년 9월 18일 신축.
71_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1월 4일 을유.
72_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2월 2일 계축.
73_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2월 19일 경오.
74_ 『정조실록』 권28, 정조 13년 9월 18일 신축.

> 는데 부교의 경우는 100척도 되지 않으니, 이것만 하더라도 폐해를 줄이는 셈인데, 더구나 또 완고하고 견실하기가 육지나 다름없으니, 영구히 준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생각건대, 이 이후로 부교에 드는 경비는 경강京江에 전적으로 떠맡기되, 배의 경우는 별도로 작대作隊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기에 맞춰 역役에 응하도록 하고, 조정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깊이 강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익을 입고 힘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외방 기읍畿邑의 세곡稅穀을 경강의 제선諸船에 나눠 주어 마치 도감선都監船에 운세運稅를 원정元定하듯이 한다면, 강가의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을 듯하고, 뱃사람들 역시 기꺼이 나설 듯하다. 이 밖에 소소한 폐단에 대해서는, 밖으로는 기영畿營이, 안으로는 각 사司가 일체 절약하고 간략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오랫동안 시행하면서 폐단을 없애고자 하면 거의 될 수 있을 듯하다.[75]

정조는 한강을 건널 때 드는 경비 및 민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수 『주교지남舟橋指南』을 저술[76]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정조의 노력은 기왕에는 왕의 행행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을 중앙정부와 연로 주민들이 부담했는데, 앞으로 현륭원 원행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특별재원과 특별부대를 마련해 운영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었다. 그 같은 특별재원과 특별부대는 화성행궁에 마련되었다. 화성행궁에 마련된 특별재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행궁정리수성곡行宮整理修城穀이었다. 이 곡식은 이른바 「행궁정리수성곡조적수용절목行宮整理修城穀糶糴需用節目」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그 근본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 화성에 유수를 설치하고 뒤에 또 정리사를 겸하게 한 것은 장차 행궁을 수리하는 임무와 성지城池를 수선하는 책임을 맡긴 것인데, 필요한 예산을 아직 조치하지 못하였으니 이름과 실제가 맞지 않고 체면이 서지 않는다. 뒤돌아보니 행궁이 세워지고 다락과 망대가 완전하게 된 지금 때에 맞추어 예산을 강구하여 억만 년 공고하고 유구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다. 삼가 엎드려 생각하건대 화성의 모든 일에 경비를 번거롭게 하지 않은 것은 주상의 배려가 있어서이다. 수백 칸이나 되는 건물을 짓고 수천 보나 되는 연못을 파고 성곽을 쌓는 데 일찍 털끝만큼이라도 대농大農에게 취하여 쓰지 않았고, 행행했을 때의 음식 공급과 선비와 무인의 시험에 주는 상품까지도 모두 별도로 저축하였다가 수시로 사용하였는데, 수리하고 보수하는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도리어 습관대로 유사有司가 변통하여 준비하고 이웃 고을의 창고에 저축된 것을 끌어다 쓴다면 위의 뜻을 받드는 도리에 심히 옳지 못하다. 삼가 아뢰고 결재를 얻어 삼만 섬의 곡식을 구획하여 얻어 내었다. 팔도의 주현에 나누어 두고 이자를 받아 돈을 만들어 창고를 설치하고 지키게 하여 사용하게 한다. 그 곡식을 팔고 사들이며 돈을 이리저리 주선하는 등의 조건은 별도로 절목을 만들었으니 영구히 따라 행할지어다.[77]

이처럼 다양한 조치에 따라 1790년(정조 14) 이후 연례화된 정조의 현륭원 원행은 국정 운영에 큰 문제를 끼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연로의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매년 거행되는 정조의 현륭원 원행은 오히려 왕의 효성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정조의 현륭원 원행을 이용해 연로의 주민들은 정조에게 온갖 민원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원행이 정조와 백성들 사이의 소통의

75_ 『정조실록』 권28, 정조 13년 9월 18일 신축.
76_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7월 1일 기묘.
77_ 이강로·방동인 외 역, 『국역 화성성역의궤』 하, 신구문화사, 1979, 235쪽.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화성행궁에는 행궁 운영 및 수리에 필요한 독자적인 재원이 확보되고 나아가 장용영까지 설치됨으로써 화성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화성은 수도 한양에 버금가는 행정도시, 군사도시 및 경제도시로 발달하였다. 이 결과 정조 대에는 화성이 수도 한양에 이어 사실상의 부도副都 역할을 하였다. 정조 대의 사실상 부도였던 화성에서 핵심공간이 바로 화성행궁이었다.

SUWON HWASEONG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02
화성행궁의 배치와 구조

1. 화성행궁 설치의 배경과 목적

1) 화성의 유수부 승격과 사도四都체제의 성립

수원부 치소는 원래 화산花山 기슭에 있었다. 현재 수원의 위치로부터 남쪽으로 약 8㎞ 떨어진 곳이다. 1789년(정조 13)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에서 화산으로 옮겨 현륭원顯隆園을 조성함에 따라 수원부 치소는 팔달산 동쪽 기슭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화성행궁은 새로 조성한 수원부 부아府衙를 그대로 행궁으로 삼게 되었다. 왕이 거둥하지 않을 때는 부사가 집무를 보는 관아로, 왕이 거둥하면 행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정조는 1793년(정조 17) 1월 12일 수원부 관아의 장남헌壯南軒(1795년 봉수당으로 이름이 바뀜)에서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를 화성유수부華城留守府로 승격시키는 전교를 내렸다. 수원부사의 지위도 화성유수로 격상되었다. 이 전교와 동시에 정조는 '화성행궁華城行宮' 판액을 직접 써서 이를 장남헌에 걸게 했다.[1]

유수부란 도성 한양을 호위하는 외곽의 군사도시이자 지방의 대도시이다. 화성이 유수부로 승격되기 이전부터 이미 경기도에는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開城과 강화江華가 유수부로서 중요한 행정·군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여기에 화성이 추가되었고, 그 2년 뒤인 1795년(정조 19)에는 남한산성을 담당하는 광주廣州가 유수부로 승격되었다. 이로써 한양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개성유수부, 서쪽의 강화유수부, 동쪽의 광주유수부, 남쪽의 화성유수부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 네 유수부를 통틀어

1_『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12일.



도성 한양과 4도(都)
(『해동여지도』, 「경기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사도四都'라고 한다. 이 사도의 체제는 '팔도사도八道四都', '경기사도京畿四都', '각도사도各道四都', '팔로 주현과 사도[八路州縣與四都]' 등과 같이 한양 근교 대도시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져 이후 조선의 여러 왕실 문헌이나 문집 등에 빈번히 등장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유수는 지방 관직인 외관직外官職이 아닌 중앙 관직인 정2품 내관직內官職 혹은 경관직京官職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유수에게는 당상관堂上官으로서 어전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화성은 유수부로 승격됨으로써 도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정조가 직접 쓴 「성신사상량문城神祠上樑文」에는 "화성에 성을 쌓으니 한漢나라의 삼보三輔와 주周나라의 이경二京을 갖춘 듯하다."[2]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삼보는 전한前漢 무제武帝 때 장안長安을 중심으로 하는 3개의 행정구역을 뜻하는 말로, 동쪽의 경조京兆, 북쪽의 좌풍익左馮翊, 서쪽의 우부풍右扶風을 총칭하며, 이경은 서주西周의 호경鎬京과 동주東周의 낙양洛陽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정조는 도성 한양과 사도(개성, 강화, 화성, 광

2_ 『화성성역의궤』 권2, 상량문.

주)를 중국의 삼보와 이경에 견주어 비유함으로써, 화성이 조선의 기타 지방도시와는 구별되어 매우 특별하게 취급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화성행궁은 화성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시설이다.

2) 화성행궁의 규모

행궁行宮이란 국왕이 항상 머물며 기거하는 도성의 궁궐과 달리 전란, 휴양, 능원 참배 등으로 인하여 지방에 행차하여 임시로 머무는 별궁別宮, 즉 행재소行在所로 사용하던 곳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행궁의 제도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어 삼국시대부터 시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더욱 제도화되어 많은 행궁이 건립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목적에 따라 많은 행궁이 세워졌는데, 그 쓰임새에 따라 행궁을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전란戰亂 등의 비상시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행궁이다. 왕이 전란을 피해서 국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종묘에 모신 선대의 신위神位와 왕실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화의 강화행궁江華行宮과 광주 남한산성 안의 광주행궁廣州行宮, 그리고 의주행궁義州行宮이나 북한산성 안의 양주행궁楊州行宮 등이 있다.

강화행궁은 1627년(인조 5) 후금後金의 공격을 받았던 정묘호란丁卯胡亂 당시 종묘의 신위를 모시고 피난했던 곳이다. 청나라 군대가 침입했던 병자호란丙子胡亂(1636~1637년) 때에는 봉림대군鳳林大君(뒤의 효종)을 비롯한 왕실 일가족이 이곳으로 피난하기도 하였다. 인조도 세자와 함께 강화행궁으로 향하고자 도성의 숭례문을 나섰으나, 이때는 이미 청군이 한양 근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었다. 인조는 가까운 남한산성 안의 광주행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이곳에서 항전하였다. 의주행궁은 임진왜란壬辰倭亂(1592~1598년)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여 이곳의 관아를 행궁으로 사용하며 오랫동안 머무른 일이 있다.

둘째, 왕의 휴양을 목적으로 세운 행궁이다. 세종 이래 온천溫泉으로 이름나서 역대 왕들이 즐겨 찾던 온양행궁溫陽行宮이 대표적이다. 『궁궐지宮闕志』에 의하면 1463년에 세조가 왕비와 함께 이곳에 들러 온천을 즐긴 사실이 있고, 1670년에도 현종이 대비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그 후에도 영조와 사도세자가 함께 온천을 즐기기 위해 온양행궁에 머물기도 하였다.[3]

셋째, 전란 등의 커다란 피해로 왕이 거처할 궁궐이 모두 파괴되어 제대로 궁궐이 갖추어질 때까지 머물렀던 행궁이다. "상上이 경사京師로 돌아와서 정릉동貞陵洞에 있

3_ 최홍규, 『정조의 화성 건설』, 일지사, 2001, 201쪽.



일제강점기 남한산성 내 광주행궁 전경
(경기도박물관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남한산성』, 2011)

는 고故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집을 행궁行宮으로 삼았다."[4]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 발발로 의주로 피난했던 선조가 1593년에 한양으로 돌아왔으나 도성 내의 모든 궁궐이 소실되어 마땅히 머물 곳이 없자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사저私邸였던 곳을 행궁으로 삼았던 일이 있다.

넷째, 왕이 한양 근교의 능원陵園에 전배하기 위하여 거둥하는 길에 머무는 행궁이다. 정조가 생부 사도세자의 무덤을 현륭원顯隆園으로 옮기고 난 뒤 도성 한양에서부터 현륭원에 이르는 몇 개의 중요한 경유지에 세운 행궁이 대표적이다. 과천행궁(果川行宮, 사근참행궁肆覲站行宮(사근행근沙斤行宮), 시흥행궁始興行宮, 안양행궁安養行宮, 안산행궁安山行宮, 노량행궁鷺梁行宮(노량행궁露梁行宮) 등을 들 수 있다. 크게 보면 화성행궁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화성행궁의 전체 규모가 576칸에 이르러, 다른 모든 행궁들과 비교해 보아도 월등히 크다는 점이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머물렀던 남한산성의 광주행궁은 총 227칸이었으며, 북한산성의 양주행궁은 총 124칸이었다. 휴양을 목적으로 한 온양행궁은 초사草舍 등의 부속건물을 다 합쳐 약 100여 칸이었고,[5] 원행 길의 유숙을 목적으로 한 시흥행궁은 총 114칸이었다.

광주는 전시를 대비한 남한산성을 관할하는 유수부로서 지방 수령인 유수가 상주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광주행궁의 규모는 다른 행궁의 2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화성

4_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 26년 10월 1일.
5_ 『현종실록』 권10, 현종 6년 4월 21일.



일제강점기 북한산성 내 양주행궁 전경
(조선총독부, 『조선고적도보』, 1931)

행궁은 전란 등 비상시의 피난을 위한 행궁이 아니었음에도 그 규모가 광주행궁의 2배를 훨씬 넘고 있다. 또 화성행궁에는 유수 1명, 각창감관各倉監官 6명, 풍헌風憲 39명, 이호예병형공吏戶禮兵刑工의 서리書吏 98명, 청직廳直 50명, 사령使令 40명, 관노官奴 46명, 관비官婢 40명을 비롯하여 총 274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유수부의 서리는 보통 40명 정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화성행궁에 98명의 서리가 있었다는 것은 이곳에서 처리했던 업무량과 범위 역시 방대했음을 보여 준다.[6]

3) 화성 천도설

정조가 한양에서 화성으로 도읍을 옮기려 했다는 화성 천도설遷都說은 화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이다. 한양은 당시 집권당인 노론老論 중심의 도시였으며, 정조는 수도 이전을 통하여 노론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화성 천도설의 요지이다.

화성 천도설에 관해 다룬 상당수의 문헌이 있으며,[7] 몇몇 연구들은 이 내용을 논문의 형식으로 다루기도 했다.[8] 또 1993년 발간된 이인화의 장편소설 『영원한 제국』은 화성 천도설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6_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여유당출판사, 2008, 180쪽.

7_ 안익승, 『수원의 맥』, 한국문학도서관, 1996; 황충기, 『여항인과 기녀의 시조』, 국학자료원, 1999; 한국문화유산답사회, 『경기 남부와 남한강』, 돌베개, 2000; 이덕일, 「화성천도를 추진한 정조와 수구세력 노론의 대결」, 『말』 통권 218호, 2004년 8월; 박태순, 『나의 국토 나의 산하』 제3권, 한길사, 2008 등을 참조.

8_ 정석종, 「정약용과 정조 · 순조 연간의 정국」, 『조선후기 정치와 사상』, 한길사, 1994; 김성윤, 「조선후기 정조대의 수원 육성과 천도시도」, 『역사와 세계』 제20호, 1996; 김홍순, 「조선후기 도시계획에 나타난 근대성 : 조선왕조실록 기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도시 행정 학보』 제22권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09 등이 있다.

이 간행한 문헌에도 정조가 화성으로 천도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적지 않게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의 『발전하는 수원發展せる水原』(1914년)에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성역에 관해서는 화성에 역의궤役儀軌(『화성성역의궤』)라고 칭하는 호한浩瀚한 서적이 있다. 권수卷首 외에 6권, 부편附編 3편, 도설圖說 등이 매우 치밀한 것으로, 아마도 공사 뒤 수년을 소비하여 쓴 저술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들여 안팎의 설비가 대강 정돈되었으니 정종正宗 왕의 기쁨은 매우 컸으나, 장차 천도를 공표하려고 할 때 불행히 병마를 뒤집어써서 절각折角의 고심은 수포로 돌아갔다.[9]

1930년에 간행된 『일본지리풍속대계日本地理風俗大系』 조선편朝鮮編 하下에도 정조가 화성으로의 천도를 기획했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정조 왕 부군父君의 능묘陵墓를 수원으로부터 8㎞ 떨어진 화산으로 옮겨 그 능묘에 가까운 땅으로 천도를 기획하여 이 경승景勝의 땅 수원을 골랐지만 성벽과 궁궐이 완성되었을 무렵에 왕은 숨져 버렸다.[10]

일제강점기의 간행물에 이러한 내용이 공공연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이 화성 천도설이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구비문학대계』(경기도 수원시·화성군편)에도 화성 천도에 관한 내용이 있다.[11] 여기에는 "정조는 또한 수원으로 도읍을 옮길 계획을 세워 왕도王都의 면모를 갖추려고 18년(갑인, 1794년) 화성의 성역을 착공하여 성곽, 성문, 누문을 건립하고 20년(병진, 1796년) 8월에 완공하였다."고 하였으며, "서호西湖도 정조대왕의 수원 천도 준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곳이다."라고 되어 있다.

화성 천도설이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18세기 말의 수원 화성 건설이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던 일이었으며, 역사적으로도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하지만 이 화성 천도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료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화성 건설 직후의 많은 기록들은 정조가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上王으로서 어머니 혜경궁과 함께 화성에 내려와 살고자 했다는 내용은 전하고 있다.

4) 상왕ㅗ王이 머물 곳, 화성행궁

정조는 1804년(갑자년)에 왕위에서 물러나 어머니 혜경궁을 모시고, 아버지 사도세자가 잠든 현륭원 곁의 화성으로 내려와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804년은 세자

9_ 『發展せる水原 · 仁川府勢一班 · 仁川鄕土誌』, 韓國地理風俗誌叢書 38, 경인문화사, 1995, 91~92쪽.
10_ 『日本地理風俗大系』 第17卷, 朝鮮篇 下, 東京 : 新光社, 昭和 5年, 187쪽.
11_ 『한국구비문학대계(1~5)』 경기도 수원시 · 화성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순조)가 15세 성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혜경궁은 『한중록』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선왕先王(정조)이 비록 종사를 위하여 부지런히 힘쓰시며 위位에 계시나, 지극한 아픔이 마음에 맺혀서 남면南面(왕위)에 계심을 즐겨 하지 않으시고, 존호尊號의 청을 굳이 막아 받지 않으시고, 항상 천승千乘을 떠나실 뜻이 있으셨다. 그러다가 성자聖子를 얻어 종국宗國을 부탁할 사람이 있게 되자, 화성華城을 크게 쌓아 경성京城에 버금가게 하고, 집 이름을 노래당老來堂과 미로한정未老閒亭이라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위位를 탐함이 아니라, 마지못하여 나라를 위하여 있었으나, 갑자년甲子年(1804년)이면 원자元子(순조)의 나이 열다섯 살이니, 족히 위를 전할 것입니다. 처음의 뜻을 이루어 마마를 모시고 화성으로 가서 평생 경모궁景慕宮 일에 손으로 행하지 못한 지극한 한恨을 풀 것입니다. 이 일이 나는 영묘英廟(영조)의 하교를 받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비록 지극히 원통하나 이 또한 의리義理요, 원자는 내 부탁을 받아 내 뜻을 이루어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이 의리요, 오늘날 신하들은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 의리요, 다른 날 신하들은 새 왕을 봉승奉承하는 것이 의리이니, 의리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의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자母子 살다가 자손의 효도로 이 영화榮華와 효양孝養을 받으면 어떠하겠습니까.[12]

여기서 혜경궁은 정조가 1804년 세자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과 함께 화성으로 내려와 살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그런 뜻에서 행궁 안에 노래당과 미로한정을 세웠다고 밝히고 있다. 노래老來는 늙는 것을 운명에 맡기고 편안히 거처하면 그곳이 바로 고향이라는 백거이白居易의 시에서 따온 것이고, 미로한未老閒은 장차 늙어서 한가롭게 쉰다는 뜻이다.

이것이 정조의 소위 '갑자년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이 혜경궁의 기록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왔다. 그러나 혜경궁뿐만 아니라, 당파를 막론한 여러 신하들이 남긴 비슷한 기록이 당시의 여러 사료에 등장하고 있다. 정약용丁若鏞(1762~1836년)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상께서 신臣 가환家煥(이가환)과 신 용鏞(정약용)을 불러 이르시기를, 화성은 바로 우리 장헌莊獻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금년乙卯年(1795년) 봄에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세자의 원園을 참배하고 왔다. 앞으로 10년이 지난 뒤 나는 거기서 노년을 보낼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화성에 노래당老來堂을 지었으니, 이 화성의 일은 삼가지 아니해서는 안 될 것이다.[13]

> 선대왕先大王(정조)이 일찍이 여기에 뜻이 있었다. 행궁行宮을 만들고, 그 전殿을 노래당老來堂이라 이름하고, 유수留守로 삼은 까닭이다.[14]

『정조실록』에 부록으로 있는 정조의 행장行狀과 「천릉지문遷陵誌文」에는 이러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매우 조심스럽게 적혀 있다.

12_ 혜경궁 홍씨 지음, 정병설 주석, 『원본 한중록』, 문학동네, 2010, 284~285쪽.
13_ 『여유당전서』 제1집, 시문집 권15, 묘지명, 정헌묘지명(貞軒墓誌銘).
14_ 『여유당전서』 제5집, 경세유표 권3, 천관수제(天官修制), 군현분례(郡縣分隷).

> 당堂을 노래老來라 이름하고 누樓를 신풍新豊이라고 이름 한 것에는 우리 신들로서는 차마 말하지 못할 성상의 은미한 뜻이 담겨 있으며, 성상의 효심에서 나온 것이다.[15]

> 화성행궁의 당을 노래라 하고 누를 신풍이라 했는데, 여기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16]

신풍이라는 이름은 한漢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고향인 패현沛縣 풍읍豊邑 중양리中陽里에서 유래한 말이다. 유방은 천하를 평정한 뒤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옛 진秦나라의 여읍驪邑을 풍읍의 거리와 똑같게 고치고 풍읍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신풍新豊이라고 하였다.[17] 정조 역시 화성을 새로운 고향으로 여겨 행궁의 누문樓門에 신풍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윤행임尹行恁(1762~1801년)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화성을 쌓은 일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 그래서 당堂을 노래老來라고 하고, 정亭을 미로한未老閒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몇 해를 더 계시지 못하여, 천고千古의 제왕帝王들이 일찍이 하지 못했던 일을 당세當世에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었던 것이다.[18]

또 『순조실록』에는 1802년 1월 20일에 영의정 심환지沈煥之(1730~1802년)의 말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화성행궁의 미로한정未老閒亭 편액을 보면, 성상의 뜻이 담겨 있는 바를 누가 우러러 인식하지 못하겠습니까.[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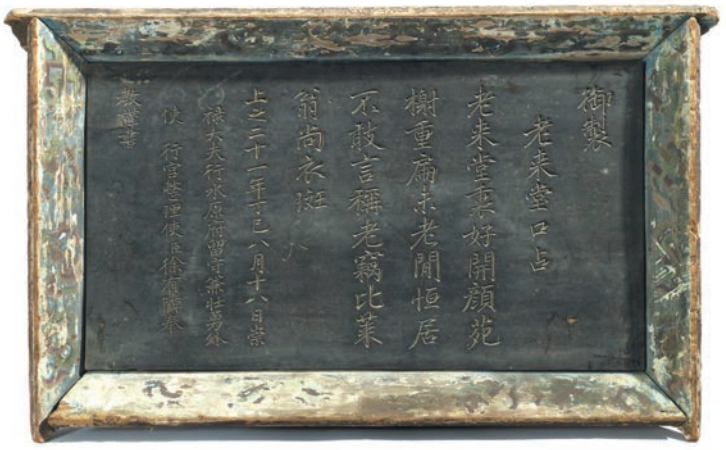
신하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정조 스스로가 화성으로 내려가 상왕으로 머물며 살고자 하는 뜻을 다음과 같이 은연중에 비치기도 하였다.

> 사관史官을 수원부에 보내 신읍의 유생들에게 글짓기 시험을 보였다. "상황이 와서 놀았다[上皇來遊]."라는 제목을 냈는데, 상이 좌우에 이르기를 "나에게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20]

또 김조순金祖淳(1765~1832년)은 자신의 문집 『풍고집楓皐集』에 수록되어 있는 「영춘옥음기迎春玉音記」에서 1800년(정조 24) 임종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의 정조가 남긴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사백 년 종사宗社의 무거움이 이 한 몸에 맡겨져 있어, 부득불 지금까지 민면黽勉(부지런히 힘씀)해 왔으

15_ 『정조실록』 부록, 행상. 이 글은 이만수(李晩秀)의 『극원유고(屐園遺稿)』 권7, 옥국집(玉局集), 행장, 건릉행장(健陵行狀)에도 실려 있다.
16_ 『정조실록』 부록 속편, 천릉지문(遷陵誌文).
17_ 『사기』 권8, 고조본기(高祖本紀).
18_ 『정조실록』 부록, 지문; 윤행임(尹行恁), 『석재고(碩齋稿)』 권17, 금석수록(金石隨錄), 건릉지(健陵誌).
19_ 『순조실록』 권4, 순조 2년 1월 20일.
20_ 『정조실록』 권31, 정조 14년 8월 11일.



「노래당구점(老來堂口占)」 편액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나, 지금은 나라의 근본을 공고鞏固히 하여 줄 일을 맡길 사람이 있으니, 내 어찌 본심本心을 따르지 않겠는가. 갑자년의 이야기는 경연 자리에 출입하는 대소신료大小臣僚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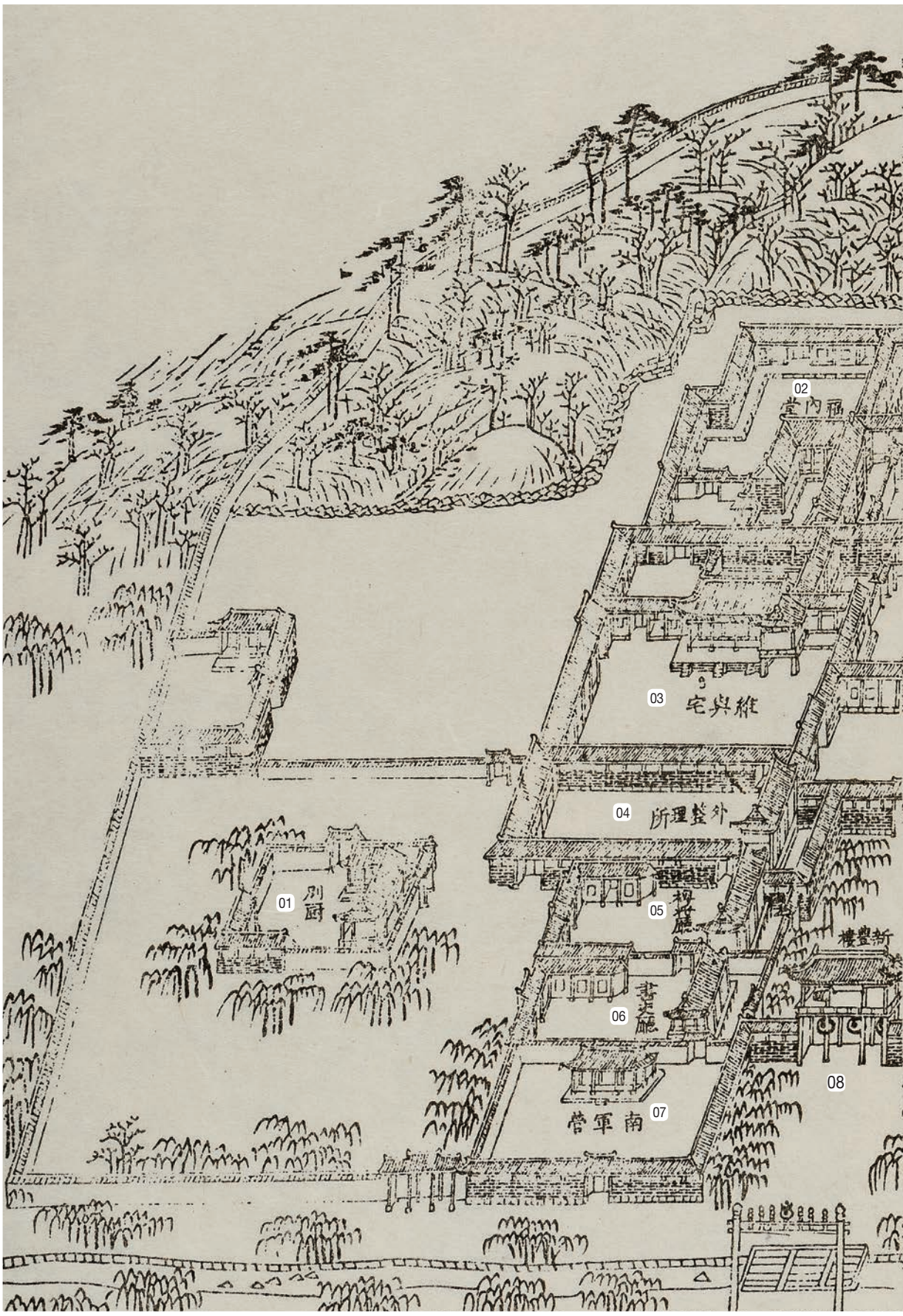
정조가 노래당에서 지은 「노래당구점老來堂口占」이라는 제목의 시詩의 내용 또한 의미심장하다. 『홍재전서弘齋全書』 등에 실려 있다.

노래당 안에선 흥취를 일으키기 좋구나 老來堂裏好開顔
원사를 중수하여 미로한 편액을 걸었다 苑榭重扁未老閒
평소에 감히 늙었단 말을 할 수 없으니 恒居不敢言稱老
삼가 반의를 숭상하던 내옹에 비기노라 竊比萊翁尙衣斑[22]

반의斑衣란 무늬가 있는 알록달록한 옷을 말하고, 내옹萊翁은 춘추시대 초楚나라의 효자였던 노래자老萊子를 가리킨다. 내옹은 그의 나이 70이 되었을 때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부모 앞에서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어린 아이 같은 장난을 하였다고 한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잠들어 있는 현륭원을 곁에 두고, 어머니 혜경궁을 모시고 살고 싶어 했던 정조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갑자년에는 새로운 60년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상징적 의미도 담겨 있다. 『삼국지三國志』의 황건적黃巾賊이 천하가 크게 길할 것이라며 봉기한 것도 1804년 갑자년이었다.

이상과 같이 『한중록』과 『여유당전서』에 실려 있는 정조의 말, 『정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정조의 행장 및 「천릉지문」, 『순조실록』에 적혀 있는 심환지의 말, 「영춘옥음기」에 적혀 있는 김조순의 증언, 『홍재전서』에 실려 있는 정조의 시에는, 1804년 갑자년에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화성으로 내려와 상왕으로서 살고자 했던 정조의 생각이 담겨 있다.

21_ 『풍고집(楓皐集)』 권17별집, 영춘옥음기(迎春玉音記).
22_ 『홍재전서』 권7, 시3, 노래당구점(老來堂口占). 이 시는 『화성성역의궤』 부편2, 어제(御製)에도 실려 있다.


02
内厩
03
維與宅
04
外整理所
01
別厩
05
06
書庫
新豊樓
08
07
南軍営



01. 별주
02. 복내당
03. 유여택
04. 외정리소
05. 비장청
06. 서리청
07. 남군영
08. 신풍루
09. 미로한정
10. 장락당
11. 봉수당
12. 경룡관
13. 중양문
14. 좌익문
15. 집사청
16. 북군영
17. 내포사
18. 득중정
19. 낙남헌
20. 우화관

「**행궁전도**」(『화성성역의궤』)

이것이 사실이라면 화성행궁에는 원행을 위한 왕의 숙소 혹은 유수부의 치소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성행궁은 상왕이 머물 곳의 건축 형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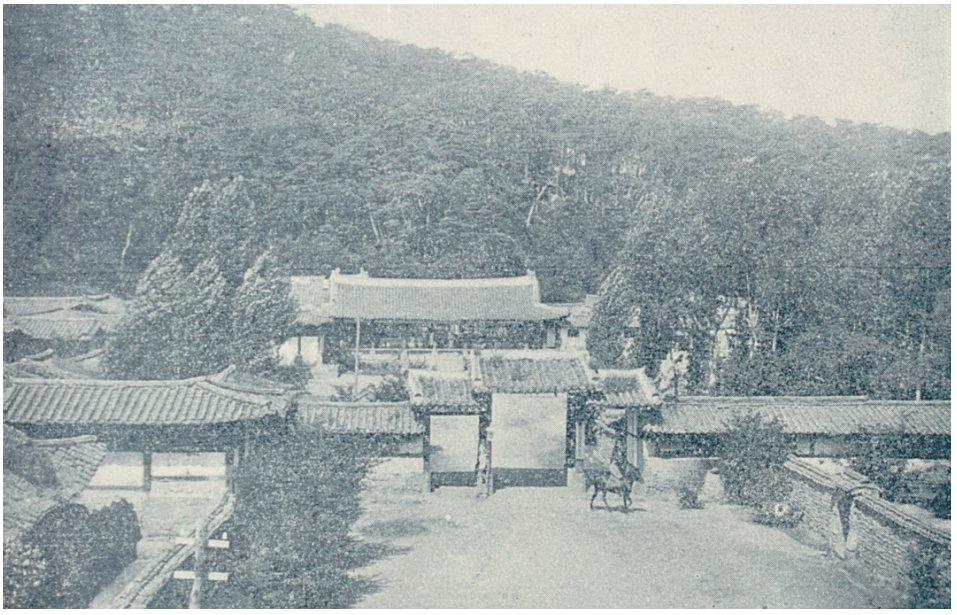
2. 화성행궁 건립 과정

1) 성곽공사 전후 화성행궁의 구조와 건물 규모

화성행궁이 1789년(정조 13) 처음 지어졌을 때에는 장남헌壯南軒 한 채를 행궁으로 삼았다. 그 왼편으로는 객사客舍인 팔달관八達館을 두었고, 오른편으로 관아官衙인 은약헌隱若軒과 내아內衙인 복내당福內堂을 두었으며, 주변에는 부속 관청과 행랑을 두었다. 그 앞으로는 정문인 진남루鎭南樓가 있었다.

<표 1> 화성행궁의 주요 건물 규모

건물명		행궁 조성 당시 건축 규모	신축·증축된 건축 규모	전체 규모
행궁(行宮)	봉수당(奉壽堂)	본채 7량 21칸 행각 43칸	행각 외 48칸	112칸
	장락당(長樂堂)		본채 7량 13칸 행각 외 12칸	25칸
	경룡관(景龍館)		본채 5량 4.5칸 행각 외 6칸	10.5칸
	복내당(福內堂)	본채 5량 18칸 행각 29칸	서별당 외 20.5칸	67.5칸
	낙남헌(洛南軒)	장춘각 5칸	본채 7량 14.5칸	19.5칸
	노래당(老來堂)		본채 5량 7칸 외 29.5칸	29.5칸
	득중정(得中亭)		본채 5량 13칸 부사 7칸	20칸
	신풍루(新豊樓)	누문 6칸	좌우행각 21칸	27칸
	유여택(維與宅)	본채 5량 8칸 부사 등 20칸	행각 외 50칸	78칸
공해(公廨)	외정리소(外整理所)		본채 5량 6칸 부사 외 21.5칸	27.5칸
	비장청(裨將廳)	본채 및 익랑 14.5칸		14.5칸
	서리청(書吏廳) 집사청(執事廳) 외		본채 5량 22칸 행각 외 6칸	28칸
	남북군영(南北軍營)	군영 24칸	좌우익랑 38칸	62칸
	기타		55칸	55칸
계				576칸



1910년대 화성행궁(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1789년 신축된 장남헌은 1795년 봉수당으로 개칭되고 일제시기에 자혜의원 건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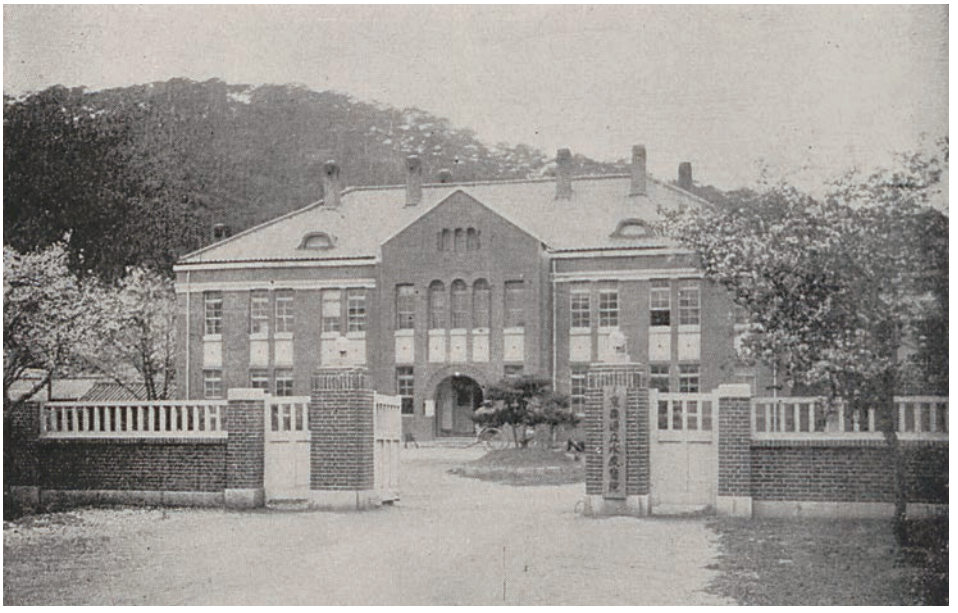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행궁과 관아 건물은 신축과 증축을 거듭하였다. 특히, 1794년(정조 18)에 시작된 화성 축성과 1795년 혜경궁의 회갑연을 겸한 을묘년 원행을 계기로 행궁은 대대적으로 증축되었다. 증축은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건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혜경궁 처소인 장락당長樂堂을 새로 만들고, 낙남헌洛南軒이 지어졌다. 정문인 진남루는 신풍루新豊樓로 이름을 고쳤으며, 장남헌은 혜경궁의 장수를 기념하는 뜻으로 봉수당奉壽堂으로 고쳤다. 은약헌은 유여택維與宅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봉수당 남쪽으로는 2층의 누문 경룡관景龍官을 새로 지었다. 이 밖에도 많은 부속 관청과 행랑이 새로 지어졌으며, 완성된 행궁의 전체 규모는 모두 576칸이었다.

2) 정조 대 이후의 화성행궁 구조 변화

정조가 승하한 뒤 1801년(순조 1) 행궁 서북쪽에 화령전華寧殿이 들어섰다. 화령전은 정조의 진영眞影을 봉안하고 제사를 올리던 곳이다. 정조의 진영이 봉안된 운한각雲漢閣을 비롯하여 이안청移安廳, 재실 풍화당風化堂, 전사청, 향대청, 제기고, 외삼문과 내삼문, 중협문이 있었는데, 이 중 남쪽에 있었던 향대청과 제기고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순조는 이곳에서 노인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베풀기도 하였으며, 정조의 탄신일誕辰日과 돌아가신 납향일臘享日에 직접 제향祭香을 올리기도 하였다. 운한각의 현판은 원래

화성행궁 자리에 들어선 경기도립수원의원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 1929)



순조가 쓴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1975년 화성 복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1910년 「조선읍성철거시행령朝鮮邑城撤去施行令」으로 전국의 읍성 300여 곳이 철거되면서 화성행궁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 봉수당과 장락당 자리에는 관립수원자혜의원官立水原慈惠醫院이 들어섰으며, 객사 우화관于華館은 수원공립보통학교(현재의 신풍초등학교) 건물로 사용되었고, 낙남헌과 노래당은 각각 수원군청사와 수원세무소로 사용되었다.

행궁의 중심 건물인 봉수당과 장락당에 들어선 자혜의원은 수원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서구식 의료기관으로서, 이후 화성행궁이 훼손되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처음에는 두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했지만, 이후 1923년 5월에 새로운 병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봉수당과 장락당을 비롯한 행궁 내 여러 전각들이 철거되었다. 신축한 병원은 원래 부지를 좀 더 확장하여 3,751평의 대지에 총공사비 7만 8,000원을 들여서 지어졌다. 지상 2층 벽돌조의 본관 건물을 비롯하여 본관 서·남·북쪽에 병동과 전염병동 등을 갖춘 총 673여 평의 규모였다. 수원자혜의원은 1925년에 경기도립수원의원으로, 1958년 12월 경기도립수원병원으로, 1988년에는 경기도수원의료원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1991년 수원의료원은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고, 1993년 수원시가 화성행궁의 복원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해 12월에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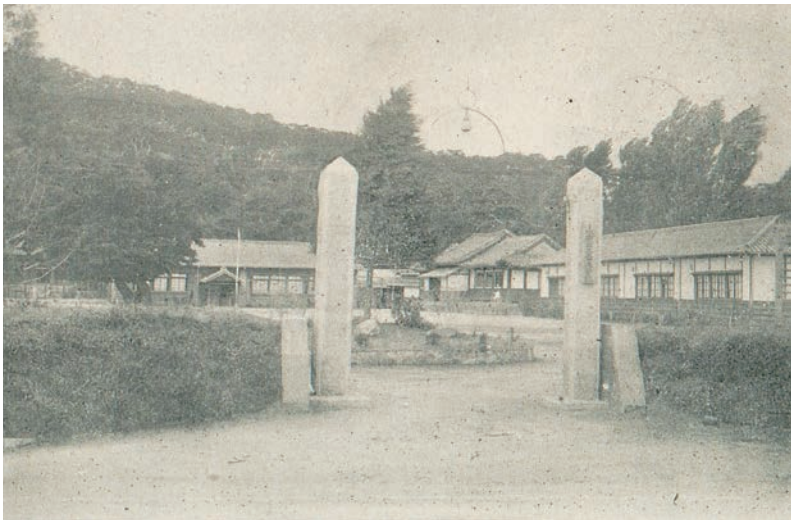


복원된 화성행궁 전경

3) 화성행궁 복원사업

수원 화성 성곽의 복원 이후 1989년 4월에 뜻 있는 시민들이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같은 해 10월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행궁을 복원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복원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할 당시는 화성행궁 터에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된 낡은 병원 건물을 현대식 건물로 개축하기 위한 설계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였다. 만약 복원이 되기 전에 현대식 병원 건물이 들어선다면 영원히 화성행궁을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원시는 화성행궁을 복원하기 위한 첫 단계로 1994년 3월부터 화성행궁지華城行宮址에 대한 유구 및 지표 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5월 13일에는 구舊 수원의료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였다. 이어 1995년 4월 24일 화성행궁지가 경기도 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수원시는 화성행궁 복원을 주요 시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1995년 12월부터 행궁지 1차 발굴조사를, 1996년 8월에는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복원의 기초 자료인 어도, 기단석, 각종 유구 등을 발굴하였다. 이어 1996년 4월 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3일 경기도로부터 행궁 복원에 대한 설계승인을 받아서, 7월 18일에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1997년 9월 12일에 화성행궁 정당 봉수당의 상량식을 갖게 되어 화성행궁 복원의 첫 결실을 보게 되었다.[23] 2003년 7



우화관 자리에 들어선 수원공립보통학교

월 말에 주요 전각 및 부속건물 482칸의 복원을 완료한 1단계 공사가 끝났으며, 2003년 10월에 개관하였다. 복원된 행궁은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78호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다.

2012년 현재 수원시는 화성행궁의 2단계 복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신풍초등학교가 서 있는 자리에 있었던 우화관于華館, 장춘각藏春閣, 별주別廚, 분봉상시分奉常寺의 4개 건물을 복원하는 일이다.

신풍초등학교는 1896년 「소학교령小學校令」에 의해 수원향교 부근의 교동 2번지 일대에 수원군공립소학교水原郡公立小學校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였다. 이후 남군영을 빌려 사용하다가 우화관으로 이전하였고, 1933년에 우화관을 철거하고 교사를 신축하였다. 우화관은 화성유수부의 객사로서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가 보관되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한양의 대궐을 향해 예禮를 올리던 곳이다.

수원시는 수원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및 동문회,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2013년에 신풍초등학교가 광교택지개발지구로 이전되면, 그 자리에 우화관을 복원하고 2014년까지 화성행궁 전체 시설을 복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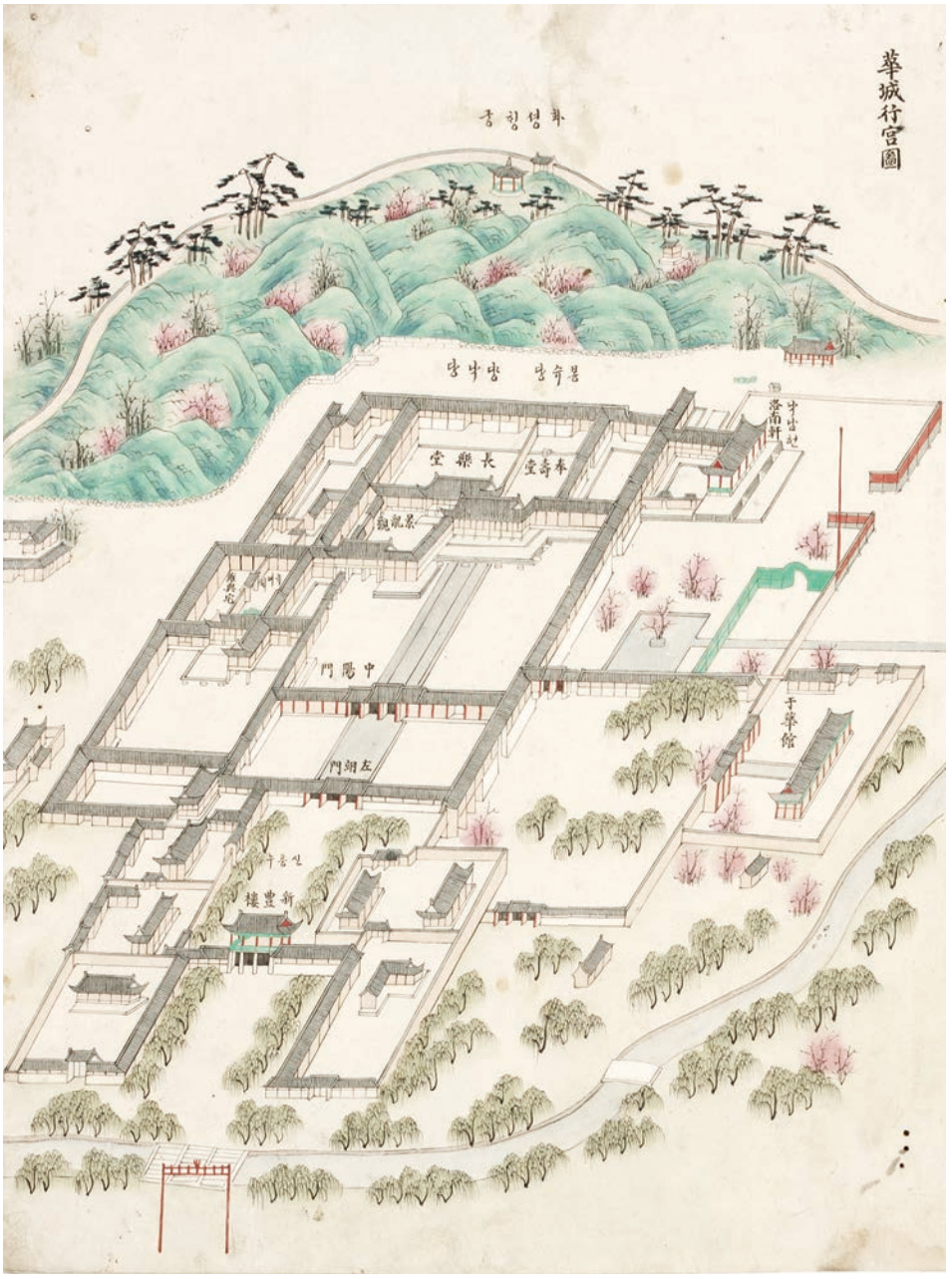
3. 화성행궁의 입지와 배치

1) 입지

화성행궁의 입지와 주변 경관, 건물 배치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자료로서 『화성성역의궤』의 「화성전도華城全圖」와 「행궁전도行宮全圖」, 『원행을묘정리의궤』의 「화성행궁도華城行宮圖」, 그리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작자 미상의 「화성행궁도」 등이 있다. 이 그림들에 묘사된 화성행궁은 팔달산八達山 기슭이 평지와 만나 시가지가 넓게 열리기 시작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화성행궁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팔달산은 행궁의 서쪽에 위치한다. 화성행궁은 팔

23_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수원시가 발간한 『화성행궁 복원사업 보고서』(2002. 7.)에 정리되어 있다.



팔달산 기슭에 자리한 화성행궁
(『원행정리의궤도』, 「화성행궁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달산을 진산鎭山 혹은 주산主山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24] 서쪽의 팔달산을 등지고 앉아 동쪽을 향하는 좌향坐向을 취하고 있다. 『화성성역의궤』는 이러한 화성의 전체 국면局面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4_ 『화성성역의궤』에는 '후진(後鎭)'이라 되어 있고, 『화성지(華城誌)』는 주산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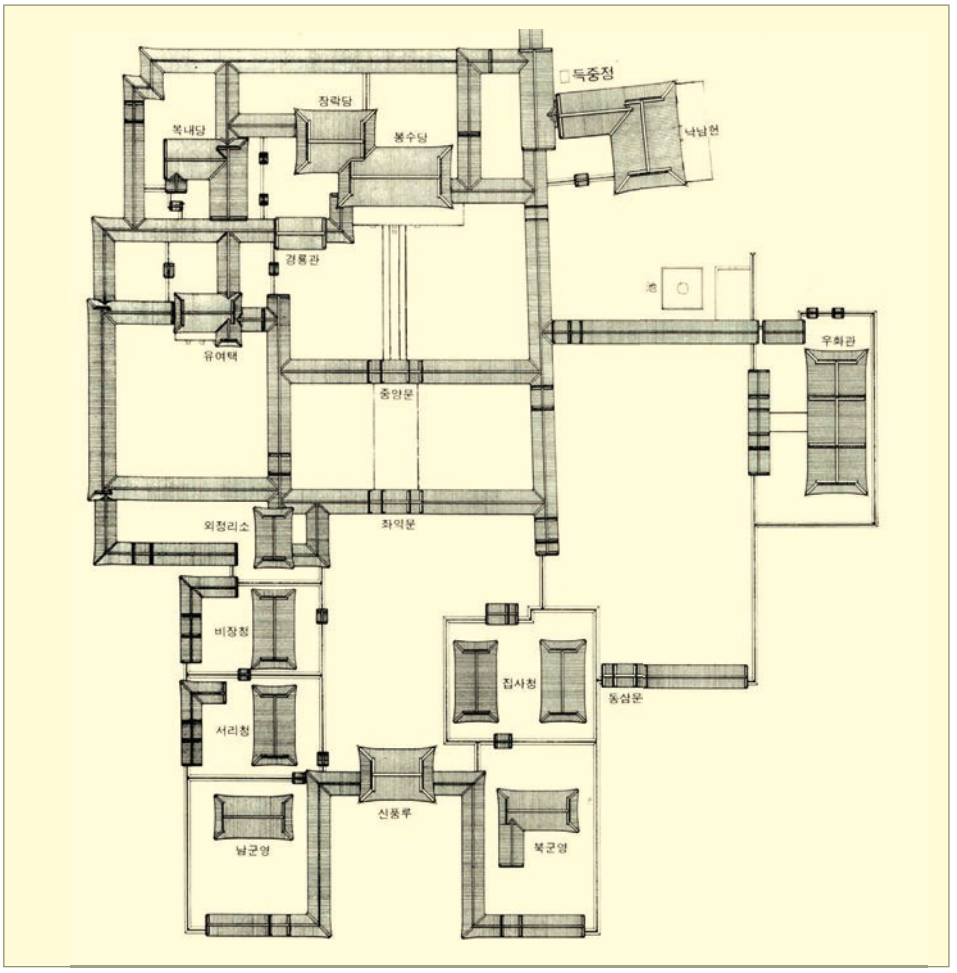
화성 봉돈(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성의 국면은 동쪽을 향하여 열리었는데 팔달산이 높이 솟아 후진後鎭이 되어 있다. 일자사一字砂는 평평하여 가까이 안산이 되었는데 가운데로 대천大川이 남북을 꿰뚫어 흐르고 있다.[25]

대천 너머의 일자사, 즉 일一자 모양으로 평평한 산이 화성의 안산案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성역의궤』는 화성의 봉돈烽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봉돈은 일자문성一字文星의 위에, 동2포東二鋪와 동2치東二稚 사이에 있는데 행궁의 안조案照가 된다."[26] 이 일자사 혹은 일자문성은 화성 전체 국면의 안산이기도 하고 동시에 행궁의 안산, 즉 안대案對이기도 하다.

「화성전도」로 보면 화성행궁의 입지는 행궁의 우측 뒤편으로부터 내려온 시냇물이 행궁 앞을 감싸며 좌측으로 흘러 나가고, 반대로 행궁 뒤의 팔달산 줄기는 행궁의 왼편을 감싸며 흘러내린다. 이렇게 물이 시계방향으로 흘러내려 행궁의 우측과 전면을 감싸고 산이 반시계방향으로 흘러내려 행궁의 후면과 좌측을 감싸서 행궁의 터를 아늑하게 만들고 있다. 또 행궁 뒤편의 산기슭과 좌우 담장 안팎에는 많은 나무를 심어 그 아늑함을 더욱 강조하였다.

25_ 『화성성역의궤』 권수, 도설.
26_ 『화성성역의궤』 권수, 도설.



화성행궁 지붕평면 계획배치도
(『화성행궁지 : 기본 및 지표조사보고서』)

2) 건물 배치

화성행궁이 건립되었을 당시의 배치를 보면, 홍살문을 지나서 신풍교新豊橋를 통해 명당수明堂水를 건너면 행궁의 정문인 신풍루新豊樓가 있다. 이 명당수는 행궁의 북쪽 바깥을 감으면서 동쪽으로 흘러내려온 개천이 행궁 동북쪽 모퉁이에서 꺾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나가는 물줄기이다. 신풍교를 지나 행궁으로 들어가기 전, 신풍루 앞에는 신풍루에서 좌우로 이어져 나간 행각이 각각 북쪽 끝과 남쪽 끝에서 동쪽 앞으로 꺾이어 나간 행각으로 둘러싸인 네모난 마당이 조성되어 있다. 이들 행각 안에는 남군영南軍營과 북군영北軍營이 위치한다. 신풍루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좌익문左翊門, 중양문中陽門, 봉수당奉壽堂이 일직선을 이루는 축선상에 차례로 동향을 하고 서



신풍루

있다. 신풍루에서 좌익문을 거쳐 중양문과 봉수당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화성행궁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나머지 건물들은 이 중심축의 좌우에 각각의 영역을 이루는 담장이나 행각 또는 건물들로 일곽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행궁 안의 주요 건물들로 통하려면 담장이나 행각으로 둘러싸인 마당을 경유하도록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현재 홍살문 바깥은 이 일대에 있던 건물들을 철거하고 넓게 조성한 행궁광장이 마련되었다. 행궁광장 남쪽으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명당수가 흘러 나가고, 명당수와 접한 도로 남면에는 수원문화재단 건물이 들어섰다. 행궁 영역 남쪽에는 주차장이 조성되었고, 그 동쪽 끝에는 화장실이, 동남쪽 모서리에는 수원화성사업소 건물이 서 있다.

행궁 입구에서 보면 좌우에 있는 행각 안에 신풍루보다 앞쪽으로 남군영, 북군영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왼쪽의 남군영 서쪽 뒤로는 서리청書吏廳과 비장청裨將廳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차례로 담장으로 경계를 이루며 각각 별도의 영역을 이루었고, 비장청 뒤쪽인 서쪽으로는 행랑이 남쪽으로 좀 더 길게 나간 곳 북쪽에 외정리소外整理所가 자리하며 일곽을 이루며 서 있다. 신풍루 우측(북쪽)의 북군영 뒤로는 두 채의 집사청執事廳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일곽을 이루며 서로 마주보고 있다. 집사청 일곽 서북쪽에는 넓은 마당이 있고, 마당 북쪽의 서편으로 우화관于華館 일곽이 있다. 우화관 일곽에는 현재 신풍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외정리소에서 더 안쪽인 서북쪽에는 행각으로 둘러싸여 넓은 마당을 갖춘 유여택維與宅이 마당의 서쪽 끝 행각과 함께 동향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행각으로 둘러싸인 마당이 있고, 향춘문向春門을 통해 이 마당을 지나면 복내당福內當 일곽이 있다. 복내당은 건물 서쪽의 북측에 난 행각으로 북측의 장락당長樂堂으로 이어지는데, 장락당과 봉수당 사이는 행각으로 둘러싸인 마당에 동서방향으로 길게 쌓은 담장에 의해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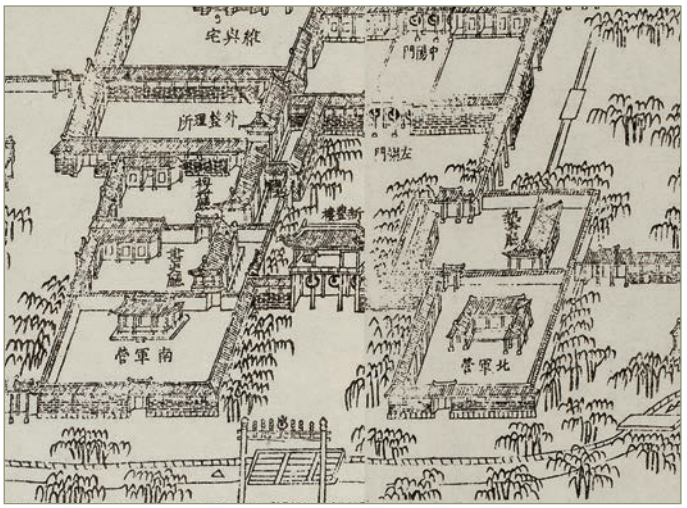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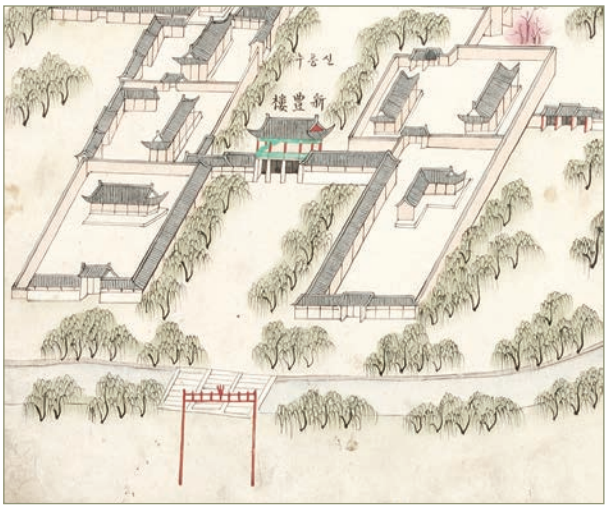
신풍루 앞마당의 세 그루 느티나무

장락당 앞면인 동쪽의 북측 한 칸을 끼고 그 북쪽 앞으로는 행궁의 정당 건물인 봉수당이 동향하여 있다. 장락당과 봉수당의 지붕은 맞닿아 이어져 있다. 봉수당 북쪽 행각 밖으로는 낙남헌洛南軒과 노래당 건물이 있다.

(1) 신풍루를 중심으로 한 삼문 및 공해公廨 영역

행궁 안으로 들어서기 전의 신풍루新豊樓 앞마당에는 수령이 약 350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 세 그루가 서 있다. 홍살문과 신풍루를 잇는 축을 중심으로 볼 때 남쪽으로 앞(동쪽)과 뒤(서쪽)에 각각 1그루, 그리고 북쪽 앞으로 1그루 서 있다. 1982년 10월 15일 수원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하였다. 주周나라 때 삼괴구극三槐九棘이라 하여 조정의 외조外朝에 세 그루 회화나무를 심고 삼정승에 해당하는 삼공三公(태사太師, 태전太傳, 태보太保)이 이 나무 아래에서 어진 사람을 맞아 올바른 정치를 베푼다는 고사에 기원한다.





左 **신풍루와 남군영·북군영 영역**
(『화성성역의궤』, 「행궁전도」)

右 **신풍루와 남군영·북군영 영역**
(『원행정리의궤도』, 「화성행궁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풍루는 외삼문外三門으로서 행궁 밖에서 정당正堂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세운 세 개의 문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2층의 누문이다. 행궁 전체의 정문 역할을 한다. 1789년(정조 13)에 처음 세워졌는데 이때의 이름은 진남루鎭南樓였으며, 1795년(정조 19)에 신풍루로 개칭하였다.

신풍루 주변에는 행정 및 군사와 관련된 공해公廨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신풍루 좌우의 전면으로 돌출된 행각 안에는 각각 남군영南軍營과 북군영北軍營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행궁 전체가 동향을 하고 있으므로 신풍루 왼편이 남군영, 오른편이 북군영이 된다. 화성을 수비하는 장용외영壯勇外營의 친군위親軍衛가 숙직을 서며 행궁을 호위하던 곳이다. 남·북군영은 1789년(정조 13)에 처음 지어진 뒤 1794년에 신풍루와 이어지는 행각을 추가로 지어서 모두 62칸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화성성역의궤』에는 "북영北營은 신풍루 왼쪽에, 남영南營은 신풍루 오른쪽에 있는데 칸수나 구조에는 차이가 없다"[27]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의궤의 「행궁전도」에 그려진 남군영과 북군영은 서로 다르다. 남군영이 一자형 건물이고, 북군영이 冂자형 건물로 그려져 있다. 『원행정리의궤도』의 「화성행궁도」는 이와 또 달라서 북군영이 역ㄱ자형 건물로 그려져 있다.

북군영의 서쪽 담 너머에는 집사청執事廳이 있고, 남군영 서쪽으로는 서리청書吏廳과 비장청裨將廳이 차례로 들어서 있다. 비장청의 뒤가 되는 서쪽으로는 외정리소外整理所가 있다. 비장청과 서리청, 외정리소는 북쪽으로 좌익문左翊門 앞마당과 통한다.

서리청은 문서의 기록 및 발급, 수령을 담당하는 서리들이 사용하던 건물이고, 비장청은 유수부의 비장들이 사용하던 건물이다. 비장청 건물은 원래 1789년(정조 13)에 서리청으로 세워졌는데 1796년 여름까지 서리청으로 사용되다가 건물의 지붕

27_ 『화성성역의궤』 권7, 부편 1, 공해, 남북군영행각(南北軍營行閣).

을 수리한 뒤 서리청이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겨 가면서 비장청이 되었다. 외정리소는 1796년(정조 20)에 유여택維與宅 동쪽의 행각을 수리하고 그 너머에 터를 닦아서 지은 건물로서 1층은 헛간이고 2층은 다락이다. 외정리아문外整理衙門이라고 쓴 편액을 달았다. 외정리소의 북쪽으로는 좌익문 행각과 이어지는 곳으로부터 동쪽을 향해 직각으로 꺾인 부분에 3층의 창고 건물 기층헌起層軒을 신축하였다. 기층헌에 설치된 살창은 창고의 환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헛간과 다락으로 이루어진 2층의 외정리소와 함께 각종 행사에 필요한 많은 물건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였다.[28] 집사청은 북군영의 서쪽 담장 너머에 있는데, 1789년(정조 13)에 집사들이 사무를 보는 곳으로 세워졌으며, 남향하고 있다.

신풍루를 지나 안으로 들어오면 중삼문中三門인 좌익문이 있다. 좌익문은 1790년(정조 14)에 세워졌다. 좌익문 남쪽 행각은 외정리소의 부속건물인 기층헌과 연결되며, 북쪽으로는 우화관于華館 정문인 중약문重鑰門과 이어진다. 좌익문에서 중약문으로 이어지는 마당 동쪽 모서리에는 행궁이 건립되기 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수령이 600년 이상 되는 느티나무 1그루가 서 있다. 이 나무는 1982년 수원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좌익문을 지나면 마지막 삼문인 내삼문內三門 중양문中陽門이 나온다. 중양문은 한나라 고조高祖의 고향인 패현沛縣 풍읍豊邑 중양리中陽里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신풍루에서 좌익문을 거쳐 중양문으로 들어오는 삼문의 배치는 전체적으로 화성행궁의 중심축을 이룬다. 이는 정당인 봉수당奉壽堂의 위엄과 격식을 높이고 전체 건물 배치에 하나의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남군영과 북군영, 서리청, 비장청, 외정리소, 집사청의 공해 건물은 이 중심축의 좌우에 대칭을 유지하면서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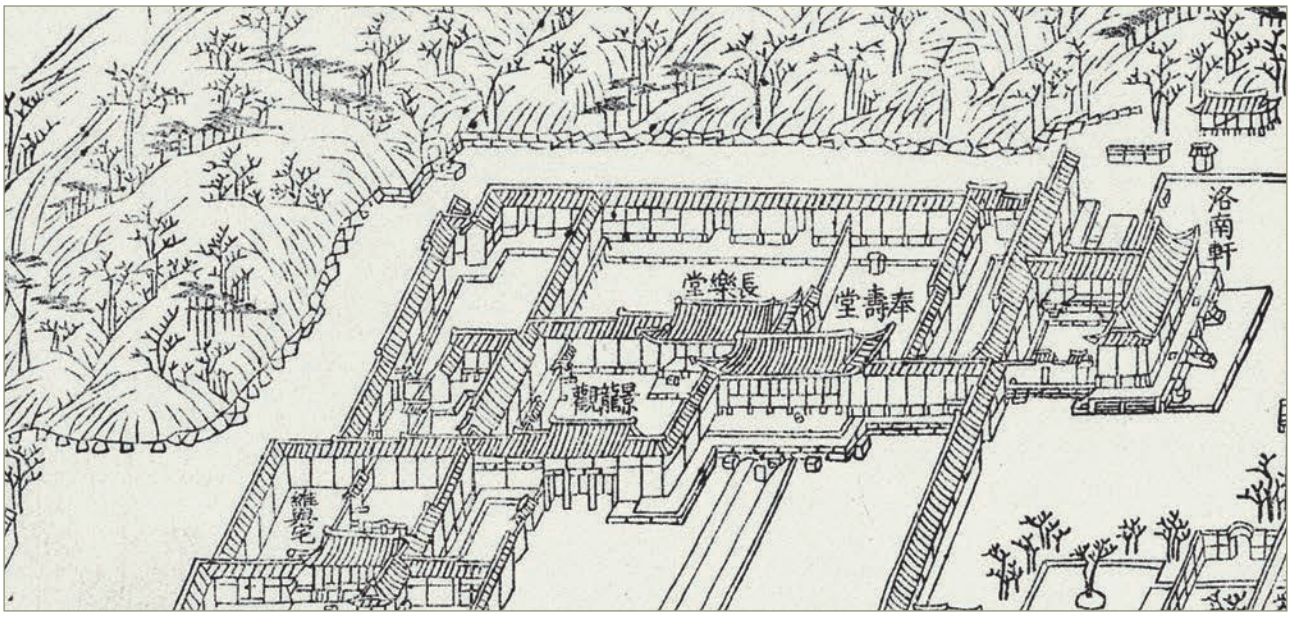
(2) 봉수당 일곽의 행궁 중심 영역

이 영역은 봉수당奉壽堂을 중심으로 해서 장락당長樂堂, 복내당福內堂, 경룡관景龍館, 유여택維與宅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행궁의 정당正堂과 내당內堂 건물이 이곳에 세워졌다. 정당인 봉수당에서는 혜경궁의 회갑연 등 왕실과 관련된 의례가 거행되었으며, 평상시에는 이곳에서 유수가 집무를 보았다.[29] 장락당과 복내당에서는 취침 등의 왕실 가족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졌다. 유여택은 소차小次, 즉 왕이 행차했을 때 잠시 쉬는 곳으로서 평상시에는 유수의 거처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신풍루新豊樓에서부터 좌익문左翊門과 중양문中陽門을 거쳐 안쪽을 향해서 들어가면 그 축의 정점에 화성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이 있다. 봉수당은 1789년(정조 13) 가을에 지어졌다. 이때의 이름은 장남헌壯南軒이었다. 건물이 완성된 이듬해인 1790년(정

28_ 김선희, 「화성행궁 주요 건물의 배치와 기능」, 『고궁문화』 제3호, 국립고궁박물관, 2010, 51쪽.

29_ 『화성성역의궤』 권7, 부편1, 행궁, 봉수당행각(奉壽堂行閣).



봉수당 주변
(『원행을묘정리의궤』, 「화성행궁도」)

조 14) 2월에 정조가 장남헌이라는 편액을 써서 달았으며, 이후 1795년(정조 19, 을묘) 원행에 맞추어 혜경궁의 회갑연을 이곳에서 치렀다. 이때 혜경궁의 장수를 봉축한다는 의미에서 봉수당으로 개칭하였다. 정조가 '화성행궁'이라고 쓴 편액을 이곳에 걸었다는 것은 곧 봉수당이 화성행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1800년 정조의 국장이 치러질 때에는 영가靈駕가 장지인 건릉健陵으로 가는 길에 이곳 봉수당에 잠시 봉안되기도 하였다.[30] 화성행궁 중심으로서 봉수당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봉수당의 남쪽 뒤편으로는 혜경궁의 침소로 사용되었던 장락당이 있다. 1794년 8월에 완성되었다. 장락이라는 이름은 전한前漢의 수도 장안長安의 장락궁長樂宮에서 유래한 것이다.[31] 장락당과 봉수당은 지붕이 맞닿아 있으며 행각으로 서로 이어져 있다. 혜경궁이 건물과 건물을 이동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32] 장락당의 남쪽 담장에는 다복문多福門과 장복문長福門이 있어 복내당과 통하게 하였다. 봉수당과 장락당의 뒷마당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삼수문三壽門과 득한문得閒門을 이용하여 득중정得中亭과 미로한정未老閒亭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다.

장락당 앞에는 누문인 경룡관이 있다. 경룡관을 통하면 봉수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락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원행정리의궤도』에 수록된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에는 경룡관 앞에 혜경궁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마가 그려져 있다. 가마를 그려 넣은 것은 혜경궁이 회갑연을 받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

30_ 『일성록』 10책, 순조 즉위년 11월 4일.
31_ 『수원지명총람』, 수원시 · 수원문화원, 1999, 241쪽.
32_ 김동욱,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169쪽.



유여택과 공신루

며, 가마가 놓인 위치로 보았을 때 혜경궁이 경룡관을 통해서 봉수당 안쪽 혹은 장락당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33] 경룡관 2층에는 마루를 깔고 사방에 난간을 둘렀으며, 1층에는 세 개의 널문을 두었다. 1층은 출입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따로 지락문至樂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34] 경룡관은 봉수당의 남쪽 행각과 이어지며 동남쪽에 있는 경선문慶善門을 통해 유여택과 이어진다.

장락당 남쪽으로는 원행 기간 중에 정조의 침소로 사용되었던 복내당이 있다. 『화성성역의궤』는 복내당을 '행궁의 내당內堂'이라고 하였다. 1790년(정조 14)에 지어졌으며, 1795년(정조 19, 을묘) 을묘년 원행을 대비하여 1794년(정조 18) 가을에 증축하였다. 복내福內는 『한서漢書』의 「조충국전趙充國傳」에 나오는 말로서 "일으켜 얻는 것은 밖으로부터이고 복을 낳는 것은 안으로부터이다."[35]에서 취한 이름이라고 한다. 복내당의 동행각에는 유복문維福門, 서별당에는 구여문九如門, 외행각의 북쪽 끝에는 구복문九福門이 있다. 복내당은 행궁 서남쪽 모퉁이로 깊게 들어간 곳에 지어졌으며 다른 주요 건물들과 비교하여 작은 마당을 갖추고 있다. 내당으로서의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

복내당 동쪽의 담장 너머에는 유여택이 있다. 『화성성역의궤』는 유여택을 왕이 "행행하였을 때의 소차小次(임금이 거둥하여 임시로 막을 쳐 놓고 잠시 쉬는 곳)"[36]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정조는 원행 기간에 이곳에서 화성유수나 암행어사 등 신하를 접견하면서 혜경궁의 회갑연에 관한 일 등을 논하기도 하였다. 평상시에는 유수가 거처하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33_ 김선희, 「화성행궁 주요 건물의 배치와 기능」, 『고궁문화』 제3호, 국립고궁박물관, 2010, 43쪽.
34_ 『화성성역의궤』 권7, 부편1, 행궁, 장락당(長樂堂).
35_ 『홍재전서』 권177, 일득록17, 훈어4.
36_ 『화성성역의궤』 권7, 부편1, 행궁, 유여택(維與宅).

유여택 앞마당은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행각의 사방에는 문이 설치되어 있다. 유여택 북쪽 행각에는 연휘문延暉門과 유여문維輿門이 있는데, 연휘문을 통해서는 봉수당 앞마당으로 이어지며, 유여문을 통해서는 좌익문 앞마당으로 연결된다. 이 맞은편의 남쪽 행각에는 가어문嘉魚門과 경화문慶華門이 있어서 이를 통하여 행궁 외부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유여택 정면의 행각에는 빈희문賓曦門을 두어 외정리소와 통하게 하였고, 그 맞은편의 행각에는 향춘문向春門을 내어 복내당과 연결하고 있다. 행각의 사방에 문이 나 있어 다른 곳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이곳이 평상시에 유수의 거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상적 편의가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유여택 앞쪽 툇마루에는 조선시대 상류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마루 형식의 공신루拱宸樓가 조성되어 있다. 이 역시 유수의 일상적 생활의 편의를 고려한 결과이다.

(3) 낙남헌을 중심으로 한 행사 및 휴식을 위한 영역

낙남헌洛南軒, 득중정得中亭, 노래당老來堂, 미로한정未老閒亭 등이 있는 곳이다. 낙남헌에서는 특히 백성과 함께 하는 행사가 많이 펼쳐졌다. 혜경궁 회갑기념 양로연養老宴, 문·무과 별시別試, 화성 낙성연落成宴 등이 그것이다. 정조가 말하는 "상하동락上下同樂"의 이념이 잘 구현되었던 곳이 바로 이 낙남헌 영역이다.[37]

낙남헌은 1794년 원래 득중정이 있던 곳에 득중정을 노래당 서쪽의 지금의 자리로 옮기고 세워졌다. 낙남헌이라는 이름은 한漢나라 고조가 낙양洛陽의 남궁南宮에서 주연을 베풀었던 것에서 따온 것이다. 이것을 보아도 주연과 휴식을 위한 건물로서 낙남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낙남헌은 7량 4.5칸 규모로 북향을 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노래당과 득중정이 이어지고, 동북쪽으로는 우화관于華館의 남쪽 담과 이어져 있었으며, 북쪽에는 강무당講武堂과 무고武庫, 수성고修城庫 등이 있었다. 이들 우화관, 강무당, 무고, 수성고는 현재 복원되어 있지 않다.

낙남헌 앞으로는 마당이 넓게 열려 있는데, 북쪽을 넓게 열고 이동식 담장을 두었다. 행사가 있을 때 이 이동식 담장을 걷어 내면 낙남헌 앞마당이 그 바깥으로 연결되어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곳에서 양로연, 별시, 낙성연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대규모의 행사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동식 담장은 매우 유용하였다. 잔치에 참여하는 신료는 물론 낙남헌 마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까지 담장 주변에서 잔치의 흥겨움을 함께할 수 있었다.[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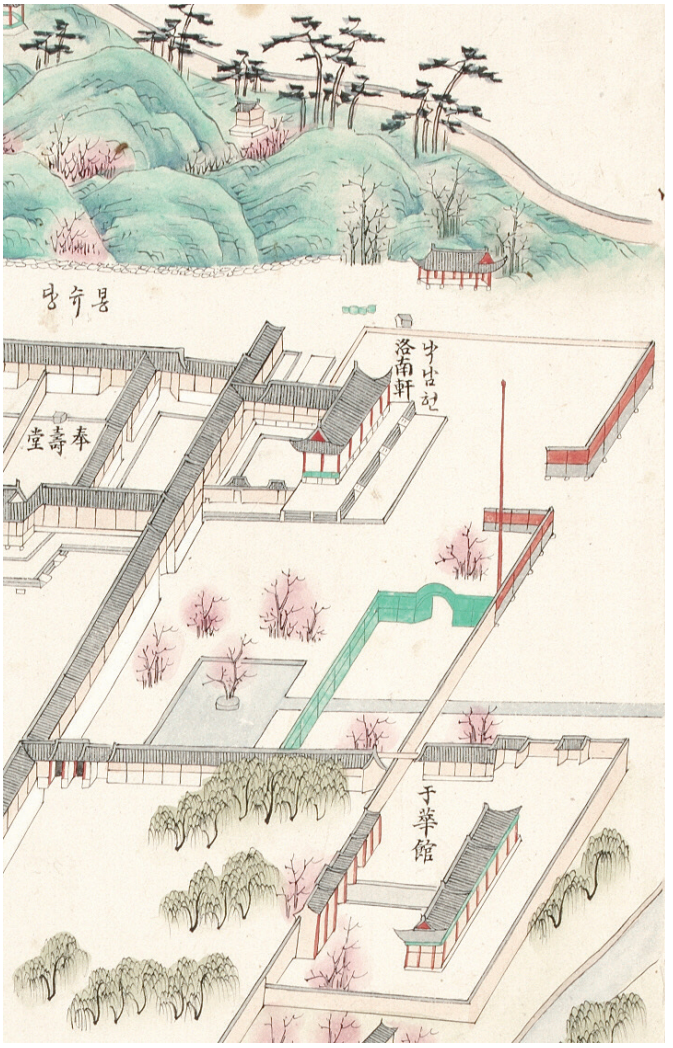
득중정은 활을 쏘는 사정射亭이다. 정조는 1790년 활쏘기를 하고 연달아 사중四中한 뒤 득중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때의 득중정은 9칸 규모로 현재 낙남헌이 있는

37_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여유당, 2008, 357쪽.

38_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2001, 75~76쪽; 김선희, 「화성행궁 주요 건물의 배치와 기능」, 『고궁문화』 제3호, 국립고궁박물관, 2010, 45쪽.

자리에 세워졌다가 1794년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증축되었다. 1790년의 득중정은 육각형의 건물이었으므로 육면정六面亭이라고도 불렸다. 득중정은 낙남헌과 마찬가지로 북향한 건물로 노래당과 용마루가 이어져 ㄱ자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정당이 5량 13칸이며, 득중정 계단 앞에는 어사대御史臺를 만들어 벽돌을 깔았다. 득중정 남쪽에는 득한문得閒門을 만들어 복내당과 장락당으로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1794년 새롭게 지어진 노래당은 북쪽으로 낙남헌과 연결되고 남쪽으로 득중정과 통한다. 노래당은 5량 7칸의 건물로 낙남헌 서쪽 용마루가 남쪽으로 꺾이는 곳에 서향하여 자리하고 있다. 노래당은 낙남헌과 득중정에서 치러진 여러 가지 행사 도중에 정조가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노래老來라는 이름은 늙는 것은 운명에 맡기고 편안히 거처하면 그곳이 바로 고향이라는 백거이白居易의 시에서 유래한 것이다.[39] 노래당이라는 이름에서 화성을 노후의 안식처로 삼고자 했던 정조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노래당을 드나드는 문들 이름 또한 흥미롭다. 벽돌로 홍예문을 만들어 난로難老라 하고, 낙남헌으로 통하는 북쪽 처마 아래에는 부채꼴의 문을 내어 가풍歌風이라고 하였다.[40] 난로에는 늙지 않고 오래도록 살고 싶은 마음을 담았고, 가풍에는 노래하며 풍류를 즐기며 어머니 혜경궁과 함께 노후를 보내고자 했던 마음을 담았다.[41]



낙남헌 영역
(『원행정리의궤도』, 「화성행궁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미로한정은 득중정 서쪽 팔달산 기슭에 세워진 행궁 후원의 정자이다. 미로한정으로 올라가는 길은 득중정 남쪽의 득한문과 통하도록 하였는데, 득한문은 혜경궁의 처소였던 장락당과 정조가 머물던 복내당의 뒷마당과 통하였으므로 정조와 혜경궁은 이 문을 통해 미로한정과 팔달산에 오를 수 있었다. 미로한정이라는 이름은 장차 늙어서 한가롭게 쉴 정자라는 뜻으로서, 정조는 1804년 세자가 15세가 되는 해에 왕의 자리를 넘겨 준 뒤 혜경궁을 모시고 화성으로 내려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로한정이라는 이름에는 이러한 정조의 마음이 담겨 있다.

39_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996, 138쪽.
40_ 『화성성역의궤』 권7, 부편1, 행궁, 노래당(老來堂).
41_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건축용어집』, 2007, 76·81쪽.

4. 화성행궁의 건축 특성

궁궐은 왕이 국가를 통치하고 경영하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이자 왕과 왕의 가족, 그리고 이들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궁궐의 전각들은 문門과 한 조組를 이루며 원락院落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주례周禮』에는 천자天子의 궁궐에는 오문五門, 제후諸侯는 삼문三門을 둔다고 하였다. 천자의 오문은 고문皐門, 고문庫門, 치문稚門, 응문應門, 노문路門이다. 고문皐門은 궁성 가장 바깥문으로서 외조에 속하고, 문에는 고고皐鼓라고 하는 북을 걸어 송사訟事에 관계되는 일을 처리한다. 가장 바깥에서 두 번째 문인 고문庫門은 궁궐을 드나드는 빈객賓客, 즉 고위 관료들이 머무는 곳이다. 주대周代에는 이 문 안 조정의 뜰에 회화나무[槐木] 세 그루를 심어 삼공三公의 좌석을 상징적으로 표시하였다. 치문은 다섯 문 가운데 중문이라고도 불리는 문으로, 어린 호랑이稚虎를 그려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이 문 안은 왕정을 베풀고 제후의 조하朝賀를 받는 명당明堂에 속한다. 응문은 조문朝門이라고도 부르는 문으로, 이 문 안은 왕이 매일 업무를 처리하는 치조에 속한다. 노문은 가장 안쪽에 위치한 문이다. 이 문 안이 연조에 속하므로 침문寢門이라고도 한다. 제후의 3문은 고문, 치문, 노문이다. 고문은 외조의 문이고, 치문(응문)은 치조의 문이며, 노문은 연조의 문이다.

이렇게 구분하여 궁궐의 문門과 당堂이 병존竝存케 한 것은 내·외內外, 상·하上下, 빈·주賓主, 존·귀尊貴를 구별하는 예제禮制의 정신에 근거한다. 이와 같이 안과 밖을 분립하고, 표면과 내용을 분리하는 건축배치 사상은 『주례』에 근거한다.

궁궐의 전각은 『주례』에서 규정한 삼조三朝의 배치원칙을 따른다. 『주례』에는 "천자와 제후는 모두 삼조를 둔다."고 하였다. 삼조는 외조外朝, 치조治朝, 연조燕朝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치조와 연조는 둘을 합쳐서 내조內朝라고도 한다. 삼조는 각각 구체적인 기능은 다르지만, 왕이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장소임을 상징한다. 외조는 신하들이 정무를 의논하며 집무를 보는 곳이다. 치조는 왕이 매일 이곳에서 신하를 만나고 조정의 정사를 보는 곳이다. 정전正殿과 편전便殿이 여기에 위치한다. 정전은 조례를 거행하고 법령을 반포하며 조하朝賀를 받는 등 극히 의례적인 행사를 하는 곳이고, 편전은 왕이 신하들과 평상시 국정을 논하는 곳이다. 연조는 왕이 취침하고 휴식하는 곳으로 침조寢朝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의 궁궐은 삼문삼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복궁과 창덕궁을 비롯한 조선의 주요 궁궐의 전각 배치는 크게 보아 이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 조선시대의 궁궐은 외조와 내조, 침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 후원後苑을 더하면,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치

조는 연조의 앞쪽에 위치하고, 연조는 치조의 뒤쪽에 위치하며, 연조 안에서도 왕의 취침공간은 앞쪽에, 왕비의 취침공간은 뒤쪽에 위치한다.

경복궁의 예를 들면, 육조거리의 궐외각사闕外閣司를 거쳐서 남북 중심축 위에 광화문光化門, 흥례문興禮門, 금천교禁川橋, 근정문勤政門, 정전인 근정전勤政殿, 사정문思政門, 편전인 사정전思政殿, 향오문嚮五門, 침전인 강령전康寧殿과 교태전交泰殿 등이 일렬로 정연하게 놓이도록 하였고, 각각의 영역을 회랑으로 둘러싸 앞뒤로 연속되게 배치하였다.

화성행궁은 왕이 머무를 것을 상정하여 세워진 곳이다. 따라서 그 기본적인 공간 구성은 궁궐건축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화성행궁의 전각 배치를 보면, 명당수를 지나서 세 겹의 문, 즉 신풍루와 좌익문, 중양문을 통해 정당인 봉수당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다.

신풍루 좌우로는 남군영과 북군영, 외정리소, 비장청, 서리청, 집사청 등이 배치되어 있다. 모두 행궁에서의 행사를 지원하거나 행정·군사적 성격의 관서官署들로서, 신풍루를 중심으로 좌익문에 이르기까지는 궁궐에서 외조의 역할을 하였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좌익문을 지나면 중양문이 나오고 그 뒤로는 봉수당, 장락당, 유여택, 복내당이 놓여 있다. 『화성성역의궤』에서 봉수당을 행궁의 정당正堂, 복내당을 행궁의 내당內堂으로 밝히고 있듯이, 이 영역에는 봉수당과 같이 왕실과 관련된 의례를 거행하거나, 유여택과 같이 왕이 집무를 보는 곳, 장락당이나 복내당과 같이 왕과 왕실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모여 있다. 궁궐로 말하면 치조와 연조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영역이 궁궐에서와 같이 확연하게 위계를 갖추며 배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낙남헌과 노래당, 득중정, 미로한정 등이 있는 영역은 각종 연회 및 휴식을 위한 곳이다. 낙남헌에서는 백성과 함께 하는 많은 연회가 이루어졌고, 노래당·득중정·미로한정은 후원으로서 한가로운 휴식 및 유식遊息을 위한 곳으로 마련되었다. 궁궐의 후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처럼 화성행궁은 왕이 머물 곳으로서 궁궐의 외조, 치조와 연조, 후원의 성격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앞서 화성행궁의 건물 배치를 세 영역으로 나누고, 그것을 신풍루를 중심으로 한 삼문 및 공해 영역, 봉수당 일곽의 행궁 중심 영역, 낙남헌을 중심으로 한 행사 및 휴식을 위한 영역으로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각각 여기에서 논한 궁궐의 외조, 치조와 연조, 후원의 성격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화성행궁에는 궁궐건축의 중요한 요소들이 핵심을 유지하면서 간략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왕이 머물 곳으로서 세워진 화성행궁의 건축 특징을 엿볼 수 있다.

SUWON HWASEONG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03
화성행궁의 주요 건물

화성행궁은 정조가 1789년(정조 13)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부 치소가 있던 화산 아래로 옮겨 격을 높인 현륭원을 조성함에 따라 수원부 치소가 팔달산 아래로 이전되어 관아, 향교, 민가, 상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건설될 때 함께 이루어졌다. 수원부의 명칭이 화성으로 바뀐 것은 1793년 정조가 수원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하면서부터이다.

화성의 중심인 화성행궁은 팔달산 동쪽 기슭에 동향을 하여 자리 잡았다. 수원부 부아府衙를 새로 조성하기 시작한 1789년 9월 말에는 장남헌(훗날 봉수당) 21칸을 비롯한 150여 칸의 건물들이 들어섰으며, 1790년(정조 14) 5월 초에는 공해公廨와 군영 건물 및 기타 시설과 건물들 420여 칸이 신축되거나 증축되어 모두 576칸 규모로 확장되었다.

행궁의 건물들은 삼국시대 이래로 궁궐건축 조영의 가법家法으로 삼은 전통에 따라 "검소하지만 초라하지 않게[儉而不陋],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華而不侈]" 조영되었다. 이 원칙은 정조가 "무릇 궁궐은 임금이 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요, 백성이 사방에서 우러러 보는 곳이라 그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제도는 존엄한 아름다움을 보이고 그 이름은 은연한 가운데 사치하지 않으면서 화려하게 보이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검소함을 숭상하라[崇儉]."라는 말로 요약되는 이 경구는 화성행궁의 건물들 조영에도 잘 나타난다. 정조의 기본 뜻을 따른 것이다. 건물들은 검박하며 단청은 화려하지 않고 기본색으로 칠해져 있다.

화성행궁은 홍살문을 지나 삼문三門, 즉 정문 신풍루新豊樓에서부터 좌익문左翊門과 중양문中陽門을 차례로 거쳐 정당 봉수당奉壽堂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을 형

성하는 건물들과 그 좌우에서 별도의 회랑으로 둘러싸여 형성된 몇 개의 영역에 들어선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낙남헌을 제외한 행궁의 건물들은 일제강점기에 모두 철거되었으나, 1994년부터 진행된 지표조사, 발굴, 복원 작업에 의해 거의 모든 건물의 원형이 회복되었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 등에는 화성행궁에 들어선 건물들의 창건 경위와 용도, 규모가 자세히 밝혀져 있다. 또한 화성행궁의 건물 배치를 잘 보여 주는 자료로는, 『화성성역의궤』의 「화성전도華城全圖」와 「행궁전도行宮全圖」, 『원행을묘정리의궤』의 「화성행궁도華城行宮圖」, 그리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작자 미상 그림인 「화성행궁도」 등이 있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화성행궁을 구성하는 주요 건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삼문三門

1) 신풍루新豊樓

신풍루는 화성행궁의 정문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된 6칸 규모의 2층 누문樓門이다. 신풍루 안쪽으로는 중삼문中三門인 좌익문左翊門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내삼문內三門인 중양문中陽門이 있다.

1789년(정조 13)에 세웠다. 이때의 이름은 진남루鎭南樓였다. 이후 1794년(정조 18) 가을에 남·북군영南北軍營을 진남루 앞 좌우에 설치하였고, 각각 4칸씩 8칸의 행각을 진남루의 좌우에 붙여서 양익兩翼으로 지었다. 1795년(정조 19, 을묘) 혜경궁을 모시는 원행을 준비하면서 신풍루로 이름을 고쳤으며, 호조참판 조윤형曺允亨(1725~1799년)에게 편액을 쓰게 하였다. 신풍루 앞의 화성행궁 명당수 위에는 길이 14척 너비 35척의 돌다리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신풍교新豊橋라 하였다. 신풍교 앞 명당수 밖에는 홍살문紅箭門이 세워져 있다.

1796년(정조 20) 11월에 윤시동尹蓍東(1727~1797년)이 지은 「신풍루 상량문」에는 "우리 임금님의 동방의 표준이 되는 효성은 한나라 고조高祖가 풍패豊沛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간절하구나. 드디어 누각의 이름을 고치라 명하여 신풍新豊이라 하였네."라고 쓴 내용이 있다. 한나라 고조가 "풍豊 땅은 새로운 또 하나의 고향"이라고 했던 고사를 생각해 볼 때 정조에게 화성은 '또 하나의 고향'이 되도록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 스스로도 "진남문鎭南門을 고쳐서 신풍루라고 한 것은 대개 한나라 제실帝

室이 풍패에서 일어났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누 이름 ‘신풍루’에서 화성행궁이 갖고 있는 위상을 읽을 수 있으며, 행궁에 담겨 있는 정조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신풍루 앞 넓은 마당은 화성의 주민과 함께 하는 많은 위민爲民행사가 열린 공간이다. 1795년(정조 19) 봉수당奉壽堂에서 혜경궁의 회갑연을 치른 다음 날인 윤2월 14일 새벽, 신풍루 앞에서는 정조가 친히 참석하여 백성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진휼賑恤행사를 열었다. 쌀을 받는 대상자는 화성의 주민으로서 사민四民(원래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모든 백성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홀아비와 과부, 독신자, 고아 등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말함)과 진민賑民(가난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때의 행사 모습은 『원행정리의궤도』의 「신풍루사미도新豊樓賜米圖」에 잘 나타나 있다. 「신풍루사미도」에는 임금이 내리신 쌀을 받고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신풍루 2층 중앙에는 어좌御座가 있고, 그 앞으로는 쌀을 받기 위해 모인 사민과 진민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정조가 백성과 하나가 되는 자리였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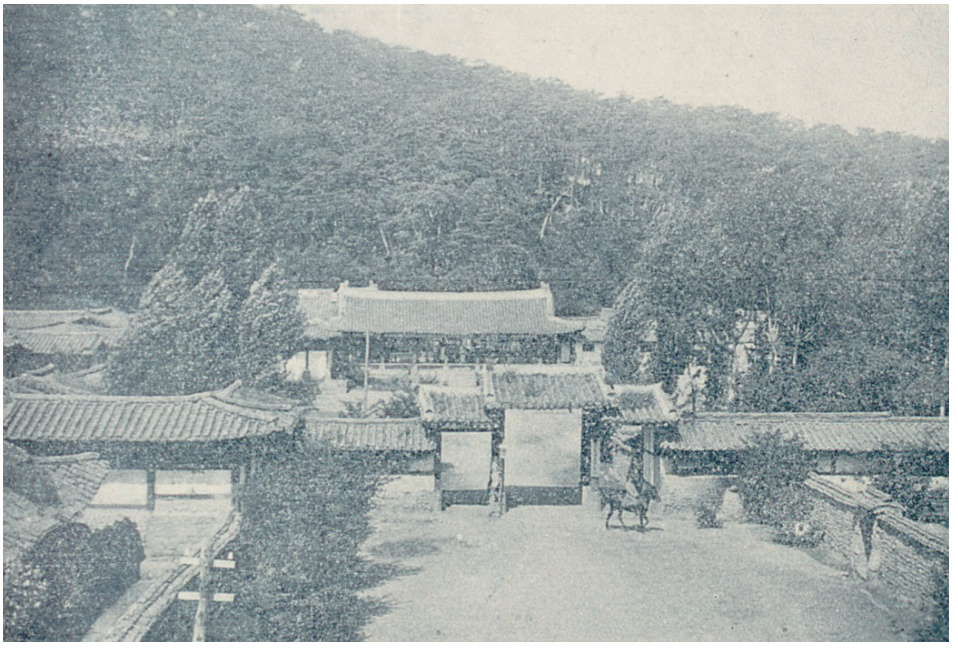


「신풍루사미도」(『원행정리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 좌익문左翊門

신풍루新豊樓 뒤, 중양문中陽門 앞에 있는 행궁의 중삼문中三門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이며 문 좌우로 행각이 이어져 있다. 좌익문은 신풍루, 중양문과 함께 화성행궁의 중심축을 형성하며 동향을 하였다. 좌익左翊은 “곁에서 돕는다.”는 뜻으로 내삼문內三門인 중양문을 바로 앞에서 도와 행궁을 지킨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1790년(정조 14)에 완성되었고, 편액은 정동준鄭東浚(?~1795년)이 정조의 명을 받들어 썼다. 좌익문의 남쪽 행각 끝은 외정리소外整理所로 연결되어 있다.

봉수당奉壽堂 건물이 자혜의원慈惠醫院으로 사용되고 있던 1910년대 사진을 보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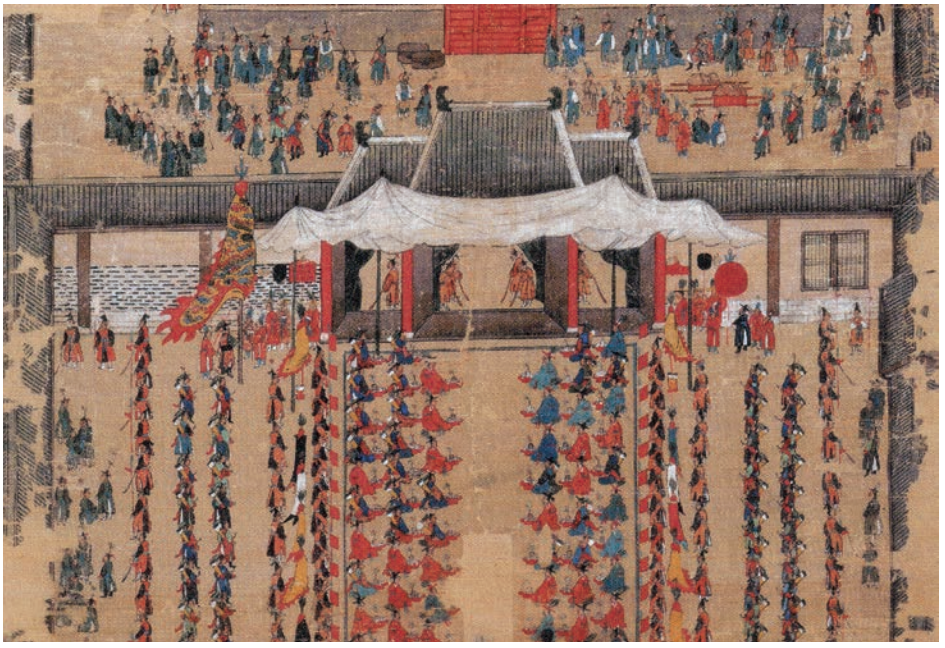
1910년대 봉수당과 좌익문
(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양문은 철거되어 있지만 좌익문은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23년에 병원 건물을 크게 신축하는 과정에서 행궁 내의 많은 건물들이 철거되었는데, 좌익문도 이때 함께 철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좌익문은 1998년 12월에 복원된 것이다.

3) 중양문中陽門

화성행궁의 내삼문內三門이며, 정당인 봉수당의 정문이다. 원래는 중약문重鑰門이라고 쓴 편액이 걸려 있었는데, 이를 객사인 우화관于華館 정문으로 옮겨 달고, 새로 중양문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1790년(정조 14)에 완성되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이다. 문 좌우로 긴 행각을 두고 있다.

1795년(정조 19) 봉수당奉壽堂에서 행해진 혜경궁의 회갑연 때는 이 중양문을 활짝 열어, 문의 안쪽으로는 왕실의 종친과 대신이 자리하고, 문의 바깥쪽으로는 승지와 사관, 각신이 자리하여 행사를 치르기도 하였다. 이때의 모습은 『화성능행도병華城陵幸圖屛』의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봉수당진찬도」에 그려진 중양문
(『화성능행도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 행궁 중심 영역

1) 봉수당奉壽堂

봉수당은 화성행궁의 정당正堂이다. 행궁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며, 신풍루에서 진입하는 중심축의 가장 윗자리에 위치한다. 평상시에는 화성유수부의 유수가 집무하던 곳이다. 1789년(정조 13) 가을에 처음으로 완성되었다. 이때의 이름은 장남헌壯南軒이었다. 1790년(정조 14) 2월 원행 때에 정조는 「장남헌」 편액을 직접 썼다. 장남헌은 정면 6칸, 측면 2칸의 내진 구조물 주위로 반 칸 퇴가 둘러 있는 7량 21칸 규모이며 동향을 하였다. 장남헌을 가운데에 두고 그 왼편인 북쪽에는 객사, 오른편인 남쪽으로는 동헌인 은약헌隱若軒과 내아內衙가 있었다.

정조는 1793년(정조 17) 1월 12일 이곳에서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킨다."는 하교를 내리고 직접 쓴 「화성행궁華城行宮」 현판을 걸었다. 화성행궁의 현판을 이곳에 걸었다는 사실로부터 봉수당을 행궁의 중심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1794년(정조 18) 화성 성곽을 축성하는 과정에서 행궁의 증축 공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증축은 기존 건물은 그대로 두고 새 건물을 추가하는 방식이었다.[1] 이때 장남헌 주변에도 북각도北角道를 비롯한 다수의 행각이 지어졌다. 원래 있던 행각 43칸

1_ 1794년 이후에 새로 건축한 건물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수정 국역 화성성역의궤』, 기전문화학술총서 10, 경기문화재단, 2001 참조.

에 새로 지은 48칸이 더해져 모두 91칸의 내외 행각이 갖추어졌으며, 정당을 포함하면 모두 112칸의 규모를 갖게 되었다. 봉수당 정면에는 내삼문內三門인 중양문中陽門(이때는 중약문重鑰門이었음)이 있고, 중양문 밖으로는 중삼문中三門인 좌익문左翊門이 있다. 이 외에도, 봉수당 주변으로는 남쪽에 경선문慶善門, 북쪽에 어천문於千門과 유억문維億門, 건장문建章門, 서쪽에 중영문重英門 등 여러 개의 출입문이 있다.

봉수당은 정당답게 행궁의 정문인 신풍루新豊樓로부터 좌익문을 거쳐 중양문을 통해 일직선으로 들어오는 행궁의 중심축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봉수당 용마루 뒤로는 팔달산八達山이 버티고 있어 행궁 전체의 위엄을 더한다. 봉수당의 서쪽 처마는 장락당長樂堂 처마와 서로 겹쳐져 있고, 남쪽 퇴는 경룡관景龍館의 북행각으로 바로 통하게 되어 있다.

1795년(정조 19, 을묘) 정조는 혜경궁의 회갑 진찬례進饌禮를 미리 앞당겨서, 윤2월 13일 원행 때에 이곳 봉수당에서 거행하였다. 이때 정조는 혜경궁의 장수를 기원하는 악장樂章과 자신의 마음을 읊은 시를 지어 신하들에게 보이면서 "만년萬年의 수壽를 받들어 빈다."는 뜻으로 당호를 '봉수당'으로 고쳐 지었으며, 당대 최고의 명필인 전 참판 송하옹松下翁 조윤형曺允亨(1725~1799년)으로 하여금 편액을 쓰도록 하였다.

봉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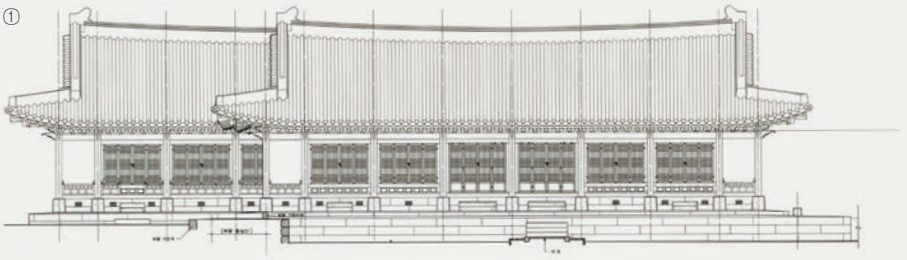


정조는 진찬례를 마치고 전교하여 "몇 년 전부터 축수祝壽를 기도해 왔는데 오늘에서야 진찬례를 올리게 되었다. 천기天氣가 청화淸和하고 어머님의 건강이 강녕하시어 기쁘고 경사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하며, 9년 뒤인 1804년에 혜경궁의 칠십 수연壽宴 진찬을 봉수당에서 다시 갖겠으니 사용할 물건을 잘 보관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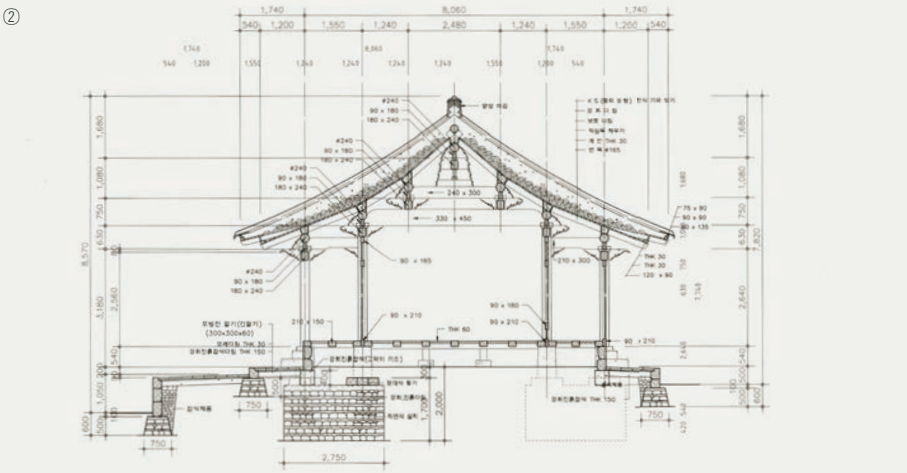
이때 진찬례의 모습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실린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그리고 8폭 병풍 『화성능행도華城陵幸圖』의 「봉수당진찬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당시 원행의 가장 중요한 행사답게 매우 성대하게 그려진 그림에는 건물에 거북무늬의 발이 쳐져 있고 그 앞으로 악공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각종 춤이 공연되고 있으며 주변에 왕실 종친과 대신들이 둘러앉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진찬례 행사는 당시의 커다란 화젯거리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행사였다.

정조는 상량문을 지을 것과 관련하여 "봉수당은 나의 어머니에게 술잔을 올리고 오래 사실 것을 비는 곳"이라고 전교한 내용이나, 상량문의 "어머님의 나이가 회갑에 올랐으니 오래 사시길 바라는 임금님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네."라는 구절 등에서 정조의 마음을 새겨볼 수 있다. 「봉수당 상량문」은 1796년(정조 20) 11월 판중추부사 정수재 이병모李秉模(1742~1806년)가 지었다. 정조가 현재의 청량리 밖 배봉산에 모

①



②



① 봉수당과 장락당 정면도
(수원시, 『국민정신계승 도량화사업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2002)

② 봉수당 종단면도
(수원시, 『국민정신계승 도량화사업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2002)



「**봉수당진찬도**」**에 나타난 봉수당**(『화성능행도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셔져 있던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난 다음 해 1790년(정조 14) 2월 11일에는 이 건물 앞에서 문·무과 시험이 치러지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봉수당은 개조되어 관립수원자혜의원官立水原慈惠醫院으로 사용되다가 1923년 5월에 새 병원 건물이 신축되면서, 봉수당과 장락당을 비롯한 행궁 내 여러 전각들이 철거되는 비운을 겪게 된다. 현재의 건물은 1997년에 복원된 것이다.

2) 장락당長樂堂

장락당은 1794년(정조 18)에 화성행궁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건물이다. 그 이듬해(1795년, 을묘)에 있을 원행에 혜경궁이 머물 처소로 사용되기 위해 지어졌으며, 정조가 혜경궁의 만수무강을 빌며 직접 편액을 썼다. 봉수당의 남쪽 뒤, 즉 서남쪽에 위치하고 봉수당과 장락당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 조선시대 건축으로 흔치 않은 내부공간 사용을 보이는 건물이다. 원행 때 진찬례를 봉수당에서 행하였는데 이때 혜경궁이 침소인 장락당에서 봉수당까지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건물은 1997년에 복원된 것이다.

정조는 "장락당은 한나라의 궁실 이름에서 따 왔다."고 하였는데, 전한前漢의 도읍 장안성의 궁전 장락궁長樂宮을 말하는 것이다. 봉수당에서 어머니 혜경궁에게 음식을 올릴 때도 정조는 직접 지은 악장樂章에서 장락궁을 언급하며 "봄은 길어 장락궁에서 술을 따르니 화華 땅 사람 세 가지 축복에 어머님 오래 사시네."라고 하였다. 장락궁은 한나라 고조 7년(기원전 200년)에 완성되어 황제가 신하를 조회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으나 뒤에 태후가 거처하게 되면서 대왕대비나 대비전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 혜경궁이 만수무강하기를 기원하였던 정조는 한나라 태후의 거처였던 장락궁의 이름을 따 혜경궁이 머물 장락당의 편액을 직접 써 걸었던 것이다. 상량문은 1796년(정조 20) 12월에 좌참찬 정민시鄭民始(1745~1800년)가 지었는데, 여기에도 "빛나는 궁궐이 처음 이루어지는 때를 맞아 다행히 태후께서 먼저 납시는 것을 보았네."라는 구절이 있다.

동향을 한 장락당은 본채 7량 13칸에 남쪽 각도閣道 3칸, 서쪽 행각 9칸을 더하여 모두 25칸의 규모로 세워졌다. 그중 온돌이 8칸이며, 동·서·남쪽 3면으로는 툇간이 있고, 서쪽은 분합문에 난간을 설치하였다. 서남쪽의 각도 3칸이 복내당福內堂의 후면에 위치한 서북 행각과 통하게 되어 있어 복내당으로 연결된다. 장락당 앞마당을 형성하는 남쪽의 담장에는 다복문多福門과 장복문長福門이 각각 동쪽과 서쪽에 나 있고, 앞마당 동쪽으로는 2층 누문樓門 경룡관景龍館이 있다. 봉수당이 신풍루, 좌익문을 지

장락당



나 중양문을 마주하며 서 있는 반면, 혜경궁의 거처인 장락당은 중양문에서 경룡관을 한 번 더 거쳐야 진입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3) 경룡관景龍館

경룡관은 장락당長樂堂으로 들어가는 누문樓門으로, 1794년(정조 18) 행궁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세워졌다. 본채는 정면 3칸, 측면 1.5칸 평면으로 조성된 5량 4.5칸 규모이며, 여기에 누문 좌우의 행각 6칸을 더하면 총 10.5칸의 규모가 된다. 경룡관을 세움으로써 혜경궁의 처소인 장락당은 정당인 봉수당奉壽堂과 분리된 아늑하고 작은 앞마당을 갖게 되었다. 2층에는 모두 마루를 깔았고 4면에는 난간을 둘렀다. 경룡관의 1층의 세 칸 출입문은 지락문至樂門이라고 하였다.

경룡景龍이라는 이름은 당나라 태종太宗이 거처하였던 궁궐에서 따온 것이다. 경룡은 큰 용, 즉 제왕을 의미하는 말이다. 당 태종은 정관지치貞觀之治(정관은 당 태종의 연호)로 일컬어지는 훌륭한 정치를 펼쳐서 나라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제왕의 모범으로 꼽힌다. 경룡관이라는 이름에서 조선의 태평성세를 구현하고자 했던 정조의 뜻을 엿볼 수 있다. 상량문에도 "법도는 정관제貞觀帝(당 태종)의 아름다운 규모를 본떴다. 구슬 같은 편액이 빛을 받아 찬란하니 대체로 복희씨의 아름다운 상서를



경룡관의 지락문

드리운 듯하구나."라는 구절이 있다.

1996년 8월에서 9월에 걸쳐 행해진 행궁지行宮址 2차 발굴조사에서 경룡관 기단의 하층구조로서 6개 장대석이 드러나 경룡관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었다. 이때 경룡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잡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편액은 천은天隱 조종현趙宗鉉(1731~1800년)이 썼으며, 상량문은 1796년 11월에 도승지 황승원黃昇源(1732~1807년)이 지었다.

4) 복내당福內堂

행궁의 내당內堂이다. 봉수당奉壽堂, 장락당長樂堂과 함께 동향하고 있으며 장락당의 왼편, 즉 장락당 남쪽에 위치한다. 평상시에 화성유수의 가족들이 거처하던 곳이다. 1789년(정조 13)에 장남헌壯南軒(이후 봉수당)이 수원부 신읍 치소治所의 동헌東軒으로 건립될 때 내아內衙로서 복내당도 함께 조성되었다. 1790년(정조 14) 2월 원행 때에 정조가 머무르고 친히 복내당이라고 편액하였는데 현재 이 현판은 전해지지 않는다.

복내당은 5량 18칸 규모의 동향을 한 건물이다. 북쪽 온돌방 4칸 반은 1794년 가을에 중건하였고, 복내당 동남쪽 안팎의 행각 26칸은 모두 옛 건물이었다. 북쪽 온돌 서쪽에도 옛날 건물 3칸이 있었는데 1794년 가을 여기에 이어서 5칸을 세우니 이

복내당(수원문화재단 제공)



것이 서별당이다. 1790년(정조 14) 당시 수원 신읍 치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원신읍영건공해간수성책水原新邑營建公廨間數成冊』에 의하면, 내아가 중문 3칸, 협문 1칸을 포함하여 36칸의 규모로 되어 있으며, 별도로 행랑 4칸이 있었다.

1794년(정조 18) 가을부터 행궁의 대대적인 증축이 있었다. 이때 복내당 북쪽에 온돌방 4.5칸을 만들어 장락당의 행각과 이어지게 하였고, 서별당 5칸과 서행각 11칸을 새로 지어서 모두 20.5칸을 증축하였으며, 복내당은 전체 67.5칸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동행각에는 유복문維福門이 있고, 서별당에는 구여문九如門이 있다. 외행각 북쪽 끝에는 구복문求福門이 있어서 장락당 서행각과 서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현재의 건물은 1997년에 복원된 것이다.

1796년(정조 20) 11월에 정조는 상량문을 지을 것을 명하면서 복내福內라는 이름은 "일으켜 얻는 것은 밖으로부터요, 복을 낳는 것은 안으로부터"라는 『한서漢書』의 글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였다. 상량문은 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1798년)이 지었는데, "마루가 봉수당과 마주보니 만년의 술을 들어 헌수하는 정성을 붙이겠고, 문이 장락전長樂殿(장락당)과 가까우니 …… 규모와 법도는 거의 연침燕寢을 본떴고, 경시經始는 대체로 부아府衙와 비슷하구나."라고 하며 복내당을 설명하고 있다.



유여택

5) 유여택維與宅

유여택은 평상시 화성유수부의 유수가 거처하던 곳이다. 유수는 평상시 장남헌壯南軒(훗날 봉수당으로 이름이 바뀜)에서 집무를 보았으나, 정조가 화성에 행차했을 때에는 이곳에서 신하를 잠시 접견하며 집무를 보았다. 정조가 1800년 6월 28일 돌아가신 후, 7월 27일에는 현륭원 봉안각에 모셔 있던 정조의 어진을 이곳으로 옮겨 모신 적이 있다.

1789년(정조 13) 봄 처음 세웠을 당시에는 은약헌隱若軒이라고 불렸다. 은약헌은 복내당福內堂 전면 행각, 즉 동행각 밖에 동향으로 세워졌으며 원래 5량 8칸 규모의 건물이었다. 『수원신읍영건공해간수성책』에 의하면 대문 2칸, 중문 2칸을 갖춘 총 15칸 건물이었다고 한다. 1792년(정조 16) 무렵에 편찬된 『수원부읍지』는 은약헌을 동헌東軒이라고 하고 있다. 이로부터 은약헌이 수원부 치소의 동헌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94년(정조 18) 가을 은약헌에 온돌을 늘려 설치하고 건물 북쪽으로 증축하였다. 복내당 서북쪽 증축부분과 함께 공사가 시작되었다. 또 경룡관景龍館 쪽으로 이어지는 각도閣道도 추가되었다. 1795년(정조 19)에는 건물 이름이 은약헌에서 유여택으로 바뀌었다. 편액은 유사모柳師模가 썼다. 1796년(정조 20)에는 유여택 정문의 좌우 행

각, 즉 남행각과 북행각이 추가되었다. 5월 27일에 공사가 시작되어 6월 10일에 북행각 공사를 마쳤고, 7월 6일에 남행각 공사를 마쳤다. 누마루인 공신루拱宸樓도 지어졌다. 이때 새로 지은 것이 모두 50칸으로, 원래 있었던 부사문附舍門 20여 칸을 포함하여 유여택은 전체 78칸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98년 12월 복원된 것이다.

유여택은 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에서 떨어져 있고, 내당인 복내당과 영역을 달리하며 그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별당의 성격을 가진 건물이다. 건물 내부는 마루와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전면 북쪽에서 앞으로 누마루 한 칸이 돌출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양반 계층의 주택 풍격을 보여 준다.

유여택 서쪽으로는 향춘문向春門, 북쪽 부속사에는 연휘문延暉門, 남쪽에는 가어문嘉魚門과 경화문慶華門, 북쪽으로는 유여문維輿門이 있다. 동행각에는 빈희문賓曦門이 있어 외정리소外整理所로 바로 통하게 되어 있다.

혜경궁 회갑연을 겸한 1795년 을묘원행 때에는 정조가 유여택에 임어臨御하여 각종 행사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원행 첫날 윤2월 10일에 정조는 이곳에서 암행어사 홍병신洪秉臣을 접견하여 여러 보고를 받았으며, 그 닷새 후 윤2월 14일 새벽에는 신풍루新豊樓에서 쌀을 나누어 주는 진휼행사를 갖기에 앞서, 유여택에서 담당 신료들을 만나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부하기도 하였다.

유여택이라는 이름은 『시경詩經』 대아大雅 가운데 주나라가 천명을 받은 유래를 말하고 문왕의 덕을 칭송하는 황의皇矣편의 세 번째 구절에서 따왔다. "상제께서 모두 물리치시고 나라의 규모를 크게 하리라. 이내 서녘을 돌아보시고 이 집을 주었다[上帝耆之 憎其式廓 乃眷西顧 此維與宅]."는 내용이다. 정조의 입장에서 보면 화성유수를 임명하여 내려보내는 곳이라는 의미가 된다.

행궁지行宮址 2차 발굴조사에서 유여택이 있던 터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였기 때문에, 드러난 유구를 이용해서 복원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였다. 기단은 2단으로 축조되었는데 기단 전면과 좌측면의 대부분이 보존되어 있었다. 유여택의 남행각 터와 동행각 터의 위치는 3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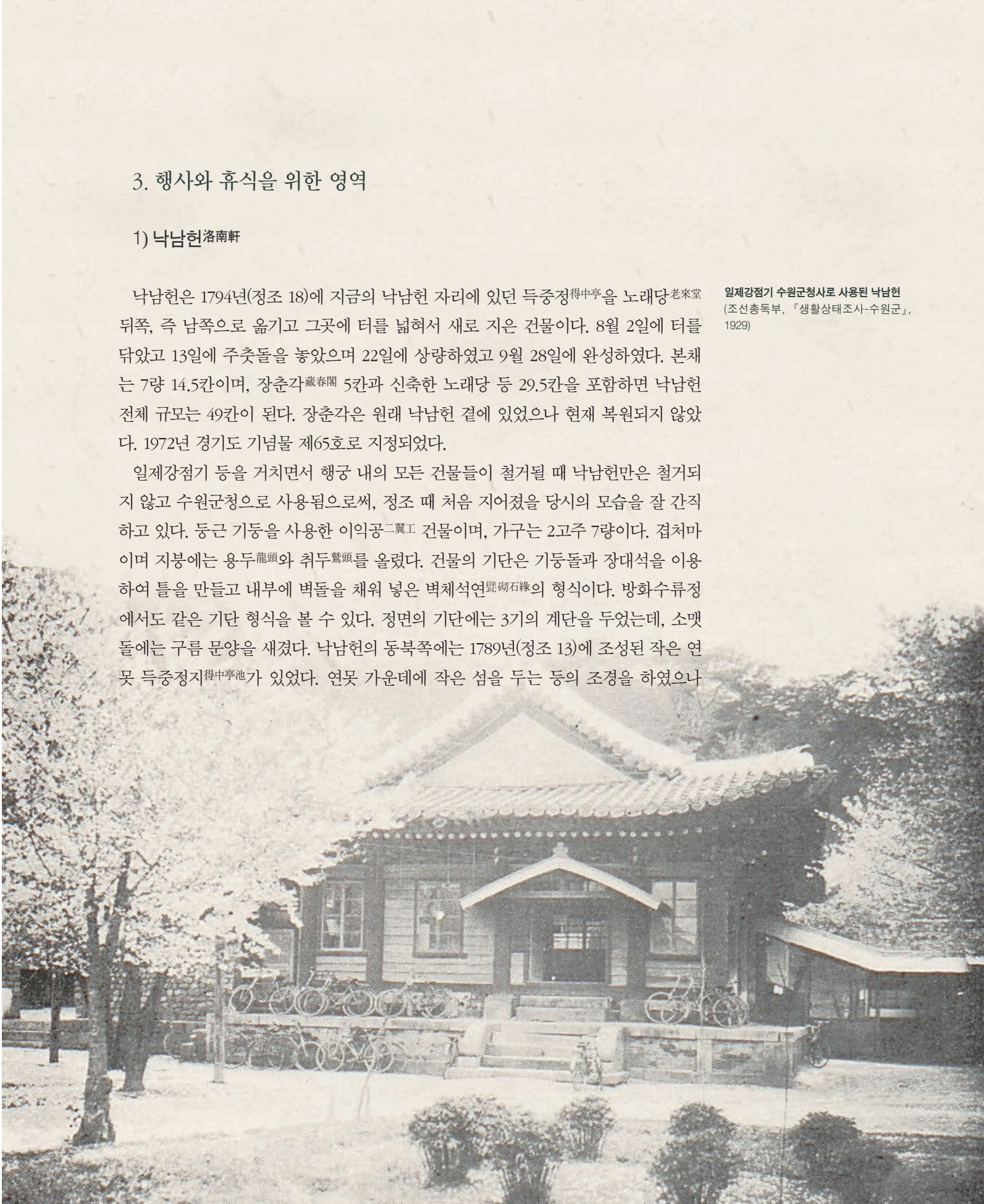
1800년 정조가 승하한 이후 현륭원의 재실에 모신 어진御眞과 창덕궁 주합루宙合樓에 모신 대본大本 어진 일체가 1801년(순조 1)에 화령전華寧殿을 건립하기 전까지 이곳 유여택에 잠시 봉안되기도 하였다.

3. 행사와 휴식을 위한 영역

1) 낙남헌洛南軒

낙남헌은 1794년(정조 18)에 지금의 낙남헌 자리에 있던 득중정得中亭을 노래당老來堂 뒤쪽, 즉 남쪽으로 옮기고 그곳에 터를 넓혀서 새로 지은 건물이다. 8월 2일에 터를 닦았고 13일에 주춧돌을 놓았으며 22일에 상량하였고 9월 28일에 완성하였다. 본채는 7량 14.5칸이며, 장춘각藏春閣 5칸과 신축한 노래당 등 29.5칸을 포함하면 낙남헌 전체 규모는 49칸이 된다. 장춘각은 원래 낙남헌 곁에 있었으나 현재 복원되지 않았다. 1972년 경기도 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었다.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행궁 내의 모든 건물들이 철거될 때 낙남헌만은 철거되지 않고 수원군청으로 사용됨으로써, 정조 때 처음 지어졌을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둥근 기둥을 사용한 이익공二翼工 건물이며, 가구는 2고주 7량이다. 겹처마이며 지붕에는 용두龍頭와 취두鷲頭를 올렸다. 건물의 기단은 기둥돌과 장대석을 이용하여 틀을 만들고 내부에 벽돌을 채워 넣은 벽체석연甓砌石緣의 형식이다. 방화수류정에서도 같은 기단 형식을 볼 수 있다. 정면의 기단에는 3기의 계단을 두었는데, 소맷돌에는 구름 문양을 새겼다. 낙남헌의 동북쪽에는 1789년(정조 13)에 조성된 작은 연못 득중정지得中亭池가 있었다. 연못 가운데에 작은 섬을 두는 등의 조경을 하였으나



일제강점기 수원군청사로 사용된 낙남헌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낙남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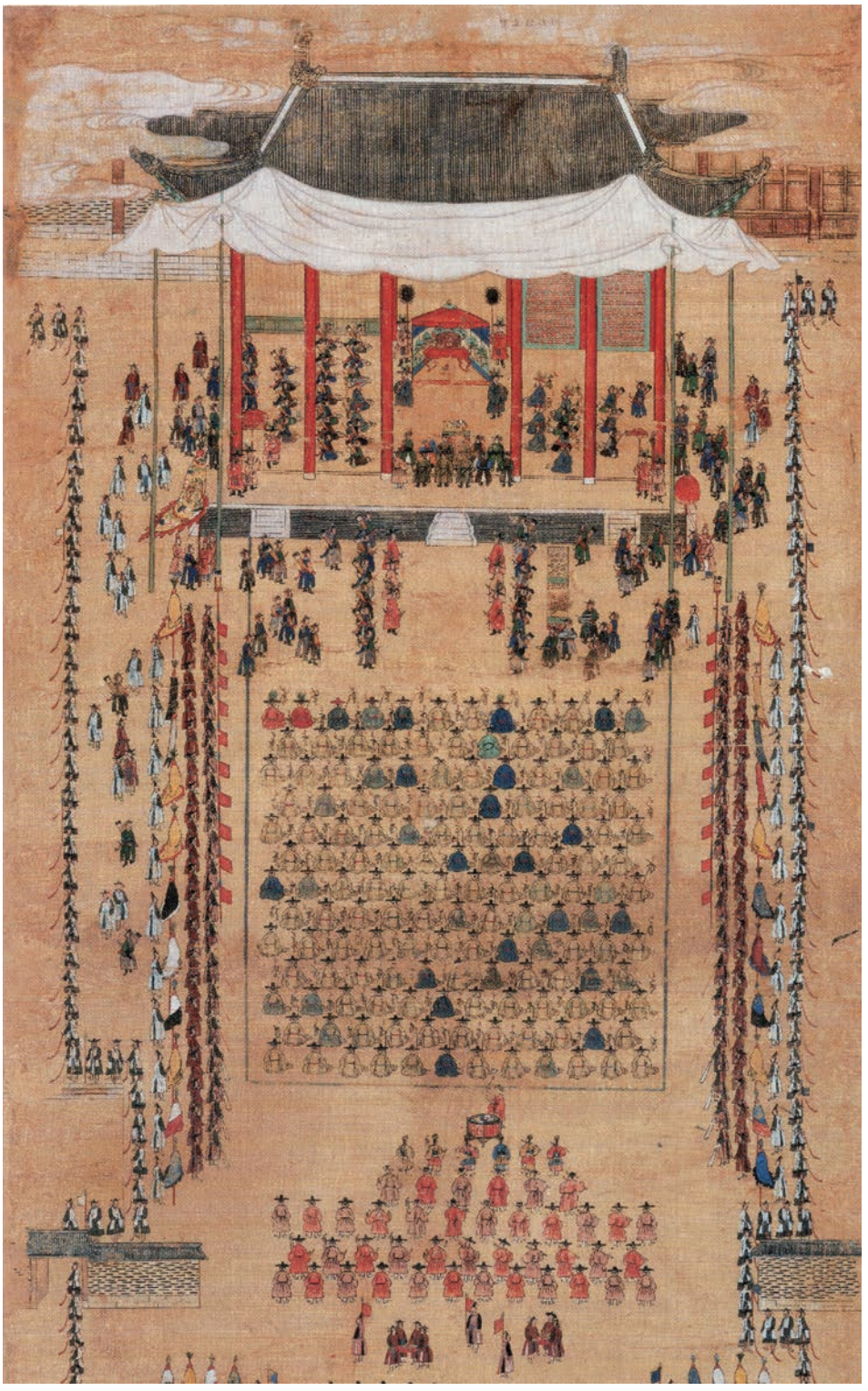


지금은 신풍초등학교 운동장이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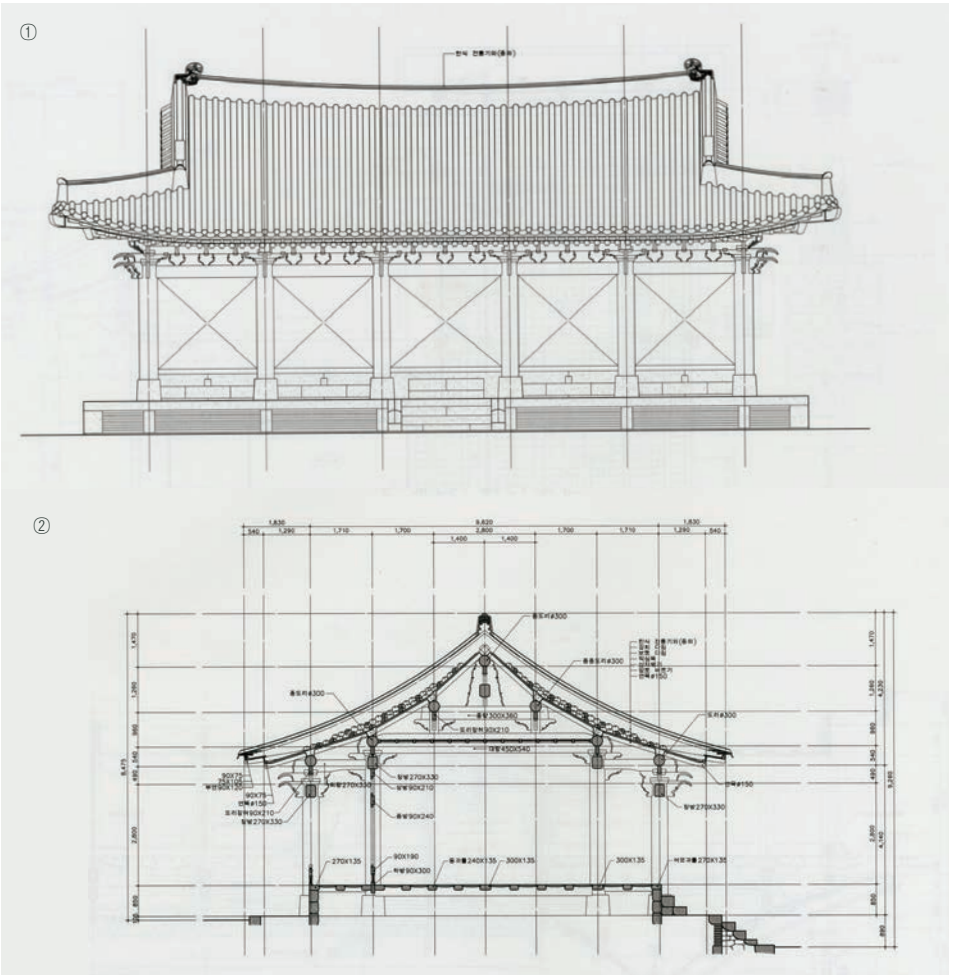
편액은 당대 최고의 명필 전 참판 조윤형이 썼고, 상량문은 1796년(정조 20) 11월 이조판서 심환지沈煥之(1730~1802년)가 지었다. 심환지의 상량문에는 "주나라 고을의 이름을 붙였고, 한나라 궁전에서 뜻을 땄구나. …… 빛나는 임금의 계획은 한나라 고조의 옛일을 본떴고, 호화로운 현판에는 낙남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걸었구나." 라는 내용이 있다.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는 왕망王莽의 난으로 피폐해진 도읍을 장안長安에서 낙양洛陽으로 옮기고 정궁을 남궁南宮이라 하였는데, 낙남헌의 '낙남洛南'은 낙양 남궁에서 따온 것이다.

낙남헌은 각종 행사를 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한 행사용 건물이다. 북향한 건물로서 동·서·북 3면에는 분합을 달았는데, 행사가 있을 때는 분합을 활짝 열어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전면에 마당을 넓게 갖추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전면 마당의 담장은 홍살판으로 만들었다. 행사 규모에 맞추어 개폐를 가능하게 하여 마당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큰 규모의 행사에서는 담장을 걷어 내고 전면 마당을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화성성역의궤』의 「행궁전도」와 『을묘원행정리의궤』의 「화성행궁도」, 그리고 『화성능행도』의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에서 이 이동식 담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특히 1795년(정조 19, 을묘) 원행 때에는 이곳에서 많은 행사를 치렀다. 이곳의 행사로는 무엇보다 먼저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하여 베풀어진 호궤犒饋(군사들을



「낙남헌양로연도」에 그려진 낙남헌과 이동식 담장(『화성능행도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① **낙남헌 정면도**(수원시, 『국민정신계승 도량화사업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2002)

② **낙남헌 종단면도**(수원시, 『국민정신계승 도량화사업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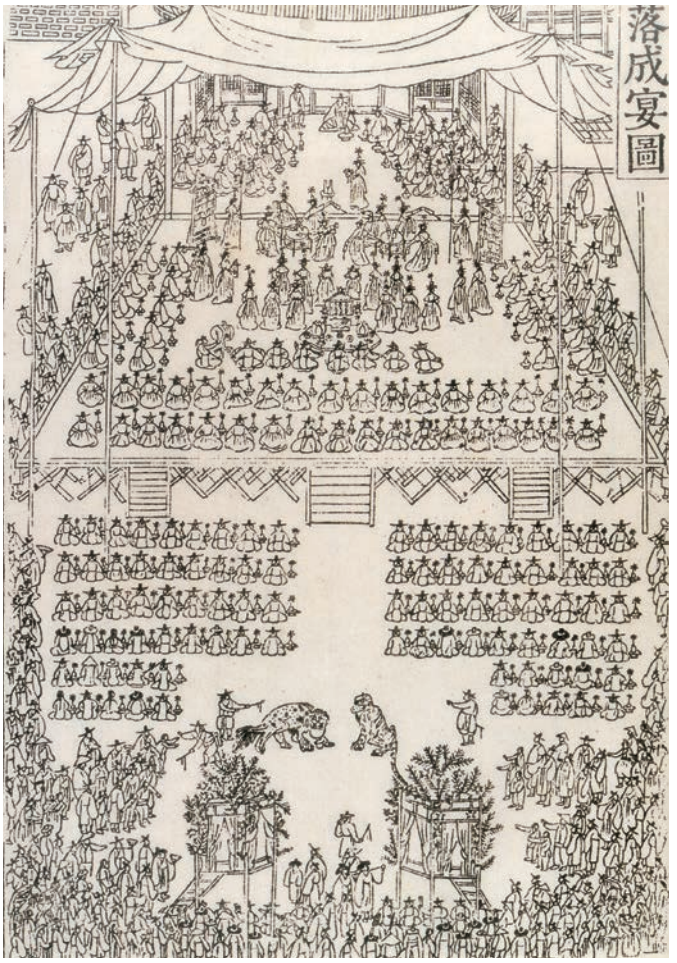
배불리 먹이는 것)를 들 수 있다. 이때의 모습은 『화성성역의궤』에 「대호궤도大犒饋圖」로 남아 있다. 또 낙남헌 앞마당에서 별시別試를 치러 문과 5명, 무과 56명을 선발하기도 하였다. 별시 당일에 급제자에게 합격증을 내려주는 방방放榜도 이곳에서 행해졌다. 문과의 시험문제는 혜경궁의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의 부賦를 지으라는 것이었다. 또 1797년(정조 21) 8월 18일에는 이곳에서 화성유수부의 무사를 대상으로 활쏘기 시험을 치러 차등에 따라 상을 주기도 하였다.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한 양로연養老宴도 이곳에서 행해졌다. 이때 채제공蔡濟恭(1720~1799년)이 양로연을 축하하는 악장 「화일곡化日曲」을 지어 올렸으며, 정조는 혜경궁을 축수祝壽하는 시를 짓고 참가자 모두에게 화답하는 시를 써서 제출하게 하였다. 양로연에 초대받은 노인은 한양에서 내려온 노인관료 15명과 화성에 사는 노인

384명이었다. 화성의 노인 중에 선발된 사람은 조관朝官(벼슬아치)과 사서인士庶人(사족과 서인)으로 구별되는데, 조관은 70세 이상과 61세인 사람, 사서인은 80세 이상과 61세인 사람이었다. 61세의 사람을 넣은 것은 혜경궁과 동갑인 노인을 특별히 배려한 것이다. 양로연에 참석한 노인들에게는 비단 1필씩을 하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기록과 「낙남헌양로연도」 등의 그림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낙남헌양로연도」 화면 하단에는 양로연을 구경하러 나온 백성들이 그려져 있다. 화면 중앙에는 좌우의 끊어진 벽돌담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 이동식 담장을 거두어 넓어진 마당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낙남헌에서 치러진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는 화성 성역 완료 후 성대하게 펼쳐진 낙성연落成宴이었다. 이 자리에는 화성 성역에 관여했던 관료 및 낙성연에 초대받은 손님을 비롯하여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 구경 온 백성들까지 모두 참여하였다. 이때의 모습은 『화성성역의궤』에 「낙성연도落成宴圖」로 남아 있다.



「**낙성연도**」(『화성성역의궤』)

2) 득중정得中亭

득중정은 원래 활을 쏘기 위해 세운 정자, 즉 사정射亭(활터에 세운 정자)이다. 1789년(정조 13)에 지었고, 그 이듬해에 정조가 이곳에서 활을 쏘아 4발을 모두 명중시키고 「득중정」 편액을 내렸다. 1790년(정조 14) 5월에 작성된 『수원신읍영건공해간수성책』에 의하면 이때의 득중정은 중문 2칸과 협문 2칸을 갖춘 9칸 건물이었으며, 별도로 판장문 8칸을 갖추고 있었다. 1792년(정조 16) 무렵에 편찬된 『수원부읍지』에도 마찬가지로 "장남헌壯南軒(봉수당) 북쪽에 있으며 9칸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득중정은 원래 현재의 낙남헌 자리에 있던 것을 1794년(정조 18) 가을에 노래당老來堂 남쪽으로 옮겨 지었으며, 이때 5량 13칸의 건물과 부사附舍 7칸 등 모두 20칸의 규



「**득중정어사도**」(『을묘원행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를 갖추게 되었다. 득중정 남쪽 행각에 있는 득한문得閒門을 통하여 봉수당奉壽堂 서행각으로 이어지며, 득중정 댓돌 앞에는 동서 8척, 남북 6척의 어사대御射臺가 있다. 현재의 건물은 1998년 12월 복원된 것이다.

득중정은 『예기禮記』 권46의 사의射義에 "활을 쏘아 맞으면 제후가 될 수 있고, 맞지 않으면 제후가 될 수 없다[射中 則得爲諸侯 射不中 則不得爲諸侯]."는 구절에서 '득得'과 '중中'을 따온 것이다. 공자가 "활쏘기는 군자의 자세와 같음이 있으니 활을 쏘아 정곡을 잃으면 자기 몸에 돌이켜 찾는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선비들이 활쏘기를 하는 주된 목적은 덕德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정곡正鵠을 맞춘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덕이 함양되어 있어서 모든 행동이 도리에 맞는 것으로 여겼다. 또 『주역周易』에서 육효六爻를 가지고 점을 칠 때, 하괘下卦의 가운데인 2효爻나 상괘의 가운데인 5효爻를 얻었을 경우, 이를 득중得中이라고 한다. 『주역』에서는 중中을 매우 좋은 것으로 본다. 중에는 정正이 내재되어 있어 올바름과 알맞음이 동시에 구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조는 화성으로 행차하면 매번 득중정에서 활쏘기를 하였다. 1790년(정조 14) 득중정이란 편액을 쓴 후에는 광주와 과천에 거처하는 유생과 무사를 대상으로 별시를 치러 문과 5인과 무과 175인을 선발한 적이 있으며, 1792년(정조 16)의 원행 때에도 수원의 유생과 무사를 시험으로 선발하였다. 1794년(정조 18) 득중정을 옮겨 지은 뒤인 1795년(정조 19)과 1797년(정조 21)의 원행 때에도 정조는 여기에서 활쏘기 행사를 가졌다. 이때의 기록은 『화성성역의궤』 부편附編 어사御射에 잘 정리되어 있다. 『화성능행도』와 『을묘원행정리의궤』에 수록되어 있는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는 1795년의 활쏘기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림에는 정조가 저녁에 혜경궁을 모시고 매화시방埋火詩放(불꽃놀이)을 관람하는 장면이 함께 묘사되어 있다.

득중정의 상량문은 옮겨 짓기 이전인 1791년(정조 15)에 홍양호洪良浩(1724~1802년)가 지었으며 『화성성역의궤』에 실려 있다. 득중정에 대하여 "용대기를 세우고 원침에 배알하여 반달처럼 휘어져 사방에 위엄을 떨치니 활터에 표후豹帿를 맞대었구나. 이에 날아갈듯 화려한 집을 지어 중곡中鵠한다는 좋은 이름을 지었구나."라고 묘사하고 있다.



노래당

3) 노래당老來堂

정조가 왕위를 물려주고 내려와 아버지 사도세자가 잠들어 있는 현륭원 곁 화성에서 어머니 혜경궁을 모시고 노후를 보낼 것을 꿈꾸며 지었다는 건물이다. 낙남헌 남쪽 서측에 있으며, 낙남헌과 용마루가 이어져 ㄱ자 지붕 평면을 이룬다. 낙남헌과 마찬가지로 단청을 하였다. 낙남헌과 득중정에서 각종 행사를 펼치는 도중에 틈틈이 휴식을 취하던 곳이기도 하다. 5량 7칸으로 1794년(정조 18)에 세워졌으며, 남쪽 끝은 득중정과 맞닿아 있다. 전면 마당의 동쪽에는 남북으로 길게 담장으로 막아 마당을 아늑하게 조성하였다. 담장에는 벽돌로 된 홍예문을 설치하였다. 담장의 중앙에는 난로문難老門이 있고, 북쪽 끝에는 가풍문歌風門이 있다.

편액은 채제공蔡濟恭(1720~1799년)이 썼고, 상량문은 해좌海左 정범조丁範祖(1723~1801년)가 지었다. 노래당이라는 이름은 당나라 백거이白居易의 시 "늙는 것[老來]은 운명에 맡기고 편안히 거처하면 그곳이 고향이다[老來又委命 安處卽爲鄕]."에서 따온 것이다. 화성을 노후의 안식처로 삼고자 했던 정조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한정품국도」에 그려진 미로한정
(『화성추팔경도』, 소장)

4) 미로한정未老閒亭

미로한정은 행궁의 후원後苑에 만든 정자이다. 팔달산 기슭의 후원 서쪽 담장 안에 있다. 득한문得閒門을 통해 올라갈 수 있다. '미로한정'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늙어서 한가로이 쉴 정자"라는 뜻이다. 노래당老來堂과 같이 미로한정이라는 이름에는 1804년(갑자)에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화성으로 내려와 살고자 했던, 이루어지지 못한 정조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

미로한정은 1790년(정조 14)에 세워졌으며, 1칸 6각 평면이다. 처음에는 "육면정六面亭"이라고 하였다. 동쪽의 한 면만을 비워 놓고 나머지 5면에 난간을 두었으며 단청을 하였다.

김홍도金弘道(1745~?)가 그린 『화성추팔경도水原秋八景圖』 병풍의 제7폭으로 알려져 있는 「한정품국도閒亭品菊圖」는 미로한정의 가을 풍경을 그린 것이다. 팔달산 정상에 서장대西將臺가 보이고, 산 능선이 내려와 행궁에 닿는 중턱에 미로한정이 있다. 화면의 왼쪽 하단에 있는 큰 건물은 낙남헌洛南軒이고, 낙남헌의 오른쪽 위편에 있는 건물은 장춘각藏春閣이다.

4. 행정 및 군사 영역

1) 남·북군영南北軍營

남·북군영은 화성을 수비하는 장용외영壯勇外營의 기병騎兵인 친군위親軍衛가 입직숙위入直宿衛하던 곳이다. 처음에는 좌·우열로 남군영과 북군영에 각각 100명씩 주둔하였으나, 1789년(정조 22) 장용외영 군영의 개편에 따라 좌·우열을 파하고 1, 2, 3의 입번入番 순서를 정하여 매년 각 100명씩 양 군영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화성성역의궤』에는 공해公廨(관아)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의 건물들은 2002년 7월에 복원된 것이다.

2) 내포사內鋪舍



내포사(『화성성역의궤』)

내포사는 팔달산 기슭의 행궁 뒷담 안 왼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미로한정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0보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물이다. 1796년(정조 20) 9월 9일에 완성되었으며, 건물의 높이는 7척 5촌이다. 성 내외의 동태를 살피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깃발을 흔들거나 목어木魚를 쳐서 행궁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내포사에 오르면 행궁 전체가 한눈에 조망된다. 서남포사西南鋪舍, 중포사中鋪舍와 함께 화성의 세 포사 중 하나이다.

행궁 쪽으로 개방되어 있는 내포사 전면 반 칸의 바닥에는 전돌을 깔았으며, 이곳에 목어를 달았다. 후면에는 1칸의 온돌방을 들여 초병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3) 외정리소外整理所

외정리소는 임금이 화성에 행차할 때 행궁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 준비를 담당하는 관청이 있는 곳이다. 원래는 1795년(정조 19, 을묘) 원행을 대비하여 1794년(정조 18) 12월에 설치한 임시기관이었다. 을묘원행은 혜경궁의 회갑연을 겸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체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정비, 의례진행, 교통대책, 물자조달, 회계처리, 기록보존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한양의 장용내영壯勇內營 조방朝房(소속 관원들이 조회하는 건물)에 원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정리소整理所를 두었던 것이다. 그 후 1796년(정조 20) 여름에 행궁을 증축하면서 행궁 안에 특별히 외정리소를 두었다.

유여택維輿宅 앞, 즉 동쪽의 빈희문賓曦門 밖 동행각을 수리하여 건물을 세웠으며, 여

외정리소



기에 「외정리아문外整理衙門」 편액을 달았다. 대청은 5량 6칸이며, 남향으로 자리하였다. 부사府舍 외 21.5칸을 포함하여 전체 27.5칸의 규모를 갖추었다. 외정리소를 관할하는 외정리사外整理使는 호조판서가 맡는 것이 상례였지만 화성의 경우는 유수가 이를 겸직하였다. 이후 왕의 화성 원행은 외정리소가 담당하게 되었다. 행궁에 대한 정조의 관심이 각별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현재의 건물은 1998년 12월 복원된 것이다.

1795년(정조 19, 을묘) 원행에서는 채제공이 총리대신을, 호조판서 심이지沈頤之(1735~1796년)가 정리사를 맡아 여러 행사에 필요한 예산 10만 3,061냥을 전국에서 조달하였다. 행사 후 4만 냥의 돈이 남아서 이 가운데 2만 냥을 '화성행궁정리수성향곡華城行宮整理修城餉穀'이란 명목으로 전국의 군현에 분배하였고, 각 군현에서는 이를 쌀로 바꾸어 정리곡整理穀이라는 환곡還穀을 마련하였다. 이후 7년 동안 이자를 불려서 4만 석으로 증식하였는데, 그다음 해부터는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현륭원과 행궁의 보수 유지비로 사용하였다.

정리소의 의미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정조실록』(권44, 정조 20년 2월 11일)에 기록되어 있는 외정리소에서 올린 절목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정리라는 이름은 탁지度支에서 시작되었는데, 대개 상의 행차가 행차 도중 밤을 지내는 곳에 탁지가 기일 전에 가서 모든 행전行殿의 방롱房櫳·완점筦簟·장악帳幄·궤안几案 등에 관계된 것들을 정돈하고 수리해서 새롭게 만드는 일로서, 법을 제정한 뜻이 근엄하였다. 그런데 원園을 옮긴 뒤로는 화성에 행행하여 이틀 밤을 지내고 돌아오는 것이 해마다 상사常事가 되어, 비로소 탁지에 명하여 항례에 구애받지 말고 경비를 본부에 조치해 보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또 전교하기를 "여기에도 비용을 쓰는 것은 나의 본



비장청

의가 아니다." 하고 별도로 경영하게 해서 이름을 '정리곡整理穀'이라 하였다. 또 비로소 장용외영壯勇外營으로 하여금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하게 하였다. 을묘년 봄에 이르러서는 상께서 자전慈殿을 모시고 화성에 행행하였을 때 위로 어주御廚에 공급하는 비용에서부터 아래로 백관·군병·아전·하인의 노자와 호궤犒饋하는 비용에 이르기까지 총 10여 만 냥을 나라의 경비에서 덜어내지 않고 모두 내영內營에서 관장하게 하고 그 이름을 정리소整理所라 하였다. 그래서 이를 이미 대궐 안에 설치하고 또 외소外所를 설치하였는데 외소는 화성의 유수가 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현륭원 행행 때의 반전과 호궤하는 양식 이외에 다리를 수리하거나 길을 닦는 등의 일, 거탄炬炭, 시초柴草의 비용, 금고金鼓기치旗幟·화구火具 등 군에 사용하는 물건 등을 모두 이로써 마련하였다. 그리고 선품膳品과 기명器皿·포백布帛·저관楮管·서적書籍·궁시弓矢 등도 탕고帑庫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에 대비하게 하였으니, 대체로 안으로는 영사營司의 비용을 없애고 밖으로는 민읍民邑의 수고를 덜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외영에서 절목을 만들어 올리면서 총명칭을 「외정리소절목外整理所節目」이라고 하였다.

4) 비장청裨將廳

비장청은 비장裨將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다. 비장은 관찰사나 절도사,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 지방관을 수행하던 하급관리로서 막료幕僚, 막비幕裨, 막객幕客, 막빈幕賓, 막중幕中, 좌막佐幕 등으로도 불렸다. 조선 후기에는 방어사를 겸한 수령들까지 모두 비장을 거느리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 비장청은 외정리소 앞, 즉 동쪽에 남향하여 자리하였다. 원래는 1789년(정조 13)에 서리청書吏廳으로 세워진 건물인데, 1796년(정조 20)에 건물을 수리한 뒤 비장청으로 바꾸었고, 서리청은 그 동쪽에 있던 금도청禁盜廳 자리로 옮겨갔다. 현재의 건물은 2002년 7월에 복원된 것이다.

서리청



5) 서리청書吏廳

서리書吏는 문서의 기록 및 수령·발급을 담당하는 아전이다. 서리청은 그들이 사용하는 건물로서 비장청裨將廳과 나란하게 그 동쪽에 남향으로 앉혀졌다. 동쪽은 남군영南軍營과 접했다. 비장청, 서리청, 남군영은 담을 사이에 두고 각각 별도의 영역을 이룬다. 현재의 건물은 2002년 7월 복원된 것이다.

원래 서리청은 외정리소外整理所 동쪽에 있는 비장청 건물이었는데, 1796년(정조 20) 여름에 건물 지붕을 덧입혀 수리하고 비장청으로 쓰게 하였다. 서리청은 그 동쪽의 금도청禁盜廳으로 옮겼는데, 나중에 이를 헐어내고 같은 자리에 새 건물을 세웠다. 새로 지은 서리청은 5량 22칸이었으며, 4량 6칸 규모의 창고를 새로 건립하였다.

6) 집사청執事廳

집사청은 화성행궁의 잡다한 사무를 보던 집사執事들이 사용하던 건물이다. 궁궐의 액정서掖庭署(국왕이 사용하는 붓이나 먹, 벼루 등을 보관하고 대궐 안의 열쇠를 간수하며, 여러 설비 및 비품 등을 관리하는 관청)와 같이 잡다한 여러 사무를 담당하였다. 1789년(정조 13)에 세워졌으며, 남향한 좌우 두 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신풍루新豊樓를 들어와 오른편에 보이는 담장 안에 있고, 동쪽으로는 북군영北軍營과 담장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2002년 7월에 복원된 것이다.



집사청

5. 미복원 시설

화성행궁은 정조 사후에도 역대 왕들이 정조의 영정을 모신 화령전과 건융릉에 치제하면서 행궁에 재숙했기 때문에 존속되다가, 시대의 변화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그 자리에 도립병원 등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를 맞는 고비가 있었다. 하지만 1989년 4월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행궁 복원사업에 의해 행궁과 그 주변에 있던 건물들이 철거되고 이전되었고, 1994년부터 진행된 지표조사, 발굴, 복원 작업에 의해 거의 모든 건물들이 새로 들어섰다. 그러나 아직도 복원되지 않은 행궁의 주요 건물들은 다음과 같다.

1) 강무당講武堂

강무당은 화성 내에 주둔하는 장용외영壯勇外營 군사들이 무예를 연마하던 곳이다. 낙남헌洛南軒에서 서북쪽으로 210여 보 떨어진 곳의 팔달산 기슭 가까이에 동향을 하고 있었으며, 1789년(정조 13)에 세웠다. 편액은 훈련대장 서유대徐有大(1732~1802년)가 썼고, 상량문은 1796년(정조 20)에 대호군 이병정李秉鼎(1742~1804년)이 지었다. 『수원신읍영건공해간수성책』과 1792년 무렵에 편찬된 『수원부읍지』에는 16칸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성역의궤』에는 7량 14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1794년(정조 18) 가

을에 행각 26칸을 증축했으며, 군사들의 점호가 있거나 재주를 시험할 때에 모두 이곳에 집결하였다.

2) 무고武庫

무고는 1789년(정조 13)에 세운 병기 창고이다. 1794년(정조 18)에 증축하였다. 행궁을 지키는 병사들의 병장기兵仗器를 비롯하여 화약 및 장류醬類를 보관하였다. 대청이 6칸이고 그 주위 3면에는 40칸의 행각이 있어 군기고軍器庫로 쓰였다. 2층이었는데, 위층은 다락이고 아래층은 곳간이다. 오른편은 강무당講武堂 북쪽과 이어져 있었으며, 왼편 15칸은 수성고修城庫 동쪽 뜰과 이어져 있었다. 담장 밖으로 장고醬庫(된장, 간장, 고추장 등의 장류를 보관하는 창고)를 별도의 건물로 만들었으며, 장고의 북쪽과 수성고 사이에는 화약고火藥庫가 있었다.

3) 수성고修城庫

수성고는 외정리소外整理所 부속기관이다. 성곽을 비롯한 화성의 각종 건물이 낡고 허물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해 성을 지키는 기계, 그리고 돈과 양식을 쌓아 두기 위해 설치하였다. 1796년(정조 20) 여름 화성 성역이 끝날 무렵에 무고武庫 북쪽에 지었으며, 대청은 5량 4.5칸이고 북쪽에 3칸을 붙인 건물이다. 앞면은 위는 다락, 아래는 곳간이며, 무고와는 용마루가 이어져 있다. 서쪽으로 좌고左庫 11칸이 있었다. 각종 수성기구修城器具를 보관하였으며, 수성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추수 뒤에 세금을 거두어 이곳에 두기도 하였다. 또 화성행궁정리수성향곡華城行宮整理修城餉穀의 이자로 들어오는 2,000냥을 외정리소外整理所에서 받아 「행궁정리수성곡조적수용절목行宮整理修城穀糶糴需用節目」(『화성성역의궤』 부편2)에 의해 관리하였다.

4) 별주別廚

별주는 행궁의 수라청으로 사옹원司饔院(주원廚院) 소속의 외청外廳이다.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마련하는 곳이며, 왕이 행차하였을 때는 수라상 등을 준비하여 올렸던 곳이다.

1795년(정조 19, 을묘) 원행 때에는 수라청이 당시의 비장청裨將廳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행을묘정리의궤』의 「화성행궁도」에는 별주가 그려져 있지 않지만,

『화성성역의궤』의 「행궁전도」에는 화면 좌측(남쪽) 하단의 수목이 우거진 숲 가운데 그려져 있다. 이로 보아 별주 건물은 1795년 3월에서 화성 낙성연落成宴이 열렸던 1796년 10월 사이에 지어졌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5) 우화관于華館

우화관은 화성유수부의 객사客舍이다. 객사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모시고 한 달에 두 번 배례拜禮하며 외부에서 온 관리들이 숙소로 이용하거나 연회를 베풀기도 하던 곳이다. 화성행궁은 팔달산을 주산으로 하여 동향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관청이 대부분 동향을 하고 있으나 우화관은 남향으로 놓였다.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임금이 있는 한양 쪽(화성행궁에서는 북쪽)에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읍치에서 객사는 가장 위계가 높은 시설이어야 하지만, 화성에는 봉수당奉壽堂 등 왕이 직접 이용하는 행궁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화관은 객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심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화성에 성곽을 쌓는 과정에서 행궁을 크게 증축했지만, 객사는 1789년(정조 13) 세워질 당시의 것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화성성역의궤』에는 우화관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처음 세워졌을 때의 명칭은 팔달관八達館이었는데 1795년(정조



일제강점기 수원공립보통학교로 사용되고 있는 우화관
(사카이 마사노스케, 『화성지영』, 1915)

신풍초등학교 전경



19) 우화관으로 이름을 고쳤다. 우화관의 우于에는 향해 간다는 뜻이 있고 화華는 화성을 뜻하므로 우화관은 한양에서 화성유수부에 공무公務로 간 사람들이 머무는 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조선시대 객사의 건축형식은 정면 3칸의 정청, 그 좌우에 익사를 갖추는 것이 보통이다. 우화관도 이러한 형식으로 지어졌다. 좌우 익사에는 외부에서 온 관리들이 묵을 온돌방을 설치하였으며, 건물 앞에 삼문三門을 두고 있다.

1795년(을묘) 원행 중에 치러진 문·무과 별시에서는 시험에 응시한 유생들이 답안지를 접수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으며, 1796년(정조 20) 화성의 각 건물들의 상량식을 거행할 때는 헌관獻官들의 대기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다른 많은 객사들처럼 소학교로 전용되었다가 새로 교사가 들어서면서 철거되었다. 지금은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는 신풍초등학교가 바로 이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6) 우화관 중약문重鑰門

중약문은 객사 우화관于華館의 정문이다. 우화관과 마찬가지로 남향을 하고 있다. 1794년(정조 18)에 건립되었다. 현판은 행궁 내삼문內三門인 중양문重陽門에 있던 것을

옮겨 단 것이다. 중양문의 원래 이름은 중약문이었다. 중약重鑰은 "거듭 자물쇠를 채운다."는 뜻으로 편액은 서유방徐有防(1741~1798년)이 정조의 명을 받들어 썼다. 현재 중약문 현판은 좌익문 북쪽에 이어진 행각의 북쪽 끝에서 동쪽으로 꺾여 나온 솟을삼문에 걸려 있다.

7) 분봉상시分奉常寺

봉상시奉常寺는 나라의 제사 및 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일을 관장하며, 한양의 여러 신묘神廟와 단장壇場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화성의 분봉상시는 현륭원과 건릉에 올릴 제품祭品을 준비하기 위해 행궁 남쪽에 설치한 외청外廳이다.

1801년(순조 1)에 화성유수 이만수李晩秀(1752~1820년)가 "삼가 선조의 하교에 따라 본부(화성유수부)에 분봉상시를 설치하여 원침園寢·산릉山陵·영전影殿의 제품을 똑같이 진배進排하도록 하고 제품·식례式例·공가貢價를 분속分屬하되 절목을 이루어 준행하게 하는 것이 향사享祀를 존중하고 유지遺志를 이어받는 도리에 진실로 합당할 것이다."라고 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8) 장춘각藏春閣

장춘각은 국왕이 하사한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곳이다. 낙남헌에서 서북쪽으로 담장 밖에 있었다. 건물 규모와 지붕 형태는 『화성성역의궤』의 「행궁전도」, 『수원부읍지』를 통해 알 수 있으나 두 자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건물은 창덕궁 규장각과 같이 취병으로 둘러싸여 일곽을 이루고 있고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낙남헌으로 통하는 담장에는 협문이 나 있다.

6. 화령전華寧殿

화령전은 화성행궁의 서북쪽, 낙남헌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정조의 뒤를 이어 등극한 순조가 1801년(순조 1)에 아버지 정조의 어진御眞을 모시고 추모하기 위해 세운 어진봉안각, 즉 영전影殿이다. 일반적으로 왕의 초상화는 궁궐 안의 선원전璿源殿에 모시게 되는데, 화령전처럼 지방에 따로 왕의 영전을 모시기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일제강점기에도 훼철되지 않은 이 건물은 조선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화령전



제례용 건축에 속한다.

화령전이라는 이름은 화성華城에서 화華를, 『시경詩經』 국풍國風 주남周南 갈담葛覃의 마지막 구절 "돌아가 부모에게 문안하리라歸寧父母."에서 영寧을 취한 것이다. 순조가 화성에 잠든 선왕 정조를 찾아 문안을 여쭙는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화령전은 내삼문內三門과 외삼문外三門, 그리고 그 뒤에 정조의 초상을 봉안한 운한각雲漢閣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운한각과 영역을 달리하며 북쪽에는 재실인 풍화당, 남쪽에는 전사청이 있다. 운한각 마당과 등을 돌려 남향을 하고 서 있는 전사청 서쪽 뒷마당에는 화령전 제례 때 사용하는 정방형 형태의 제정祭井(어정御井)이 있다. 화령전에 들어선 모든 건물에는 단청을 하지 않았다.

처음 지을 당시 화령전에는 운한각, 이안청, 재실, 전사청, 향대청, 제기고, 외삼문, 내삼문, 중협문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향대청과 제기고 건물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국왕이 현륭원과 건릉을 다녀갈 때마다 이곳에서 제향을 올렸으며, 순조는 정조의 탄신일誕辰日과 납향일臘享日에 이곳에서 직접 제향을 올리기도 하였다. 1814년(순조 14)에는 규장각奎章閣에서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弘齋全書』 100책과 세도세자의 문집 『경모궁예제景慕宮睿製』 3책을 30건씩 인쇄하여 이곳에 각 1건을 봉장奉藏하기도 하였다.



운한각

1) 운한각雲漢閣

운한각은 화령전의 정전으로, 정조의 초상을 봉안한 건물이다. 운한각의 '운한雲漢'은 은하수를 말하는데, 『시경』의 대아大雅 탕지십蕩之什 운한雲漢 첫 구절의 "환한 저 은하수가 하늘에 밝게 둘러 있네[倬彼雲漢 昭回于天]."에서 따왔다. 『시경』의 이 구절은 임금이 가뭄을 걱정하여 하늘에 기우제를 올릴 때 불렀다고 한다.

건물은 동향으로 서 있고 건물 앞에는 월대月臺가 조성되어 있다. 월대를 둔 것은 제사 때 악공들이 제례악을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월대 앞에는 계단 3벌이 있는데, 소맷돌이 있는 가운데 계단은 제사 때 혼백이 다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 반 규모이다. 정면의 양끝 협칸은 가운데 3칸보다 주간이 좁고, 측면의 뒤 1칸도 나머지 2칸보다 주간이 좁다. 건물은 견고하고 박실樸實하게 지으라는 순조의 하교에 따라 단정하면서도 장중하다. 운한각 내부에는 정조의 융복戎服(군복) 입은 초상화를 모셨다.

운한각 오른쪽, 즉 북쪽에는 운한각을 청소하거나 정비할 때, 화재 등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임시로 어진을 옮겨 모시는 이안청移安廳이 있다. 이안청은 남향하여 운한각을 향하고 있다. 운한각 정면의 서쪽 끝에는 눈이나 비가 올 때도 젖지 않게 옮길 수 있도록 운한각과 연결되는 행각이 조성되어 있다.

운한각과 이안청



풍화당



2) 풍화당風化堂

풍화당은 화령전의 재실齋室이다. 운한각雲漢閣의 우측, 즉 북쪽 담장 바깥에 별도의 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운한각 마당 쪽을 향하여 남향하고 있다. 제사가 있을 때 헌관獻官이 몸을 깨끗이 하고 대기하는 곳이다. 풍화는 풍교風教의 의미로서 사회의 풍속과 기강, 즉 풍기風紀를 교화한다는 뜻이다. 정면 5칸 규모의 건물인데, 건물 가운데에 3칸 규모의 큰 대청을 두었고, 대청 앞은 툇간이다. 대청 좌우에 각각 1칸 온돌방과 한 단 높은 툇마루를 두었다. 대청에서 풍화당 앞마당과 협문을 지나 운한각 월대 아래로 이어지는 신로와 판위가 설치되어 있다. 풍화당 동쪽 담에는 외삼문으로 통하는 협문이 나 있다.

SUWON HWASEONG

김준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04
시민과 관이 함께한 화성행궁 복원

1. 화성행궁 복원 역사 쓰기

화성행궁은 조선시대 건축된 행궁 중에서 기능과 규모에서 가장 큰 곳이다. 화성행궁은 4대 개혁과제를 앞세우며, 위민정책을 추진했던 정조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하였다. 정조는 생부 사도세자로 인하여 자신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정통성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회복이 왕권 강화의 기초라고 인식하였다. 왕권이 강화되어야만 자신의 개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조는 사도세자의 정치적 복권 노력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가 1789년(정조 13)에 있었던 현륭원 천봉이었다.

사도세자의 현륭원이 수원도호부 읍치로 이전되면서 수원도호부의 관아를 비롯한 행정중심지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했고, 정조의 결단에 의해 팔달산 동쪽 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수원 신읍치 조성 과정에서 1차 340칸의 화성행궁이 건립되고, 1794년부터 시작된 화성 건설에서 화성행궁의 규모도 확대되어 1796년 화성의 완공 시에 576칸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화성행궁은 단순히 정조의 화성행차 시에 머무는 행궁의 개념이 아닌 장기적인 개혁 추진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수도권 남쪽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는 정조 이후에도 그 정통성과 기능이 이어졌으며, 화성의 상업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대도회大都會로서 확대되어 갔기에 화성행궁은 화성유수부의 관아로서 행정의 중심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화성행궁은 정조의 장기적인 양경체제兩京體制 구상에 맞물려 건설되었기 때문

에 정조 사후에도 화성의 백성들은 정조에 대한 향수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행궁이 파괴되기 전까지 화성행궁과 화령전에서는 정조에 대한 제향이 왕실과 조정의 주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화성행궁이 일제의 강점 이후 파괴되어 갔다. 실제 1910년 이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한제국 황실의 의도이기보다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의 압력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화성행궁의 파괴는 곧 민족의 아픔이었다. 백성을 위한 위민정치의 공간이 친일 식민지 지배를 위한 공간으로 둔갑된 것은 조선 백성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수원의 백성들은 일제강점기에도 화성의 시설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였고, 이는 세계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일이었다.

해방 이후 수원 시민들은 일제에 의해 파괴된 화성행궁 복원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유산 복원사에서 획기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물론 대다수의 지역에서도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하다. 그렇지만 1970~1980년대 산업화 시기와 새마을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문화유산 복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2000년대 이후 문화적 바탕과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수원 시민들의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관심과 복원에 필요한 자료 수집 그리고 학술대회와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시민 모임 등을 추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노력에 화답하듯 경기도와 수원시가 화성행궁 복원을 결정하고 지방자치시대가 오기 전에도 수원시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화성행궁 복원을 추진하였다.

일제강점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백성이 건의하고 관청에서 수용하여 문화유산을 복원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민관의 공동 노력이 오늘날 세계적인 문화명소 화성행궁을 복원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이 오늘의 한계이다. 불과 20여 년 전에 추진했던 복원사업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복원추진위원회 명단은 남아 있지만 그들에 대한 구술 자료와 당시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창립과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화성행궁 복원사업이 민관에 의해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고, 복원 과정이 역사의 부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사의 복원이자 문화유산의 복원이 간단한 기록과 설계도만을 남긴다는 것은 『화성성역의궤』를 만들어 화성의 모든 것을 알게 해

준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후예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화성행궁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수원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 행동과 그로 인하여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향후 민관이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복원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에 필자가 정리했던 돌아가신 분들의 구술자료 및 현재 생존하신 분들의 구술자료와 일제강점기 신문 기사, 그리고 수원시의 기록과 현재 언론 기사 등이 이 글의 주요 사료이다.

2. 일제강점기 이후 수원 시민의 화성 복원 노력

일제강점기부터 수원 시민들은 화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수원 시민들은 화성의 보존에 대한 각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1927년 조선일보사 수원지국 기자는 부서지고 있는 수원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 역시 이 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간 1면에 기사를 실어 화성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미 깨어진 그릇이야 엇지하랴! 남은 그릇이나 깨뜨리지 말기를 바라노니 대리평大里坪에서 수원을 전망展望할 때 맛보는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화서문華西門 간의 우아優雅 웅장雄壯한 풍광風光이든 『남광루』로부터 봉화대烽火臺를 지나 창룡문蒼龍門까지 성벽 외부로 산보하는 중에 잇는 감흥 등이야말로 과연 고뇌苦惱에 찌들린 우리의 영육靈肉의 안식처이며 그는 끝까지 보존할 우리의 것임은 중론을 요要치 안는 것이다. 이 문허가는 성벽 문제는 세소細少한 지말枝末의 문제인 것 가트나 우리의 마음 터에 찔리는 자리는 자못 큰 것이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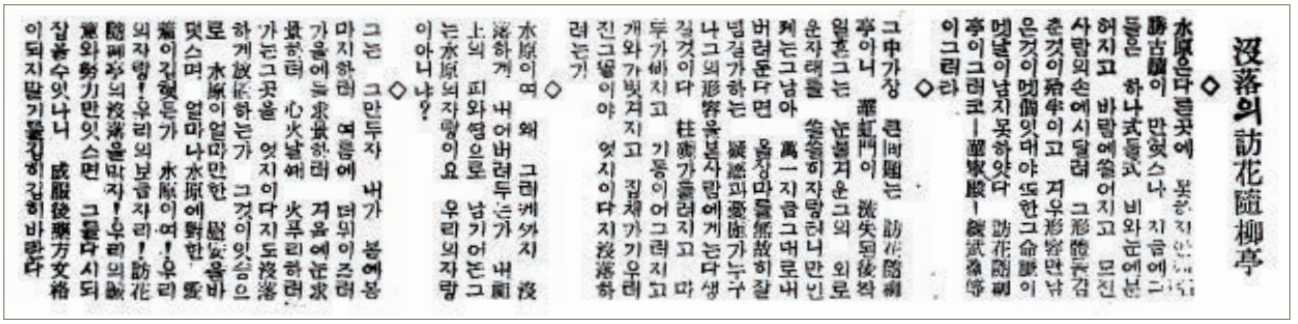
1_ 「문허지는 수원성」, 『조선일보』, 1927년 7월 20일.

이 기사의 표현대로 화성은 일제의 침탈에 고통받는 조선 백성들의 영혼과 육체의 안식처요, 끝까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화성에 대한 애정과 문화적 가치 인식이 화홍문 누각 복원을 위해 수원명소보존회를 만든 것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와 수원군청은 수원군 수원면의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팔달문에



「문허지는 수원성」(『조선일보』, 1927년 7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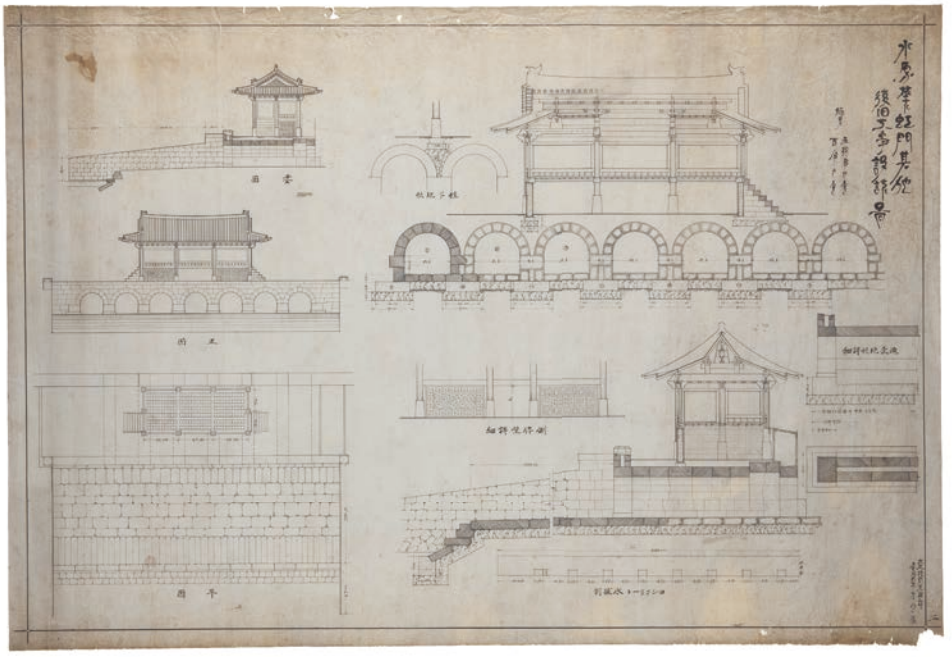

沒落의 訪花隨柳亭

◇

水原은다름곳에 못잇는 勝古蹟이 만헛스나 지금에 그들은 하나式둘式 비와눈에 보힌지고 바람에쓸어지고 모진 사람의손에시달려 그形體는감 춘것이잇서이고 겨우形容만남 은것이멧개잇서야 또한그命脈이 멧날이남지못하얏다 訪花隨柳 亭이그러코ㅣ華虹門ㅣ 旗武樓等 이그러라

◇

그中가장 큰비롯는 訪花隨柳 亭이니 華虹門이 滅失된後에 엇더케 운자랑을 늦기고 눈물지운그의 외로 늦기고 눈물지운그의 외로 운자랑을 늦기고 눈물지운그의 외로 운자랑을 늦기고 눈물지운그의 외로 운자랑을



1923년에 작성된 화홍문 복구공사 설계도면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문 누각에서는 수원실업협회 회원들의 모임이 개최되는 등 여러 행사들이 개최되었다.[5] 화홍문 복원에 이왕직 사무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 시민들의 성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조선의 명군 정조에 의해 만들어진 성곽을 정조의 후손들과 상의해서 복원하는 것은 바로 조선총독부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함이요, 정조의 위업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결국 화홍문 누각 복원은 단순히 문화재 복원이 아니라 민족정기의 회복이자 독립운동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조시대 문화의 상징인 화성에 대한 수원 시민의 의식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다만 해방 이후 정국 혼란과 한국전쟁 그리고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 등 정치적 혼란으로 화성 및 화성행궁의 온전한 복원사업은 추진될 상황이 아니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최고회의 제93차 상임위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과 「향교재산관리법」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총 7장과 73호의 부칙으로 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 위원회로 하여금 유형 및 무형 문화재 등을 선정하고 보호하도록 하였고,[6] 해를 넘겨 1962년 1월에 「문화재보호법」을 공포하였다.[7]

이 「문화재보호법」은 해방 이후 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일본의 문화재관리법안인 「사적, 보물, 명승, 천연기념물보호령」을 그대로 유지하여 문

5_ 『조선일보』, 1939년 5월 2일.
6_ 『동아일보』, 1961년 12월 7일.
7_ 『동아일보』, 1962년 1월 11일.

일제강점기 화령전(수원박물관 소장)



화재 보호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후대에게 전해 줄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이승만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문화유산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최고회의는 이승만 정부가 부패하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 강조하면서 새로운 정권은 민족문화의 수호와 청렴을 강조하였다.[8] 이와 같은 새로운 문화유산 보호 의지가 수원에 있는 화성의 복원사업에 영향을 주었다. 그 첫 번째로 화성행궁과 함께 있는 화령전華寧殿 보호사업을 시작하였다.

화령전은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돌아가시고 장헌세자의 묘소인 현륭원 재실에 소장된 정조의 어진을 이전하여 봉안한 '어진봉안전御眞奉安殿'이었다.[9] 그 후 정조의 대를 이어 국왕에 오른 순조와 헌종, 철종, 고종은 평균 3년여의 간격을 두고 화령전에 내려와 정조에게 제향을 올렸다.[10] 이처럼 정조 사후 역대 국왕들이 거둥하여 참배를 한 정조의 사당인 화령전은 조선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전각이었다. 국왕의 화령전 거둥 시 화성행궁에서 재숙하였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서 화령전과 화성행궁은 조선왕실의 특별 관리 대상이었고, 화령전은 화성유수가 매일같이 전각의 특이사항을 조정에 보고해야 할 정도였다.[11]

고종은 즉위 직후에 수원으로 행차가 없었으나 1868년(고종 5) 3월 13일에 화성행궁으로 행차하여 수원 지역의 방어를 위한 군사훈련에 대한 규례를 재정비하였다. 2

8_ 『동아일보』, 1961년 12월 29일.
9_ 『정조실록』 권3, 정조 1년 5월 정축.
10_ 수원시, 『수원 화성행궁』, 2003, 158쪽.
11_ 순조연간 화성유수를 역임한 서유구의 행정일기인 『화영일록』에 의하면 화령전의 기와에 와초(瓦草)만 생겨도 국왕에게 보고할 정도로 주요 관리 대상이었다.

년 뒤인 1870년(고종 7) 3월 12일에 화성행궁으로 행차하여 4일간 유숙하였는데, 이는 정조가 1795년 혜경궁 회갑연을 위해 행차한 이후 가장 오랫동안 유숙한 것이다. 고종은 이 기간에 현륭원과 건릉에 친제한 뒤 정조의 어진이 봉안된 화령전에 가서 작헌례를 거행하기도 하였으며, 전임·현임 대신들을 불러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더불어 정조의 뜻을 기리며 고종 스스로 정조의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짓기도 하였다. 또한 1874년(고종 11) 2만 냥을 들여 화성행궁의 지붕을 고치는 등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12]

화령전과 화성행궁이 정조 이후 왕실과 백성들에게 중요한 정신적 공간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 이후 화성행궁은 식민지 통치기구로 전락하고, 화령전은 조선총독부 산하 수원군청의 각종 집회장소로 이용되었다. 정조의 어진이 어느 시점에 화령전에서 사라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략 일제 강점이 시작되면서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화령전의 위상은 격하되었고, 1920년 덕성 함양과 체력과 지혜를 위한 수원진명구락부 발기인 총회가 화령전 풍화당에서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집회는 대부분 친일 집회로서, 화령전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집회에 더하여 화령전에서 기생들의 공연과 잔치가 벌어졌다. 일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 품평회를 화령전에서 며칠 동안 개최하면서 이곳에서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동해대곡예단東海大曲藝團의 기생들로 하여금 춤과 농악, 연화煙火를 개최하였다.[13] 국왕의 어진을 모신 사당을 놀이터로 만든 것이다.

특히 화령전의 중심 건물인 운한각雲漢閣은 공수도 도장으로 사용될 정도로 일제의 화령전 가치에 대한 훼손은 극에 달하였다. 더불어 「화령전」 편액과 「운한각」 편액 등이 모두 사라져서 건축물의 외향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화령전의 진정한 의미는 훼손되었다.

해방 이후 화성행궁 주변 신풍동의 구장 김원배金元培를 비롯한 신풍 동민과 대한청년단 신풍동단부원들이 직접 94평의 화령전 중수에 나섰다. 공사는 1949년 9월 18일에 시작되어 11일 21일에 완료되었다. 화령전 중수는 임배근任培根의 지도로 이뤄졌다. 수원시청에서 40만 원의 비용을 제공하였고, 화성군수는 화산華山에서 목재를 알선해 주었다. 동민과 청년단원들은 매일 1시간씩 근로봉사를 하였으며, 2개월여 동안 연인원 600명이 동원되었다.[14]

제3공화국 정부는 1966년 화령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다. 정조의 어진이 봉안되어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방치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것이고, 수원 시민들이 오랫동안 화성과 화령전을 지켜 온 것을 높이 받들기 위하여 화령전 보수의 의

12_ 수원시, 『수원 화성행궁』, 2003, 161쪽.
13_ 『조선일보』, 1927년 10월 31일.
14_ 『동아일보』, 1949년 12월 11일.

미를 두었다.[15]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운한각」 편액을 써서 설치하였다.[16] 대통령이 직접 편액을 쓰는 경우는 이후 자주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편액이 197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1966년에 문화재의 편액을 쓴 사례는 그리 흔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1966년에 화령전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한 것은 바로 수원 시민들이 화홍문 복원사업부터 시작하여 정조의 얼을 계승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정부에서 수원 시민들의 화성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화령전에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화성의 복원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화성행궁의 복원사업이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원시의 이상적인 결합의 노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3. 수원 시민의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립

해방 이후에 화성행궁의 복원에 대한 적극적 노력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의 내용과 같이 일제강점기의 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써야 했던 무지의 시대였고, 더욱이 화성행궁 터에는 관공서와 병원이 자리 잡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를 이전하고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다행히 1975~1979년 5개년 계획으로 국비 32억 8,600만 원의 재원을 들여 화성성곽을 복원한 뒤, 이와 쌍벽을 이루는 수원의 상징인 화성행궁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즉, 화성행궁 복원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본격화된 것은 1989년에 이르러서였다. 처음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움직임은 수원문화원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89년 4월 당시 수원문화원장이었던 심재덕(전 수원시장)은 향토사학자 이승언에게 수원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심재덕 문화원장은 정조가 수원을 건설하고 수원에 내려와 거주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의 궁궐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지니게 되었고 당시 젊은 향토사학자이자 지우知友인 이승언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이승언은 그 부탁을 받고 국립도서관·국회도서관·규장각·장서각 등 수원에 관한 조선시대 사료史料가 있을 곳을 찾은 결과 5월에 「화성행궁도華城行宮圖」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는 소식과 함께 컬러로 된 「화성행궁도」 사진과 필름을 받아 왔다.[17]

이 일을 계기로 6월부터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발기인 모임이 수원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몇 달 뒤인 1989년 9월 30일 화성행궁복원추진준비위원회

15_ 「화령전 중수 기념문」, 1966. 현재 화령전 운한각 내부의 정조 어진을 모신 합자 오른편 상단 벽에 설치되어 있다.

16_ 현재 이 편액은 2005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사항에 의거하여 철거되어 수원화성박물관 수장고에 있다.

17_ 심재덕 구술(김준혁 정리). 수원시,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2002, 23쪽.

18_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명단 : 위원장 김동휘, 부위원장 심재덕·홍의선·안익승, 추진 본부장 이홍구, 기획부장 임병호, 총무부장 송철호, 사료편찬부장 이승언, 섭외부장 김상용, 홍보부장 김우영, 이사 김동욱·김학두·리제재·송태옥·이상봉·이완선·조웅호·최홍규, 감사 이근환·정규호·강용구, 위원(가나다순) 강한영·구중서·권용택·김병오·김상용·김운성·김인기·김정만·김학선·남부희·문기호·문제복·박병찬·박상봉·박언곤·박용은·박원효·박종무·박찬균·박환규·백석현·백충기·송경섭·송철호·오갑진·오병호·오익환·유재영·유철현·윤규섭·윤대철·윤수천·이광일·이도형·이명재·이병렬·이보현·이상길·이재영·이재원·이재인·이종대·이종원·이창식·이홍구·임병호·임영석·임용상·정운엽·정일향·정학균·조희문·차석정·최홍식·한상욱·홍기준·홍사일·홍성선·홍성원·홍순범·홍신선.

19_ 심재덕, 「화성행궁 봉수당 상량식 식사」, 1997.



1975년 6월 7일 수원 화성 성곽복원 보수공사 기공식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수원문화원에서 가졌다. 이때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위원장은 심재덕 문화원장이 맡았다. 이러한 노력 끝에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1989년 10월 6일 개최하여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18]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문화유산을 복원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작은 의미로는 정조시대 이후 200년 가까이 일방적으로 주입된 서울의 변방 의식에서 탈피하여 상처받은 자부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수원 시민의 열망의 표출로 보아야 한다. 크게 보아서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는 정신적 바탕을 이루자는 것이다.

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냐는 냉소가 있기도 하였다.[19] 복원추진위원회 결성을 통해 수원의료원을 이전하고 화성행궁을 복원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화성행궁 터에 수원의료원의 증개축이 결정되어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된 낡은 병원건물을 현대식 건물로 개축하기 위한 설계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만약 복원이 되기 전에 초현대식 건

물이 들어선다면 영원히 화성행궁을 복원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래서 김동휘 위원장(작고)과 경기도 유네스코 회장 안익승 선생(작고), 심재덕 수원문화원장 등이 임사빈 경기도지사를 면담하였다. 이 결과 임사빈 지사는 흔쾌히 화성행궁 복원을 위하여 수원의료원의 신축을 그만두고 이전을 약속하였다.[20]

수원의료원 이전 확답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학술적 뒷받침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의 「사신도四神圖」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추진위원회의 학술업무와 사료편찬부장을 맡고 있던 이승언은 규장각에 있는 사도세자의 『현륭원원소도감의궤顯隆園園所都監儀軌』에서 「사신도」를 발견하고 1989년 12월 7일에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21] 「사신도」는 죽은 사람을 수호하기 위하여 무덤의 벽이나 관 내부에 주작·현무·백호·청룡 등을 그린 것으로 평안도 강서 지방의 대묘大墓와 용강군의 쌍용총 등 고구려 고분군에서 발견되었으나 조선시대 왕릉이나 세자의 묘소에서 발견된 것은 사도세자의 현륭원이 처음이었다. 당시 한양대학교 박물관 관계자들은 「사신도」의 원화 발견으로 조선시대 역사 연구와 미술사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22] 이처럼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는 화성행궁의 복원만이 아니라 정조시대 역사와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찾아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이 학술대회가 단순히 이승언의 발표만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 학술대회의 마지막 차례로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제1차 건의사항

① 수원 화성행궁지인 수원시 남창동 6의 2(수원의료원 소재지), 신풍동 256(구 경기도 여성회관 소재지), 신풍동 257(수원경찰서 소재지) 등 일대를 사적지로 지정 요망

② 현재 행궁지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점차적으로 이전토록 조치하여 행궁을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③ 행궁과 아름답게 조화된 수원천을 비롯한 자연경관이 옛 모습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책 수립 요청[23]

이와 같은 복원추진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마침내 1990년 12월 22일 화성행궁의 중심부이며 대부분의 건물이 위치한 수원의료원이 이전하였고, 1993년 8월 10일에 화성행궁 복원이 시정 중점시책으로 선정되어,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민관이 함께 행궁 복원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2월 22일에는 행궁 복원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시민설명회와 더불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이고 정밀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24]

20_ 김동휘 구술. 2003년 10월 화성행궁 개관식에 앞서 김동휘 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 수원의료원 이전과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내용을 구술하였다.

21_ 이한기, 『수원화성행궁 자료에 대하여』, 수원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1989; 『경향신문』, 1989년 12월 8일.

22_ 『경향신문』, 1989년 12월 8일.

23_ 수원시,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2002, 27쪽.

24_ 화성행궁 복원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심재덕, 부위원장 김동욱·안익승, 위원 조정환·김용규·유재언·최봉수·송후석·남우철·김주태·김동휘·이상해·박언곤·윤규섭·리제재·임택명·이종학.

1994년 3월에는 시비 2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성행궁지에 대한 유구 및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해 5월 13일에는 구 수원의료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였다. 이어 1995년 4월 24일 화성행궁지가 경기도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수원의료원이 화성행궁 부지에 신축되어 영원히 복원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불가능하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화성의 보존과 복원에 헌신해 온 수원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4. 수원시의 화성행궁 복원정책과 노력

수원의료원 이전과 경찰서 등 관공서 이전 확정 이후 수원시는 화성행궁 복원사업을 시정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수원의료원 이전과 신축 문제를 해결한 수원 시민들의 헌신적 성과에 화답하듯 수원시는 앞서의 내용과 같이 1993년 4월에 화성행궁 복원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시민이 먼저 문화재 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계획과 예산을 동반하여 행정부가 복원추진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행궁 복원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수원시에서 시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995년 12월 행궁지 1차 발굴조사를, 1996년 8월에는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발굴조사에서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되었기에 발굴조사의 성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어도御道가 확인되고, 지하에 매몰된 장대석렬長臺石列이 확인되어 다른 유구의 잔존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1차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도, 경룡관지, 유여택지, 복내당지 등이 확인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장대석 이외에 석누조 등 각종 유구 등을 발굴하였다. 이로써 1차와 2차 발굴조사의 성과로 화성행궁 복원의 기반이 마련되었다.[25] 발굴조사는 제3차로 1998년 8월 12일부터 1998년 10월 17일에 실시하였으며,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주도하여 유여택 등의 초석을 발굴하였고, 4차 발굴조사는 1997년 7월 29일부터 1999년 10월 11일까지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주관하여 중양문과 외정리소 일대의 초석들을 발굴하였다. 제5차 발굴조사는 2001년 3월 1일부터 2001년 3월 17일까지 역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주관하였으며, 화성행궁 당시의 것이 아니라 최근 교란된 유구를 발견하였다.[26]

25_ 수원시·한양대학교·수원대학교, 『화성행궁지 제2차 발굴조사보고서』, 1997, 17쪽.
26_ 수원시,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2002, 104~122쪽.



신풍루 상량

사실상 1차 발굴에서 화성행궁의 주요 전각 위치를 대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1996년 4월 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실시설계 시 화성행궁 복원 시점을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1796년(정조 20)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화성의 완공이 1796년이기에 화성행궁 역시 그 시기에 최종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정조 사후 화성행궁에 대한 변화도 있었지만 그것은 복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27]

수원시는 1996년 5월 3일 경기도로부터 행궁복원에 대한 설계승인을 받아 7월 18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거행하였다.[28] 충실한 자료 수집과 철저한 고증을 통해 완벽한 공사를 진행하여 1997년 9월 12일에 화성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의 상량식을 갖게 되어 화성행궁 복원에 한걸음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시작되었다. 6월에 있었던 시장 선거에서 화성 및 화성행궁의 복원을 주장한 심재덕 문화원장이 시장으로 당선되어 화성행궁의 복원사업은 수원시의 역점사업이 되었다. 심재덕 시장은 처음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결성과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행궁 복원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그가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민관의 합동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원시는 1996년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맞이하여 '200년 효의 도시, 2000년 꿈의 도시'를 주제로 내걸고, 화성행궁 복원, 효행대문 건립 등 5개 분야 51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개 주제는 역사 속의 수원, 살맛나는 수원, 아름다운 수원, 세계 속의 수원, 쾌적한 수원이었다.

주요 기념사업으로 화성행궁 복원, 성곽 복원 등 문화재 복원사업, 효의 성곽 순례 및 봉수대 거화 등 전통 문화사업, 수원 200주년 뮤직페스티벌 등 축제행사, 효행대문 건립, 수원 갈비축제, 세계연날리기 대회 등 수원 상징행사, 국제컨벤션시티 건립, 광교산 시민 휴양지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의 100년을 내다보기 위한 2095기획단도 만들어 수원시의 미래를 기획하고자 하였다. 이때 화성행궁 복원이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면서 2002년까지 1차 복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하였다.[29]

1997년 7월 봉수당 상량식에서 심재덕 시장은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선언하였다.

> 민족의 정기와 문화가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다. 화성행궁은 바로 그 화성의 모태로서 화성행궁의 복원을 통해 민족문화와 역사를 복원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한편 세계인이 공유하는 문화재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30]

27_ 수원시,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2002, 78쪽.
28_ 수원시,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2002, 24쪽.
29_ 『경향신문』, 1995년 11월 30일; 『동아일보』, 1995년 12월 1일.
30_ 심재덕, 『화성행궁 봉수당 상량식 식사』, 1997.



화성행궁 발굴 및 복원공사

당시 화성행궁 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재 복원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경복궁 복원에 버금가는 조선시대 왕실건물의 복원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31]

1997년 12월 심재덕 시장은 『수원농생명고등학교 동문회보』에 화성행궁의 복원과 미래에 대한 글을 실었다. "앞으로 화성행궁이 완전히 복원되면 이곳은 효의 성역으로 가꾸어지고 민족문화와 역사 교육의 장,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화성행궁은 수원시장의 절대적 복원의지와 함께 수원시의 주요 과제로 지속적 사업이 되었다.[32]

1998년 『수원북중 동문회보』에도 화성행궁 복원과 활용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화성행궁은 일제시대 그들의 민족정기와 역사 문화 말살 정책으로 말미

31_ 『동아일보』, 1996년 7월 11일.
32_ 심재덕, 「기고문」, 『수원농생명과학고 동문회보』, 1997년, 12월.

암아 훼손되었으나 현재 주건물인 봉수당을 비롯한 많은 건물이 복원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되어 효의 살아있는 교육장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33]라고 강조하였다.

1998년 7월 1일 수원시의 지방자치제도 민선 2기가 시작되면서 심재덕 수원시장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여러 시설물에 대한 복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적 활용하여 수원을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34] 심재덕 시장은 화성행궁의 복원이 수원시의 노력만이 아닌 시민과 관의 공동 노력에 의한 사업이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35] 이것이 바로 민관 협력으로 일구어 낸 최초의 문화유산 복원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다.

1997년 12월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화성행궁의 복원은 한층 가속화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화성은 창덕궁과 더불어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판전, 종묘 등에 이어 1997년 12월 4일 나폴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1차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당시 세계문화유산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51개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에 세계 108번째로 가입하였다. 세계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협약 가입국의 문화유산 중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이 가치 있는 문화유산에 화성이 당당히 등재된 것이다.

당시 화성은 세계유산 등록기준 "ii. 한 시대나 하나의 문화권을 통해 건축, 기념물, 문화 환경 부문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iii. 소멸된 문명이나 문화전통에 대해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한 사례, 적어도 예외적인 증명이 되는 것"에 근거하여 등재되었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는 "화성은 동서양을 망라하여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특징을 고루 갖춘 근대 초기 군대 건축물의 뛰어난 모범이다."라고 하였으며, 국제기념물유적협회는 "화성은 18세기 군사 건축물을 대표하여 유럽과 극동아시아의 성제의 특징을 통합한 독특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심사위원으로 화성을 방문한 실바(Nimal De Silva) 교수는 "화성의 역사는 불과 200년밖에 안 됐지만 성곽의 건축물이 동일한 것이 없이 각기 다른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였다.[36]

이와 같이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이후 화성 정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화성행궁에 대한 복원 역시 그 중요성이 더해 갔다. 1998년 3월 25일 화성행궁 봉수당이 복원되었다. 경룡관과 장락당 등도 복원되었는데 이 복원식에 2,000여 명이나 참여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37] 당시 기사에서도 화성행궁 봉수당 복원에

33_ 심재덕, 「기고문」, 『수원북중 동문회보』 11호, 1998년 6월.
34_ 「민선2기 수원시장 취임사」, 1998년 7월 1일.
35_ 「해병대사령부 창설 50주년 기념 축사」, 1999년 1월. "정조께서는 당쟁의 틈바구니에서 뒤주에 갇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곳으로 옮기고 화성 성곽을 축성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화성행궁을 건립했습니다. 화성은 지난 1997년 말 유네스코로부터 빼어난 기능과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능행차 때마다 묵으셨던 화성행궁은 일본 무력통치 시기에 저들의 민족정기 말살정책으로 인해 훼손됐으나 시민과 시가 힘을 합쳐 복원 중입니다."
36_ 수원시, 『수원 화성행궁』, 2003, 171~174쪽.
37_ 『경향신문』, 1998년 3월 26일.



화성행궁 개관식

기여한 곳은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봉수당 복원 이후 총공사비 325억 원을 들여 장락당, 유여택, 경룡관, 신풍루 등 주요 건물들을 복원하여 2002년 7월 26일에 1단계 공사로 482칸, 3,261.23㎡ 건물을 복원하였다. 그리고 각 시설물에 단청을 하였으며, 궁중유물전시관 수장고에 있는 현판을 모각하여 봉수당 등 여러 시설물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2003년 10월 9일 역사적인 화성행궁 개관식을 거행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였다.[38]

화성행궁 개관에 앞서 민선 3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김용서 시장 역시 민선 1기와 2기의 화성복원 정책을 계승하여 화성의 문화관광사업 확대와 더불어 화성과 화성행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곽테마박물관(현 수원화성박물관) 건립을 천명하였다.[39]

2003년 10월 9일 개관식에 김용서 수원시장은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의 공로에 대해 직접 거론하였다.

38_ 수원시, 『수원 화성행궁』, 2003, 174쪽.
39_ 「2002년 수원시장 송년회사」, 2002년 12월 31일.



복원된 화성행궁 전경

화성행궁華城行宮은 정조대왕正祖大王(재위 1776~1800년)께서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원침園寢을 참배하기 위해 묵었던 궁宮으로 조선시대朝鮮時代 행궁 중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화성행궁의 여러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병원·군청·경찰서 등이 들어서면서 낙남헌만 남고 모두 파괴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수원의료원 증축 계획이 수립되어 화성행궁은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뜻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료원 증축반대 및 화성행궁 복원운동을 전개하였다. 화성행궁의 복원은 1996년에 시작하여 2002년에 제1단계 공사를 마치고 2003년에 이르러 역사적 개관을 하게 되었다.

2003. 10. 수원시장[40]

화성행궁 복원은 1단계로 복원정비 482칸, 발굴조사 1만 3,200㎡, 토지매입 8,846㎡, 건물매입 28동으로 사업비 325억 3,300만 원(국비 27억 원, 도비 49억 7,900만 원, 시비 248억 5,400만 원)이 투여되었다. 2단계 복원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신풍초등학교 이전문제와 맞물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다.[41]

40_ 수원시, 「화성행궁 복원 비문」, 2003.
41_ 화성행궁 2차 복원 예상 총사업비 : 300억 원(국비 50억 원, 도비 100억 원, 시비 150억 원).



수원화성복원시민운동본부 발대식

수원시는 2003년 10월에 「수원시 화성행궁 관람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행궁 보전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결과 현재 수원 화성행궁을 찾는 관람객은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매일같이 화성의 자랑인 무예24기 시연과 주말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조시대 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보여 주고 있다.

5. 화성행궁 복원의 의미

이제까지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민관의 합동 노력을 살펴보았다. 수원 시민이 건의하고 수원시가 받아들여 복원한 화성행궁은 앞서의 설명과 같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복원사에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화홍문 누각을 복원하기 위한 '수원명소보존회'의 창립과 모금은 독립운동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정신이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화성행궁 복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화성행궁 복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전체 면적의 반 정도의 공간이 복원되어야 한다. 이 복원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복원사업에서 민관이 하나가 되어 추진했던 역사를 이해하고, 서로의 이익을 양보하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화성행궁 복원사는 단순히 수원 지역에 있었던 문화재 복원사업이 아니다. 이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발달사이다. 우리 사회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은 거의 없었다. 특히 문화유산의 복원은 철저히 관 주도로 추진되어 온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시민의 주창과 경기도와 수원시의 수용으로 이루어진 모범적 사례이다. 이 사례는 향후 민족문화유산 복원사업에서 표준 모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의의가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화성행궁 복원사업과 관련된 세세한 자료가 거의 없다. 자료 관리의 소홀이 빚어낸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화성행궁 복원 관련 자료를 찾아내는 것과 당시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구술사 자료를 남겨 놓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은 정조의 화성건설의 의미와 복원사업이 모두 하나의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는 일이거니와 수원의 문화도시 위상을 북돋는 일인 것이다.

인문학 도시 수원 만들기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화성 복원을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이들에 대한 노고에 보답하는 작은 정성인 것이기도 하다.

제3부 화성 축성

02 | 정조의 화성 건설 구상과 정치리더십

『영조실록』; 『정조실록』; 『순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홍재전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반계수록』; 『성호사설』; 『한중록』; 『서경』; 『시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장자』; 『사기』; 『정관정요』.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출판부, 1973.
강만길 외, 『한국사 : 중세사회의 해체』 9·10, 한길사, 1995.
김성윤,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8.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박현모,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2001.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정석종, 『조선후기 사회변동 연구』, 일조각, 1983.
정옥자, 『정조의 수상록 일득록 연구』, 일지사, 2000.
최홍규, 『정조의 화성 경영 연구』, 일지사, 2005.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일조각, 1996.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28일』, 효형출판, 1999.
Hung Yu-Lan,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2.
Hendeson G.,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 Havard University Press, 1968.
Palais J.B.,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Yu Hyongwon and the Late Choson Dynasty*,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96.
김문식, 「19세기 전반 경기학인의 경학사상과 경세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박광용,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권체제의 확립」,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박정훈, 「수원능행도병」, 『미술사학연구』 189, 1991.
박현모, 「정조의 성왕론과 경장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배우성, 「정조연간 무반 군영대장과 군영정책」, 『한국사론』 24, 서울대, 1991.
염정섭, 「정조 후반 수리시설 축조와 둔전경영」, 『한국학보』 82, 일지사, 1996.
이원균, 「영조 무신란에 대하여」, 『부대사학』 2, 1971.
이지은, 「역사문화환경 보전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관리 적용 평가 연구」,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박영민, "Finding the Future of Project Management from Hwaseong Fortress Project",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Master of Science, 2008.

04 | 화성 축성의 전개와 완공

경기문화재단, 국역증보판 『화성성역의계』 권1, 개설, 2005.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계 건축용어집』, 2009.
김동욱, 『한국건축공장사연구』, 기문당, 1993.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 수원성』, 발언, 1993.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김선희, 「화성유수 조심태 연구 – 수원 이읍과 화성 건설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0, 2009.
영건의궤연구회, 『영건의궤 – 의궤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 동녘, 2010.
장필기, 『조선후기 무반벌족가문 연구』, 집문당, 2004.
최홍규, 「조선후기 화성축조와 향촌사회의 제양상」, 『국사관논총』 30, 1991.

05 | 화성의 시설물

김동욱, 「수원성과 화성행궁」, 『수원문화』 11, 1992.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 수원성』, 발언, 1993.
김동욱,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2009.
영건의궤연구회, 『영건의궤–의궤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 동녘, 2010.
정정남·이혜원, 「영건의궤에 나타난 양상도회의 의미와 기법」,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년 5월.
정정남·이혜원, 「의궤에 기록된 건축용어 연구」, 『경기대학교 화성학연구소 논문집』, 2006년 2월.

제5부 1795년 8일간의 화성행차

01 | 1795년 왕실 행사와 화성행차

『원행을묘정리의궤』; 『조선왕조실록』; 『국조오례의』;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 『만기요람(萬機要覽)』.
강문식, 「정조대 화성의 방어체제」, 『한국학보』 82, 일지사, 1996.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한국학보』 88, 일지사, 2000.
김문식, 「혜경궁 부부의 존숭에 관한 국가전례」, 『여성 :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참고자료

김문식, 「1779년 정조 능행과 남한산성」, 『한국실학연구』 8, 한국실학학회, 2004.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 儀仗班次圖와 擧動記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5.
배우성, 「정조연간 무반군영대장과 군영정책」, 『한국사론』 2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1.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02 | 8일간의 화성행차

『을묘원행정리의궤』; 『정조실록』.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민속원, 2001.
임미선, 「1795년 화성에서의 진찬과 양로연, 『원행을묘정리의궤』」, 『정조대의 예술과 과학』, 문헌과해석사, 2000.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허용호, 「화성행궁과 전통연희」, 『민족문화연구』 3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3.

제6부 화성행궁

04 | 시민과 관이 함께한 화성행궁 복원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정조실록』; 『화영일록』; 『화성성역의궤』.
수원시,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2002.
수원시, 『수원 화성행궁』, 2003.
『수원농생명과학고 동문회보』, 1997년.
『수원북중 동문회보』 11호, 1998년.
수원시, 『화성행궁 복원 비문』, 2003.
수원시·한양대학교·수원대학교, 『화성행궁지 제2차 발굴조사보고서』, 1997.
심재덕, 「화성행궁 봉수당 상량식 식사」, 1997.
이한기, 『수원화성행궁 자료에 대하여』,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1989.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여유당, 2001.

찾아보기

ㄱ

가교 459
가례 486
가분모대전 228
가어문 532, 550
가옥 보상 216
가전별초 322
가칠장이 204
가평 305
가풍문 557
가후금군 323
각건대 281, 284
각동진 213
각루 239, 272, 275
간역 197
감관 151
감동 197, 198
감동당상 197, 223, 224, 229
갑술환국 65
갑신처분 40, 41, 49
갑인통공 190
강경포 115
강무당 429, 498, 532, 563, 564
강무당행각 498
강상교통 116
강세문 414
강유 325, 326, 498, 499
강화 95, 508
강화유수부 507
강화행궁 490, 509
강홍운 398
강희대 204
개성 95, 508
개성상인 119
개성유수부 507
개성행궁 490
개와장이 204
객사 565
거궁 482
거중기 177, 214, 245
건릉 579
건물 배치 525
건방 119
건양문 290
건원릉 43, 72, 74
건융릉 563
건장문 542
걸톱장이 204
격쟁 190
격포행궁 487
경감관 197, 201
경강상인 116, 119, 121, 189
경강포구 115
경고직 197
경군 306
경기감사 92
경기도기념물 제65호 583
경기도립수원병원 520
경기도립수원의원 520
경기도수원의료원 520
경기좌방어사 331
경덕궁 482
경룡관 498, 518, 519, 529, 530, 531, 542, 545, 546, 547, 549
경리영 330
경모궁 19, 48, 51, 52, 53, 54, 55, 57, 64, 159, 361, 362, 363, 364, 371, 376, 378, 380, 491, 513
경모궁 개건 54
경모궁예제 568
경모궁 행차 296
경문서직 197
경복궁 482, 534, 535
경사령 197
경상우도 128
경상좌도 128
경서리 197
경선문 531, 542
『경세유표』 164, 173
경세치용학파 133
경신처분 25
경아문 234
경운궁 482
경자유전 135
경장대고 289, 330
경장정책 299
경종 18
경춘전 19
경패장 197, 200
경포졸 197, 201
경화문 532, 550
경희 414
경희궁 존현각 침입사건 295
계섬 414

찾아보기

계월 414
계평돈 271
고등촌 74, 75, 138, 149
고등촌면 218
고등촌 부석소 217
고색동 130
고양 305, 309
고양동 149
고유제 230, 371, 376
고종 579
곡란층계 254
공도회 111
공사실명제 186
공석면 228
공시인 120
공신루 532, 550
공심돈 239, 269, 270
공자묘 239
공장아병 308
공전 135
공전제 134
공정중첩 단축법 186
공해 559
공홍파 28, 29
과거 104
과거시험 389, 394, 395
과거 정례화 102
과천 102, 128, 305, 309, 347, 352, 394, 503
과천행궁 495, 510
과천현 439
과천현감 349, 354
곽자장 169
곽천운 398
관곽전 97, 124, 125
관동 211
관립수원자혜의원 520, 545
관북군영 297
관서무사 298
관서별 노자 분배 내역 464
관성장 322
『관수만록』 236
「관화곡」 368, 411
광교동 98
광교면 217, 218
광교산 261
광교천 262
광주 95, 102, 128, 215, 305, 347, 394, 508
광주부 439
광주 309
광주유수부 507
광주행궁 490, 509, 510, 511
광해군 72, 75
괴목정교 261
괴잡목 211
굉흡 203
교련관 322
교련관청 307
구복문 531, 548
구석하 201
구선복 290
구선복 역모사건 305
구선부 436
구여문 531, 548
구원행궁 485
구윤명 49, 50, 377, 378
구읍치 86, 88, 89, 128, 496, 498
구읍치 보상비용 221
구읍치 이주민 86
구천 263, 264
구판 243
구포 130, 210, 211, 212, 218, 240, 439
구포나루 212, 218
구포제재소 200
국가개혁론 134
국별장 322
국영농장 177
『국조상례보편』 491
『국조오례의』 491, 492
『국조오례의서례』 485
국출신 322
군관 322
군기고 564
군기사 333
군례 486
군병 마련 503
군사도시 177
군사훈련 182, 338, 383, 390, 401, 402, 403, 405, 429, 435, 436, 438, 442, 443, 444, 445, 449
군액 352, 353
군영별 노자 분배 내역 464
군영제도 350
군영 직제 308
군영체제 289
군제 306, 343
군제 개편 354
군제 개혁 289, 292, 295, 299, 303, 330, 331, 352
군제변통론 302
군포 130
군향색 종사관 316
「군현제」 85
궁궐 479, 483, 484
궁궐 건축 484, 537
『궁궐지』 509
궁·묘제 57
궁방전 149
궁성 490
『궁원의』 52, 55
『궁원전성록』 54
궁원제 42, 52, 57
궁원제도 491
궁중 정재 418
권농 149, 151
「권농정구농서윤음」 144
권동 208, 228, 232, 233, 235
권득경 398
권득성 398, 439
권무군관 322
권상연 71, 159

찾아보기

권성문 203
권옥 203
권우 111
권유 178
권의 105, 106, 111
권적 86
권정침 32
권치명 201
권평 113
귀벽돌 237
규장각 68, 137, 162, 182, 193, 580
규장각 초계문신 163
균역법 298, 299, 302, 303
균역법 혁파 298
균역청 96, 98, 100, 124, 142, 219, 220
균전제 135, 136
근총안 251
금군 290, 293, 295, 305, 321
금군액외삼영권무군관 320
금난전권 189, 190, 303
금도청 561, 562
금련 414
금례 414
금성천 211
금성탕지 325
금양 123
금위영 220, 228, 299, 316, 322, 323
금천 215
기거장이 204
『기기도설』 169
기녀 414
기부전 228
기사 322
기사장 322
기술 발전론 155, 164, 166
기술자 201, 202
기영 220
기예교사 336
기예군 306
「기예론」 155, 165
기와 212, 237
기와가마 212
기자헌 72
기중가 171
기중기 155
「기중도설」 167, 170
기층헌 529
기패관 322, 323
기호 남인 156
『기효신서』 297
길례 485, 486
길지 61
김검정 89
김경휘 414
김계중 198
김관 398, 438, 439
김광손 204
김광욱 113
김광일 113
김귀주 65
김기대 46
김기성 365, 412
김기승 108
김낙수 112
김낙연 111, 112
김낙풍 113
김노성 198, 201
김노순 493
김노영 79
김노진 182, 190
김도원 112
김도항 445
김동휘 582
김명우 198, 201
김명철 203, 204
김문순 69, 98, 191, 296
김범금 445
김보명 91
김봉문 198
김사저 414
김삼득 414
김상득 203
김상로 15, 17, 29, 37, 65
김상록 414
김상철 17
김성갑 398, 439
김성복 414
김성악 398
김성운 414
김성익 111, 112
김성인 203
김세광 398
김시묵 45, 46
김시찬 28
김쌍대 414
김약대 414
김약로 15
김약채 89, 398
김양직 89
김양택 16, 17
김여백 203
김용대 414
김용서 588
김우장 29
김원배 579
김응삼 414
김응일 370
김응철 398
김이교 157
김이성 87
김이소 70, 333
김이종 398
김이주 46, 50
김익 44, 67, 69, 87, 89, 493, 495
김인단 32
김인철 91
김인후 104
김재로 15
김재로 가문 15
김재협 493
김정삼 364, 445
김조순 66, 514

찾아보기

김종록 398
김종수 57, 65, 69, 96, 178, 290, 493
김종진 398, 439
김중일 208, 398
김지묵 316, 334, 340
김진규 16
김창득 414
김창운 398, 439
김처한 198
김처홍 398
김천한 398
김최원 105
김치원 398
김치인 15, 17, 66
김치한 203
김표득 414
김홍도 177, 558
김화진 69
김후 198, 340

ㄴ
나경언 29, 30, 31, 32
나동욱 201
나막신장이 204
나상언 30
나주괘서사건 15
나폴리 587
낙남헌 365, 368, 370, 394, 428, 429, 439, 498, 518, 519, 520, 527, 532, 533, 535, 538, 551, 552, 554, 555, 557, 558, 567
「낙남헌방방도」 399
「낙남헌양로갱재축」 370
「낙남헌양로연도」 428, 552, 555
낙성연 230, 555
「낙성연도」 555
낙안읍성 247
낙양 남궁 552
난로문 557
난전 185
난전권 118, 119, 120, 121
난전법 118, 122
난전 착납권 190
난화 414
남공심돈 269, 271
남공철 429, 446
남광루 575
남군영 525, 526, 528, 535, 562
남군제도 293, 305, 309
남리 216
남리 구역 216
남북군영 518, 559
남북군영행각 498
남북 장시 126
남서적대 264
남성 202, 216, 217, 218
남성적대 256
남성행궁 487
남성협수초관 348
남수문 186, 202, 203, 218, 238, 239, 259, 261, 263
남암문 259, 271, 576
남양 334, 439
남양만 115, 128
남옹성 238, 256
남은구 218, 264
남인 66, 68, 69
남제 127
남지 261, 264
남창 264
남치 277
남태제 118
남포루 277, 280
남한산 490
남한산성 86, 329, 330, 347, 436, 490, 510
남한산행궁 490
납미사군 353
납미액 356
납미양군 353
납포군 351, 352, 356
납포미 352
납포사군 350
납포양군 350
낭천현 211
내금위 320
내당 531
내삼문 519, 568
내삼청 295
내성 490
내탁 231
내탁 방식 252, 253
내탕금 455
내포사 285, 559
내하전 455
노대 239, 267, 268
노래당 66, 194, 498, 513, 515, 518, 520, 527, 532, 533, 535, 551, 555, 557, 558
「노래당구점」 515
「노래의」 372, 382
노래자 515
노량진 214
노량행궁 368, 510
노론 15, 17, 25, 68, 69, 181
노론계 척신가문 17
노론 벽파 178, 181, 182, 186, 188
노론세력 27
노수 268
노임 지불방식 205, 206
녹로 171, 214, 245
농감 151
『농정전서』 164
「농책」 163, 164
뇌자 306, 308
누원 120
누원점 95
누원 점막 119
누조 254
「누조도설」 167, 170
느티나무 527, 529
능 제사 485
능침 선정 73

능행 492
능행로 128

ㄷ
다복문 530, 545
다포식 254
단양 214
단유궁 482, 483
단청 262
담군 204
담기군 206
담틀 242, 243
당보수 307, 308
당 태종 546
대가 의장 486
대거 243
대구읍성 248
대기수 306, 308
대동미 302
대동법 115
대리청정 25, 26
대성전 365
대성전 참배 389, 390, 391, 394, 429
대유둔 140, 148
대유둔사 149
대유둔전 139, 145, 150, 151
대유평 138
대장간 201, 214
대장소 306, 307
대장장이 204
『대전통편』 156
대차 492
대천 263
『대학강의』 163
대한청년단 신풍동단 579
「대호궤도」 554
덕사 화승 204
덕애 413
덕적진 214
덮개벽돌 237
도감관 151
도고 303
도성 483, 490, 508
도소 201
도장 149
도제거 330
도제조 322
도제조소 306, 307
도청 197
독산성 130, 325, 328
독상체제 330
독성 331
독성군 353
독성산성 332, 344
돈대 270
돌맥 242
동감 151
동거 243
동남각루 218, 274, 277
동덕회 291, 320
동래읍성 248
동북각루 260, 261, 272, 281, 576
동북공심돈 266, 268, 269, 271
동북노대 268, 271
동북포루 260, 278, 280, 281, 284
동삼치 277
동삼포루 283
동성 202
동성협수초관 348
동암문 260, 266
동옹성 257
동월 414
동이치 276, 283
동이포루 277, 283
동일치 276
동일포루 276, 282
동장대 217, 218, 219, 260, 265, 266, 267, 268, 271, 281, 340
동지 261, 264
동치 271
동포루 276, 279
동해대곡예단 579
동화역 130
둔감관 149
둔도감 149
둔사 149
둔속 148, 149
둔유사 148
둔전 138, 143, 145, 151, 302, 468
둔전법 150
득선 414
득중정 368, 429, 445, 446, 448, 498, 518, 530, 532, 533, 535, 551, 555, 556, 557
득중정 어사 390, 429
「득중정어사도」 433, 556
득중정지 551
「득중정」 편액 497, 555
득한문 530, 533, 556, 558
등롱군 307, 308
땔감장 218

ㅁ
마루벽돌 237
마병 332, 343
마산포 115
마의 321
마조장이 204
마포 미전 119
『만기요람』 456
「만년」 372, 382
만년제 127, 140, 141, 142
만석거 127, 138, 139, 140, 142, 143, 144, 145, 150, 151, 468
매열 414
매향동 264
매화 446
매화시방 447, 448, 556
매화포 433, 436
매화훈련 447
명금 414
명당수 525, 526, 535
명륜당 391, 394
『명의록』 65
모군 204, 205, 206, 234

찾아보기

모군 고용제 241
모군제도 241
『모년일기』 32
모애 414
모원의 169
목대전 228
목만중 159
『목민심서』 166, 173
목수 203
목재 210, 239, 240
목포전 97, 124, 125
묘묘제 47
묘묘제도 491
무고 498, 532, 564
무고행각 498
무과 시험 365, 429
무궁 482
『무비지』 268
무사석 235
무신난 25, 69, 71
『무신창의록』 65, 71
무예24기 시연 590
『무예도보』 336
『무예도보통지』 347
무예별감 293
무예청 295, 313, 465
무예청 통장 466
무용위 293
무포사군 350
무포양군 350, 353
문과 시험 365, 429
문루 257
문무과 별시 394
문무과 시취 108, 110, 111
문석대 267
문성운 414
문세린 398
문세준 91, 445
문수당 86, 87
문수당 3수 87
문수당 5수 87
문수당 6수 87
문수당 1수 87
문수당 호구수 87
문양해 292
문외 미전 119
「문화재보호법」 577
문효세자 45, 61, 241
문희묘 241
미곡전 97, 98, 124, 125
미로한정 66, 285, 513, 514, 530, 532, 533, 535, 558, 559
미륵고개 368
미상 128
미장이 203
미전 216
민백록 203
민백상 16, 17
『민보의』 438
민영원 107
민종현 371, 548
민진원 16
민진원 가문 15, 17
민진후 371
민춘득 198

ㅂ

박간 111
박남상 414
박도성 203, 204
박리인 398
박명원 43, 44, 57, 61, 65, 66, 76, 77, 79, 167, 188, 492, 493, 494
박문흥 29
박배장이 204
박보경 113
박보완 414
박사묵 111, 112
박세주 89
박수담 414
박용대 398
박인수 198
박일공 414
박정원 112
박제가 165, 193
박종간 200
박종겸 32
박중태 398
박지성 32
박지원 165
박진황 91, 198, 200
박창근 414
박창홍 91
박충수 200
박치관 91
박치원 28
박쾌득 203
박필국 113
박후신 398, 439
『반계수록』 72, 75, 76, 83, 86, 123, 134, 135, 236
반방전 237
발거 243
『발전하는 수원』 512
「방방도」 399
방어영 334
방전 212, 237
방축수 142
방현포 211
방화수류정 260, 261, 263, 272, 281, 368, 429, 551, 576
배다리 189, 364, 365, 369
배복상 414
배봉둔 312, 313
배봉산 43, 45, 50, 71, 76, 219, 491, 495, 496, 507
배봉아병 313
배봉진 313
백광신 113
백운동 212
범임순 104
법가 의장 486
법궁 479, 482
법성포 115

벽돌 237
벽돌가마 212
벽돌장이 204
벽란포 215
벽성 231
벽전 212
벽체석연 273
벽파 68, 182, 188, 194
변호랑 414
별간역 197, 198
별감동 197, 198
별군관 322, 345
별군직 296
별궁 479, 482, 509
별기위 322
별무사 321, 322, 323
별부료 321
별부료병방 295
별비전 228
별아병장아병 308
별아병장표하군 308
별장 316, 322
별장표하군 307, 308
별주 522, 564
별중사아병 308
별중사표하군 308
별평거 243
별효사 332, 343
별후부천총 322
별후사아병 308
별후사표하군 308
병방선 240
병자호란 83, 248, 436, 490
병풍 466
병풍바위 285
병풍장이 204
『병학통』 156, 166, 172
보약 169
보유 75
복내당 498, 518, 529, 530, 531, 533, 535, 545, 547, 548, 550
복내당 편액 497
복마군 306, 307
복취 414
복혜 414
본궁 479, 482
봉돈 239, 279, 283, 524
봉상시 567
봉수 123
봉수당 361, 365, 370, 381, 382, 401, 409, 498, 507, 518, 519, 520, 525, 526, 527, 529, 530, 531, 535, 537, 539, 540, 541, 542, 543, 545, 547, 555, 565, 587
「봉수당 상량문」 543
봉수당 상량식 585
봉수당 진찬 365, 390, 409, 410, 411, 412, 415, 418, 419, 420
「봉수당진찬도」 415, 420, 530, 543
봉수대 123
봉표처 88
부감관 197, 201
부계장이 204
부교 502
부기수 197, 201
부료무사 321, 322
부문서직 197
부사문 550
부사환군 197
부서리 197, 201
부서사 197
부석소 202, 209, 218, 234, 235, 244
부역 101
부역 면제 100
부패장 197, 200
부포졸 197, 201
부홍파 28, 29, 290
북각도 541
북군영 525, 526, 528, 535, 562
북동적대 217, 277
북동치 217
북리 216, 217
북리점중 97
북서적대 277
북서포루 264, 278, 279
북성 202, 216, 217
북성벽소 204
북성적대 255, 256
북성협수장 348
북수문 238, 239, 261, 262, 263, 272
북암문 260
북옹성 238, 253, 254, 256
북은구 264
북지 261, 264
북포루 282
북학론 134, 165
『북학의』 165, 236
북학파 133, 165
북한강 211
북한산 490
북한산성 490
북한산행궁 490
분단 414
분봉상시 522, 567
불랑기 269
불암산 231
붕당 15
비변사 99, 119, 120, 473, 474
비봉 224
비장청 518, 526, 528, 529, 535, 561, 562, 564
빈례 486
빈정포 130
빈희문 532, 550, 559
빙애 21

ㅅ

사경 149
사근참행궁 510
사근평 212
사근평행궁 365, 368
사단칠정 논쟁 156
사대문 239, 253
사도 34, 508

찾아보기

사도세자 16, 17, 22, 24, 37, 39, 40, 41, 42, 51, 52, 63, 64, 65, 66, 68, 69, 76, 86, 93, 98, 181, 191, 361, 362, 372, 376, 380, 381, 424, 452, 491, 573
사도체제 95, 507
사령 149, 151
사미 행사 390, 420, 421, 423, 429
사복시 465, 466
사사파총표하군 307, 308
「사신도」 582
사아평 436
사옹원 564
사음 149
사전 135
사직단 239
사찰 484
사창 472
사카이 마사노스케 512
사통팔달 130
사후군 306, 307, 308
삭료 149
산성 246, 248
『산수비기』 75
산지성 279
산창 472
산탁 253
삼남대로 177
삼남 지방 326
「삼도팔도을묘정리곡설치절목」 470, 474
삼문 537, 538
3소경 184
삼수문 530
상계군 291
상권 부양책 326
상남지 264
상동지 264
상미전 119
상사국 485
상설시전 97
상심진 213
상애 414
상언 190, 385
상업 115, 128
상업도시 177
상왕 514
상진청 219
새 읍치 122
색리 149, 151
서강 미전 119
서광계 164
서남각루 261, 274, 276
서남암문 261, 274, 275, 280
서남이치 276
서남일치 276
서남포사 285, 559
서노대 266, 268
서대광 398
서도희 204
서둔 127, 142, 151
서둔전 151
서득세 204
서리청 518, 526, 528, 529, 535, 561, 562
서명균 15
서명선 69, 88, 291, 293, 320, 493, 494
서명응 29
서명탁 320
서별당 548
서봉동 212
서봉산 237, 284
서봉세 204
서봉천 204
서북각루 273, 275
서북공심돈 269, 271, 282
서북포루 282
서삼치 275, 282
서성 202
서성협수초관 348
서암문 260, 282
서영보 452
서옹성 258
서용보 429, 446
서울편수 204
서유건 198
서유경 69
서유녕 70
서유대 70, 298, 333, 334, 375, 429, 436, 446, 563
서유린 69, 96, 142, 293, 348, 375
서유방 70, 79, 90, 92, 96, 338, 429, 446, 495, 567
서이치 275, 279, 280
서일치 275, 276, 277, 279, 280
서장대 260, 265, 266, 268, 274, 275, 279, 280, 282, 365, 370, 402, 409, 558
「서장대성조도」 409
서정옥 398
서정우 91
서종복 398
서준보 429
서지 414
서지수 15, 17
서태항 29
서택수 91
서패 306, 307
서포루 275, 279, 280, 282
서행각 548
서행사건 29
석공 234
석성산 284
석성산 봉화대 283
석수 202, 208, 233, 234, 241, 242
석재 208, 230, 233, 242
석재 발굴 223, 228, 229
석재 발굴지 233
석재 수급처 232
석축 251
선기대 306, 307, 308, 309, 312
선기별장 317, 344
선기장 317, 322

찾아보기

선기장표하군 307, 308
선단석 235
선암산 266
『선원보첩』 40
선원전 33, 567
선유락 415
선장 204
선전관 323
선조 72, 75
선혜청 219, 220, 455, 456, 457, 460
선희궁 48, 49, 57
설창 472
성과급 186
성곽제도 247
성균관 유생 156
성문 262
성벽 251, 252
「성설」 166, 167, 168, 169, 205, 236, 280
성신사 239, 285
「성신사상량문」 508
성역소 148, 212, 233, 235, 244
성정군 343, 349, 354, 356
성제 168
성조 402, 403, 439, 442, 443
성주목 214
성호학파 133
세계문화유산협약 587
세계문화유산 화성 587
세곡운송권 189
세람교 130
세류동 130
세손 41
세손궁 40
세심대 49
소가 의장 486
소강시대 192
소라각 271
소령원 42
소론 68, 69, 181
소론계 척신가문 17
소차 492
『속병장도설』 297
속오군 332, 343, 348
속5위 354, 356
손동현 203
손봉욱 414
손삼득 203
손성득 198
송국인 113
송규빈 448
송덕관 398, 439
송덕상 290, 291
송상득 203
송석이 104
송시열 72, 73, 74, 290
송준길 74, 75
송파상인 119
송파장 95
송흠명 50
쇠뇌 268
수가 337, 347
수도 방어 490
수라청 564
수레 242, 244
수레 길 218
수레소 215
수레장이 204
수리시설 137, 138, 144, 151
수문 261, 262, 263
수문청 254, 258
수빈 박씨 43
수성고 148, 150, 151, 498, 532, 564
「수성고설시절목」 150
수성곡 474
수성군 349
수성기구 564
수성 물력 151
수성장 322
수성정리곡 473
수성향곡 473
수성현 87
수어경청 347
수어아병 348
수어장대 266
수어청 299, 316, 317, 321, 333, 347, 448
수원 95, 102, 130, 172, 202, 240, 305, 327, 336, 499
수원공립보통학교 520
수원 구읍성 130
수원군 314
수원군공립소학교 522
수원군청 551, 575, 579
수원군청사 520
수원도호부 83, 123, 309, 328, 507, 573
수원 둔전 468, 469, 475
수원명소보존회 575, 576, 590
수원문화원 580, 581
수원문화재단 526
수원방어영 334
수원부 84, 87, 88, 92, 93, 99, 108, 109, 123, 125, 203, 347, 352, 353, 356, 357, 455, 468, 472, 474
수원부 구읍치 75, 219
수원부 납미군 351
수원부사 91, 92, 105, 110, 226, 495, 496, 503, 507
수원부 신읍치 72, 75, 219
수원부유수 123
『수원부읍지』 124, 549, 555
수원부 읍치 71, 72, 78, 79, 167, 205
수원부 치소 496, 507, 537, 549
수원부 판관 201
수원 상인 453
수원성 575
수원 성곽공사 227
수원성 축성 200주년 585
수원세무소 520
수원시 574, 576, 580, 583, 585, 590
수원 시민 574, 575, 580
수원시 보호수 529
수원 시전 122, 124, 126, 128, 130

찾아보기

수원시청 579
수원 시취 110
수원 시취 시제 107
수원 시취 출신 대·소과 급제자 111
수원 시취 출신 무과 급제자 113
「수원시 화성행궁 관람 등에 관한 규칙」 590
수원 신읍 95, 98, 99, 100, 104, 108, 125, 130
『수원신읍영건공해간수성책』 548, 549, 555, 563
수원 신읍치 83, 91, 95, 325, 326, 573
수원실업협회 577
수원 유생 104, 110
수원유수 193, 462, 472, 499, 503
수원 읍내 77
수원 읍성 498
수원 읍치 76, 226, 326, 494, 495, 499
수원의료원 521, 581, 582, 583
수원장 128
수원진명구락부 발기인 총회 579
수원천 261, 274
수원팔경 262
『수원하지초록』 88
수원행궁 220
수원향교 365, 394, 438
수원 화성 122, 159, 169, 175, 177, 183, 184, 185, 186, 192, 193, 238, 454, 468, 487, 521
수원화성박물관 588
수원화성사업소 526
수원 화성행궁 590
수은묘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2, 53, 60, 64, 167, 380, 491
수차 177
수첩군관 343
숙빈 최씨 42, 51
숙위소 289, 290, 291
숙위소 혁파 291
숙위체계 290
숙의 문씨 65
숙의 최씨 22
숙지산 208, 218, 228, 232, 233, 235
순강원 46
순녕사 370
순령수 306, 308
순조 519
순화방 49
숭교방 49, 50, 53
승애 414
『시경강의』 163
시사 113
시어소 336
시전 96, 97, 98, 115, 124, 125, 126, 128, 453
시전상인 116, 119, 120, 303
시전 육성책 98
시취 93, 102, 104, 105, 106, 107, 108, 109, 111, 439
시파 68, 181, 182, 188, 194
시해사건 326
시흥 305, 309, 347, 352, 394
시흥길 128, 130
시흥참 462
시흥행궁 365, 368, 510
시흥현 439
시흥현령 349, 354
신광수 16
신광식 112
신광혁 398
신기경 326, 499
신대건 113
신대겸 436
신덕왕후 370
신만 16, 31, 33
신만 가문 15, 17
신섬 91
신욱 111
신원 37
신유대훈 15
신유사옥 162
신읍치 71, 86, 128, 216, 217, 496
신읍치 이주민 대책 90
신의왕후 370
신임사화 15, 25
신임의리 25
신풍 514
신풍교 525, 538
신풍대 354, 355
신풍동 579
신풍루 349, 368, 391, 401, 421, 422, 423, 498, 518, 519, 525, 526, 527, 528, 529, 535, 537, 538, 539, 542, 562
「신풍루사미도」 423, 539
「신풍루 상량문」 538
신풍루행각 498
신풍위 354, 355, 356
신풍초등학교 520, 522, 526, 552, 566, 589
신해통공 121, 122, 190, 192
신해통공책 303
신헌조 109
신현 143
신회 16, 17
실학 133
심세득 204
심수진 104
심의진 111, 113
심이지 227, 375, 429, 446, 560
심이진 201
심재덕 580, 581, 582, 585, 586, 587
심지원 72, 74, 75
심풍지 70
심환지 375, 385, 399, 439, 473, 514, 552
심후진 112, 375
「십삼경책」 163
십자거리 219

십자대로 97
십자로 128, 130, 216, 219
쌍서도 211
쌍창 472
썰매 243

ㅇ
아문둔전 149
『아방강역고』 163
아병 306, 308
아산만 115
안도형 91
안면도 210, 211
안문흠 113
안박 111, 112
안사흠 89
안산 305, 309, 347, 352
안산군수 349, 354
안산창 332
안산행궁 487, 510
안숙 89
안양성 89
안양행궁 510
안윤무 89
안윤문 89
안윤집 89
안윤협 89
안익승 582
안자장이 204
「알성도」 394
암문 239, 258
액외장용위 320, 321, 322
액정서 562
야장 204
야조 402, 403, 405, 408, 439, 442, 443
양경 183
양경체제 331, 335, 573
양구 211
양근 305
양대운 414
양로연 368, 384, 390, 423, 424, 425, 428, 429, 554
양로연 행사 423
양마장 248
양성 305, 309
양세득 203
양우소 201
양장 130
양주 305
양주익 303
양주행궁 509, 510
양택풍수설 79
양훈 198
어랑천 216
어린작대 354
어목헌 87
어물전 97, 124, 125
어사대 533, 556
어영대장 330
어영사 330
어영청 220, 228, 299, 316, 323, 330
「어제성화주략」 230, 231, 236
「어제 중용조문」 156, 162
어진 549, 550, 579
어진봉안각 567
어진봉안전 578
어천문 542
엄주 69
엄치욱 204
엄홍복 34
여기산 208, 218, 228, 232, 233, 235
여령 413
『여유당전서』 167, 513
『여유당집』 245
여장 251, 255, 256, 269
여주 이씨 71
역모사건 295
연거 405
「연거도」 408
연마장 204
연섬 413
연애 414
연휘문 532, 550
연희당 372
연희당 잔치 375
『열하일기』 165, 166, 236
염급상전 97, 125
염상 128
영건의궤 231
영괴대 376
「영괴대명」 377
「영괴대비」 376, 377, 378, 380, 382
영남 남인 65, 66, 156
영남무사 298
영남 유생 71
영롱담 212
영롱장 267
영릉 43, 435
영빈 17, 18, 38, 57
영빈 이씨 22, 41, 57
영산포 115
영성장 349
영업전 136
영우원 37, 43, 44, 51, 52, 54, 55, 57, 60, 61, 64, 71, 76, 77, 167, 172, 188, 190, 224, 226, 229, 312, 436, 491, 492, 493, 494, 496
「영우원비」 52
영우원 천장 493
영월 213
영전 567
영조 15, 17, 21, 25, 26, 32, 34, 35, 37, 38, 40, 41, 42, 44, 46, 49, 57
영종행궁 487
「영춘옥음기」 514, 515
영화역 349
영화정 138, 219
영화천 261
영흥본궁 361, 370, 371, 372, 376, 381, 382, 384
오교 263

찾아보기

오군영 289, 297, 299, 303, 306, 314, 316, 321, 322, 330, 343
오군영체제 302, 316
오대손 414
오목천동 130
오사 306
오사체제 309, 321
오산장 92
오성지 254, 260
5소경 184
오위체제 295, 297, 302, 309, 321, 347, 353
오윤항 29
오의상 429
오익환 295
오일장 95
오정원 178
오차포 210
오태운 204
오환의 땅 74
옥구도 앞바다 211
옥이 414
옥혜 414
온양온천 490
온양행궁 361, 377, 382, 509, 510
온천행궁 376, 490
옹성 169, 230, 253, 254, 256
「옹성도설」 167, 169
옹성문루 253
와벽소 200, 201
와벽장 237
와벽장이 204
와장대 266
완영 220
완영상채곡대전 228
왕륜 237
왕륜면 212, 218
왕륜벽소 204, 237
왕륜와벽소 200
왕릉 487
왕세자 아사사건 35
외방겸파총 322, 323
외삼문 519, 528, 568
외성 490
외영군제 349
외정리사 560
외정리소 100, 498, 518, 526, 528, 529, 532, 535, 539, 550, 559, 560, 562, 564
「외정리소절목」 561
외정리아문 529, 560
외척세력 28
외탕고 338, 455
외행각 531
용대 414
용도 274
용도치 276
용양봉저정 365
용연 261, 263, 273
용인 215, 305, 309, 347, 352
용인현령 349, 354
용주사 98, 221
용지 263
용천부 229
용호영 296, 305, 320
우명득 414
우사 309, 312
우유득 204
우음도 211
우이동 231
우조창 240
우초 307, 309
우하영 126, 133, 236
우화관 365, 391, 520, 522, 526, 532, 540, 565, 566
운선 414
운전사 370
운한각 519, 568, 569, 571, 579
원구단 485
원근총안 257
원두표 74
원릉 43
원빈 290
원산포 115
원여장 260
원역고 503
원총안 251
원행 492
『원행을묘정리의궤』 369, 378, 379, 380, 389, 391, 454, 456, 457, 460, 469
원행자금 456, 470
월계강 213
위민행사 539
위외격쟁 190
유광춘 201
유궁 482, 492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1차 총회 587
유문전 216, 217
유방군 345
유백환 111
유복문 531, 548
유사모 549
유성룡 169, 177, 248, 278
유성의 398
유수 226, 549
유수부 177
유억문 542
유언호 257
유엄 398
유여문 532, 550
유여택 498, 518, 519, 526, 529, 531, 532, 535, 549, 550, 559
유옥교 459
유천 261
유철전 97, 124, 125
유포 130
유한지 261
유현부 112
유형거 214, 243, 244
유형원 72, 75, 76, 79, 83, 84, 85, 86, 123, 133, 134, 135, 175, 177, 248

「유화성성역동공제신윤음」 138, 145
유효원 298
육경원 42
육면정 533, 558
육번제 295
육상궁 42
윤강 72, 78
윤동도 17, 31, 33
윤동주 203
윤사범 203
윤서 111, 112
윤선도 71, 72, 74, 78, 79
윤성운 398
윤시동 66, 538
윤애 414
윤염 377, 378
윤영기 398
윤예기 198
윤옥 414
윤지눌 71
윤지민 71
윤지상 71
윤지섬 71
윤지승 384
윤지식 71
윤지운 71
윤지익 71
윤지충 71, 159
윤지홍 71
윤치장 113
윤한동 198
윤행묵 398
윤행임 227, 370, 375, 378, 429, 446, 454, 463, 470, 514
윤혁주 398, 439
윤형동 398
율목동 45
융릉 66
은약헌 518, 519, 541, 549
은전군 291
은주 264
을묘년 원행 497, 519, 531
을묘원행 159, 451, 452, 457, 474, 559
을묘원행 재정 451
을묘정리곡 127, 385, 387, 470, 471, 472, 473, 474, 475
을묘정리곡 분배 내역 471, 472
을사늑약 574
을해역옥 15, 28
음택풍수설 79
읍성 247, 248
읍성론 85
읍치시설 226
응제시 105, 108
「응지진농정소」 163, 165
의대병 23
의릉 60
의빈 성씨 66, 77, 241
의소묘 44, 46
의소세손 39, 40, 45
의열궁 49, 57
의열묘 46, 57
의주행궁 509
이가환 160
이갑 69
이경무 333, 334, 436, 446
이경배 200
이경손 414
이고 71
이관명 15
이관명 가문 15
이광록 203
이광수 414
이광익 429
이광진 91
이광현 32, 33, 201
이국연 398
이궁 479, 482
이귀재 203
이근욱 91
이기경 159
이기형 398
이노춘 69
이도문 198
이득실 204
이득양 111, 112
이득제 436
이득조 111, 112
이득홍 106, 107, 113
이만석 204
이만수 403, 422, 429, 567
이만숙 445
이명식 69, 338
이명연 178
이명운 436
이문원 89, 334
이문환 91
이민채 66
이방운 198
이방일 333
이백연 198
이병모 182, 543
이병정 563
이복영 118
이복원 52, 69
이사관 17
이사순 111
이사철 479
이삼이 203
이서조 111
이석 429
이석조 71, 110, 112
이성계 479
이성관 398
이성원 66, 67, 68, 87, 493
이승언 580, 582
이시백 74
이시수 429, 446
이안청 519, 568, 569
이억빈 398
이언관 445

찾아보기

이연태 112
이영석 111, 112
이완수 198
이왕직 576
이왕직 사무국 577
이용해 204
이용후생학 165
이운영 111, 112
이운행 71, 111
이원영 198, 201, 445
이원진 72
이원형 443
이위 91, 198, 201
이유경 197, 403
이유하 398
이윤손 414
이율 292
이은 16, 17
이응시 72
이응원 65
이의강 493
이이장 45, 46
이이희 111
이익 133, 134, 136
이익상 89
이익운 69, 429, 452
이익제 89
이일휘 375
이재간 70, 493
이재춘 106
이재협 68, 89
이정 28, 200
이정환 112
이조원 391, 422
이종범 91, 198
이종성 17, 28
이주국 70, 194, 436
이중백 204
이창운 70
이창의 17
이천 128
이천보 16, 17
이춘득 113
이태협 91
이택 112
이필대 398
이한문 377
이한홍 113
이항오 398
이해승 201
이해중 31
이현영 69
이형원 377
이홍덕 105
이회검 106
이회겸 105
이후 17
이후원 74
이휘지 69
이흡 398
이흥득 204
이흥손 204
이희 429
이희평 395, 401, 408, 409, 412, 418, 433
익좌문 497, 498
인경왕후 16
인빈 김씨 46
인잉복 89
인현왕후 16, 21
『일본지리풍속대계』 512
일용면 145, 218
일용이면 123
일용일면 123
1795년 왕실 행사 361
1795년 을묘원행 550
1795년 화성행차 381
임경업 317
임만욱 106
임만태 113
임배근 579
임복선 398
임사빈 582
임상덕 33
임성 112
임영대군 묘 72
임오의리 38, 40, 47, 57, 63, 64, 65, 66
『임오일기』 32
임오화변 15, 30, 37, 39, 40, 42, 50, 51, 289
임우상 112
임인삼수옥 15
임정상 111, 112
임준상 398
임준창 91
임진왜란 83, 248, 490
임치우 198
임태원 317
임희계 111, 112
임희존 111, 112
임희창 414
입방군 336, 348, 349
입방군체제 348
입방·협수군체제 350
입번 307
입색전 97, 98, 124, 125

ㅈ
「자궁주갑탄신갱재축」 370
작은끌톱장이 204
잠저 482
잡물소 200, 201
장고 564
장교 321
장남헌 106, 410, 498, 507, 518, 519, 529, 530, 537, 541, 547, 549, 555
「장남헌」 편액 497, 541
장단 305
장대 239, 263, 265
장대석 251
「장대열무갱재축」 370
장득관 398

장락궁 545
장락당 365, 368, 401, 411, 498, 518, 519, 520, 526, 527, 529, 530, 531, 533, 535, 542, 545, 546, 547
장락대 354, 355
장락5위 354, 355
장락위 354
장막군 307, 308
장별대 344
장복문 530, 545
장복인 414
장산곶 210, 211
장시 92, 115
장악원 악공 414, 415
장안대 355
장안문 97, 128, 138, 145, 186, 202, 203, 219, 238, 239, 253, 254, 255, 277, 278, 349, 429
장안위 354, 355, 356
장양문 414
장연 214
장용내군사명 331
장용내사 331, 340, 384
장용내영 334, 335, 341, 345, 559
장용대장 317, 320, 341
장용사 315, 330
장용영 137, 150, 178, 182, 188, 189, 193, 220, 227, 289, 293, 295, 296, 297, 298, 302, 305, 306, 309, 312, 313, 314, 321, 322, 328, 330, 336, 383, 448, 453, 456, 457, 462, 463, 465, 469, 470
장용영 내영 309, 312
장용영 내외영 340
「장용영내외영신정절목」 332, 343
장용영 내외영제 297, 306, 314, 316
『장용영대절목』 306
장용영병방 297, 316
장용영 세악수 414
『장용영신정향군절목』 313
장용영외사 334
장용영 외영 150, 325, 328, 331, 335, 343, 439, 455, 468
장용영전목고 309
장용영 제조 315
장용영 창설 291, 298, 299, 303
장용영 초관 320
장용영 파총 317
장용영 향군 328
장용외군사명 331
장용외사 328, 329, 330, 331, 338, 340, 384, 442, 503
장용외사행궁정리사 499
장용외영 309, 314, 320, 326, 330, 333, 334, 338, 339, 341, 344, 345, 347, 348, 353, 357, 384, 402, 435, 442, 444, 445, 449, 559, 561
장용외영 군대 편성 343
「장용외영오읍군병절목」 351
장용외영 초관 320
장용원 세악수 415
장용위 293, 295, 297, 298, 305, 321, 323, 383
장용위청 307
장용위체제 305
장용청 293, 305
장윤기 414
장인 노임제 241
장인등록제 202
「장인영국도」 173
장전 479
장점복 398
장조 66
장종 66
장준 74
장초군 348
장춘각 518, 522, 551, 558, 567
장포 263
장헌세자 64, 65, 66, 71, 72, 219, 289, 312, 326, 380, 410, 436, 496, 497, 498
재실 568
저승궁 18
저포전 120
적대 239, 255, 275, 277
전답 보상 216, 217, 218
전라우도 128
전라좌도 128
「전론」 164
전방 95, 96, 98, 122
전사 309, 312, 317
전사청 285, 519, 568
전성철 414
전세 302
『전수기의』 169
전재 230
전제개혁론 133, 134, 136
전·좌·우·후사이십초 308
전주읍성 248
전초 309
전패 565
정경행 320
정관지치 546
정군 348
정궁 479
정덕래 398
정동준 178, 189, 539
정동협 198, 201
정릉 370
정리곡 150, 473, 560, 561
정리사 501
정리소 145, 369, 452, 454, 455, 456, 459, 460, 461, 462, 463, 465, 466, 468, 469, 470, 473, 475, 559, 561
『정리의궤』 370
『정리통고』 370
정민시 87, 142, 178, 227, 240, 364, 452, 453, 454, 545

찾아보기

정번군 227, 228
정번료 228
정번전 220
정범조 557
정복룡 203
정사사리 414
정성왕후 320
정수구 107, 111, 112
정수명 414
정숙 105
정순민 398
정순왕후 22, 65, 181, 361, 362, 380
정술주 111
정약용 63, 69, 79, 133, 155, 156, 157, 159, 160, 162, 163, 164, 165, 166, 167, 170, 171, 172, 175, 177, 193, 205, 214, 230, 236, 438, 513
정영 201
정우량 17
정우량 가문 17
정우태 198
정재 연행 413
정전법 134
정조 51, 52, 57, 60, 66, 76, 77, 78, 83, 87, 88, 90, 93, 99, 102, 108, 137, 138, 145, 155, 156, 157, 159, 160, 162, 163, 164, 166, 167, 172, 175, 177,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7, 205, 219, 223, 228, 231, 265, 289, 290, 291, 292, 295, 297, 298, 299, 302, 305, 306, 309, 320, 326, 330, 331, 335, 336, 361, 363, 364, 365, 369, 372, 375, 378, 382, 389, 399, 401, 410, 420, 446, 448, 451, 452, 473, 491, 492, 494, 495, 504, 508, 511, 512, 515, 537, 573
정종 66
정창순 88, 96, 99
정초군 356
정치혁 414
정태화 73, 74
정현 483, 492
정호남 198
정홍순 46
정후겸 65
정휘량 17
제기고 519, 568
제본사 322
제언 144
제조 322
제주로 130
제주 진휼 467, 475
조각장이 204
조계조 398
조기 429
조덕린 27, 65
조도야지 414
조륜 105
조만대 111, 112
조만성 198
조만원 111
조명집 91
조문명 16
조문명 가문 17
조방 98, 559
조상진 160
조석중 429
조선 성제 253
조선시대 건축 545
조선시대 행궁 491
「조선읍성철거시행령」 520
조선총독부 575, 577, 579
조성대 414
조세선 240
조수민 111
조시준 45, 293
조심태 79, 87, 89, 90, 91, 92, 96, 98, 105, 106, 122, 123, 124, 140, 145, 175, 177, 185, 193, 197, 198, 208, 223, 224, 226, 227, 228, 229, 230, 232, 239, 320, 328, 331, 333, 334, 340, 429, 439, 442, 446, 448, 449, 453
조운규 50
조운상 198
조운선 211
조원진 198
조유진 29, 34
조윤식 91
조윤형 256, 272, 538, 542, 552
조재호 17, 29, 30, 34
조재호사건 34
조정진 79
조종현 547
조중남 204
조지서 99, 100
조진관 467
조진도 27
조진도삭과사건 27
조진택 126
조학신 436
조학진 112
조한진 91, 198
종사관 322
종사관소 306
좌사 309, 312
좌익문 391, 401, 525, 526, 528, 529, 535, 537, 538, 539, 540, 542
좌초 307, 309
주교 172
주교사 157, 159, 166
『주교지남』 504
『주례』 482, 483, 492
주문모 159
주자소 369
주조 402
죽령고개 214
준원전 370

준천 지역 218
중군 322
중농주의 133
중량포 43
중사 309, 312
중사 오초 308
중삼문 497
중앙아문 219
중약문 497, 498, 529, 540, 566
중양문 391, 401, 525, 526, 529, 535, 537, 538, 539, 540, 542, 566
중영문 542
『중용강의』 162
중초 307, 309
중포사 284, 559
중협문 519, 568
『증수궁원의』 55
지구관 322
지구관청 307
지락문 531
지방 감영 219
지방편수 204
지장 99
지지대 368
지지대고개 337, 341
지평 215, 305, 309
지하동 138
지혜전 97, 98, 124, 125
직제 305
진남루 97, 497, 498, 518, 519, 528, 538
진련 203
진목정 138, 338
진법교사 336
진사왕 485
진영장 322
진오장 89
진위 309, 352
진위현령 349, 354
진종 52
진칠용 198
진휼곡 451, 467
진휼청 124, 453, 456, 457, 469, 470
진휼행사 539
집복헌 19
집사청 518, 526, 528, 529, 535, 562

ㅊ

차석록 106
차석삼 398
차재윤 576
창경궁 482
창경궁 연희당 361
창덕궁 365, 482, 534
창덕궁 주합루 550
창룡대 355
창룡문 128, 238, 239, 256, 268, 282, 349
창룡위 354, 355, 356
창섬 414
창성부 229
채단 414
채석장 201
채제공 64, 66, 67, 68, 69, 71, 79, 87, 89, 95, 96, 97, 102, 111, 121, 122, 126, 157, 175, 177, 178, 179, 181, 185, 189, 190, 197, 198, 208, 212, 223, 227, 228, 258, 330, 333, 347, 363, 402, 425, 493, 554, 557, 560
책응도청 197, 201
책응소 201
척계광 293, 305, 309, 347
척신가문 17
척신세력 17
천공개물 237
「천릉지문」 513, 515
『천의소감』 15
『천일록』 126, 236
천재일우 72, 74, 78
천주교 문제 160
천주교사건 159
천창룡 204
천총 322
철물 212, 213
철옥 414
청명당 65
청선군주 382, 399
청심루 435
청연군주 382, 399
『청오경』 72
청주읍성 248
초계문신 182
초관 317, 322
초관청 307
총리대신 71, 223
「총설」 167, 171
총안 251, 255, 262
총융사 330
총융청 99, 299, 317, 321, 325, 328, 330, 332, 333, 343, 347
최금산 445
최만빈 398
최명건 198, 443
최삼득 204
최서룡 106
최성욱 398
최오장 414
최운득 398
최윤익 201
최장천 204
최지성 111, 112, 395, 398, 438
최천동 398
최철견 72
최태기 204
최해득 414
최호빈 200
축만제 127, 142, 143, 144, 151
축만제둔 151
춘당대 369
춘운 414
춘천 211
충주 214
충청도 128

찾아보기

취고수 306, 308
취로군 204
치 275
치도 218
치목소 203, 212
치성 239, 247, 275, 278
치중군 332, 343
치중복마군 308
친군위 293, 344
친위군영 314, 357
친위 금위기구 293
친위도시 331
친위부대 182
칠성포 115

ㅋ
쾌성 203
큰끌톱장이 204

ㅌ
타조군 204
탐라 진휼 469
탕평 15, 68
탕평책 69
토성 231
통감관 142
통공무취 126
통구유격장 348
통장 322
통장청 307

ㅍ
파주 305, 309
파총 316, 317, 322, 345
팔달관 518, 565
팔달대 355
팔달동 87
팔달로 97
팔달문 128, 186, 238, 239, 256, 259, 264, 274, 277, 349, 391, 401, 575
팔달산 71, 72, 76, 79, 123, 130, 205, 208, 219, 228, 232, 233, 235, 251, 260, 261, 265, 268, 285, 495, 496, 523, 533, 537
팔달위 354, 355, 356
팔미도 앞바다 211
편수 203
평거 214, 243
평산성 86
평신 215
평안병영 298
평안병영월비전 228
평양 30
평지성 279
포도대장 316
포루 239, 275, 278, 280, 284
「포루도설」 167, 169
포목 지출 내역 460
포사 239, 270, 284
표외송 211
『표의록』 41
표창문 113
표창언 398
표하군 306, 332, 338, 343
풍덕 215
풍락송 211
풍수 61, 72, 77, 83
풍수론 46, 60
풍천 214
풍화당 519, 568, 571, 579
필로 138

ㅎ
하남지 264
하동지 264
하류천 401
하미전 119
하삼도 327
하현궁 92
한강나루 503
한광조 112
『한국구비문학대계』 512
한국세 414
한량군관 322
한명철 201
한상길 414
한세항 398
한송 398
한양대학교 박물관 583
한용집 111, 112
한이형 321
한익모 15
한전론 136
한전제 137
「한정품국도」 558
한종복 414
한종현 414
『한중록』 23, 32, 513
한진욱 203
한차 215
한천석 203
한치유 398, 439
한호란 414
함흥본궁 370, 371, 376
함흥부 229, 230, 370
함흥행궁 370
해남 윤씨 71
해미읍성 247
해주읍성 248
해창 472
행궁 479, 482, 485, 486, 487, 490, 492, 502, 509
행궁광장 526
행궁 복원사업 563
「행궁전도」 522
행궁정리사 561
「행궁정리수성곡조적수용절목」 150, 504, 564
행궁제도 479, 482
행궁지 550
행재 479, 482
행재소 482, 509
행행 479, 482, 502
행행로 501
향군 306, 328
향군 5초 347
향대청 519, 568

향색제조소 306, 307
향춘문 526, 532, 550
허간 112
허욱 72
『현고기』 32
현륭원 57, 61, 63, 71, 76, 79, 88, 90, 91, 92, 93, 101, 104, 140, 167, 186, 188, 189, 219, 298, 309, 314, 326, 328, 329, 336, 339, 347, 357, 361, 364, 365, 368, 378, 380, 381, 384, 399, 409, 459, 487, 495, 499, 502, 507, 512, 515, 537, 550, 560, 573, 579
현륭원 봉안각 549
현륭원 원행 496, 499, 503, 504
현륭원 참배 389, 399, 401
현륭원 천봉 71, 226, 325
현륭원 행차 182, 296, 442
현륭원 화소 302
현안 230, 255, 257, 269
「현안도설」 167, 170
현종 73, 74, 75
협수군 348
협수군체제 347, 348
협수위장 354
협수장 348, 349
형만식 89
형만하 89
혜경궁 40, 49, 181, 361, 362, 363, 364, 365, 375, 380, 381, 382, 512, 513, 515, 519, 530, 545, 557, 559
혜경궁 진찬 365
혜경궁 홍씨 65, 159, 186, 372, 399, 400, 401, 409, 410, 411, 412, 419, 420, 423, 424, 452, 459, 497
혜경궁 홍씨 회갑연 221
혜경궁 회갑연 550, 579
혜빈 41, 409
혜전 216
혜청별하고전 228
호궤 266, 552
호남 128
호매절면 218
호복득 414
호서 128
호위청 291, 292, 296, 314
호위체제 289
호조 219, 220
홍계희 29, 65
홍국영 69, 290, 291, 292, 295
홍낙성 44, 46, 69, 365, 402, 412, 423, 429, 433, 436, 439, 442, 446, 493
홍대협 452
홍명룡 113, 201
홍병신 550
홍복영 292
홍복영 · 문양해 역모사건 295
홍봉한 16, 17, 27, 28, 29, 31, 33, 34, 35, 38, 40, 41, 42, 45, 46, 60, 65, 118, 122, 493
홍봉한 가문 15, 17
홍살문 537
홍삼득 414
홍상범 65
홍상범 역모사건 295
홍상한 45
홍수보 102
홍술해 65
홍시형 112
홍양호 556
홍예 254, 256, 257, 260
홍예문 253, 254, 263
홍예석 235
홍원섭 198, 201
홍윤우 89, 91
홍윤주 88, 89
홍인한 16, 17, 65
홍재전서 568
홍지해 65
홍찬해 65
홍한위 398
홍화문 375
화공 204
화령전 519, 550, 563, 567, 568, 569, 574, 578, 579, 580
화산 61, 167, 172, 380, 507
화서대 355
화서문 217, 218, 238, 239, 257, 258, 273, 275, 349
화서위 354, 355, 356
화성 66, 71, 124, 126, 127, 130, 151, 155, 171, 172, 175, 177, 180, 189, 226, 230, 234, 248, 249, 268, 277, 278, 325, 326, 347, 353, 356, 357, 381, 401, 439, 442, 444, 462, 499, 505, 508, 523, 576, 588
화성 건설 66
화성 건설계획 171, 172, 173
화성 건설 비용 219
화성 계획 167
화성 공역 223, 224, 228, 230, 231, 232, 233, 235, 236, 241, 242
화성군수 579
화성 낙성연 565
『화성능행도병』 394, 399, 415
화성둔전 145, 148, 149, 150, 205, 451, 468, 469, 470, 474
화성민 150
화성 방어 335
화성 방어체제 348, 435
화성 복원 520
화성 봉돈 283, 284
「화성봉수당진찬갱재축」 370
화성부 126, 137, 145, 148, 474
화성 성곽 251, 357
「화성성묘전배도」 394
화성 성역 79, 137, 145, 150, 178, 182, 193, 201, 202, 204, 205, 212, 214, 215, 218, 220, 238, 239, 555
화성성역소 197, 202, 209, 214, 223, 224, 227, 237, 242
『화성성역의궤』 128, 175, 210, 214, 228, 230, 232, 233, 239, 245, 251,

찾아보기

252, 254, 408, 523, 574, 585
화성 성제 76
화성 속읍 354
화성 수성 150
화성유수 128, 227, 329, 330, 331, 333, 507, 578
화성유수부 100, 220, 314, 316, 325, 326, 328, 330, 331, 333, 334, 335, 338, 343, 344, 347, 348, 439, 442, 449, 507, 522, 541, 549, 573
『화성일기』 395, 401, 408, 409, 412, 418, 433
화성장대 265, 439, 443, 445
화성 장락5위 354
「화성전도」 522, 524
『화성정리통고』 159
『화성지』 142, 144
「화성진군제협수추절목급수성절목」 348
화성 천도설 511, 512
『화성추팔경도』 558
화성 축성 402
화성 축성 조직 197
화성 축조 강행론 179
화성 축조 반대론 178
화성행궁 66, 100, 109, 128, 220, 221, 230, 285, 336, 337, 339, 340, 341, 345, 348, 357, 361, 364, 365, 368, 378, 391, 409, 438, 439, 479, 490, 491, 493, 495, 496, 497, 498, 499, 505, 507, 509, 510, 511, 512, 514, 518, 520, 521, 524, 525, 526, 529, 530, 534, 535, 537, 539, 540, 541, 545, 562, 563, 565, 567, 573, 574, 578, 579, 581, 585, 587, 588
화성행궁 개관식 588
화성행궁 건설 498
화성행궁 구조 519
「화성행궁도」 522, 538, 552, 580
화성행궁 복원 574, 575, 580, 582, 583, 585, 586, 589, 590
화성행궁 복원사업 521, 591
화성행궁 복원 장기계획 583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521, 574, 575, 581, 582, 583, 585, 588, 590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발기인 580
화성행궁복원추진준비위원회 창립 총회 580
화성행궁정리수성곡 473
「화성행궁정리수성곡조적절목」 473
화성행궁정리수성향곡 560, 564
화성행궁지 521, 583
화성행궁 진찬 455
「화성행궁」 현판 541
화성행차 178, 186, 190, 191, 335, 337, 338, 339, 340, 341, 361, 364, 369, 379, 380, 382, 383, 384, 385, 387, 389, 409, 410, 423, 435, 443, 445, 449
화성 행행 438
화성향교 390
화성 협수군 348, 349
화성 협수군제 347
화약고 564
화양루 274, 276
화일곡 425, 554
화평옹주 16, 18, 492
화포 336
화포기술 448
화홍관창 262
화홍문 186, 217, 218, 238, 239, 261, 262, 263, 273, 278, 429, 575, 577
화홍문 누각 복원사업 576
화홍문 복원 576
화홍문 복원사업 580
환곡 148, 219
환무미 302
환무첨보전 228
환안제 376
환조 371, 381
환조대왕 370
활쏘기 336, 433, 445, 446, 556
활차 171
활터 266
황기린쇠 198
황명한 112, 113
황상신 204
황승원 547
황윤구 204
황윤창 204
황익재 65
황인욱 91
황정언 198
『황정연표』 467
황주목 214
황주읍성 248
황준이 89
황치욱 201, 445
황해도 214, 215
회갑연 519, 559
회갑잔치 372, 375, 380, 381, 382, 384, 385, 409, 418, 419, 423
회갑 진찬례 542
회령부 229
회장이 204
효의왕후 290, 291
효장세자 17, 29, 39, 40, 52
효종 72, 73, 78
후사 309, 312
후초 307
훈련대장 341
훈련도감 189, 293, 299, 305, 306, 313, 316, 317, 321, 322, 336, 338, 339, 340, 503
휘경원 43
휘령전 33
흉례 486
『흠흠신서』 160, 164
흥경원 42
흥수공 144
흥인지문 257
흥천대 283, 284

집필위원(가나다 순)

김문식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준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현모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리더십연구소 연구실장
신명호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염정섭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달호 전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정숭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승모 전 지역문화연구소 이사장
정정남 경기대학교 연구교수
정해득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외래교수
조성을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봉영 한국항공대학교 인문자연학부 교수
최성환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허용호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수원시사 **17**

수원 화성

발 행 일	2014년 6월 25일
발 행 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031-228-3475 www.suwon.go.kr
디자인·인쇄	홍익문화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2길 28
	02-2274-8110 www.hongeeg.com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77-2
ISBN 978-89-87738-60-4 (전 20권)